존 칼빈 욥기 설교

제1권 · 설교 제1–61편

장 칼빈 설교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vol. 33 (Corpus Reformatorum 61), Brunsvigae 1887, pp. 21–768. CCEL 디지털본 (ccel.org/ccel/calvin/sermons) 기준, 결락 부분은 1563년 제네바 초판으로 보충.

일러두기

- 원문은 칼빈 전집(Corpus Reformatorum) 33권에 실린 16세기 프랑스어 본문이며, CCEL 디지털본을 저본으로 삼았습니다.
- 본문 사이의 작은 표시 CO 21 는 전집 33권의 쪽수입니다. 그 표시 뒤의 내용부터 해당 쪽에 실려 있습니다.
- 설교체를 살려 합쇼체로 옮겼습니다. 성경 인용은 칼빈이 프랑스어로 인용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특정 한국어 성경 번역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 원문에 표기된 성경 장절이 실제 구절과 맞지 않는 곳은 바로잡고 각주에 원래 표기를 밝혔습니다.
- CCEL 디지털본에는 전집 33권 45–46쪽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제2편의 끝과 마침 기도, 제3편의 제목·안내문·첫머리)은 1563년 제네바 초판(Bibliothèque de Genève 소장, e-rara-5810) 11–12쪽을 직접 판독하여 옮겼고, 시작하는 자리에 각주로 밝혔습니다.
- 원문의 “S. Paul” 등은 “사도 바울”처럼 옮겼습니다(번역지침 v2).
- 이 번역은 생성형 AI(Claude)로 초벌 번역했고 신학 전문가의 감수를 거치지 않은 베타판입니다. 번역문은 CC0 1.0으로 공개합니다.

차례

제1편 욥기 1장 설교 1(1:1) 4
제2편 욥기 1장 설교 2(1:2–5) 19
제3편 욥기 1장 설교 3(1:5) 35
제4편 욥기 1장 설교 4(1:6–8) 50
제5편 욥기 1장 설교 5(1:9–12) 66
제6편 욥기 1장 설교 6(1:13–19) 81
제7편 욥기 1장 설교 7(1:20–22) 96
제8편 욥기 2장 설교 1(1:21; 2:1–6) 110
제9편 욥기 2장 설교 2(2:7–10) 127
제10편 욥기 2장 설교 3(2:10–13) 143
제11편 욥기 3장 설교 1(3:1–10) 159
제12편 욥기 3장 설교 2(3:10–19) 175
제13편 욥기 3장 설교 3(3:20–26) 191
제14편 욥기 4장 설교 1(3:25–4:6) 206
제15편 욥기 4장 설교 2(4:6–11) 221
제16편 욥기 4장 설교 3(4:12–19) 237
제17편 욥기 4–5장 설교 4(4:18–5:2) 253
제18편 욥기 5장 설교 1(5:3–7) 268
제19편 욥기 5장 설교 2(5:6–10) 284
제20편 욥기 5장 설교 3(5:11–16) 300
제21편 욥기 5장 설교 4(5:17–18) 318
제22편 욥기 5장 설교 5(5:19–27) 335
제23편 욥기 6장 설교 1(6:1–9) 352
제24편 욥기 6장 설교 2(6:8–14) 367
제25편 욥기 6장 설교 3(6:13–23) 384
제26편 욥기 6장 설교 4(6:24–30) 400

제27편 욥기 7장 설교 1(7:1–6) 419
제28편 욥기 7장 설교 2(7:7–15) 436
제29편 욥기 7장 설교 3(7:15–21) 454
제30편 욥기 8장 설교 1(8:1–6) 471
제31편 욥기 8장 설교 2(8:5–13) 487
제32편 욥기 8장 설교 3(8:13–22) 504
제33편 욥기 9장 설교 1(9:1–6) 521
제34편 욥기 9장 설교 2(9:4–15) 537
제35편 욥기 9장 설교 3(9:13–22) 554
제36편 욥기 9장 설교 4(9:23–28) 572
제37편 욥기 9장 설교 5(9:27–35) 589
제38편 욥기 10장 설교 1(10:1–6) 606
제39편 욥기 10장 설교 2(10:7–15) 624
제40편 욥기 10장 설교 3(10:14–17) 641
제41편 욥기 10장 설교 4(10:18–22) 661
제42편 욥기 11장 설교 1(11:1–6) 679
제43편 욥기 11장 설교 2(11:7–12) 695
제44편 욥기 11장 설교 3(11:13–20) 713
제45편 욥기 12장 설교 1(12:1–6) 730
제46편 욥기 12장 설교 2(12:7–16) 748
제47편 욥기 12장 설교 3(12:14–16) 765
제48편 욥기 12장 설교 4(12:17–25) 782
제49편 욥기 13장 설교 1(13:1–10) 799
제50편 욥기 13장 설교 2(13:11–15) 817
제51편 욥기 13장 설교 3(13:16–22) 835
제52편 욥기 13장 설교 4(13:23–28) 854
제53편 욥기 14장 설교 1(14:1–4) 872
제54편 욥기 14장 설교 2(14:5–12) 889

제55편 욥기 14장 설교 3(14:13–15) 906
제56편 욥기 14장 설교 4(14:16–22) 924
제57편 욥기 15장 설교 1(15:1–10) 942
제58편 욥기 15장 설교 2(15:11–16) 960
제59편 욥기 15장 설교 3(15:17–22) 978
제60편 욥기 15장 설교 4(15:23–29) 995
제61편 욥기 15장 설교 5(15:30–35) 1012

제1편

욥기 1장 설교 1

CO 33:21–34

>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욥 1:1)

CO 21 이 책에 담긴 내용에서 바른 유익을 얻으려면, 먼저 이 책의 요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기 기록된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을 정하시고 당신 뜻대로 처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본분은 온전히 겸손하고 순종하여 그분께 복종하는 것임을 보여 줍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것이 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 위에 손을 드실 때에도,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까닭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의로우시며 공평하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께 원망하지 말아야 하고 그분과 송사를 벌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과 다투어 보아야 우리는 언제나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에서 간추려 붙들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 위에 그만한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뜻대로 그들을 처분하실 수 있으며, 그분이 처음 보기에 이상하게 여겨지는 엄격함을 보이실 때에도 우리는 입을 다물고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이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지 밝혀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그분이 의로우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여기서 우리 눈앞에 놓인 이 사람의 인내를 바라보아야 합

니다. 사도 야고보가 권면하는 대로입니다(약 5:11). 하나님께서 그분이 보내시는 모든 비참을 우리가 견뎌야 한다고 보여 주시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로 내세우고, 그것이 변명거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처럼 CO 22 연약한 사람들이면서도 시험을 이겨 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고난을 주셨는데도 꾸준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견딘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본보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그런 훌륭한 거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인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결말도 보아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도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욥이 끝내 수치를 당하고 말았다면, 비록 그 안에 천사보다 나은 덕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복된 결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소망에서 끊어지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볼 때, 그런 결말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이 순전한 선하심으로 우리를 건져 주실 때까지 그분이 보내시는 모든 것을 잠잠히 견디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야기 말고도 이 책에 담긴 교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곧 욥을 위로한다는 구실로 와서는 그가 겪는 고통 자체보다 훨씬 더 그를 괴롭게 한 사람들에 관한 것, 그리고 그들이 그를 짓누르려는 듯 퍼붓는 비방을 욥이 물리치며 내놓는 대답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고난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고난은 그분에게서 나오지만, 그러면서도 마귀가 그것을 우리에게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영적인 권세들과 싸우고 있다고 경고합니다(엡 6:12). 마귀가 이렇게 불을 지필 때에는 풀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곧 우리를 늘 찌르고 악을 키우고 더하게 하는 데 쓸 만한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이 자기가 겪던 고통 말고도 친구들에게, 아내에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그를 시험하러 온 자들에게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영적인 시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매 맞고 고난당할 뿐 아니라, CO 23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철천지원수이시니 더는 그분께 의지해서는 안 되며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리라는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심어 놓는 경우를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내놓은 모든 말이 노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로우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그를 설득하려 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은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때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고통이나 역경보다 훨씬 견디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탄의 고삐를 늦추시면, 사탄은 자기 종들을 끌어들여 우리에게 이런 공격을 퍼붓게 합니다. 욥이 그런 공격을 견뎌 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논쟁 전체에서 욥은 옳은 주장을 붙들고 있고 그의 상대편은 그릇된 주장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옳은 주장을 붙든 욥은 그것을 서툴게 펼치고, 그릇된 주장을 내세운 사람들은 그것을 그럴듯하게 펼칩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그것이 이 책 전체를 여는 열쇠와 같을 것입니다. 욥은 어떻게 옳은 주장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람의 죄의 분량대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시는 감추어진 심판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또는 저렇게 하시는지 밝혀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람의 죄의 분량대로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는 이 생각을 굳게 확신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믿게 하려는 것과 달리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고 참된 주장이지만 서툴게 펼쳐집니다. 욥은 여기서 이성을 잃고 지나치고 엄청난 말을 하여, 여러 대목에서 절망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 맞서려는 것처럼 보일 만큼 격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옳은 주장인데 잘못 이끌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의 죄의 분량대로 벌하신다는 이 그릇된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아름답고 거룩한 말들을 합니다. 그들의 말 가운데 마치 성령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순전한 진리이며 신앙의 기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고, 그분의 공의를 다루고, 사람들의 죄를 다룹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이의 없이 받아들여야 할 교훈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악합니다. 이 사람들은 욥을 절망에 빠뜨려 아주 무너뜨리려 애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며 우리는 좋은 기초가 있을 때 그 위에 CO 24 모든 것이 들어맞도록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고전 3:10), 그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교리 위에 세웠으므로 잘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짚이나 그루터기나 썩어 없어질 재료를 기초로 놓지 않도록 일치가 있어야 하며, 든든하고 견고한 좋은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 전체에서 우리는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옳고 정당한 근거 위에 서 있다면, 각 사람은 굽히거나 이리저리 빗나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옳고 정당한 주장을 그르치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으며, 우리는 그것을 늘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장을 옳게 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우리는 원수들에게 찔려서 우리의 경계 안에 머물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든 덧붙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단순하게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휩쓸린다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옳은 주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한 단순함 가운데 이끄셔서 그분이 말씀으로 정해 주신 한계를 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나쁜 용도에 쓰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진리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했고 또 더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그들이 거룩하게 말하기는 해도 그들은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부패시키고 거짓되게 남용하며, 그 자체로 선하고 의로운 것을 악한 목적에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알게 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아, 선을 흐리게 하거나 악에 그럴듯한 빛깔을 입히는 데 쓰지 않도록 배워야 합니다. 가장 예리하고 가장박식한 사람들이 흔히 고삐를 풀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속임수와 악의로 남용하며 모든 것을 뒤엎어서 결국 스스로 얽혀 들기만 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이 이런 악덕에 빠져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이 뜻하시는 용도, 곧 순수하고 단순한 용도에 쓰게 해 주시기를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대체로 이것이 우리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책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았으니, 간략하게 짚은 것을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더 자세히 풀어 나가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욥이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추측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가 CO 25 아주 오래된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모세가 이 책의 저자라고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그 혈통에 속하지 않은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고, 만일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결하게 행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워하게 하려고, 모세가 이 거울을 백성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표를 받지 못했고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이 그토록 바르게 처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하지 않으니 미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대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을 붙듭시다. 성령께서 이 책을 이런 용도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았고 할례의 표도 받지 않았지만 온전히 순결

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더욱 힘써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그들을 모으시는 은혜와 특권을 베푸셨으니, 그들은 온전히 그분께 자신을 바쳐야 했습니다. 또 에스겔서를 보면(겔 14:14) 욥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14장에서,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멸망할 백성 가운데 있다 해도 그들은 자기 목숨만 건질 것이고 나머지 백성은 멸망하리라고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세 사람을 유대인들 가운데 잘 알려지고 이름난 사람들로 언급합니다. 이미 말한 대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의도가 무엇인지 압니다. 곧 이방 출신인 이 사람이 그렇게 순결하게 자신을 지켰으니,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교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게 하는 거울과 본보기를 그들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우스 땅 사람이었다고 할 때 그 지명에서 붙들어야 할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땅을 오히려 동방에 둡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애가 4장 (21절)에 같은 낱말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에돔의 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돔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여전히할례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언약의 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욥이 우스 땅 사람이었다고 보면, 그는 에돔사람, 곧 에서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말 1:2). 에서와 야곱은 친형제였고 한 태에서 난 쌍둥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선하심으로 야곱을 택하시고 CO 26 에서는 버리셔서 그의 온 혈통과 함께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 자신에게 있는 어떤 존귀함 때문이 아니었음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장자권이 속해 있던 야곱의 형을 버리시고, 더 작고 못한 자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에서의 혈통에서 났는데도, 그가 얼마나 온전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사람들과 정직하고 공평하게 지냈을 뿐 아니라 불신자들의 우상 숭배와 미신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우리는 봅니다.

욥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어떤 이들은 '우는 자' 또는 '부르짖는 자'로 옮깁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원수 된 자'로 풉니다. 그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활을 쏘아 대는 과녁과 같았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 나라가 여기 명시되고 그 이름이 밝혀진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고 살았으며, 여기 기록된 일들이 그에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 곧 어떤 이름을 빌려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을 우리에게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욥이 실재 인물이었음을 분명히 보여 주는 에스겔의 증언과 사도 야고보의 증언을 이미 들었고, 이야기 자체도 그렇게 밝히고 있으니, 성령께서 그토록 분명하게 말씀하시려 한 것을 우리가 지워 버릴 수는 없습니다.

또 주목할 것은 그 시대에 세상이 이미 하나님에 대한 참된 섬김과 순수한 신앙에서 멀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날보다, 심지어 교황권 아래보다 훨씬 더 온전함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고, 아무 더러움 없는 제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처럼 세상의 대부분이 많은 오류와 거짓되고 악한 망상에 휩싸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작은 씨앗을 남겨 두셨고, 순수한 진리 아래 붙들려 있는 이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한 백성, 곧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셔서 그들이 온 세상의 나머지와 구별되었음을 알게 하실 때까지 말입니다. 욥은 분명 그 이후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 나중처럼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살았는데,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어떤 극한 상황에 이르렀는지도 우리는 봅니다. 바로가 CO 27 사내아이들을 죽이라고 명했을 때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원수들과 큰 싸움을 치르며, 하나님에 대한 섬김도 성막도 아직 마땅히 세워져야 할 만큼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직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을 세우지 않으셨을 때,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늘 작은 씨앗이 남아 있게 하셔서 당신이 경배받으시고, 또 그것으로 이방인들처럼 바른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한 나라 전체를 심판하는 데에는 욥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듯 노아도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잊어버리고 저마다 미신에 빠져헤맸지만, 그는 늘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노아는 불신자들과 반역자들을 정죄하는 온 세상의 재판관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순결하게 섬긴 반면 다른 이들은 우상 숭배와 추악한 일과 많은 오류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과 불신자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뜻을 늘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옛 조상들에게 밝히신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욥이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 이 이야기는 그가 얼마나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정직하게 지냈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그가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말은 꾸밈없는 한결같음을 뜻합니다. 곧 사람 안에 아무 허위나 위선이 없고, 속에 있는 그대로 겉으로도 드러나며,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려고 감춰 둔 뒷방이 없고, 자기 마음과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 펼쳐 놓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 온전히

그분께 헌신하기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 사람들과 라틴사람들에 의해 '완전한' 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완전' 이라는 말이 잘못 풀이되었으므로, '온전함' 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완전이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모르는 많은 무지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완전하다고 불린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 완전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언제나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흐려 놓았습니다. 가장 바르게 걸어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비에 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CO 28 그들을 참아 주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모두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완전' 이라는 말을 쓴 이들이 그 뜻을 바로 알았다 해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반대의 뜻으로 비튼 이들이 있었으니, '온전함' 이라는 말을 붙듭시다.

이렇게 욥은 온전하다고 불립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 안에 위선이나 허위가 없었고, 두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온전함이라는 이 덕과 반대되는 악을 말하려 할 때 '마음과 마음' , 곧 두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먼저 주목합시다. 이 칭호가 욥에게 주어진 것은, 그가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 말하자면 한 눈은 이쪽에 다른 눈은 저쪽에 두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반쯤만 섬긴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께 헌신하려고 애썼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만큼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함을 우리는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바른길을 따르는 사람들도 여전히 절뚝거리며 가고, 늘 연약하여 다리와 날개를 질질 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죽을 몸에 둘러싸여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여 있는 이 모든 비참에서 우리를 풀어 주실 때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완전한 온전함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한결같음에 이르러야 하고, 모든 가식과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또 참된 거룩함은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양을 갖추어 모두가칭찬할 만큼 삶이 반듯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 한결같음과 온전함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샘이 깨끗해야 거기서 흘러나오는 시내도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 맑아 보여도 쓴맛이 나거나 그 안에 다른 나쁜 오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영과 마음의 진실함으로 섬김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5장(3절)에서 말하는 대로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빚어 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욥이 온전하다고 불린 다음에는 그가 정직했다고 합니다. 이 정직은 그가 살아온 삶과 관련되며, 성령께서 앞서 놓으신 그 뿌리의 열매와 같습니다. 욥은 곧고 온전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의 삶은 꾸밈이 없었습니다. 곧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아무에게도 불의나 괴로움을 주지 않으며, 속임수나 악의에 마음을 쓰지 않고, 남을 희생시켜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이웃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여기 덧붙여진 이 정직이 뜻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CO 29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감각 사이에 일치가 있어야 한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지닐 수도 있지만, 마음속 그 뿌리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위선과 허위가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끝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된 온전함을 가지려면 눈과 손과발과 팔과 다리가 거기에 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 전체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는 것, 그리고 속으로 이 온전함을 지키겠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헛된 것이 아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갈 5:25[1]).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셔야

1. 원문에는 “갈 6, 25“로 되어 있으나 실제 구절에 맞게 바로잡았습니다.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사람들의 마음에 들고 높이 평가받는 훌륭한 삶을 산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행해야 한다."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 안에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실제로, 우리의 행위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손이 도둑질이나 잔인함이나 다른 해악으로 더럽혀져 있고, 눈이 악하고 음란한 시선과 남의 재물에 대한 탐욕과 교만과 허영으로 얼룩져 있으며, 성경이 말하듯 발이 악으로 달려간다면, 그로써 우리는 마음이 악의와 부패로 가득하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발이든 손이든 눈이든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없고, 이끄는 것은 영과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이 온전함과 한결같음을 지니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곧 아무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과 공평하게 지냈다고 할 때, 성경이 이 대목에서 보여 주는 이 일치를 갖추는 법을 배웁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신실하게 섬기는지 아닌지를 시험하고자 하시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섬김이나 우리가 그분께 해 드릴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셔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본성조차 가르쳐 주듯 각 사람에게 신의를 지킬 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말로 다투고 이야기를 많이 늘어놓는 것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려 애쓴다며 대단한 열심가 행세를 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웃과상대하게 되는 순간, 그들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자기 이익을 구하고, 어떤 수단으로든 힘이 닿기만 하면 CO 30 자기 쪽으로 끌어오고 속이는 일을 양심에 거리끼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 이익과 유익을 구하는 자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위선자이며 그 마음은 썩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열심가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에 더러움과독밖에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결같음이 있다면 정직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속마음이 순수하다면, 우리가 사람들과 지낼 때 각 사람의 유익을 도모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자신과 사사로운 일에만 빠져 있지 않고 공평을 지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규칙이요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라고 하신 그 공평, 곧 남이 우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 말고는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목합시다. 성령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직하고 한결같았다고 선언하실 때, 욥을 향한 이 칭찬 속에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습니다. 그분이 선언하시는 이 한결같음은 악의로 가득한 모든 사람, 오직 남의 재물을 빼앗고 가로채려고만 하는 모든 사람, 남의 살림을 약탈하려고만 하는 모든 사람에게 판결과 정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바로 이 말씀으로 정죄받습니다.

이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욥이 사람들 사이에서 정직과 공평을 지켰다는 칭찬을 받을 때, 그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각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며 이웃과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자기 본성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덕을 지닌 것처럼 보여도,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 있고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야망이나 다른 어떤 속셈뿐이어서, 그들에게 있는 덕의 겉모습은 모두 그것으로 썩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이 정직을 가질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존중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율법을 두 돌판에 기록하게 하셨을 때 그 둘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목합시다. 앞에서 성령께서 ‘정직’ 이라는 말로 욥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밝히려 하셨듯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실 때에는 그 안에 있던 신앙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 삶을 바르게 다

스리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이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분께 우리를 바치고 그분께 마땅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이고, 이웃을 바라보는 것은 CO 31 그들을 돕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권면받은 대로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묶어 놓으셨으니, 각 사람은 자기의 모든 능력을 모두의 공동선을 위해 쓰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을 바르게 다스리려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분명 허영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삶을 잘 정돈하여 사람들 보기에 흠잡을 데가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칭송하도록 애써 행한 들 무엇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움뿐이며, 성 누가가 기록한 말씀(눅 16:15), 곧 사람들 앞에서 높고 뛰어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일 뿐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눈을 고정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삶을 마땅히 정돈할 수 없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하나님께 눈을 두는 것은 왜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아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이웃이 우리를 필요로 하듯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그분께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분은 당신을 알고, 알고 나서는 그분께 마땅한 것을 드리는 이성 있는 피조물을 두기 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그것은 흔히 말하는 노예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자 주인이시므로 우리가 그분께 드려야 할 공경 때문이라는 것을 주목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렇다면 분명 우리는 그분을 공경하고 온전히 그분의 것이 되기만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압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스스로 밝히시는 그 모습대로, 곧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 아버지다운 선하심을 보이시

는 분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너무나 배은망덕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분이 우리 위에 가지신 주권과 우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며, 우리 각 사람이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배우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 이라는 말 아래 신앙 전체, 곧 피조물이 자기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섬김과 경배가 담겨 있습니다.

온 세상이 바른길에서 벗어나 있었으니, 욥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참으로 탁월한 덕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방탕한 자들 사이에서 지낸다 해도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헌신하지 않는다면 아무 핑계도 댈 수 없다는 것을 배웁시다. 이것은 잘 새겨 두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시덤불 가운데 있으면 자기들은 책임을 면하고 충분히 CO 32 변명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자기들이 타락해도, 흔히 말하듯 늑대들 사이에서 늑대처럼 울부짖어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기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어느 나라에서입니까? 유다에서도, 예루살렘 성에서도, 성전에서도 아닙니다. 아주 비뚤어진 자들 가운데, 더럽혀진 곳에서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 무렵 모든 것이 잔인함과 폭행과 약탈과 그 비슷한 일들로 가득했는데도 그는 자신을 지켰고 이웃과 순결하게 지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한 기회, 곧 날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우리가 권면을 받으며 우리가 넘어지면 그분이 바로 세워 주시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우리 쪽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순결하게 자신을 지키려 힘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욱 큰 수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에 마땅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끝으로 본문에 덧붙여진 말, 곧 그가 악에서 떠났다는 것을 잘 새겨 둡시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과 정직하게 사는 것을 방해했을 모든

어려움과 싸움을 어떻게 이겨 냈는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안으로 돌아와, 만일 자기가 다른 사람들처럼 제멋대로 행했다면 온통 악덕에 빠진 사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으리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은 많은 싸움 없이, 마귀가 그를 비뚤어지게 하여 온 세상의 부패로 끌고 가려고 꾀하는 일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토록 한결같고 온전하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악에서 떠났습니다. 곧 자신을 억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 해도 많은 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많은 멸시하는 자들, 지옥의 불쏘시개요 모든 것을 감염시키는 치명적인 역병 같은 방탕한 자들과 섞이지 않을 만큼 한결같고 순결한 상태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곧바로 타락시킬 큰 걸림돌과 방탕이 있으므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에서 떠납시다. 곧 욥의 본을 따라 그런 공격에 맞서 싸웁시다. 세상에 많은 악덕과 부패가 판치는 것을 볼 때, 그 가운데 섞여 지내야 한다 해도 그것으로 더럽혀지지 말고, 흔히 말하듯 늑대들 사이에서는 늑대처럼 울부짖어야 한다고 말하지 맙시다. 오히려 욥의 본을 따라 악에서 떠나되, 사탄이 우리 앞에 내놓는 어떤 시험으로도 우리를 다시 그리로 CO 33 끌어들이지 못하도록 떠나기에 힘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오염을 씻어 주시도록 맡겨 드립시다.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의 얼룩과 더러움에서 건져 내셔서 CO 34 당신의 천사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사모해야 할 그 영원한 복락에 참여하게 하실 때까지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갑시다.

제2편

욥기 1장 설교 2

CO 33:34–46

>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났다. 그의 재산은 양 칠천, 낙타 삼천, 소 오백 겨리, 암나귀 오백이었고, 종도 많아서 동방 사람들 가운데 그를 따를 이가 없었다. 그의 아들들은 각자 자기 날에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고, 세 누이도 불러 함께 먹고 마셨다. 잔치하는 차례가 한 바퀴 돌고 나면 욥은 자녀들에게 사람을 보내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혹시 내 자녀들이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주님을 저주하였을지도 모른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욥은 날마다 이렇게 하였다. (욥 1:2–5)

CO 34 어제 우리는 성령께서 욥에게 돌리신 칭찬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욥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곧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다시 말해 마음의 한결같음 가운데 행하여 우리 안에 아무 허위가 없고, 동시에 우리의 행위도 그 단순함을 증언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되, 우리의 온 삶을 그분께 돌려야 하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많은 걸림돌에 둘러싸여 있고 마귀는 우리를 좋은 길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꾀하므로, 경계하여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아, 죽음으로 이 세상의 더러움에서 온전히 떨어지게 될 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은 이어서 욥이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하며, 그의 재산

가운데 많은 부분을 여기 열거합니다. 흰 짐승 칠천 마리, 소 오백 겨리, 그 많은 암나귀와 낙타를 가졌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가진 재산으로는 대단한 것이고, 실제로 그가 동방 사람들 가운데 누구보다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이야기되는지는 뒤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재산을 빼앗기고 극심한 가난에 처했는데도 아주 하찮은 것을 잃은 듯 잠잠히 있었으니, 그의 인내는 그만큼 더 칭찬받을 만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철저히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욥의 덕이 어떠했는지 주목합시다. 부가 그를 교만으로 눈멀게 하지 않았고, 그가 세상에 지나치게 매이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저버리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듯이 많은 사람이 부자라는 이유로 너무 오만해져서 길들일 수가 없고, 자기 위세를 남용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릅니다. 그들은 잔인함으로 가득할 뿐 아니라 사치도 심해서, 부에는 나쁜 꼬리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욥이 그토록 부유했는데도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지켰고, 여기 언급된 그 단순함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헛된 말이 아닙니다.

그의 본을 따라 이 세상의 부자들은 자기 본분에 대해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손에 풍요를 맡기셨을 때 그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합니다. 시편도 그렇게 권면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대로(딤전 6:17[2]), 그들은 교만하여 높아지지 말고, 썩어 없어지며 아무 확실함도 없는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아주 부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일 가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물이 덧없고 우리가 곧 그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말대로 부자들은 그것에 기대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가지고 누릴 것처럼 재물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살피고, 언제든 그것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컨대 다른

2. 원문에는 “1. Tim. 6, 1“로 되어 있으나 내용에 맞는 구절로 바로잡았습니다.

곳에서 말하듯이(고전 7:29), CO 35 밭과 포도원과 목장과 땅과 돈과 상품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것을 쓰도록 힘써야 하고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대목에서 주목할 점입니다.

그토록 많은 부 가운데서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를 가시라고 부르셨다고 핑계하지 맙시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욥의 본보기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정죄할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하기가 훨씬 더 힘든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가난 그 자체도 많은 시험을 가져옵니다. 사람이 궁핍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고 바라보게 되고, 마귀는 그를 불신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분을 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당하게 하신다고 여기며, 어느 쪽으로 돌아서야 할지 모르다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는 내 수고로 생계를 꾸릴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그래서 약탈하고 도둑질할 권리를 스스로에게 주고, 이웃에게 해로운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말씀드리건대 이것이 가난이 가져오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비교해 보면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훨씬 더 큰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탄이 언제나 그들 뒤를 따라다니며 그들의 눈을 가려서 자기 분수를 모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잊어버린 그들은 하나님께 맞서 높아지고, 이 세상에 온통 매이며, 하늘의 삶을 비웃고, 아무것도 자기를 해칠 수 없다고 확신하며, 여러 방식으로 자기 위세를 남용하고, 아무것에도 개의치 않으며, 어떤 멍에도 지지 못하고, 어떤 이치에도 굽히려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은 자기와 어울릴 자격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햇빛마저 빼앗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따로 구별되어 마치 별도의 반열에 놓일 만하다고 스스로 믿기 때문입니다. 부가 가져오는 부패는 이런 것들이고, 그 밖에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에게는 아무 핑계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여기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재판관으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졌던 큰 풍요와 많은 재산에도 부패하거나 비뚤어지지 않고 언제나단순함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면, 가난한 사람들도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만한 풍요를 주지 않으신 사람은 큰 세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단순하게 행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강에서 작은 쪽배를 타고 있다고 해 봅시다. CO 36 그도 흔들릴 수 있고 나무나 강둑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도와 폭풍이 훨씬 사나운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탄 사람만큼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리건대 가난한 사람과 부자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모두 물 위를 떠다니며 폭풍에 흔들릴 수 있고, 무엇엔가 부딪힐 수 있으며, 늘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작은 시냇물에 있는 것과 같고, 부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아서 무슨 소용돌이에 빠져 삼켜지는데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자들에게도 핑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단순함 가운데 머물 수단을 주신 이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는 크고 작은 모든 사람에게 쓸모 있는 일반적인 교훈이 있으며, 각 사람이 여기 우리 눈앞에 놓인 본보기에서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욥의 덕은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매우 어렵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악함과 부패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시는 재물을 계기로 그분께 이끌리기는커녕,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토록 많은 부 가운데서도 욥이 눈이 가려져 마음에 교만을 품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허영과 사치에 빠진 방탕한 사람이 되지

않고 시작한 길을 계속 걸어간 것은 놀라운 덕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었던 칭찬받을 만한 덕입니다. 우리가 그와 온전히 같아질 수는 없다 해도, 각 사람이 자신을 살피고 우리 앞에 놓인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부 그 자체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봅니다. 부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상상하는 몽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덕에서 욥과 견줄 만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부를 정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을 다 찾아보아도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이를 하나 찾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부는 그 자체로, 그 본성상 정죄받을 것이 아님을 주목합시다. 부를 가진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온통 썩어 버린 것처럼 부를 배척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큰 모독입니다. 부가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부를 정죄하는 것은 CO 37 하나님을 향해 대드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 안에서 훨씬 더 기적적으로 일하셔야 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재물이 넘칠 때 사람이 단순함과 정직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 부 자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지키시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펼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멸시한다면 그분께 맞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 그 자체를 정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 누가복음에서 나사로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하늘나라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함께 묶으시며 그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분은 거기서 나사로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가련한 사람이어서 모두에게 버려져 있었지만, 천사들이 그를 데려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천사들이 그의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였습니까? 가축과돈과 식솔과 모든 것에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땅과 밭은 예외였는데, 그것은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가 무덤 하나를 사기는 했지만, 기업으로 받은 땅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재산은 매우 컸습니다. 그러니 나사로의 영혼이 천사들에게 이끌려 믿는 자들의 조상인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무한한 선하심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함께 구원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압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하는 것도 이런 뜻입니다 (딤전 2:4). 그는 거기서 군주들과 왕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흔히 자기 위세에 속아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죽을 인간이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몇을 구별하시며, 모두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할 점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스스로를 추켜세우지 말고, 자기들이 곧미끄러질 수 있는 얼음 위에 있는 것과 같으며 가시덤불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찔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그분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려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욥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면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이 왜 명시되는지, 성령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더 잘 보게 될 것입니다. 곧 CO 38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맡기셨던 모든 것을 빼앗으신 것을 그가 참고 견딘 것이 훨씬 더 큰 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처신했는지, 그리고 그가 자기 편에서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어떻게 다스렸는지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을 때, 당신이 뜻대로 당신의 피조물을 처분하실 수 있음을 실제로 보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는지 그 이유를 보지 못해 우리가 당혹스러워도 눈

을 내리깔아야 하며, 그분이 왜 일을 그렇게 정하시는지 밝혀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그분이 의로우시다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이야기된 것을 계속 살펴봅시다. 욥의 자녀들이 날마다 차례로, 각자 자기 순서에 잔치를 열고 누이들을 불러 함께했다고 합니다. 본성이 형제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워낙 악해서 형제애가 무엇을 뜻하는지 살피는 이는 아주 적습니다. 실제로 개와 고양이처럼 원수가 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형제인데도 서로 미움과 원한을 품어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잡아먹고 싶어 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잔인함으로 타락하여 형제들이 화목과 우애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그런 지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각 사람이 너무 자기 자신에게만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는 이는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 눈앞에 거울을 놓으셔서, 욥의 자녀들 사이에 좋은 화목과 사랑이 있었고, 서로 아무 나쁜 의심도 사지 않도록 늘 그 일에 힘썼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들이 연 잔치는 오직 그들의 형제애와 화목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들이 누이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우애가 모든 면에서 드러나도록 말입니다. 이것은 큰 덕입니다. 그러나 욥은 선한 목적으로 시작된 일 가운데에도 잘못이 있지 않을까 두려워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이 일로 노여워하실지도 모른다" 하고 생각합니다. 이 본보기는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특히 형제들 사이의 화목과 우애만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편 (133편)이 하는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니, 들판에 양분과 생기를 주려고 내리는 이슬과 같고,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려 그 향기가 CO 39 그의 옷 전체에 퍼지게 하는 기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 특히 형제들 사이의 평화와 우애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곧 밭과 목장이 하늘의 이슬에서 양분을 얻듯이 그것이

인류를 지탱하게 하며, 또한 아론의 머리에 부은 거룩한 기름의 향기처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향기이며 선하고 기쁘신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서로 사 귀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들도 서로 어떤 애정을 가질 수 있고, 음모를 꾸미려고 한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우애는 하나님에게서 와야 하고 그분께로 돌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 라는 이름이 쓰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에서 하나님께로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조차 사람의 악함 때문에 어떤 부패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뒤로, 그가 자신을 잊어버린 뒤로 우리 본성이 어떠한지 여기서 봅니다. 곧 그때부터 선이 악으로 바뀌어, 우리의 의도가 선할 때조차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선하고 거룩하며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도 흠잡을 데 없는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고, 순수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늘 어떤 섞임, 어떤 부패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정하셨고, 특별히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악덕으로 돌려야 합니까? 선이 악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저주받은 본성에서 옵니다. 소금 한알이나 식초 한 방울이면 포도주를 상하게 하기에 충분한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절도를 지키지 못하고, 그 감정이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잘 다스려지지 않으며, 여러 면에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 욥이 그 자체로 선하고 칭찬받을 일에서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그는 형제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더 나아가 우애를 지키려고 서로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을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욥은 그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의 연약함을 알기에,

절도를 지키면서 그 가운데 어떤 악이 섞이지 않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경계했고 자녀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CO 40 또 주목할 것은, 욥이 경험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을 잘 살피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모든 잔치에는 늘 어떤 무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모이면 때로 음식이 지나치게 많고, 함께 모인 사람들은 평소 자기 몫보다 더 먹고 마십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런 지나침을 생각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거룩한 사람들도 거기에 걸려듭니다. 물론 그들이 배를 채우려고 돼지처럼 포식하는 탐식가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정신이 흐려지도록 술에 취하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은 분수를 넘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생각지도 않은 사이에 거기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좋은 이유로 열렸고, 친구들을 초대하는 사람과 함께하러 오는 사람들의 의도가 선하다 해도, 이런 잔치에서는 벌써 한 가지 악이 행해집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어떤 잘못 없이 지나가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거기 모이면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말이 오갑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처럼 먹고 그분의 천사들과 함께하듯 즐거워해야 할 자리에 많은 허영이 끼어들어 사람들을 휩쓸어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든 들떠서 떠들지 않으면 즐겁게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저는 좋은 사람들조차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다른 나쁜 꼬리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생각해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러 방식으로 노여움을 사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공연히 근심하며,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는데도 그렇게 잔치를 열었으니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을까 의심한 것이 아님을 잘 새겨 둡시다.

가능한 한 가장 잘 다스려진 잔치에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잘못이 있다면, 흔히들 그러듯이 자기 모임과 식탁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는 사람들

은 어떠하겠습니까? 잔치를 열 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까? 아, 그런 것은 울적한 일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은 묻혀 버려야 합니다. 배불리 먹고 나면요? 감사를 드리는 일은 아예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즐긴 잔치를 기억할 뿐입니다. 곧 그들은 돼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잔치에서 누린 즐거움이 모두 슬픔으로 바뀌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면 모든 것이 방종으로 흘러, 추잡하고 방탕한 이야기나 배신과 악의에 관한 이야기만 오가고, 오직 이웃을 물어뜯고 CO 41 이 사람 저 사람을 해칠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뿐입니다. 잔치가 가져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토록 악덕에 기울어 있으므로, 고삐를 완전히 놓아 버리지 않는다 해도 잘못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온갖 악의와 배신으로 음모를 꾸미려고 모이는 자들, 그들 가운데는 지옥의 구렁텅이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대목을 잘 새겨 둡시다. 사람들이 이토록 악덕에 기울어 선을 부패시키고 악으로 바꾼다는 것을 알았으니, 더욱 경계하여 서로 함께 먹고 마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노여움을 사시므로 우리가 늘 스스로 죄를 인정하도록 합시다.

물론 우리는 양심의 가책이나 미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잘 살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빵 한 조각도 마음 편히 먹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겠구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고는"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지어내고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죄를 짓는구나" 하고 말하다가, 끝내는 "그렇다면 아예막 살아 버리자"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우리를 이끄는 곳도 거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서 잘 지켜, 불시에 걸려들지 않도록 합시다. 먹고 마시려고 식탁에 앉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분의 공급으로 먹고 살면서 그분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절제 가운데 머물게 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음식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탱하고 힘을 주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데 더 잘 쓰일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리고 이 썩어질 것들을 지나가며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늘의 삶을 늘 사모하게 해 달라고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존하시는 것은 하루나 열흘이나 오십 년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수 먹여 주시는 것처럼 새 힘을 얻으려고 먹읍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음식으로 양분을 얻고 있지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 그분은 썩을 것에 지나지 않는 이 가련한 몸까지 돌보시고, 당신의 사랑이 거기까지 미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CO 42 그렇게 먹이시고 지탱하시는 것을 볼 때, 정신을 차리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버지다운 사랑을 더욱 확신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고전 10:31).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이 당신의 말씀으로 빵에 이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으로 지탱되게 하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보여 주시고 당신의 손을 우리 위에 펴고 계심을 보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바로 거기서 우리는 그분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 먹고 마시는 일이 이렇게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감사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특별히, 자녀들의 잔치가 한 바퀴 돌고 나면 욥이 그들에게 성결하게 하라고 전하고, 그다음에 그들 각자를 위해 엄숙한 제사를 드

리며 “혹시 내 자녀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끝에 가서 말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욥이 양심의 가책을 지어낸 뒤에 아예 막 살아야 한다고 결론 내리는 사람들 같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욥은 치료책으로 나아갑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참아 주실 것이다. 내 자녀들이 자기 의무를 온전히 다하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러니 그분께 용서를 구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자녀들이 늘 하던 잔치를 금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 자체는 선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욥이 “이것은 악한 일이다“라고 했다면 그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나쁜 일에 구실을 씌우는 것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우리를 악 속에 붙들어 두려고, 각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것이다” 하고 말하며 자기 죄 속에서 스스로를 키우고 추켜세우게 하려고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욥은 악한 일을 계속 유지하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녀들이 서로 그렇게 맞아들이는 것이 잘하는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선한 것을 흠잡으려 하지 않고, 혹시 감추어진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며 치료책을 찾습니다. 곧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 주시도록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욥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봅니다.

또 주목할 것은, 욥이 자녀들에게 성결하게 하라고 전했을 때, 그것으로 그가 어려서부터 그들에게 준 가르침, 곧 CO 43 하나님을 섬기라는 가르침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욥이 그저 주님을 성결하게 섬겼다고만 했다면, 사람들은 “그는 자기 자신으로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자녀들에게는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았다. 자기가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충분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삐를 풀어 주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

로 그가 자녀들에게 성결하게 하라고 전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이미 오래전부터 배우지 않았다면 그것은 헛되고 쓸모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이미 장성하여 각자 자기 집과 식탁을 따로 가졌는데도 욥은 여전히 그들을 어떤 훈육 아래 두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가르침입니다. 곧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이끌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너무 잘못 실천되는 것을 보니 더욱 잘 새겨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자녀를 둔 사람들은 자녀가 교육받기를 원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랑으로 이끌리기를 바라는 사람은 백에 하나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 이익만 생각합니다. 그는 "내 아이가 교육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머리가 좋으면 출세하고, 이름을 내고, 재산을 모으고, 신망과 명예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자녀가 교육받기를 바랄 때 바라보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단순함을 지향하여 "내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나는 만족한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니, 세상 기준으로 가난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면 나는 만족한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버지들에게 그들이 받을 만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그들은 자녀를 출세시키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그들의 눈을 찌르고 그들을 괴롭히는 망나니가 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당하게 징계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욥의 본을 통해 여기서 보여 주시는 가르침, 곧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잘 붙잡아 하나님을 섬기도록 권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더욱 잘 새겨 두어야 합니다.

또 이 사정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욥의 자녀들이 이미 장성했는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들을 겸손 가운데 붙들어 두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 때 그분께 용서를 구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자녀들이 열 살만 되면 자기가 어른인 줄 압니다. 어른 티를 내고 대단한 사람인 양 구는 그들에게는 그 뒤로도 십오 년은 회초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들은 CO44 하찮은 녀석들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어떤 꾸지람도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부당하고 모욕적인 일을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지 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당해도 마땅합니다. 왜입니까? 존경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존경받을 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그럴 만한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권위를 얻어 순종을 받고 그들을 경외 가운데 붙들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그에게 반대하고 대드는 것을 부끄러워할 만큼 그에게 그런 무게와 절제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들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경외를 내던진다면, 자기들도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그들에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니 자녀들이 이렇게 고칠 수 없는 자들로 드러나고 그들을 붙잡아 둘 수 없는 원인은 이것입니다. 아버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정죄를 받습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데 마음 쓰지 않는다면 그들의 무관심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다스림받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기 훌륭한 본보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내가 어릴 때는 나를 붙잡아 두셨지만, 이제와서도 내가 늘 회초리 아래 있어야 하는가?" 하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욥의 자녀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각자 살림을 꾸리고 있었는데도 여전히 아버지의 지도 아래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 이야기하듯이, 그들이 아버지가 명한 것에 반대했다고

본문은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버지가 자기들을 위해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려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볼 때, 허세를 부리고 뿔을 쳐들며 어떤 식으로든 훈육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모든 버릇없는 녀석들은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찮은 녀석들일 뿐인데도 어른 흉내를 내려 합니다. 반면 나이가 들고 살림을 꾸려 갈 만큼 분별 있던 사람들도 여전히 아버지의 지도와 순종 아래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 '제사를 드린다' 는 이 말은 율법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제사에 참여하려면 마땅히 준비되도록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욥은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땅에 있지 않았고, 아마도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때 어떤 정결의 표, 곧 자기를 얼룩지게 하고 더럽힌 오물을 씻어 내는 표를 갖는 것이 언제나 지켜져 왔습니다.[3] 이것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하찮은 일처럼 꾸며 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은 사람들이 당신께 가까이 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우치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우리의 비참함을 알고 부끄러워하며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내 하나님의 위엄 앞에 나설 수 있겠는가? 거기서 무슨 은혜를 얻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어느 시대에나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그 의식은 없지만, 그 실체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곧 기도와 간구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자격 없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그분이 우리를 받아 주시는 길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얼룩을 씻어 낼 수 있는 씻음은 오직 그분뿐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께 나아가, 그

3. 여기서부터 설교 끝까지는 CCEL 디지털본에 빠진 전집 33권 45–46쪽에 해당하므로, 1563년제네바 초판(e-rara-5810) 11–12쪽에서 직접 판독하여 옮겼습니다.

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과 수난으로 우리에게 얻어 주신 은혜를 그분 앞에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옛적에 상징과 그림자로 주어졌던 것들의 완성이요 성취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잘못을 깨달으며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그분이 지금까지보다 더 깊이 그 잘못을 느끼게 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그리고 이 썩어질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많은 악덕에 휩싸여 있음을 알고 우리 육신의 유혹에 맞서며,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돌려세우는 모든 것과 싸우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또 우리가 여러 면에서 부족하더라도 그분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여 오직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바치기만을 구하게 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섬김이 불완전하더라도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빛날 때까지 그것을 받아 주시기를 구합시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만 베푸실 것이 아니라...

제3편

욥기 1장 설교 3

CO 33:47–56

> 잔치하는 차례가 한 바퀴 돌고 나면 욥은 자녀들에게 사람을 보내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혹시 내 자녀들이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주님을 저주하였을지도 모른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욥 1:5)

이 설교는 앞 설교에서 제시하고 이미 풀이하기 시작한 5절 본문을 계속 다룹니다.[4]

어제 우리는 욥이 자녀들을 성결하게 했다는 말, 곧 그들 각자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전했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도, 그 이전에도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먼저 정결하게 되어야 했습니다(출 30:18).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더러움과 오물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하고, 그분께 썩어 악취 나는 시체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옛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 시대가 미숙했기 때문에 그런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씻으려고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피해야

4. 이 설교의 제목·안내문과 첫머리(전집 47쪽 이전 부분)는 CCEL 디지털본에 빠진 전집 33권 45–46쪽에 해당하므로, 1563년 제네바 초판(e-rara-5810) 12쪽에서 직접 판독하여 옮겼습니다. 이 부분의 성경 장절은 초판의 여백 주를 따른 것입니다.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탄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씻기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 안에 있는 악을 깨달으면, 우리 하나님을 노엽게 할 만큼 비참했던 것에 대한 슬픔과 미움이 함께 생길 것입니다(고후 7:9–11).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있던 상징들은 이제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진리와 실체를 붙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비참과 더러움을 살펴 그것을 싫어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피로 우리를 씻고 깨끗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 앞에 깨끗한 자로 나타날 수 있게 해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주일에 하루나 어느 정해진 때에만 할 일이 아니라 평생 계속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유월절 어린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이제 우리가 온전한 순결함 가운데 그 제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고전 5:7–8).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일 년에 한 번 하나님께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평생 그것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셨고 우리가 참여하게 된 그 제사는 영원하며, 그 효력도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만큼, 우리는 아침저녁으로 여기서 일러 주는 일, 곧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율법이 공포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주님께서 내일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출 19:10).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인격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도 CO 47 복음이 선포되는 동안 우리가 언제나 얼굴을 마주하듯 그분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나타내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

러므로 우리에게는 앞서 말한 이 사랑과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곧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을 막는 모든 더러움을 버리고, 온전히 그분께 바쳐져야 합니다.

이어서 욥이 자녀들의 수대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미 간략히 짚었듯이, 욥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까 두려워하면서도 그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람들이 기울어지고 매여 있는 연약함에 대한 치료책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는 율법을 배우지 못했고, 아마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살았을 텐데,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가? 사람들이 믿음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배척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무 확신도 없던 욥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강해에서 짚은 것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율법을 글로 공포하실 때까지, 순결한 마음으로 당신을 부르는 사람들의 씨앗과 남은 자가 세상 곳곳에 언제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홍수직후에 노아의 자녀들, 곧 그 혈통에서 난 자들이 타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토록 무서운 보복에 대한 기억이 아직 생생했는데도, 그들은 많은 미신을 만들어 내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섬김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순결을 지킨 몇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늘 어떤 교회, 당신을 부르는 작은 무리를 두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불신자들에게 정죄가 되어 그들이 더욱 핑계할 수 없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람들은 늘 무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가리려 하고, 그 방패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결로 당신을 섬기는 작은 무리가 언제나 있게 하셨고, 그들은 바른 길에서 돌아서고 헤맨 모든 사람의 재판관과 같았습니다. 욥도 그러했습니다.

또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처음부터 제사를 제정하셨습니다. 만일 제사가 사람의 욕망대로 고안된 것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치실 잡동사니요 원숭이 흉내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알듯이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나은 것으로 여겨진 것은 믿음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벨이 CO 48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방식을 스스로 지어냈다면, 그에게는 아무 믿음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것이며, 믿음은 결코 순종 없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에 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창조된 이래 있어 온 제사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분이 사람들에게 당신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셨을 때, 그 목적과 그것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보여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 깨달음 없이 짐승을 바쳤다면, 그것은 아무 가치도 없고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시면서 그 참된 용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구원에 유익할 수 있는지도 보여 주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자신이 그분께 가까이 갈 자격이 없으며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모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그분과 화해할 길이 아직 있다는 것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목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사를 바르게 쓴 사람들은 마치 어떤 빚에 대해 공증된 차용 증서를 써 주듯이 자기가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에게 율법의 의식들에 대해 말하면서 그것들을 증서와 채무 문서라고 부릅니다(골 2:14). 그것들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짓눌린 채 붙들어 두어, 하나님께서 값없는 자비로 주시는 치료책이 없다면 그들이 영원한 죽음의 정죄를 피할 수 없음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자기가 무엇을 받아 마땅한지를 눈앞에 두는 것, 짐승이 거기서 죽임당할 때 그것이 자기 죄 때문임을 아는 것, 이것만으로도 벌써 매우 좋고 유익한 교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겸손으로 이끄시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그들을 소망으로 기르시려 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비참하다 해도, 죄를 씻어 줄 한 제사가 드려지리라는 소망입니다. 옛 조상들은 이렇게 제사를 썼습니다.

이방인들도 비슷한 일을 했지만 믿음 없이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경배를 드려야 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자기들의 섬김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도 알지 못해서 아무 확신이 없었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무슨 목적으로, 무슨 까닭으로 제사를 드리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흔히 말하듯 모든 것이 되는대로 이루어졌고 헛수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달음과 믿음 없이 드려진 모든 제사를 혐오하셨습니다. 화려함은 충분했지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CO 49 언제나 사도가 주는 이 규칙을 붙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제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근거를 두었을 때에만 가치가 있었고, 겉으로는 아무 가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기록된 율법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온 가르침, 노아가 자기 자녀들에게 전해 준 그 가르침을 가졌던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가르침을 굳게 지킨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통해 그 가르침을 들었다 해도, 그 규칙을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신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하지 않고 당신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욥의 제사가 아무렇게나 드려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노아가 홍수 뒤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정결한 짐승을 골랐다고 하니, 그로써 그가 하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들은 정결하고 깨끗하며 저것들은 부정하다” 하고 짐승을 구별하는 것은 그가

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혼자서 그것을 고안해서가 아니라, 그를 이끌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믿음의 고유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처음부터 사람들이 어둠 속을 걷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몇 가지 증거를 남겨 두셔서 그것으로 그들이 저주받을 자임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들만 있었다 해도 그것으로 불신자들을 정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우리는 사람들이 선하고 거룩한 것들을 비틀어 놓을 만큼 온통 악에 빠져 있다는 것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밝히셨을 때, 그들은 그것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변덕스럽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분을 섬기는 순결함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그분이 우리를 거기 붙들어 두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겉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럴듯한 겉치레를 갖추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붙들며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이방인들의 제사에도,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사람들의 제사에도 성대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배척받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히 여기셨고, 다른 쪽은 그분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대하게 제사를 드렸고, 향과 향료와 그 비슷한 것들을 썼습니다. 율법 아래의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CO 50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그분을 공경하려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인지, 그분의 위엄이 어떠한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서 빚어내고 지어낸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알고서 드리는 섬김 말고는 어떤 섬김도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적이어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소나 송아지를 바치면 하나님이 누그러지실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은 큰 조롱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습을 바꾸셔서, 사람들에게 진노하실 때 그런 방법으로 그분을 달랠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먼저 이 규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상징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하늘의 목적으로 이끌어야지, 우리 마음을 하늘로 들어올리지 못한 채 이 땅 아래 붙잡아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악덕과 죄를 깨우쳐 그것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겉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곧 우리가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지 알며, 우리가 쓰는 의식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 영적인 섬김으로 우리를 이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교황주의자들에게도 우리와 비슷한 의식이 많습니다. 그들도 기도하려 할 때 무릎을 꿇고, 그 밖에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고, 나무나 돌로 만든 인형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로써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그들이 신앙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은 더럽혀지고 속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원숭이 흉내를 많이 내지만 모든 것을 비틀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고안한 것을 따르며, 그런 조각들을 많이 모으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규칙 아래 자신을 붙들어 두지 않으니 헛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분이 그것을 받으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주목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선하고 거룩한 형식조차 많은 사람이 남용한다는 것입니다. CO 51 그들은 짐승처럼 생각 없이 거기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입니까? 물론 여기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감염시키고 부패시킨 교황권의 그 모든 자질구레한 잡동사니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의식 하나를 치르고, 모자를 벗거나 무릎을 꿇으면 자기 할 일을 다했다고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생각에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앞서 말한 그 겸손, 곧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죄 때문에 그분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구하는 길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한 순결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 그분께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웁시다. 우리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면 믿음이 거기에 좋은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 것이고, 그분은 하늘의 본보기이시니,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며 거기에 우리를 맞추어야 합니다. 여기 언급된 제사에 대해서는 이만하겠습니다.

욥이 자녀들의 수대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맡기신 재산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아무 제사도 드리지 않았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단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있던 제사는 이제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서는, 우리가 그분을 부르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섬김이므로, 우리의 모든 선이 그분께 있다고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에 바쳐지게 하려 힘써야 합니다.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서로 나누기 위해서이며, 그래서 아무도 자기 자신에게만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고 하나 되게 하신 지체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모두에게 공통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식에 따라 자신을 일깨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배웠다면, 분명 CO 52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더 큰 열정과 뜨거움을 가져야 하고 더 깊이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능력과 분량이 어떠한지 이렇게 살펴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그분이 우리 손에 무엇을 맡기셨는지 보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받은 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그만큼 더 큰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더 넉넉히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웃과 나누도록 힘써야 합니다. 지혜로운 조언을 가진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조언해 주도록 힘쓰고, 풍족한 사람은 궁핍한 이들을 돕도록 힘써야 합니다. 욥이 자녀들의 수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이 말씀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맞추어야 합니다.

또 욥이 자녀들을 위해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맡은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하며, 어떤 잘못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것은 잘 새겨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 야망이 얼마나 판치는지 우리는 봅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가 많으면 자기 아래,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기뻐합니다. 큰 식솔을 먹일 만한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흐뭇해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은 순전한 야망일 뿐입니다. 거기에 딸린 책임은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이들을 사람들에게 주어 그 아래 있게 하실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큰 영예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영예에는 큰 의무가 따릅니다. 다스려야 할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사시면, 그 가정의 머리요 인도자인 사람은 스스로 책임이 있다고 여겨야 하고, 마치 저질러진 잘못으로 자기가 더럽혀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탄식해야 합니다. 그가 그 일에 동의하지 않았다 해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내가 밤낮으로 깨어 있고 내 자녀들과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쉬지 않고 권면한다 해도, 마땅히 해야 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을 보고, 내 남종과 여종에게서도 잘못을 본다. 누구 탓인가? 내가 그들을 가르치려고 애쓰지만 아직도 흠잡을 것이 많다. 내가 마땅히 보여야 할 본을 그들에게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한다면 그들도 나를 닮아 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쩌면 내 잘못, 내 허물 때문일 수 있다. 그러니 나는 그들이 따르기를 바라는 그런 본을 그들에게 보여야 한다." 자녀와 종들을 거느린 아버지들과 주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CO 53 일이 지금보다 훨씬 잘 정돈될 것입니다.

특히 군주들과 위정자들은 이것을 부지런히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깨어 있어 자기에게 맡겨진 이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고, 걸림돌과 방탕이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자기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

니다. 교회가 마땅히 다스려져야 할 만큼 다스려지지 않는 것을 보거나, 분란과 다툼이 있거나,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독받는 것을 보면, 그들은 그것으로 탄식하며 그 짐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만큼 일하지 못했음을 보여 주신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던 악덕들 때문에 자기가 낮아졌다고 말합니다(고후 12:21[5]).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부끄럽게 하시려 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의 음행과 강탈과 방탕과 그 비슷한 악덕들에 동의했습니까? 그는 모든 면에서 그것들을 꾸짖으려 애썼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방탕으로 가는 길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사람들 보기에 끝까지 자기 의무를 다 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느 정도 부끄럽게 하시려 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도하고 맡았던 교회에 일어난 걸림돌과 방탕을 두고 슬퍼해야 했습니다. 자기 의무를 행하는 데 그토록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도 교회에 어떤 악이 있었을 때 자기가 책임이 있다고 느꼈다면, 그에 비하면 얼음처럼 차가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거의 개의치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지위만 지키면 아무래도 좋다는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 욥이 자녀들의 수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여기 말씀을 잘 새겨 둡시다. 그리고 악이 일어났을 때뿐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미리 막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분께 용서를 구하도록 힘씁시다. 어떻게 말입니까?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고삐를 짧게 잡고, 주인들은 자기 위에서 하나님께서 섬김받고 영광 받으시도록, 자기 집이 온전한 순결로 다스려져 마치 하나님의 작은 교회들처럼 되도록 잘 살펴야 합니다. 더 영예로운 직무와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그만큼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은 백성을 좋은 질서 가운데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분의 영광에 반대되는

5. 원문에는 "2. Cor. 12, 20"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에 맞는 구절로 바로잡았습니다.

모든 것을 잘라 내기에 알맞은 법을 만들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은 질서가 CO 54 세워진 뒤에는 그것이 지켜지도록 잘 살펴야 합니다. 잘못이 저질러졌을 때 눈을 감고 아무것도 못 본 척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예방약을 손에 들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모든 것이 썩어 버리고 마귀가 기세를 떨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틈이 생기고 일이 바르게 돌아가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는 즉시, 흔히 그렇듯 일이 점점 나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한 빨리 바로잡으려 애써야 합니다.

이제 이어서 욥이 "혹시 내 자녀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을지도 모른다"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찬송하다' 라는 말은 때로 '저주하다' 의 뜻으로 쓰입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찬송했다' , 곧 저주했다고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예들을 보게 될 것이고, 이 말이 어떻게 그런 정반대의 두 뜻으로 쓰였는지 더 자세히 풀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기 전에, 욥이 "혹시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본문이 하는 말을 주목합시다. 여기서 우리는 욥이 자녀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협하는 무슨 전갈을 보내시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는 미리 앞서서, 아무도 그를 재촉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를 일깨워 "혹시 내 자녀들이 잘못했을지도 모른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지켜야 할 점입니다. 오늘날 권면을 받고 자기 잘못을 지적받는 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적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악덕이 모든 면에서 다 드러나 있어도, 할 수만 있으면 변명하고 숨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꾸짖으려 하면 오히려 목숨을 건 전쟁을 치를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구원을 도모하는데도 그의 철천지원수가 됩니다.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꾸지람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면, 어떻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을 정죄하고 꾸짖으며 "어쩌면 나나 내 식구들이 이런저런 잘못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 하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욥이 늘

속으로 “어쩌면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 하고 생각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니다. 곧 우리가 모두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각 사람은 자신을 찌르고 재촉하여 스스로 자기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의무를 다하라고 권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그분이 그런 사자들을 보내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말씀드리건대 그들에게 꾸지람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면, 우리가 대드는 상대는 죽을 피조물이 아니라 분명 CO 55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뛰어들려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돌이키려 하신 그 위엄 말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서 말한 대로 욥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해서도 생각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정반대로 합니다. 사람이 변명할 수만 있으면 곧바로 맨 처음 걸리는 사람을 방패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거짓말을 해서 빠져나가려 할 것입니다. 자녀나 종이 있으면 그들을 내세웁니다. “아, 나는 그 일이 처리된 줄 알았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대부분 사람이 이런 핑곗거리를 찾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욥은 짐을 남에게 떠넘기기는커녕, 자녀들이 잘못했다면 자기가 그것을 해명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위선으로 스스로를 추켜세우지 말고, 우리 힘이 닿는 한 바로잡아야 할 악덕을 키우지 않도록 잘 생각하는 법을 배웁시다. 이것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욥이 잘못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공연히 괴로워해야 했는가?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제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충분해 보이는데, “어쩌면 내가 잘못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악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 하고 상상하는 것은

쓸데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먼저 솔로몬이 잠언 28장(14절)에서 하는 말을 붙듭시다. “두려워하는 사람, 또는 스스로 두려워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곧 스스로를 두려워하도록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온갖 악에 빠질 것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할 때, 그는 우리가 혹시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가까이 살피며조심스럽게 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곧 앞날에 대해 두려워해야 하고, 지난날에 대해서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앞날에 대해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길에서 바르게 행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아서, 선지자 이사야가 명하듯이(사 30:2) 하나님의 입에 물어보는 그 분별과 신중함을 늘 갖추고, 우리를 그분의 성령께 맡겨어떤 식으로든 이리저리 헤매지 않을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앞날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난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알지 못했고 많은 악덕이 알아차리지 못한 채 우리 눈앞을 지나갔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CO 56 그것을 생각하여 스스로 싫어하고 자신을 정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날과 앞날에 대해 두려워해야 합니다. 욥이 “혹시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할 때, 그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해도, 이 대목에서 주목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도록 우리 자신을 일깨우는 데 가져야 할 마음씀입니다. 그분이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리저리 벗어나지 않고 그분이 보여 주시는 길에 머물게 해 주시도록 말입니다.

끝으로 욥이 “혹시 내 자녀들이 주님을 찬송하였을지도 모른다“고 말할 때, 이 말은 ‘찬송하다’ 를 뜻하지만 ‘저주하다’ 의 뜻으로 쓰였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것은 더 큰 혐오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것, 곧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을 돌리지 않는 것이 어떤 잘못인지 우리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말이 나올 때

우리는 머리털이 곤두서고 몸서리를 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이 반대의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요컨대 욥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하지 않았을까 두려워했고, 그들이 그분을 찬송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분을 저주하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온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음받고 살아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늘 그 목표, 곧 그분이 우리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분의 영광을 섬기려는 그런 열심과 뜨거운 사랑을 가집시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로 말미암아 모독당하고 저주받는 것과 같다면, 곧 그분이 당신의 형상을 우리 안에 두셔서 거기서 빛나게 하셨는데 우리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없어진 것처럼 된다면, 그것이 참을 수 없고 끝까지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압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만, 곧 그분의 이름이 자기 안에서 모독당하여 그분께 가증한 자가 되기 위해서만 사는 듯한 많은 사람처럼 방탕하지 맙시다. 그런 자들은 본성을 거스르는 괴물과 같다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분이 왜 우리를 세상에 두셨는지 알게 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곧 우리가 그분을 높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직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만을 구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께 복종하며 살았을 때, 그분이 우리 모두를 당신께로 모으실 그 복된 날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4편

욥기 1장 설교 4

CO 33:57–70

>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너는 어디서 오느냐?" 하고 물으시니, 사탄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사냥하다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땅 위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욥 1:6–8)

CO 57 앞에서 우리는 욥이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삶과 처신을 보였는지 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밝혀 줍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운수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눈을 두고 계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니 그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치려 하셨는지는 뒤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끄시며, 그분이 정하지 않으신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짚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려고 성경은 우리의 둔함에 걸맞은 방식을 씁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그 높은 그대로 결코 깨닫지 못하고, 거기까지 이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려오셔야 합니다. 곧 그분의 무한한 영광대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달음이 어떠한지 보시고 거기에 자신을 맞추셔야 합니다. 요컨대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 모습 그대로 결코 알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만큼, 곧 그분이 우리 구원에 유익하다고 아시는 만큼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사들이 엄숙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와 섰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의회를 열고 재판을 여는 이 세상 왕들에게서 빌려 온 것입니다. 성경이 다른 많은 곳에서 보여 주듯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려고 진을 치듯 우리를 둘러싼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를 이끌라고 명하셔서 우리가 그들의 보호 아래 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또 그들이 악인들에게 그분의 진노와 보복을 집행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영인 천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심판을 집행하면서도, 그 사이 늘 그분 앞에 있는 데 아무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CO 58 실제로 우리 주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늘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바라본다고 하실 때,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우리가 그들의 힘으로 보호받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들은 그 사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나아와 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 그분의 위엄에서 떨어져 하늘의 삶을 잃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둔하고 거칠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땅의 군주들에 견주어, 천사들이 스스로의 뜻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더 친근하고 쉬운 방식으로 알게 하려 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이 와서 그분께 보고하고, 그분께 감추어진 것은 하나도 없으며, 천사들에게는 자기만의 따로 떨어진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권세들, 정사들, 능력들이라고 불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직무를 넘겨주셨다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능력을 내려놓으셨다는 것도 아니며, 하늘에서 한가하게 계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천사들은 그분의

능력의 도구여서, 그 능력이 어디에나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6] 그러니 이 대목에서 우리가 거두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사를 다스리시려고 천사들을 통해 일하시되, 모든 것이 그분 앞에서 보고되어 그분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탄도 천사들 가운데 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들이 이해했듯이 그가 착한 종 노릇을 하려고 그 무리에 슬쩍 끼어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는 이것을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곧 스스로 원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온전히 그쪽으로 기울어 있는 낙원의 천사들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원수 되고 반역하며 그분의 위엄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뒤엎으려고 꾀하는 지옥의 마귀들도, 이를 갈면서도 하나님께 복종하여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그분께 보고해야 하며, 그분의 허락과 승인없이는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거룩한 천사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아주 다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인도하고 CO 59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할 때, 그들은 그분께 순종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 말고 다른 성향이 없습니다. 또 그분이 당신의 성령으로 그들 안에 거하시며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대와 끔찍한 반역이 그토록 많은 것을 보며, 그분의 천사들이 온전히 순종하는 저 위에서처럼 여기서도 그분이 평화로운 나라를 가지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들은 강제 노역하는 죄수처럼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곧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렇게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의 능력에 맞서 그것을 짓누르고 싶어 하지만, 그분이 이끌고자 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특별히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고, 마귀는 대적자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사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6. 원문(CCEL)에는 "afifin -tutelle soit espandue"로 깨져 있으나, 1563년 초판의 "afifin qu' elle soit espandue par tout"에 따라 옮겼습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도 때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당신의 형상을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 있는 형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새로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계신다는 보증인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입니다. 군주들과 위정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이 영예로운 칭호가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그 지위에 세우셔서 그들의 인격 안에서 당신이 알려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에게도 붙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불리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며 그분의 광채의 빛살과 같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사들과 능력들과 높은 자들이라고 부르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다고 인정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과 떼어 놓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샘과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들이고, 우리는 언제나 그 근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지는 이 영예가 천사들에게 속한다는 것을 압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안에서 드러나고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우리의 종으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에 우리는 그만큼 더 큰 빚을 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것도 본성상 아들이신 주 예수께서(그분께 이 영예가 속한 것은 나중에 덧입은 은혜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본성상 아들이시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분은 독생자이십니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과 구원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 주셨듯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도 우리를 섬기도록 세워졌습니다. 사도가 CO 60 히브리서에서 보여 주듯이(히 1:14) 말입니다. 또 그것은 야곱의

사다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거기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당신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고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사람들에게로 내려오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하십니다(요 1:51).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우리 구원을 섬기도록 세우신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의 자비에 그만큼 더 큰 빚을 진 것입니다. 또 사도가 말하듯이(히 2:16), 그분의 아들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려고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실체를 입으셨으니,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영예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사람들과 같은 본성을 가지려 하신 것을 볼 때,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힘쓰고 깨어 있는 이 또 다른 은혜가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압시다. 우리의 구원을 도모하는 것이 그들의 고유한 직무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께서는 그들을 사탄과 구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원하는 종들임을 보여 주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그분의 자녀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순종할 때 그것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본성이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며, 사랑이 그를 이끌어 자기 도리를 다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도 그렇게 합니다.

반면에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 보고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원해서 굽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께 맞서 일어나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무너뜨리고 싶을 만큼 엄청난 분노로 불타오릅니다. 그러니 그는 자기의 부패한 본성, 곧 언제나 원수인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의 피조물 위에 최고의 주권을 가지신 분께 억지로 와서 신하의 예를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도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말고 다른 어떤 통치권이 있다고 상상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으니 모든 것이 그분께 복종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합니다. 마귀들도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모습으로 지음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마귀들에게 있는 악의는 그들 자신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교하여 의의 샘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에게서 돌아섰을 때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비뚤어졌고, 그들 안에는 악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에 죄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거기 두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것을 뒤엎으려는 사탄의 간계에 속았을 때 사탄이 자기 악의를 더 멀리 퍼뜨렸기 때문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마귀들은 CO 61 스스로 저주받은 것이며, 그들이 잔인하고 반역과 거짓과 악으로 가득한 것은 성경이 가르치듯 그들이 자기 창조주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할 때, 그를 붙잡아 그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막는 고삐가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 말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릴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한계가 없다면 그는 곧바로 우리 위에서 활개를 칠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는 오직 우리의 멸망만 구합니다. 다른 곳에서 말하듯 그는 우리의 철천지원수이며,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벧전 5:8) 늘먹잇감을 삼키려고 뒤쫓습니다. 그러니 마귀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서 마음대로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고, 고삐 풀린 방종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지 않으신다면, 아, 우리의 처지는 참으로 비참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구제책도 없이 먹잇감으로 내던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질 것이라는 무슨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원수는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고삐에 매여 있어서, 그가 우리 구원에 맞서 아무리 날뛰어도위에서 허락받은 만큼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 조항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도 이 둘을 다 말합니다. 곧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요 우리 위 공중에서 권세를 잡은 자이며, 우리는 아무 힘이 없고, 그는 우리를 삼킬 수 있으며, 우리는 그의 신하나 다름없고, 본성상 그의 사슬에 매인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자신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르지만 모순은 없으며, 둘 다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좋은 가르침을 줍니다. 성경이 마귀에게 그런 권세가 있고, 그가 여기서 다스리며, 사람들이 그의 발아래 있는 것처럼 그의 폭정 아래 있고 그의 사슬에 매여 있다고 보여 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가련함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교만이 어떤지 우리는 봅니다. 그들은 지혜와 덕과 모든 면에서 구름 위로 올라가려 할 만큼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높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그들이 사탄의 노예이며 그의 종살이 아래 붙들려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대단한 귀족인 양 하려느냐? 높아지려느냐? 어떻든 마귀가 너희 위에서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를 꺾으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렇게 낮추신 다음에는 CO 62 그들을 깨우셔서 더 큰 두려움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원수가 없다고, 또는 그가 그리 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태평하게 여기서 평화로운 듯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늘 입을 벌리고 있는 울부짖는 사자이며, 그분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에게 맞설 무기가 없고, 우리의 힘은 그분에게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경계하고 잠들지 않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곧바로 우리를 불시에 덮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이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낮추시고, 그다음 우리에게 두려움과 조심성을 가르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굳세게 해 주시기를 구하며, 언제나 잘 깨어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탄의 권세가 너무 무서워 우리가 용기를 잃고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그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거기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가 불과 불꽃을 내뿜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귀는 미쳐 날뛰며 마구잡이로 덤벼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좋게 여기시는 것 말고는, 그 이상은 결코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끼어든다고 여기서 밝히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가 천사들의 무리와 반열에 속한 것처럼 슬쩍 끼어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도 천사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래 있음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자격은 아주 다릅니다. 성령께서는 그를 대적자라고 부르시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셔서, 천사들은 스스로 원하여 순종하는 자원하는 종들이요, 사탄은 억지로 끌려가며 그 안에는 오직 필연과 강제만 있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제 성경이 덧붙이는 말로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디서 오느냐고 물으시니, 그가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고, 곧 사냥하러 다녔다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을 압시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실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둔하고 깨달음이 작아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맞는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봅니다. 우리가 그분께 CO 63 이르지 못하고 그토록 높이 올라갈 수 없으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맞추시고 친근하게 대하시며 말하자면 모습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좋고 알맞은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 게으르다면 부

끄러워 몸 둘 바를 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가련한 무식한 사람들에게서 모든 가르침을 빼앗으려는 자들의 비열함이 어떤지 봅니다. 그들은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손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 어둠밖에 없으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과 겸손한 자들을 비추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실제로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친근하게, 사람들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밝혀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대학자들과 아주 명민한 사람들, 학교에서 단련된 사람들만 가르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지한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을 맞추고자 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편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뒷걸음질하며 성경의 뜻에 이를 수 없다는 핑계와 구실을 내세운다면 이 무슨 배은망덕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자신을 맞추시는지 우리가 보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보다 거두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사탄의 직무가 무엇이며, 그의 본성이 어떠하며, 그가 무엇에 온통 힘을 쏟는지 보여 주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앞서 말했듯이 그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이 비유를 써서 우리를 깨우고, 우리가 밤낮으로 경계하며 하나님을 불러, 그분이 우리 원수의 모든 공격과 그가 우리를 해치려고 꾸밀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탄을 보지 못할 것이고, 그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무엇을 준비하고 꾸미는지 눈으로 알아차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그의 간계와 술수를 더욱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엡 6:12).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원수들이 있다면 그럭저럭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들에게 맞설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은 영적인 간계들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사탄이 우리 앞에 내놓는 시험들, 곧 그가 우리를 악으로 꾀고 타락시키려 하는 시험들을 통해 그가 우리를 어떻게 대적하는지 알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조항을 확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마귀들은 언제나 우리의 멸망을 꾀하며 땅을 두루 다니고, CO 64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으며, 들어올 길을 늘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그들은 곧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던지려 하고, 우리는 공격받는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걸려듭니다. 각자 경험으로 알듯이, 우리는 마귀가 가까이 와도 느끼지 못하는데, 그사이 치명상을 입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떤 악한 욕망이 느껴질 때, 어떤 사람은 악한 정욕에, 어떤 사람은 이것에, 또 어떤 사람은 저것에 이끌릴 때, 그것은 원수가 그렇게 교묘하게 일하는 것임을 주목합시다. 이렇게 우리는 마귀들이 우리를 대적해 꾸민다는 것을 실제로 압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분별을 주신 사람들만 그것을 압니다. 악인들과 버림받은 자들은 마귀가 그들을 사로잡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말하듯(살후 2:9) 온갖 힘으로 그들 안에서 일하는데도, 마귀가 무엇인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악덕을 비웃을 뿐입니다. 그들은 악에 홀려서 그것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엡 4:19)에서 말하듯 그들은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공들여 꾸며서 그들 안에 들어와 그들의 영혼이 어떤 악한 정욕에 물들었을 때, 사탄이 자기들을 불시에 덮쳤으며 그가 싸움을 걸고 경보를 울렸을 때 자기들이 알아차리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험을 겪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말씀을 믿고 두려워합시다. 마귀들이 먹잇감을 쫓으며 언제나 땅을 두루 다닌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대적을 알지 못해 불시에 당하는 것을 얼마나 원치 않으시는지를 보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가까이 와 있고 어떤 군대가 이리로 오려 한다고 누가 말한다면, 모두가 경계하며 자신을 지키고 그들에게 맞설 온갖 방법을 궁리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적이어서 이 덧없는 목숨을 지키는 데 마음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원수보다 더 위험하고 더 악한 간계와 술수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을 파멸로 던지려 합니다. 이미 다루었듯이 우리는 그가 가진 권세를 압니다. 특별히 그가 우리 가까이 있고, 사방으로 우리를 에워싸며, 우리를 속일 방법이 천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말을 듣고도 우리가 개의치 않는다면, 그것은 짐승보다 더한 둔함이 있다는 표,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삶은 생각하지 않고 짐승처럼 눈에 보이는 것밖에 깨닫지 못한다는 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탄이 쉬지 않고 세상을 두루 다니며 늘 사냥하고 결코 한가하지 않다는 말씀을 들을 때, CO 65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는 그렇게 합니까? 그는 우리 구원의 원수이므로 오직 우리를 자기가 빠진 그 멸망으로 함께 끌고 가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는 내 종 욥을 눈여겨보지 않았느냐? 그는 정직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행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 안에서 사탄을 약 올리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으로 우리를 세상에 두셨는지 봅니다. 곧 우리가 여기서 그분의 능력을 비추는 거울과 같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은혜를 베푸실 때, 그분은 우리를 말하자면 무대 위에 세우셔서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가 우리 안에서 알려지게 하시고, 그로써 우리의 인격 안에서 사탄을 이기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가련한 땅의 벌레인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안에서 사탄을 이기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위에서 개선행진을 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헤아릴 수 없는 영예입니다. 사람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아, 그분의 영광에 쓰일 만한

것을 사람에게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에게는 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뒤 당신의 성령을 우리 위에 부으시고 당신의 은사를 넉넉히 주시며, 그 위에서 우리의 인격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원수들을 이기는 개선 행진을 하고자 하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싸움과 시험으로 우리를 단련하기를 기뻐하실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싸움에서 나오는 열매, 곧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능력이 알려져 사탄이 그 모든 시도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 싸움의 결말이 그렇게 복되다면, 우리가 그 싸움을 참고 견뎌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욥의 인격 안에서 사탄을 약 올리셨듯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고,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성벽과 요새가 되어 주시는 분이 그분이심을 알 때, 우리도 우리의 모든 원수를 향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증거가 되실 때 믿는 사람들은 이길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 준 다음,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고 온전하게 받지 못했고 작은 한 방울밖에 받지 못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는 생명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주셔서 CO 66 끝까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는 이런 확신을 믿는 사람들이 가질 때, 그들은 그 위에서 소리와 마음을 높여 사탄과 죽음과 모든 것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품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보여 주신 그 사랑에서 아무것도 그들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고,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특히 사탄이 욥에게 꾸민 재앙들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뒤에서 풀이할 때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이 대목에 필요한 것만 간단히 짚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욥의 정직을 다루는 대목으로 갑시다. 이것은 이미 모두설명했으니 앞서 다룬 것을 되풀이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 두면 매우 유익한 것을 다시 떠올리도록 간단히 요약하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욥의 삶을 다시 밝히신 까닭은, 그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가 거기에 우리를 맞추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을 하나님과 그분을 섬기는 일에 맞추기를 원합니까? 먼저 이 마음의 온전함을 가져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발과 손과 눈으로 겉모양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앞장서게 합시다. 순수하고 단순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온전히 그분의 것이 되고, 모든 위선을 미워합시다. 우리 삶이 바르게 다스려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바로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정직이 함께 나와야 합니다. 곧 속에 감추어진 것을 겉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좋은 뿌리가 있다면 좋은 열매도 함께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온전히 그분께 복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헛되지 않음을 행위가 증언해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직과 공평을 지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분을 섬기는 경건을 지니는 것입니다. 이 정직이 지향하는 것은, 각 사람이 자기 이익을 구하려고 따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고 하나 되게 하셨으니 서로 나누며, 각자 이웃을 섬기려 힘쓰고, 형제 다운 공동체와 함께 남이 우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 말고는 남에게 하지 않는 공평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시험하십니다. 곧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입히지 않고 오히려 모두를 섬기려 애쓰며 사람들과 정직하게 지내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나 CO 67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것이며, 우리의 삶과 죽음이 그분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마땅함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이 우리 손에 맡기신 것을 그분께 바치고, 그분이 우리 위에 모든 우위를 가지셔야 한다고 고백하며, 기도와 간구로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 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땅속에 숨은 뿌리처럼 마음속에 감추어진 우리의 온전함에 대해 우리가 드려야 할 증언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 마땅히 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욥에게 돌려진 칭찬이며, 그의 인격 안에서 우리는 경고를 받습니다. 곧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고, 마귀가 많은 방해를 일으킬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바른길을 지키려면 도랑을 뛰어넘고 돌을 넘어서며 가시덤불 사이를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지 못하게 우리를 돌려세우고, 아예 우리를 타락시키려는 많은 혼란이 우리 앞에 놓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욥이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 교훈을 실천하는 법을 배웁시다. 온 세상이 썩어 있고, 우리가 가시덤불 사이에 있는 듯하며, 나쁜 본보기밖에 보이지 않을 때, 그 모든 것에 맞섭시다. 왜입니까? 세상이 악하고 비뚤어졌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되어도 괜찮다고 핑계를 댈 만큼 우리가 비겁하다면, 그것은 너무나 하찮은 핑계입니다. 여기 욥이 우리를 정죄하는 본보기로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악에서 떠났다면,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큰 싸움과 큰 어려움 없이는 거룩하게 살 수 없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분은 사탄이 우리에게 퍼붓는 모든 공격을 이기는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가 욥처럼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핑계도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사람들이 천사 같았던 시대에 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욥은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 있었고, 그 시대에는 많은 불의가 판쳤으며, 오늘날처럼 세상에 악덕이 많았습

니다. 그래도 흔히 말하듯 욥은 늑대들과 함께 울부짖지 않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자기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 시대의 부패와 모든 것이 비뚤어졌다는 것을 핑계 삼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재촉하셔서 우리를 물들일 수 있는 것에서 더욱 조심스럽게 돌아서게 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악덕이 CO 68 나쁜 공기처럼 퍼져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어떤 음식에 독이 들었다는 말을 들으면 나는 손대지 않을 것이고, 어떤 곳이 위험하다는 말을 들으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판치는 모든 악덕이 그만큼의 치명적인 역병이라고 선언하실 때 우리는 왜 조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악에서 떠나는 은혜를 베푸셨으니, 오늘날에도 그분이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끝으로 결론 삼아, 사탄이 하나님을 약 올리려고 욥은 공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그토록 복을 주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위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주께서 손을 대 보시면 그때 아실 것입니다" 하고 사탄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가 사방으로 우리를 삼키려 애쓰며, 한 방법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을 보면 또 다른 새 꾀를 지어내고 꾸민다는 것을 봅니다. 그의 작업장에서는 끝없는 간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형통이 세상의 모든 고난보다 사람들을 더 타락시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에는 흔히 교만과 사치와 하나님을 멸시함과 잔인함과 속임수와 그 비슷한 모든 것이 따르고, 또 쾌락과 향락을 가져와서 사람을 아주 짐승처럼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방법으로 욥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탄은 다른 쪽으로 돌아서서, 욥이 고난으로 시험받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는 데 무엇이 알맞은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며, 마귀가 그분께 일러 드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압시다. 다만 이

말씀이 특별히 주어진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가난을 보내시고 우리를 치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형통할 때나 역경 속에서나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짓누르는 필요에 따라 그분께 기도하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언제나 우리를 뒤쫓으며, 우리가 한쪽에서 그를 벗어나면 그는 곧바로 또 다른 새 시험을 일으킨다는 것도 주목합시다. 요컨대 스가랴서에서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여기서 더 자세히 밝혀집니다. 곧 사탄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고발하는 자요 대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가 우리 형제들을 고발하는 자라고 합니다. 특별히 스가랴에게 주어진 환상에서, 사탄은 교회의 머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려고 거기 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비방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CO 69 그토록 강한 상대가 있으며,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손으로 굳세게 되어 왔다 해도 사탄이 할 수 있는 한 우리를 파멸시키려 애쓰는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어 당신의 능력으로 사탄에 맞서 우리를 지켜 주셔서 그의 간계와 술수에 우리가 결코 속지 않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함을 압시다. 이것이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받는 경고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이 사탄의 시험에 맞서 우리를 굳세게 하셔서, 주님께서 당신의 성령의 이길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때 우리가 결코 그 시험에 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5편

욥기 1장 설교 5

CO 33:70–80

> 사탄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욥이 까닭 없이 주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지켜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셔서 그의 소유가 넓게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손을 펴서 그가 가진 것을 치시면, 그가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지 않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네게 맡긴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자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욥 1:9–12)

CO 70 여기서 마귀는 모든 선을 비트는 자기 직무를 하며, 욥이 위선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는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악, 우리가 본성상 기울어 있는 악을 드러냅니다. 그는 교활하고 간사해서 우리를 어느 쪽에서 공격해야 할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마귀가 보여 주는 병이 있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고쳐 주실 때까지 우리가 모두 걸려 있는 병입니다. 곧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치시면 말이 바뀌어 그분께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분이 우리 바라는 대로 대해 주실 동안 그분께 돌렸던 모든 찬양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지 않으시면 드러나지도 알려지지도 않을 위선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들은 편안하고 평안할 동안에는 자기 안의 반역을 드러내지 않고, 그것은 숨겨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토록 자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시고 고난으로 그들을 살피시며, 마치 금을 풀무에 넣듯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정련되게 하시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난은 이 두 가지 쓰임새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우리 안의 악덕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들여지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물러나 더 이상 육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빠지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있습니다. 풀무에서 금을 시험하여 찌꺼기가 있는지 알아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치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 주십니다. 사람들 자신도 이렇게 시험받기 전에는 자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체에 걸러지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고 우리 안에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지만, 그사이에도 우리가 모르는 악덕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이나 괴로움을 보내실 때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느끼게 하시며, 그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어떠한지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그들이 자기를 비추어 보는 거울처럼 쓰게 하신다면, 하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어떤 자인지, 그들 마음에 믿음과 순종이 있는지, 위선자인지 아니면 참으로 그분을 섬기는지를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대목에서 주목할 점이며, 실제로 경험이 그것을 보여 줍니다. 흔히 하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라는 대로 보내 주실 때에는꿀처럼 달콤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고 부족한 것이 없을 때, 이 좋으신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아, 그럴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들을 거칠게 대하시기 시작해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들은 언짢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셔서 더 혹독하게 다루시면 그들은 원망으로 넘쳐흐르고, 그분께 맞서 모독의 말까지 토해 냅니다. 입으로 말하지는 않더라도 그 마음은 독으로 가득해서 재갈을 씹으며,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대하신다고 그분께 분을 품습니다. 그러니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CO71 많겠지만 그것은 위선일 뿐입니다. 스스로 위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자들이 가장 나쁩니다. 자기를 너무 추켜세워서 자기 악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여기서 사람들이 걸려 있는 병들을 살펴보았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원수를 상대하는지 봅니다. 그는 우리에게 상처를 입힐 틈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보려고 사방으로 우리를 엿보고 살핍니다. 그러므로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긴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새겨 둡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많은 재앙과 비참으로 단련하기를 기뻐하실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고삐에 매여 있고, 그분께 복종하는 겸손을 지니며, 그분의 모든 징계를 받아들일 만큼 참고 잠잠해야 합니다. 이 시험,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참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모든 섬김은 대단한 것이 못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형통할 때에도 당신의 백성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왜 우리를 고난의 체에 거르시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을 더욱 잘 붙들어야 합니다.

또 여기서 사람들이 고난으로 혼란에 빠지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분을 저주할 것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이 단번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아직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괴로움을 당하면 우리는 속으로 투덜거리고, 이따금 분을 품기도 하겠지만,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여전히 끔찍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언짢아하다가 고통이 더해지거나 너무 오래가면, 그때는 우리의 조급함이 불처럼 타올라서 전에는 아직 마음속에 꼭 닫아 두었던 것을 토해 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분을 저주할 것입니다. 곧 그들은 분수를 넘어 흘러넘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고 그 아래 자신을 낮추지

않으며, 자기가 그분께 반역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전에 자기를 방종하지 않게 막아 주던 그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더는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처럼 우리 혀에도 재갈을 물려 주셔서, 우리가 드러내 놓고 그분을 저주하는 지경까지 결코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분이 보내시는 징계의 결말이 복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과 구원이 되게 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치실 때 그분의 뜻도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대목에서 우리가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CO 72 그런데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셨고, 그의 집을 사방으로 지켜 주셨으며,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할 때, 그는 여기서 참말을 한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이렇게 그는 빛의 천사로 모습을 바꿉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도 일을 꾸며 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려고 쓰는 그런 속임수는 그 자리에서 통하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참된 원리를 취하지만, 그것을 악하게 적용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는 오직 욥의 멸망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존된다면 하나님께서 손을 쓰셔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우리의 삶이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많은 가련함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 분도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마찬가지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단단히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다면, 그 자신이 와서 우리와 우리의 인격을 삼켜 버릴 자입니다. 본문이 진행되면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허락을 받자마자 욥의 모든 재산을 긁어 가는 것과 그가 얼마나 사납게 덤벼드는지를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 그전에는 욥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고 그 은혜가 그를 사방으로 둘러싸는 울타리

가 되어 주어야 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강도들로 가득한 숲속에 있는 것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경고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분께 이런 칭호들을 돌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방패요 큰 방패이시며, 성벽이요 해자요 울타리요 보루요 망대요 요새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귀한지 나타내려고 그토록 많은 말을 씁니까? 그분 없이는 우리가 하루에 십만 번이라도 멸망할 것이며,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지켜 보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자기 삶이 아무것도 아니고 더없이 연약하며 무수한 죽음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분의 보호 아래 받아 주시기를 기도하도록 재촉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 주셨다는 것을 알고 모든 찬양을 그분께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이 대목에서 지켜야 할 점입니다. 모든 진리의 원수인 사탄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고 고백하고, 마치 고문대에 묶인 듯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데 CO 73 우리가 사탄보다 덜 고백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배은망덕이겠습니까? 사탄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흐리게 하고 아예 없애서 그것이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만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마귀보다 더 나쁘며, 아주 짐승처럼 되고 홀린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이만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몸에만 손대지 않으면 그의 모든 재산에 대해 좋을 대로 하도록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처음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종 욥을 이처럼 사탄의 욕심에 내맡기실 수 있는지 놀랄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임을 얻어서, 우리에게 해를 끼칠 허락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말인가? 그분이

그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를 공처럼 가지고 노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탄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를 기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분은 그에게 품은 호의에 움직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당신의 계획 안에서 정해 두셨습니다. 그분은 사탄의 요청에 움직이시거나 이끌려서 욥이 그렇게 고난받는 것을 허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의 계획 안에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사탄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치기 원하셨고, 정당한 이유로 그것을 원하셨으며,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해도,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모든 일에서 의롭고 공평하시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할 첫째 조항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사탄의 요청에 움직이신 것처럼 그의 청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여 욥을 치시려고 사탄이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을 약 올리시고, 그를 부끄럽게 하여 그를 이기는 더 큰 개선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분을 저주할 것이라고, 곧 그렇게 혹독하게 매를 맞으면 입을 열고 모독할 것이라고 단단히 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어떤 자인지, 곧 우리가 금세 물처럼 흘러 버리고 우리의 모든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하고 이길 수 없는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을 느끼고 겪지만, 그래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속습니다. 그가 셈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힐 허락만 받으면 우리는 곧 패하고 금세 슬픔에 삼켜지며, 절망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바라고 노리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서시고 그가 바란 것을 비웃으십니다. 그분은 CO 74 거기에 당신의 성령의

은혜를 앞세우시고,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시도하려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모든 것이 자기 의도와 정반대로 뒤집힌 것을 보며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이 어떻게 끝날지 아시고 당신의 계획 안에서 그를 치기로 작정하셨으며, 사탄에게 그렇게 하도록 이끌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여기서 그것이 사탄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매를 맞을 때 사탄이 그것을 부추긴다는 것, 그것도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부추긴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인용한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일깨워 주는 것도 이것입니다. 곧 우리는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닥치면 곧바로 사탄이 그것을 꾸몄음을 압시다. 그래야 믿음으로 그에게 맞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며, 사탄이 우리 안에서 그토록 큰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우리를 굳세게 하실 수 있는 분께 피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바라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선하심도 보여 주려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참아 주시며, 우리 원수가 바라는 만큼의 방종을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우리 구원에 알맞다는 것을 아시지 않는 한 우리를 치기를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치시는지 모를 때에도 그분이 의로우시다고 늘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확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이 가르침도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다정하게 사랑하셔서 오직 우리를 바로잡으시기만을 구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며,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고 계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탄이 와서 불을 지피고 욥을 박해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볼 때, 성경이 이것을 보여 준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우리를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우리 원수의 고소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하고 편하게 두시기만을 바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으로, 그것도 사탄의 손으로 이렇게 단련받는 것이 좋으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좋고 유익하다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건대 이것이 우리가 주목할 점입니다.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대조되는 예로 봅시다. 열왕기상 마지막 장(22 장)에도 하나님께서 재판을 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여기와 같은 묘사가 CO 75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누가 나를 위해 아합을 꾀어내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는 사탄이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그는 와서 "제게 아합을 속일 허락을 주시면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아합을 속이러 갈 거짓말하는 영을 내가 어디서 찾겠느냐? 나는 그가 지옥 깊은 곳까지 떨어지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위선자요, 잔인함으로 가득한 멸시자요, 모든 선의 철천지원수인 자에게 정당한 보복을 집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전체를 비틀어 놓고 자기 우상들로 모든 것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에게 반역과 악의로 가득했고, 어떤 권면에도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 악덕에 그렇게 굳어져서 그를 바른길로 돌이키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도해 보시고 그가 멸망할 사람임을 보실 때, 그때 그분은 재판을 여시고 "누가 아합을 꾀어내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재판관의 직무를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시고 그들이 받아 마땅한 대로 그들에게 진노를 집행하려 하실 때에는 사탄의 부추김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먼저 나서신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대

목에서 욥을 치는 일,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가운데 하나를 혹독하게 다루시는 일에서는 그것이 원수의 고소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사탄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이유를 이 차이가 보여 줍니다. 그러니 성경은 모든 면에서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가르치려 한다는 것을 잘 새겨 둡시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을 알고 그분을 높일 계기로 삼게 하고, 동시에 모든 악인을 향한 그분의 보복이 의롭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벌하실 때에는 당신의 직무를 하시는 것이어서 온 세상이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공경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탄을 쓰신다는 것이 여전히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마귀들이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어서 그분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조항이 우리 안에 확고하지 않다면 우리는 곧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마귀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분이 악인들에게 내리시려는 벌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인과 같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매와도 같습니다. 요컨대 마귀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되어 그분의 뜻을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피조물 위에 최고의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그들을 굽히시고 원하시는 곳으로 돌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CO 76 여기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치도록 허락하셨을 때, 그분은 "보아라, 너는 그의 모든 재산에 벼락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욥의 재산을 모두 망친 뒤에도 "너는 그의 몸을 칠 수 있으나 그의 영혼에는 다가가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욥의 영혼을 남겨 두셔서, 사탄이 그의 재산과 죽을 목숨과 명예에서만 그를 괴롭힐 수 있었음을 봅니다. 사탄에게는 영혼에까지 들어가 욥을 꾀어 조급함으로

넘쳐흐르게 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반대되는 비유로 더 잘 이해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불신자들에게 당신의 진노를 집행하도록 허락하실 때에는 그들의 재산이나 질병이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치는 것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아가십니다. 곧 그에게 미혹하는 힘과 속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앞서 든 아합의 예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아합을 꾀어내겠느냐?" 하시니, 사탄이 "제가 그의 선지자들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이것보다 훨씬 큰 허락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아합이 어떤 외적인 수단으로 속는 것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진리라는 구실로 그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도 이것입니다(살후 2:10).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거기에 따르려 하지 않을 때, 특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그토록 불행하게 그 은혜를 거부하고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은 모든 바른 가르침을 비틀어 놓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믿음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혹하는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깊이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 뜻이 매우 무겁기 때문입니다. 미혹하는 힘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당신의 빛을 거두어 가셔서 우리 정신이 흐려지고, 우리가 둔해져서 짐승만큼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덩이가 우리 눈앞에 훤히 열려 있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거기에 떨어질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우리를 속이고 꾀며, 아예 눈멀게 하고 홀릴 권세를 주셨으므로, 우리 안에 더 이상 아무 분별도 지혜도 없어서 어디로 몸을 돌리든 또 새로운 속임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건대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신자와 버림받은 자에게 이렇게 일하십니다. 사탄에게 미혹하는 힘을 주셔서,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그가 그들을 속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당신의 백성을 CO 77 치실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그들을 공격해도 그들은 언제나 보호받으며, 그의 시험을 물리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무장시키셔서, 사탄은 허락받은 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빗장을 질러 두셔서, 그가 아무리 날뛰어도 짧게 매여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 허락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할 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그분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생각을 따르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탄에게 우리를 꾀어낼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기세를 주시는지 의아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상상으로는 그것이 매우 이상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더 잘 깨닫게 될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높이는 법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질 때까지 그것을 경배하며 경탄해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온전히 알기에는 우리의 분량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에 온전한 계시를 받을 때까지 부분적으로 알면서 겸손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성경이 보여 주는 것은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쓰셔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 마땅할 때, 특히 그들이 진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할 때 그가 언제든 그들을 꾀어내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거짓으로 휩쓸려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때로 그들도 사탄에게 내맡기셔서 그들이 꾐에 빠지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욥도 이 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다윗 이야기에서도 그것을 봅니다. 그가 백성을 계수했을 때 그 일은 어디서 왔습니까?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계수했

을 때 이 모든 악을 부추긴 것은 마귀였다고 말합니다(대상 21:1).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하나인 다윗도 때로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속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 거기 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다윗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는 사람들 위에 사탄에게 그런 기세를 허락하시는 것은 잠시뿐이라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래서 그의 힘은 불신자들과 모든 반역자들 위에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구별을 두는 것은 까닭이 없지 않습니다(엡 2:2). 그는 사탄이 CO 78 지금 모든 불신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그분의 교회에서 잘려 나간 자들 안에 사탄의 나라를 둡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그의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을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려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혹독하게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자기에게 가해지는 공격에 맞설 때,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곧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려 있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통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당신의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실 때, 그것은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약처럼 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봅니다. 사탄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독과 해악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그에게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는 죽음의 임금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든 것은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삼키는 데로 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 안에 있는 악이 우리에게는 구원으로 바뀌는 길을 찾아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치료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그토록 높은 계시들에 대해 말한 다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대비하셨다“(고후

12:7[7]).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좋고 매우 유익한 대비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교만은 우리를 깊은 구렁으로 던지며, 하나님을 그보다 더 노엽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교만한 자들, 어떤 식으로든 자기 힘을 믿는 자들의 원수임을 드러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잡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도 그런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는 "그분이 사탄의 사자를 내게 보내셔서 나를 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탄이 사도 바울 안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일하는 것을 봅니다.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물론 사탄은 사도 바울을 삼키려 했고, 그를 타락시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만두게 하고, 끊임없이 겪는 환난과 비참에 지쳐서 그리스도교에서 조금 물러나게 하려는 것이 그의 의도였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목적을 바라보십니다. 곧 당신의 종이 자신을 잊지 않고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두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손바닥으로 맞습니다. 그는 특별히 이 비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전장의 군인처럼 단련하셔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치욕과 모욕으로 그의 뺨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그토록 뛰어난 은사를 받은 거룩한 사도가 거기서 사탄에게 복종해서, 사탄이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에게 많은 모욕을 주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모든 가시를 우리에게 약으로 쓰게 하시고, 그 CO 79 방법으로 우리 안에 숨은 악덕을 씻어 주실 때, 그분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처음 보기에 그분의 심판이 우리 생각에 너무 혹독하고 우리가 육적인 감각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해도,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을 높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치도록 허락하시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고 금하셨다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만하겠습니다.

7. 원문에는 "2. Cor. 12, 8"로 되어 있으나,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탄의 사자가 주어졌다는 말은 7절에 있으므로 바로잡았습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사탄의 공격을 받아 많은 혹독한 공격을 당하도록 허락하실 때에도, 그분은 우리의 분량을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아시며 절도 있게 하신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끝으로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으셨다는 듯 사탄이 제 좋을 대로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탄의 분노가 어떠하며 그의 몸에 밴 방식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곧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복종해 있다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악을 다했으며, 자기의 반역을 마음껏 부려 욥의 재산 위에 벼락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곧 사탄이 자기가 얻은 허락을 실제로 드러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여기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우리에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 눈에 드러나는 일들도 이야기합니다. 곧이어 욥이 모든 재산을 빼앗긴 일, 그의 자녀들이 죽은 일, 그가 몸으로 고난받은 일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것, 곧 하나님께서 재판을 여셨고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으로 정해졌으며 그분의 섭리 없이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알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어나는 일들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CO 80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어나는 외적인 일들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자기의 모든 이성과 타고난 감각 위로 올라 가는 믿는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 위로 들려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위엄을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성경은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고 말하면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곧 그가 어떻게 욥을 쳤는지가 눈에 보이게, 드러난 방식으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의 뜻입니다. 또 이것은 언제나 사탄의 본성을 나타냅니다. 곧 그는 고삐 풀린 분노로 모든 것을 삼키려는 듯 불과 불꽃을

내뿜으며, 요컨대 시험하는 것이 그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받으셨다고 말할 때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말과 칭호는 특별히 사탄에게 붙여집니다. 왜입니까? 그는 오직 모든 것을 파멸시키고 인류를 혼란에 빠뜨리려고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가하지 않고, 두루 다니며 우리를 자기와 함께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분주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벗어나 모든 것을 비틀어 놓기만을 구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과 보호 아래 받아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받아 주시면 사탄이 우리에게 꾸밀 모든 환난에서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서 멀어지시면, 그분이 우리 손을 놓기만 하셔도 우리는 곧 사탄에게 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편으로 자신을 낮추고 두려움과 조심 성 가운데 행하도록,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부르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며, 큰 어려움 가운데 싸워야 한다 해도 그분이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확신할 수 있음을 알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립시다.

제6편

욥기 1장 설교 6

CO 33:81–92

> 하루는 욥의 아들딸들이 맏형의 집에서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심부름꾼이 욥에게 와서 말하였다. “소들은 밭을 갈고 있었고 암나귀들은 그 곁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쳐 그것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날로 쳐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피하여 주인께 알리러 왔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 떼와 종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피하여 주인께 알리러 왔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갈대아 사람들이 세 무리를 지어 낙타 떼에 달려들어 그것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날로 쳐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피하여 주인께 알리러 왔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의 아드님들과 따님들이 맏형의 집에서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광야 쪽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와 그 집 네 모퉁이를 치니, 집이 젊은이들 위로 무너져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피하여 주인께 알리러 왔습니다.” (욥 1:13–19)

CO 81 하나님의 천사들이 믿는 사람들을 두루 둘러 진을 친다고 합니다 (시 34:7[8]).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게 둘러싸이고 지켜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향한 사탄의 분노가 어떠한지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떤지 잘 살펴보면, 우리는 십만 가지 죽음에 노출되어 있어서 한 걸음도 다치지 않고는걸을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이란

8. 원문의 “시 34:8“은 시편 표제를 1절로 세는 방식에 따른 것으로, 한국어 성경의 34:7에 해당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곧잘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엿보며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꾸미는 사탄의 악의가 어떠한지는 충분히 살피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꾸며지는 사탄의 모든 공격과 싸우는 당신의 천사들에게 우리가 지켜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일깨우려 하셨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대적이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들을 우리를 지키는 데 쓰시고 그들이 우리 구원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방금 짚은 것을 더 잘 알기 위해 먼저 주목합시다. 욥은 여기서 여러 방식으로, 곧 그의 모든 재산과 그의 자녀들에게서 고난을 당합니다. 사탄은 고삐에 매여 있어서 그의 몸에는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었고 그의 재산에만 손댈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자기에게 CO 82 내맡기셨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그리고 욥에게 자기 목숨만큼 소중한 그의 자녀들이 그 값을 치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재산도 자녀도 한 가지 방식으로 잃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보내는 간계를 씁니다. 한쪽에서는 원수들을 일으키고, 다른 쪽에서는 하늘의 벼락과 공중의 회오리바람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종은 여러 방식으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것은 그의 슬픔을 키우고 그를 더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 사람들만 내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대적해 싸우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간계가 이런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인내의 비유 같은 것을 내놓으셨을 뿐 이것이 실제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들을 다루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식으로입니까? 우리가 모두 똑같이 시험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마땅한 만큼 굳세게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약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아 주십니다. 그분이 그들을 치시면 그것은 그들을 낮추셔서 더 조심하고 더 부지런히 그분을 부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훨씬 더 튼튼하고 강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더 풍성히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힘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만큼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 믿음이 시험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쓸모없지 않음을 아시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힘 한 방울도 주셔야 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우리의 연약함 속에 내버려 두셔서 매 순간 우리가 짓눌리고 아주 쓰러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맞설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약한 채로 있고, 다른 이들은 훨씬 큰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뛰어난 은사를 받은 거룩한 사람들은 그 삶에서도 훨씬 더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아브라함만큼 혹독한 공격을 받고, 한 번도 쉼이 없을 만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태어난 땅을 떠나라고 명하시고, 그가 그 땅을 떠나자 그는 길 한가운데서 아버지가 CO 83 죽을 때까지 애타게 머물러 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 땅에 들어가지만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땅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마치 부리를 물속에 처박은 새처럼 그를 거기 붙잡아 두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기 이르렀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고 성가시게 해서 불안뿐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실컷 괴롭히고 나면 기근이 그를 덮쳐서 그는 떠나야 하고, 거기서 그의 아내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다시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다른 곳으로 먹을 것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 땅을 네게 주겠다. 너는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사이 그에게는 머물 곳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상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그에게 후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후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그의 구원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늙고 쇠약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후손이 없으면 너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미 후손을 기대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마엘을 주셨습니까? 그 아들은 쫓겨나 집에서 잘려 나가야 합니다. 마침내약속대로 이삭을 얻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친아들을 그에게서 떼어내시며 "가서 그를 죽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욥에 대해 듣는 것보다 더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이 벼락에 맞아 죽었다거나 누군가에게 살해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것은 참으로 쓰라리고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손으로 자기 아이를 죽이러 가는 것은 너무나 극단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지경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 내시듯 그에게 돌려주신 뒤에는, 당신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 어떤 것인지 보여 주십니다. "지금까지 나는 네가 이 땅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해 왔다. 그런데 네가 살아 있는 동안 그 땅을 누리고 소유하기는커녕, 네 후손이 거기서 쫓겨나 사백 년 동안 이방 땅에서 아주 잔혹한 압제 아래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아브라함을 사람들 사이에서 흔하지 않은 이상한 방식으로 단련하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당신의 성령으로 그를 굳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크고 혹독한 공격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들 안에서 일하셔서 그들이 우리가 따라야 할 거울과 본보기가 되게 하십니다. 실제로 작은 작업장에서는 재료와 많은 일꾼이 있고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정돈된 큰 작업장에서처럼 그런 작품을 만들지 못합니다. 작은 작업장에서는 큰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욥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CO 84 끝까지 치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와 비교할 때, 가볍거나 웬만한 고난 하나도 견디지 못하는 우리 각자가 부끄러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딱할 만큼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경을 보내시면, 우리는 그분이 어떤 점에서 우리를 아끼시는지 살피려 하지 않고 우리의 고통만 느낄 뿐, 그분이 우리를 참아 주시는 데서 그분의 선하심을 깨달아 위로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입니까? 어떤 사람이 병이 들면 자기 병에 온통 사로잡혀서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살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덜어 줄 많은 수단을 주신다. 나는 아픈 중에 도움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돌보며, 나는 시중을 받는다." 어떤 이는 아내가, 어떤 이는 자녀들이, 어떤 이는 종들이 곁에 서도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지나치게 치시지는 않는구나." 그에게는 치료할 방도가 다 마련되어 있을 것이고, 그에게 재산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온통 사로잡아서 우리는 재갈을 씹으며 괴로워하고 언짢아하며, 하나님께 분을 품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추한 배은망덕입니다. 어떤 고통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이 고통만 겪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을 받아 마땅하며,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치실 방법을 얼마든지 찾으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곳간에 매를 감추어 두셨다고 하니, 그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펼치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매를 맞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분명 위로를 받고 우리 고통이 덜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가르침은 헛되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욥의 인격 안에서 우리에게 거울을 주려 하셨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고통을 너무 크게 부풀리지 말고,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고 할 만큼 연약하지 말라는 것을 거기서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 없는 사람들이 하듯 그렇게 하나님께 분을 품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오히려 이것을 떠올립시다. "물론 내 고통은 내게 무겁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다. 내 하나님께서 내게 손을 내밀지 않으신다면 나는 어디에 있겠는가? 이 고난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분께는 다른 고난, 더 크고 더 지나친 고난이 얼마든지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시면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아신다. 그분이 원하시면 나를 지옥까지 이를 만큼 깊은 구렁에 넣으실 수도 있다. 그러니 CO 85 이제 나는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 실제로 여기 나와 같은 사람인 욥이 있다. 그는 끝까지 든든히 지켜진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치신 것을 나는 본다. 그러니 나를 그와 함께 저울에 달아 보면, 내가 참고 내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 나 자신을 낮추며,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당신 손안에 있는 피조물인 나를 처분하시기를 구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께 기대는 사람들을 도우시려고 언제나 준비되어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욥에게서 놀라운 덕을 보지만, 그도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손을 쓰지 않으셨다면 그가 어떻게 그렇게 굳세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욥에게 쓰신 그 능력이 줄어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이나 본성을 바꾸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욥을 굳세게 하신 것을 볼 때,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속한 약속들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에 놀랄 때 그분께 피하면 그분께는 그것을

고칠 방도가 있고,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다른 모든 것이 다 없더라도 그분께는 우리를 굳세게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돕는 치료책을 내미실 때, 그분이 당신의 종 욥을 붙드셨듯이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일하실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분은 모두에게 공통된 약속들을 인 치시려는 것뿐이며, 한 사람의 인격 안에서 그 증거와 실례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래도 나는 사람일 뿐이다" 하는 핑계를 대지 맙시다. 욥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은 어떻게 시험에 맞섰습니까? "아, 그렇지만 그들은 도움을 받았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같은 분이 아니십니까? 그때 이후로 변하셨습니까? 그분은 서너 사람만 도우려 하셨습니까? 그분이 "내가 너희의 요새요 울타리가 되겠다. 너희의 모든 필요에 너희를 돕겠다"고 하셨을 때, 욥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만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의 온 교회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지 않으려면, 욥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럴 것이라고 담대하게 결론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은혜가 없을 때, 그것은 우리의 악함에서, 그리고 그분이 약속을 주실 때 우리에게 베풀려고 준비하신 CO

CO 86 선을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맞으러 오시고 우리를 지키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펼치기만 구하시는데도 우리는 그분께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가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었는지 잘 압시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치시는지 우리가 알게 하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분이 필요할 때 그들을 돕는 것을 잊지 않으시며, 필요가 큰 만큼 치료책도 언제나 알맞은 때에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는 고난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표가 아니라는 훌륭한 증거를 가집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역경 속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4절)에서 우리가 인내와 함께 위로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지 못한다면, 그가 아무리 크고 꺾이지 않는 힘을 보이려 해도 그것을 인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는 마땅히 참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속담에서 말하는 "롬바르디아 사람의 인내", 곧 재갈을 씹는 노새처럼 억지로 강요된 인내일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꿋꿋한 척하며 굽히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운이 나빴구나. 그래도 꿋꿋해야지" 하고 말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인내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용감하고 덕 있는 사람으로 이름이 나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께 맞서 일어나 그분을 고발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저마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려 합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운이 내게 등을 돌렸거나, 하나님이 한가하셔서 일에 마음을 쓰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사람의 처지가 원래 그런 것이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독을 가득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참기를 원하십니다. 곧 선과 악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무엇이든 견딜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시도록 맡기고, 우리의 모든 감정을 버리고 오직 그분께 다스림받기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겹게 여겨지면 우리의 악한 욕구와 싸우고 그것에 맞서서, 그분만이 주인으로 남으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을 거리를 찾지 않는다면 이처럼 자유롭고 거리낌 없는 인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그분이 우리의 멸망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도모하신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하신다고 여기고 판단하는 사람은

괴로움과 고뇌에, 더 나아가 광란에 빠지지 않을 수 없어서 CO 87 들짐승처럼 날뛰며 하나님께 맞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우리를 멸하고 없애려 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그것이 그분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원수로 여기신다는 표가 아니라 오히려 그로써 우리의 구원을 도모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확고히 붙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같은 서신 8장(36절)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승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셨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면 우리는 고난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 구원을 가로막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 구원이 앞당겨지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그 무렵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욥이 그토록 혹독하게 고난받은 것을 볼 때, 이것을 압시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몹시 힘들고 괴로운 역경을 겪도록 허락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당신의 보호 아래 두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좋고 유익한 것을 마련해 주시기를 그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적힌 것, 곧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서도 그를 치셨다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잘 새겨 두어야 합니다. 한 가지 시험에서는 아주 꿋꿋해 보이던 사람이 다른 시험에서는 곧바로 무너지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재물을 몹시 하찮게 여겨서, 아주 부유했다가 가난해져도 무너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잠잠히 있을 것입니다. "나는 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기 원하셨다. 내 재산과 살림을 다 빼앗겼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찌나 꿋꿋한지 자기 불행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대단한 덕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쪽에서 공격을 받아 어떤 새로운 시험이 닥치면, 그는 너무 혼란에 빠져서 그를 기운 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 재앙에 대해 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모든 것에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여러 방식으로 단련하십니다. 이것은 잘 새겨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경을 보내신 뒤 우리가 벗어났다고 생각할 때 또 두 번째 재앙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건대 이것은 우리 생각에 매우 가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시험을 일으키시는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CO 88 인내가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재산이 소중하다면 자녀는 더욱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이 마지막 소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치 욥이 여기서 고문대에 묶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고문대에 묶으면 고통을 점점 더 키워서 그가 더는 견딜 수 없이 극한에 이르게 합니다. 사탄도 욥에게 그런 수법을 썼습니다. “주인의 소와 암나귀를 스바 사람들이 빼앗아 갔고, 강도들이 와서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고 알리게 할 때, 그것은 처음에 그를 밧줄에 매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문대에 올려집니다. 그다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축을 다 태워 버렸습니다” 하고 알리면, 그것은 가련한 사람의 발에 추를 다는 것과 같아서 그 고통을 키우고 훨씬 더 무겁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녀들의 죽음을 알리는 것이 극한입니다. 그러니 몹시 무겁고 견디기 힘들어 보이는 한 재앙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지나친 다른 재앙을 보내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웁시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도 자기 편에서 우리를 몰아붙이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밝힌 목적을 위해 그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그런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사탄처럼 그토록 강한 원수의 공격에서 우리를 건지실 때 우리가 그

분께 감사할 더 큰 이유를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완고함 때문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박차에 무디고 그토록 굼뜨고 게으른 것을 보시면, 흔한 속담대로 "고집 센 나귀에는 고집 센 나귀몰이꾼"이라, 그분은 우리를 더 세게 찌르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욥의 본보기에서는 앞서 짚은 것만 살피면 됩니다.

또 앞서 말했듯이 욥의 시험은 다른 의미에서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강도들이 그의 재산과 가축을 빼앗았고, 하늘의 벼락이 그 큰 부분을 태웠으며, 큰 회오리바람이 그의 자녀들이 있던 집을 무너뜨려 그들이 깔려 죽었습니다. 원수들이 와서 가축을 모두 빼앗고 마지막에 집과 욥의 자녀들에게 덤벼들었다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거센 바람이 그의 자녀들을 죽였다는 것만큼 혹독하고 이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욥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사람들이 내게 맞서고, 하나님께서도 내 원수가 되셨구나. 하늘의 벼락은 어디서 오는가? 그렇게 거센 바람은 어디서 오는가?" 바람은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며, 마치 그분의 전령과 같다고 합니다. 하늘의 불은

CO 89 그분의 임재의 표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 욥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쪽에서는 사람들이 나와 싸우는구나. 하늘이고 땅이고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해 일어나는구나. 아,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는 아주 절망의 구렁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험이 이렇게 여러 가지일 때 우리는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봅니다. 경험도 그것을 보여 주고, 각자 자기 안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로 괴로움을 당하면, 그것이 끝까지 간다 해도 우리는 아직 어떤 소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한쪽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또 한 사람이 우리를 대적해 일어나며, 원수의 수가 늘어나 사방에서 몰리고, 하나님마저 우리를 대적하시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더는 견디지 못하고 흔히 말하듯 절망한 가련한 사람들처럼 다 내던집니

다. 그러니 이것이 욥에게 일어났음을 볼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 시험으로 우리의 믿음과 꿋꿋함을 시험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유익으로 삼도록 잘 새겨 둡시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괴로움이나 해를 끼치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우리를 위해 갚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부당하게 하신다고 여기고, 우리가 당한 해를 갚아 주려고 하늘마저 우리 원수들을 대적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려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무엇이 좋고 유익한지 더 잘 아신다는 것은 살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욥의 가축을 태웠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벼락과 폭풍을 자기 권세 안에 가지고 있지 않으며, 우리는 그가 공중을 다스려서 마음대로 회오리바람과 폭풍우를 일으키는 그런 주권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쉽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설교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야 하겠지만, 여기서도 이것을 주목합시다. 바람이 하나님의 전령이어서 그분의 뜻을 수행하고 벼락도 비슷한 성격이 있지만, 이미 다룬 대로 하나님께서 마귀를 쓰시므로 마귀도 그 가운데서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 밝힌 대로 하나님께 그런 허락을 받은 마귀가 벼락과 회오리바람과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그가 원할 때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음은 풀렸습니다. 마귀가 집을 무너뜨리려고 폭풍과 비바람을 일으키고 하늘의 벼락을 움직였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고, 또 그분이 당신의 종의 믿음과 인내를 단련하시려고 CO 90 그를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욥의 인내는 그가 그토록 높은 데서 떨어졌기에 그만큼 더 강하고 칭찬받을 만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그토록 든든히 지켜진 것처럼 보였는데, 아주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리건대 이것은 더 큰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형통한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잊어버리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어왔고 지금도 그 마음을 지니고 있는 믿는 사람들조차 모든 것이 뜻대로 될 때에는 취하여 자신을 잊고 자기 분수를 모르게 됩니다.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직무를 다하는 데 헌신했지만, 자기가 여느 때보다 높아진 것을 보자 더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으며, 모든 것을 제 생각대로 합니다. 그는 너무 우쭐해져서 야망으로 자기 재물을 자랑하다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를 휩쓸어 간 그 어리석음과 오만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몹시 무겁게 내려와야 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시 30:6[9]). "내가 풍족할 때, 곧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하였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높임받았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는 결코 그분의 은혜를 흐리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짐승의 똥더미에서 건져내어 왕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이 세상 끝날까지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높이고, 자기가 죽은 뒤에도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 하기를 원하며, 자기 가문을 자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자기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 굳게 세우시고 그가 평안한 것을 보자, 그는 우쭐해지기 시작해서 자기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결론 내렸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거기서 우리가 편안할 때 어떤지, 곧 쾌락과 즐거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처지를 결코 바꾸지 않으실 것처럼 그 어리석음에 취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니 욥이 그토록 갑작스럽고 큰 시험,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한꺼번에 닥친 그 많은 시험에 맞선 것이 놀라운 덕이었다는 것을 잘 새겨 두어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맞서는 지 우리는

9. 원문의 "시 30:7"은 표제를 1절로 세는 방식에 따른 것으로, 한국어 성경의 30:6에 해당합니다.

봅니다. 조금 전만 해도 그는 모두가 그를 좋게 여길 만큼 형통 했고, 그를 칭송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컨대 사탄 자신도 하나님께서 그를 품에 안고 계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지키셔서 마치 귀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CO 91 그가 한순간에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우리는 보고, 그것은 그에게 몹시 혹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통을 보내실 때 우리는 그만큼 더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욥이 "나는 누구인가? 내 처지는 어떠한가?" 하는 이 나팔 소리로 자주 깨어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을 때 분명 그는 당황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특히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형통을 보내시는 것을 볼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행하도록 힘씁시다. 그때가 바로 마귀가 우리를 덮치려고 엿보는 때이며, 우리가 전혀생각지 못한 어떤 시험을 우리 앞에 놓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대목에서 우리가 더 주목할 점입니다. 욥이 그토록 든든히 서 있어서 아무 재앙도 그에게 닿지 못할 만큼 많은 울타리를 가진 것 같았던 때에, 한순간에 하늘의 벼락과 공중의 회오리바람과 원수들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가서, 하나님께서 더 혹독한 시험을 위해 아직 남겨 두신 그의 몸 말고는 그가 극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 짚은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곧 믿는 사람들을 향한 사탄의 분노가 어떠한지 알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하시며 그를 고삐에 매어 두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얼마나 사납게 덤벼들었는지 우리는 봅니다. 이제 그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가진 수단들을 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만큼, 이 세상에 있는 가련함만큼, 존재하는 역경만큼, 그만큼의 화살을 사탄은 이미 우리를 향해 날카롭게 다듬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비하지 않으시면 그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만큼의 치명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 쪽은 무방비하니, 하나님께서 바로잡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사탄이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밖에 할 수 없음을 볼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부르며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께서 잠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선하심을 밝히십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원수의 분노를 생각하면, 주께서 우리가 아주 멸절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해 그의 고삐를 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십만마리 늑대 사이에 있는 가련한 양 한 마리보다 더 빨리 삼켜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지켜보고 깨어 경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탄의 먹잇감으로 내던져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격받으신 것을 보듯 그가 감히 세상의 구원자와도 싸웠다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대담하게 덤벼들 것을 압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서라고 주시는 무기, 곧 그분의 말씀을 받읍시다. 사도 바울도 세상과 사탄의 모든 시험에 맞서 우리를 잘 무장시키려 할 때 우리를 거기로 이끕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그분이 우리 손에 맡기시는 모든 수단을 쓰는 데 게으르지 말고, 필요할 때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합시다. 나머지가 더 자세히 풀이되기를 기다리며, 욥의 본보기로 여기서 보여 주는 것에서 잘 유익을 얻으려 한다면 이 가르침에서 요컨대 붙들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7편

욥기 1장 설교 7

CO 33:92–104

> 그러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였다. “내가 어머니 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께 이치에 맞지 않는 어떤 것도 돌리지 않았다. (욥 1:20–22)

CO 92 우리는 인내가 큰 덕이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내’ 라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그토록 높이 치는 이 덕을 지니고 참는 사람이 되는 데에는 별로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무관심이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토록 필요한 것을 그들 CO 93 눈앞에 두려 하십니다. 우리가 참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이 수단 없이는 지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비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언제나 평온한 마음을 지니고, 그분의 선하심을 확신하여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며, 우리가 사탄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이기고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육신의 생각으로는 우리 처지가 비참하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해야 한다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목은 ‘인내’ 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여 주는 데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참는 사람임을 인정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참된 인내가 없는 사람도 참는 사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이면 누구든 참는 사람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슬픔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붙듭시다.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누그러져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여전히 언제나 우리의 구원을 도모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분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 그분이 당신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인내는 거기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앞에 놓인 거울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좋고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그토록 많은 나쁜 소식을 들은 욥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려고 땅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참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여 마음으로 괴로움과 번민을 느낀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나무 그루터기나 돌 같다면 우리 안에는 아무 덕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칭찬받을 만하겠습니까? 무덤 가장자리에 있으면서도 웃고 모든 사람을 조롱하는 가련한 정신병자를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자기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덕으로 여겨질 만한 것이 못 되고 오히려 둔함입니다. 짐승들은 때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내' 라는 말은 사람들이 멍해져서 아무 슬픔도 없고 고난을 느낄 때 괴로워하지도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합시다. 덕은 그들이 자신을 다스리고 절도를 지켜서, 그 모든 비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번민에 흔들려 아주 삼켜진 나머지 CO 94 모든 것을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복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기 감정과 싸우고, 여기서 욥이 하듯이 결론 내려 그분이 온전히 의로우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다고 할 때 주목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 방식은 동방에서 관례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지역에는 우리가 사는 이 추운 지방보다 의식이 더 많았습니다. 사람들을 큰 괴로움에 빠뜨릴 만한 일이 일어나면 그들은 슬픔의 표로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또 머리를 기르는 것이 관례인 지역에서는 애도할 때 머리를 밀었고, 반대로 머리를 미는 것이 관례인 곳에서는 애도할 때 머리를 길렀습니다. 그러니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를 미는 것은 애도의 표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남들이 자기를 큰 슬픔에 잠겼다고 여기게 하려고 가면을 쓰면서 속으로는 웃는흉내쟁이들이 흔히 그렇게 하지만, 욥은 그런 위선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을 때 그는 끝까지 번민하고 괴로웠다는 것을, 그리고 땅에 엎드린 것도 같은 증거였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나 욥이 여기서 자기 슬픔에 고삐를 풀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정죄받을 악덕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람들은 감정에서 너무나 지나치고 방종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자제하고 억눌러도 그들은 여전히 분수를 넘으며, 규칙과 기준을 지킬 만큼 자신을 다스리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할 때 지나치게 들뜨지 않고는 기뻐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애도와 슬픔은 기쁨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사람들을 더 휩쓸어 가는 감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경을 보내실 때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늘 가장 많이 넘쳐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이 겉옷을 찢었다고 하니, 그는 전보다 더 슬퍼지려고 자신을 더 찌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모습이 그렇게 일그러진 것을 보는 사람은 스스로 놀라기 때문입니다. 또 머리카락에까지 이르니, 그는 자기 애도를 부추기고 키울 도움을 찾은 것 같고, 그것은 스스로에게 박차를 가하는 것과 같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그것은 정죄받을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성경이 여기서 이 거룩한 사람의 슬픔이 너무 크고 격해서 CO 95 그가 자신을 억누를 수 없었고, 그래서 옷을 찢는 데까지 관례적인 방식을 썼다는 것을 표현하려 했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것은 그가 마음 깊은 곳까지 상처 입을 만큼 큰 번민을 느꼈음을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이 표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슬픔에 삼켜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보내실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흔한 방식, 곧 모든 괴로움을 밀어내는 것은 아주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내를 가지려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고통에 대한 모든 생각을 꺼 버리고, 그것을 멀리 밀어내고 그것에서 멀어졌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만큼멍해지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그것은 우리 머리를 망치로 내리쳐서 우리를 멍하게 하고 마비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비참을 생각하도록 이끄시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 죄를 떠올려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마땅히 행하도록 더 조심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삶이 무엇인지 배워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지금처럼 허영과 교만으로 부풀지 않게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부드럽게 대하시고 마치 당신의 품에 안고 계시는 것에 대해 우리가 그분께 진 빚을 알게 되며, 그분이 우리 삶을 돌보신다는 것을 볼 때 더 멀리, 곧 우리의 참된 기쁨과 안식이 있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보내실 때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살펴서 우리 처지가 어떠한지도 알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치실 때 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자신을 일깨우는 것은 좋고 유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말씀드리건대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고 옷을 찢고 머리를 밀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큰 괴로움 속으로 뛰어들려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옛사람들에게 그것은 회개의 표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병이나 전쟁을 보내시면 그들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뿌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의 근심이라고 말하는(고후 7:10) 악한 슬픔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슬픔은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근심이라고 말하는 다른 슬픔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곧 사람들이 자기가 가련한 죄인임을 알고 나서 자기 재판관 앞에 나아가 거기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기가 CO 96 부끄러움을 당해 마땅함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쓴 사람은 자기에게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고, 입을 다물어야 하며, 이미 묻힌 사람처럼 거기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땅이 나를 떠받칠 자격도 없다. 땅이 내 위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짓밟힌 듯 낮은 데로 던지셔야 한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겸손으로 부르시는 것을 보고 그는 기꺼이 거기에 따르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짚은 대로 인내에는 고난이 없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기 고통을 느끼며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자기 감정에 맞서서 하나님께 분을 품지 않고, 분수를 넘지 않으며, 가시채를 뒷발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들에게는 인내의 덕이 있습니다. 곧이어 본문에서 욥이 땅에 엎드린 것은 경배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몸을 굽히거나 낮춘다는 뜻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분께 경의를 드린다는 목적을 가리킵니다. 땅에 몸을 던지면서도 미쳐 날뛰어서, 할 수만 있다면 구름 위로 올라가 하나님과 싸울 사람들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렇게 분에 휩쓸린 사람들을 우리는 보지만,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덤벼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정반대로 경배하려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높은 위엄 앞에서 자신을 낮추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느낄 때가 바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그분께 더 경의를 드려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대하실 때에도 우리는 그것에 감동하여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그분이 우리를 그리로 부르십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이 큰 선하심이 우리를 당신께로 끌어당기시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데 그토록 게으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소환하셔서 우리 위에 어떤 권리를 가지고 계신지 보여 주셔야 합니다. 군주가 자기 가신이 의무를 다하는 데 굼뜬 것을 보면 그를 소환하려고 자기 관리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데 마음을 쓰지 않거나, 마땅히 필요한 만큼의 사랑과 뜨거움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재촉하고 소환하십니다. 그러니 고난의 목적과 참된 쓰임새가 무엇인지 아는 욥은 하나님께 경의를 드리려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형통하고 큰 영화를 누릴 때에도 주님을 섬기고 공경했으며 주님을 섬기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CO 97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의 연약함이 어떠한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피조물인지 봅니다. 그러니 주님, 주께서 이 세상에서 저를 치기를 기뻐하시는 지금, 저는 새로운 경의를 드리러 왔습니다. 주님, 어떻든 저는 기꺼이 주께 저를 드리며, 오직 주님의 손에 복종하기만을 구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마음으로 땅에 엎드렸다는 말에 대해서는 이만하겠습니다.

이제 욥이 사람이 무엇인지 인정하는 대목으로 갑시다. "내가 어머니 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 그는 말합니다. 그가 '그리로' 라고 할 때 그는 다른 태, 곧 모든 사람의 어머니인 땅의 태를 뜻합니다. 아니면 마음이 꽉 막힌 사람처럼 모든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반쯤만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슬픔에 잠긴 사람들은 말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이 고백은 충분히 분명합니다. 곧 욥은 "그렇다면 나는 어머니 태에서 나온 그대로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일반적인 격언처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알몸으로 세상에 오고,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다. 재물도 명예도 화려함도 즐거움도 가져가지 못하고 썩어야 하며 땅이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풀이가 더 알맞습니다. 곧 욥이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어머니 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하나님께서 한동안 나를 부요하게 하셔서 나는 많은 가축과 큰 식솔과많은 자녀를 가졌다. 요컨대 나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신 은혜와 복으로 잘 입혀져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내가 알몸으로 떠나기를 원하신다. 그분이 이 모든 것으로 나를 부요하게 하셨다가 그것을 거두어 가셔서, 내가 처음 상태로 돌아가 이제 무덤으로 갈 채비를 하게 하신다."

이 말은 잘 새겨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러하니 알몸이 되기로 마음먹는 것보다 욥이 자기 인내를 더 잘 증명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리저리 빠져나가려 해도 본성을 거스를 수는 없어서, 이를 갈아도 결국 모두 알몸으로 무덤에 돌아가야 합니다. 이방인들도 사람이 얼마나 작은지 보여 주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온 땅을 삼키고 싶어 하는 탐욕의 구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물과 포도원과 목장과 소유가 많아도 그에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CO98 만족시키시려면 새로운 세상들을 지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거기 썩도록 눕히고 우리를 무로 돌리는 데에는 우리 키만큼의 땅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우리가 무엇이며 우리 본성이 어떠한지 보여 줍니다. 그런데도 그런 필연과 싸우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화려

한 무덤을 만들고, 개선 행진 같은 장례를 치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맞서려는 것 같지만, 결코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쨌든 사람의 일반적인 처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물과 부로 입혀져 있다가 벗겨질 때 그것을 참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드리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셔서 우리가 아주 알몸으로헐벗은 채 남고, 그런 상태로 무덤에 돌아갈 채비를 하는 것을 참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드리건대 이로써 우리는 참는 사람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욥이 이 대목에서 나타내려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이 모자라고 배고프고 목마르며, 어떤 고난에 몰리는데 아무 도움이 없을 때마다, 우리의 근원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서 나왔는지 돌아봅시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시며 베푸시는 아버지다운 돌보심을 남용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먹이시려는 뜻 없이 우리를 세상에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데서 온다는 것을 언제나 알아야 하고, 우리 하나님의 값없는 선하심으로 받은 것을 당연한 권리로 가진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순전히 너그러움으로 나를 먹이며 “날마다 오너라. 포도주를 얼마, 빵을 얼마 주겠다. 너를 먹여 살리고 싶다. 내가 너에게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이다“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날마다 그의 손에서 먹을 것을 받아 구걸해야 하는 내가 그를얽어매려고 소송을 걸거나, 그가 순전한 너그러움으로 주는 것을 연금으로 삼으려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추한 배은망덕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는 더욱 온전히 겸손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으셨고, 우리는 가난하므로 날마다 그분의 무한한 너그러움에 기대어 구걸하러 그분께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어떤 궁핍이 있으면 그리로 피하고 이렇게 압시다. “나는 어디서 나왔는가? 어머니 태에서 알몸으로, 가련하고 비참한 피조물로 나왔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내가 처했던 가련한 상태에서 씻어 주어야 했다. 다른 데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아주 멸망했을 CO 99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고 기르시며 셀 수 없는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 이제 그분이 나를 치시려 한다면, 그것이 그분의 손에서 오는 것이니 내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욥이 “내가 어머니 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무덤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보여 주는 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재물을 주셔서 한동안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유권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하고, 우리 재물이 무덤까지 우리와 함께 가며, 우리가 결코 그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셈하지 맙시다. 그것은 우리를 속일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주신 재물을 거두어 가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그것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평생 얻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겨도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또한 욥은 우리를 더 멀리 이끕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가져가셨으니 주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기신 것을 처분하시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것은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보내실 때, 그분이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거나, 세상의 창조주로서 마땅히 가지셔야 할 주권을 더 이상 갖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라는 말은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셨으므로 모든 권세와 최고의 주권이 그분께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재물을 넉넉히 주신 만큼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몫을 소유한다 해도, 그분은 언제나 그 주인이요 소유자로

남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아는 욥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온전히 복종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더없이 공평하다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물을 사흘만 누리게 하셔도, 그분이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에게 큰부당함을 행하신다고 여기고 그분께 원망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짚은 배은망덕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값없는 선하심으로 한 번 우리에게 너그러우셨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분이 결코 우리를 저버리셔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꽤 흔하지만 너무 잘못 실천되어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아주 적다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그러니 "주신 분도 CO 100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더욱 잘 생각해야 합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재물을 누리게 하실 자유와, 그분이 원하실 때 한순간에 그것을 빼앗으실 자유가 어떠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형적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흘러가 사라지므로, 소유하지 않은 사람처럼 소유하라고, 곧 우리 마음을 거기에 매어 두지 말라고 권면합니다(고전 7:30). 다른 곳에서 말하듯이(딤전 6:17), 우리는 이 불확실한 재물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언제나 욥과 함께 이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에게서 벗겨 가실 때, 주님, 주께서 주님의 권리를 쓰셨습니다. 주께서 주셨고 원하실 때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니 이 대목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는 것을 떠올립시다. 어떤 조건으로입니까? 그분이 더 이상 아무 권리도 주장하지 않으시고 아무 주권도 갖지 않으시도록 소유권을 넘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것을 우리 손에 맡기기를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그분이 좋으실 때 다시 거두어 가신다는 조건으로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에게 하루나 한 달이나 얼마 동안 어떤 재물을 누리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만큼 그분께 더 큰 빚을 진

것임을 알고, 그 뒤에 그분이 그것을 우리에게서 벗겨 가시면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오히려 앞서 말한 깨달음으로 돌아갑시다. 곧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위에 그런 우위를 지니셔서 당신의 것을 좋으신 대로 처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들도 자기 재산을 원하는 대로 처분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살아 계신 하나님께는 훨씬 더 그렇게 인정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몸과 자녀들 위에도 이런 주권을 가지셔야 함을 보면서, 아무 반대 없이 그분의 거룩한 뜻에 온전히 복종하도록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춥시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경의를 드리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돌리고, 마치 그분을 거스르듯 높아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롱이 아닙니까? 아니 너무나 서툰 위선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았다고 고백하고서도, 그분이 그것을 처분하시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고, 그분이 아무것도 바꾸지 마시고 우리를 그냥 편안히 내버려 두시며, 마치 우리가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 그분의 관할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를 놓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아, 아무개가 내 군주라는 것은 기꺼이 인정한다. 그에게 충분히 경의와 순종을 드리겠다. 그러나 CO 101 그가 내 집에 들어오거나 와서 무엇을 요구하거나 나를 성가시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그런 비열함을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가지고 놉니다.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거기에 손대시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드러내 놓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보여 주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주셨으니, 그분이 원하실 때 그것을 되찾으시고 거두어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덧붙여진 말, 곧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은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서 욥은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혹독하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분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다고 고백할 만큼 그분께 복종합니다. 이것이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고 한 것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최고 권세를 돌리며 “그래, 그분이 주셨으니 가져가실 수도 있지” 하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정당한 이유로 하신다고는 고백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잔인하다거나 너무 가혹하다고 고발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들은 그분이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실 권리를 그분께 남겨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자기가 그 재물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살피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의 위엄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를 우리 욕망대로 가게 내버려 두신다면 혼란밖에 없겠지만 그분이 당신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것은 우리 유익과 구원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이 많은 것을 담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말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식 없이 참으로 말해졌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잔인하고 무정하신 것처럼 그분께 원망하는 사람은, 그로서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며 그분께 맞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이시고 자기는 그분의 자녀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선하심을 증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치실 때 그들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를 갈며 그분께 어떤

독을 내뱉고 토해 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것은 CO 102 그분이 본성상 의롭고 공평하실 뿐 아니라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욥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그분의 의와 공평을 알고, 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와 아버지다운 선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결론 삼아,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께 이치에 맞지 않는 어떤 것도 돌리지 않았다고 덧붙입니다. 여기에는 글자 그대로 "욥은 하나님께 이치 없는 어떤 것도 내세우거나 덮어씌우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욕망과 정반대로 일을 보내실 때 그들이 그렇게 분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치에 따라 하시며 그분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바른 이치에 근거한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 있다면, 곧 우리가 보듯 그분이 일을 그렇게 정하시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안다면, 분명 우리는 그분께 그렇게 대드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욥이 하나님께 이치 없는 어떤 것도 돌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의롭고 공평하지 않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 상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 또는 '하나님 안에서' 라는 이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지금 우리가 하듯이 말하는 것이 그렇게 가증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던 것을 보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곧바로 그분과 다투고 송사를 벌입니다. 겉으로 그런 티를 내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늘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고 살핍니다. 그런데 그 말은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독이 든 마음으로 나옵니다. 마치 "일이 다르게 되었어야 했다. 여기서는 아무 이치도 보이지

않는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고, 그사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이에서 정죄를 받으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폭군이거나 모든 것을 혼란에 빠뜨리기만 바라는 정신 나간 자라고 고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끔찍한 모독이 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땅히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려면, 하나님께서 이치 없이 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일을 앙심이나 되는대로 하시는 것처럼 그분께 잔인함이나 무지를 돌리지 말고, 그분이 모든 면에서 놀라운 의와 무한한 선하심과 지혜로 행하셔서

CO 103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온전한 정직과 공평밖에 없음을 압시다.

물론 여기에는 풀어야 할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곧 욥이 강도들이 빼앗아 간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밝힐 수 없으니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이치 없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린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괴롭고 번민할 때 그분께 피하여, 그분이 정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이 언제나 우리 구원으로 돌아오도록 정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 깨달음을 가질 때, 그것이 그분이 보내실 고난을 우리가 참고 견디게 할 것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추게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다운 선하심을 맛보게 하셨으니,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나 형통 가운데서나 모든 면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만을 구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8편

욥기 2장 설교 1

CO 33:104–116

>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섰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님 앞에 섰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디에서 오느냐?” 사탄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땅 위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고 있다. 네가 나를 부추겨 까닭 없이 그를 멸하게 하지 않았느냐?” 사탄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사람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고,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가진 모든 것을 내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손을 펴서 그의 살을 치시면, 그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지 않는지 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그가 네 손에 있다. 다만 그의 목숨은 지켜라.” (욥 2:1–6)

이 설교는 1장 끝부분, 곧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다” 하는 말씀의 풀이와, 이어지는 2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O 104 앞에서 우리는, 마귀가 지금 그러하듯 하나님의 철천지원수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복종하는 창조주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마귀가 온 세상을 해치고 무너뜨리려고 그토록 미쳐 날뛰어도, 그가 무엇을 꾀하든, 무엇을 꾸미고 획책하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재갈에 물려 있듯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날뛰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그들 자신에게 달린 일이라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자기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쓰시는 도구와 같습니다. 이 조항은 욥이 한 고백 속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가진 재산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폭풍을 일으켜 욥이 재산을 빼앗기고 자녀들이 죽게 한 것은 분명 사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왜 이것을 하나님께 돌립니까? 더구나 우리는 앞에서 강도와 도적들이 그의 재산을 약탈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그런 약탈과 강도질을 한 장본인으로 선언해야 합니까? 마치 하나님을 사람들의 죄에 휘말리게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의 재산과 가축을 덮친 자들을 우리가 변명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강도들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사탄이 이렇게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 강도들이 나를 털어 갔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합니다. 욥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보았듯이, 그가 하나님께 이치에 맞지 않는 어떤 것도 돌리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의롭고 공평하시다고 고백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강도들이 한 일, 또 마귀가 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최고의 자리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끄시고 배치하셔서 그분 마음에 드시는 결말로 가져가신다는 것을 봅니다. CO 105 여기서는 우리의 감각에 따라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전체를 자기 공상에 굴복시켜서 지혜로운 체하려는 오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짐승이요, 더할 나위 없이 우둔한 짐승입니다. 그들에게는 지식도 분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의 장본인이 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성령을 고발해 보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실컷 따져 본 뒤에도, 결국 다음 결론에 이르러야 합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크기와 높이를 깨닫지 못하며, 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맛보게 해 주시는 만큼만, 그것도 아주 작은 우리의 분량에 따라서만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듯 그것은 깊은 심연이며(시 36:6),[10] 우리에게는 거기에 이를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캐내려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한 경외와 겸손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시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경이 선언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상하게 보이고, 우리의 역량과 이성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저 마지막 날이 오기를 기다립시다. 그날에는 바울이 말하듯(고전 13:9 이하) 우리가 더 이상 부분적으로 알지 않고, 희미하게 알지도 않으며, 지금은 거울로 보듯 우리에게 보여진 것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로 온 세상을 어떻게 이끄시고 다스리시는지 보여 주는 탁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 성령께서 무슨 의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며 그분의 뜻이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선언하시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탄과 모든 불의한 자들이 많은 일을 획책하고 꾸미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자기 계획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그들을 비웃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보호를 확신시키시고, 사탄이 주인이 되어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부

10. 원문에는 시편 36편 7절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1절로 세는 프랑스어 성경의 절수이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이 설교의 시편 39편과 51편 인용도 같습니다.

리신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성경의 교훈을 이런 용도에 적용합시다. 곧 비록 우리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이 세상에서 이리의 아가리에 든 양처럼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그치지 말고,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있으니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확신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CO 106 모든 피조물 위에 최고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셔서, 사탄과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까지도 재갈을 물려 붙들고 계시고, 모든 일을 그분 마음에 드시는 결말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을 부른 뒤에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앞서 말한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재판관이 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지나친 월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되 자기들이 그렇게 알아보는 한에서만 인정하려 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고 몸을 굽혀 "자, 내가 너희에게 해명하겠다" 하고 말씀하시기까지 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마귀 같은 교만이 아닙니까? 그런 교만으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셔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잠 25:27), 하나님의 위엄을 지나치게, 자기 분수 이상으로 캐려는 사람은 모두 자기 교만에 삼켜지고 혼란에 빠지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일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좋고 유익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는 절제를 지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거스르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탄과 악인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려고 몇 가지 하찮은 논리를 찾아내고는 큰 소득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대답이랍시고, 악인들이 어떤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허락하시고 용인하실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막을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그분이 그 일을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너무나 하찮은 변명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진리와 정의를 지키시는 데 우리의 거짓말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려는 악인들의 입을 막으려고 우리가 그런 핑계를 끌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거룩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허락하시고 용인하실 뿐 아니라 사탄과 악인들을 통해서도 자기 뜻을 실행하신다는 것은, 성경이 "주님,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것을 하셨습니다" 하고 말한다는 데서 드러납니다. 다윗이 자기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토록 무겁게 벌하셨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시 39:9). "주님,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손인 줄 내가 압니다." 그런데 다윗은 악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보다 더 지혜로워지겠다는 것입니까? 아무도 그분을 비난하지 못하게 그분을 안심시켜 드리려면 우리의 그럴듯한 겉치레가 그분께 필요하다고 그분께 믿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CO 107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은 일로 그를 벌하시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그것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해를 증인으로 삼아 그것을 행하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압살롬이 와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을 빼앗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해 앞에서 그들을 욕보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증하고 천륜을 거스르는 근친상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하겠다" 하고 선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용인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그분 뜻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도록 일하십니다. 실제로 묻겠습니다. 재판관의 직무가 사형 집행인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재판관이 어떤 범죄자를 심리하고 법과 공평이 정하는 대로 그에게 선고해야 할 때, 사형 집행인에게 "네게 허락하니, 가서 이 사람을 네 마음대로 하라" 하고 말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에 따라 범죄자를 사형 집행인의 손에 넘겨 형을 집행하게 합니다. 여기 세상의 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가 좋을 대로 하라고 허락하신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조롱하고 모든 질서를 뒤엎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날뛰며 모든 것을 혼란에 빠뜨리려고만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계시며 일들을 이끄시고 다스리셔서, 그분의 섭리 없이는, 또 그분이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래서 특히, 야망이나 탐욕에 사로잡혀 전쟁을 일으키고 세상의 온갖 소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품삯을 주어 부리신다고, 그들을 마치 그분의 일꾼처럼 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종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내 종 느부갓네살" 하고 말씀하십니다(렘 25:9).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그는 우상 숭배자이고, 다음으로 사람의 피를 흘리고 힘닿는 대로 온 세상을 뒤엎으려고만 하는 악인입니다. 그에게는 공평도 정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기 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무엇에 있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저 허락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귀가 말을 할 줄 안다면, 이렇게 지혜로운 체하려는 사람들보다 더 이치에 맞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명령과 작정을 실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악은 결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 돌려질 수 없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사탄은

자기 악의로 말미암아 죄 있는 자로 남을 것이고, 사람들은 자기 재판관인 자기 양심으로 책망받고 정죄받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일은 CO 108 사람들이 품은 의도와 목적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이끄시고 다스리시는지 살펴봅시다. 이미 보았듯이, 사탄이 모든 것을 멸하고 무너뜨리려고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편에서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모든 일은 '심판' 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한 마디로 우리 앞에 떠오를 수 있는 모든 나쁜 공상을 없애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의롭다고 밝히는 표지입니다. 곧 그 일들은 심판이요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하다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을 거스른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누가 그분과 다투며 그분이 잘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믿는 사람들을 인내로 단련하시고, 그들의 육적인 욕망을 죽이시고, 그들에게 겸손을 가르치려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럴 수 없습니다. 가장 악한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덕과 허물을 징계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느냐고, 또 자기 백성을 낮추시고 그들 믿음의 순종을 단련하시며 그들을 길들여 세상을 버리기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들도 이를 갈며 마지못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바라보신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반박할 거리를 찾더라도, 그분의 모든 일은 의롭고 바르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악인들이 물어뜯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짖기를 그치지 않으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시편 51편에서(4절) 말하는 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의로우심이 드러나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런 대담함과 악의가 있어서 하나님을 거슬러 자기를 높이고 함부로 말을 내던지려고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에 이런 대담함과 패악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피조물들이 그렇게까지, 그토록 지나치게 날뛰어서, 하나님께서 모독을 당하시고 온갖 치욕을 당하시며 피조물들이 마치 그분의 재판관처럼 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분께 실컷 불평한 뒤에도 그분은 의로우심이 드러나실 것이다. 마침내, 결국에는 그들이 이를 갈아도 그분의 의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교훈을 거스르는 불평이 있더라도 놀라지 맙시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고, 보다시피 성령께서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우리에게 밝혀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단순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교훈을 실천해야 할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여기서 CO 109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를 붙들고 그것으로 무장합시다. 곧 사탄과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우리를 거슬러 일어날 수 있지만, 아무튼 그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를 지나가며 그분의 뜻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를 갈며 억지로 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대한 최고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고, 마귀든 악인들이든 그분께 복종하며 그분의 뜻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분 앞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탄이 위선으로 변장하여 천사들 사이에 섞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해명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은 우리의 우둔함에 맞추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그분께 숨겨지지 않을 만한 권능과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표현될 때, 성경이 우리의

이성에 맞추고 우리의 감각에 알맞은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순회 재판이나 신분 의회를 여는 군주에 비유되십니다. 그때에는 모든 것이 그 앞에 나와서 거기서 모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해진 날 마귀가 천사들과 함께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 구원의 봉사자가 되게 하셔서, 그들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그분의 손이요 그분 능력의 도구와 같듯이, 반대로 그분이 마귀를 보내셔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신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분은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저것을 하시는지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놀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란에 빠져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바르고 의로우며 그분의 길에는 오직 확고함만 있다고 결론짓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의 인정과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인정받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 이야기가 그것에 대한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분의 종 욥을 이렇게 괴롭히려 하셨는지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그분을 원망할 좋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신다면 좋습니다. 그 점에서는 우리가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정직하고 단순하게 걸어간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사탄의 손에 넘기십니까? “아, 그분은 그저 그것을 허락하셨을 뿐이다” 하고 말한다 하더라도, 사탄이 이렇게 제멋대로 하도록 놓여 있다면, 그의 광기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먹이로 내던져진다면 우리는 단번에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CO 110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 종의 인내가 이렇게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에게 한동안, 아니 평생 동안 숨겨진 다른 이유들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딱 멈추어 서서, 그 목적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마귀들을 보지 못하고, 천사들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둘을 다 보내신다는 것, 곧 한편으로는 우리를 붙들기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보내신다는 것을 결론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우리가 하루에 백 번멸망한다 해도 그래 마땅하다는 것을 언제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 언제나 그 점만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게 하셔서, 우리가 그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거세게 공격받은 만큼 우리의 승리가 더욱 고귀해지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제 경험으로 단련하셔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를 높일 계기를 잡지 않으며, 늘 그러듯이 헛된 자신감과 주제넘음에 잠들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가 그분께 붙들리지 않는다면 참으로 비참할 것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또 그분이 일으켜 주시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번번이 넘어지고 비틀거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손을 아래에 받쳐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넘어짐은 치명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천사들이 우리를 인도하려고 우리를 특별히 돌본다는 것을 압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구원의 봉사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그들의 보호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능력들’ , ‘통치자들’ 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마귀들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어지럽히고 무너뜨리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로 말미암아 깨어나고, 시험 가운데서 단련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감하게 싸우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무장하여 이 모든 시험에 맞섰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 우리가 더욱 크고 뛰어난 승리를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추려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앞에서 풀이했으므로 길게 말하지 않고, 다룬 내용을 간단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디에서 오느냐고 물으시고, 사탄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두루 돌고 헤매었다고 대답합니다. 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내 종 욥을 눈여겨보지 않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여기서도 CO 111 성경은 우리의 우둔함에 맞춥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물으실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므로, 우리에게 더 친숙한 어떤 말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한 본질 그대로 자신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삼켜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생각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보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크신 선하심을 봅니다. 우리가 그분께 이를 수 없을 때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하시되 우리에게 유익한 만큼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크신 위엄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주제넘게 나선다면 짓눌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해를 바라보면 눈이 부시지 않을 수 없는데,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완전함 가운데서 바라보겠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지어지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요한이 말하듯, 우리가 그분과 같아질 때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요일 3:2). 지금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양자 삼으심의 은혜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인 쳐진 것으로 만족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는 형상 안에서 그분을 압시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는 앞서 다룬 것, 곧 베드로가 말하듯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기를 그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먹이를 찾는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하니 잘 지키고 경계합시다.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한 뒤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하고 덧붙이기 때문입니다.[11] 이로써 그는, 사탄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말하자면 믿음으로 무장하기만 하면 그에게 삼켜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충분한 힘을 가질 것이며 승리를 확신할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0장(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내 손에 맡기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사탄이 자기 창조주를 이길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셔서, 그분이 우리 영혼과 몸의 선하고 신실한 보호자가 되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의지합시다. 그러나 그래도 두려움과 염려를 놓지 맙시다. 무심한 사람들은 번번이 기습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두는 확신은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가 처한 위험을 잊게 하지도 않으며, 다만 우리가 싸우다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줄 뿐입니다. 아무튼 잠들어 있고 자기를 추어올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CO 112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탄이 공격하며 벼락을 치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보여도, 너희는 내 아래, 내 손 아래 안전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고 자만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게로 오라. 내 보호 아래로 피하라. 너희를 해치려고 꾀하는 자들을 막는 너희의 요새가 내가 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많은 원수들에게 공격받는 것을 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더욱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사탄도 악인들도 우리를 거슬러 꾀한 일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리라는 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마귀

11. 벧전 5:8–9.

가 여기에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성령께서 그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헤매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선언하실 때, 우리는 언제나 망을 보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으며, 또 더욱더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실 때까지 힘써 싸우려고 싸움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욥에 대해 사탄에게 물으신다고 할 때,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그 당시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는 동료가 그에게 아주 적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가 악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패로 가득했고, 오직 불의의 홍수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의인이 많았다면, 욥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데 힘쓰는 비슷한 사람이 많았다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특히 욥에 대해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로써 우리는 악인들과 함께 있을 때 스스로 부패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온 세상이 방탕하고 비뚤어진 것을 볼 때 거기서 본을 받아 휩쓸려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 아래 바른 순종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분께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보게 될 걸림돌들, 곧 마귀가 우리를 꾀려고 내세울 걸림돌들 때문에 우리가 비뚤어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그러므로 그때 세상의 온갖 부패가 있었는데도(모든 것이 부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이렇게 온전함 가운데 살았으니, 일들이 심히 혼란스러울 때에도 우리가 모든 악에 지나친 방종을 허락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 얼굴 앞에서 걷듯이 걸어야 한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의롭게 살았던 거룩한 조상들에게 돌려지는 증언도 바로 이것입니다. 곧 그들은 CO 113 사람들이 하는 일을 바라보며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 나는 내 이웃들보다 더 나아지고 싶지 않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하고, 우리의 눈길을 거기에 박아 두고 고정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욥에게 돌리시는 이 자질들과 칭호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그는 이 마음의 한결같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참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세상의 모든 덕을 지녀서 마치 천사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마음의 이 샘이 깨끗하고 순결하지 않다면, 우리의 온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오물이요 더러움일 뿐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평가받는 곳은 바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기 속으로 내려가 자기를 샅샅이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모두가 우리에게 만족하고 우리에게 박수를 보낸다 해도, 우리 마음에 위선이 있고 우리가 모든 거짓에서 깨끗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가증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성경이 다른 곳에서 말하듯 두 마음을 품은 이중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삶도 그에 걸맞을 것이고, 우리는 마땅히 걸어야 할 대로 걸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만 보아도 그들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놀라울 만큼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한껏 그렇습니다. 그러나 눈으로도, 귀로도, 발로도, 손으로도 한껏, 그들은 육신을 입은 마귀요, 온 세상을 감염시키는 치명적인 역병입니다. 그러므로 한결같음에는 반드시 정직한 행실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곧 우리가 아무도 해치지 않고, 우리 이웃을 도우려고 애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우애를 보이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한결같음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참된 시금석입니다. 금이

시금석이나 용광로에서 시험받듯이, 마음의 한결같음은 우리의 정직한 행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곧 우리가 아무 해도 끼치지 않고, 남의 재물을 끌어오려는 욕심 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며, 잔인함도 교만도 야망도 없고, 오히려 모든 사람을 도우려는 온유함과 궁핍한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긍휼을 지니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따라 자신을 쓰려고 애쓸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이웃과 정직하고 공평하게 걸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경외해야 합니다. CO 114 사람들은 자기 권리와 자기에게 속한 것을 받는데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손해를 보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리에 계시므로 그분에게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이웃을 섬기는 데 힘쓰되, 그러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잘 주목해야 할 일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덕스러운 겉모습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들을 작은 천사라고 하고, 아무도 그들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업신여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분의 종 욥을 인정하시면서, 그가 사람들과 바르게 살았다는 것과 또 경건,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참된 마음을 지녔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두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세상에서 많은 부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가 살았던 온전함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악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버티지 않는다면 참으로 비겁한 것입니다. 욥이 악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리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쪽저쪽에서 악을 행하라는 유혹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땅히 걸어야 할 대로 걸어가겠습니까? 우리는 악에서 떠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에서도 그렇습니다. 악이 그저 가까이에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떠나려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악취를 맡으면 곧바로 얼굴을 돌립니다. 묻겠습니

다. 사탄이 우리를 악취로 더럽히려고만 하고 모든 것이 감염으로 가득할 때, 우리에게는 떠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악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휩쓸어 가는 수많은 악한 욕망의 타오르는 용광로와 같고, 그 욕망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본성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원수일 뿐이라고 말합니다(롬 8:7).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훈, 곧 악에서 떠나는 것을 실천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악에서 떠나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우리의 모든 악한 욕망을 살펴봅시다. 그다음에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더욱 악으로 부추기는 불쏘시개와 같고, 치명적인 역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토록 많은 불의와 방탕과 무절제를 보고, 악덕이 이렇게 판을 칠 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떠나고, 계기를 피합시다. 바울도 이 증언을 인용하여 "주님의 그릇을 메는 너희여, 떠나라, 바벨론에서 멀리 도망하라" 하고 말합니다(사 52:11).[12] 이로써 바울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CO 115 몸과 영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분을 섬기는 데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부패시킬 수 있는 더러움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계기들을 피합시다. 세상이 이렇게 온갖 악덕에 빠져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거기서 떠나도록 힘씁시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전에 하지 않으셨던 칭호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곧 욥이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꿋꿋함을 칭찬하십니다. 그것은 그가 깊이 상처를 입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욥은 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온전했으며, 내가 말씀드린 그 한결같음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정직한 행실을 지니고

12. 바울은 고린도후서 6:17에서 이사야 52:11을 인용합니다.

있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훌륭한 덕을 지닌 것만도 대단한 일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런 꿋꿋함이 있어서 자기의 온전함 가운데 머물러 있을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까? 그가 자녀들을 잃었습니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는 자기가 이런 조건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곧 하나님께서 재산을 주시면 그것을 쓰고, 그것을 빼앗기면완전히 벌거벗고 비참해질 준비를 하며, 모든 권능과 권위를 가지신 분께발길질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욥에게서 알려진 꺾이지 않는 꿋꿋함입니다. 전에는 그것이 그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가혹하고 괴롭게 느껴지더라도, 그래도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많은 위험을 지나와서 그것을 이겨 내고 모든 시험을 이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만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욥이 심한 고난을 당했는데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다고 선언하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곧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시험을 받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이 이렇게 단련받아야 할 필요를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알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탄이 걸어올 시험과 싸움에서 승리를 얻을 때, 우리 믿음이 더 잘 인정받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더 잘 드러나고 밝혀 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으로 거두어질 때 온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모든 싸움에 맞서도록 이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합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9편

욥기 2장 설교 2

CO 33:116–128

>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나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하였다. 그러자 욥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으며 잿더미 위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도 그 순진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주님을 찬송하고 죽으십시오." 욥이 아내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주님께 좋은 것을 받는데, 나쁜 것은 받지 않겠소?"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욥 2:7–10)

CO 116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손을 거두셨을 때 우리가 벗어난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괴롭게 하실 때 이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직 초심자여서 고난을 견디는 데 익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끼십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른처럼 짐을 지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량을 살피시고,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데 얼마나 단련되었는지에 따라 작거나 중간 정도의 고난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단련되어 굳어지면, 그때에는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질 힘도 그분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그가 젊었을 때에는 편안하고 한가하게 두셨지만, "네가 늙으면 남들이 네게 띠를 띠우고, 너는 묶이고 결박되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갈 것이다" 하고 말씀

하십니다.[1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CO 117 아직 연약한지 살피셔서 우리를 감싸 주시고,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신 뒤에는 더 혹독하고 무거운 고난을 보내신다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는 경험이 이미 우리를 더 강하게 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욥의 인격 안에서 밝혀진 것은 우리 각 사람이 거기서 자기를 위한 가르침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욥이 재산을 빼앗기고, 자녀들을 잃고, 가난해진 것은 참으로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의 몸을 쳐서 그가 고약한 피부병으로 뒤덮인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 병이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는 전혀 알 수 없고, 다만 나병 같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거룩한 성경은 그 병이 극심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던 그가 마치 사람들의 무리에서 쫓겨난 것처럼, 썩은 송장처럼 거기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자기 악취 속에서 터져 죽을 지경이고, 더할 나위 없이 극심한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 상처에는 큰 염증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를 끝까지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고난이 그에게 이미 닥쳤던 모든 고난보다 훨씬 지나쳤다는 것을 봅니다. 사탄이 말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자기만 살아날 수 있다면 자기 자식이라도 몸값으로 내주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건진 사람은 그래도 큰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도 그래도 스스로 위로하고 고통을 누그러뜨릴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간계입니다. 그는 그것을 사람의 본성에서 끌어왔습니다. 욥에게서는 그것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모두 이런 성향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곧 우리 목숨이 너무나 소중해서, 다른 모든 것은 우리 몸으로 견디는 고통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는 성향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종에게서 꺾이지 않는 꿋꿋함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과 자녀에게

13. 요 21:18.

고난을 주셨을 때 그가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면, 그의 몸이 혹독하게 공격을 받아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고, 썩어 가며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 보였을 때에도 그는 똑같이 했습니다. 어떻든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면, 더 크고 더 지나친 고난을 두 번, 세 번 겪을 준비를 하도록 배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 만큼 더 무거운 짐을 보내시는 것도 지극히 옳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 정황도 잘 주목해야 합니다. 욥에게는 고난이 계속 CO 118 더해지지 않은 때가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개 우리에게 얼마간 쉼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으로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셨다면, 좋습니다, 우리는 숨을 돌리고 우리가 겪은 슬픔을 누그러뜨릴 여유를 얻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다른 재난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분이 연거푸 치십니다. 욥은 재산에 한 가지 방식으로 찾아오심을 당한 뒤에, 곧바로 다른 방식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도적들이 그의 가축을 모두 약탈하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나머지를 태워 버립니다. 그의 자녀들은 마치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원수인 것처럼 죽고, 이어서 그 자신이 몸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 욥에게 놀라운 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를 짓누를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일하시려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를 그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종 욥이 그런 극한에 이르렀어도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가 겪은 것의 절반이나 십분의 일을 겪는다면, 우리가 불평하면서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셔서 우리가 견딜 수 있다고 보시는 만큼만 우리를 괴롭게 하시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욥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만한 권한이 없으시기 때문입니까? 오늘날의 사탄이 더 인정이 많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철천지원수 사탄의 광기는 똑같고, 그는 언제나 전과 같은 마음이며, 자기 본성, 곧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으르렁거리는 사자 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고삐를 풀어 주신다면, 우리가 욥만큼이나 그 이상을 견뎌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은 여기서 말하는 고난에 비하면 적당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손에 이렇게 부드럽게 징계를 받을 때, 그분이 우리가 끝까지 짓눌리지 않을 만한 정도를 지키시고, 욥의 경우에서 보듯 그렇게 크고 지나친 엄격함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자신을 보이신다고 결론지읍시다.

또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기뻐하면, 말하자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아주 익숙하다 하더라도, 그는 나아가기는커녕 언제나 뒷걸음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을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 쾌락과 편안함도 기뻐할 것이고, 모든 편의와 자기 욕구가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지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반대로 다루려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를 즐기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CO 119 우리가 이렇게 길들여지고, 우리가 그분께 드려야 할 복종을 보이도록 낮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을 우리 뜻에 맞추신다면,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욕구와 정반대로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가 그분께 복종하고, 우리의 모든 욕망을 그분의 고삐 아래 두어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맞추며,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되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그분이 정하시는 대로 다스리신다는 영예를 그분께 돌릴 때, 그때 우리는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을 보

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이 자기의 모든 욕망과 싸워야 하고, 그것들을 벗어 버려야 하며, 거기서 포로처럼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돌쩌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적어도 분을 품어 속으로 노발대발하기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 권위도 우위도 갖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욥의 본을 따라 우리의 모든 욕망에 맞서고 그것을 꺾도록 배웁시다.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를 누리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목숨이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하지 않아서, 우리 편의와 안락에 매여 있기보다 우리가 속한 분, 우리 삶을 바쳐야 할 분께 복종하기를 더 원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알맞은 것을 보내 주시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이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곧 그분이 좋다고 아시는 대로 하시고, 우리 욕구가 그와 반대라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분께 우리를 맞추고 그분이 부르시는 곳 어디든 따르게 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기술이 어려우면 그것을 배우는 데 시간이 더 들고, 거기에는 더 많은 솜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훈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어렵습니다. 실천하기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 위에 다스리시는 것이 지극히 옳고, 우리가 그분을 거슬러 대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일이 닥치면 거기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이 교훈을 되새기고 거기에 자신을 단련하여, 필요한 만큼 거기서 진보하도록 배웁시다. 그러나 이것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므로 지나가는 길에 잠시 다루기만 하겠습니다.

본문에 덧붙여진 것으로 넘어갑시다. 곧 욥의 아내가 와서 그를 절망으로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아직도 그 순진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죽으십시오." 우리에게 CO 120 불을 지피는 풀무가 없어도, 마귀는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추길 수단을 충분히 찾아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본성에는 비참할 만큼 많은 반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평온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변덕스러운 공상을 품습니다. 우리 가운데 머릿속에 그런 망상의 토끼굴 같은 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고, 우리는 거기에 취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육신의 모든 욕망은 하나님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께 거슬러 부추기고 절망으로 이끄는 불쏘시개 같은 자들이 없다 하더라도, 방탕에 빠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 밖에서 도구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그는 우리 자신 안에서 충분히 도구를 찾아낼 것입니다. 원수들이 이미 안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변덕스러운 공상은 모두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들이고, 우리의 모든 욕망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실 때 우리가 그것을 거슬러 대들게 하려고 그분을 거슬러 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자기 안에서 시험받을 수 있었던 것에 더하여 그의 아내가 그를 절망으로 부추긴 것은 그에게 이중의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악의 절정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그분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십니다. 특히 그들을 깊이 시험하려 하실 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욥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히 다윗에게서 그것을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거울로 이런 종류의 시험을 우리에게 보여 주려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는 가장 비통한 탄식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께 둔 소망을 비웃어서 그가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그를 향해 혀를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좀 보라.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지. 하나님을 자기 보호자, 자기 방패, 자기 요새라고 부르며, 자기가 그분을 부르고 그분께 피한다고 자랑했지. 간단히 말해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실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라." 다윗이 견딘 모든 고난도 사람들이 그에게 퍼부은 이런 비난만큼 그에게 혹독하지 않았고 그만큼 치명적으로 그를 찌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탄은 이 점에서 우리를 이기면 우리 목을 거머쥔 것과 같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에는 우리 팔이나 다리를 찌르고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헛되이 소망을 두었고 그분께 품었던 기대가 좌절된 것처럼 악인들이 우리를 비웃게 만드는 데 성공하면, 그는 곧바로 심장과 목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시험에 자리를 내준다면, 이것은 우리 믿음을 없애 버릴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렇게 일어난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지체인 우리가 CO 121 그분을 닮아야 하고, 그 닮음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악인들이 와서 우리를 찌르며, 우리 믿음을 비웃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고 우리가 기대했던 도움을 그분께서 찾지 못하니 그분이 헛된 소망만 우리에게 마시게 하신 것처럼 보일 만큼 우리를 절망하게 하려 할 때, 맞설 준비를 합시다. 그런 시험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것을 대비하여 무장합시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이기기가 아주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욥에 대해 기록된 것을 보십시오. 그를 붙들어 주신 분께서 우리도 쓰러지지 않도록 도우실 능력이 충분하시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기서 우리는 이런 본을 봅니다.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몸과 재산과 그 밖의 모든 것에 찾아오심을 당한 뒤에, 그 절정으로 우리가 조롱을 받고 우리 믿음이 공격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끝까지 괴로워하고 번민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비난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신 것처럼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는 그 때문에 쓰러지지 말고, 욥과 다윗에게 일어난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을 기억하여,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게 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아들의 몸에 접붙이신 것은 바로 이런 조건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다루듯이, 그분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본이십니다.[14] 그러면 이제 욥의 아내가 가져온 이 시험이 무엇을 뜻하는지 봅시다. "당신은 아직도 그 순진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당신이 무엇을 얻습니까? 당신이 그분을 섬긴 뜻은 그분께 보살핌을 받고, 그분이 당신을 기뻐하시며,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 주시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분은 당신에게 원수 같으시고 당신을 박해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온전함은 당신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결론입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죽으십시오"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풀이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찬송하다' 는 이 말이 때로는 '저주하다' 의 뜻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용법, 곧 이런 말투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독을 입에 올려서도 안 되는 것으로 여겨 미워하도록 우리를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분께 악담하고, 그분의 영예를 거스르는 어떤 말을 토해 내는 것은 너무나 가증해서 우리가 그것을 몸서리치게 싫어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음행과 다른 추한 방탕과

CO 122 탐식과 도둑질을 말하면서 "그런 것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15]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곧 "하나님께 대드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죽기 전에 한 번 그분께 앙갚음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속이신 것을 당신이 잘 보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사탄의 도구라는 데에는 의심

14. 롬 8:29.
15. 엡 5:3.

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마치 프로세르피나 같고, 욥을 그런 광기에 빠뜨려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나 그분의 위엄에 부딪치게 하려는 지옥의 복수의 여신 같다고 해서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자연스러운 뜻은 오히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죽으십시오." 곧 "당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원하는 만큼 계속하십시오. 그래도 당신은 거기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헛수고이고, 당신은 어차피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이미 다 정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분을 영화롭게 해도 마찬가지이고, 그 모든 것이 하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자신을 낮추어도, 당신은 불쌍한 절망한 사람처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노여움을 푸시거나 그분의 진노가 누그러지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물론 뜻은 결국 같은 데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낱말에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대로 교훈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이 말들이 담고 있는 대로, 아무 어려움 없이 분명한 것은, 욥의 이 아내가 오직 그를 절망에 빠뜨려서, 그가 하나님께 분노하고 모든 감각을 잃으며, 전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신 그분께 대들고 들짐승처럼 들판으로 뛰쳐나가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욥에 대해 하는 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공통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쓰임에 적용합시다. 이 말이 한 여자의 입에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같은 말을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흔한 행태입니다. 흔히 말하듯 우리는 확실한 담보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자기의 불신앙을 속담으로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너무 믿어서 나무 둥치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말들이 무엇을 향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 영예도 돌리지 않고, 일이 돌아가는 형편에 따라 그분을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 줄 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우리가 그분께 빚졌다는 것을 그래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분이 우리를 험하게 다루시면 곧바로 "우리가 무엇 하러 애씁니까?" 하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CO 123 그의 아내에게 시험받고 부추김을 받았다면, 우리가 무장하고 대비하여 맞서지 않는 한, 오늘날 사탄에게는 우리를 비슷한 시험으로 이끌 수 있는 앞잡이 가 많을 것이라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악인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를 찌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학교에서 가장 많이 진보한 사람들도 그런 공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빙판 위에 있는 것 같았다고(시 73:2), 이런 생각을 따라가다가 넘어질 뻔했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흔히 대우를 잘 받고, 이 세상에서 쾌락에 취하며, 선한 사람들처럼 쇠약해지지 않는 반면, 불쌍한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고뇌의 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기를 그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이렇게까지 말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습니다. "뭐란 말인가? 내가 손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하려고 애쓰는데, 이것은 헛수고가 아닌가? 쓸데없는 수고가 아닌가?" 다윗은 자기가 그런 시험에 부추김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거기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앞에 닥쳤고 그는 꿋꿋이 맞섰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 거슬러 더욱 불태우려고 그런 불쏘시개를 가져올 때, 그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그의 말을 들어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렇게 하려면 그런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이 교훈을 오래전부터 미리 묵상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야서에도 "의인에게는 보상이 있으리라고 말하라" 하고 말씀합니다.[16]

16. 사 3:10.

곧 이렇게 결론지으라는 것입니다. 일들이 뒤죽박죽이 되어 모든 질서가 뒤집힌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편드시고 선한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것처럼, 아니면 이제는 운명만이 지배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무시며 더 이상 이 땅의 일들을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너희는 언제나 마음속에 "의인에게는 열매가 있으리라"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분 아래 머무는 데서 헛수고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시험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려 하지 않으신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려는 아주 작은 소원도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고, 비웃으시고, 눈을 감으시며, 온갖 조심으로 걸어가는 것이 헛수고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선을 행하는 데 힘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분이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갚아 주신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고 있어야 하므로, 우리는 CO 124 사탄이 우리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나쁘고 가장 치명적인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의지할 때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라는 것을 봅니다. 그 시험이 그토록 악하고 위험한 것을 보니, 우리는 그런 시험을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여기서 문제는 내 아내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아니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도 그저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결합되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화합과 우정의 끈이 그분에게서 나오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그를 괴롭히는 마귀가 집에 하나 있다면, 둘이나 셋이 있다면, 그는 더욱 경계해야 한다는 것도 붙듭시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들의 핑계가 되기는커녕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원수 사탄은 너무나 교활해서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을지 살피고,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곳을 뚫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가장 쉬운 입구는 남편이 아내에게 품는 사랑, 그리고 특별한 친구가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품는 사랑일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 준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을 더욱 우리를 거슬러 쓰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맞는 좋은 우정이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남편은 하나님께, 그분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되어 자기 안에 조급함이나 절망의 불을 붙이고 자기를 모독으로 이끌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내도 하나님께, 남편이 자기를 마땅히 인도하고 자기의 머리요 윗사람으로서 언제나 자기를 선으로 가르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정과 교분을 주셨을 때, 그분께 그 모든 것을 그분의 영예를 위해 쓰이게 해 주셔서, 그것이 우리를 방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에서 서로를 나아가게 하는 것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아내와 남편과 친구와 친척이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향하도록 힘씁시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들을 마치 그분 자신의 손처럼 쓰시는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친구나 친척이나 아내가 우리를 절망시키려 한다면, 그때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셔야 하고, 우리의 우정은 그분에게서 시작되어야 하며, 또한 그분께, 곧 그 참된 목적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며, 욥도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신은 어리석은 CO 125 여자들 가운데 하나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는데, 나쁜 것은 받지 않겠소?" 하

고 말합니다. 욥이 그의 아내가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했다고 대답할 때, 우리는 그런 모독이 사탄에게서 토해진 것이므로 그것을 강하게 책망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향해 칼을 뽑아 우리를 죽이려고 찌르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거기서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목숨이 소중하다면 우리는 그 일격을 피하고 그것을 물리치려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자기가 아내에게 이렇게 공격받는 것을 보았고, 그녀가 그의 몸에 어떤 해를 끼치려는 것일 뿐 아니라 그를 지옥 깊은 곳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에게 강하게 맞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거기에 임해야 할 힘입니다. 이렇게 사나운 원수를 볼 때 사탄과 장난을 쳐서도 안 되고, 마치 이기기 쉬운 작은 공격이 있을 뿐인 것처럼 대해서도 안 됩니다. 또 욥은 이미 말한 것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헛된 일이라는 비난을 받으면 우리가 동요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은 우리 믿음을 꺼뜨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신의가 없으시고 자기 백성을 조롱하시며, 심지어 의롭지 않으시다고 고발을 당하십니다. 그분께 고유한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 빼앗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과 악을 분별하셔서 온전함으로 그분을 섬긴 사람들을 높이시고, 세상의 재판관이 되시며, 그분께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속성들을 빼앗기신다면, 그분의 영광과 신성과 본질이 폐지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욥은 그런 모독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편에서도 (69:9)[17]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이 우리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를 삼켜야 하며, 사람들이 그분께 퍼붓는 비난이 우리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예가 상처받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거기서 번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는 거기에 맞서야 합니다.

17. 원문에는 시편 69편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1절로 세는 프랑스어 성경의 절수이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아래 시편 40편 인용도 같습니다.

이것이 욥이 그의 아내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했소" 하고 이렇게 강하게 책망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이 대답은 비슷한 시험들이 어디서 오든, 어디서 우리를 겨냥하든 그것들에 맞서 해야 할 대답이라는 것을 주목합시다. 특히 우리 육신의 악한 공상들로 우리가 동요할 때 우리는 욥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분노를 쏟아야 할 곳도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를 찌르거나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분을 품곤 하는 대신, 각 사람이 먼저 자기 자신에게 노발대발하고 이렇게 살펴야 합니다. "자, CO 126 나에게는 이런 악덕이 있다. 잘 살펴보니, 나는 내 원수들에게 화를 내고, 누가 나를 해치려고 꾀하면 전혀 참지 못하고 앙갚음하려는 욕구에 휩쓸려 그에게 똑같이 갚아 주려 한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 내 구원에 나 자신보다 더 나쁜 원수는 없다. 곧 이 악한 본성과 내가 그 속에서 품는 악한 욕망들이 모두 내 구원을 가로막는 적대 세력이다. 그러므로 나의 가장 큰 원수들이 거기서 나오니, 나는 나 자신에게 화를 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욥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닥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추어올리지 말고 꿋꿋이 맞서기를 배웁시다. 우리 본성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거부로 가득하므로, 어떤 악한 공상이 우리를 하나님께 대들도록 이끄는 것을 볼 때, 어떤 사람들처럼 "이것은 우리 천성이라서 고칠 수 없다" 하고 말하며 우리 자신을 추어올리지 맙시다. 그런 핑계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꿋꿋이 싸우고 맞서야 합니다. 그저 "아, 조심해야지" 하든지 무슨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그것도 치열한 싸움에 들어가야 하며, 거기에 우리의 모든 감각과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끝까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받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욥이 "우리가 주님께 좋은 것을 받는데, 왜 나쁜 것은 받지 않겠소?" 하고 덧붙일 때,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고난과 역경을

참을성 있게 견디도록 이끄는 자연스러운 논증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지고 그에게서 많은 좋은 것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사람이 내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빚진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참아 내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무 추한 배은망덕이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인간에게 빚진 만큼, 그들 때문에 어떤 해를 견뎌야 할 때에도 참을성 있게 할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가 자기를 낳고 길렀으며 여전히 자기 집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아버지에게서 참아 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엄하더라도 그래도 아버지에게서 참는 것이 지극히 옳다는 것을 알기에 자식이 자제한다면, 말하자면 우리가 피조물에게 그만큼을 돌린다면, 창조주께는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분이 기뻐하실 때 우리가 그분에게서 아무 나쁜 것도 견디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위에 주권을 가지시고 그분 좋으실 때 우리를 괴롭게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생각하면 CO 127 우리는 목을 숙이고 잠잠해야 합니다. 이것이 욥이 여기서 하는 논증입니다. 그는 이미 앞에서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는 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흔히 말하듯 우리를 그 소유주로 삼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쓰라고 주시는 것이며, 우리는 날마다 그분이 주신 것을 그분께 돌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욥이 내놓은 자연스러운 이유였습니다. 이제 그는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를 내놓습니다. "뭐란 말이오?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는데, 왜 나쁜 것은 받지 않겠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데 그분을 위해 고난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너무 추한 배은망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잘 생각해 보려면, 먼저 하나님을 피조물과 비교해야 하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베푸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해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시면, 피조물에게 돌려야 할 모든 영예와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것, 그분이 받으셔야 할 것에 비하면 작은 물방울 하나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빚을 지운 사람들 쪽에서 해가 올 때보다 우리가 십만 배나 더 참을성 있게 고난을 견딘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모든 피조물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마땅히 그분께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 의무를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빚진 것을 다 갚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분이 날마다 그분의 손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혜를 주목해야 합니다. 잘 세어 봅시다. 물론 다 세고 나면, 다윗과 함께 (시 40:5) 그것은 셀 수도 잴 수도 없다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심연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거기에 넋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아버지로 자신을 보이셨는지 살펴본다면,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 백분의 일에 이르기도 전에 말문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셀 수 없고 결코 헤아릴 수 없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나쁜 것을 왜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가 그분의 손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보다 훨씬 더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 우리가 그분에게서 그토록 많은 좋은 것을 받았으니 그분의 손에서 나쁜 것을 받는 것도 지극히 옳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참을성 있게 견디도록, 욥의 이 이유를 잘 주목합시다. 그러나 이 말씀의 나머지는 지금 더 길게 풀이할 수 없으므로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이제 이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제10편

욥기 2장 설교 3

CO 33:128–140

> 그때 욥의 세 친구, 곧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 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닥친 이 모든 재앙에 대해 듣고, 각자 자기가 사는 곳에서 왔다. 그들은 욥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려고 함께 오기로 약속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 보았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소리를 높여 울며 저마다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다. 그리고 그들은 이레 낮 이레 밤을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고통이 몹시 심해진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욥 2:11–13)

이 설교는 10절 풀이의 나머지와 그다음 절들을 담고 있습니다.

CO 128 어제 우리는 욥의 이 말,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는데, 왜 나쁜 것은 받지 않겠소?” 하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추려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토록 많은 은혜와 선물로 그분께 빚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단련하려 하실 때 얼마간의 고난을 받기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너무나 배은망덕하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달리 이해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는다“는 말을, 마치 욥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전에 자기가 느꼈던 것과 같은 분이 되어 주시리라고 기대한 것처럼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욥이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신을 위로하려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고난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더라도 그것을

CO 129 끝까지 계속하시려는 것이 아니다. 마침내 그분은 이렇게 번민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뜻은 우리가 이미 풀이한 것입니다. 곧 욥은 주님의 손에서 받은 좋은 것들을 기억하고, 자기가 모든 역경에서 참아야 할 만큼 그분께 빚지고 있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좋고 유익한 교훈을 거두어야 합니다. 곧 고난이 우리를 짓누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좋은 아버지로, 그것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보이셨으니, 그분이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놀랄 것이 없고, 그 때문에 그분께 불평하도록 부추김을 받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욥이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를 앞으로 올 때에 적용하지 않았다면 그가 위로를 받을 수 없었으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에게 선하셨다는 것만 알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확신해야 하고, 그분이 우리를 험하게 다루시더라도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리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언제나 그분의 은혜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욥은 전에 하나님의 손에서 느꼈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게 하시더라도 그분이 뜻도 본성도 바꾸지 않으셨고 여전히 선하고 의로우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의 슬픔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본성에 거스르는 고난이 견디기에 몹시 쓰고 몹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약이 쓰고 비위에 거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약을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단맛을 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도록 고난을 누그러뜨릴 거리를 주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그토록 선하신 분으로 경험했고 그분이 여러 가지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셨으니, 그분이 끝까지 그렇게

하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 모든 일에도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이 위선자여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마음으로는 전혀 반대되는 감정을 품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합니까? 그가 놀라운 덕을 지녔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악한 공상을 품더라도 그래도 자제하여 나쁜 말이 새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분을 품고 싶은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나고 싶은 CO 130 많은 상상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심지어 모독하는 말까지 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자기를 억제하고 스스로 책망합니다. "불쌍한 피조물아,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의 시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맞설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공공연히 모독하는 극단에까지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품은 데 대해 죄가 없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런 시험에 동의하지 않았고 거기서 즐거워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절을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곧 욥이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극단에까지 이르지 않았고, 악으로 부추김을 받았지만 그래도 맞섰으며, 악이 그를 완전히 이기지 못하고 그가 꿋꿋이 싸웠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잘 살펴보면, 여기서 욥이 인내에 있어 참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하려면 야고보가 말하는 것을 주목합시다(약 3:2). 곧 혀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데 얼마나 경솔한 지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말해 버립니다. 자기를 억제하여 잘 절제되고 잘 다듬어진 말이 아니면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욥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그의 모든 말이 아주 잘 다스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경박하여 자기 혀를 절제하지 못하는 데 비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의 영예를 거스르는 말을 결코 쓰지 않게 하는 은혜를 주시도록 그분을 부르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 바쳐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체를 거기에 써야 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극히 옳습니다. 그러나 그분은혀가 우리 입에서 울려 퍼져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대로 쓴다면 그것은 자연의 질서를 뒤엎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악덕에 빠져 있고, 자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불러,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그분의 영예가 되지 않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때때로 악한 공상을 품는다면, 우리처럼 CO 131 연약한 상태에서는 악한 욕망이 많이 없을 수 없고 사탄이 우리를 이런저런 쪽으로 이끌 것이므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으며 그분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용감하게 싸우고, 그런 것들을 발아래 짓밟으며,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합시다. 욥은 그의 아내를 책망할 뿐 아니라 그녀의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논쟁이나 소송을 벌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억제하고 강하게 책망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덕을 정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황주의자들 가운데 지배해 왔고 오늘날에도 지배하는 어리석음을 봅니다. 그들은 그들의 회당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지

아닌지 의심에 빠지고, 머릿속에 끔찍하고 엄청난 모독을 품더라도, 그가 거기에 완전히 동의하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이나 이웃을 죽이는 일이나 모독이 나 음행에 빠지도록 부추김을 받아, 그 속에서 자기를 휩쓸어 가는 욕망을 느끼더라도, 그들은 그 모든 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교황주의자들 사이에서 아주 흔한 결론입니다. 그들은 그런 결론을 얻어 마땅합니다. 그들에게는 위선밖에 없고, 죄를 줄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치명적인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들은 그것을 가벼운 죄로 만들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에도 성수를 한 번뿌리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벗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악한 의심에 부추김을 받는다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았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심판을 앞질러,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 유죄를 인정합시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 마음에 품은 악한 공상을 실행에 옮기려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참아 주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방식입니다.

이어서 욥의 세 친구가 그에게 닥친 모든 재앙에 대해 듣고 그를 찾아가기로 의논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려고 그랬습니다. 처음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욥의 짐을 덜어 주시려고 그의 고난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그를 CO 132 위로할 만한 학식과 분별을 갖춘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곧 보게 될 그들의 논쟁에서 잘 드러나듯이, 그들은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욥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분이 보내신 고난에서 그를 건지려 하신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친구들의 이

방문이 그의 고난을 더욱 무겁게 하고 그를 깊은 심연에까지 빠뜨리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고난에서 건짐을 받으리라는 소망을 가졌는데 일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새로운 일로 여기지 말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우리는 욥이 그의 친구들을 보고 품었던 소망이 꺾이고, 그들이 그를 전보다 훨씬 더 괴롭히는 마귀처럼 되었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욥을 비웃으려고 거기 온 것이 아니고, 아무 악의도 불의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에게 바르고 온전한 사랑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려 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곧 마치 그들이 그의 인격과 결합되고 하나가 된 것처럼, 그런 고통을 질 수 있는 한 그의 고난의 일부를 받아들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온 목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욥에게 더 혹독한 고난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에게 좋은 마음을 품고 그들의 고난을 덜어 주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좋은 의도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런 본으로 깨달읍시다. 그러므로 우리 이웃이 애쓰고 어떤 궁핍에 처한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울 은혜를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별의 영이 없어서 엇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이미 자기 고난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불쌍한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몹시 뜨거워서,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고 싶은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무 솜씨도 요령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고난을 당하는 불쌍한 사람에게 가서 새로운 고통을 안겨 줄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비롯됩니까? 지혜도 분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일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의 궁핍 가운데 서로 도우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그분께 방법과솜씨도 함께 주셔서 우리가 좋고 유익한 것을 줄 수 있게 하시고, 사람들을 그들에게 알맞고 그들의 CO 133 성격에 맞게 대할 줄 알게 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너무 큰 번민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에게 가져가는 위로가 그의 쓰임에 잘 맞아서 그가 얼마간 덜어짐을 느끼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 덕은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을 주셨습니까? 그분은 거기에 더해 우리 안에 인정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너무 엄격하지 않고, 오히려 긍휼의 마음으로 더 기울어지게, 곧 인정 있는 사람이 되어 그들의 구원에 좋은 소망을 품게 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18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을 우리와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다스리셔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무식한 사람들도 아니고 경솔한 사람들도 아니며, 그들 스스로 드러내듯이 위대하고 지극히 사려 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그들 탓으로만 보면 욥은 지옥까지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정신에는 지혜도 분별도 없고, 그분이 주시는 것 말고는 규칙도 한도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면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압시다. 그토록 뛰어났던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그에게 실패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것을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더욱더 실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이

18. 고전 13:7.

그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기로 의논했다고 할 때, 이 부드러운 말 속에서 친구와 이웃이 어떤 고난을 견디는 것을 보는 사람들의 의무가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위로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 끝까지 힘을 쏟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되려는 마음, 마치 그들의 고난을 우리 몸으로 느끼는 것처럼 거기서 그들과 하나가 되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고전 13:3) 이것을 밝힙니다. 우리가 많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사랑이 모든 것을 이끌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과 헛됨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 용감하게 힘쓰지만 아무 감정도 공감도 없는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러, 말하자면 그를 CO 134 그의 고난에서 끌어내고 그를 불쌍히 여기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먼저 이 위로, 곧 남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를 섬기고 그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준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에게 좋은 일을 해 주는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이 없고 그의 고난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가 판단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마지못해 하는 일처럼 다가옵니다. 그가 받는 좋은 일을 받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함께 슬퍼해 주는 것에 비하면 대단치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그에게 아무 지원이 없더라도, 그가 "이 불쌍한 사람들이 내 고난을 자기 지체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것을 본다면, 그는 사람들이 줄 수 있는 모든 도움보다 그것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의무를 다하려 할 때, 이 끝에서부터 시작합시다. 곧 그들의 고난을 불쌍히 여기고, 할 수 있는 한 그 일부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참된 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그 긍휼을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웃의 역경을 보고 몹시 마음이 움직이지만, 너무 낙담해서 거기서 그루터기처럼 있어 그들에게서 아무 도움도 끌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따라야 합니다. 곧 누가 고난당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이 긍휼이 많고 부드러우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따라 그를 도우려고 언제나 손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마비되어 우리 용기가 꺾이고 완전히 무감각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긍휼이 더 멀리 뻗어 나가서, 우리가 이웃에게서 보는 고난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찾도록 우리를 부추겨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곧 욥의 친구들이 그와 함께 애통하러 와서는, 동시에 그를 위로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울면서 "우리가 네 고난의 일부를 느낀다" 하고 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그를 덜어 주려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들이 온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길 한가운데서 쓰러집니다. 그들이 이 일을 맡을 때에는 좋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할 방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곧 도착한 뒤에도 욥에게 언제나 이 긍휼을 품고, 그다음에 그에게 알맞은 위로의 방법을 찾으며, 온전히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넋이 나간 것처럼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들이 욥의 처지를 보고 걸려 넘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그런 CO 135 극한의 고난을 보면서, 그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토록 가혹하게 다루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욥에게서 보는 지나친 고난 때문에 그만큼 걸려 넘어져서 그를 위로할 용기를 잃습니다. 그래서 시편(41:1)에 "고난당하는 사람을 깊이 헤아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욥처럼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는

큰 역경을 견뎌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보라.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시리라고 늘 장담한 것이 헛된 일이었다는 것을 잘 보지 않느냐? 우리는 정반대를 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박해하시고 여러 가지로 그의 인내를 단련하려 하신다는 이유로 다윗이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았으므로, 그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깊이 헤아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는 이로써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음을 뜻합니다. 곧 어떤 사람이 혹독한 고난을 당하여 번민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처음부터 “아,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 아, 하나님께서 그를 잘라 내려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이제 소망이 없다, 그는 절망적이다” 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격하지 말고, 이런 분별을 지니고 이렇게 말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 기다려 보자. 고난은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공통이고, 그것이 선한 사람에게 닥칠 때에도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그분이 자기 자녀로 여기시는 사람들과, 버림받아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보여 주시지 않는 한 판단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므로, 우리는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을 알아보고, 우리 자신부터 시작하자. 아, 나도 그만큼, 아니 그 이상 받아 마땅하다. 불쌍한 피조물아, 네가 그토록 많은 일로 네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았는지 살펴보아라. 그분은 네가 보는, 그토록 고난당하는 그 사람보다 너를 십만 배 더 벌하실 수 있다.” 그러니 결론을 내리려면 이것을 바라봅시다. “그렇다, 여기 몹시 혹독한 대우를 받는 불쌍한

사람이 있다. 그가 악하게 살았고 고난받아 마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권하는 분별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박해하시는 사람들을,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 하더라도, 건지려 하실지 기다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걸림돌에 대비하여 무장하기를 배웁시다. 그래서 CO 136 일들이 우리 생각을 넘어설 때 우리가 동요하지 않고, 그 때문에 언제나 우리 직무를 다하는 데 방해받지 않으며, 길 한가운데서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합시다. 이 교훈을 실천하기가 몹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거기에 더 힘을 쏟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이웃을 위로하려는 이런 소원과 열심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할 방법을 갖추어 주시기를 구해서, 실행할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서 나무 그루터기처럼 쓸모없이 있지 않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그들이 발견한 그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놀란 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이 말하듯이, 그는 몰라볼 만큼 완전히 일그러져서 그들이 처음에는 그를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에 그에 대한 애정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그가 이렇게 비참한 것을 보고도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기를 그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를 알아보았을 때 그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눈물은 거짓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품은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들은 욥이 견디는 고난의 크기 때문에 놀랐으므로, 이렇게 동요하여 그들이 뜻했던 대로 그들의 직무를 행하는 데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랑을 품고 그 표시를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사랑이 잘 다스려져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겉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땅에 엎드리고, 이레 낮 이레 밤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여기서 우리는 위에서 말한 그 긍휼을 봅니다. 그러나 그 밖에도 우리는 그들이 욥과 함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그분께 간구하려 했다는 것을 봅니다. 옛사람들이 머리에 티끌을 뿌린 것은 겸손과 자기 죄를 인정하는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저 자기들의 처지가 어떠한지 알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가? 우리가 잊고 있던 것, 곧 우리가 썩을 것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자." 사람들은 형통할 때 취하여 흥겨워하고 공중을 날아다니며 아무 걱정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면, 그때에는 노발대발하며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CO 137 기억하려고 이런 의식을 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불쌍한 범죄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곧 그들이 자기 잘못을 알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 있음을 인정하고, 참된 회개로 그분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그의 친구들도 똑같이 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우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처지에 우리 자신을 두고 그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궁핍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께 그분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 곧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들과 함께 애곡하러 거기 가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 원수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다고 단언합니다(시 35:13–14). 그들이 망해 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마음으로 번민했고, 쓰라린 눈물과 탄식을 쏟았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박해한 원수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 우리 원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과 신앙의 어떤 표시를 알아보는 사람들, 같은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런 긍휼을 품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비겁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러 올 때 우리는 그 일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 겉옷을 찢고, 땅에 엎드리고, 머리에 티끌을 뿌렸다고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그런 의식이 회개의 표시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실컷 울고, 그런 행동을 해서 그들에게 겸손과 슬픔 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죄를 벗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오히려 우리는 요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욜 2:13).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요엘은 이로써, 사람들이 거창한 의식을 행하고 겉으로 몹시 괴로워하더라도, 먼저 그들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요구하시는 찢어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서 꺾이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그분 진노의 어떤 표시를 알아차릴 때, 심지어 우리가 이미 그분 손의 매를 느낄 때, 그 모든 것이 우리 죄 때문에 온다는 것을 알고 CO 138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서 노새처럼 재갈을 물어뜯고, 잘 길들여진 척하면서도 무슨 쓴 마음과 원한을 품어 하나님께 대들게 되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지 맙시다. 오히려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이 찢어져야 합니다. 시편(17:3)에서 우리에게 권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도록 그분 앞에 우리 마음을 펼쳐 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자 요엘의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옷을 찢지 말고 오히려 우리 마음을 찢읍시다. 참된 회개는 거기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참으로 찢어졌다면, 우리가 그 겸손을 실제로 드러내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 악덕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만 하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운지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짓고 그분의 교회를 걸려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그들에게서 작은 한마디를 끌어내면, 그들은 "아, 너무하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무 가혹하고 너무 엄격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시편 51편에서(17절)[19] 말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한, 그분이 우리를 회개하는 사람으로 받아 주시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제사입니까? 우리 마음과 영이 괴로움 가운데 있어 우리가 더 견딜 수 없는 것, 우리 양심이 우리를 찌르고 고발하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우리가 몹시 부끄러워서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얻을 때까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참회는 의식에 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그 자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것은 표시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잘 다스려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 하고, 우리 입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혀보다 먼저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이레 낮 이레 밤을 그와 함께 거기 앉아 있었다고 할 때, 그들이 거기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레 동안 거기서 그와 함께 애통하며 땅에 엎드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이 위로하려는 사람과 함께 거기서 애곡하려고 모든 즐거움과 편의를 끊음으로써, 그를 향한 자기들의 사랑을 잘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요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그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다룬 것을 봅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의 손이 욥에게 그토록

19. 원문에는 시편 51편 19절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1절로 세는 프랑스어 성경의 절수이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혹독한 것을 보고 CO 139 지나치게 동요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위로하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이제는 벙어리처럼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위로에 쓸 수 있는 모든 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그들은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잠잠합니까? 이런 공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게 하셨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그를 위로할 방도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그가 버림받은 사람임을 보여 주는 표를 그에게 찍으셨으며, 그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러니 우리는 그를 위로할 방법을 찾지 못하겠다." 이것이 그들이 망연자실한 원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이 여전히 고치실 수 있다고 증언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자신의 고난에서든 이웃의 고난에서든 우리가 그런 연민에 흔들려 절망해야 한다고 결론짓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런 결론을 내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우리 머리에 집어넣으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네가 하나님께 그토록 여러 가지로 죄를 지었는데, 그분이 언젠가 너를 불쌍히 여겨 받아 주시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험에 자리를 내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모든 약속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사탄의 그런 공격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고난을 당하거나 이웃이 고난당하는 것을 볼 때에도 지나치게 꺾이지 않고 용기를 내어 이렇게 결론짓게 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그렇다, 이 고난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고,

그분이 이 고난을 우리 구원으로 바꾸시리라고 바라야 한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그분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모든 것을 그들의 유익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점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분께 피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결코 위안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1편

욥기 3장 설교 1

CO 33:140–152

> 그 뒤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였다. 욥이 말하였다. “내가 태어난 날이 없어지고, ‘사내아이를 배었다’ 하고 알려진 그 밤도 없어졌더라면. 그날이 어둠으로 덮이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날을 찾지 않으시고,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짙은 그늘이 그날을 덮고, 구름이 그날을 사로잡고, 한낮의 열기가 그날을 태웠더라면. 그 밤이 캄캄함에 사로잡혀, 한 해의 날들 가운데 세어지지 않고 달들의 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외로운 밤이 되어, 그 밤에 아무 기쁨도 없었더라면. 날을 저주하는 데 익숙한 자들, 곧 슬픔을 높이는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는 별들이 어두워지고, 빛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새벽의 눈꺼풀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이 나를 밴 태의 문을 닫지 않아, 내 눈에서 괴로움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욥 3:1–10)

CO 140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교훈을 우리의 쓰임에 적용하기 위해 성령의 의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욥의 인내를 보았고, 그가 사람들 사이에서 비참한 사람으로 여겨졌는데도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했으며 그분을 찬송하기를 그치지 않았는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모든 것을 정반대로 뒤집어 하나님께 분을 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잘 살펴보면 여기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시험에 맞서는 어떤 힘이 아직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욥은 한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전에는 그에게 꿋꿋함과 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뒤섞임이 있습니다. 그의 육신의 연약함이 그를 기울게 해서 그가 하나

님께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그의 의도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에게서 CO 141 나쁜 말, 악한 감정에서 나온 말, 무죄라고 할 수 없는 말이 새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첫째 조항입니다. 곧 욥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가 전처럼 굳건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싸움이 있어서, 그는 자기가 연약한 사람이며 원하는 만큼 시험을 이겨 낼 수 없고, 마땅히 그래야 하고 늘 그래 왔던 것처럼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유익한 경고를 받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들이 위에서 주어진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덕을 자랑하지 않도록 배웁시다. 우리가 보다시피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들의 자유 의지로 산과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상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만큼 우리가 버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놓으시자마자 우리는 쓰러질 것이라는 것을 압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위에 의존해야 하고, 강해지기를 원할 때 거기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욥에게 갑자기 일어난 변화를 봅니다. 그가 이렇게 분을 품고 자기 생일을 저주할 새로운 계기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참을성 있는 모습을 보인 지 이레 만에 이렇게 합니다. 그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손바닥을 뒤집는 사이에 우리의 모든 덕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림자에 비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이 그렇게 연약하고 덧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변덕스럽고 우리에게 아무 지속성이 없어서 생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사자 같은 용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세가 있다가도, 곧 우리는 나약해져서 이성도 분별도 없어질 것입니다. 시험에 맞서 싸울 대담함을 갖기는커녕, 누가 우리에게 타일러 주는 말조차 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는 변화를 잘 주목하여 경계합시다. 아침에 하나님을 불렀다면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간단히 말해 어떤 식으로든 그분에게서 돌아서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깨어 염려하고 있어야 하며,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끈기 있게 계속해야 합니다.

이제 본문에 표현된 것, 곧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는 것으로 넘어갑시다. 어떤 사람들은 욥을 완전히 변호하려고, 마치 그가 CO 142 고통에 휩쓸렸을 뿐 하나님을 모독하지는 않았다는 듯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전에 지녔던 인내를 잊어버리고 완전히 날뛰었으며, 더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생각이 없었고 자기 감정에 휩쓸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했다고 상상합니다. 그가 전에는 아내를 어리석다고 책망했는데,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함으로써 자기가 갑절이나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그런 극단에까지 이르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이 있었습니다. 곧 그는 싸우면서도 상처를 입고 타격을 받았으며, 비틀거리고 굽혔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간을 붙듭시다. 곧 욥에게는 전과 같은 온전한 완전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를 짓눌러 그가 길 한가운데서 쓰러질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그는 자기 길을 계속 갔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19절) 말하듯이, 그는 자기가 원하는 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면서, 자기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했고 너무나 연약한 자기 본성에 가로막혔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고백했다면, 욥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곧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자신을 맞추고자 했지만 그의 마음이 완전히온전하지는 않아서 절뚝거리고 굽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는 우리 조상 야곱에게 일어난 일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믿는 사람들이 시험과 싸울 때 몇 번 호된 타격을 받지 않고 그 흔적이 남지 않는 일은 없으리라는 것을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원수여서가 아니라, 첫 장에서 보았듯이 자기 백성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시험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족장 야곱이 천사와 싸우고 씨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려 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또 그에게 닥칠 싸움을 견디도록 그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하나님께 능한 자' 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가 온전한 채로 남을 만한 승리를 얻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허벅지가 다쳐서 그는 절뚝거리고, 평생 다리를 절게 됩니다. 승리는 그의 것이지만, 그래도 그는 낮아져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맞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어떤 부분에서 굽힐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생 낮추셔서 그들이 자기 연약함을 알고 CO

CO 143 탄식할 이유를 갖게 될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싸워서 승리를 얻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완전히 짓눌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으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고난을 보내실 때, 그들은 마음속에 슬픔을 느낄 수 있고, 흔히 말하듯 어느 쪽으로 돌아서야 할지 모를 만큼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날뛰기도 하고 변명할 수 없는 말을 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그들 안에 거하여 그들을 붙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언제나 어떤 좋은 마음이 있음을 느낄 것이고, 속담에 이르듯 다리는 풀려도 마음은 버틸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어디서, 어디까지 잘못했는지 더 잘 알려면, 사람이 자기 삶을 지켜워하는 것이 어떻게 허용되는지 주목합시다. 지상 생활의 비참을 알았던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은 사람이 이 세상에 올 때, 곧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울음으로 시작하므로 생일은 기쁨의 잔치가 아니라 오히려 애곡의 날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온갖 추함으로 가득한 피조물,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비참한 피조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겪는 가난과 비참은 끝없는 심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삶의 상태와 처지를 바라본다면,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울어야 하고, 사람들이 죽을 때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고 말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많은 고난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의 감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곳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삶에서 그저 존재하는 것, 마시고 먹는 것만이 아니라 명예를 얻고 자기를 내세우며 각자 자기 길을 마치는 것밖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면서 그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새기셨다는 것을 보여 주고, 우리는 그분이 모든 피조물보다 높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함과 존엄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빛나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뿐이라 하더라도,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뻐하고 그분을 높일 이유가 없겠습니까? 또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실 것을 가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증거를 가집니다. 땅이 왜 양식을 냅니까? 우리를 먹이려고 냅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자신을 나타내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CO 144 우리를 살게 하는 도움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사랑의 증명입니다. 우리가 그런 좋은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것을 마땅한 만큼 귀하게 여길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늘 생명의 소망으로 우리를 단련하려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얼마간 맛보게 하시며, 우리를 거기로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섬김과 영예를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그분 집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잘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이 현재의 삶에 두셨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는 동안 탄식하고 울이유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온갖 비참의 심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사람의 처지가 비참하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토록 많은 고난 아래 두셨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처음 창조된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좋은 것들에 인색하지 않으시고, 모든 너그러움의 샘이신 분으로서 그것을 넉넉히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아담의 인격 안에서 인류에게 너그러움 이상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복을 빼앗겼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배은망덕 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서 잘라 내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삶의 모든 비참이 우리 죄의 열매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는 탄식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고 우리 처지가 그토록 가혹하고 괴롭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많은 악덕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토록 많은 반역에 빠져서,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빛나야 할 터인데 오히려 우리가 그분께 대들기로 공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탄식합니다(롬 7:24).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참된 애곡입니다. 춥거나 덥기 때문에, 질병과 다른 재난을 견디기 때문에 하는 애곡이 아니라, 자기가 죄의 감옥과 종살이에 갇혀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하는 애곡입니다. 바울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가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성령의

도구이며, 우리가 이 현재의 삶에서 쉬지 않고 탄식하고 신음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감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가 그토록 많은 악한 욕망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바칠 수 없으며, 우리를 끊임없이 악으로 부추기는 수많은 부패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울의 본을 따라 CO 145 탄식해야 하며, 그가 우리에게 그 규칙을 줍니다.

그러나 여기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이 점에서 그는 변명할 수 없고, 그가 지나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둘을 함께 묶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새기셨고, 우리가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게 하는 영예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이름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 삶이 더할 나위 없이 비참으로 가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의 삶을 주실 때 베푸신 헤아릴 수 없는 좋은 것을 우리는 충분히 귀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기서 살게 하심으로써,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려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느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침착한 정신으로 말할 때에는, 어떤 고난을 견디더라도 결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함으로써 하나님께 배은망덕했고, 그가 자기 한계를 넘어선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찬송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말하자면 바울과 함께 탄식하려고 자기들의 비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두셨을 때 그들에게 베푸신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것을 남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생일을 기념했을 때 그것은 많은 어리석은 짓과 쓸데없는 허세에

빠지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일을 기념하는 일의 기 원과 근원은, 거룩한 조상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지극히 옳다는 것을 알고, 그날을 엄숙한 날로 지켜 자신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이끌려 한 데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몇 해를 지나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쉬지 않고 기억해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들어 온 날에 영원한 기념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기 한 해가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 나는 여러 가지로 그분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그분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분은 내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분이 주신 구원의 소망 가운데 언제나 나를 지키셨으며, 많은 위험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나는 또 한 해로 들어가야 하니,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내가 지나온 험한 길들이, 내가 그분의 도우심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그분이 없으면 내가 십만 번이라도 멸망했으리라는 것을 내게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거룩한 조상들이 자기 CO 146 생일을 기념했습니다. 그것은 좋고 유익한 연습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방인들은 그것을 남용했고,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일잔치를 할 때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는 기도도, 감사도, 자기 죄를 아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일도 없고, 짐승 같은 방식으로 흥청거리는 일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태어난 날을 찬송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송아지나 개처럼 여기 두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습을 지닌 이성 있는 피조물로 두셨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창조에 더하여 그분의 표를 우리 안에 새기셔서 우리가 마치 그분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처럼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교회에 받아들이시는 특권을 덧붙이셨으니, 그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갑절로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견디는 고난과 역경 때문에 분을 품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배은망덕이 있고 자기 감정에 지나치게 흔들린다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욥에게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여,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분이 때때로 우리에게서 나쁜 말이 새어 나오고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굳건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시더라도, 우리가 흔들리기는 해도 넘어지지는 않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어 우리 자신을 억제하기를 배우게 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또 우리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었던 것을 볼 때, 곧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그런 악덕을 정죄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 '사내아이를 배었다' 하고 알려진 그 밤이 저주를 받기를" 하고 말할 때, 욥이 여기서 하나님께 대들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창조주를 찬송할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더해 인류 가운데 남자가 여자보다 앞선다는 조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남자를머리로 세우시고 그에게 여자보다 위의 존엄과 우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않고 다닐 것이라고 말합니다(고전 11:7).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나 새겨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 안에 세우신 이런 단계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도 여자에게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CO 147 무엇보다도 사람, 곧 남자가 태어날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정반대로 "사내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밤이 저주를 받기를" 하고 말합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께서 날들을 정하신 대로라면 그

모든 것을 좋게 여겨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은 모든 것을 정반대로 뒤집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가 다룬 것을 봅니다. 곧 그가 자기 감정 속에서 넋을 잃어서,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왜 나쁜 것은 받지 않겠소? 우리는 그분께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오" 하고 말했었습니다. 욥은 그것을 잘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보다 남자가 태어나는 것이 더 훌륭한 일인데, 그는 자기가 잉태된 그 밤이 저주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시험에 맞설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인내의 거울인 이 사람이 이렇게 휩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가 우리 육신이 밀어붙이는 어떤 지나침으로 동요하여, 바랄 만큼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그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맙시다. 욥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을 낮추되,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실 때까지 용기를 내야 합니다. 또 자녀를 가진 사람들은 아들을 얻은 것을 기뻐하되 딸을 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야망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보내 주시지 않으면 자기에게 큰 잘못을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들이 집안을 다스리고, 자기를 내세우며, 세력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영속시키려 합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딸을 주시면 그것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어리석은 욕구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만을 자주 벌하십니다. 아들을 지나치게 바라는 사람들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들이 결국 그들의 눈을 후벼 파며, 그들의 재산을 삼키는 구렁텅이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아들이 있으면 자식들

이 언제나 집안을 일으키리라고 생각하지만, 대개는 그것이 집안을 욕되게 하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자신을 맞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녀를 가지기를 바랄 때, 그 소원은 CO 148 잘 다스려지기만 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게 후손을 주시면, 제 뒤에도 주님의 이름이 영예를 받게 해 주십시오. 또 제가 아버지라고 불리는 은혜를 주시면, 주님께서 제게 주신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참으로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 섬기기를 배우며,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끄시게 해 주십시오." 말하자면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는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 하나를 보내 주셨는데 그들은 서넛을 갖고 싶어 할 때, 그분이 그들에게 딸을 보내 주셨는데 그들은 아들을 갖고 싶어 할 때, 그들은 "그렇다면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아시니,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무절제한 욕구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어리석음을 조롱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인류의 머리와 같은 존엄을 주셔서 그들을 높이시고 여자들이 낮은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남자들이 그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바울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고전 11:11–12). 인류가 남자, 곧 아담에게서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여자들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인류가 존속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여자들과 떨어져서 따로 작은 세상을 가질 수 있다면 그들에게는 자랑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남자가 자기를 돌아보면, "내 아버지" 하고 말하면서 동시에 "내어머니" 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여자를 통해 존속하니, 우리는 서로에게 빚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또 여자는 어떤 조건으로 창조되었습

니까? 그녀가 남자를 돕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성경이 부르듯 그녀는 남자의 동반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아담에게 알맞은 돕는 이가 없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20]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짐승과 같은 본성을 지니지 않았고, 더 뛰어나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자가 남자의 동반자라면, 남자들이 여자를 업신여기고 발로 짓밟고 내치거나 무시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의 끈으로 하나가 되어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으며 남자와 여자를 통해 우리를 보존하신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함께 한마음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범할 수 없는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공동체의 끈이 있다." 이것이 좋은 중용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넘어갑시다. CO 149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이 어둠으로 덮이고, 한낮의 열기와 폭풍과 비바람에 타 버리며, 한 해의 흐름에서 지워지고, 그 밤에는 별이 하나도 없고, 그 밤이 달의 인도를 받으려고 달력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그는 여기서 자연의 모든 질서를 뒤엎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끓어오르는지 봅니다.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지나침 없이 슬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죄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그분은 고난을 견디셨을 때 그것을 느끼셨고, 신음하셨으며, 슬퍼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셔서, 그분에게는 나무랄 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슬픔이 마땅히 절제되어 그 자체로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었다는 것 말고, 어떻게 그분 안에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모두

20. 창 2:18, 20.

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어떤 반역이나, 어떤 불신이나, 우리 육신의 어떤 지나침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내 주시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 주신 좋은 것을 느끼도록 우리 마음이 넓어지지 않고서는 그분께 감사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는 결코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헛됨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을 보내 주시면 무슨 야망이나 무언가가 거기에 섞일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은 늘 하던 것만큼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것이고, 자기 손에 든 것에 지나치게 머물러 거기에 빠질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사람들이 기뻐하거나 슬퍼하려 하자마자 언제나 지나침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견디기가 몹시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마땅히 있어야 할 고삐가 없고 그들이 길을 잃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난이 클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잊고 휩쓸리지 않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여기서 욥이 그날이 한 해에서 지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할 때 그에게 일어난 일이 그것입니다. 그가 한 해의 날들을 정했습니까? 그가 여기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무엇을 바꾸려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맹세할 때 지켜야 할 절제를 보여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검은 것을 희게 하거나 흰 것을 검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 머리를 두고 맹세하느냐?"[21] 그런데 여기서 욥은 훨씬 더 나아갑니다. 그는 하늘에서 별을 뽑아내고 싶어 하고, 온 세상을 불태워 땅을 말려 버리고 싶어 하며, 구름과 폭풍이 있어 모든 것이 자기 욕구대로 뒤섞이기를 바랍니다. CO 150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고난에 지나치게 짓눌릴 때 너무나 날뛰어서 더 이상 아무 절제도 없고 지나침뿐이라는 것을 봅니다. 욥에게서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탄식하되,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분이

21. 마 5:36.

하시는 모든 일에서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잘 조심합시다. 말하자면 부주의로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욥이 알면서 하나님께 대들려 하지 않았고 그분께 악담하려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각 없음으로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눈이 멀었고, 우리에게는 분별할 지혜가 없으며, 우리는 길도 방향도 지키지 못하고 헤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지나치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거기서 우리를 절제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욥을 목청껏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묻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정죄받아야 하겠습니까? 욥은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여기서 마치 단두대 위에 세우듯 하셔서, 사람들이 그의 비참을 알고, 그가 낮아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떠났을 때 그가 붙들리지 않았다면 지옥까지 떨어질 뻔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단련하려 하시고, 그를 그런 치욕에 내놓아본보기와 가르침이 되게 하셨다면, 까닭도 없이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작은 언짢은 일이 생기거나 누가 그들을 귀찮게 하면, 어떤 사람이 그들을 화나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갈기갈기 찢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왜 나를 화나게 했는가?” 하는 핑계가 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들에게 사소한 언짢은 일을 하면, 파리 한 마리가 그들 눈앞을 날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기갈기 찢기시고, ‘죽음’ 이니 ‘피’ 니 ‘살’ 이니 그 밖의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말이쏟아질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 예수께서 이런 괴물들에게 이렇게 치욕을 당하시려고 사람의 육신을 입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땅 위에 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무개가 나를 화나게 했다” 하고 핑계를 댈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사람에게 따지지 않습니까? 너를 괴롭힌 그 사람에게 따진다 하더라도 그 일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

님을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은 자연을 거스르는 괴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과 찬송을 받아야 할 터인데 오히려 우리에게 모독을 받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한 조항은 이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할 때 마치 타고난 수사학이 있는 것처럼, 나무랄 데 없는 웅변가가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분이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공평하시다고 고백하고, CO 151 우리의 모든 말에서 온전한 경외로 그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할 때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빈약하게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잘 다듬어진 말 한마디를 끌어내기도몹시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독하려 할 때에는 그들이 더할 나위 없이 우아해집니다. 마치 모두가 훌륭한 언변을 익히려고 학교에 다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욥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자제했고 시험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의 천성이 그를 휩쓸어서 그가 너무 술술 흘러나오는 수사를 참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가 여기서 그토록 많은 표현을 늘어놓고 마치 무더기처럼 쌓아 올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악덕이 사람들에게 뿌리박혀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입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말이 그분의 영예를 향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분이 우리를 억제하셔서, 그분의 심판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그분이 보내시는 징계와 그와 비슷한 것들에 대해 말해야 할 때, 엇나가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조심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위엄을 경외하여 우리의 말이 잘 다듬어지고, 거기에 수치스러운 것이 전혀 없으며, 여기서 욥에게 일어난 것처럼 날뛰는 것은 더더욱 없게 해야 합니다.

그가 “날을 저주하는 데 익숙한 자들이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를,

울음과 슬픔을 높이는 자들이 내가 잉태된 그 밤에 대들기를" 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더욱 그렇게 하도록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욥이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사람들의 감정이 일단 끓기 시작하면 아무 한도도 끝도 없다는 것을 더 잘 봅니다. 마치 냄비가 첫 번째로 끓어올라 거품을 내뿜고 나면, 다른 것들이 뒤따라 와서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그러해서, 너무나 지나쳐서 단번에 그것을 이겨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거룩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이를테면 다윗은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하려 할 때, 자기의 모든 감각과 모든 노력을 거기에 쏟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람들을 자기와 함께 부르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시 148편). "너희 땅 아, 너희 하늘아, 너희 나무들아, 너희 산들아, 너희 우박아, 너희 눈아, 너희 비야, 감각 없는 모든 피조물아, 하나님을 높여라." 우리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 할 때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열심을 봅니다. 곧 남자와 여자들이 우리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힘쓸 뿐 아니라, 감각 없는 모든 피조물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야 하고, 이 세상 위에도 아래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거기에 힘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시험에 맞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바깥의 원수들이 걸어올 싸움에 맞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망에 맞서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2편

욥기 3장 설교 2

CO 33:152–164

> 어찌하여 나는 어머니 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태에서 나오자마자 숨을 거두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으며,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랬더라면 지금쯤 나는 누워서 쉬고 있을 것이고, 잠잠히 있을 것이며, 내게 안식이 있었을 것이다. 황폐한 곳에 건물을 짓던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함께, 금을 가지고 은을 자기 집에 쌓던 군주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숨겨진 낙태아처럼, 빛을 보지 못한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거기서는 악인들도 소란을 그치고 쉬며, 수고하던 사람들도 잠잠히 있다. 거기서는 갇힌 사람들도 함께 편히 쉬고, 감독관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거기서는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똑같고, 종이 주인에게서 놓인다. (욥 3:11–19)

이 설교는 10절 풀이를 계속하고 그다음 절들을 다룹니다.

CO 152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슬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거나, 적어도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누그러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어떤 역경에 짓눌리고 있을 때, CO

CO 153 하나님께서 내게 그토록 많은 좋은 것을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이 내 슬픔을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것과 은혜에 대해 가진 앎을 잊어버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인내의 참된 거울인 욥에게서 그 본을 봅니다. 그는 어떤 고난을 견디든 이성 있는 피조물로 이 세상에

놓였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으며,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도록 어른이 될 때까지 먹고 자랐다는 것만 해도 큰 행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것들은 헤아릴 수 없는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기는커녕 차라리 그것들을 결코 맛보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우리를 얼마나 어지럽히는지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쁨이나 고통의 덜어짐을 얻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그것을 분노로 바꾸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좋은 것도 베풀지 않으셨기를, 우리가 그분을 결코 알지 못했기를 바랍니다. 욥이 이것에 완전히 동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리 생각하지 않은 말이 그에게서 새어 나오고, 그것은 그가 견디는 고난의 격렬함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굳게 재갈을 물려서, 그런 공상이 머리에 떠오르면 멀리서부터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크고 악하며 정죄받아야 할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시편 22편에서 다윗의 인격 안에,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보여진 본을 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도움을 잃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나 반대하시는 것으로 보여서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식한 뒤에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어머니 태에서 끌어내셨고, 모태에서 나를 받아 주셨으며, 내가 주님을 알거나 부를 수 있기도 전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22] 다윗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노래하려고 이것을 자기 앞에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토록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분으로 자신을 보이셨으니 지금도 자기를 불쌍히 여겨 보아 주시리라는 것을

22. 시 22:9–10.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앞으로 올 때를 위해 좋은 소망 가운데 자신을 굳게 합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공통된 교훈입니다. 곧 우리가 역경에 짓눌려 더 견딜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헛되고 헛수고인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면서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새기셨으며,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을 CO 154 알도록 우리에게 많은 감각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높이 들어 그분이 받으셔야 할 찬양을 드리게 해야 하고, 또 그분이 지금도 우리가 전에 느꼈던 그런 분으로 자신을 보이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께 소망을 두도록 우리를 찌르는 박차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완전히 악에 내버려졌을 때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으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말입니다. "걸림돌을 놓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창조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마 18:7)[23]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재난과 괴로움을 겪어야 할 때, 그것이 우리를 너무 분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빛을 누리게 하실 때, 그것도 그분이 그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새기셨으므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실 때 보여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욥에게는 배은망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그가 그런 말에 동의하는 사람처럼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는 너무 흔들려서 이 말이 입에서 새어 나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토록 많은 좋은 것을 베푸셨으니 그것을 인정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에 맞설 얼마간의 인내와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연약함이 섞여 있어서 고통이 우리를 휩쓸고, 우리 안에 너무 격렬한 폭풍이 있어 마땅히 그래야 하는 만큼 우리 자신을

23. 이 참조는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직접 표현은 마태복음 26:24에 있습니다.

완전히 절제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로써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걸어가고, 언제나 경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아시는 그런 연약함을 도우시고 거기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또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밀려서 날뛰고 그런 탄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그런 싸움을 이겨 내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나 어떻든 제가 말씀드린 교훈을 실천합시다. 곧 지난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앞에 두어, 그것이 우리를 위로하게 하고, 번민이 우리를 완전히 짓누르도록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간 맛보아서, 아무런 조짐이 없고 우리가 완전히 쫓겨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분께 여전히 긍휼을 바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사람들이 한번 탈선하면 끝이 없다는 것을 봅니다. "어찌하여 나를 밴 태가 닫히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이 세상에 나왔던가?" 하고 말한 것만도 이미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더해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CO 155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꼈는데도 그것을 유익하게 생각하는 데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내던진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 손에서 받은 어떤 좋은 것을 알게 하시자마자 그것에 마음이 움직여,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꿀 만큼 비열하고 비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마땅히 해야 할 것과 반대로 돌리기 시작하면, 그 악과 그 악덕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욥에게서 그 본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태를 여셔서 우리를 세상에 오게 하실 때, 그분은 또 우리를 받아 줄 여인들을 주십니다. 불쌍한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더할 나위 없는 궁핍 속에서 나오므로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먹여 살릴양식을 마련하시고, 여인의 피를 젖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거기서 양분을 얻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각도 이성도 없고, 우리가 죽음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도와달라고 청할 수도 없을 때 이렇게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오시고 앞질러 행하십니다. 이것들은 여러 종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이 여기서 그것들을 한 다발로 묶어 모두 업신여기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받은 어떤 은혜를 우리 앞에 내놓으시자마자 그분의 아버지다운 선하심을 느끼도록 마음이 움직여 그분께 감사드리라는 권고를 받읍시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했으면계속합시다. 속담에 이르듯 빵은 화덕에 넣을 때 모양이 틀어지기 때문입니다.[24] 사람들은 일단 탈선하면 더 이상 아무 한도도 지킬 줄 모릅니다. 그토록 남다른 꿋꿋함을 지녔던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작은 바람만 불어도 쓰러지는 나뭇잎일 뿐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분이 우리 손을 굳게 붙드시게 해야 할 필요를 압시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한 뒤에 더 나쁜 것을 덧붙입니다. 곧 자기가 죽었더라면 안식을 얻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고, 더 이상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으며, 더 이상 종도 주인도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어지럽혔던 자들도 거기서는 잠잠하고, 수고했던 사람들도 같은 안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워서 잠들어 있을 것이고, 더 이상 아무 걱정도, 고난에 대한 두려움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처음 보기에는 욥이 여기서 다음 생명이나 부활에 대한 소망이 더 이상 없는 이방인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CO 156 때로는 우리 안의 감정이 너무 크고 격렬해서, 하나님의 씨가 질식된 것처럼 되고, 우리가 지녀야 할 신앙의 그

24. 처음을 그르치면 끝까지 그르친다는 뜻의 프랑스 속담입니다.

모든 밝음이 흐려지며, 모든 생각이 발아래 깔려서 아무 힘도 낼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잘 주목해야 하지만, 잘 이해되려면 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 우리 눈을 얼마나 멀게 하는지 봅니다. 우리가 여름에 더위를 느끼면(이런 친숙한 예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견뎌야 할 가장 괴로운 고통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무거워서 기진하고 더 이상 몸을 가누지 못하며, 돌이 갈라지는 서리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시원해지고 더 편안할 것 같습니다. 겨울이면 더위를 견디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닐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현재의 감정이 우리를 휩쓸어 가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어떤 고통을 견디는 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여리고 섬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기 천성과 체질에 따라 자기가 견디는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끝까지 분을 품습니다. 이런 경험을 볼 때,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자기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시다. 여기 욥에게서 그것이 보입니다. 그는 자기 고난에 너무 짓눌려서 죽은 뒤에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다음 생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가 그것에 대한 앎과 확신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재에 덮여 질식된 듯한 덮인불처럼 남아 있습니다. 또 악하고 그릇된 감정이 우리가 알았고 우리에게 확실했던 것을 이렇게 잊어버리게 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우리는 좋은 열심도 모세와 바울에게서 그런 성질을 지녔던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백성이 구원받도록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25]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하고 거룩한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택하신 사람들을 없애 버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바꾸시는 분입니까? 모세는

25. 출 32:32.

자기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그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생명책에서 지워지기를 바랍니까? 곧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의 수에 결코 들지 않았기를 바랍니까? 그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합니다. 그것이 거짓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그의 열심이 그를 휩쓸어 갈 뿐입니다. 그 열심이 그 안에서 너무 뜨거워서 그에게는 백성의 구원말고는 아무것도 마음에 두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CO 157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을 멸하시리라는 정죄의 선고를 들을 때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택하신 이 혈통이 이렇게 없어진다면, 하나님의 언약도 폐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주님, 이 백성이 모두 멸망한다고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제가 주님의 책에서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모세는 그런 번민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을 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끝까지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잠시 그에게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책에서 지워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나는 내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저주를 받기라도 바란다" 하고 말합니다(롬 9:3). 어떻게 그렇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았고, 자기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택함 받은 도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그 은혜를 뒤엎으려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 그 흐름을 끊으려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곧이어 밝히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선하고 거룩한 그의 열심이 그를 밀어붙이고 불태워서, 그는 당장은 자기 구원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에게 그분의 약속을 이루셔서 그분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들로, 좋은 감정도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궤

도를 벗어난 것처럼 되어,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아주 확실했던 것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욥이 너무 심하게 짓눌려서 여기서 얼빠진 사람처럼 말하고, 죽은 뒤에는 모든 것을 공통되고 똑같게 만들며, 그의 말대로라면 사람들이 멸망하고 다음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새로운 일로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다른 판단을 잘 품고 있지 않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는 황홀경에 빠진 사람처럼 말합니다. 고통이 그의 눈을 너무 멀게 해서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마치 파도가 서로 부딪치는 끓어오르는 바다처럼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 눈멀었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훌륭한 거울입니다. 우리 감정은 이성을 따르지 않아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확고해야 할 것들조차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생명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나귀나 소가 되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짐승들은 현재의 삶을 누리고, 먹고, 쉬고, 별 두려움 없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빵 한 조각도 걱정 없이 먹지 못하고, 쾌락 한가운데서도 많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CO 158 다른 데서 오는 고통도 필요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의 사형 집행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음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남아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이방인들도 짐승처럼 되었으면서도 다음 생명과 영혼의 불멸에 대한 얼마간의 앎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핑계할 수 없게 하는 어떤 표를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죽은 사람을 묻으려고 만든 무덤뿐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여기 욥은 그 모든 것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가 이미 보여 드린 것 말고 무엇을 말하겠습

니까? 곧 우리가 감정에 고삐를 풀어 주면, 그것이 우리 눈을 후벼 파거나 너무 두꺼운 눈가리개가 되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엉뚱하게 말하며, 침착한 정신이 전혀 없고, 우리 말을 절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욥에게 베푸신 은혜를 주목합시다. 그는 그런 터무니없는 말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경솔한 말이 그에게서 새어 나왔을 뿐입니다. 누가 그 자리에서 그에게 "무슨 말이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사이에 아무 구별이 없다는 말이오?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낸다는 말이오? 당신은 하나님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한 불신자처럼 말하는구려. 하나님께서는 죽은 뒤에 이 생명보다 더 나은 생명이 있고, 그분이 그분의 백성과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마련하신 영원한 기업이 있다고 우리를 가르치시오. 또 버림받은 자들은 평생 그분을 업신여겼으니 그분이 자기들의 재판관이심을 알게 될 것이오" 하고 물었다면, 그렇습니다, 욥이 그렇게 질문을 받았다면 그는 그런 것들을 고백했을 것이고, 그것도 진심으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는 그런 것들에서 착각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시험의 공격을 받을 때 그것에 맞서려면 우리는 그 앎 안에 끈기 있게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러 가고, 사람의 구원에 필요한 것을 배웠는데도, 그러는 동안 게으르고 이미 들은 것을 묵상하려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이 잘 무장해서갑옷과 투구와 칼과 방패를 갖추었는데 그 모든 것을 갈고리에 걸어 두고 무기가 녹슬게 내버려 두어서, 정작 필요할 때 칼이 칼집에 박혀 빠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내게는 무기가 다 준비되어 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써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의 무기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가 그것을 거기서 녹슬게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CO 159 필요할 때 칼도 방패도 다룰 줄 모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에 좋고 알맞은 것을 알았을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스스로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우리 쓰임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모를 것입니다. 또 그 앎은 녹슨 것처럼 되어서 필요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할 때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유익을 위해 보여 주시는 것을 한 번 안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자신을 단련해야 하며, 그 기억이 우리에게 새로워져서 거룩한 성경의 참된 쓰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했던 욥에게(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으로 주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 일어났다면, 말하자면 필요한 때가 오자 그가 거기서 얼이 빠졌다면, 아, 훨씬 더 연약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분이 때때로 우리를 낮추시려고 우리의 연약함이 지나치게 지배하도록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만큼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힘이 없게 하실 때에도, 그것이 그분의 장부에서 지워지고 셈에 들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죄 선고를 받기를 원합니까? 먼저 우리 안에서 알아차리는 악덕을 우리 스스로 정죄해야 합니다. 또 다음 생명의 상태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가 알아야 유익한 것을 보여 준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곧 사람들이 자기 달음질의 끝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서 거두어 가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현재의 삶은 달음질이나 경주장에 비유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으로 우리의 달음질과 여정을 마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몸에서 떠난 뒤에 고통을 겪거나 행복한 기쁨 가운데 있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먹고 마실 걱정, 입을 것을 마련할 걱정, 사람이나 짐승에게서 오는 해를 피할 걱정 같은 현재 삶의 수고는 모두 그칩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쁨 가운데로 거두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되고 마련된 그 면류관을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몸이 함께 완성되고 온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그분이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골 3:3). 그러나 아무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 그 기쁨에 참여하고, CO 160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시며 그들이 헛되이 그분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또 바울이 하는 말도 주목해야 합니다. 곧 우리가 이 죽을 몸 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보거나 바라보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으므로 소망 가운데 걸어가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바라던 것을 보고, 전에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던 것이 그때 우리에게 밝혀진다는 것입니다(롬 8:23–24; 고후 5:7). 그러므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가면 하나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있으며,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여서 멸망할 수 없다는 것을 알되, 이 현재의 삶에서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잘, 훨씬 더 큰 힘으로 압니다. 버림받은 자들은 처형과 고문의 시각만을 기다리는 불쌍한 사형수와 같지만,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정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들을 위해 마련된 저 마지막 파멸에 이르기까지 어두운 감옥에 갇혀 사슬에 묶인 듯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26] 이것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동안 다음 생명의 상태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간추려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절제 있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호기심 많은 질문에 너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사람들은 낙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 낙원에서 무엇을 하는지 캐묻기를 더 좋아할 것입니다.

26. 벧후 2:4; 유 6.

여기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 하고 선언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갈 수 있는지 보여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방법대로 그분께 가까이 가야 할 때 우리는 놀랄 만큼 차갑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것은 무엇인가? 저것은 무엇인가?” 하고 캐물으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시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27] 그래서 거룩한 성경이 이런 절제를 씁니다. 우리가 이런 하찮은 질문에서 지나치게 예민해지려 하지 말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이 조항, 곧 죽음에서 모든 사람에게 안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굳게 확신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들, 악인들까지도 현재 삶의 필요에서 벗어나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재판관이시며 그분에게서 아무 자비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며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파멸이 다 마련되어 있고 자기들이 지옥에 빠지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거기 소환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것은 세상의 모든 수고와 모든 CO 161 고통을 넘어서는 불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탐하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그분이 우리 모두를 그분의 하늘나라로 거두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를 언제나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미 말씀드렸듯이 욥의 말이 엇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거기서 좋고 유익한 교훈을 얼마간 거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그가 왕들과 군주들이 황폐한 곳에 건물을 짓는다고 말할 때, 그는 세상에 빠져 이 땅에서 자기를 내세우려는 사람들 안에 있는 어리석은 야망을 보여 줍니

27. 고전 13:12.

다. 사람들이 집과 궁전을 지으려고 구상하고 계획하고 의논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에는 흔히 지나침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연의 질서를 따라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거처를 갖기를 원하신다" 하고, 그에 따라 자기 형편대로 살 집을 짓는다면 그것은 좋은 절제를 지키는 것일 터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 궁전과 성에 자기 이름의 영원함을 새기려 하며, 사람들이 멀리서도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런 곳을 지었는가? 저 군주였다." 그러므로 이것이 자연의 질서를 넘어서는 야망입니다. 욥이 뜻하려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을 찌르는 걱정이 많아서 수고하는데, 다른 데서 누가 그들을 떠밀 필요도 없다. 그들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자연을 거슬러 싸우기 때문이다." 황폐한 곳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어떻게 이런 곳에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하고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가 알맞고 편리한데 거기에 아름다운 건물이 있는 것을 본다면, 좋습니다, 그것은 그다지 이상하지 않을 것이고, 말하자면 사람들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다가갈 수 없는 곳을 보고, 어떤 사람이 감히 "내가 이곳을 쓸모 있게 만들겠다" 하고 말한다면, 보십시오, 황무지에 건물이 들어서고, 마치 새로운 세상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께 대들려 합니다. 그들은 세상과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신 질서를 고치려 하고, 아무것도 자기들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빗장을 두시고 "너희는 더 나아가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있는 야망입니다. 욥이 여기서 지적하려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렸듯이 그의 말은 몹시 터무니없지만, 어떻든 거기서 여전히 좋은 교훈을 얼마간 거둘 수 있습니다.

또 그가 "종이 CO 162 주인에게서 놓이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하나가 될 것이다" 하고 덧붙이는 것은, 사람들이 현재의 높은 지위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통치권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또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82:6)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였다. 너희는 신들이다." 곧 군주들과 높은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권을 주신 것처럼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보다 우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너희는 죽을 인간이니 사람처럼 죽을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은 눈이 멀어서는 안 되고, 자기 처지가 연약하다는 것, 세상이 그 형체와 함께 지나간다면[28] 그들의 재물도 세력도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기에 취하지 말고 언제나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종과백성을 거느린 사람들은 "우리는 결산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늘에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주인이 계신다"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듯이 (엡 6:9), 거기에는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종의 신분도 주인의 신분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의 통치 질서와 위정자들의 위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세상에만 관계되고, 세상은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도 지나가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과 절제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아무것도 꾀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작한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곧 욥의 말은 그래도 엄청나고 지나치며 아무 절도가 없고, 그가 거기에 동의했다면 그것은 끔찍한 모독이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에게는 자기를 절제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었으므로 많은 나쁜 악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싸우면서 자기 육신에 언제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28. 고전 7:31.

실제로 여기서 우리는 욥이 어린아이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봅니다. 그가 낙태아라고 말할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어머니 태에 두셨을 때 거기에 영혼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알다시피 피조물이 어머니 태에 잉태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혼을 불어넣으시며, 그것이 생명의 씨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르게 판단하며 검은 것과 흰 것을 분간할 만큼 침착한 정신이 아니라,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그것이 어디서 비롯됩니까? 말씀드렸듯이 그의 감정의 그 격렬함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욥이 귀먹고 눈멀 수밖에 없게 만드는 폭풍이나 뇌우와 같습니다. 때로 천둥이 칠 때 대기가 너무 거세게 흔들려서 CO 163 아무것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감각이 넋을 잃은 것처럼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번개를 보고, 벼락 소리를 듣고, 거센 우박이 쏟아지면, 우리는 멸망할 것만 같아서 마치 안으로 움츠러든 듯이 감히 우리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욥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알고, 그러면서 이미 다룬 교훈도 붙듭시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두 극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내란 사람을 완전히 평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면 인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분을 품고 그분께 맞서더라도 결국 자기 악덕을 싫어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래도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기 고삐를 풀어 많은 죄를 허용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고도 자기가 인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복종하도록 인내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 슬픔도 없고, 때로는 더 분하지도 않으며, 우리에게 부딪쳐 오는 파도를 느껴서 거기서 넋을 잃을 만큼 되지도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싸움 속에

있을 때에도 그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을 부릅시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얼마나 죄가 있는지 언제나 느끼고, 그분이 그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런 싸움에 맞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싸움에 단번에 짓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맞설 얼마간의 힘과 능력을 주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싸움의 끝에 이를 때까지 그분이 그것을 우리 안에서 더하여 주시게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3편

욥기 3장 설교 3

CO 33:164–175

> 어찌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빛을 주시고, 마음이 슬픈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그들은 죽음을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숨겨진보물을 찾는 것보다 더 애써 그것을 찾는다. 그들이 무덤을 찾아낸다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크게 기뻐할 것이다. 길이 감추어지고 하나님께서 사방을 막아 버리신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시는가? 나는 음식을 먹기도 전에 탄식하고, 나의 울부짖음은 넘쳐흐르는 물과 같다.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닥쳤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일어났다. 나는 형통하지도 않았고, 평안하지도 않았으며, 쉬지도 않았는데, 이 고난이 내게 닥쳤다. (욥 3:20–26)

CO 164 욥이 여기서 하는 탄식은,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땅에 두신 뒤에 많은 비참으로 그들을 단련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잘못을 하시는 것인 양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셈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편안하게 살게 하시고 많은 괴로움으로 우리를 괴롭히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담긴 내용의 요지입니다. 욥이 마치 소송을 거는 것처럼 하나님과 다투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가 겪은 고통이 그를 그렇게까지 휩쓸어서 이런 따지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는가?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알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아서 그분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반대로 고난당하고 많은 비참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본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그들을 여기 붙들어

두시는가? 그분은 자기 이름이 모독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분이 그토록 혹독하게 다루시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죽음이 눈앞에 있거나 죽음을 이 사이에 물고 있을 때, 그들은 으르렁거리고 분을 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 불평할 거리이고, 그분이 그 원인을 만드신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좋고 아주 유익한 경고를 받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에도 그래도 그분의 선하심을 얼마간 맛보게 하셔서, 고난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는 동안 그분이 우리 기쁨을 크게 줄이시고 그것을 쓴맛으로 바꾸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과 그분을 모독하는 것 사이에는 중간 길이 있습니다. 곧 고난에 짓눌릴 때 그분을 부르고, 그분께 피하며,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받아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코 이 중간 길을 CO 165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 바라보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괴로움과 언짢은 일을 보내실 때마다 그분은 그러면서도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옥죌 수 있는 번민을 누그러뜨리신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좋은 것들을 바라본다면, 그분이 그들을 모태에서 끌어내신 뒤에 생명을 주시고 어릴 때부터 그들을 먹여 기르셨다는 것 하나만이라도 바라본다면, 그들이 완전히 절망에 짓눌려 있을 때에도 그것이 그들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 드렸습니다. 다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당하게 괴롭게 하실 수 없겠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은혜를 넉넉히 베푸시니, 우리는 그분이 보내시는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한다. 위에서 욥이 보여 주었듯이 본성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슬픔이 누그러져야 합니다. 너무 쓴 약에 설탕이나 꿀을 넣으면

그것이 당과 구실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목이 막힐 것 같은 약을 환자가 더 잘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보내시는 징계의 쓰임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마다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신실하다면 우리가 한도를 넘어 괴로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마치 그분에게서 가혹함밖에 찾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분을 품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으므로, 우리의 배은망덕이 가로막지만 않는다면, 그분이 우리 바라는 대로 다 보내 주시지 않더라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제가 이미 다룬 둘째 조항도 주목해야 합니다. 곧 우리에게 괴로움밖에 없고, 우리가 거기서 고문대에 묶인 것처럼 붙들려 있으며, 기뻐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들려고 서둘러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는 거기서(약 5:13) 우리가 지켜야 할 길을 보여 줍니다. 그는 "우리가 즐거우면찬송하자" 하고 말합니다.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흥청거리며 날뛰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기쁨을 두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괴롭고 번민할 때에는 기도가 있으니,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의 엄격함을 누그러뜨려 주시기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CO 166 정신이 다하여 더 견딜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덤벼들거나 그분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과 반역으로 가득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시다. "주님, 여기 불쌍한 피조물이 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 받아 주시고, 제가 더 이상 질 수 없는 이 고난을 덜어 주시도록 긍휼을 보여 주시는 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동안 혹독하게 징계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자기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 교훈을 묵상했으면서도 시험에 맞설 만큼 그것으로 충분히 무장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는 여기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는가?" 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많은 괴로움 가운데 붙들어 두시는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또 이 땅에서 그들의 처지가 비참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며, 그분이 우리를 벌하시고 여러 가지로 단련하시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억지로 여기 붙들어 두시고 우리가 이 삶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유로 그분과 소송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때문에 아무 분도 품어서는 안 되는데, 욥은 그것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에게도, 제가 말씀드린 그 점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짢아하고 분해하는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더욱더 이 두 가지 점에 우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역경을 보내실 때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시면서도 우리 고통을 누그러뜨리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배은망덕이 그것을 가로막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번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분께 나아오라고 권하시며, 말하자면 우리가헐벗은 것처럼 되어 더 견딜 수 없을 때마다 기도에 의지하라고 우리를 재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치료법입니다. 곧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을 불러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게 하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하나님께

나아가 봐야 소용없다" 하고 말할 만큼 혼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혼란을 경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구원이 언제나 보장되어 있으며 그분이 우리 고난 한가운데서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리라는 것을 압시다. 이 두 조항이 우리 기억에 잘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여기 붙들어 두시는가?" 하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죄가 어떠합니까? 그 수가 끝이 없습니다. 또 CO 167 우리 욕망을 바라보면 거기에도 고쳐야 할 것이 심연처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죽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빠져 있는지 바라보면,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 마음이 거기서 끌려 나와야 합니다. 또 우리의 교만과 주제넘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데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재촉하셔야 합니다. 또 우리 믿음이 시험받고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붙들어 두시고, 우리가 비참하며 우리 평생에 수고와 괴로움과 고통과 번민밖에 없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한 조항은 이것입니다. 또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주십니다. 우리 고난에 그런 치료법이 있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시험에 대비하여 무장하고 채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시험은 욥에게서 지나치게 지배했지만, 그가 거기에 완전히 정복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여기서 무덤을 찾고, 숨겨진 보물처럼 기꺼이 그것을 파내려 하며, 죽기를 바라지만 죽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할 때, 진행을 보면 알겠지만 그는 자기를 그 부류에 넣습니다. 그로써 그는 자기의 연약함과 악덕을 확인합니다. 믿는 사람이 마지못해 살면서 그렇게 죽음을 바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한 가지 이유로 죽음을 바랄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여기서 이 죄의 종살이에 붙들려 있어서 바랄 만한 그런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많은 악덕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입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탄식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속히 이 세상에서 거두어 주시기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듯이, 우리가 여기서 너무 혹독하게 다루어진다는 이유로 우리 삶을 미워하고 여기 붙들려 있는 것을 언짢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의 처지를 참고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 한도를 지키는 것을 봅니다. 그는로마서에서(롬 7:24–25) "아, 누가 나를 이 죽을 몸에서 건져 내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비참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바울은 한편으로 자기를 비참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세상에서 거두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만족하고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하시고, 그가 많은 가난과 비참에 매여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만족입니다. 이제 전체를 더 잘 이해하려면, 욥이 두 가지로 잘못했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곧 그는 죽음을 바라면서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았고, 또 거기서 한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CO 168 아주 무거운 두 가지 잘못입니다. 욥이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목표에 눈을 두지 않았다는 말은, 그가 자기를 불쌍한 죄인으로 보고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그 완전함에 이를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바란 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 짓눌려서 자기 몸으로 견디는 것과 이미 재산으로 견딘 것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나치게 짓누르신다고 생각하여 죽음을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첫째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쓰임에 적용하면 더 잘 이해되고 밝혀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잘 살피고 검토하여 이렇게 바라본다고 합시다. “나는 이런 악덕에 빠져 있고, 그것과 싸우지만 이겨 내지 못한다. 그것도 한 가지 악덕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다. 이것이 나를 괴롭힌다. 물론 나는 거기에 고삐를 풀지 않고, 거기서 즐거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완전히 정복당하지 않도록 자제한다. 그러나 마땅히 그래야 하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과 내 육신에 맞서는 데 뜨겁기에는 한참 모자란다. 나는 내 욕망에 붙들리고 가로막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삶을 잘 검토한 뒤 자기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아, 나의 하나님, 제가 여기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봅니다. 언제나 이것에서 건짐을 받겠습니까? 저는 제 안에 죄를 지니고 다녀야 하고, 죄가 거기서 왕 노릇 하지는 않더라도 거기 거하고 있습니다. 죄란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는 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니 저는 사탄과 죽음의 종입니다. 아, 나의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나 이런 쇠약함 속에 머물러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처한 그런 포로 상태에서 풀려나기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런 탄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괴로워해야 할 때, 추위나 더위나 가난이나 질병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죄를 바라봅시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더 높이 올라가라는 신호가 되게 합시다. 몸의 고통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렇게 알아봅시다. “이것은 우리 잘못의 열매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으니, 그분이 우리 위에 재판관으로 자신을 보이시는 것은 지극히 옳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죄를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 안에 뉘우침을 일으키고, 바울이 말하는 그 근심을 품도록 우리를 재촉하게 합시다(고후 7:11). 첫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는 것, 곧 우리가 말한 방식으로 죽음을 바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도도 지켜야 합니다. 말하자면 옳은 이유로 죽음을 바랄 뿐 아니라, 우리 소원이 CO 169 절제되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맞게 다스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서 욥에게서 보이는 지나침이 재갈로 막히듯 억제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바울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조항을 다루었습니다. 그는 탄식하고, 이 죽음의 감옥에서 거두어지기를 바란 뒤에,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덧붙입니다. 그는 그런 탄식과 뉘우침 가운데서도 평온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분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는 그분이 주시려는 결말을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 지극히 옳다는 것을 그가 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곧바로 결론짓습니다. 자기가 불쌍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구원이 멸망할 수 없도록 자기를 이끄시리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비참하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분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낮아짐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 세상에서 많은 비참을 견딜 준비가 될 뿐 아니라, 바울이 자기 본으로 보여 주듯이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기꺼이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 사람들에게(빌 1:22–24)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로서는 이 땅에서 거두어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몫이겠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한다. 내 수고가 아직 너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을 세우는 데 나를 쓰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는 그분께 나를 맞춘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속히 떠나는 것이 내게 유익하더라도 나는 여기 머무는 것으로 만족한다" 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복종하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 고난을 참고 견딜 뿐 아니라, 자기 수고가 공동의 유익에 쓸모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이웃을 위해서도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교훈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주 적기 때문에 이 교

훈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히 두시면, 우리는 헛되고 하찮은 기쁨에 눈이 멀어 완전히 취해서,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더 이상 모르고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때는 모독하는 일밖에 없거나, 모독의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불만과 불평과 반역으로 가득한 조급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자기 죄를 생각하고 그런 짐 아래서 신음하며, 또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도우심을 바라보고, 그분이 그들을 CO 170 사탄에게 완전히 정복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며, 그 위에서 그분이 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데서 만족과 기쁨을 얻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수는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헛되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거두어 가실 때까지 평생 탄식하고 신음하며 언제나 그들의 끝, 곧 죽음을 바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온전히 복종하도록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저는 믿는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이 감옥 속에서 쇠약해지는 것을 괴로워하듯이 탄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제가 다룬 이유, 곧 그들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그런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기 줄을 끌고 다니며 자주 굽히고 기운다는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허용되는 한에서 탄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 너무나 게으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찔러 하나님께 우리를 세상에서 거두어 주시기를 구하게 하고, 하늘에 우리를 위해 마련되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날 그 생명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을 바라는 것이 허용될 뿐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나가기를 구하지 않는다면 자기 믿음의 참된 증명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모든 것은 자기 목표를 향하고 그것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저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달려야 하고, 그것이 속히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붙듭시다. 곧 어떤 사람은 질병에, 어떤 사람은 가난에,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것에 매여 있다는 이유로 죽음을 바라도록 부추김을 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지 못했고 우리 안에 많은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우리를 찔러 죽음을 바라게 해야 할 이유입니다. 곧 온갖 악취와 감염으로 가득한 오두막 같은 이 죽을 몸을 벗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며, 그분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고, 우리 본성의 부패한 것이 완전히 없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죽는다는 이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욕구에 빠지지 말고, 마치 제물처럼 거기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것이어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저의 연약함을 압니다. 주님께서 CO 171 저를 이 세상에 두시려는 동안에는, 좋습니다, 제가 여기 있고, 여기 머무는 것이 지극히 옳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여기서 거두어 가시려 할 때, 저는 제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주님의 명령 아래 있으니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처분하십시오."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또 그러는 동안 우리 마음이 언제나 평온하여, 하나님께서 삶에서나 죽음에서 나 언제나 우리에게 아버지와 구원자로 자신을 보이시리라는 것을 알고 언제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합시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한 뒤에, 이렇게 마음으로 번민하는 사람들이 무덤을 찾으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덧붙입니다. 이로써 그는 자기가 짐승 같고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말하며 아무 규칙도 절제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는 우리가 거기서 멸망한다고 고백하기 때

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어떻게 넘어졌는지 봅니다. 치명적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반쯤 넘어졌고,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욥에게 있는 이 연약함을 분명히 정죄해야 합니다. 곧 그가 슬픔에 너무 꺾여서 자기를 붙들어 줄 작은 기쁨 하나라도 얻으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이상 맛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니, 우리는 더욱 힘써 하나님께 기도하여 슬픔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완전히 짓눌리지 않게 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붙들리고 지탱되어슬픔과 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을 느끼게 합시다. 또 우리가 여기서 많은 뉘우침과 괴로움을 겪더라도, 그래도 이 세상에 붙들려 있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좋다는 점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믿음이 시험을 받으며, 우리가 그분을 부르고, 그분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더라도 언제나 우리 아버지시라고 우리가 단언하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 생명을 위해 준비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다운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려는 마음을 주어야 하고, 여기서 욥에게서 보듯이 지나치고 짐승 같은 감정에 우리가 고삐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그는 자기를 이렇게 완전히 삼켜 버린 이 슬픔이 어디서 왔는지, 또 아무 위로도 받지 못하여 자기 고난을 누그러뜨리지 못할 만큼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보여 줍니다.

그는 “길이 감추어지고 하나님께서 사방을 막아 버리신 사람에게” 하고 말합니다. 마치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사방에 울타리를 쳐 놓으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 주목해야 합니다. 욥은 여기서 자기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곧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충분히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CO 172 그는 우리 모두가 걸리는 병 하나를 드러내 보여 줍니다. 곧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 우리

처지가 어떻게 될지 보고 싶어 하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곤경에 빠져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고난이 우리를 짓누르는데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는 절망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흔하고 일상적인 병입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치료법을 찾으려면 우리는 그것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성향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자기 평생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알려고 구름까지라도 뛰어오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하고 계획하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이 말하듯 사람들은 자기평생을 마음대로 처분합니다(잠 16:1). 그는 그들 안에 있는 오만을 비웃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혀끝 하나 움직일 수 없으면서도 이것저것을 처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들은 혀끝 하나 움직일 수 없으면서 "앞으로 십 년 동안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말합니다. 야고보도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있는 이 오만을 비웃습니다(약 4:13).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히 두시는 동안에는 각자 자기 좋을 대로 믿고, 우리는 우리가 작은 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을 뒤집으셔서 우리가 그분의 매를 맞자마자, 우리는 너무 넋이 나가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고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이고,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 갇힌 것처럼 되어서,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욥이 보여 주는 감정이며,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듯 너무나 흔한 병입니다.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우리 고난의 출구를 알지 못하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모를 때만큼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에서 공격을 받아, 완전히 짓눌리고 망하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고 결론짓습니다. 우리에게 이 병이 있습니까? 치료법으로 넘어갑시다. 그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그

지나친 감정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절망한 사람처럼 죽음을 바라며, 하나님께 우리를 완전히 멸해 달라고 구하는 것 말고는 우리 고난에서 아무 덜어짐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병에 맞는 치료법은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밝히 보시게 하고, 우리가 눈멀고 어둠 속에 있더라도 우리 CO 173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좋다고 아시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경도 우리를 거기로 데려갑니다. 예레미야는 "주님, 사람의 걸음이 자기에게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고 말합니다(렘 10:23). 곧 사람이 자기 삶을 정하려 할 때 지나치게 나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감기셔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러야 할지 보지 못하고, 오늘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하실 때 그분이 우리를 낮추려 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흔히 말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루하루 살게 하십니다. 하루 품을 판 일꾼이 내일은 누가 자기를 써 줄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의지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 제 삶이 연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게 일어날 일을 아시고 그것을 미리 보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주님 손에 저를 맡깁니다. 저를 몹시 괴롭히고 짓누를 수 있는 걱정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주님 품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주님의 보호와 지키심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만 하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 마음에 잘 새겨 온전히 거기에 의지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많은 소란에 흔들리더라도, 그것이 좋은 기초가 되어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을 섬기는 우리 소명안에 굳건하고 꿋꿋이 머물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섭리에 머물기를 배웁시다. 세상의 일들이 너무 뒤죽박죽이어서 어느 쪽으로 돌아서야 할지 모를 때에도, 그래도 평온하고 안식하기를 그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배치하시고 이끄셔서,

그분이 한번 그분의 보호 아래받아들이신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욥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자기에게는 아무 안식이 없고, 음식을 먹기도 전에 슬픔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전에 많은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다. 나는 형통할 때 취하지 않았고, 내게 닥친 이 고난을 언제나 두려워했다." 욥의 이 탄식을 잘 주목합시다. 그는 한편으로 자기 고난이 극심하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까닭으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가?" 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협하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쾌락에 취했고, 눈먼 사람처럼 되었으며, 내가 네게 좋은 것을 베풀었을 때 변하여 나를 알아보지 않았으니, 그래서 내가 너를 괴롭게 하겠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CO 174 사람들이 언제나 편안하리라고 생각할 때 그들에게 있는 이 육적인 자신감을 참으실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 그들이 미리 대비하지 않은 폭풍이 갑자기 그들을 짓누를 것입니다.[29]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있는 이 주제넘음과 무모함을 어떻게 벌하시는지 봅니다. 그들은 형통할 때 언제나 그렇게 머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는 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알지 못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기뻐하실 때, 그분이 필요하다고 아실 때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쾌락에 이렇게 눈먼 사람들을 위협하시므로, 욥은 자기가 그토록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것에 놀랍니다. 그는 결코 자기 풍요에 취하지 않았고,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29. 살전 5:3.

언제나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 주시면 더 이상 자기의 썩지 않을 생명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신 그 편안함과 형통함 속에 영원히 머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닥칠 수 있는 고난을 언제나 미리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렇게 기습을 당했습니까? 이것을 지금 다 자세히 풀이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고난을 견디도록 언제나 준비해 왔던 욥이 그런 번민, 그토록 큰 번민에 사로잡혔다면, 우리가 받아 마땅한 대로 훨씬 더 나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잘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한동안 참아 주신다면, 그 위에서 헛되고 하찮은 공상을 품어 우리에게 아무 고난도 닥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단히 깨우셔서 그분이 우리 위에 어떤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신지 보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깨어서 잘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다루시고 우리가 아무 고난도 견디지 않을 때, 그래도 욥의 본을 따라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을 바라봅시다. 그가 두려워하던 고난이 그에게 닥쳤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고난을 멀리서 내다보는 데 그보다 더 날카롭지 않다는 것을 압시다. 또 우리가 거기에 빠졌을 때에도 그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그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분의 종을 도우신 것을 봅니다. 그가 이미 지옥의 구렁텅이에 삼켜진 것처럼 보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를 위해 같은 것을 바랍시다.

이제 이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제14편

욥기 4장 설교 1

CO 33:175–186

>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누가 말을 꺼내 보면 자네가 언짢아하겠는가? 그러나 누가 말하지 않고 참을 수 있겠는가? 보게, 자네는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힘 빠진 손을 굳세게 하였네. 자네의 말은 넘어지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고, 약하여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하였네. 그런데 이제 고난이 자네에게 닥치니 자네가 흔들리고, 그것이 자네를 건드리니 자네가 놀라는구먼. 자네의 경외, 자네의 신뢰, 자네의 소망, 자네 길의 온전함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는가?” (욥 4:1– 6)

이 설교는 3장 마지막 두 절의 풀이를 계속하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4 장을 다룹니다.

CO 175 어제 다룬 욥의 말에 대해,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바라며 평안히 있을 수는 없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욥은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의심과 불안 속에 있어야 하고, 한 손에 쥔 것을 곧 다른 손에서 빼앗기리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이상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하나님께서 불확실하게 두신 것을 사람들이 스스로 믿어 버리는 것은 헛되고 하찮은 주제넘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좋을 대로 상상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결론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만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 말고는 다른 의지할 데를 갖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거짓말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 자

신을 믿을 때에는 헛됨과 거짓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도를 넘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정당하게 비웃으시니, 그들이 기대에서 어긋난다고 해서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되어야 한다는 이 일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봅시다. 그분은 오늘 우리를 생각하셨다면 내일도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는 평생 그분의 손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그분의 보호 아래 두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너질 위험에 처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는 많은 가난과 비참에 매일 것이라고 셈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작은 방에 가두어 두셔서 우리가 CO 176 아무 고난도 보지 않고, 괴로움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 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약속하시지 않고, 다만 우리가 궁핍할 때 그분께 도움과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고난으로 단련하려 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현재 삶의 공통된 고난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그분께 도움을 받고 극한에 이르기까지 버림받지 않으리라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형통할 때 마치 그 상태가 영원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처럼 잠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자신하면 우리는 우리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그분이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리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싸울 것이고, 사방에서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자기 한계를 넘는 사람들은 그 무모함 때문에 벌을 받을 것입니다. 요컨대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의심 속에 있을 수 있으면서도 평안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변화와 뒤바뀜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를 기뻐하실 때 각자 매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발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므로 우리가 완전히 짓눌릴 수 없고,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지나친 불안에 시달릴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슬픔 가운데 괴로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그분을 부르는 것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피하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본성상, 육신을 따라 기우는 그 태평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가 갖는 안전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육적인 자신감을 가질 때 그것은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술 취함과 같아서, 하나님도 그분의 도우심도 개의치 않고,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거나 생각 하시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잘되리라고 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부를 것이고, CO 177 이리저리 둘러보며 우리 삶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처지가 비참하며, 죽음이 사방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끝없는 비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음하며,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를 기뻐하시면 온전히 겸손하게 매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자기 속으로 들어가 자기 죄를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당하게 괴롭게 하실 새로운 계기가 언제나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날개 아래 숨겨진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지키셔서 우리가 아무 괴로움 없이 평안하게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엄격함을 보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타락해 가는 것을 참으실 수 없고, 그분이 아무 징계 없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멸망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자식을 너무 응석받이로 키우면 자식을 망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엄격함의 표시를 보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더욱 타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경험이 보여 주듯이 우리는 걸핏하면 그분의 선하심을 남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기 죄 때문에 매가 준비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오늘 내일 사이에 그들이 지금 누리는 형통을 바꾸어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실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평안히 두실 때에도 너무 잠들어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을 언제나 바라보지 않거나, 그분이 보내실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곧 욥을 위로하러 온 그의 친구 가운데 하나인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에게 맞서 말을 꺼냈다는 것으로 넘어갑시다. 그는 요컨대, 욥이 이렇게 날뛰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징계를 참을성 있게 받지 못하니, 그가 겉으로 지녔던 하나님 경외와 순결은 거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가 잘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더 나아갑니다. 곧 하나님께서 욥을 이토록 혹독하게 다루시니 욥은 버림받은 사람임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사람들은 결코 이런 극한까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욥과 논쟁하는 이 엘리바스가 여기서 꺼내는 서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욥은 옳은 주장을 가졌지만 그것을 아주 서툴게 변론하고, 그의 상대들은 그른 주장을 가졌지만 그것을 아주 능숙하게 변론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CO 178 그른 주장에 그럴듯한 색을 입힐 수 있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기록된 모든 말이 뒤죽박죽이 될 것입니다. 앞서 다루었듯이 욥은 옳은 주장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그런 징계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여기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토록 큰 역경을 보내실 때 그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고, 그것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숨겨진 이유가 있다고 결론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과 변론해서는 이길 수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래도 많은 터무니없는 말을 쓰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가 자기의 옳은 주장을 서툴게 변론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온 이 사람들은 참되지 않은 원리를 내세웁니다. 곧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서 언제나 그들이 받아 마땅한 대로 하나님께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우리는 그 반대를 보고, 성경도 그것을 보여 주며, 경험도 그것에 대한 두 번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러는 동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좋고 거룩한 논거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도 거기서 좋고 유익한 교훈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더 잘 이해하려면 시편(41:1)에서 하는 말을 기억합시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깊이 헤아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곧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해 지혜롭게 판단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재난의 날에 그를 건지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모한 재판관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왜곡하지 않으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곧 더 견딜 수 없을 만큼 매를 맞는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긍휼이 많으셔서 그들을 도우시리라는 것, 그분이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 하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징계와 교정을 지혜롭게 판단하려면 우리는 결말을 기다려야 합니다. 처음부터 판결을 내리려고 들끓어서는 안 되고, 절제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시는지 보아야 합니다. 또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고 그분의 긍휼은 평생 간다고 말씀하시는 대로(시 30:5),[30] 우리는 그쪽으로, 곧 좋은 결말과 행

30. 원문에는 시편 30편 6절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1절로 세는 프랑스어 성경의 절수이므로

복한 결말을 바라고 기다리는 쪽으로 기울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이 날뛰었습니다. 그들은 욥이 끝까지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버림받은 사람의 본보기를 보이려 하신다고, 그가 악하고 비뚤어진 사람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결론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CO 179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 곧 자기 백성이 재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고유한 직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도우신다고 말할 뿐 아니라,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을 무덤에서 끌어내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아무리 크고 엄청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야 합니다. 그 구원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거스르고, 우리가 생각해 낸 모든 방법을 거스를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구절에서만이 아니라, 아주 흔한 교훈입니다. 의인은 꺾일 뿐 아니라 하루에 일곱 번 넘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31]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번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려고 손을 준비하고 계셔서 우리의 넘어짐이 치명적이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부서질 정도에 이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분 자녀들의 처지를 버림받은 자들과 그분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의 처지와 구별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약속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분이 완고한 사람은 고집 센 노새와 말처럼 매를 맞아야 길들여질 것이고(시 32:9), 하나님께서 그분께 그렇게 반역하고 고집부리는 자들을 세게 치기를 그치지 않으실 것이며, 반대로 그분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긍휼에 둘러싸일 것이라고, 곧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형통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실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이 설교의 시편 19편 인용도 같습니다.

31. 잠 24:16. “하루에“라는 말은 설교 원문에 있는 것으로, 잠언의 통상적인 본문은 “일곱 번“이라고만 말합니다.

때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든 고난에서 면제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웅장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약속들을 풀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무덤에서 끌어내심으로써 그들의 구원자로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긍휼로 둘러싸신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 여리게 두셔서 아무 고난도 우리에게 닿지 않고, 우리가 궁핍하지 않고, 아무 결핍도 없고, 결코 슬퍼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려 하지 않으시고(그것은 우리에게 알맞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과 물을 지나가기를, 곧 많은 비참을 지나가기를, 우리 고난이 너무 혹독해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그분은 우리의 궁핍을 고쳐 주셔서, 우리가 우리 구원을 그분에게서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판단하려면 언제나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곧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한 사람들만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분의 믿는 사람들의 인내를 단련하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가장 악한 자들보다 그들을 더 혹독하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이 결말을 바라보고, 첫날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놀라지 맙시다. CO 180 이것이 여기 기록된 것에서 유익을 얻을 줄 알려면 우리가 먼저 세워 두어야 했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여기서 쓰는 말에 대해서는, “누가 말을 시험 삼아 꺼내면” 또는 “누가 말을 일으키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낱말에 두 가지 뜻이 있어서 둘 다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 이라는 이 명사가 때로는 ‘일’ 을 가리키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하시면 네가 이렇게 괴로워해야 하느냐? 네가 그렇게 흔들려야 하느냐?” 하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우리가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을 ‘시험’ 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뜻은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살피시고 너를 시험하시는 것, 곧 네 안에 있는 것을 시험해 보려 하시는 것을 볼 때 네가 하나님께 분을 품어야 하느냐?” 그러나 가까이서 모두 살펴보면, 자연스러운 뜻은 “누가 말을 시험 삼아 꺼내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바스가 곧바로 “누가 말하지 않고 참을 수 있겠는가?” 하고 덧붙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네는 모든 이치를 거슬러 너무 지나쳐서 누군가 자네를 책망하지 않을 수 없네. 세상에서 가장 온화한 사람이라도 자네의 엄청남을 보고 자네가 여기서 들짐승 같은 것을 보면 자네를 꾸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네. 그러니 자네는 제지를 받아야 하네. 자네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점잖은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하도록 몰아붙이기 때문이네.” 이것이 자연스러운 뜻입니다. 그런데 요컨대 엘리바스는 여기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순전한 양심으로 걷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합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다룬 그 일반 논거로 들어갑니다. 곧 의인들은 결코 이렇게 고난에 짓눌리지 않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보복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욥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알아보고 그가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두 조항입니다.

그러면 첫째 조항으로 갑시다. 그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전에 온 세상을 가르쳤고,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했으며, 힘 빠진 손을 일으켜 세웠고, 잘못한 사람들을 바로잡았으며,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했네. 그런데 이제 고난이 자네에게 닥치니 자네가 흔들리는구먼. 그러니 나는 자네가 하나님께 품은 경외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네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고 자네가 내세운 그 기대에 지나지 않았다고 결론짓네. 간단히 말해 자네는 하나님을 외상으로 섬겼네. 자네가 진심으로 그분께 자신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언제나 자네에게 호의를 베푸시리라고 바란 만큼만 그랬네. 그래, 자네는 그분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했지. 그러나

이제 그분이 너무 엄하게 느껴지니 자네는 그분 섬기기를 그만두는구먼. 그러니 자네 안에는 위선밖에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네." 요컨대 이것이 엘리바스가 여기서 벌이는 논쟁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하거나 권고하거나 책망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나 그것은 잘할 줄 압니다. CO 181 가장 무식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흔한 속담에 이르듯 건강한 사람이 아픈사람을 위로하기는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말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거짓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참된 증명입니다.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말을 잘하고, 놀랄 만큼 때에 맞게 말을 늘어놓으며, 말해야 할 때 결코 혀가 막히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손가락 끝으로 그들을 건드리시면 그들은 위로가 무엇인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말할 때, 우리가 입으로 그들에게 하는 말을 참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 두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기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잘못하는 사람을 징계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길을 잃은 사람을 바로잡는 일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분을 섬기는 일도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힘닿는 데까지 온 세상이 그렇게 하도록 힘쓸 것이 분명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바르게 걷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온 세상을 같은 화합으로 이끌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도 우리에게 보여 주는 대로 서로 가르쳐야 합니다(살전 5:11).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검증을 받을 때가 오면, 우리가 겉으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그 속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쓰임이 무엇인지 봅니다. 곧 좋은 것을 가르치고 보여 줄 뿐 아니라, 잘못한 사람들을 바로잡고, 날뛰는 사람들을 책망하며, 연약하고 힘없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언자 이사야는(사 35:3) 이것을 예언자들과 교회의 모든 교사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할 책임을 맡은 모든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밝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고 자기들에게 명령된 것을 제시할 뿐 아니라, 게으른 사람들을 찌르고 자극하며,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키며, 길 잃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는 생생함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참된 쓰임이고, 복음의 효력을 아는 것, 그것이 바르게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바울도 우리가 거룩한 성경을 우리 가르침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보여 줄 때(딤후 3:16), CO 182 그것이 무엇이 좋은지 알고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우리를 권면하고 책망하고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로써 우리는 우리 구원에 알맞은 모든 것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과 기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더욱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만 가져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것을 고치려 하시며, 그분의 말씀이 그 일에 쓰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보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보시고 그 뒤에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가 위선과 악덕 속에서 자기를 추어올리는 쪽으로 기운다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찌르셔서 우리가 우리 악을 느끼고 거기서 즐거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아시는 모든 것을 그토록 잘 마련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그 모든 것에 우리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더 불타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그것이

그런 보배라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9편에서(10절) 말하듯 그것은 꿀보다 더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듣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차가운 해설만 하고 아무 권면도 없으며, 악덕을 책망하지 않고 아무 생생함도 없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훼손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몸의 힘줄을 잘라 내서 더 이상 아무 힘도 없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으러 올 때나 각자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쪽을 향하라" 하시며 무엇이 좋은지 보여 주려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죄를 책망하셔서 그것이 우리를 찌르고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기를 가르치는 전갈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게으른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그런 열심으로 그분을 향하지 않아서 그분이 우리에게 박차를 가하시고 우리를 재촉하셔야 하며, 이 모든 권면이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그분의 뜻에 기꺼이 복종하게 하는 목적에 쓰여야 한다는 것도 바라봅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쓰임에 맞게 써야 하고, 이렇게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이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좋은 것을 백성에게 신실하게 제시했다고 해서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CO 183 권면하는 힘을 지녀서 게으른 사람들이 얼마간 찔림을 받게 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며, 자기 악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찔러서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이런 것들을 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야 하듯이, 우리 각 사람도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도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대로입니다(히 12:12). 그는 예언자 이사야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각자 자기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십시오,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을 전하도록 세워진 모든 사람에게,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고, 힘 빠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꺾인 사람을 일으키고, 길 잃은 사람을 바른 길로 돌이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나의 친구들이여, 여러분 각 사람도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돕고, 너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을 강하게 하며, 슬픔에 꺾인 사람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간단히 말해 각자 자기 이웃의 구원에 알맞고 유익하다고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설교자의 직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욥이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는 이 증언이 그에게 돌려질 때, 그것은 먼저 그에게 있었던 덕의 탁월함을 우리에게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곧 우리 힘닿는 데까지 온 세상을 우리와 함께 이끌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합니다. 모두가 그토록 큰 은사를 받지는 않으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 분량을 살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능력에 따라 이웃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 교회의 공동의 덕을 세우도록 우리 안에 새겨 주신 것을 각자 감당해야 하고,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어야 하며, 우리가 모두 함께 나누어서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각자 자기 이웃을 섬기려고 애썼다고 단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이제 엘리바스가 내리는 결론으로 갑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닥치자 자네가 흔들리니, 자네는 위선자에 지나지 않았고, 자네가 품었던 경외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네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는 신뢰와 기대일 뿐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네.” 욥이 엘리바스가 전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의 말이 옳았으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다루었듯이

위선자들은 바로 이 점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말을 늘어놓을 줄은 알지만, 그 교훈이 자기들에게 쓸모 있다는 것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CO 184 겉으로 내놓는 말솜씨는 훌륭하지만, 필요할 때 자기들에게 쓸모 있도록 속에 간직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스승과 교사가 되기를 배웁시다. 이 교훈이 우리 이웃에게 유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욥이 마치 더 이상 분별도 이성도 없는 사람처럼 넋이 나간 것을 발견했다고 말할 때 욥에게 부당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려고 우리가 그렇게 취급받도록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시험이 닥치든 그들이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으리라는 것, 그들이 본성상 약하고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비틀거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이 스스로 굳게 하고 강하게 할 거리를 갖게 되리라는 것을 언제나 전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반역하고 고집 센 사람들을 책망하며 길 잃은 사람들을 바로잡고 게으른 사람들을 강하게 하는 데 놀라운 일을 했더라도, 우리가 마음과 진심으로 말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 죄가 있고 정죄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나섰으면서 그 교훈에서 스스로 유익을 얻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죄가 더 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두려움과 겸손 가운데 걷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르쳐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의 재판관이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 나는 나 자신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입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것에 내 삶을 맞추지 않는 한 그것은 나의 크고 끔찍한 수치가 될 것이다." 특히 복음의 사역자들은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자기를 책

망하고 정죄하여,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야 할 때 맨 앞줄에 서겠다고 말합니다(고전 9:27). 요컨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무를 맡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 성령의 은사를 우리 위에 펼치셨더라도, 우리가 신실하게 가르치되 먼저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하지 않았다면 더욱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로잡아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바로잡읍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권면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권면하고 언제나 맨 앞줄에 섭시다. 잘못한 사람들을 책망할 때에도 바울이 하는 말을 실천합시다(갈 6:1). 곧 잘못한 사람들을 온전히 온유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너 자신을 살펴라. 네가 연약한 것을 본다면 너는 네 이웃을 참아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생한 권고를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CO 185 이 구절에서 유익을 얻으려고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바로잡기를 기뻐하실 때마다, 우리가 비슷한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려 했을 때 우리 자신에게도 좋고 신실한 교사였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네의 경외가 거짓이 아니었는가? 자네의 소망과 자네 길의 순전함이?"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엘리바스가 여기서 욥에게, 그가 남에게 드러나고 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위선자였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실까 두려워하는 만큼만 그분을 섬긴다면, 그것이 종의 방식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섬길 때 품팔이꾼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분께 자신을 드리고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께 자신을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종의 강요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기꺼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다른 구절들에서는 우리가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19편과 그와 비슷한 곳에서 말하는 대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쉽게 조화됩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에 이끌려야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수고가 쓸모없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모두 확신해야 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여러분이 헛되이 수고하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헛수고가 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경은 이 교훈으로 가득하고, 요컨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그들의 품삯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고전 15:58; 살후 1:7; 히 6:10).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곧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데서 헛수고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기대가 꺾이지 않을 것이며, 하늘에서 우리 상이 크다는 약속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은 기꺼운 것이어야 합니다. 곧 그분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를 기뻐하실 때에도, 그분이 우리를 부드럽게 다루시고 좋은 형통 가운데 지키실 때와 마찬가지로, 그래도 그분께 순종하며 머물고 그분을 경외하며 걷기를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아,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대로 해 주시기만 하면 나는 그분을 섬기겠다" 하고 말하는 품팔이꾼의 고용 계약을 맺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자녀로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루 품을 판 사람들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고난 가운데서나 형통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치고 그분을 섬기는 데 온전히 자신을 드리려는 기꺼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런 순전함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지금 다 자세히 풀이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는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5편

욥기 4장 설교 2

CO 33:186–198

> 생각해 보게,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적이 있었는가? 정직한 사람들이 끊어진 적이 있었는가? 내가 본 대로는, 불의를 갈고 고통을 뿌리는 자들은 그것을 거두더군. 그들은 하나님의 입김에 망하고, 그분 콧김에 사라지네. 사자의 울부짖음과 표범의 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들의 이빨이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먹이가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들은 흩어지네. (욥 4:7–11)

이 설교는 6절의 풀이를 계속하고 그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CO 186 먼저 어제 밝힌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그분이 앞으로 우리를 잘 대우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보내 주실지를 바라보지 않고 그분께 자신을 드리는 기꺼운 마음에 이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분 손에서 받으려고 그분께 이렇게 빚을 지우려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가 너무 육적이고 자기 욕망에 빠져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또 CO 187 그들은 너무나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빚을 지우려 합니다. 그들은 아버지 앞에 선 자녀 같지 않습니다. 종의 계산이 그들을 몰아가고, 그들은 품팔이꾼이요 삯꾼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맡기고, 고난 가운데서나 형통 가운데서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꿋꿋함을 우리 안에 지니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든 어떻게 정하시든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께 순종하며 끝까지 머물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섬김은 그분께 기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기쁨이 되고 높이 평가받는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외와 공경을, 그분이 우리 욕구대로 좋은 것을 베푸시리라는 기대에 결부시키지 맙시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에게 거칠고 엄하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벼락을 치려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는 거기서 재갈에 물린 듯이 머물며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것이 옳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명령하거나 법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저를 다스리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오직 아버지께 복종하기만을 구한다고 단언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자녀의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성경이 보여 주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수고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큰 상을 약속하셨으며, 우리가 그런 기대에서 어긋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그 기꺼운 마음이 앞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 그분이 우리 욕구대로 우리에게 빚진 것처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한 모든 것을 그분이 반드시 들어주셔야 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이 그들의 섬김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헛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이 약속하신 상을 의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공상에 맞추려 하기는커녕, 그분께 이것저것을 하셔야 한다고 강요하러 오지 않고, 온전히 겸손하게 그분이 하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것에 자신을 맡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상을 말할 때, 그 상이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것인지 아닌지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실 때, 저는 그것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는 뜻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그럴 만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은혜 안에 받아들이셨듯이 우리의 행위도 인정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성령으로 하시는

행위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치 우리가 그분께 가져온 것처럼 인정하십니다. 그분이 순전한 선하심으로 이렇게 우리 행위를 받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CO 188 약속을 바라보며 더욱 용기를 내어 그분을 섬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서 그분은 하늘에서 우리 상이 크고, 이 세상에서도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으리라고 증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쪽으로 눈을 돌려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다루셔야 한다고 셈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분께 온전히 우리를 맡기고 그분의 선하신 뜻에 온전히 복종하도록 힘씁시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거두어야 할 교훈이며, 이것은 유익하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위선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구별하는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위선자는 형통할 때에는 입을 가득 채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그의 바람과 반대로 돌아가면 그때는 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맞추어 주시는 만큼만 그분께 공경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슨공경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이용하려 한다면, 좋습니다, 그에게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그에게 좋은 얼굴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알아차린다면 그는 나를 비열한 자로 내칠 것이고, 그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죽을 인간들도 그런 배은망덕을 참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이르러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쓸모 있는 만큼만 그분을 사랑하거나 그분께 영예를 돌려야 하겠습니까?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자연의 질서가 온통 뒤집힌 것이 아닙니까? 참된 우정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서 알아보는 덕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한마음으로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존중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표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섬기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에 대해서도 그런 점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하자면, 그분은 그분 자신 때문에, 그분이 그럴 자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영예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예에 너무 사로잡혀서, 우리 자신은 두 번째로, 낮은 자리에서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선자들은 역경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공상대로 다루어 주시지 않을 때 그분께 분을 품음으로써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악덕에 빠져 있으므로, 우리는 이 교훈을 더욱 잘 지켜야 합니다.

이제 엘리바스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보게, 의인이 망한 적이 있었는가? 정직한 사람들이 끊어진 적이 있었는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엘리바스는 여기서 참된 명제를 듭니다. 그가 욥에게 맞서 내세운 논거들은 좋고 거룩한데, 다만 주장이 그릇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튼 여기서 내세우는 원리들은 하나님의 순전한 진리에서 끌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성령께서 "의인은 결코 CO 189 망하지 않았고, 정직한 사람들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하고 선언하신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시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가까이 계셔서 필요할 때 그들에게 응답하고 그들을 도우신다"(시 34:15)[32] 하고 말씀하는 대로입니다. 성경은 이것으로 가득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신뢰하는 선한 사람들을 보존하시려고 손을 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망한다면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너희를 내 손에 맡기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33]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보호 아래 두셨을 때 우리 구원이 결코 위험에 처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뜻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

32. 원문에는 시편 34편 16절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1절로 세는 프랑스어 성경의 절수이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이 설교의 시편 68편과 7편 인용도 같습니다.
33. 요 10:29.

를 지키시려고 그분의 능력을 펼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돌보시면 그것은 안전하다고 결론지읍시다. 그러므로 의인은 망할 수 없고 정직한 사람은 끊어질 수 없다는 이 교훈은 아주 확실합니다. 그러나 망하는 것과 고난당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일부 다루었듯이 고난이 언제나 사람을 멸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너무 혹독해서 치명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여 드린 것을 결론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끌어내시는 직무를 자기 것으로 삼으시니, 우리가 충분히 견딘 뒤에 그분께 도움을 받으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는 마치 욥이 이미망했고 하나님께서 아무 치료책 없이 그를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자기 말을 잘못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완전히 일그러진 불쌍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그를 보기를 끔찍해했으며,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 줄 수 있는 광경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를 사랑하셨고, 마침내 경험이 그것을 보여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판단을 그르칩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순전한 선하심에 더 이상 자리를 남겨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비참해서 이제 끝장난 것처럼,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고, 그분이 고칠 수 없어 보이는 병도 여전히 고치실 수 있다고 바라기를 배웁시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보이려 하실 때 그들을 도우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법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결말을 보여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는 동안 판단을 유보하여 지나치거나 무모한 재판관이 되지 맙시다.

CO 190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커서, 그분이 짓눌린 듯한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고, 그들이 이미 죽음 속에 있더라도 그들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훈을 우리 이웃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실천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고난을 보내실 때 우리는 곧바로 여기서 욥에게 하는 말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절망적이라고 믿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심지어 절망에 빠지도록 하는 분노의 씨 같은 것을 자기 안에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본성이 그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 우리는 이런 공상에 부추김을 받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너는 여기서 극한에 이르기까지 시들어 가고 있다. 네가 하나님을 불러도 그분은 대답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약속은 어디 있는가? 그분이 너를 버리셨다는 것을 너는 잘 본다. 그러니 그분이 너를 자기 백성으로 알아보시리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네가 그들 가운데 하나라면, 지금이 아니면 결코 그분이 너를 불쌍히 여겨 보아 주실 때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눈을 감으시고 못 본 체하신다. 그러니 너는 그분께 완전히 버림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걸리는 시험이고, 우리를 완전히 절망하게 하려고 우리 앞에 닥치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싸움에 대비하여 더욱 무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드렸듯이 각 사람이 자기 정신이 그런 시험을 내놓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고, 정직한 사람이 끊어질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런가? 거룩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완전히 꺾인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죽을 만큼 상처 입은 사람을 회복시키신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불쌍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능력을 펼치신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죽은 너희, 이미 땅속에서 썩은 너희여, 일어나라. 온전한 힘을 받아 풀처럼 푸르러라" 하고 말할 때,[34] 이사야는 누구에게 말합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때로 썩은 송장처럼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되돌려 주셔야 합니다. 겨울에 죽은 것 같던 풀이 봄에 푸르러지는 것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셔야 합니다. 같은 목적을 가리키는 다른 구절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응석받이로 지키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덤에서 끌어내시고 놀라운 방식으로 그들을 보존하려 하셔서, 죽음을 다스려 생명을 주시는 것이 CO 191 그분께 속한 일임을 그들이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또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지고 계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주목할 만한 약속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보여 주려 할 때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분께 속한다고 말합니다(시 68:20).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는 우리가 번번이 죽음 속으로 내던져지는 것 같아서, 한 걸음도 우리가 끝장난 것처럼 보이지 않고는 내디딜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잘 주목하여, 마귀가 와서 우리 귀에 "너는 누구냐? 너에게 위로부터 아무 도움도 없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의인들은 망하지 않는다" 하고 속삭일 때 우리 모두 무장되어 있게 합시다. 그러니 사탄을 물리칠 이런 대답을 갖추어 둡시다. "의인들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도 망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는 죽은 사람 같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을 그분 손에 가지고 계신 분이다." 다윗이 다른 구절에서(시 23:4) 하는 말도 이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그늘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므로 주님,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이끌 것입니다.

34. 사 26:19.

주님께서 나의 보호자이시기만 하면 나는 모든 악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이 교훈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어서 "강탈을 뿌리는 자들, 곧 강탈을 갈고 고통을 뿌리는 자들은 그것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확증합니다. 엘리바스는 사자의 울부짖음이 꺾이고, 그 이빨이 부러지며, 젊은 사자들이 먹이를 잃는다고 말합니다. 이로써 그는 잔인함과 폭력으로 가득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굴복하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보다 앞서 악인들이 하나님의 입김과 그분 입의 바람에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말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그것은 땅을 가는 농부에게서 가져온 비유입니다. "불의를 갈고 괴로움이나 고통을 뿌리는 자들" 하고 말할 때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낱말, 곧 '불의' 와 '괴로움' 이 함께 묶여서, 악인들이 이웃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저지르는 강탈과 횡포를 뜻합니다. 또 '괴로움' 이라는 말은 남에게 지겨움과 괴로움밖에 주지 않는 자들에게 돌려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간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해치고 그들에게 어떤 손해를 입히려는 자들이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려 할 때 먼저 쟁기를 대야 하고 땅을 손질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속으로 자기 불의와 배신과 신의 없음을 꾸미고, 속임수와 사기를 고안하며, 모든 것을 구상한 뒤에는 자기 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온갖 방법을 찾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CO 192 엘리바스가 말하는 밭갈이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이 그 위에 괴로움을 뿌린다고 말합니다. 곧 준비를 마친뒤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덤벼들어 그들을 약탈하고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자들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이 남을 거슬러 품고 고안한 모든 악을 그들 머리 위로 되돌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된 명제이며, 우리는 이것을 성령에게서 온 것처럼 받아들여 거기서 일반적인 교훈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된 쓰임에 적용하려면, 우리가 엘리바스가 한 것처럼 성경을 이리저리 비틀어

정반대로 끌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점에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경이 "불의를 갈고 고통을 뿌리는 자들은 그것을 거둔다"고 말할 때, 그것은 자기가 크게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는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협입니다. 그들은 사나운 짐승처럼 이 사람을 약탈하고 저 사람을 먹어 치우며 심지어 모든 것을 삼키면서, 자기가 승리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즐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꾀하는 모든 것을 그들의 수치로 돌려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대담함과 악의를 억제하시려는 위협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재갈을 물려, 그들이 좋은 사랑과 정직 가운데 함께 살고 아무도 자기 이웃을 괴롭히려 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도 듣습니다. "복을 뿌리는 사람은 복을 거둘 것이다"(고후 9:6). 바울은 거기서 구제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웃에게 뿌리면 거둘 것이라고, 곧 그분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얻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함을 펼치셔서 우리가 궁핍할 때 우리에게 자비롭고 너그러운 분으로 자신을 보이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웃에게 넉넉히 베풀고 그들을 돕도록 좋은 마음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훈의 참된 쓰임을 봅니다. 곧 해로운 일이나 속임수를 아무것도 꾸미지 않도록 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악한 술책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앞서 나가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우리 이웃과 정직과 이치를 지키도록 우리의 모든 악한 욕망을 억눌러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모든 해코지와 모든 강탈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니, 우리는 공평 가운데 머물도록 잘 조심해야 합니다. 곧 선을 행하려고 애써야 하고, 우리 각 사람이 모든 악을 삼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떤 능력을 주셨다면 서로 나누면서 CO 193 서로에게 유익을 주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기에 같은 목적을 가리키는 거룩한 성경의 말씀들도 모아 봅시다. "약탈하는 너에게 화가 있다. 너도 차례가 되면 약탈을 당할 것이다"(사 33:1). 또 "사람들이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그들에게도 되돌려 받을 것이다."[35]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꾸민 모든 악을 언제나 그들에게 되돌리신다는 것을 압시다. 성경은 악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시 7:15). 또 "긍휼을 베풀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약 2:13).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떨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경외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 드러나도록 우리 이웃과 참된 의와 정직 가운데 걷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추려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한 뒤에 고난을 당하고, 모든 사람과 평화와 화합을 구했는데 박해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가 고통과 괴로움을 뿌렸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는 부류에 속한다고 결론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성경이 그 반대, 곧 하나님께서 그분 백성의 인내를 시험하시려고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경에 기록된 본보기들을 봅니다. 다윗은 자기가 화평만을 구했는데도 몹시 괴로움을 당했다고 단언합니다(시 120:7). 그가 원수들을 자극했습니까? 그가 그들에게 자기를 해칠 계기를 주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가 까닭 없이 미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 점에서 그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임을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는 말로 돌아가야 합니다. "형통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평안한 처지를 누리고 싶은 사람은 화평을 찾고 선을 행하는 데 힘써라"(벧전 3:10–1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선에 힘쓸 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

35. 마 7:2.

고 우리가 한도를 넘어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통상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런데도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고 말합니다.[36] 그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 화평을 구하면 그것을 얻을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동시에 세상에는 언제나 그런 배은망덕이 있어서 악인들이 자기들의 구원만을 구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리라고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불의를 뿌리고 고통과 괴로움을 뿌렸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알았을 때에는, 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분명하고 뚜렷이 보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CO 194 하나님을 멸시하고 방탕하고 추문을 일으키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성경이 그에 대해 선언하는 것 말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그가 고난당하는 것을 본 것만으로 첫눈에 판단하여 그가 저주받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모하고 너무 대담한 판단이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삼가고, 위에서 보여 드린 대로 그런 겸손과 절제로 해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한 뒤에, 그런 자들, 곧 이웃을 짓누르려고 속임수와 폭력을 꾸미고 그 악한 술책을 실행에 옮긴 자들은 하나님의 입김과 그분 입의 바람에 망하리라고 덧붙입니다. 그로써 그는 사람들이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직무를 행하셔서, 그렇게 지나침과 잔인함과 해코지에 빠졌던 자들을 벌하시리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것도 참으로 옳고, 우리가 잘 주목할 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악인들을 완고하게 하고 그들이 자기 불의를 계속하게 합니까? 그들은 아무도 감히 자기들에게 투덜거리지 못하리라고, 자기들이 들짐승 같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라고, 모두가 너무 겁을 먹어서 자기들의 눈길 한 번에 온 세상이 떨

36. 벧전 3:14.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약탈한 뒤에도 자기들을 해칠 수 있는 사람들을 달랠 거리가 있으니 아무도 자기들에게 반박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그렇게 나쁜 술책을 쓴 자들은 자기들을 징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언제나 뇌물을 손에 쥐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데 빠져서 사람들 쪽에서는 모든 벌을 피하리라고 생각하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입김에 망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사람들이 자기 직무를 그만두고, 아무 정의도 없으며, 칼을 맡은 자들이 침묵하고 우상처럼 되며, 법과 이치를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사람들이 악행을 눈감아 주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한가하게 계시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우리의 불의에 박수를 보내더라도 우리의 처지가 그 때문에 나아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붙듭시다. 우리가 악덕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추어올림을 받더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하늘의 재판관 앞에서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한 조항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좋다,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끌어오더라도 아무도 감히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며 눈을 가리고 악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는 말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방종을 허락하더라도,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가하게 계시겠습니까? 그분이 악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분이 그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CO 195 모든 악인들, 폭력과 강탈을 행하는 모든 자들도 보시고 그분의 눈썹으로 표시해 두신다고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걷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재판관 앞에서 결산을 해야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편들어 주었더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하나님의 입김과 그분 입의 바람에 망한다는 이 말은 무

게가 큽니다. 그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집스럽고, 모든 것을 삼키며, 이웃을 속이려고 속임수에 빠지고, 온 세상을 삼키려고 잔인함과 폭력으로 가득한 자들을 억누르셔야 할 때 큰 장비를 갖추시거나 무장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을 모으실 필요도 없고, 그들을 짓누르려고 이리저리 방법을 찾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이 입김을 한 번 부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입김과 그분 입의 바람에 망한다는 이 말투가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도 사람들 일반에 대해 말하면서 이 입김을 내세웁니다.[37] 우리 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존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매 순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또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거만을 떨고, 승리를 뽐내며, 강하고 튼튼해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들을 망하게 하는 데에는 큰 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김 하나만으로도 그들을 멸하기에 충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 하는 말로 갑시다. 이 능력이 그분 입의 바람과 그분의 말씀에 돌려지기 때문입니다. 곧 악인들이 그것으로 멸망하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고(사 11:4), 바울은 그 증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오심에 적용합니다(살후 2:8).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그분의 원수들이 입김과 같은 그분의 단순한 말씀으로 무너질 때입니다. 그들을 망하게 하는 데 다른 벼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조심합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멸시하는 자들, 그분께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굴려는 모든 자들에게 벼락을 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악인들을 벌하는 이 말씀의 능력을 알아차리지 못하리라는 것은

37. 사 40:7.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분의 사도를 통해 확증하신 것,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입의 바람과 그분 CO 196 말씀의 능력으로 불법한 자를 멸하시리라는 것이 헛된 말이 아니었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복음에 복종합시다. 그래서 그 속에 담긴 능력을 우리의 수치로 느끼지 않고, 우리 구원으로 경험하게 합시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이것입니다. 그 뒤에 사자와 젊은 사자와 새끼들과 암사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꺾이리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나치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 간단히 말해 사자와 들짐승 같은 자들에게 그분의 강한 팔을 펼치신다는 것을 뜻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요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에게서 그 본을 보듯이 온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수고 깨뜨리려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말은 여전히 참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분이 가장 흔히 행하시는 대로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벌에서 아무 예외도 없는 규칙을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을 따라 그것을 모든 경우에 어디서나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잔인하게 박해받는 사람들이 모두 그 때문에 잔인했었다고 결론지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머리요 거울이요 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봅니다. 또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것을 통상적인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반대편의 약속을 듣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3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우리가 친절하고 상냥하며 온전히 부드럽게 이웃과 함께 살고 모든 사람

38. 마 5:5.

에게 선을 행하려고 애쓰면 우리가 땅을 누릴 것이라고, 곧 그분이 우리를 평안 가운데 지키시고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밝혔듯이 그것은 우리가 모든 고난에서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만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하는 말, 곧 사자들의 이빨이 부러지고 그들이 내는 소리가 꺾이리라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하고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삼키려고만 하는 자들을 굴복시키려고 거기서 그분의 팔과 능력을 펼치시리라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보듯이 거기서 그분의 강한 팔을 보이십니다. 미친 짐승처럼 먹이에 빠지고 사람의 피로 배를 채운 이 사자들 위에서보다 CO 197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판을 더 크고 더 뚜렷하게 드러내실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작은 자들과 그런 폭력을 휘두르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보다 더 뚜렷하게 재판관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을 앞질러 대비하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그분이 이웃을 해치는 데 빠진 자들에게 그런 일을 실행하실 때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합시다. 그분이 온 세상의 재판관으로 자신을 보이려 하시고,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려 하시며, 마침내 그분이 그들의 보증인이 되셔서, 그들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던 때에도 그분이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 주시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대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본보기를 내놓으시는 극장과 같아서, 우리는 거기서 유익을 얻어 그분을 경외하며 걷고, 모든 악을 삼가며,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과 온전한 한결같음과 정직 가운데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비참 가운데, 간단히 말해 천 번의 죽음 사이를 걷듯이 걸어가야 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구원을 아직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느끼리라는 것, 그래도 우리가 기적 같은 방식으로 그분께 보존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6편

욥기 4장 설교 3

CO 33:198–210

> 그런데 어떤 말씀이 은밀히 내게 전해졌고, 내 귀가 그것을 조금 들었네. 밤의 환상 가운데 생각이 어지러울 때, 깊은 잠이 사람들을 사로잡을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닥쳐 내 뼈들을 떨게 하였네. 바람이 이리저리 지나가니 내 몸의 털이 곤두섰네. 그것이 멈추어 섰는데 나는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한 형상이 내 눈앞에 나타났으며, 고요함 가운데 한 목소리를 들었네.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분보다 깨끗하겠느냐? 보라, 그분은 그분의 종들에게서도 굳건함을 찾지 못하시고, 그분의 천사들에게도 헛됨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흙집에 살며, 그 기초가 티끌에 있고, 좀에게 먹혀 없어질 자들이겠느냐?" (욥 4:12–19)

CO 198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 적어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자기 논거를 보인 뒤에, 여기서 하나님의 권위를 덧붙여, 욥이 하나님께 정당하게 정죄받은 것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 없고 결코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엘리바스가 자기에게 없던 계시를 받았다고 자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것을 계시하셨다는 그의 주장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원리를 붙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그가 내세우는 일반 명제들은 옳지만 그는 그것을 잘못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영감을 주셨다는 것은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시대의 조상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르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언자들이 성령의 도구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친근하게 자신을 밝히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방식은 이것입니다. 곧 그분은 거룩한 성경에서 그분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려 하신 사람들에게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한 성경이 증언하듯이 환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압시다.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으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가 오늘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새로운 일로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거짓으로 내세우는 영광이 아닙니다. 다만 엘리바스가 이 점에서 잘못하는 것은, 그에게 다른 목적과 용도로 계시된 것을 엉뚱하게 욥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람들이 겸손 가운데 걸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에게 주어진 이 환상이 겨냥한 것이 이것입니다. 곧 사람들이 자기를 기뻐하거나 의롭다고,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 안에 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거기서 부끄러워하고, CO 199 자기 부패를 바라보며 그것을 싫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그런 좋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그 모든 짐을 욥에게 지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을 짓누르는 데서 자기 주장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바스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고 헛되이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점에서는 유익을 잘못 얻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진실이 그렇지 않은데도 욥을 짓누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자세히 풀이해 봅시다. 그는 어떤 일이 은밀히 자기에게 전해졌고 자기 귀가 그것을 조금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렇네, 밤의 환상 가운데 나는 이리저리 움직이는 숨결 같은 것을 들었고, 마침내 고요함

가운데 내게 말하는 목소리가 있었네" 하고 말합니다. 물론 그는 한 형상이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했고, 다만 온몸이 떨릴 만큼 겁에 질렸으며, 끔찍함과 놀람으로 살의 털이 곤두서서 얼어붙은 것 같았다고 덧붙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여기서 꿈 이야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권위로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증언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옛 조상들이 받은 모든 환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렵게 하고 얼마간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어떤 표를 두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에 권위를 주어 그것이 더 잘 받아들여지게 하는 구실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엄을 느끼게 하지 않으시면 마땅히 그래야 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체 높은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성경을 읽을 때보다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데 훨씬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비롯됩니까? 우리가 육적이고 짐승 같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덕을 고치시려고 언제나 그분 위엄의 어떤 표시를 주려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더 확실한 것으로 여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경에서 어떤 환상이 언급될 때마다 거룩한 조상들이 두려움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단순하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겸손으로 준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몹시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 육신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를 부풀게 하는 교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시기 전까지는 무엇이 우리에게 좋고 알맞은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언제나 그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셔서, 그들이 더 이상 자기를 기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자기

CO 200 힘을 더 이상 높이 평가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엘리바스가 여기서 하는 이 긴 묘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은밀한 일이며 자기가 그것을 조금 들었다고 말합니다. 처음 보기에는 이것이 우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어도 사람만큼 의로우시다는 것, 또는 그가 마지막에 결론짓듯이 사람들이 결코 그분만큼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은밀한 일이라고 부르니 말입니다. 누구나 그것을 고백하고, 이방인들조차 결코 그것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 무슨 신비가 있습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압시다.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그분에 비하면 우리가 연약함으로 가득하다는 점에 동의하더라도, 아무튼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잘 새겨져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악덕을 온전히 확실하게 확신한다면,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의심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입에서 아무 불평도 들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 마음에 아무 반박도 말대꾸도 없을 것이며, 우리 모두 잠잠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를 기뻐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드리시자마자 그분께 대들고, 또 그분이 그들을 아끼시면서 그들의 죄를 보여 주실 때에도 참된 고백에 이르려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로써 모두가 주제넘음으로 부풀어 있고, 그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만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보이시고, 사람들이 자기 비참을 부끄러워하며 자기가 비참한 존재임을 아는 것을 엘리바스가 은밀한 일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감추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롬 3:21).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의를 펼치셔서 온 세상이 자기가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인정하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미 보여 드렸듯이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에게 무언가를 돌리고, 이 헛된 오만을 벗어 버리지 못해서, 자기 자유 의지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위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공로를 쌓는다고 믿어 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이 의로우시다고 알려지기를 원하시고, 사람에게서는 오직 불의만 발견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자기가 이 말씀을 조금 들었다고 말함으로써, 자기를 지나치게 높이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그는 아무것도 자기에게서 빠져나가지 않았고 모든 것을 끝까지 다 깨달았다고 말할 만큼 완전한 지혜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CO 201 하나님의 이 교훈을 얼마간 맛보았고 그 일부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여기서 겸손하게 말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는 자기가 온전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늘의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람의 우둔함에 따라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웃에게 전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요컨대 이것이 그가 하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근하게 자신을 밝히시더라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나무랄 데 없을 만큼 온전한 깨달음을 가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것을 자기에게 돌리는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며, 그러는 동안 더 나아가도록 그들에게 열려 있을 문을 스스로 닫아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작은 맛, 작은 입구라도 얻었다면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고 더 뛰어난 은사를 베푸신 예언자들과 교사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기 엘리바스에게서 그 본을 봅니다. 그는 일반 백성 가운데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사람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가 조금밖에 듣지 못했다고 밝힙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확신한다면 우리 말에서 그런 오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이 없다고 믿어 버리고, 거룩한 성경에 가장 덜 단련된 사람들이 마치 성령을 소매 속에 넣고 다니는 것처럼, 자기는 너무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이치에 맞는 말만 한다는 평판을 얻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 교만이 어디서 옵니까? 아직 가나다를 배우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배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그 교만은 게으름을 함께 가져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진보하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자기가 모든 학문의 끝에 이른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에 대해 세 마디를 듣고 나면 너무 배가 불러 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알 필요가 없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며, 간단히 말해 박사보다 더 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제넘음을 조롱하십니다. 그들이 받았을 수 있는 그조금마저 그들에게서 빼앗기고, 그렇게 그들은 텅 빈 채로 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노래에서 말하는 대로입니다. “바람으로 가득하여 스스로 부 자라고 여기고 자기를 믿던 자들은 주린 채로 남았다“(눅 1:5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찬양하되, 우리가 언제나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더욱더 진보하도록 우리를 재촉하는 소원을 갖고, 온전히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더 CO 202 친근하게 가르침을 받을수록, 언제나 어린 학생처럼 되어, 모든 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 거만함으로 나아가지 말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분량대로 나아갑시다. 온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각 사람에게 분량과 정해진 몫대로 그것을 나누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또 이 구절의 정황을 잘 주목합시다. 여기서는 우리가 말한 하나님의 의와, 우리가 죄와 부패로 가득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그 끝에 이르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

이 교훈에 우리 모든 노력을 잘 쏟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을 거기에 쏟아 더욱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을 잘 알았더라면 교황권 안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끔찍한 어둠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값없는 칭의를 다루는 것이 쓸데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거의 야만스러운 교훈으로 여기고, 우리가 거기에 그토록 힘을 쏟는 것을 비웃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하늘의 환상을 받은 사람들도 그런 비밀을 겨우 조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조항에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모든 감각을 거기에 잘 쏟더라도 그 실상의 백분의 일도 깨닫지 못하리라는 것을 압시다. 실제로 하나님의 의는 무한한 것이 아닙니까? 또 우리의 부패는 바다나 심연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여기서 이 조항에 대해 작은 맛밖에 얻지 못했다고 보여 주는 것을 놀랍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가 덧붙이는 것으로 갑시다. 곧 영(또는 바람)이 이리저리 지나갔고, 그의 몸이 오싹했으며, 온몸의 털이 곤두섰고, 그가 알아보지 못한 한 형상이 그에게 나타났으며, 마침내 그가 고요함 가운데 그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다룬 목적을 향해 있었습니다. 곧 엘리바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받도록 준비되어야 했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고 알아서 그 교훈이 그에게 확실한 것이 되도록 준비되어야 했으며, 또 그가 낮아져서 더 이상 아무 주제넘음으로도 높아지지 않게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에게 무언가를 돌리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자기 비참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완전히 무너져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 시대와 같은 환상이 없으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옛 조상들에게 그런 표를 주셨을 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쓸모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성경을 읽어야 할 때나 설교를 들으러 올

때, 하나님의 CO 203 위엄에 마음이 움직여 그분을 경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거룩한 진리를 마치 누가 우스운 이야기라도 들려주는 것처럼 여겨 더럽히지 말고,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어야 하고,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에 떨어야 한다" 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공포하실 때 그분이 그 시대에 가르치려 하신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하는 표적들을 보이셨습니다. 실제로 백성은 "이 산에 가까이 가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모두 죽을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3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에 권위를 주려 하셔서, 백성이 그들에게 나타난 그토록 많은 기적에 압도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까지 영원한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깨우쳐 주려 하셨습니다. 복음은 높임을 받도록 더 큰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배은망덕과 악의가 우리 눈을 후벼 파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우리가 온전한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든 능력을 바라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는 동안 우리는 새로운 환상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기를, 어떤 계시가 자기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경박한 정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친근하게 우리에게 자신을 밝히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큰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성경이 있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모자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음의 이 밝음 안에서 우리는 바울이 보여 주듯이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어떤 환상을 갖고 싶은 헛된 욕망에 간질간질한 사람들은 자기가 거룩한 성경이

39. 출 20:19.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예언자들을 통해, 또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기뻐하신 것으로 만족합시다. 그분이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고 우리에게 최종 결론을 내리신다는 것을 압시다. 실제로 이렇게 길을 벗어나 자기 경계를 넘어 날아다니려 한 사람들이 어디에 이르렀는지 우리는 봅니다. 교황권 안에 있는 끔찍한 혼란이 바로 거기서 왔습니다. 교황은 바로 그것 위에 자기의 모든 교훈을 세웁니다. 그는 사도들이 교회에 유익한 모든 것을 밝히지 않았으며, 새로운 조항들을 세우고 거룩한 공의회들에 의지할 수 있게 하려고 성령께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황과 그의 모든 공모자들이 거룩한 성경의 순수함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멀게 하셔서 CO

CO 204 우리가 보다시피 그들 사이에 그토록 우둔하고 짐승 같은 망상에 빠지게 하셔야 했고, 결국 그들이 짐승처럼 되어 돌과 나무 조각을 경배하기에 이르렀으며, 어린아이들조차 부끄러워해야 할 만큼 그곳의 일들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거룩한 성경으로 단순하게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은 이 마귀 같은 호기심에서 왔습니다. 튀르크인들의 종교도 바로 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무함마드는 자기가 복음을 넘어서는 온전한 계시를 가져올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완전히 짐승처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불쌍한 짐승들이 더할 나위 없이 어리석고 우둔한 일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정신에 내버려 두신 정당한 보복입니다. 다른 공상가들도 그러했고, 우리 시대에도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이 자기들의 환상을 가지려 했습니다. 그것은 화형당한 저 비참한 자의 조항들 가운데 하나입니다.[40] 그는 성령께서 아직 다스리지 않으셨고 앞으로 오셔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자는 마치 옛 조상들이

40. 흔히 1553년 제네바에서 화형당한 미카엘 세르베투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성령의 그림자만 가졌고,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한 번 눈에 보이게 부어지신 뒤에 곧바로 물러나셔서 교회가 성령을 빼앗긴 것처럼 말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이것이 그가 내세우는 것이고, 그 자신은 성령을 마음대로 가지려고 무함마드가 되려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를 어떻게 휩쓸어 갔는지 사람들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자들을 더욱 미워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거기까지 이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질서를 따릅시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규칙대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 우리 욕구나 우리 방식에 맞추시라고 강요하려는 무모함을 부리지 말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경계 안에 두셨으니 거룩한 성경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또 엘리바스가 고요함 가운데 그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셔서 그가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간직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황홀경에 빠진 듯이 사로잡힌 사람은 무언가를 들을 수는 있겠지만, 정신을 가다듬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확실한 집중이 없을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러 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한 내용을 듣기는 했겠지만 깨닫지는 못해서, 무엇을 다루었느냐고 물으면 한마디도 말할 줄 모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흔히 말하듯 그들은 스페인에 성을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를, 어떤 사람은 저기를 생각하며 공중을 날아다니기만 하고, 하나님께 잠잠히 귀를 기울이려고 거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품고 우리 정신에 떠오르는 그런 헛된 공상들은 모두 CO 205 하나님께서 마땅히 들려지고 귀 기울여지시는 것을 가로막는 소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상상 속을 헤매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것은 우리에게 공통된 교훈이어야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해야 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엘리바스는 이 목소리가 고요함 가운데 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앞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준비시키셔서 자기가 귀를 기울이고 자기에게 하실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하셨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미 다룬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우리 정신이 이리저리 떠돌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귀를 기울이도록 고삐에 매여 있어야 하며, 우리의 육적인 감정과 헛됨이 우리를 방탕하게 하거나 이리저리 돌려놓지 않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잠잠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엘리바스가 여기서 다루는 교훈으로 갑시다. "사람이 하나님보다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분보다 깨끗하겠느냐? 보라, 그분은 그분의 종들에게서 굳건함(또는 진실함)을 찾지 못하시고, 그분의 천사들에게 어리석음(또는 헛됨)이 있다고 판단하셨다. 그렇다면 흙집에 사는 자들은 어떻겠느냐?" 엘리바스는 여기서 먼저 명제, 곧 그에게 주어진 주제 같은 것을 내놓습니다. 곧 사람들이 자기 창조주와 비교하여 자기를 자랑하려 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비교하여 자기를 자랑하려 할 때, 그들은 분별과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권위를 쉽게 내려놓고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는 자기 교훈을 확증하려고 여기 한 가지 이유를 덧붙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살피시면 거기서 나무랄 것을 찾으실 것이고, 그들 안에 굳건함이 없으며, 그들이 헛되고 연약한 피조물로 드러나리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렇다면, 진흙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몸이 무엇입니까? 무슨 기초가 있습니까? 아무리 굳건해 보여도 작은 비 한 번이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천사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으니, 우리가 어떤 의를 가져가겠다고 자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 앞에서 설 수 없다는 것을 압시다. 요컨대 이것이 여기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천사들이 어떻게 언급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들이 완전히 의롭지 않다고 보신다는 것이 터무니없어 보여서, 여기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머물러 있는 천사들이 아니라 CO 206 타락하여 배교자가 된 천사들을 말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마귀들도 하나님의 천사였지만, 그들은 창조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끔찍하게 넘어져서 멸망의 거울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이 땅으로 떨어진 천사들에게 굳건함이 없었다면, 진흙 기초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겠느냐?" 그러나 천사들을 높이려고 억지스러운 풀이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고, 그 칭호는 영예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가 마귀들을 말하려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서 굳건함을 찾지 못하신다" 하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보라, 전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맡겨졌던 마귀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끔찍하게 떨어져서 그들의 타락으로 모든 것이 흔들렸고, 인류까지도 같은 멸망에 이르러 같은 파멸로 끌려갔다" 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들에게서 진실함을 찾지 못하시고, 거기서 어리석음이나 헛됨을 찾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는 반역이나 배교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헛됨이라고만 말합니다. 그는 더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엘리바스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천사들을 말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들에게 굳건함이 없고 오히려 헛됨과 변덕이 있다고 말합니까? 바울이 오직 하나님만 죽지 않으신다고 말할 때(딤전 6:16), 그는 분명히 모든 피조물을 배제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알다시피 천사들은 죽지 않는 영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결코 멸망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조건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이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과 오직 하나님만 죽지 않으신다는 이 구절들을 어떻게

조화시키겠습니까? 해답은 아주 쉽습니다. 천사들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에 붙들려 있고, 본성상 죽지 않으시며 생명의 샘을 그분 안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시는 한에서 죽지 않습니다. 시편 36편에서(9절) "주님,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볼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대로입니다.[41] 그러니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고, 그런데도 그것이 그분의 은혜에서 나와 모든 피조물에게 부어진 생명이 있는 것을 막지 않으니, 이렇게 천사들은 죽지 않으면서도 그들 안에 아무 굳건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순전한 선하심으로 그들을 굳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편 104편에서(29절) 말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거두시면 모든 것이 쓰러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낙원의 천사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그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두신 그 은혜를 계속 주시지 않으면 CO 207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의에 대해서도 말해야 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굳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권세들', '능력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분의 권능을 실행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천사들은 그들 자신 안에 자랑할 만한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권능과 굳건함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그만큼 그들은 그분께 더 빚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리석음이나 헛됨을 찾으신다는 것, 또는 두신다는 것에 대해서는(그 낱말에 '하나님께서 두신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에게 있는 헛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심판으로 그것을 거기에 두신다는 뜻입니다. 곧 재판관으로서 천사들에게 어리석음과 헛됨이 있다고,

41. 원문에는 시편 36편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1절로 세는 프랑스어 성경의 절수이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곧 결함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들을 엄격하게 다루려 하신다면 그들이 그분 앞에 설 수 없을 것이라고 선고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경에 단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새롭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분이 천사들을 그분과 비교하려 하실 때 천사들조차 죄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해서 놀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점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피조물에게 있는 좋은 것들은 완전히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에 비하면 작은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둘을 구별해야 합니다. 천사들은 놀라운 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그렇습니다(천사들이 피조물의 반열에 머무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들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모든 것을 삼켜야 합니다. 해가 하늘의 모든 별을 어둡게 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행성입니다.[42]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에게 다른 별들보다 더 큰 밝음을 주셨으므로, 모든 것이 삼켜져서 해가 다스릴 때에는 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앞에 나서실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예언자 이사야가 말하듯이, 더 이상 해도 달도 없고 하나님의밝음이 어디서나 보이고 알려질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할 때 모든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사 24:23). 그렇다면 여기서 하는 말, 곧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결함을 찾으신다는 것을 그것에 비추어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이 피조물에게 가능한 만큼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우리는

CO 208 천사들이 그분께 드리는 순종에 아무 거스름이 없고 그분이 그들

42. 해를 행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설교 당시의 천문 관념을 따른 것입니다.

안에서 너무나 평온하게 다스리셔서 그들이 완전히 그분의 뜻에 맞추어져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제가 다룬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곧 피조물의 단계와 반열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천사들에게 완전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피조물로서의 완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르면, 해가 그 밝음을 비출 때 별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 완전함은 삼켜진 것처럼 됩니다. 또 바울이 하는 말도 잘 주목해야 합니다(골 1:20).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로써 천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중보자이신 한에서 그들의 굳건함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의 속량자가 되신 것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결코 빠진 적이 없는 죽음에서 속량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들을 온전한 완전함 가운데 하나님과 결합시키시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그분의 은혜로 그들을 보존하셔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지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들에게서 나무랄 것을 찾으신다면, 곧 그들이 위로부터 보존되지 않으면 아무 굳건함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엘리바스가 덧붙이는 말로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낙원의 천사들만큼의 영광, 그렇습니다, 그만큼의 덕을 지녔습니까? 그들의 처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썩고 무너질 오두막에 삽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랑해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 안에는 헛됨밖에 없습니다. 곧 우리 몸은 모두 흙과 티끌이고,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흙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며 이미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들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하겠습니까? 천사들은 이 세상의 어떤 변화나 뒤바뀜에도 매이지 않고 이미 하늘의 불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이 입김에 지나지 않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앗아

가는 데 한순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직도 자기를 믿습니까? 간단히 말해 사람에게는 곧 흘러가 사라지지 않는 굳건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해 말할 때, 한편으로 이렇게 잘 바라보기를 배웁시다. "보라,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그분의 강한 능력을 마땅히 깨닫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그분께 더 가까이 있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천사들도, 그분이 그들을 엄격하게 살피려 하신다면 나무랄 것을 찾지 못하실 만큼 완전하지는 않다. 그렇다면 CO 209 거기 있는 연약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겠는가? 그토록 고귀하고 뛰어난 피조물인 천사들의 덕과 우리의 덕을 비교하려 한다면 우리의 덕은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이것이 이제 이 구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풀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7편

욥기 4–5장 설교 4

CO 33:210–221

>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서지고, 아무도 마음에 두지 않으니 영원히 망하네. 그들의 뛰어남이 그들과 함께 사라지지 않겠는가? 그들은 죽되 지혜 없이 죽네. (욥 4:20–21) 이제 불러 보게. 자네에게 대답할 자가 있는가? 거룩한 이들 가운데 누구에게 눈을 돌리겠는가? 분노가 어리석은 자를 죽이고, 시기가 미련한 자를 죽이는 것이 분명하네. (욥 5:1–2)

이 설교는 4장 18절과 19절의 풀이를 계속하고 그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말이 무엇을 겨냥하는지 보았습니다. 곧 사람들이 천사들의 완전함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그들을 낮추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엄격하게 심판하려 하신다면 거기서 나무랄 것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연약한 자들, 한마디로 그들 안에 헛됨밖에 없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엘리바스의 의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약하고 그들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거나 죄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덧없어서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잘 살펴보면 여기서 내놓는 이유들은 적절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사람들의 몸이 연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기서 이 썩을 육신 안에 살며 너무나 땅에 속해 있어서 언제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서 천사들과 죽을 인간 사이에 놓인 비교도 주목해야 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CO 210 온전히 그분을 섬기는 데 자신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지 않는다면 그들 안에는 아무 굳건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순전한 선하심으로 그들을 보존하시지 않는다면, 그들도 흘러가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에게로 갑시다. 그들은 어디에 삽니까? 그들은 그 하늘의 영광에서 멀리 떨어져 여기 이 무너질 오두막에 있습니다. 우리 몸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무덤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마치 우리가 이미 땅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어두운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초는 무엇입니까? 티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언제나 쇠퇴해 가고, 죽음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협한다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토록 가까이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심판을 벌이시려 하면 정죄를 면할 만큼 그토록 정교한 완전함을 갖지 못했으니, 사람들에게 온통 비참밖에 없다고 해서 놀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엘리바스가 여기서 쓰는 논거가 아주 적절하고 알맞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는 말들을 유익하게 쓰려면 그것들을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이 짧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것이 거의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 그것을 모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주 우리에게 그것을 다루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키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무엇인지 잘 깨달았다면, 먼저 우리는 지금처럼 세상에 빠져 있지 않을 것이고, 생각이 거기서 그토록 둔해지지도 않을 것이며, 또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온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업신여기고, 여기에 너무 얽혀 있어서 아무도 우리를 거기서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CO 211 누구나 고백하는 것, 곧 우리 삶이 지나가

는 그림자일 뿐이고, 사람은 꽃이나 푸른 풀과 같지만 곧 마르고 시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간단히 말해 사람의 삶이 짧다는 것에 대한 속담들이 충분히 흔했고 언제나 흔하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더 잘 생각하라는 권고를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시편 90편에서(12절) 말하듯이 우리가 우리 날을 셀 수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을 둘 다 배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손가락으로 셀 줄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을 보십시오. 그 시절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성가시게 하고 더 많은 해와 괴로움을 끼친다는 것 말고는 짐승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깨달음도 이성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될 나이에 가까워집니까? 욕망이 끓어올라 아무도 우리에게 재갈을 물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곧 지나갑니다. 그다음에는 늙음이 우리를 소환하여, 우리가 사는 것을 지겨워하고 남들에게 지겨움과 수고를 끼친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손가락으로 우리 삶의 흐름을 셀 줄 안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둔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훈, 곧 우리 삶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힘이 넘칠 때에도 십만 가지 죽음이 우리를 위협한다는 것을 아는 데 우리 노력을 쏟았다고 해서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친척이나 친구 가운데 누가 죽을 때, 또 어떤 시신을 땅에 묻으러 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사람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고 말할 줄 압니다. 어떤 도시나 나라에 큰 황폐가 있으면 우리는 더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우리에게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이 교훈에 우리 자신을 단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 말하자면, 먼저 사람들이 진흙집에 살고 그들의 기초가 티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곧 우리가 현재의 삶만을 따져 본다면,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썩어 가는 것밖에 향하지 않는 오두막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몸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굳건함은 이것입니다. 곧 모든 것이 곧바로 티끌로 돌아가고, 우리는 좀이나 바람에 먹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살아 있는 피조물로 여기지도 않는 아무것도 아닌 벌레보다 우리가 먼저 꺼지고, 그보다 먼저 CO 212 먹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여기서 먼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엘리바스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망하고 먹혀 없어진다고 덧붙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사람들이 짧은 시간 안에 망한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그것도 참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거기에는 더한 것이 있습니다. 곧 우리 삶의 한순간도 죽음에 가까이 가지 않고는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한 걸음을 내딛거나, 식사를 하거나, 손을 뒤집기만 해도 언제나 늙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삶이 짧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고 흘러가 버린다는 것을 눈으로 보듯이 알아야 합니다. 저녁과 아침으로 먹혀 없어진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아무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영원히 망한다고 말합니다. 이 교훈에서 유익을 얻으려면 우리는 이 두 조항을 다루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죽음이 언제나 우리 눈앞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도록 재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 것이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누구나 여기 담긴 것을 가르치는 박사가 되려 하지만, 그것을 잘 배우는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혀 없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곧 자기의 모든 힘이 연약하고 우리 안에는 영속하는 상태에 머물 굳건함이 없으며, 우리는 언제나 죽음을 향해 가고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며 우리가 거기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단순한 교훈밖에 없다면 그것은 우리를노발대발

하고 괴롭게 할 뿐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이 우리 삶이 그토록 덧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고, 일찍 죽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다고 결론지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실 때, 그것도 우리에게 아버지로 자신을 보이시려고 두실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예를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를 내쳤습니다. 우리가 이성 있는 피조물이고 우리 본성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여기 두신다는 증언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를 업신여기고 우리가 차라리 창조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매 순간 먹혀 없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둘째 조항으로 가야 합니다. 곧 우리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 바라본 뒤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회복되는지, 또 그분께 어떻게 붙들려 있는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104편에서도(29–30절) CO 213 이 둘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과 능력을 거두시자마자 모든 것이 없어지리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부으시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힘을 되찾는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곧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하고, 말하자면 이를 갈며 억지로라도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을 만큼 죽음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또 그토록 큰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우리가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로 굳건해진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자연의 질서를 넘어 우리에게 베푸시는 좋은 것과 행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에게서(사 40:6–8) 말하는 대로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일 뿐이다. 사람이 한동안 푸르고 꽃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곧 시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하늘에서 영속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머무는 생명을 갖고, 이 땅 삶의 보편적 부패에서 속량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원함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에서 유익을 잘 얻으려면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곧 다시 말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쇠약해져 가는 것을 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나 먹혀 없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 그토록 짧으니 그 시간을 더욱더 잘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을 섬기는 데 단련하시려고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긴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바쳐야 할 때 우리 의무를 다하는 데 아무리 부지런하고 주의를 기울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바닥을 뒤집는 사이에 우리가 끝에 이르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훨씬 더 주의하여 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이 삶이 달음질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 주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합니다. 우리는 게으르게 걸어서는 안 되고, 각자 스스로를 부추기고 찌르고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혀 없어진다고 할 때 이 구절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엘리바스가 덧붙이는 것으로 갑시다. 그는 아무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영원히 망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죽음을 피하느냐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49편에서 (10절)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모두 한 무리로 모아진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43] CO 214 그러므로 우리는 온 인류가 이 죽어야 할 필연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 아무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모두가 영원히 망한다고 말합니까? 먼저 엘리바스는 여기서

43. 원문에는 시편 49편 11절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1절로 세는 프랑스어 성경의 절수이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이 설교의 시편 49편, 102편, 18편 인용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을 때 짐승처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여기서 하는 말을 언제나 지금의 주제에 비추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의 삶이 덧없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다루고 거기서 멈추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땅 위를 기어다니는 불쌍한 피조물이어서 천사들의 완전함에 이르거나 거기에 가까이 갈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아무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모두가 영원히 망한다고 말할 때, 그는 사람들이 판단도 분별도 없이, 오래전부터 죽음을 미리 생각해 두지 않고 짐승처럼 떠나가므로 기습을 당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으시고 그분의 교훈을 깨닫도록 그분의 성령으로 그들을 다스리시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그 본성에서 어떠한지 보여 주려 합니다.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점입니다. 첫째 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인용한 예언자의 구절과 가깝습니다(시 49:13–14). 거기서 예언자는 사람들의 무관심을 비웃습니다. 그들은 자기 삶이 무엇인지, 곧 손바닥을 뒤집는 사이에 그것이 깨진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터인데도 언제나 이 땅에 머무를 것처럼 셈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속고 자기를 잊어버리기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끝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우상인 것처럼 믿어 버립니다. 이것은 알면서 짐승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언자는 이 어리석음이 논박된다고, 사람들이 언제나 이 땅에 머물리라고 상상하며 그런 불멸을 지어낼 때 스스로 속고 파멸로 곤두박질친다는 것을 경험으로 잘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눈으로 보아 드러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튼 그들의 후손들도 그 때문에 더 지혜로워지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양 떼처럼 한 무리로 모아지고, 무덤이 큰 자와 작은 자를 다 삼키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엘리바스의 말과 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덧없으니

언제나 죽음을 눈앞에 두어서 그것을 향해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거두려 하실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넋이 나가지 않게 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려 하신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우리가 보다시피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놀람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우리의 끝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창조되었는지 미리 생각해 두면, CO 215 그때 우리는 생각 없이 어리석은 자처럼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다. 곧 영원히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단순한 말보다 더 멀리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본성 그대로의 사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적인 능력으로 하시는 그 새롭게 하심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먹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하려면 시편 102편에서(26절 이하) 하는 말을 봅시다. 거기서 예언자는 사람들이 자기 상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어떤 힘도 자랑하지 않게 하려고, 하늘까지도 우리에게 본보기로 줍니다. 우리가 거기서 너무나 높은 위엄을 보아서 놀라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하늘까지도 늙고 변하며 옷처럼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훨씬 더 연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는 동안 그는 "자손의 자손이 거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에 자신을 드릴 때 우리는 굳건하고 잘 세워진 처지를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 안에 생명의 씨를 지닐 때 그들을 자연의 공통된 질서에서 구별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10–11절) 그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이 짐, 우리 몸의 이 썩을 덩어리를 지고 있으므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참된 생명의 씨인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언젠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연약함을 마땅히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안에 헛됨과 거짓밖에 없다는 것을 안 사람들은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놓으시는 치료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이 이 죽음의 종살이에서 거두어지리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에게로 택하신 뒤에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 위에 그분의 능력이 흘러내리게 하시며, 그들이 그 생명의 샘에서 길어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현재의 삶과 그 결말을 잘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먹혀 없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성상 태어난 비참한 처지를 고치시고 그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거두어야 할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다룬 것, 곧 우리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저 알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별 유익이 없으리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혼란에 빠진 채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얻으려면 우리는 둘을 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곧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비참을 보고 신음해야 합니다. 허세나 쾌락이나 재물에 취해 있고 기꺼이 스스로 속고 속이는 CO 216 저 속된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말했듯이 우리는 그런 눈가리개를 모두 벗고 눈을 떠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처한 비참한 처지를 안 뒤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우리가 본성상 처한 어둠에서 끌어내기만을 구하시므로, 그분이 우리 손을 붙드시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추려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사람들의 뛰어남이 그들 안에서 사라지고, 그들이 지혜 없이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낮아져야 한다는 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모든 영광을 벗기시고 우리가 없어진 것처럼 되어서, 우리의 모든 굳건함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값없는 선하심 말고는 다른 데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가까이 이끄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충만함에서 길어 마시기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충만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샘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며 거기서 우리가 배부르도록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본성에서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기신 뒤에 다시 입히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동안신음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벗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우리는 존재하기를 바라고, 우리 본성이 우리를 그쪽으로 밀어붙인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오두막이 무너질 때 더 나은 집이 우리를 위해 마련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불멸을 입히시고 우리를 우리의 참된 상태로 회복시키시리라는 것을 안다"(고후 5:2–4). 우리가 불신자들, 곧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맛보지 못하는 자들과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그들의 모든 뛰어남이 그들과 함께 사라지지 않겠는가?"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생각하고 그들이 무엇인지 바라본다면, 그들이 죽음으로 없어진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도움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망하면서도 망하지 않고, 벗겨지면서 곧바로 다시 입혀집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지혜 없이" 하고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너무 둔해서 자기 자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므로 언제나 그들을 정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하고, 거기에 이르렀을 때 기쁘게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이 큰 지혜라는 것을 주목합시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 교훈을 잘 배우고 그 열매를 얻도록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CO 217 많이 진보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두가 그것을 피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우울한 일이어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면 모두가 분해하고 언짢아하기 때문입니

다. 그러나 아무튼 사람들이 거기에 노력을 쏟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감각과 모든 계획에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지혜도 모두 어리석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 말고 모든 지혜와 분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제멋대로 날뜁니다. 그들은 자기를 잊어버림으로써 고삐 풀린 말처럼 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분별과 이성을 묻어 버리려는 것과 같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여기서 사람들이 지혜 없이 죽는다고 정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에 이르러야 하는지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 앞에 그들의 목표를 두시며 "그쪽을 향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평생 길을 잃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며, 여기서 떠나야 할 때에는 으르렁거리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맞서고 그분과 싸우며,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서도 사나운 반역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을 간추려 봅니다. 엘리바스가 여기서 내리는 결론을 보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는 욥에게, 그가 사방으로 돌아보아도 자기와 같은 반열에 있는 믿는 사람이나 자기의 동료를 하나도 찾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위에서 사람들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을 순전히 본성 그대로 다루었다는 것을 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 나라의 문을 열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며, 그분의 성령으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이 더 낫고 영속하는 생명을 향하게 하실 때 그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는 여기서 사람들을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동안 가진 그 처지와 상태에 두려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욥에게 "자네는 자네와 같은

반열에 있는 믿는 사람, 자네가 동료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도 찾지 못할 것이네" 하고 말할 때 드러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분노가 어리석은 자를 죽이고, 시기, 또는 언짢음, 또는 들짐승처럼 사람을 갉아먹는 성냄, 바로 그것이 미련한 자를 죽인다" 하고 말합니다. 이미 밝혔듯이 엘리바스가 이것을 욥에게 아주 잘못 적용하고 그에게 큰 모욕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CO 218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이 교훈은 여전히 참되고 아주 유익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곧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받을 때마다 우리보다 앞서 걸어간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비슷한 고통과 번민을 견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괴로워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던 거룩한 조상들을 봅니다.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많은 고난을 견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면 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많은 특권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매를 맞고 많은 고난과 괴로움으로 시달린 것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는 위로받고 기뻐할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결말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런 극한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이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리라고 바라야 합니다. 한 조항은 이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역경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면, 그분께 분을 품거나 가시 채를 뒷발질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44 그렇지 않으면 분노가 어리석은 자를 죽인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난을 거슬러 분을 품고 이를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진보를 잘못 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결국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들의 고난을 갑절로 만들 뿐일

44. 행 26:14.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광기의 거품을 다 쏟아 내고, 심지어 모독의 말을 토해 냈다고 해서 자기 주장이 이겼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언제나 그들의 고난을 갑절로 만들 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어리석은 자를 죽인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또 그들이 남을 시기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나 저 사람보다 자기들을 더 혹독하게 다루신다고 그분과 다투려 할 때, 그런 질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스스로를 갉아먹어 결국 망하고 완전히 없어질 수밖에 없게 할 뿐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주의자들은 엘리바스의 이 말을 가지고 죽은 성인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피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려 했으니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보라, 욥에게 거룩한 이들 가운데 누구에게 눈을 돌려 그를 찾아보고 그가 대답할지 보라고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럴듯합니다! 여기서 욥이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 간구해 줄 죽은 사람들을 찾으러 가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이미 보여 드렸듯이, 문제는 그가 거룩한 이들 가운데 자기와 같은 반열에 있는 사람을 하나도 찾지 못하리라는 것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CO 219 거룩한 이들은 고난 가운데 언제나 온유한 마음을 지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되 그분의 엄격함을 누그러뜨리셔서 그 결말이 좋고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한동안 그분의 손에 버림받은 것처럼 되어 그분이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아볼 수 없었더라도, 그래도 그들은 그분께 자신을 맡겼고 언제나 그분을 불렀습니다. 그분이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분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에서 그들을 어긋나게 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엘리바스의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황주의자들이 위조자이며 거룩한 성경을 노골적으로 훼손했다는 것을 봅니다. 물론 한 가지 점에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꿈을

입증하려면 거룩한 성경을 비틀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은 성인들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믿게 하려 하는데, 거룩한 성경은 그것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좋은 증거라고는 한 음절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입증하려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모든 것을 뒤섞고흰 것을 검은 것으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없이 어리석게 지어낸 모든 사람의 고안물을 미워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사람들은 자기 상상을 따를 때 구원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고, 또 그것이 원인이 되어 거룩한 성경이 결국 갈기갈기 찢기고 훼손되며 모든 것이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에서 지어낸 모든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입으로 우리에게 밝히신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려고 탐하지 않는 이 단순함을 지키기를 배웁시다.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이미 시작한 두 조항을 잘 주목합시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보다 앞서 걸어간 믿는 사람들이 비슷한 처지에 있지 않았는지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많은 괴로움으로 그들을 단련하셨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야 할 때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필요할 때 버리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압시다. 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체적으로도 개별적으로도 괴롭게 하셔서 우리가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견뎌야 하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서 보이는 배은망덕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압시다. CO 220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복음을 아는 데로 부르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증언 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열매 맺게 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없애고 쓸모없게 만드는 것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섬김과 경배를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밝음을 생각하면, 말하자면 우리는 작은 천사들처럼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는 실상이 어떤지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악의와 위선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은 잘할 줄 알지만, 삶을 살펴보면 복음과 아무 일치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그분을 거슬러 공모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럴듯한 겉모습을 지녔던 사람들이 어떻게 짐승처럼 되는지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의 재앙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나 그래도 언제나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부르며, 그분이 우리 지난 잘못을 묻어 주신 뒤에 앞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그분께로 끌어당기시기를 기도하기를 그치지 맙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고, 여기서 말하는 그 분노와 언짢음을 품지 않게 합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복을 더욱더 자극하고 우리를 거슬러 불붙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솔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거세게 부딪쳐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8편에서(26절) “주님께서는 비뚤어진 자에게 비뚤어지게 대하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대로입니다. 사람들이 들짐승처럼 되려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구 치시리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노와 그런 언짢음을 경계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십만 번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리라는 것, 곧 그분이 우리를 치신 뒤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매로 치시되 우리가 완전히 짓눌리지 않도록 한도를 지키신 뒤에, 다시 우리에게서 손을 거두실 것이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은혜롭고 호의를 베푸시는 분으로 느끼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분이 그분의 선하심과 아버지다운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펼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의 위엄의 보좌 앞에 엎드립시다.

제18편

욥기 5장 설교 1

CO 33:221–233

> 나는 어리석은 자가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보았고, 곧바로 그의 집을 저주하였네. 그의 자녀들은 구원에서 멀어지고, 성문에서 짓밟혀도건져 줄 자가 없을 것이네. 굶주린 자가 그의 추수한 것을 먹되 가시덤불 사이에서까지 빼앗아 가고, 목마른 자가 그의 재산을 들이켤 것이네. 고난은 티끌에서 나오지 않고, 괴로움은 땅에서 돋아나지 않네.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으니, 불티가 위로 날아오르는 것과 같네. (욥 5:3–7)

CO 221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 분을 품고, 그분을 잔인하다고 고발하며, 온갖조급함에 날뛰는 자들이 무엇을 얻는지 보았습니다. 곧 그들은 자기 고난을 더 악화시키고, 자기 분노와 광기 속에서 먹혀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흔히 형통하고 편안히 지내므로, 세상의 눈으로 그들이 행복하다고 여겨지는 동안 그들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여기서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어리석은 자가 형통하는 것을 보았을 때 흔히 하듯이 “저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 결말이 나쁠 것이며 그의 자손에게까지 박해가 미치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 말을 욥에게 잘못 적용하지만, 그래도 그 교훈은 죽을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악에 날뛰는 자들이 처음부터 벌을 받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편드시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릇된 생각에서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주 그런 선고를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한 생각이 어떠한지 압

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일들을 평가하고, 우리 정신은 그 이상으로 뻗어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드셔서 어떤 눈에 보이는 심판을 행하시면, 사람들은 그것을 겨우 쳐다봐 줄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못 본 체하시고 죄인들을 참으며 기다리시면, 우리에게는 그분이 주무시고 더 이상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시며,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일들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악인들이 그들의 행복 한가운데서도 저주받은 자들이며, 그들이 행운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들은 갑절로 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차라리 그들이 비참했더라면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쾌락이 그들에게 너무 비싼 값을 치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이것이 CO 222 엘리바스가 여기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아주 유익한 교훈을 담고 있으니 우리가 잘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담긴 것에서 유익을 얻으려면 먼저 '어리석은 자' 라는 이 말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듯 자기 이익과 자기 일을 잘 챙길 줄 아는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여기겠지만, 거룩한 성경은 하나님 경외 말고는 다른 지혜가 없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 삶을 다스리며, 우리의 모든 소망을 그분께 두어 그분께 피할 때, 그것이 우리의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완전하게 지혜롭다고 말합니다(골 1:28). 그들은 거기서 실수하거나 길을 잃지 않고 자기 온 삶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간계와 술수로 가득하고 자기가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곧 하나님 경외가 다스리지 않는 동안에는 헛됨과 어리석음밖에 없다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하는 말로 갑시다. "나는 어리석은 자가 뿌리를 내리는 동

안 그를 저주하였고, 그렇다, 그 자리에서 그의 집을 저주하였다." 뿌리를 내린다고 할 때, 그것은 그 형통이 아주 굳건하고 확고하게 계속될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나는 어리석은 자가 높은 지위에 높이 올라 있는 것을 보았다" 하고 말했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잘 표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가 심겨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과 모든 비뚤어진 자들은 언제나 운을 소매 속에 넣고 다니리라고 바라기 때문입니다. 잘 심겨서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람과 폭풍이 있어도 버티고 서 있듯이,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올리신 뒤에는 언제나 다스릴 것처럼, 그들의 승리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런 겉모습을 보고도 그 자리에서 악인들을 저주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또는 '곧바로'라고 말합니다. 곧 그는 어떤 변화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기세를 떨치고, 흔히 말하듯순풍에 돛을 단 것을 보면, 기다리며 놀라서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쇠퇴해 가리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때서야 우리는 말을 바꿉니다. 그러나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CO 223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넋이 나갑니다. 엘리바스는 반대로 자기가 그 때문에 놀라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대로 선언했다고 밝힙니다. 그는 자기 머리로, 자기 공상대로 정죄나 판결을 내리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마침내 수치를 당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대로 자기도 그것을 기대했고,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그는 악인들이 그렇게 높이 나는 것을 보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 담긴 내용을 간추려 봅니다. 그러면 이 교훈이 우리에게 얼마나 알맞은지 알도록 그것을 우리 쓰임에 적용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각자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을 쏟아야

할 곳도 거기입니다. 이웃을 판단하는 데 그토록 깊이 끼어드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자기를 추어올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재판관 앞에 와야 할 것이고, 그분은 그들이 이렇게 자기 악덕 속에 잠들어 있었으니 그들을 엄격하게 다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신이 이리저리 떠돌며 이웃에게 있는 악을 샅샅이 캐내서는 안 되고, 각자 자기 속으로 들어가 자기 상태와 삶을 살펴야 하며, 우리 안에서 악을 찾으면 그것을 정죄해야 한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또 우리가 이렇게 악인들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저주해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그런 권위를 우리 자신에게 돌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먼저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어떤 잘못이나 모욕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더 이상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서 우리는 마치 단순함과 정직 가운데 걸어간 것이 시간 낭비였던 것처럼 괴로워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내 궁핍 가운데 나를 도우시리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그분은 내가 끝까지 괴로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나는 아무 덜어짐도 얻지 못한다. 내가 그분을 부르면 그분은 귀머거리이신 것 같다.”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박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데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주 나쁜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위로를 얻으려면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곧 악인들이 오늘 승리를 뽐내고 우리 목을 발로 밟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마침내 그것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으시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며 기다립시다. 그러면 그 결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곧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보아 주시는 것이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악인들을 저주했을 때, 곧 그들의 모든 처지에

불행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유익을 CO 224 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봅시다. 악인들이 선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좋은 시절을 보내고, 그들이 교활하고 간사하며 승리를 뽐내고, 심지어 이 땅의 삶의 공통된 비참에서 면제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볼 때, 말하자면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동요하여 무슨 말을 하거나 생각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일들에 더 나은 질서를 세우지 않으시니 선보다 악에 자신을 드리는 편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을 행하도록 부추김을 받지 않으려면 이런 결론을 가져야 합니다.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왕과 군주처럼 보이고 자기 상태를 기뻐하며 자랑할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가 첫날부터 알아차려지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으로 그것을 이미 선언하셨으니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분이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편 37편의논지입니다. 이 죽을 삶 동안 우리는 일들이 너무 뒤죽박죽이어서 악하고 비뚤어진 자들이 선한 사람들만큼 편안히 지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온갖 호의를 베푸시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봅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레바논 산의 백향목처럼 높이 솟고 번성합니다. 간단히 말해 모든 것이 그들에게 때맞추어 와서, 시편 73편에서(7절) 말하듯 기름기가 그들의 눈을 튀어나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위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상은 그런 자들이 복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사방에서 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그들을 저주해야 합니다. 곧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굳게 확신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실상을 우리에게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현재의 일들에 눈이 부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분께 자신을 맞추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악과 파멸로 바뀌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주하다' 는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의 불행이나 파멸을, 말하자면 보복하려는 욕구로 바라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합시다. 우리는 흔히 감정에 휩쓸려서 우리 안에 시기나 쓴 마음, 또는 어리석고 분별없는 열심만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악인의 집을 저주했다고 할 때, 그것은 그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 주는 것에 머물렀다는 뜻일 뿐입니다. 실제로 재판관이 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권위를 우리에게 돌려 CO 225 "아, 저 사람은 끝이 나쁠 것이다, 아무개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너무 큰 무모함일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까지 주제넘어서는 안 됩니다. 저주하고 복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동의하여 "아멘, 주님, 오직 주님만이 온 세상의 권한 있는 재판관이십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밝히시는 것을 들어야 하고, 각자 그분의 말씀에 따르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일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고 반박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각자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저주하다' 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담긴 것을 간추려 거두는 일이 남았습니다. 여기 내놓은 이 두 시험은 너무나 흔해서, 우리 각 사람이 그것에 맞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서 내리는 이 결론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주 쓰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들에게 부당하게 모욕을 당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어떤 우위를 차지하며, 그들이 우리를 삼킬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그들을 물리칠 아무 방법이 없을 때, 이 말씀을 힘 있게 붙들고 기억합시다. 곧 하나님께서 마침내 악인들이 언제나 흥겨워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는 것입니다(그분은 뒤죽박죽인 일

들을 잘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이 이미 실제로, 경험으로 그것을 보여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짓눌리고 부당하게 괴로움을 당할 때 가질 수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위로가 이것입니다. 곧 그들을 이렇게 박해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고난은 복된 것임을 압시다. 곧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참하다고 판단하고, 흔히 말하듯 우리 등에서 털을 뜯어 먹으며, 우리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일들을 배치하셔서 악이 우리에게 선으로 바뀌고 그 모든 것이 우리 구원을 돕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슬픔 한가운데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시 129:4)[45] 하나님께서 불쌍한 교회의 등에 쟁기를 끄는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데 손을 뻗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들이 이렇게 뒤죽박죽인 채로 남을 것이고 더 나은 결말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악에 자신을 드리고 싶은 유혹을 받고, 누가 우리에게 모욕을 하려 할 때 그에게 맞서 대들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단순함 가운데 걷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악에 손을 뻗을 수 있습니다. 곧 CO 226 악인들을 본받는 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자들의 줄을 끊으시고, 그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단을 갖지 못하게 하시리라고 선언하십니다. 한 조항은 이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비웃고 온갖 악에 날뛰는 자들이 그래도 기세를 떨치고 좋은 시절을 보내며, 흔히 말하듯 운이 그들에게 웃어 주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들을 저주하기를 그치지 맙시다. 곧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참으며 기다리고, 그들의 모든 형통이 그들에게 수치로 돌아가리라는 것을 알아서 그 때문에 그들을 시기하지 맙시다. 또 말씀드렸듯이 모든

45. 원문은 시편 129:4를 참조합니다. 의인들이 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신다는 설명은 시편 125:3의 문구와 연결됩니다.

것을 우리 쓰임에 적용하기를 배웁시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견디게 하셔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거나 우리 처지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악인들을 그들의 형통 가운데 저주하고 그것이 곧 흘러가 버릴 꿈일 뿐이라는 것을 알듯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 때, 세상이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 육신과 본성이 우리를 그런 시험으로 부추길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압시다.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야 하므로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의사의 직무를 행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나쁜 부패와 우리 육신의 지나친 욕망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너무살찐 말처럼 만들어 주인에게 뒷발질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에게서 저주밖에 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고 굳게 붙듭시다. 또 육신을 따라서는 불행밖에 알아차릴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선언하시므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발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간추려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저주의 선고를 어리석은 자들 말고는 아무에게도 던지지 않도록 잘 조심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판단하지 않을 만한 분별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엘리바스가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곧 사람들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술수와 간계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심지어 너무 휩쓸려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므로 거기에 어리석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CO 227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기를 원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음으로 각자 자기 속으로 들어가 자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이며 무엇에 있는지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께 온전히 복종하고, 참된 겸손으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우리를 맞추고, 온전히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며, 그분을 부르고 그분께 피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의 규칙을 가지려면 이 끝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신 속으로 들어가 우리 악덕과 비참을 알아보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신음하도록 그것을 싫어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리석은 자들을 판단할 좋은 분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악인들에게 박수를 보내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시편 15편에서(4절) 말하듯 그들을 미워하고 혐오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걷는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존경받을 만하고 존경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들입니다. 악을 즐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모두 진흙과 오물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악취처럼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살 뿐이니, 사람들이 그들에게 아첨하고박수를 보낼 때에도 우리는 그들을 온 세상을 악취로 더럽히기만 하는 천 한 무리와 오물처럼 혐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하는 재판관이 되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또 그러는 동안 엘리바스가 사람들이 모든 행복의 절정에 이르렀다고 여기던 자들이 저주받았다고 그 자리에서 판단했다고 말할 때 여기 놓인 그 말도 실천합시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뒤바뀜에 따라 말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곧 악인들이 높이 올라 있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분의 직무를 행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잘 살든 못 살든 마찬가지이고 선을 행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일이 일어나는 대로 판단할 만큼 그렇게 경박하고 변덕스럽지 맙시다. 세상이 소란스러운 동안에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밝히신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간단히 말해 우리 공상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재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성경에 담긴 것의 효과나 성취를 처음부터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여기서 믿음이 일하여 우리를 붙들게 하고, 우리 감각이 이리저리 헤매지 않게 하며, CO 228 이렇게 말합시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이고 방탕한 삶을 산다면, 그 결말이 나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미 알았거나 불행이 드러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하게 합시다. 또 여기 담긴 대로 그것을 말하기를 배웁시다. 엘리바스는 "아무개는 저주받을 것이다, 불행해질 것이다" 하고 남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뜻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의 일들이 뒤죽박죽인 것을 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복을 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고, 그들이 내쳐지고, 치욕을 당하며, 이 세상에서 기세를 떨치지 못하니 바보처럼 보이더라도, 세상이 반대로 여기더라도,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기를 그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을 실천해야 할 때가 있었다면 그것은 오늘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멸시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술수도 충분히 볼 수 있고 정신들도 충분히 날카롭고 예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거나 그 수가 아주 적고, 사람들이 생각 없이 걸

어가며, 신앙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봅니다. 또 우리는 불의가 끝까지 다스려서 대부분이 뻔뻔해지고 악을 행하는 것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일들이 이렇게 뒤죽박죽인 것을 봅니다. 그러는 동안 누가 하나님께 가장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여겨지겠습니까? 가장 나쁘고 가장 날뛰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자기 일을 잘 처리할 만큼 예리하고 날카롭기만 하면, 간계와 술수로 가득하기만 하면, 그들이 지혜롭고 사려 깊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이렇게 존중받고 모두가 그들을 귀하게 여기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고 그분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없으니 우리는 그들을 저주받은 자로 여깁시다. 그러는 동안 이렇게 악을 미워하되,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합시다. 곧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고 어떤 뚜렷한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기다리지 맙시다. 우리가 알아차리는 만큼만 그분의 정의를 존중하는 것은 그분께 너무 적은 영예를 돌리는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즐거워하고 그들이 행운이라고 부르는 것 속에서 자기를 높일 때, 우리는 그들을 치욕스럽게 여기고 혐오하며, 어떻든 그들이 우리에게 저주받은 자들이 되게 합시다.

또 엘리바스가 덧붙이는 것도 잘 주목해야 합니다. 곧 CO 229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자녀들이 성문에서 넘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지며, 아무도 그들을 돕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분의 심판을 이루지 않으시더라도, 그분의 손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자들의 자손에게까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살아 있는 동안 온갖 악에 자신을 드리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을 때까지 재물을 모으고, 언제나 불어나며, 새로 재물을 쌓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 모든 것이 저주받았으니 그 재물과 소득도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 저주가 아버지에게서 알아차려지지는 않지만 자녀들에게서 드러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복을

실행하시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권고를 받고, 그 위에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걷기를 배웁니다. 처음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들 때문에 자녀들을 벌하시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교훈은 성경에서 충분히 흔합니다. 또 여기서는 자기 아버지를닮은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혈통에서 나온 사람들의 구원자로도 자신을 잘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경에서 그 본보기들을 봅니다. 그러나 아무튼 대개는 악인들의 자손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멸시하고 그분을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에게 삼사 대까지 그분의 보복을 계속하시리라고 선언하시는 대로입니다.[46] 그런데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벌하시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면서도 그들의 몸에 아버지의 죄를 징계하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그것이 악한 거래와 술수와 속임수와 잔인함으로 모은 것이라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려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부당하게 얻은 그 재산을 그에게서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수치밖에 가져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재물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을 일으킬 땔감과 같다고 말하는 대로입니다(사 5:24).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악하게 산 사람의 아들을 구원하려 하실 때, 그가 살 수 있고 그의 아버지가 자초한 악과 부패에 휩쓸리지 않도록, 마치 그에게 피를 뽑아 주시듯 부당하게 얻은 재산을 그에게서 벗기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벌하시면서도 자녀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때로 그분은 더 나아가십니다. 아버지들이 너무 방탕하여 비뚤어진 삶을 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혈통을 거기 내버려 두셔서 그분 성령의 은혜가 그들 위에 머물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46. 출 20:5.

하나님의 인도를 CO 230 잃어버리면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악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악인들의 자녀들이 그들 아버지의 죄를 집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의 본성대로 그들의 처지에 내버려 두실 뿐 아니라, 사탄에게 모든 권세를 허락하시고 그에게 고삐를 풀어 주셔서 그가 그런 집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아버지들을 꾀어 온갖 악으로 휩쓸어 가면, 자녀들은 더 지나친 광기로 날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지 봅니다. 곧 악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자기들의 날뛰는 욕망을 따라 걸어갈 때 그들의 아버지들보다 더 큰 수치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잃고 성문에서 넘어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숲속 강도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공개된 재판정에서 넘어지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경에서 '성문' 이라는 말은 재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소송을 다루었고, 공적인 모임이 열렸으며, 간단히 말해 그곳이 재판석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127:5) 선한 사람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자녀들은 성문에서 지켜지고 그들의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리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반대로 이 구절에서는 악인들의 자녀들이 넘어지고 부서지리라고, 그렇습니다, 공개된 재판정에서 그렇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공공연히박해하셔서 그분이 거기에 손을 대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더 잘 표현됩니다.

그런데 그는 동시에 아무도 그들을 돕지 않으리라고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멸망에 두려 하실 때에는 그들에게서 모든 도움과 지원의 수단을 빼앗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을 벗기시고 모든 도움을 빼앗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로 말하자면, 제가 이미 다룬 대로, 우리는 더욱 눈을 낮추고 하나님께 그분이 우리를 그분께 순종하며 바르게 걷게 해 주시기를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에게서 그분의 저주를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법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곧 모든 것이 잘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우리 평생뿐 아니라 우리가 죽은 뒤까지 대비하여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도록 해 두었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 우리가 어디서나 나무랄 데 없이 좋은 질서를 세웠다고 생각할 때에도,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궁리에 입김을 부시면 모든 것을 뒤엎으시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서 CO 231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남용하지 맙시다. 그분이 한동안 우리를 아끼시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잠들고 우리 악덕 속에서 자기를 추어올리는계기가 되지 않게 하고, 알맞은 때에 그분께 돌아와 그분이 이 구절에서 모든 멸시하는 자들에게 위협하시는 그 보복을 앞질러 막기를 배웁시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이런 일이 선한 사람들과 그 자녀들에게도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곧 그들이 부당하게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참된 것, 우리도 온전히 확실하고 틀림없는 것으로 붙들 수 있는 것을 전제하십니다. 곧 우리가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마침내 그것을 대비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그분이 우리를 충분히 시험하시고 우리를 낮추신 뒤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것을 구원으로 돌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의 자손이 넘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지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려 하실 때 그들을 길들여 그분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도, 그들의 육적인 감정을 죽이시려는 것도, 간단히 말해 그들을 치료하시려는 것도 아니라,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하시려는 것임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전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유익을 위해 쓰시는 고난과, 악인들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슬러 재판관으로

자신을 보이시려고 보내시는 징계를 구별하기를 배웁시다.

이어서 그런 자들의 재산은 굶주린 자들에게 빼앗기고, 가시덤불 사이의 곡식까지 가져가리라고 말합니다. 곧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의 밭을 거두어 그들의 모든 재산을 삼킬 뿐 아니라, 울타리 사이까지 모든 것을 긁어 갈 것이고, 덤불 사이에 이삭 두세 개처럼 숨겨진 것이 있으면 그것까지 주워 가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바스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이 자녀들에게 보내시는 교정과 같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분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셨고, 더 이상 긍휼의 여지가 없으며,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알아보지 않으시므로 그분의 아버지다운 선하심을 그들에게 맛보게 하려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것이 여기서 하는 말입니다. CO 232 그런데 그 위에서 우리는 제가 이미 밝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우리가 악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어 우리를 도우실 때까지 참으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처음부터 그분의 심판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그분이 때와 곳에 맞게 그것을 실행하시리라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행을 볼 때, 그것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끌어서, 그분의 보복이 그토록 끔찍한 것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재갈에 물려 있게 합시다. 바울도 이렇게 권합니다(엡 5:6). "아무도 헛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하고 반역하는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심판을 보여 주실 때 우리는 그 아래서 떨고, 그분 경외 아래 포로처럼 붙들려 그분이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에 온전히 복종합시다. 그리고 그가 덧붙이는 것이 이것입니다(지금은 그것을 풀이할 수 없지만). 곧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들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땅도 공기도 하늘도 아니며, 사람이 악을 자기 안에 지니고 있다는 것

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알고, 이 세상에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이 우리 죄 위에 놓인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 모든 악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우리가 그 속에 그 근원과 재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시다. 말하자면 그것을 알아서 우리 악덕을 싫어하고, 그것을 싫어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그분께로 거두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두신 은혜가 우리 구원에 힘을 발휘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펼치신 그분의 능력에 붙들려 그분의 복으로 형통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9편

욥기 5장 설교 2

CO 33:233–245

> 그러나 나라면 하나님께 따져 묻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돌리겠네. 그분은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하시고, 셀 수 없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이네. 그분은 땅에 비를 내리시고, 물이 거리마다 흘러넘치게 하시네. (욥 5:8–10)

이 설교는 6절과 7절의 풀이를 계속하고 그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CO 233 우리는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이미 풀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고생이 땅에서 나오지 않고 괴로움이 티끌에서 나오지 않으며, 사람은 수고하려고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으로 괴로울 때, 우리는 원인을 우리 밖에서 찾으려고 이리저리 둘러보며 궁리합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견디는 모든 역경과 고난의 근원을 우리 삶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런 권고를 받습니다. 사람의 삶의 비참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각 사람이 그 자기 몫을 느낄 때, 우리 정신이 떠돌거나 이리저리 멀리 돌아다녀서는 안 되고, 각자 자기 속으로 들어가 자기 죄를 샅샅이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많은 비참에 둘러싸여 있고 우리 삶이 이토록 비참한 처지에 매여 있다고 해서 놀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가 쉽게 불이 붙어 타오르는 성질과 특성을 그 자체에 지니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고난의 땔감이요 재료인 죄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내리면 우리는 거기에 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불티가 위로 날아오른다고 말합니다. 쇠를 모루 위에서 칠 때 그 속에 숨은 힘이 없다면 불티가 거기서 튀어나오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비참의 불이 우리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붙든다면 많이 진보한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당하게 괴롭게 하신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피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역경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밀고 부추겨자기 죄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무시하고, 더 나쁘게는 자기 고난 속에서 잠들어 그것을 이것이나 저것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는 멀리서 어떤 CO 234 우연을 찾아오고 자기 삶을 살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도 땅도 고발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그토록 많은 비참과 가난에 매여 있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정죄를 우리 자신이 지기를 배웁시다. 이를테면 날씨가 나빠서 서리나 천둥이나 우박이 오는 것을 볼 때, 공기가 본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시다. 가뭄이 들 때 하늘이 본성상 그렇게 굳어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이 메마를 때 그것이 땅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것을 압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에 태어났다고 할 때, 엘리바스는 우리가 악하게 태어나 온갖 악덕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으니 그에 맞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오는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온갖 부패를 가지고 나와서 본성상 악과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맞는 처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알맞다고 아시는 것, 의롭고 공평한 것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려고창조하셨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뒤로 부패한 본성을 들어, 사람의 처지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선하심을 펼치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다루실 만한 그릇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억지로 강요받지 않으면 결코 자신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대들려 하므로, 엘리바스는 여기서 두 번째 말을 덧붙입니다. 곧 자기는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께 따져 묻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교훈, 곧 그들이 고난받아 마땅하다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니 그들은 그것을 두고 대들지 말고 모든 것을 참고 받아들여야 하며, 자기가 겪는 고난을 피조물에게 돌리지 말고 오히려 자기가 그 원인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엄이 어떠한지 보여 줌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을 낮추도록 준비시키지 않는 한, 그들은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깨닫도록 굽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 죄를 내놓으면서도 CO 235 우리가 상대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끼게 하지 않는 동안에는, 꼿꼿이 서 있으려 하지 않거나, 입에 말대꾸를 담고 있지 않거나, 자기 악에 어떤 그럴듯한 색을 입히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반역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무관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 우리에게는 다 마찬가지이고, 우리 악덕에 마음이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대답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분의 재판석 앞에 소환되어 그분을 우리 재판관으로 느낀다는 것, 또 우리가 그분 손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 온 삶이 거기서 드러나고 살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참된 겸손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거기까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데까지 이끌면 우리는 얼마간 준비가 되어서 전처럼 무관심하고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추어올리던 그 거만함과 어리석은 오만이 더 이상 없고, 우리는 우리 악을 얼마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특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 눈앞에 두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가 느끼게 하려는 것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 앞에 내놓을 때 그것은 우리를 더욱 떨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장난이 아니며 여기서 잠들거나 이것저것을 믿어 버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47]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야 하며, 산들을 녹아내리게 하시는 분,[48] 모든 것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 아첨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이 우리에게 알려질 때 우리는 그 아래 꺾이고 모든 교만을 잊어야 합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에 대해서는 이것입니다.

이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가 우리 악덕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정죄할 만큼 충분히 깨어 있지 않다고 느낄 때마다, 여기서 우리에게 놓아 주는 이 순서를 씁시다.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여기 자기 죄에 대해 충분히 유죄를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는 여전히 걸어가며 자기 길을 계속 갑니다. 누가 그를 책망하거나 다른 식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그는 그냥 지나가며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계속 짓게 하는 원인, 우리가 참된 겸손 가운데 꺾이지 않는 원인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재판관이시고 우리가 상대해야 할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는 다른 치료법이 없습니다. CO 236 곧 먼저 우리가 우리 죄 가운데 깨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싫어하려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에게 마법을 걸어 놓아서, 모든 것이 잘되어 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면서도 우리가 거기서 멍하니 있을 수도 있으므로, 두 번째 점으로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 불쌍한 피조물아, 너는 네 하나님의 보복을 피할 수 없다. 온 세상이 네게 박수를 보낸다 해도 너는 거기서 정죄를

47. 히 12:29.
48. 시 97:5.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모든 피조물이 너의 치욕을 알아차리니, 너는 어린아이들 앞에서도, 짐승들 앞에서까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너는 네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하늘의 재판관 앞에 나아가야 할 때에는 어떻겠느냐? 네가 이렇게 악을 고집하니 너를 거스르는 끔찍한 정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 죄가 충분히 싫지 않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 만큼 생생하고 뜨거운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때, 우리를 깨우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과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져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자기 주장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우리 육신과 본성이 그쪽으로 너무 기울어 있어서 언제나 그쪽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책망하면 그는 말하는 사람에게 대듭니다. "그게 네가 할 일이냐? 너 자신을 잘 살펴보면 거기서 더 나무랄 것을 찾을 것이다. 너는 나를 너무 몰아붙인다. 나를 쫓아다니는 것 같고, 나를 헐뜯으려는 것 같다." 사람들이 우리를 책망하면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고발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핑계를 찾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박해하시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는 이웃들을 살펴봅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나쁘지 않은가? 적어도 그만큼 나쁘지 않은가? 아무개는 그만큼 무거운 벌을 받아 마땅하지 않은가?"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면서 언제나 우리 주장이 이기기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훈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곧 사람들과 따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 곧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거기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감각을 높이 들어 이렇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여기 나를 괴롭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그분의 손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고, 그 위에서 이미 말했듯이 겸손을 준비해야 한다." 또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더 잘 마음이 움직이리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믿어 버릴 때 그들의 그릇된 상상으로 그분을 변장시키고, CO

CO 237 하나님을 갈대처럼 구부리며, 어린아이와 장난하듯이 그분과 장난합니다. 더 나쁘게는 어린아이에게 하지 않을 만한 방종을 하나님께 부릴 것입니다. 그런 광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그분의 위대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변장시키고 우리 공상과 욕구가 이끄는 대로 그분을 만들어 내겠다고 주제넘게 나서는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에게 밝히시는 대로 그분을 알고, 그분이 그분의 일들로 보이시는 대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면 우리 수다는 분명히 꺾일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분과 다투러 오거나, 그분이 까닭 없이 우리를 괴롭히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 마땅하지 않다고 믿어 버릴 만큼 대담하거나 무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아첨은 내려놓아야 할 것이고, 모든 위선이 사라져야 하며,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니신 것으로 깨달은 그토록 큰 위엄에 두려워하며 부끄러워 거기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잘 주목할 만한 두 번째 조항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이 아니라 진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변형시키므로 자기 생각 속에서 허망해진다고 말합니다(롬 1:21). 그들은 그분에게서 그분의 영광을 벗기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부끄러운 자로 만드셔서 그들에게 버림받은 정신을 보내시니, 그들은 온갖추함과 치욕에 자신을 내맡기고, 사람들이 그들의 더러움을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수치 속에 자신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말하듯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그분을 변장시켰을 때 그분의 위엄을 부당하게 끌어내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병이 너무나 흔하고 누구나 자기 안에서 그것을

얼마간 경험하는 것을 보니, 우리는 더욱 이 교훈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릇되게 상상한 대로가 아니라 그분을 있는 그대로 알도록 온전한 경외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밝히십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분의 일들 가운데서 그분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라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자연의 질서에 대해 말하면서 말하듯이, 그분은 거기서 자신을 증언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시고, 비를 보내시며, 여러계절을 보내시고,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실 때, 그것으로 자신을 좋은 증언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행 14:17). 그것은 마치 그분이 자기 사정을 변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영광과 위엄을 알지 못하고, 내가 창조한 것들을 다스리려고 모든 것을 내 손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CO 238 느끼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몰랐다고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연의 질서 속에서 모든 것을 배치하시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눈만 뜨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떠한지 보여 줄 충분한 논거를 갖게 되어, 그분을 마땅히 영화롭게 하기를 배울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여기서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아주 유익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요컨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그 낱말만 가지고 있다” 하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시다. 오히려 하나님께 고유한 것, 그분의 본질에서 떼어 낼 수 없는 것을 바라보아서 그분을 마땅히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잘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미신에 빠져 있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렇게 속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언제나 다스려 온 악덕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분께 별 관심이 없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거의 그분의 배를 밟고 지나갑니다. 그들이 그분의 위엄에 닿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서 너무나 마귀 같은 오만을 보게 되어,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대신 그분을 발아래 두고, 그분이 자기들 위에 아무 권위도 갖지 못한 채 승리를 뽐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크고 엄청난 악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곧 사람들이 속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외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악덕은 미신입니다. 곧 사람들이 경건을 핑계로 이리저리 어리석은 공상을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 악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께 고유한 것과 함께 참되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권능, 정의, 선하심이 어떠한지 알아차렸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휩쓸리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작은 신들, 곧 우상들을 만들어 내고, 마치 하나님께 속하고 온전히 그분 안에 있는 능력들을 나누어 주듯이, 마치 그분을 약탈하여 각자 자기 먹이 와 노획물을 차지하듯이 그것들에게 직무를 정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인지 아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그분의 영예를 빼앗기지 않고, 그분의 것이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을 그분에게서 빼앗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미 간단히 다루었습니다. 눈만 뜨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자신을 밝히시므로, 우리가 그분의 것을 그분께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핑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가 여기서 보여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일들이 크고 CO 239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이 끝없이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엘리바스는 일반적인 명제를 들고, 그다음에 그가 요약하여 말한 것을 예로 구체화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마치 그가 하려는 말을 한마디로 들어 보이는 서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하시고, 그분의 행적은 놀랍고 끝이 없다.” 하나님의 일들이

크고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 정신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변장시키거나 우리 본성의 감각으로 그분에 대해 무언가를 상상해서는 안 되며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억지로라도 거기까지 이끌려 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엘리바스의 의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땅히 그래야 하는 그런 두려움이나 겸손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분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다룰 때 누구나 자기가 한마디 거들기에 충분한 재판관이라고 여기고, 심지어 그분을 감독할 만큼 대담하게, 아니 오만하게 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불평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왜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되어 가는가?” 하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덤벼들고, 그분께 소송을 걸며, 심지어 그분의 재판관으로 나서는 그런 대담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일들이 얼마나 크고 헤아릴 수 없는지 그들이 결코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이 헤아릴 수 없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밝힐 만큼 큰 척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감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길고 넓게 늘여 보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과, 너무 높아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감추어진 그분의 계획의 백분의 일이라도 그 속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에 나타나는 놀랍고 무한한 지혜를 맛만 보려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조금 맛보는 데에도 우리의 모든 감각을 넘어서야 한다면, 모든 것을 다 담으려 하고 그 실상을 끝까지 다 알려고 할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묻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두고 따지려고 주제넘게 나설 때 미친 것 이상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결코 헤아려서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아시는 만큼 그것에 대한 앎을 주시는 좋은 방법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들은 그 자체로 헤아릴 수 없다는 것, 곧 우리가 거기 있는 모든 것을 자세히 캐내려 하면 CO 240 결코 끝까지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위대하심 아래 짓눌린 것처럼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의 재판관이 되려 한다면 거기 담긴 비밀에 이를 수 없으니 눈을 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런 겸손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너무 높고 깊은 것을 알 만한 권한 있는 재판관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압시다. 하나님께 그분의 일들을 바르게 판단할 분별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알맞은 것을 느끼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실상을 다 풀어내고 해독해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우리 공상을 거쳐 가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삐를 짧게 쥐셔서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 구원에 좋고 알맞은 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감추어지지 않으므로 그 앎으로 우리에게 충분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비밀 속에 들어가 거기서 읽으려는 것처럼 하고 아무것도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않기를 원할 때, 하나님을 우리 머리에 굴복시키려는 그런 어리석은 호기심을 가질 때, 그것은 얼마나 큰 배은망덕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점입니다. 그런데 가장 작고 낮아 보이는 하나님의 일들에도 무한한 지혜가 있다면, 더 크고 우리의 모든 역량을 넘어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특히 우리의 구속이 문제일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 치시는 것, 곧 우리를 양자 삼으신 이 증언이 문제일 때, 그것은 자연의 공통된 질서를 넘어섭니다. 또 그분이 세상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모든 사람을 일반적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좋게 여기신 사람들을

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버리셨다고 할 때,[49]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높은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들이 헤아릴 수 없는 일이니, 이 점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걷지 않는다면 핑계할 수 없고도 남는다는 것을 압시다. 날개도 없이 하늘 위로 날아오르려 하며 그렇게 높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 목을 부러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일들이 헤아릴 수 없고 우리의 모든 감각을 삼키는 심연과 같다는 것을 입으로 만이 아니라 실제로 고백했을 때, 그분이 우리 역량에 알맞다고 아시는 만큼 그것을 느끼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그치지 맙시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을 거룩한 성경에서 찾읍시다. CO

CO 241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관심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교황주의자들처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 하나님의 비밀을 캐물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캐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길을 지키기를, 곧 거룩한 성경에 담긴 것을 온전히 겸손하게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학교에서 우리에게 밝히시는 것을 배웠으면 거기에 머뭅시다. 그리고 반대되는 어떤 공상이 떠올라서 우리 정신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이상을 구하려고 들썩일 때, 이렇게 말하는 분별과 절제를 갖도록 조심합시다. "불쌍한 피조물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경에서 네게 주시는 가르침보다 더 넓은 가르침을 가지겠다고 주제넘게 나서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이 말을 잘 따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무모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그런 절제 안에 머뭅시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놀랍고 끝없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놀랍다, 또는 은밀하다(그 낱말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49. 엡 1:4.

고 부르는 것은 우리를 그것을 경배하도록 이끌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일들에서 그런 위대하심을 알아서 놀라고 그것에서 멀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런 경외로 이끌어서 우리가 "주님, 주님의 권능이 어떠합니까! 주님, 주님의 능력이 어떠합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정의와 지혜가 어떠합니까!" 하고 그분을 경배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일들의 무한한 위대하심을 잘 알면서도 "주님, 주님의 일들은 지혜와 정의로 가득합니다"(시 104:24) 하고 말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 잘 알면서도 그것을 경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들에서 그런 위대하심을 깨닫되, 짐승처럼 얼이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좋은 교훈의 가르침을 얻지 못하는 식으로 깨닫지 맙시다. 오히려 그 위대하심이 우리를 억제하여, 우리 정신이 너무 변덕스럽지 않게 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종을 부려 "나는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하고 말하는 고삐 풀린 말이 되지 않게 합시다. 아닙니다,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려 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참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겸손과 절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도 압시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작은 분량대로 거기 담긴 무한한 지혜와 정의와 능력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CO 242 이유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시다.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들에서 언제나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유를 눈앞에 드러내 두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 그 지혜는 너무 깊어서 심연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언제나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경배하기를 배웁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은 놀랍습니다.

특히 그는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로써 사람들은 더욱 잘 낮아집니

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면, 아, 아무것도 우리에게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너무 유능해서 누가 내놓는 모든 질문이 곧바로 풀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하나나 둘이나 셋이나백 개를 잘 판단할 수 있다고 해 봅시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밝혔듯이 하나님의 가장 작은 일조차 우리를 짓누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이 없는 이 심연에 이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 일반적으로(서문처럼) 하는 말을 잘 따져 보아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우리가 늘 하던 것보다 더 잘 생각하게 되고, 그분의 위엄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영예를 드리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루었듯이 엘리바스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한 뒤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시고 물이 거리마다 흘러넘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말처럼 보입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정당하게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그분 뜻대로 그들을 다루신다면 그분께 대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만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결국 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비를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엉뚱한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을 다스리시며 지키시는 공통된 질서에 대해 우리에게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 쓰임에 적용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생각하고 돌아다닌 뒤에는 우리 자신 속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각을 가다듬어 이 모든 교훈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실천, 곧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하는 데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엘리바스가 한 가지 예로 모든 것을 포괄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하늘과 땅에 그것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만한

솜씨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 또 우리는 그분이 CO 243 모든 것을 어떻게 배치하시고 이끄시는지, 비와 바람을 주시고 그분 기뻐하실 때 그 반대를 보내시는 것을 본다." 엘리바스의 이 말에 대해서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피조물을 배치하신다는 영예와 주권을 그분께 돌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보아야 한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곧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을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인으로 알아보도록 배우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경이 겨냥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점에서 실패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비가 오든 날씨가 좋든 우리는 눈을 감습니다. 물론 비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 비가 오면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신다는 것을 알아보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정신이 너무 땅에 붙어 있어서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또 날씨가 좋아서 해를 보고 그 빛을 누릴 때에도, 우리를 비추시려고 그런 등불을 밝히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않고, 그것은 크고 너무 짐승 같은 악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 떠오르신다고 해 보아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찬양을"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알맞은 날씨를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자신을 보이시려고 이 날씨를 주신다" 하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응답하고 그분의 참된 자녀가 되어야 하며, 또 "보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조물에게 순종을 받으신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서 어떤 순종을 받으시는가?" 하고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무튼 자연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로 이끌려야 하고, 동시에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그분께 자신을 드리고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도록 우리를 바쳐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엘리바스가 여기서 보여

주는 이 교훈, 곧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시고 물이 거리마다 흘러넘치게 하신다는 교훈을 실천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경도 이렇게 그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다루었듯이, 성령께서 CO

CO 244 어떤 목적과 의도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묘사하시는지 아는 것이 좋은 분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하기를 배우고, 우리가 그분께 어떤 권위를 돌려야 하며 그분이 우리 위에 어떤 주권을 가지고 계신지 알아야 하며, 거기서 그분의 정의로 나아가 그 아래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이것을 욥에게 적용하는 점에서 착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교훈은 좋고 성령에게서 온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죽을 인간에게서 온 것처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하신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일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에서 때와 곳에 맞게 유익을 얻을 줄 아는 분별과 지혜를 갖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욥에게 잘못 돌린 엘리바스처럼 되지 말고, 일반적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참되다고 고백했을 때 각자 마땅히 그것으로 가르침을 받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간추려 봅니다. 곧 우리는 우리 삶이 매여 있는 모든 고난을 우리 죄의 탓으로 돌려야 하고, 우리가 바라는 만큼 형통하지 못할 때 하늘도 땅도 다른 피조물도 고발하지 말며, 각자 자기를 정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붙이는 재료인 땔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악에 빠져 있으니 그토록 많은 비참과 가난에 매여 있다고 해서 놀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그 근원을 바라봅시다. 곧 우리 죄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견디는 모든 고난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던 것처럼 더 이상 그분을 거슬러 변론하지 말고, 오히려 유죄를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의롭다는 것을 알아서, 온전히 겸손하게 마땅히 그분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하기를 배우도록 조심합시다. 나머지를 더 자세히 풀이하기까지 이 구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20편

욥기 5장 설교 3

CO 33:245–258

> 그분은 멸시받는 자들을 높이 올리시고, 마음이 괴로운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네. 그분은 간사한 자들의 생각을 헛되게 하셔서 그들의 손이 꾀한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네. 그분은 지혜로운 자들을 그들의 꾀에 걸려들게 하시니, 교활한 자들의 계획이 흩어지네. 그래서 그들은 대낮에도 어둠 속을 걷고, 한낮에도 밤처럼 더듬거리네. 그분은 괴로움을 당하는 자를 칼에서, 입에서, 더 강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시네. 그러므로 괴로움을 당하는 자에게는 남은 소망이 있고, 불의는 입을 다물게 될 것이네. (욥 5:11–16)

CO 245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멸시받는 자들을 높이 올리신다는, 참으로 기억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교만한 자들에게 짓밟혀 그들이 우리를 완전히 삼켜 버릴 것처럼 보일 때 그분께 달려가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음이 괴로운 자를 구원으로 끌어내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이 있어서 극심한 번민에 빠져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부르기를 배웁시다. 그분은 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그분의 직무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결코 고난을 당하지 않을 만큼 형통을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본성에 있는 교만을 봅니다. 그것이 어디서나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그 씨는 거기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셔야 합니다. 그 방법은 그분이 우리를 길들이시려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역경을 겪으면서도 그 때문에

조금도 자신을 낮추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고집 센 짐승이 순종하느니 차라리 매를 맞고 배가 터지기를 참듯이, 끝까지 완고한 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길들이기를 기뻐하실 때에는,[50] 그분이 그들에게 보내시는 고난을 효력 있게 하셔서, 그것이 그들에게 약처럼 쓰여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벗어날 수 없었을 그 교만과 주제넘음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이렇게 단련하시고, 심지어 그들이 세상의 눈에 멸시받고,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으며, 그들에게 아무 권위도 신용도 없고, 간단히 말해 그분이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도록 허락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학교에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왜 그들에게 그토록 많은 고난을 보내셔서, 그들이 어느 쪽으로 돌아서야 할지 CO 246 모른 채 탄식하고 신음하게 하십니까? 그들이 그분을 부르고 그분께 피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 자신을 알아서 아무것도 자신하지 않고 교만과 오만으로 부풀지 않도록 배우고, 또 우리 욕망 속에서 지나치게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도록 배우며, 마침내 하나님을 부르도록 배운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편안히 지내는 동안에는, 하나님 없이 지낼 수 있다고 감히 말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부르거나 자기를 그분께 맡기는 데 관심이 없을 만큼 둔해졌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도록, 그렇습니다, 마음이 번민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이 우리에게 그토록 유익하니 그것을 잘 붙들고, 무엇보다도 필요할 때 그것을 실천하도록 조심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우리가 망할 것처럼 보일 때, 이렇게 짓눌린 사람들을 높이 올리

50. CCEL 디지털본에는 damier로 되어 있으나, 1563년 초판 103쪽의 domter(길들이다)를 잘못읽은 것이므로 그에 따라 옮겼습니다.

시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직무라고 여기서 선언하니,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분은 그분의 본성을 잊지 않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이 처음부터 그러하셨던 그대로 자신을 보이시리라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또 그래서 그분은 어떤 위엄과 명예에 오른 자들을 낮추십니다. 사람들은 그런 뒤바뀜을 볼 때 그것이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생각할 것이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공처럼 가지고 노신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높은 자리에 있던 자들의 배은망덕 때문입니다. 그들은 좋은 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보지 못하고, 또 자기 위대함에 너무 취해서 하나님께 대들고 여러 가지로 지나치니,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을 꺾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에 높이셨던 자들을 낮추시는 원인이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절제 안에 머물 수 없었고, 자기의 위엄이 무엇이며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영예가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었으며, 자기를 잊고 한없이 자기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시고 그들의 교만을 비웃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높은 자리에 오른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염려 가운데 걷도록 생각해야 합니다. 또 CO 247 작고 멸시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했듯이, 번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충분히 위로받을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나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참으로 마음이 슬픈 사람들, 곧 너무 꺾여서 하나님께 달려가고 그분에게서 덜어짐만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 교훈의 효력을 느낄 것입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멸시받을 만한 자들을 어떻게 높이 올리시는지 경험으로 느낍니다. 본성상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하실 때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찾으십니까? 우리는 온갖 오물과 감염에 잠겨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지옥의 심연에서 끌어내셔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 아무튼 본성상 우리는 저주받았고, 죽음의 형상밖에 가져오지 않으며, 우리 안에는 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에스겔서에서 말하듯이(겔 16:4) 우리는 어머니 태에서 나온 아이와 같습니다. 그것도 부패로 가득한 어머니에게서 나와서, 그를 휩싼 비참과 함께 오물이 있는 아이와 같습니다. 예언자는 거기서 궤양과 온갖 더러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기실 때까지 우리 처지는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이미 자기 안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부르시면서, 그렇습니다, 죽음의 심연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그토록 악취 나는 우리 오물에서 우리를 씻기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높이 올리셨는지 알았으니, 앞으로도 같은 것을 바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특히 우리가 더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분께 우리를 도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뻐하시도록 우리 간구를 드립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들을 도우시려고 그들을 보십니다.

이어서 그분이 간사한 자들의 계획을 흩으셔서 그들의 손이 그들의 모든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 또 하나의 위로가 있습니다. 사방에서 원수들의 공격을 받더라도 이 세상에서 참을 수 있으려면 우리는 이것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아끼셔서 공공연한 전쟁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박해할 수단이 없거나, 다른 데서 방해를 받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광기에 재갈을 물리셔서, 아무튼 우리에게 언제나 공공연한 전쟁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언제나 많은 위험 속에 있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단순함 가운데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CO 248 그들이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그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들은 술수와 간계와 악한 술책으로 자신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이리들 가운데 있다면 어린양과 양이 되어야 하고, 여우들 가운데 있다면 비둘기처럼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는 그 단순함을 지녀야 합니다.[51]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악의로 가득 차서, 정직한 사람을 찾으면 흔히 말하듯 아주 드문드문 뿌려진 씨처럼 드물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계획을 흩으시려고 일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백 번씩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우리가 잘 유익을 얻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우리를 거슬러 꾸미고 획책할 일들을 흩으시려고 하늘에서 깨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노리고, 엿보며, 우리를 기습하고 꾀려고만 하는 것을 볼 때, 말하자면 우리도 똑같이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교활한 여우를 상대하고 있으니 잘 지켜야 한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흔히 말하듯 "꾀에는 꾀 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악의에 이렇게 공격받을 때 우리는 악으로 기울고, 속담에 이르듯 마귀 하나를 둘로 만드는 데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게 붙들고 단순함과 한결같음 가운데 걷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이시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꾸미는 모든 악의를 그분이 잘 대비하시리라는 것을 아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한에서, 곧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정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떻든 우리는 아무 속임수도 쓰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꾸미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자기 간계로 우리를 덫에 걸린 듯 잡으리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모든 계획을 흩으실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찾으시리라는 것을 압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아시는 대로 그것을 대비하실 것입니다. 또

51. 마 10:16.

여기서 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 속는다 하더라도, 그들을 꾀려고만 하는 자들의 그물과 간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분의 보호 아래 두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번번이 속을 것이고, 그것도 작은 일에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에서까지 속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에 대해 그런 증명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그것으로 더욱 굳건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각자 자기를 돌아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 CO 249 악의밖에 없고, 더 이상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며, 어느 쪽으로 돌아서도 속을 위험이 있고, 친척에게도 친구에게도 믿음과 신의가 없다고 말할 줄 압니다. 우리는 그런 혼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그런 불평을 하니, 우리가 속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인지 살펴봅시다. 우리는 번번이 속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각자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보존되는지 알고, 그분이 간사한 자들의 생각을 사라지게 하셔서 그들이 자기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직무라고 선언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모든 것을 실행할 힘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분은 그들의 모든 계략을 앞질러 막으시고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그가 이어서 말하듯이 그분은 지혜로운 자들을 그들의 꾀에 걸려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예리하고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그들을빈털터리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그분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악인들에게 고삐를 풀어 주셔서 그들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결코 그들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때에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방종을 허락하셨을 때에도, 결국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일들이 흘러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진행해야 한다” 하고 모든 술책을 짜 놓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자기 계획을 이룰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결론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웃으시고, 모든 것이 그들이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되어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간추려 하는 말을 잘 주목합시다. 곧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많은 예리함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온 교회를 망하게 할 것처럼 보이거나, 그들이 한두 사람이나 세 사람을 짓누르려 할 때 어떤 식으로도 맞설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달려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여기 우리 원수들이 많은 술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술수와 간계로 그들과 싸워야 한다면 우리는 훨씬 못하고,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 남은 일은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공중으로 날려 보내셔서, 그들이 그것을 실행할 힘을 손에 갖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따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손을 묶어 두실 수 있습니다. CO 250 그분이 그들에게 마음속으로 궁리하고 이것저것을 꾀하도록 허락하신 뒤에, 그들이 그렇게 멀리 날아다니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그들이 의논한 것을 끝내야 할 때가 되면 그들은 방해를 받고 그들의 손은 묶일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대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계획과 판단을, 그렇습니다, 모든 힘과 능력을 잃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그들의 꾀에

걸려들게 하시고 간사한 자들의 계획이 부서지게 하신다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대낮에도 어둠 속에서처럼 비틀거리고 한낮에도 밤처럼 더듬거릴 만큼 그렇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마음에 품은 것을 행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리라고 밝힐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술수에 걸려들게 하시고 그들의 계획을 뒤엎으셔서 그들이 짐승처럼 되어 어린아이만큼도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그들의 꾀가 완전히 우스꽝스러워진다고 덧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주목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들이 지혜를 갖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우리 편에서는 별 계책이 없어서 우리를 짓누르는 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려 하신다면서두르실 것이고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으실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체하시면 우리는 넋이 나가고 겁에 질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우리를 거슬러 이렇게 음모를 꾸밀 때 그들에게 맞서지 않으시고 그들이 궁리하도록 허락하시더라도 우리가 참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꾀한 일을 이루리라고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그분이 때맞추어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거기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흔드는 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시고 앞질러 서둘러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교활하고 간사한 우리 원수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단련되어 있어서 세상의 모든 술수가 그들의 머리를 거쳐 간 것처럼 생각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간계를 경험해 본 것을 볼 때 두려워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둔하게 하셔서 짐승처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할 나위 없이 유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흔히 말하듯 운율도 이치도 없는 것들을 의논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예언자들을 통해 밝히시듯 술 한 방울 마시지 않은 사람들을 비틀거리게 하는 술 취함의 영을 보내실 줄 아십니다.[52] 마찬가지로 CO 251 불쌍한 무식한 사람들에게 분별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듯, 반대로 그분은 멀리까지 본다고 생각하는 정신들을 눈멀게 하셔서 그들이 대낮에도 불쌍한 눈먼 사람처럼 더듬거리기만 하게 하실 줄 아십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여기서 보여 주려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은 아주 멀리까지 미칩니다. 우리는 원수들이 우리를 거슬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꾸미는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계획을 헛되게 하시리라고 확신하므로 그들을 비웃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두 구절에서(사 8:9–10)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봅니다. "가서 의논하라.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모든 것을 흩으실 것이다. 가서 크게 의논하고 모여라. 그러나 모든 것이 뒤엎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분의 회의를 여시고 너희의 모든 악의와 술수가 뒤엎어지게 하실 것이니, 너희는 그분을 거슬러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또 예루살렘 성을 거슬러 큰 군대가 일어난 것을 보십시오. 불쌍한 히스기야 왕은 극한에 이르렀고, 자기가 적수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원수에게 맞설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는 평화를 사려 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놓으며,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당하고 예루살렘 성에 동전 한 닢어치도 남지 않으며 자기 궁전에 아무 재물도 남지 않는 것을 감수합니다.[53] 그러니 여기 사자의 아가리에서 벗어나려고 원하는 대로 몸값을 치르기만을 구하는 불쌍한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모두 패망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예언자를 보내시고, 예언자는 원수들을 비웃습니다. "자, 너희 회의를 모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꾸며 보라. 그래도 너희는

52. 사 29:9–10.
53. 왕하 18:13–16.

너희 모든 계획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교회를 지키시려고 너희의 모든 술책에 맞서시기 때문이다. "[54]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교훈을 실천하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출구가 있을지 모르고, 심지어 우리가 이미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들을 잘 찾아내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달려갑시다. 특히 간사한 자들이 복음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점에서 특별히 그분의 능력을 펼치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오늘날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간계로 충분히 가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가게에 그것을 잘 갖추어 둔 그들의 주인, 곧 마귀가 있습니다. 교황과 그의 모든 무리에게 큰 예리함이 없다 하더라도 마귀가 그들에게 충분히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악한 술책이 CO 252 그들 편에 있는 것을 봅니다. 가장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진리의 교훈을 비방하며, 우리를 온 세상에 미움받게 하려고 거기 고용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그들은 우리가 망하도록 사방으로 거래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앞을 지나갈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참으며 기다리는 것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머리가 크게 궁리하고 온 땅을 돌아다니며 구름까지 넘어섰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묶어 두셔서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게 하시리라는 것을 알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자기가 아주 예리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을 너무 우둔하게 하셔서 어린아이들도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을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보듯이 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진리가 이 위선적인 수도사들과 교황의 모든 앞잡이들에게 어떻게 공격받는지 보면, 그들이 너무나 우둔해서 사람들이 그런 우둔함에 이를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을

54. 사 37장 참조.

정도입니다. 또 가장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보면, 그들이 우리와 짜고 우리가 그들에게 삯을 주어 그들의 주인인 적그리스도를 비웃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그의 비위를 맞추려 하는 데 오히려 그를 더욱 깎아내립니다. 실제로 그들의 책을 읽으면 그들이 우리 편에서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저 자신이 그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디서 비롯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는 말을 그들에게서 이루신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저는 그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것을 헛되이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 주시니, 그분께 머물기를 배웁시다. 그분이 가장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모든 술책과 계략을 뒤엎으실 수 있고, 그들이 어둠 속의 눈먼 사람처럼 대낮에 더듬거리게 하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특히 그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그들의 꾀에 걸려들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지혜' 라는 이 말을 쓸 때, 그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그들에게 인정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좋고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그 근원이요 샘이신 성령에게서 나오지 않고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거룩한 성경도 그것을 보여 주고, 우리가 너무 배은망덕하지 않다면 우리도 그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그토록 훌륭한 것이니 정죄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 악인들과 하나님의 원수들에게서 보는 정신과 술수는 모두 지혜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자랑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여겨지므로 엘리바스는 CO 253 이 말을 씁니다. 그것은 아주 흔한 말이기도 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무슨 뜻입니까? 요컨대 마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지혜롭다고 여겨지려면 그에게 아무 신의도 정직도 없어야 하고, 온 세상을 비웃을 수 있어야 하며, 앞서 나갈 수 있어야 하고, 속이고 꾈 그럴듯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 보십시

오, 지혜로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거기에는 위선과 거짓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단순함과 정직 가운데 걸으려 하고 아무에게도 잘못을 하려 하지 않으면, 아, 사람들은 그를 바보, 무식한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에게 충분한 지혜가 있고 악인들조차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저 사람은 앞서 나가려 하면 충분히 지혜로운데, 너무 무관심해서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거기 웅크리고만 있으려 한다" 하고 말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와 약탈에 자신을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지혜라는 말을 입에 담고 그것을 더럽히므로(그것은 거룩한 것인데 사람들이 그릇되게 남용합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이 교활한 자들이 그들 스스로 부르는 대로, 또 사람들이 여기는 대로 지혜롭다고 해 보자. 그들이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그들에게 이 칭호를 인정해 준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들의 악의에 걸려들게 하실 줄 아신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악인들이 뽐내는 이 지혜가 그런 영예로운 칭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것은 술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웃에게 어떤 악을 꾸미고 간계로 그들을 꾀려고만 하는 모든 자들을 거슬러 정식 상대편으로 나서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겸손의 권고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슬러나서시고 그분이 그들의 맞상대라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을 볼 때, 묻겠습니다, 우리가 간계와 술수를 쓰고 싶은 유혹을 받고 그것을 해낼 만한 머리가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흔히 말하듯 우리가 속이고 코를 꿰어 끌고 다닐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을 우리 앞에 두시는 일이 자주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계기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보니 우리는 잘 자제해야

합니다. “너희가 사기와 간계를 쓴다면 너희는 죽을 인간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불쌍한 사람을 꾀는 것이 너희에게 아주 쉬우리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덤비는 것이다. 내가 앞을 막아서서, 간사한 자들이 이렇게 꾸민 모든 악한 CO 254 술책을 꺾고 뒤엎는 것이 나의 직무라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 좋을 대로 너희 지혜를 자랑하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너희를 비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 너희가 나를 거슬러꾀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술수와 모든 속임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 말고는 아무 지혜도 없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또 특히 하나님 앞에서 걸어야 할 때 모든 거짓을 벗고 깨끗해지도록 조심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간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이려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거나 그런 언어를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그들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 29:15). “자기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땅속에 굴을 파는 너희에게 화가 있다.” 누구에게서 숨긴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에게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너무나 흔합니다. 온 세상에서 무엇을 봅니까?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의 손에서 벗어날 만큼 충분히 교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들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흥겨워하고, 다가올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일 뿐이라고 믿어 버립니다. 그들은 우리가 거기에 힘을 쏟는 것, 곧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두려워하라고 백성에게 권하는 것을 보면 비웃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헛되이 괴로워하는구나. 우리는 잔치하기를 그치지 말자.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면, 좋다, 기한이 곧 돈이다. “[55] 이것이 사람들이 듣게 될 마귀 같은 모독입니다. 그것이 입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그것으로

55. 지불 기일을 늦추는 것 자체가 돈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프랑스 속담으로, 여기서는 심판을 미루며 당장 즐기려는 사람들의 말로 인용됩니다.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오늘날 불경건이 너무나 우둔하고 미쳐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들 작정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는 그런 단순함 가운데 걷기를 배워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그분의 두려운 능력을 실행하시려고, 곧 우리가 망하고 우리의 모든 간계에 걸려들게 하시려고 손을 드시지 않을 수 없게 되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칼에서, 더 강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시며, 괴로움을 당하는 자에게 남은 소망이 있고 불의는 입을 다물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위로를 위해 덧붙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처지가 많은 괴로움에 시달리고, 번민과 해코지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 말고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는 싸움 속에 있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아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CO CO 255 연약하다는 것을 보시고, 그분이 사탄과 그의 앞잡이들에게 고삐를 풀어 주신다면 우리가 단번에 삼켜지리라는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날개 아래 숨기듯 거기 두십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그분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귀찮게 하며, 우리에게 많은 근심을 주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재촉받게 하시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탄에게 기습당하지 않도록 경계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원인은 이 무관심뿐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아서 그분을 부르도록 재촉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해야 합니다. 실제로 '가난한 자', '괴로움을 당하는 자'를 뜻하는 낱말은 '겸손한 자'도 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이 사람들을 절제로 이끄는 참된 스승이어서, 그들이 자기 안에서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고, 그렇게 무모하게 나서는 대담함과 영적인 술 취함이 없으

며, 하나님께서 매 순간 그들을 도우시지 않으면 그들이 망하리라는 것을 알고 자기 분량대로 걸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에 둘러싸여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아주 적게볼 것입니다. 부자들은 흔히 오만으로 부풀어 있고, 그들의 허세와 쾌락에 너무 눈이 부셔서 그들을 낮추기가 몹시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가장 가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처럼 부자와 높은 사람들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재갈을 물리셔서, 그들이 가난해질 만한 고난을 당하게 하실 때, 말하자면 그들의 재물 한가운데서 가난하게 하셔서 그들이 자기 처지가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으며 온전히 그분께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두시는 곳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칼에서 끌어내시고, 더 강한 자의 아가리와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합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믿는 사람들이 통상적인 수단으로 지켜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원수들에게 공격받을 때 앙갚음할군대를 다 준비해 두거나, 큰 군수품을 갖추거나, 많은 동맹을 맺는 등의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할 것입니다. 또는 그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의 원수들이 더 강하고 더 힘이 있어서 그들이 그런 방법으로는 맞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으로 지켜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삼키려고만 하는 우리보다 강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는다면, CO 256 그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보호 아래 그분의 날개 아래 숨겨져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악인들이 위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대로 우리에게 그들의 광기를 실행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분명한 거울로 봅니다. 우리 형편이 어떠합니까? 그분의 교회를 거슬러 미쳐 날뛰는 하나님의 원수들은 흔히 말하듯 소금 한 알로 우리를 먹어 치울 것처럼 보입니다. 힘을 비교해 보면, 아, 우리 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작은 양 떼와 같고, 그들은 이리 떼일 뿐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 내장을 먹어 치우기만을 바라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그저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지옥 같은 잔인함이 있는 것을 사람들은 잘 봅니다. 그러므로 말하자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완전히 삼키기만을 바라는 자들의 힘이 그러한데도 우리가 남아 있다면, 우리가 단 하루만 살아 있다 하더라도, 그 점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직무, 곧 괴로움을 당하는 자를 더 강한 자의 아가리와 손에서 건지시는 직무를 실행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더욱 굳건해져야 합니다. 그분이 시작하셨으니 완성하실 것이고, 그분의 불쌍한 교회가 위협을 받고 사람들이 그것을 거슬러 음모를 꾸며 그것이 이미 반쯤 짓눌린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줄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은 그분의 일을 잊지 않으셨으며, 그 방법들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그분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참으며 그분을 기다립시다.

이제 결론으로 그는 괴로움을 당하는 자에게 남은 소망이 있고 불의는 입을 다물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이 무슨 목적으로 밝혀졌는지 보여 줍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잘 단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어서, 평생 이 교훈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것을 반만 배웠을 때,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패하지 않으려 하신다는 것을 잘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많이 진보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진다면 그것은 우리 평생에 큰일을 한 것입니다. 특히 '남은 것에 대한 소망' 이라고 합니다.[56]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CO 257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을 진정으로 보여 주려 할 때, 세상의 눈으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아무 조짐이 없어야 하고, 죽음이 사방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가 거기 어둠 속에 있으며, 우리를 기쁘게 할 빛의 불꽃 하나 없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하고 주시는 말씀밖에 없고, 그러는 동안 그분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고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들을 편드시고 우리를 칠 막대기를 그들 손에 쥐여 주시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대적하시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말하자면 그 모든 것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언제나 그분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는 자에게 남은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극한에 이르러 더 이상 어느 쪽으로 돌아서야 할지 모르고 빠져나갈 길이 없을 때에도,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와 구원자로 자신을 보이시고 결코 그들에게 실패하지 않으시리라고 소망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자에게 남은 소망이 있으리라는 이 약속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렇다. 그러면 그들은 죽음을 눈앞에 보더라도 그들을 위해 마련된 생명을 바라보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교훈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원수들이 단번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셔서 그들이 이를 갈아도 부끄러움을 당한 채로 남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56. 롬 4:18 참조.

불의가 입을 다물게 되리라는 것, 곧 간사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맞서 아무 말대꾸도 할 줄 모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입을 열고 있어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도 말대꾸할 거리가 없으면서 모독하고 이를 갈기를 그치지 않는 악인들을 닮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말하는 시편 107편의 결론을 이루는 말입니다.[57]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주민들을 그들의 죄 때문에 벌하셔서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나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바다와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을 때, 그분이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면 선한 사람들은 그분을 영화롭게 할 거리를 갖게 되고, 그러는 동안 불의는 입을 다문다고 말합니다. 곧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그분께 조롱을 던지기만을 바라더라도, 그들은 거기 갇혀서 아무 할 말도 모르고 부끄러움을 당한 채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들을 때 이 땅의 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 압시다. 그리고 그분의 심판이 이렇게 뚜렷이 드러나는 것을 볼 때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배우고, 그러는 동안 우리의 모든 역경 가운데 그분께 달려가며, 그분이 우리를 도우셨을 때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립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57. 시 107:42.

제21편

욥기 5장 설교 4

CO 33:258–270

> 보게,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네. 그러니 자네는 전능자의 징계를 거절하지 말게. 그분은 상처를 내시고 싸매시며, 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네. (욥 5:17–18)

CO 258 앞에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지 밝혔습니다. 그가 덧붙이는 교훈을 우리가 더 잘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만큼 가르침을 잘 받지 않는 원인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이 어떠한지 알지 못해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알고, 그분의 무한한 정의와 능력과 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셔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입을 다물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그분께 충성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이 그럴 만한 계기를 주시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으로 충분하며, 우리는 기꺼이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밝힌 것을 붙듭시다. 곧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앞에 내놓을 때 그것은웃거나 장난할 일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떨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우리는 전능자의 교정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누가 CO 259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재판관이 되셔서 그들에게 큰 엄격함과 가혹함을 쓰셔도 그들에게 잘못하

시는 것이 아니라고 내놓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충분히 움직여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교훈에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얼이 빠질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얼마간의 부드러움이 섞여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구원에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는 우리가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준비시키려고 하나님의 심판을 일반적으로 밝힌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든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분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결코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을 느끼게 하지 않을 만큼 엄격하게 대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고,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처럼 겁에 질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위엄이 우리에게 그렇게 무섭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분께로 끌어당기셔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실 때뿐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그렇습니다. 요컨대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거룩한 성경이 말하는 것, 곧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견디는 모든 비참과 재난이 죄에서, 따라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나온다는 것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복이 있다는 것과, 그분 손에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이 모두 그분 진노의 표시이고 우리가 그분을 거슬렀으며 그분이 우리를 저주하신다는 표시라는 것이 어떻게 맞겠습니까?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면 어디서 오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면 우리 삶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데에는 아무 행복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징계하실 때의 의도와 목적을 바라본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잘 나타내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답게 대하지 않으실 때,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질서가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 삶의 모든 역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주의 어떤 표시를 보여 주어, 거기서 우리가 죄가 그분을 불쾌하게 하고, 그분이 그것을 미워하고 혐오하시며, 모든 의의 샘이시므로 그것을 참으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품으신 미움을 이렇게 우리에게 밝히신 뒤에, 그분이 우리를 끌어당기시고 권하시며 회개로 초대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것은 그분이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도록 재촉하신다는 표시입니다. CO 260 교정은 모두, 우리가 우리 잘못을 알고 거짓 없이 그분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받아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다룬 이 두 가지 점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자마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눈앞에 떠올라야 하고, 그분이 죄를 참으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 위에서 그분 심판의 엄격함을 느끼고 그분을 거스른 것에 대한 슬픔을 우리 안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작해야 할 끝입니다. 또 그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끌어오지 않고 멸망으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마다 우리를 돌이키려 하신다는 그분의 선하심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려는 사람들을 징계하시지만, 버림받은 자들도 마찬가지로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정죄로 돌아갑니다. 바로가 느낀 그 모든 매가 그에게 무슨 유익을

주었습니까?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하고 고칠 수 없는 자로 남았으므로 그를 더욱 핑계할 수 없게 만들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다 괴롭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으로 보듯이 고난이 버림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더 자극하는 불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복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엘리바스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시는 사람들만을 말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이어지는 말, 곧 하나님께서 그분이 낸 상처를 싸매시고, 붕대를 감으시며, 고약을 붙이시고, 병을 고치신다는 말로 밝히는 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엘리바스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징계를 참된 교정으로 돌리시는 사람들에게로 한정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확실하고 분명한 결론을 얻도록 더 자세히 풀이하지 않으면 조금 모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봅시다. 우리가 말했듯이, 그분이 모든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들을 회개로 권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분이 그들을 깨우시며 "너희 잘못을 알고 그것을 계속하지 마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길 준비가 되어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런 징계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또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그분께 돌아오는 은혜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치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분이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 속을 건드리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CO 261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굳은 것을 부드럽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바로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루와 같습니다. 모루를 쳐도 그 본성이 바뀌지 않고, 우리가 보다시피 모루는 타격을 튕겨 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깊이 건드리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분께 대들고 더욱더 독이 오르기만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징계

하시면 우리는 이를 갈고 노발대발하기만 할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불의는 너무 악하고 너무 완고하며 너무 절망적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수록 그들은 더 많이 모독을 토해 내고, 자기가 완전히 고칠 수 없는 자들이며 그들을 이치로 이끌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건드리시기 전까지는 그분의 징계가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데 쓰일 수 없고, 오히려 우리를 더 나빠지게 하리라는 것을 배웁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점에서 의롭지 않으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유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벌하시며 그들을 이렇게 몰아넣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몰랐다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얼이 빠져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잘못을 깨닫도록 재촉하지 않으셨다고 내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느꼈고, 이를 갈면서도 그분의 심판을 깨달았으며, 소환을 받은 것과 같았는데도, 악에서 더 나쁜 데로 나아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슬러 노골적인 반역으로 부풀어 올랐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요컨대 그들이 입을 다물게 되었고 자기들을 위해 더 이상 말대꾸할 거리가 없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벌하실 때마다, 그것이 그들을 고치는 교정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그분은 그분의 정의를 보여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들을 징계하실 때, 그것은 마치 그분이 이미 그들에게 그분의 진노를 드러내기 시작하시고 불이 붙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지금 완전히 타 버리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마지막 날 그들을 위해 마련된 그 끔찍한 보복의 표시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건드림을 받지만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자기 지옥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보내셔도 자기 악한 삶을 바꾸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서 우리는 그 본보기를 봅니다. 그들은 더 견딜 수 없을 때 구석에 몰린 개처럼 거기

있으면서도 언제나 광기를 보이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또는 시편 32 편에서 (9절) 비유하듯 고집 센 말과 같거나, 완전히 둔해서 자기 고난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예언자가 말하듯 CO 262 치시는 손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58] 그들은 "아이고" 하고 소리치고 매를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을 찾아오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학교에서 진보하지 않고 그분의 매에서 유익을 얻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그만큼 더 불행하다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건드리시면서 징계하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손을 느끼게 하셔서 우리를 그 아래 낮추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특별한 좋은 것을 베푸시는 것이며, 그것이 그분이 그분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라는 것을 압시다. 곧 우리가 그분이 보내시는 교정을 느끼고, 그 밖에도 그것으로 가르침을 받아 우리 잘못을 싫어하고, 그분 앞에서 신음하며, 그분의 긍휼에 달려갈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매를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은 그분이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셨다는 표시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정신에서 자라난다고 하기에는 너무 높은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값없는 선하심에서 우리에게 나와야 하고, 성령께서 먼저 우리가 본성상 기울어 있는 그 굳은 것과 저주받은 완고함을 부드럽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곧 그분의 손을 거슬러 고집부리지 않고 그분의 성령으로 굴복하고 길들여져서 그분이 보내시는 고난에 대들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을 압시다. 그런데 아무튼 이 말씀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상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거스르는 모든 고난을 '역경' 이라고 부릅니다. 배고픔이나 목마름이나 추위나 더위를 견딜 때 우리는 그것이 모두 나쁜 것이라고

58. 사 9:13.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욕구와 바람을 이루고 싶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고난을 역경, 곧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 말투가 전혀 이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목적, 곧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추어올리다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그분 앞에 소환하실 때 그분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우리 재판관으로 느껴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참된 회개로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팔을 벌리시고 우리와 화해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역경을 피하더라도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자기에게로 거두실 때 그들에게 쓰시는 선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CO 263 바라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이 교훈에 동의하여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죄를 씻으려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실 때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여기 온갖 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를테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예로 들어 봅시다. 좋습니다, 그는 평안히 지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하려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굳어지고 마귀가 그를 점점 더 휩쓸어 가는 것을 볼 것이고, 차라리 그가 그 전에 징계를 받았더라면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불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불의 속에 썩도록 내버려 두실 때입니다. 결국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썩어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찔림을 받지 않고도 기꺼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누가 그들의 잘못을 일깨우거나 책망하지 않아도 그분께 붙어 있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바랄 만한 일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매우 바랄 만한 일이고, 더욱이 우리에게 아무

잘못이 없어서 우리가 천사들처럼 우리 창조주께 충성을 드리고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영화롭게 하고 사랑하기만을 구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비뚤어져서 하나님을 거스르기를 그치지 않고, 위선자여서 우리 잘못을 덮기만을 바라며, 우리 안에 너무 큰 교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욕구 가운데 우리를 참아 주시고 받아 주시기를 바라고, 결국 그분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기보다 우리가 그분의 재판관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비뚤어진 것을 보시고 우리를 그분께로 끌어당기시려고 어떤 거센 치료법을 쓰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드럽게만 다루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서도 그것을 얼마간 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그들을 교수대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험이 그것을 보여 주고, 우리에게는 흔한 속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귀여워할수록 그를 망치고, 어머니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애지중지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 그러면서 그들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훨씬 더 크게 있는 것의 작은 빛줄기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드럽게 다루신다면 우리는 망하고 절망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다루기 어려운 본성이어서 그분이 부드러움을 쓰신다면 우리가 거기서 유익을 얻을 수 없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자신을 보이시려면 엄격함을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이 교훈의 진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우리 본성이 어떠한지,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다스리기 어려운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 유익을 위한 것이며, 그분이 우리 고삐를 CO 264 짧게 쥐시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채찍질을 많이 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고 결론짓게 될 것입니

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 두 번째 은혜를 더하실 때, 곧 그분이 그분의 매와 교정을 효력 있게 하셔서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일하시므로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날 만큼 완고하지 않고, 자기 죄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참으로 길들여지고 낮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것은 하나님의 손에 바로잡히는 것이며, 모든 것을 다 셈해 보면 그분이 보내시는 교정이 우리가 먹는 빵보다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굶어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거두심으로써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그토록 자비롭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자신을 보이시는 분의 진노를 쉬지 않고 자극한다면, 그것은 너무 추한 배은망덕이 아니겠습니까? 묻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죄를 위해 우리 삶을 늘 이느니 차라리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유산했더라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질러, 병이 너무 퍼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예방약처럼 징계를 쓰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좋은 것이고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정이 우리에게 가혹하고 쓰며 우리 육신이 우리를 조급함과 절망으로 부추길 때마다, 우리 공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이 교훈,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를 기억하기를 배웁시다. 반대로 우리는 아낌을 받고 참아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선언하신 데 이유가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견뎌야 할 교정이 그 자체로 언제나 쓰고 괴롭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가 말하는 대로입니다(히 12:11).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괴로운 찔림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으실 때 우리가 아무 고통도 견디지 않는다면 우리의 순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를 싫어하기를 배우겠습니까? 참으로 길들여지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고난에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에게 선으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우리 죄를 싫어하도록 얼마간의 찔림과 괴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본성이 CO 265 온갖 악으로 기울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어떤 혹독한 벌을 쓰셔야 한다고 고백합시다. 의사들이 병이 크고 뿌리 깊을 때 때로 그들의 약에 일종의 독을 쓰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는 그것이 불쌍한 사람을 약하게 하고 그의 혈관과 힘줄을 쇠약하게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아주 부드러운 사혈을 할 때에도 그것은 사람의 기운을 그만큼 뽑아내는 것이지만, 그런 병을 고치려면 그런 거센 처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그분께 예외적인 방법이지만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징계받아 복이 있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서는 우리 구원을 이루실 수 없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를 겸손으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혹독하게 다루지 않고서는 그들의 구원자요 아버지가 되실 수 없다면, 사람들에게 놀라운 부패가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피조물에게 자비로운 분으로 자신을 보이시는 것이 그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으로서 지키고 싶으신 질서를 따르신다면, 그분은 우리 위에 그분의 선하심을 부으시기만 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배불러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분의 본성대로, 그분이 기우시는 부드러움대로 우리를 다루신다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거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곧 그분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절망적인 악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변장을 하셔야만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부끄러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것을 덧붙이지 않고는 이 교훈을 우리 쓰임에 잘 적용할 수 없으므로 둘을 함께 묶읍시다. "전능자의 교정을 거절하지 말라. 상처를 내신 분이 그것을 싸매시고 알맞은 치료를 하시며, 고난을 보내신 뒤에 고치시기 때문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정을 거절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유가 덧붙여집니다. 곧 하나님께서 거기에 좋은 결말을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한 그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권하려 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손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그분께 반역해 봐야 시간 낭비라는 것, 이를 갈면서도 그 길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필연에 맞설 수 없다는 것만 내놓으시는 것이 아님을 배웁니다. 그것은 흔히 말하듯 롬바르드인의 인내일 것입니다.[59] 우리가 그렇게 이를 갈면서, 그러는 동안 할 수 있는 데까지 CO 266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나고, 억지로만 참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참으려면 다른 방법으로 이끌려야 합니다. 곧 동시에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4절) 말하는 대로입니다. 그는 거기서 이 두 가지를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처럼 놓습니다. 곧 우리의 모든 역경 가운데 인내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분의 은혜로 기뻐하며, 그분이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 구원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이것입니다. "전능자의 교정을 거절하지 말라. 너희 상처의 의사이신 분이 그분이시고, 너희 고난의치유를 보내실 분이 그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사람들이 "우리가 달리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실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고 말하며 그분께 복종하기를 원하지

59. 이를 악물고 마지못해 견디는 태도를 가리키는 당시의 속담입니다.

않으신다고 밝히십니다. 그렇게 나아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참고 내 아래 자신을 낮추어라. 내 심판을 본보기로 삼아 그것을 거슬러 불평하지 말고 분을 품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내 손에 맞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 완전히 짓눌릴 만큼 맞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온전히 겸손하게 너희 잘못을 알아보고 내게 용서를 구하러 온다면, 너희는 너희 고난이 덜어지는 것을 느낄 것이고, 가장 큰 고난 한가운데서도 내게 감사드릴 이유를 갖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이것이 참된 인내를 가지려면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성상 하나님께 반역하여 그분이 새끼손가락으로 우리를 건드리시자마자 언짢아하는 것을 보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에게 잘못하신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거만함이 있는 것을 볼 때, 말하자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악덕이 그토록 클 때, 거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교훈,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분께로 돌이키려 하신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더욱 묵상해야 합니다.

또 여기 놓인 이 약속, 곧 하나님께서 그분이 낸 상처를 고치시리라는 약속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교정을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보이시는 그런 부드러움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분께 돌아오라는 권고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기 담긴 것을 맛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많은 조급함과 불평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독을 보는 것입니다. 교정은 어디에나 있는데, 회개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CO 267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맞서기로 공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훈을 깨닫거나 이 약속을 받아들여 "주님, 주님께

서 내신 상처를 싸매시고 고난을 고치시는 것이 주님의 직무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주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이 그토록 자주 되풀이되니 그것을 잘 붙듭시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구절에서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사흘째 되는 날 우리를 고치신다"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60]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매를 한 대 대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언자들에게서 그런 권고를 들을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한동안 너희를 괴롭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긍휼을 계속할 것이고, 그것은 영원할 것이다. 너희가 자식들에게 화가 난 아버지에게서처럼 얼마간의 진노, 얼마간의 노여움의 표시를 느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너희를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다. 다만 내가 너희에게 너희 죄의 열매를 느끼게 하고, 내가 그것을 혐오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해야 했다. 그러나 아무튼 마침내 너희는 내가 상처를 고치고 내가 보낸 고난을 낫게 하기만을 구한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처음 보기에는 이것도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하게 하신 뒤에 상처를 고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말입니다. 왜 차라리 우리를 평안과 형통 가운데 두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시는 상처가 우리에게 모두 약이라는 것을 보여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은혜는 갑절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 우리의 좋은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회개로 끌어당기시며, 우리를 우리 죄에서, 그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에서까지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있는 병을 고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숨은 병의 씨가 많다는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앞질러 대비하십니다. 그분이 칼을 빼 들고 우리를 거슬러 오시며

60. 호 6:1–2.

노여움의 표시를 보이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어떻든 그분이 의사로 자신을 밝히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좋은 것입니다. 한 조항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보여지는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분이 낸 상처를 싸매시고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인용한 바울의 말씀이 이것입니다(고전 10:13).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받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에 좋은 결말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정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심지어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재촉하셔서 CO 268 그분께 돌아오게 하셔야 하지만, 그래도 그분은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 죄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람의 손으로 징계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61] 곧 그분이 그분의 능력대로 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슬러 그분의 팔을 펼치려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분 앞에서 설 수 있는 피조물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분이 노하신 얼굴을 보이시기만 해도 온 세상이 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분이 그분의 영을 거두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4편에서(29절) 말하는 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인간적으로 다루시고, 또 그러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짓눌리고 짐 아래 구부러진 것을 보시면 손을 거두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지니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율법에서 밝히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무모하게 그분께 덤비면 그분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시편 18편에서(26절)[62] "나는 비뚤어진 자에게 비뚤어지게 대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집부리고 반역하고 미쳐

61. 삼하 7:14.

62. 원문에는 시편 18편 27절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1절로 세는 프랑스어 성경의 절수이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날뛰어 보아도, 그런 방법으로 그분을 이기리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분은 비뚤어진 자들에게 비뚤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사람들이 그토록 완고한 악의로 그분을 거스르는 것을 보시면 그분이 사나워지셔서, 그들이 완전히 짓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손에 복종하려는 온유한 마음을 지닌다면, 여기서 하는 말을 언제나 그분 안에서 발견하리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우리에게 밝히는 것을 따릅시다(벧전 5:6).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자신을 낮추라." 누구든지 머리를 숙이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그분께 충성을 드리면, 그가 넘어질 때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나는 자는 그분의 손이 자기를 대적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아래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느끼기를 원합니까? 우리 자신을 낮춥시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손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그를 삼켜 버릴 벼락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자의 교정을 거절하지 말라" 하고 말할 때 이 교훈을 잘 붙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아버지다운 사랑을 알았다면, 그것이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거칠고 혹독해 보였을 고난을 누그러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 각 사람은 이 교훈을 자기 쓰임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를" 하고 말하기는 아주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께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CO 269 교정을 참을성 있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해 줄 줄 아는 권면을 우리 자신을 위해 받아들입시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자기 안에 많은 악덕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그분이 보내시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고치실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압시다. 물론 그분이 절대적인 권능을 쓰려 하신다면 전혀

다르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지키려 하시는 방법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셔서 우리 악덕을 고치는 이 질서를 지키려 하시므로, 각자 자기를 위해 이 교훈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윗과 함께 "주님, 주님께서 나를 낮추신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합니다(시 119:67).[63] 다윗은 거기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주님, 잘못한 자들을 징계하신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스림받는 것을 참지 못하고, 대들며 언제나 고칠 수 없는 자로 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전체적으로도 개별적으로도 들려 있는 것을 보니, 이 교훈에 더욱 마음이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엄청난 일들에까지 이르렀는지 사람들은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엄격함을 보이신다고 놀랄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시면서도 우리를 많이 아끼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이 악인들을 우리만큼 벌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반역하고 고집부리며, 사람들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권고에도 결코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려 하지 않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들 눈앞에 두시는 모든 고난으로, 또 때로 그들 자신에게 느끼게 하시는 고난으로 그들을 소환하시고, 그들이 이렇게 반역하고 고집부리며 남아 있으니 궐석으로 그들을 정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그분께 우리가 그렇게 굳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분이 그분 진노의 표시를 보이시자마자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63. 원문은 시편 119:67을 참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는 문구는 시편 119:71에 있습니다.

일하셔서 우리 마음의 굳은 것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받아 주실 때 그분의 은혜에 자리를 내주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너무 둔하지 않다면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22편

욥기 5장 설교 5

CO 33:270–283

> 그분은 여섯 가지 환난에서 자네를 건지시고, 일곱 번째 환난에서도 재앙이 자네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실 것이네. 기근 때에는 죽음에서, 전쟁 때에는 칼에서 자네를 지키실 것이네. 자네는 혀의 채찍에서 숨겨질 것이고, 재앙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네. 자네는 재앙과 기근을 비웃을 것이고,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네. 들의 돌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고, 들짐승들이 자네와 화평하게 지낼 것이네. 자네는 자네 장막이 평안한 것을 알 것이고, 자네 집을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네. 자네의 자손이 많아지고 자네의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것을 알 것이네. 곡식 단이 제때에 거두어지듯이, 자네는 장수를 누리고 무덤에 이를 것이네. 보게,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았는데 사실이 그러하네. 그러니 듣고 자네 스스로 깨닫게. (욥 5:19–27)

CO 270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실 때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를 다루었습니다. 곧 그들의 상처는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그들의 고난에서 건지시고, 더 나아가 그들의 고통을 고치시는 의사가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그 고통을 알맞게 조절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짓눌리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참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컨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 고난의 결말이 언제나 행복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한 것임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거리를 갖게 하십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64] 이제 이 말을 확증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여섯 가지 위험, 또는 여섯 가지 환난에서 건지시고, CO 271 일곱 번째에도 재앙이 그들에게 닿지 않게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비참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시리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고난에서 벗어나면 또 다른 고난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우리 평생 계속되는 단련이 되며, 불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쉼이 거의 없어서 지금은 이렇게, 지금은 저렇게 괴로움을 당하리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다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수가 끝이 없더라도 그들의 고난에 좋은 결말을 주십니다. 요컨대 이것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배은망덕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에서 우리를 돕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경험으로 느꼈더라도, 그 뒤에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 그분께 도움을 기대할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 큰 배은망덕과 비뚤어짐이 아닙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도우실 때마다 그것은 앞으로 올 때를 위해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제나 그분께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궁핍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셨으니, 내 평생에도 나를 잊지 않으실 것이다. 나는 그분을 부르고 그분께 피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닥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언제나 고치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시달리는 데 지치셨고 더 이상 귀찮아지고 싶지 않으시다고 상상하거나, 그분의 도우심을 잊어버려서, 그분이 의도하신 대로 아무 소망도

64. 원문에는 로마서 8장 27절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내용은 28절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훈,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섯 가지 환난에서 건지시리라는 것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만, 또는 한 번만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이 아니다. 우리 삶이 많은 비참으로 가득해서, 한 고난에서 벗어나면 또 새로운 고난이 오고, 끝없는 비참으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곧 짓눌릴 것이니, 그분이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예리하게 풀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마침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거두셔서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엿새 동안 창조되었듯이 사람의 삶도 흔히 이 수에 담기고, 안식은 하나님께서 이 죽을 몸을 우리에게서 벗기실 때라는 것입니다.

CO 272 그분이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통과 싸움을 끝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단순한 뜻을 가지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곧 우리가 현재의 삶 동안 많은 고난에 흔들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좋은 항구로 이끄시리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여기서는 거룩한 성경의 흔한 방식대로 일곱 가지 교정을 말합니다. 일곱이라는 이 수는 많은 양, 거의 끝없는 양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24:16)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죄로 이해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솔로몬은 우리가 많은 매를 맞아서 넘어지는 넘어짐만을 말합니다. 지금은 어떤 병이 오고, 지금은 다른 역경이 오며, 지금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어떤 모욕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지는넘어짐이며, 그분이 그들의 손을 굳게 붙드시는 대신 힘없는 어린아이처럼 그들이 거기서 넘어지게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또

그분이 다른 구절에서 말씀하시듯, 그분은 손을 아래에 받치시고 우리가 너무 거칠게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시 91:12).

그러므로 이 구절로 먼저,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해서 놀라지 말라는 권고를 받읍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과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것저것을 스스로에게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손에 있지 않은 것을 갖게 되리라고 믿어 버린다고 해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없이 셈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않을 만큼 어리석었을 때, 우리가 언제나 기대에서 어긋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끊임없는 안식을 스스로에게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우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단련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하기를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잘못이 있는 것을 볼 때, 그 위에서 우리가 편안하고 쾌락 속에 있으며 거기서 결코 떠나지 않기를 바라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우리를 거기서 깨끗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우리 오물 속에서 썩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낙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므로 많은 비참과 괴로움을 겪으려고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싸울 준비를 하기를 배웁시다. 그러므로 역경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에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깨우셔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첫째 CO 273 점에 대해서는 이것입니다. 여기서 성령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많은 연약함에 매이리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분이 긍휼을 베푸시는 사람들만을 다루시는데, 그들에 대해서도 한 가지 환난만이 아니라 여섯 가지, 그리고 일곱 번째 환난으로 괴로움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참으라는 경고를 받았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위로도 붙듭시다. 곧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결코 우리에게 실패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비참을 도우셔서 우리를 완전히 거기서 면제해 주시지 않으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알맞은 때에 우리는 그분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들어 가고 우리 욕구가 바라는 만큼 빨리 그분의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하게 합시다. 우리 욕구는 더할 나위 없이 끓어오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루시고 우리 인내를 시험하시려고 우리를 거기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우리를 건지는 것이 좋다고 아실 때까지 우리가 평온히 기다리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에서 어긋나지 않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밝히셨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하게 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고난에서 나오게 하신 뒤에는 우리가 다시 거기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리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을 언제나 더해 가실 것이고, 우리가 여섯 번, 곧 수없이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면, 마침내 그분이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로운 분으로 자신을 보이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처한 비참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시려고 언제나 손을 내미시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안식 안에 두기를 원하시고, 지금 우리를 둘러싼 모든 괴로움을 끝내기를 원하신다고 밝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베푸신 모든 은혜가 우리를 이 목표, 곧 마침내 우리 구원이 완전하고 온전히 이루어지리라는 목표로 이끌게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조금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일들을 그 참된 완성으로 이끄실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훨씬 더 넓고 높은 기대를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선하심은 지금 완전히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한 뒤에, 기근 때에 우리가 건짐을 받으리라고 덧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엘리바스가 그가 말한 일곱 가지 환난을 하나하나 밝힌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너무 예리한 풀이는 온전히 의지할 만한 굳건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뜻을 따릅시다.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고난이 거의

CO 274 끝이 없으므로, 우리 소망도 길고 넓게 뻗어 나가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고난을 견디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건지심을 언제나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근과 전쟁과 들짐승과 어떤 폭풍과 비바람과 불과 다른 재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쌍한 삶이 더할 나위 없이 여러 종류의 고난에 포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컨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근에서만 끌어내시거나 전쟁에서만 건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괴로움에 들어가든 그분이 그 출구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리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들을 그분 손에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는 대로입니다.[65] 그런데 이것은 몹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미신이 어떠한지 보기 때문입니다.[66] 곧 그들은 모든 고난이 한곳으로 몰려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의 직무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교황주의자들은 열병을 맡는 성인을 하나나 둘이나 셋이나 넷 만들고, 다른 성인은 땅의 열매를 지키게 하며, 또 다른 성인은 어떤 병을 맡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열병이나 수종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러 그분께 가면, 그분이 그토록 많은 일에 다 손을 쓰실 수 없으리라고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성인에게 따로 직무를 주거나, 두셋에게 주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들의 마귀 같은 미신으로

65. 시 68:20. 프랑스어 성경 절수로는 68:21입니다.

66. CCEL 디지털본에는 perfection(완전함)으로 되어 있으나, 1563년 초판 115쪽에 따라 superstition(미신)으로 바로잡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능력을 벗겨 피조물에게 둘 때 하나님의 위엄을 갈기갈기 찢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병에서 끌어내신다면 칼에서도 끌어내실 것이고, 그분의 직무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는 이 교훈을 잘 주목합시다. 그분이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므로 한 종류의 고난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치든 담대히 그분께 피합시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죽음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출구를 하나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출구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는 대로입니다. 우리가 한쪽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쪽에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갇혀서 빠져나갈 방법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방식대로, 곧 육신의 감각과 생각을 넘어서 찾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종류의 고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인내를 준비하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CO 275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난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고난을 견디는 데 아주 튼튼한 사람들이 다른 시험에는 곧 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가난은 견딜 수 있지만 병이 들면 너무 휩쓸려서 하나님께 분을 품고 그들을 달랠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병이나 이것저것은 잘 견딜 줄 알지만, 누가 그들에게 어떤 잘못이나 모욕을 하고 그들을 욕되게 하려 하면 거기서 모든 인내를 잃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어떤 사람에게 한 종류의 시험에 대해서는 덕의 모습이 있지만 다른 시험에서는 실패할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이 구절에 담긴 것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한 부분에서 덕을 보이고 나머지에서는 차갑고 곧 꺾이는 것을 칭

찬으로 여기지 않으시며, 우리 인내는 더 멀리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려 하시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평온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라는 권고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앞에 한두 가지나 세 가지 고난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십자가나 자기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67] 그 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만한 분량과 이만한 몫을 지겠다" 하고 우리 보따리를 꾸리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라,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한 가지 방식으로 박해를 받은 뒤에 새롭고 전혀 다른 싸움에 다시 들어가야 하리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잔' 이나 '컵' 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자기 좋다고 보는 만큼의 양을 처방하면 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그만큼의 물약을 마실 수밖에 없듯이, 또 아버지가 자녀를 먹일 때 그들의 몫을 잘라 주고 자기 뜻대로 먹고 마실 것을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처분하시고 그분 좋으실 만큼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며비참의 몫을 주시는 그 권위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놓인 교훈을 붙듭시다. 곧 하나님께서 흉년에는 기근에서, 전쟁 때에는 칼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들짐승에게서 우리를 지키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이는 기근으로만, 다른 이는 전쟁으로만, 또 다른 이는 역병으로만, 또 다른 이는 들짐승에게만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를 괴롭힐 수단이 있는 만큼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 가까이 있는 원수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손을 뻗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건지지 않으신다면, 보라, CO 276 십만 가지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고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 각 사람은 자기가 처한 위험을 잘 생각해서, 우리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고 더욱 힘써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67. 마 16:24.

그러나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괴롭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대로 한 가지 고난만이 아니라 끝없이 많은 고난을 참고 견딜 준비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지로 단련하신 것으로 만족하신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불과 물을 지나가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에게 한 종류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고난에서 나오면 또 다른 고난에 들어가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것이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언약이 돌들과 들짐승들과 함께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엘리바스는 흔히 사람들에게 해와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들, 곧 들의 돌들과 들짐승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들의 돌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걸어갈 때든 땅을 갈 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땅이 돌투성이면 일이 훨씬 더 고되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사람이 많이 수고할 것이고, 돌을 치우지 않으면 쟁기가 자주 부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걸어갈 때든 들일을 할 때든 돌이 우리를 해치지 않으리라고 선언하십니다. 말하자면 걸어갈 때 나쁜 일을 만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땅의 짐승들도 덧붙이십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짐승들이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짐승들은 우리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 위에 주권을 주셨고, 더 나아가 짐승들이 사람에게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군주로 사람을 알아보도록 그 목적으로 짐승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제 짐승들은 우리를 거슬러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위에 가지시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최고의 통치권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군주에게서 봉토를 받아 그의 가신이 되었는데 어떤 죄를 짓거나 배신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면 그가 가졌던 재산이 몰수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배은망덕 때문에 그분은 그분이 우리 손에 맡기셨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서 벗기셔야 했고, 심지어 우리에게 온전히 순종해야 했던 들짐승들을 무장시켜 날마다 우리를 거슬러 일으키셔야 했습니다. 사람과 짐승 사이의 이 대립, 말하자면 원수 됨이 여기서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짐승들과 언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있는 광기를 CO 277 억누르셔서 그것들이 우리를 해치려는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다스림을 우리에게서 완전히 벗기지 않으셨다는 것도 봅니다. 말은 사나움으로 가득한 짐승이고 소도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흔히 그것들을 길들이고 이겨 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삶을 누리고 그분의 피조물을 부분적으로 누리니, 그분 선하심의 어떤 흔적이 남아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약속하신 그런 언약을 완전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알맞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열매를 느끼도록 들짐승들에게 괴롭힘과 찔림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호와 지키심 아래 있는 그분의 백성에게 들짐승들이 평온하게 해 주시는 것은 특별한 선물입니다. 마치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화평을 맺어 주신 것처럼, 그분이 둘 사이에 오셔서 "짐승들이 지금까지 너희의 원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너희 사이에 화평과 화합이 있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여기서 약속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좋은 것으로 약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특권을 얻는 방법은 호세아서에서 더 잘 보여집니다(호 2:18). 그는 2장에서 하나님께서 들짐승들과 언약이 있게 하시리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거기서는 특히 황폐하고 무너졌던 교회의 회복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나 화평을 이루시리라고 말하고, 특별히 우리가 들짐승들과 언약을 맺게 하시리라고 덧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의 보편적 상속자이시고 모든 것이 그분 손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지체라면 아버지께서 그분께 온전히 맡기신 좋은 것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해로운 것들 사이를 다치지 않고 걸어갈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 구원을 지키시려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징계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는 이것이 헛되이 선언된 것이 아님을 느낄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들짐승들을 길들여진 것처럼 하셔서, 그것들이 늘 하던 것처럼 그런 광기로 우리를 거슬러 일어나지 않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것들에게 재갈을 물려 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유익한 교훈을 얻습니다. 곧 이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CO 278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우리에게 약속된 도움에 따라 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가까이 있는 위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언제나 백 가지쯤 있는 것을 볼 때에도 그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에 소망을 두기를 그치지 않는 것으로 영예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혼란스럽고도 남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필요할 때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우리 삶은 주님께 의지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주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위험에 눈을 감고, 우리 구원을 지키시겠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붙잡을 수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큰 영예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에 온전히 자신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재앙과 기근의 때에 그들이 웃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감각하다거나 무감각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웃음은 어떤 위험에 처하자마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불쌍한 불신자들처럼 우리가 겁에 질리지 않을 만한 그런 신뢰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 자기를 짓누르는 고난을 느끼고 위험을 깨달아 두려워하리라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불신자는 어떤 고난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너무 겁에 질려 휩쓸려서 아무도 그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더 나쁘게는 사람들이 언제나 고통을 상상합니다.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고 말하고,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겁에 질리게 하는데 나뭇잎 하나 떨어지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대로입니다(레 26:17, 36; 잠 28:1). 그러므로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그분께 자신을 맡기지 않는 한 너무 겁에 질려서 아무 안식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율법에서 그들의 삶이 실에 매달린 것 같으리라고 말하는 대로입니다(신 28:66–67). 아침에는 "내가 저녁까지 갈 수 있을까?" 하고 말하고, 저녁에는 아침을 볼 수 있을지 어찌할 바를 모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끊임없는 염려 속에 있고, 그뿐 아니라 너무 극심한 번민 속에 있어서 자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알아차리고 신음하며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힌 뒤에도, 언제나 이렇게 말하는 데 이를 것입니다. "주님, 제 영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68] 주님께서 저를 속량하셨고, 주님은 진실하시며, 끝까지 제게 주님의 선하심을 계속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저의 모든 위험을 대비해 주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CO 279 하나님을 부른 뒤에 그분께 응답받으리라고 신뢰하고, 언제나 그분을 부르기를 끝까지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도우시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언제나 자기 길을 갑니다. 그들의 구원이 틀림없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해 있으므로 확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68. 시 31:5.

러므로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만큼 둔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경으로 그들을 위협하실 때 거기서 비웃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덕이 아니라 오히려 짐승 같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을 가까이서 생각해야 하고, 심지어 이웃의 고난을 깨달아 그것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그들은 웃을 것입니다. 곧 그들은 모든 고난을 비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가난과 모든 질병과 굶주림과 목마름과 칼과 현재 일과 장래 일을 거슬러 승리를 노래할 때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롬 8:35 이하).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과 싸워야 할 때에도 바울은 자기가 그것을 이기리라고 자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보호 아래 두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때,[69] 우리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것을 보는 모든 해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믿는 사람은 자기 장막을 둘러보아도 자기를 괴롭히는 나쁜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고, 자기 혈통이 늘어나고 자기 가축의 새끼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느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밝히시려고 우리 고난을 고치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 위에 있는 그분의 은혜를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담긴 것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므로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가까이서 생각해야 하듯이, 다른 한편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넉넉히 베푸시는 모든 좋은 것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아버지다운 돌보심을 알아보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거두실 때,

69. CCEL 디지털본에는 boucher(푸줏간 주인)로 되어 있으나, 1563년 초판 118쪽의 bouclier(방패)를 잘못 읽은 것이므로 그에 따라 옮겼습니다.

곧 말씀드리겠지만, 성령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컨대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들이 이 죽을 삶에서 견뎌야 하고 많은 변화와 뒤바뀜에 매여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실 것이며 그분의 복이 끝까지 그들을 지키기에 충분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엘리바스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 주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다른 은혜들 가운데, 그분이 CO 280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분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자녀를 주실 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후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영예입니다. 또 짐승들이 잘 자라고 불어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이 짐승에게까지 알려지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이 거기서 그분의 선하심과 호의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이 자녀를 지으시고 그들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본성에는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더 큰 존엄과 탁월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경에서 이 복을 귀한 것으로 그토록 자주 언급하신다고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람들이 자녀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다면, 그것이 죄에서 비롯되며 하나님의 질서가 거기서 뒤집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후손을 주시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사랑이나 그분의 큰 선하심을 더 잘 보여 주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은 곡식 단이 제때에 거두어져 곳간에 들여지듯이 무덤에 거두어지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넉넉하게, 곧 배부르게 거기에 이르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갑작스러운 죽음에서 지키시고, 이 세상에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여기를 떠나야 할 때에는 추수 때 곡식을 거두는 것과 같으리라는 것을 말하려 했습니다. 곡식은 들판에서 망하는 것보다 곳간에 들여지는 것이

낫습니다. 곡식이 익었는데 들판에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낟알이 떨어져 상할 수밖에 없고, 새들이 일부를 먹고, 다른 일부는 썩어 망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곳간에 거두어지면 좋은 데 쓰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열매 맺게 하신 뒤에 그들이 익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곡식을 거두듯이 그분이 그들을 자기에게로 거두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허락하시고, 그들을 꽃다운 나이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세상에서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이 아주 늙도록 살았고 아벨은 칼에 앗겨 간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믿는 사람들을 곡식을 곳간에 모으듯이 잘 익을 때까지 지키시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성경이 이런 이 땅의 복을 말할 때 그것은 언제나가 아니라 흔히 일어나는 일을 뜻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더 큰 좋은 것과 더 작은 좋은 것을 비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일찍 이 세상에서 거두어지도록 허락하실 때, 그것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예순 살까지 살게 내버려 두시는 것보다 스무 살이나 서른 살에 자기에게로 부르실 때 그를 위해 더 잘 대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CO 281 특히 세상이 그런 부패로 날뛰어 오늘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것을 볼 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거두어 가시는 사람들을 여기서 시들어 가야 하는 경우보다 더 행복하다고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고 늙은 나이에까지 이른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그물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 그토록 많은 방탕 사이를 걸어가기가 몹시 어렵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일찍 거두어 가신다면, 그분이 더 큰 좋은 것을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또 그 위에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는 것에 비하면 작은 이 복을

빼앗기더라도, 그분이 그들이 그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허락하실 때 그들이 여전히 그분께 사랑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폭군들에게 박해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귀한 죽음을 맞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사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이 순교자들의 피로 인 쳐지는 것을 그분이 보실 때 그것은 그분께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과 큰 것을 비교해 보면, 이 약속이 믿는 사람들에게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때에 거둔 곡식처럼 무덤으로 이끄시는 이 복을 언제나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든 그분은 언제나 그들을 익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 서른 살에 죽는다면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것을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이고, 흔히 말하듯 땅처럼 늙었을 때에도 불신자들에게서 보는 것과 같은 큰 저항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결코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속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를 몰아붙이시면, 그는 이를 갈고 분을 품으며 죽음에 맞서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 해만이라도 내 삶을 더 늘일 수 없을까?” 그것은 마치 CO 282 사방으로 튀는 생나무와 같습니다. 반대로 믿는 사람이 죽을 때에는 많이 고통받더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 안에서 위로를 얻으며, 그의 몸에 저항이 보이더라도 그는 평온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자신을 맞추기만을 구하며, 여기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죽기를 더 원합니다. 간단히 말해 그는 그의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기만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이 세상에서 부르시기 전에 언제나 그들을 익게 하셔서 그들이 무덤에 이를 때 온전히 배부르다는 것, 말하자면 스무 해를 무덤에 가져가는 사람이 백만 해를 가져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익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로 부르실 때 그분께 독을 품어서 결코 익지도 배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서 그분이 이 구절에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 곧 어떻든 그들이 잘 익어 좋은 데 쓰일 수 있는 곡식처럼 무덤에 이르리라는 것을 결코 빼앗지 않으신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참으로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이 우리를 자기에게로 거두려 하신다는 이 증언을 가지고 우리 각 사람이 만족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한동안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셔서 많은 고난과 비참으로 단련하려 하시더라도, 그분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그분의 선하심을 언제나 맛보기를 그치지 맙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으로 우리에게 얻어 주신 그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현재의 삶 뒤에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누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23편

욥기 6장 설교 1

CO 33:283–294

> 욥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 괴로움을 제대로 달아 보고, 내 고통도 함께 저울에 올려놓았으면 좋겠네. 그러면 그것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니, 그래서 내 말이 삼켜지고 말았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혀 그 독이 내 영을 마시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치려고 늘어서 있네. 들나귀가 풀이 있는데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는데울겠는가? 맛없는 것을 소금 없이 먹겠으며, 달걀 흰자위에 무슨 맛이 있겠는가? 내 영혼이 손대기를 싫어하던 것이 이제 내 살의 병과 같이 되었네.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것을 누가 내게 주었으면 좋겠네. 곧 하나님께서 나를 짓밟아 부수시고, 나를활처럼 쪼개 버리셨으면 좋겠네.” (욥 6:1–9)

CO 283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을 괴롭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자기 원수로 여길 만큼의 고난을 느끼게 하실 때,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에게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욥이 결코 완전히 꺾여서 인내를 잃은 적은 없었던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간의 위안을 얻으려고 이렇게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었던 것은 큰 어려움 없이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을 인간의 상대편으로 자신을 밝히실 때 그가 어떤 번민 속에 있는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무관심하고, 이런 종류의 시험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적으니, 이 교훈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합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 역경 가운데 참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육적이어서 우리 감각이

깨닫는 것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곧 우리가 병을 견딜 수 있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이런저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완전히 짓누를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붙이시고 그분의 진노를 느끼게 하실 때입니다. 마치 그분이 그들 맞은편에 서서 "너희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거슬렀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적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실 때, 그것은 우리가 몸으로 견딜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담긴 것을 가까이서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누가 자기 괴로움을 달아 보고, 다른 쪽에 자기 고통, 곧 자기가 견디고 겪는 고난을 함께 저울에 올려놓았으면 좋겠다고 CO 284 말합니다. 그는 "그러면 이 고난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그분의 화살을 쏘셨는데, 그것도 독 묻은 화살이어서 나는 타는 것 같고, 내 영이 거기에 빨려 들어간 것처럼, 아니면 나를 그렇게 꿰뚫은 하나님의 이 화살 때문에 내 영이 쓴맛에 절여진 것처럼 되었다." 그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서 자기 고난이 너무 커서 그것과 맞먹거나 견줄 고통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는 부당한 탄식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가인이 한 탄식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탄식에는 모독이 없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정죄를 들은 뒤에, 자기를 의롭다고 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그의 죄는 너무나 명백했고 그는 유죄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잔인하다거나 너무 엄격하다고 고발합니다. "내 벌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 땅에서 쫓아내시니, 나는 주님 얼굴 앞에서 설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다루십니까?"[70] 우리는 거기서 이 비참한 자가 자기가 정당하게 벌

70. 창 4:13–14.

받는다는 것을 반박할 수 없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공평하게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거슬러 엄격함의 한도를 넘으신다는 핑계를 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욥도 비슷하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큰 괴로움 속에 있다고 해서 놀랄 것이 없다고, 자기가 견디는 고난이 그것을 넘어서고 훨씬 더 무겁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그토록 가혹하게 다루시니 그가 아무리 탄식해도 모자라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어머니가 자기를 유산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바라기까지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혐오합니다. 그러므로 욥은 변명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미 밝혔듯이, 그는 옳은 주장을 가졌지만 그것을 서툴게 변론하고, 이 점에서 어떤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그는 자기가 견디는 고난이 너무 크고 극심해서 자기 말까지 삼켜지고, 자기가 거기서 아무 힘도 없는 짓눌린 사람과 같으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짓누르시는 이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때 진실을 말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얻는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하나는,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불쌍한 피조물을 그분의 CO 285 심판으로 몰아붙이실 때 그것이 어떠한지 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시험과 싸울 때, 그것에 맞서고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애쓰더라도 연약함 때문에 이쪽저쪽으로 기울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더 굽지 않도록 하시지 않는 한 우리에게 결코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쇠로 된 것도 아니고 바위 같은 것도 아니며, 연약함으로 가득한 죽을 인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지지 않게 하시

더라도, 우리는 상처를 입고 절뚝거려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가운데 언제나 어떤 약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아야 할 두 가지 점입니다.

먼저 제가 이미 다룬 것을 기억합시다. 곧 몸에 따라 우리를 짓누르는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으로 부르시고 우리 재판관으로 거기 계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대답하고 결산해야 할 때의 그 영적인 시험은 더욱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을 따라 우리를 건드리는 것을 훨씬 더 크게 깨달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온통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기근이나 역병이나 질병이나 그 극한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것으로 위협하면 우리는 겁에 질리지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 별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점에서 우리는 소나 나귀와 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처럼 끝까지 둔해졌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 영혼에게 마련된 그 저주를 그토록 하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하나님의 원수로 남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삶에 관한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크게 놀랍니다. 아무튼 다른 사람들이 둔한 채로 남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단련하셔서 그분의 진노를 느끼게 하시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견디는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험을 받습니다. 때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사자처럼 나타나셨다. 그분이 내 모든 뼈를 부수셨다. 나는 타는 불 속에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 내 영혼은 삼켜진 것 같고, 내 몸은 썩은 것 같으며, 내게는 악취밖에 없다."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CO 286 그들은 여리고 나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장튼튼하고 꿋꿋했던 사람들이고, 꺾이지 않는 담대함을 갖도록 하나님의 영에 다스림

받은 것을 우리가 본 사람들입니다. 다윗에게 훌륭한 인내가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없이 단련하셨고, 우리는 그가 언제나 이겨 냈으며 어떤 고난이 닥쳐도 결코 탈선하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루나 한 해가 아니라 평생 모든 싸움에서 단련된 군인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많은 경험을 가진 그가 마치 한 번도 고난을 느껴본 적이 없고 고난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처럼 탄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그는 몸의 고난에 짓눌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느낄 줄 알았지만, 병을 견디거나 그와 비슷한 다른 것을 겪는 것은 그에게 별로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이렇게 탄식하게 합니까? 그가 자기 속으로 들어가 양심에 건드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을 뿐 아니라 그의 철천지원수가 되셔서 지옥까지 그를 쫓아가시며 "내가 너를 완전히 멸하기까지 너는 평화도 휴전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자기 죄를 느끼며 이렇게 짓눌려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를 거슬러 타오르는 것을 알아차릴 때, 그것이 그를 끝까지 짓누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그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그를 병으로만 괴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밖에도 그분 진노의 표시를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전에 그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뒤엎고 없애려 하시는 것처럼, 또 그의 죽음이 그의 손으로 세워진 하나님 섬김이 무너지는 원인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그토록 끔찍한 보복을 생각할 때 그가 이렇게 겁에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노래에 담긴 그런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몸에 따라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 우리는 그분이 보내시는 고난을 참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것은 그분이 그분의 진노와 보복을 느끼게 하시는 사람들이 견디는 그 번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거기에 이르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가혹하고 쓰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이르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몸의 고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병을 알아차리지 못하니 그 병의 치유를 찾을 리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니 그분과 화해하기를 찾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상처를 입고, 그것을 깨달은 뒤에 욥에게서 보듯이 그런 번민 아래 신음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도 남습니다. CO 287 모든 사람이 같은 분량을 갖지는 않을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량을 아시니, 어떤 사람이 약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분 성령의 그토록 큰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면, 좋습니다, 그분이 그에게 그분의 심판을 느끼게 하시더라도 그를 참아 주시면서 하실 것이고, 그분의 진노 한가운데서 그분의 긍휼을 맛보게 하셔서 그것이 그에게 무섭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특별한 힘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강하게 하신 사람은, 어린아이처럼약한 사람들보다 더 크고 훨씬 더 거센 타격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히스기야와 욥에게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안에서 찾지 못할 그런 영적인 싸움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 몫을 가질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둔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표시, 우리 양심이 너무 잠들어 있다는 표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판으로 우리를 몰아붙이실 때, 우리를 죽음과 지옥의 고통과 싸운 이 거룩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장시키셨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들을 너무나 잘 채비시키셔서 그들이 굽기는 했어도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고, 꺾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인내의 거울과 같은 욥이 그토록 짓눌리는 것을 볼 때, 염려 가운데 걷기를 배웁시다.

푸른 나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마른 나무는 어떻겠습니까?[71] 우리는 욥이 여기서 번민으로 타고, 고통이 그를 얼빠지게 해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엄격함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려 하실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쓰러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던 대로 매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모두 충분히 대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용감한 체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어떠한지 살펴서 헛된 주제넘음으로 부풀지 않게 합시다. 우리가 불쌍한 피조물이며, 하나님께 달려가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는 한 이쪽저쪽에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공격을 한순간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욥의 본을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또 그가 하나님의 화살이 자기에게 박혀 있고 그 독이 CO 288 자기 영을 마신다고, 또는 자기 영이 그 독을 마신다고 말하는 이 말을 잘 주목합시다. 두 가지 다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72]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욥이 자기가 여기서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어떤 고난을 견딜 때와 같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그는 "나는 내게 전쟁을 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 하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의 화살이 내 안에 있다. 그것들이 심장까지 들어와 나를 꿰뚫었다." 그런데 먼저 욥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와 전쟁을 하시는 것처럼 자기가 그 싸움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아무것도 아닌 죽을 인간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겨냥하시고 자기에게 덤비신다는 것을 느끼는 데까지 이르면서도 버틸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무튼 이미 말씀드렸듯이

71. 눅 23:31.
72. 원문은 주어와 목적어를 어느 쪽으로도 읽을 수 있어서, 칼빈은 두 풀이를 다 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 유익을 위해 거기까지 이끌려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매 아래 있으면서 그러는 동안 고난이 어디서 오는지 사람들을 생각하며 궁리하고 이 땅에 머문다면, 우리는 진보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아주 잘못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이 든 사람이 "이런 사고가 내게 일어났는데, 그것이 원인이다" 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느낄 계기를 주시는 어떤 다른 고난을 참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시는 징계에서 열매를 얻을 리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피조물에 매달려 이것저것을 핑계로 내세우기를 그치지 않을 때 우리는 진보를 아주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단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곧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우리 죄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화살을 쏘셔서 우리를 상하게 하신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욥이 전능자의 화살이 자기를 향해 쏘아졌다고, 그렇습니다, 특히 그것들이 자기 안에 있고 자기 영이 거기에 빨려 들어간 것 같다고 말할 때 이 말을 잘 묵상합시다. 그로써 그는 자기 괴로움이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에서 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두려움이 자기를 치려고 늘어서 있다고 덧붙이는 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더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흔히 완고하고 굳은 자들을 괴롭게 하신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때문에 그들의 영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모루가 망치를 튕겨 내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튕겨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낮추려 하시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대로 상하게 하셔서, 그들이 끝까지,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리게 하십니다. 욥이 표현하려 한 것이 이것입니다. 때로 이런 일이 버림받은 자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셈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택하신 사람들과 그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완전히 꿰뚫으시고 그들 마음속에서 그분의 보복을 느끼게 하셔서

CO 289 그들이 거기서 삼켜진 것 같고 그들의 영이 거기서 다 타 버리는 것은 그분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혹독할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그분을 대적으로 갖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느끼게 하시려고 보내시는 모든 두려움을 우리가 둔하게 튕겨 내는 것보다, 그렇게 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그런 상처에서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려 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분의 심판을 비웃기만 하는 그런 멸시하는 자들처럼 되지 않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깊이 느끼게 하셔서 우리가 그 아래서 떨게 하시려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육신의 욕구를 따르는 데 그토록 둔해져 있으니 그런 약이 얼마나 필요한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무슨 유익을 줍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모든 위협에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움직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맞서 버티고 우리 불신으로 그분께 대들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사람들에게서 흔히 알아차리는 교만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곧 우리에게 이렇게 거칠게 자신을 보이셔서 우리가 그분의 화살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우리 영이 거기에 온통 빨려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거기서 깨끗하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거기에 매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두려움이 자기를 치려고 늘어서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말이 삼켜진, 또는 다 타 버린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두려움이 자기를 치려고 늘어서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이미 다루었듯이 자기가 사람들을 원수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기와 전쟁을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쪽에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하는 말,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그분의 피조물을

이렇게 무장시키신다는 것을 알아보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요컨대 욥은 고난이 어느 쪽에서 그를 위협하든, 그렇습니다, 그를 상하게 하든, 그를 건드리고 짓누르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 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게 하실 때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 곧 그가 그분께 돌아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긍휼히 받아 주시고 그들이 견디는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기만을 구하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가 겪는 이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쓰려 하시는 선하심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조급해지는 원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한 영예를 드리도록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원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하는 것에 대해 말하지만, 우리가 CO 290 더 견딜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불쌍한 저주받은 자들 같고 잃어버린 피조물 같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것은 의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깊이 잘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형식적일 뿐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죽을 인간은 자기 안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한 결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가 모든 피조물처럼 그분께 복종한다고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이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곧 그분만이 의로우시고 우리 안에는 온갖 불의밖에 없으며, 우리 입이 다물어지고, 우리를 내세울 핑계가 하나도 없으며, 우리에게는 치욕밖에 없고 우리가 악취 나고 가증한 자로 내쳐져 마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19절) 보여 주는 대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그분 앞에 그런 두려움과 겸손으로 나아가서 목에 밧줄을 건 불쌍한 범죄자처럼 되어야 하고, 그분이 그분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옥에 있는 것과 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괴롭게 하시고 그들을 몰아붙여 거기까지 이끄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삼켜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마치 자기가 자기 고난을 부각하려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처럼 수사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응석받이들은 작은 고난을 견딜 때에도 그들의 사정을 변론할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은 그들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잘 늘어놓고 수다를 떨 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의 고난이 그다지 그들을 짓누르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건드림을 받았다면 여기서 하는 말을 보여 주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노래에서(사 38:14) 특히 그가 제비처럼 지저귀었다고, 그가 품은 것을 표현할 사람의 목소리가 더 이상 없었고, 번민에 너무 갇혀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으며, 자기 마음을 보여 줄 말을 늘어놓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백성을 소환하시고, 그들의 재판관으로 자신을 보이시며, 그들을 너무 세게 몰아붙이셔서 그들이 말조차 잃고, 너무 혼란스러워 그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을 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대개 우리를 거칠게 다루시더라도, 아무튼 그분은 알맞은 치료법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완전히 혼란에 빠진 채로 남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곧 그분이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CO 291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롬 8:26).[73] 바울은 믿는 사람들, 말하자면 가장 좋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가 신음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듬어진

73. 원문에는 로마서 8장 25절로 되어 있으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은 26절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말할 줄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을 입으로 밝힐 수조차 없을 만큼 그것을 꽉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하는 말을 도우십니다. 곧 우리의 모든 말이 삼켜지더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을 찾고 그분께 달려가는 방식, 그분이 인정하시는 방식을 주십니다. 그 언어가 사람들에게 알아들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자신도 거기서 얽혀서 그의 말을 다 쏟아 낼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언어를 알아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란스럽고 우리 안에서 꺾여 있을 때 우리 신음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니, 그분이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과 구원으로 돌아가는 결말을 주시니 그분이 보내시는 고난을 참고 받아들입시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욥은 여기서 자기가 이렇게 탄식하는 데 이유가 없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몇 가지 비유를 씁니다. 그는 "들나귀가 풀이 있는데울겠는가? 소도 꼴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또 달걀 흰자위처럼 소금 없는맛없는 것을 먹을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합니다. 이런 비유로 욥은 사람과 짐승이 모두 일이 알맞게, 또는 바라는 대로 될 때 기뻐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들나귀가 무엇을 찾습니까? 꼴을 찾습니다. 그러니 풀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 때 그것은 울거나 언짢아할 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구하는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소도 꼴을 주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그에게 거스르는 것을 좋게 여기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우리는 아무 맛도 없는 음식조차먹지 않을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달걀 흰자위를 마시게 하려 하면 그것은 우리를 토하게 하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 비위에 거슬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아무 맛도 없는 것을 뜻하니, 우리 목을 막을 쓴 것은 어떻겠습니까? 욥이 당한 이 재난들은 그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그는

자기 소원, 곧 하나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죽이시고 이렇게 시들어 가게 하지 않으시기를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결론짓습니다. 요컨대 이것이 그가 여기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말이 좋고 참되며, 더 나아가 그것이 담은 교훈이 유익하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우리 감정에 대해 CO 292 경고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덕을 믿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육적인 욕구에서 억제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이 우리에게 알맞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키시니 우리에게 기뻐할 거리가 있다" 하고 알고, 일이 우리를 거스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 왜 그러신가? 우리가 그분을 거슬렀고, 그분이 우리 몫을 줄이려 하신다" 하고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며, 그 기억이 자주 새로워지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짐승들도 자기 분량대로 어떤 분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줄 수 있으니,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수치입니다. 소나 나귀에게 판단도 이성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게 그 본성이 가는 데까지 그것들을 이끄는 어떤 감각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봅시다. 사람은 판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의 영혼에 새겨진 이 정신 때문에 그는 분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욕구와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나귀는 꼴이 준비되어 있으면 울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고 만족합니다. 좋습니다, 사람이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자기가 그만큼 하나님께 빚졌다는 것을 아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배웁시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실 때, 우리가 그런 선하심을 무시하고 양심이 둔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너그럽고 자비로우신지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첫째에 대해서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정반대를 알아차립니다. 우리의 배은망덕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면 우리는 짐승처럼 잠잠히 있는 그런 절제를 지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만족할 줄 모르는 구렁텅이와 같습니다. 우리 욕망은 어떠하며 얼마나 지나칩니까? 여기 나귀가 먹습니다. 그것은 몹시 수고하며 일했어도 꼴을 주면 배를 채우고 그 위에 누워 잠자며 만족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너덧 사람이 삼킬 수 있는 것보다 더 먹었습니까?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바라보지 않으며, 언제나 쌓고 모으려 합니다. 사람은 곳간이 가득 차면 배가 훨씬 더 커지고, 잘 채워 진 지하 창고를 가지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며, 열두 사람의 식량을 가져도 CO 293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구렁텅이처럼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휩쓸려서 결코 배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배은망덕은 이러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떤 재판관이 필요합니까? 나귀와 소입니다. 그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정죄를 보여 주려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의 질서 속에서, 다른 생각을 가져야 할 사람들보다 짐승들에게 있는 그 우둔함 속에 훨씬 더 많은 이치와 절제가 있다는 것이 알려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꼴만 찾는 짐승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배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보내실 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형통을 쓰되 언제나 그 너머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보내려 하실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아주 편안하리라고 셈했다가 기습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꼴을 보내시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대우받을 때 그런 무관심 속에 잠들지

않도록 조심하고,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좋은 것을 지향하도록 언제나 우리 자신을 재촉합시다. 한 조항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맛과 풍미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먹이지 못하고, 우리가 소금 없는 달걀 흰자위를 마시지 않으리라고 말할 때, 그로써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추위와 더위와 맛없는 음식과 그 밖의 모든 것이 우리가 본성상 피하는 역경과 같다는 것을 매를 맞기 전에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는 것을 압시다. 좋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우리는 무감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아무 맛도 없는 것을 참고 견딜 준비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익을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정하시니, 그분의 뜻 하나가 우리 마음에쏙 드는 모든 것보다 우리에게 더 맛있어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역경에서 좋은 맛을 찾게 하여 우리가 그것을 참고 견디게 할 우리의 소금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 왜 그러신가? 먼저 우리가 그럴 만하기 때문이고, 또 그분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 구원을 앞당기려 하시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것이 전에 밋밋하던 것에서 좋은 맛을 찾게 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기를 기뻐하시는 교정을 참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기쁘신 뜻에 우리를 맞추려고 우리의 모든 역경에서 맛을 찾으려 할 때, 우리는 거기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분이 시작하셨으니 완성하시기만을 구하고, 그래서 그분의 성령으로 인도받고 다스림받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영화롭게 하기만을 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좋고 의롭다고 여기게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24편

욥기 6장 설교 2

CO 33:294–306

> 누가 내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며, 하나님께서 내가 기다리는 것을 내게 보내 주실까? 곧 그분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펴서 나를 끊어 버리시는 것이네. 그러면 그때에도 내게 위안이 있을 것이고, 그분이 나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통 속에서도 나는 뜨거워질 것이며,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네. 그러나 내 힘이 무엇이기에 내가 견디겠으며, 내 끝이 무엇이기에 내 목숨을 늘여야 하겠는가? 내 힘이 돌의 힘이란 말인가? 내 살이 강철이란 말인가? 나는 더 견딜 수 없고, 내 힘이 다하였네.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은 친구에게서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버리는구먼. (욥 6:8–14)

CO 294 우리는 이미 시작된 이야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곧 욥이 여기서 괴로워하는 것은 자기 몸으로 견디는 고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한 정죄받은 사람처럼 붙들고 계시고 그의 재판관으로 자신을 보이시며 그를 대적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그가 겪을 수 있었던 다른 모든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다윗이 시편 32편에서(4절) 말하듯 자기 위에 무겁게 놓인 하나님의 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나 잘 주목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하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74] "나는 죽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셨으면 좋겠다. 나는 CO 295 세상에서 끊어지고 싶다. 그러면 내게 얼마간 위안이 있을 것이고, 더 이상 이렇게 짓눌리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74. CCEL 디지털본에는 à propos로 되어 있으나, 1563년 초판 125쪽에 따라 à quel propos로 읽었습니다.

죽음보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려 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될 그분이 보내신 죽음보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고난의 극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삼키신다면 그래도 참을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시들어 가고 이렇게 오래도록 짓눌리면 절제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것이 자기를 타는 불 속에 붙들어 두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단번에 멸망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고문대에 묶어 두시듯 하셔서 얼마 동안 괴롭게 하신 뒤에도 쉼을 주지 않으시고 그 고난에서 덜어지지 않은 채 계속 견뎌야 하는 사람 사이의 이 차이를 잘 주목합시다. 이제 욥이 여기서 하는 말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그는 자기의 가장 큰 소원이 죽어서 끊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앞에서 다루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을 바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목적과 조건에서입니다. 우리가 갇혀 있는 이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바울의 이 소원(롬 7:24)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자기 육신의 어떤 시험에 흔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 방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자신을 쓰려는 소원이 그를 밀어 자기 몸의 이 감옥에서 나가기를 바라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언제나 많은 괴로움에 휩싸이고, 이렇게 연약하여 하나님을 거스르기를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그토록 오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 소원은 좋고 거룩하며 성령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세상에서 나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동안에는 우리에게 악덕과 불완전함이 있다는 것,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재빠르지 않다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것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괴로움이 닥치거나, 우리가 어떤 쇠약함 속에 있거나, 일이 우리에게 알맞게 되지 않으면,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나가기를 바라고,

우리 삶에 분을 품으며 괴로워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그가 주로 자기 처지가 어떠한지 알아서가 아니라, 그가 느끼는 고난이 그를 짓누르니 하나님께 그런 청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는 바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간청을 하려고 그분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번째 악입니다. 욥처럼 죽음을 바라는 사람이 자기 안에 갇혀 움츠러들어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 CO

CO 296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큰 잘못일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치시는 악한 소원을 품을 어떤 숨을 곳을 가지려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청을 하기에 이른다면, 그가 갑절로 죄를 짓는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 큰 무모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까? 거기서 우리는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합니까? 그분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그분께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요일 5:14) 말하는 대로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간구를 주실 때, 우리가 그런 절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 주십니다.[75]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께 그토록 지나친 청을 감히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람들의 삶이 여기서 그토록 많은 가난과 비참에 포위될 때 그들이 바라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죽을 몸에서 속히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견뎌야 하는 괴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많은 악덕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한 조항은 이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쓴 일들이 닥칠 때, 그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바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 오히려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셋째로, 우리가 이 죄의 종살이에서 풀려나고

75. 마 6:10.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줄을 하나님께서 끊어 주시기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큼 낮아질 준비가 되어 있도록 절제하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온전히 행하는 데 자신을 드릴 수 없어서 괴롭고 신음하더라도, 먼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주님, 제가 불쌍한 죄인이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언제나 숨은 악덕이 섞여 있게 하신다면, 제가 제 잘못을 알아보고 주님 앞에서 신음하며 주님께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말하자면 이것이 우리가 거기서 지켜야 할 한도입니다.

또 욥의 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욕망과 욕구를 거기 가져와서 입에 떠오르는 대로 다 말할 일이 아니라, 우리 간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분이 우리에게 구하도록 허락하신 것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배웁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하려면 이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곧 이것저것으로 그분을 귀찮게 하는 무모한 자가 되지 말고, CO 297 그분의 뜻에 따라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이 허락되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생각 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께 어떤 영예를 드립니까? 그들은 그분을 자기 마음대로 복종시키려 합니다. 말하자면 죽을 인간이 너무 다스리려 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에 복종하셔야 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오만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이 경외를 드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고 무엇을 좋게 여기시는지 알아보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온전히 절제하며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보여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이렇게 날뛰어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도 꾸짖는 나쁜 청을 하는 일이 일어났으니, 기도해야 할 때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거나 허락하셨는지 미리 잘 살피도록 조심합시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 육신이 이것저것을 바라도록 부추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치료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 밖의 무언가를 구한다면 참된 기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내세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내 욕구에 이렇게 복종시키려 하면 그분을 거스르는 것일 테니까. 그러나 나는 이것저것을 바랄 수는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욕망에 복종하시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런 핑계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헛됨으로 가득하고 하찮을 뿐 아니라 완전히 악한 그토록 어리석은 소원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숨을 곳을 찾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성경이 말하듯(시 62:8)[76]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펼쳐서 거기에 아무것도 얽혀 있지 않게 합시다. 어떤 소원이 우리 앞에 떠오르자마자 "자, 내가 이런 것을 바라도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허락하시는가?" 하고 살펴봅시다. 검토하러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것이 거기서 펼쳐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을 때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께 기도할 준비가 되게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편에서 우리가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우리 머릿속에서 품은 것을 행하시라고 그분께 요구할 만큼 대담해서는 안 되고,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그분께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말하자면 그런 한도를 지킬 때, 우리 악한 욕구가 바로잡히고 억제될 것입니다. 사람은 감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재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허락하신 것 말고는 아무것도 감히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붙들려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 육신이 다스려서 우리가 이것저것에 CO 298 휩쓸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이것은 온 세상에서 아주 잘못 실천되는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자기 소원을 품습니다. 많은

76. 원문에는 시편 62편 9절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1절로 세는 프랑스어 성경의 절수이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의 정신에는 그런 헛됨이 있어서 그들은 이것도 저것도 구하고,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지어내고 쌓아 올릴 뿐 결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악덕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친근하게 그분께 나아오라고 초대하시는 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잃습니까? 그분이 그들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면 거기서 짐을 벗을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77] 사람들이 이렇게 멀어지고 물러선다면 너무 큰 비뚤어짐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흔한 일입니다. 각자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잘 살펴보십시오.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지 않은 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한숨짓게 하는 어리석은 욕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극단으로 기웁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둔한 사람처럼 남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 규칙도 선택도 없이 이것저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로써 우리는, 제가 이미 내놓은 이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주 잘못 알려져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더욱 잘 주목해서, 각자 자기 고삐를 짧게 쥐고,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우리 욕구를 더 잘 다스리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핑계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야 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되면 셈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도록 이끌리고 부추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두어 그분이 우리 증인이 되시게 하기를 배웁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모든 죄를 잘 살펴서, 우리 위에 온전히 다스리셔야 할 분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모든 것을 정죄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욥이 하는 말로 돌아갑시다. 그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시고 손을 펴서 자기를 끊어 버리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말들이 무엇을 겨냥하는지 간단히 보여 드렸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들게 하지 않고 단번에 멸하신다는

77. 벧전 5:7.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사람이 훨씬 나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까? 그에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고통을 견뎌야 할 때 그것이 길지 않으면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여기서 더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자신을 보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 대적으로 느낄 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시듯 산들이 우리 위에 무너지기를 바랄 것입니다(눅 23:30). CO 299 우리는 온 세상이 뒤집히기를 바랄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거슬러 그토록 무섭게 보이지만 않는다면, 차라리 모든 피조물이 우리를 거슬러 일어나 각각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우리가 끝없는 위험을 지나가야 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바라본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둔하고 굳어 있고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병에 짓눌리면 그들은 "아이고" 하고 소리칠 것이고, 가난이나 기근이나 다른 무엇이 있으면 각자 자기 몫으로 탄식할 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 주시며 우리를 박해하실 때의 이 영적인 고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 양심이 너무 잠들어 있어서, 욥이 내놓는 것처럼 그토록 무서운 하나님의 손이 무엇을 뜻하는지 맛본 사람을 백 명에 한 명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그런 고난에 맞서 지금보다 더 잘 무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동안 우리를 아끼시더라도 그분이 끝을 위해 우리를 남겨 두시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관심하게 잔치하며 지낸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심판이 무엇인지 느끼게 하려고 애썼을 때에도 그들은 그것을 모두 조롱거리로 돌렸을 것입니다. 죽음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다를 꺾으셔서, 그들이 농지거리에 빠져 있던 대신 그때는 지옥의 두려움을 느끼고 거기 갇힌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벼락을 던지셨으니 완전히 삼켜진 것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분께 대들려고 알면서 부풀었던 그 교만을 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재판관이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품는 이 공포에 대해 성경이 말할 때, 그것은 우리 각 사람이 그것을 생각하게 하려는 것임을 배웁시다. "자, 우리가 온통 우리 육신과 현재 삶에 빠져 있으니 몸의 고난이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 성경은 훨씬 더 두려워해야 하고 우리를 더 놀라게 해야 할 고난에 대해 말한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느끼게 하시고 우리 양심을 그분 앞에 소환하실 때다. 그때 그분은 우리 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능한 모든 고난을 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건드리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심판을 피하면 더 나은 대가를 치르리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오히려 기꺼이 거기 머물고, 각자 자기 삶을 살펴서 자기 죄가 거기서 셈에 올려지게 하는 이 순종에 이릅시다. 그러므로

CO 300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때 자기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고 자기 고통 속에서 뜨거워지리라고, 또는 즐거워하리라고 말합니다. 그가 여기서 쓰는 낱말은 '타다' , '뜨거워지다' 를 뜻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즐거워하다' 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그 낱말의 고유하고 꾸밈없는 뜻을 지키려고 "나는 내 고통 속에서 뜨거워질 것이다"로 받아들입시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팔을 펴서 자기를 단번에 끊어 버리신다면 자기에게 위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서서히 갉아먹히는 것, 하나님께서 그분의 힘을 써서 자기를 멸하지 않으셔서 자기 고난이 빨리 끝나지 않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짓눌리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기를 그치지 않고, 그것이 그들의 짐을 덜어 주어 그들이 큰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할 만큼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 더 이상 모르는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자마자 완전히 쓸려 가는 것 말고는 더 나은 위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현재의 고통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온 세상에 그 고통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 크고 지나친 고통에 짓눌리면 그는 다른 사람들의 모든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더위 속에 있으면 식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얼음 속에라도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가 추위에 얼어붙으면 그 고통도 그가 견딘 더위만큼 견디기 무겁고 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춥거나 덥거나 몸에서 그를 괴롭히는 다른 무언가가 있으면 그는 너무 사로잡혀서 반대되는 모든 고난이 자기에게 위안이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감정이 우리를 휩쓸어 가고, 욥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안을 상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바람을 보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합시다. 우리는 한 고난에서 다른 고난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말고는 다른 위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이 우리가 손가락 하나를 잃을 때 인내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손 전체를 잃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온몸을 잃어야 할 때에도 그분은 그것을 잘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그 자체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 자신에게 내버려진다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강하게 하셨다면 큰 산을 져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 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에 넉넉히 충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빠뜨려 죽이는 데에는 한 자 깊이의 물이면 충분하고, 다른 사람은 바다에서도 빠져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 우리가 심연 속에 있더라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CO 301 거기서 건지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종류를 바꾸셨을 때 위안을 얻으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롭고 호의적이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보여 주시지 않는 한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압시다. 그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불안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자가 이리저리 몸을 뒤척일 때, 그는 얼마간 쉼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침대에서 저침대로 옮기게 해 주면 나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병이 그를 더 짓누르는 것을 보고, 조금도 나아지기는커녕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면 우리가 더 나은 대가를 치를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고통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께 우리에게서 손을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받아 주셨을 때,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위안을 얻는 길입니다.

욥이 자기 고통 속에서 뜨거워지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는 자기 고통이 누그러져 위로를 받으리라는 뜻으로 말합니다. 솥 밑에 큰 불이 있으면 솥이 뜨거워질 때 그 속의 고기가 곧 익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기가 거기서 오래 잠겨 있다가 맛이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욥에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시들어 가고 그런 극한에 있어야 할 때, 그것은 우리를 우리 비참 속에서 썩게 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들게 하지 않으실 때 그들이 완전히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길게 하려 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오늘 그것을 주셨으면 내일도 계속 주시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압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면, 좋습니다, 고난은 견디기 쉽습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십만 번 멸하신다 해도 우리는 언제나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에 성경의 이 위로를 느끼게 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드리실 때, 손가락으로 치시든 손으로 치시든, 큰 망치로 치시든, 우리를 시들게 하시든 곧 삼키시든, 그분의 뜻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니 그분의 뜻은 우리 구원을 향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분이 나를 아끼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감추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할 때, 그는 지킬 수 없는 단언을 합니다. 그러나 감정에 휩쓸린 사람들은 CO 302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번에 짓누르셨다면 나는 그분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분께 불평하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분이 의로우시다고 고백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토록 오래 괴로움을 당하고 위안을 얻을 수 없으니 나는 그 점에서 인내를 잃는다." 밝힌 대로,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또 욥은 자기가 더 견딜 수 없고 자기 힘이 다했으며,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은 친구에게서 은혜를 입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저는 이미 욥이 하나님께 돌아가 거기 머물러야 했다는 것을 보여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를 고발한 자들에게 말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잘 경계해야 할 시험입니다. 성령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 앞에 가져오시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곧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비웃으며,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붙이거나 그렇게 하려고 애쓸 때,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매달리지 않도록 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신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그분을 부르지만 그 점에서 속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가증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면 너를 이런 극한 까지 단련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여기서 네가 저주받은 불쌍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본다.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하신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를 자극하러 오면, 그것은 치명적인 역병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특히 그런 시험이 우리 귀를 두드리니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여기 사탄이 와서 내가 하나님께 분을 품도록 불을 지른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간계를 물리쳐야 한다." 그리고 정신을 가다듬은 뒤에는 내가 상대하는 것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우리 탄식을 돌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저를 절망에 빠뜨리기만을 구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는 저를 완전히 쓰러뜨리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 저를 긍휼히 받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제가 견뎌야 하는 모든 것이 사람들 쪽에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거기서 부주의로, 아니 악의로, 속임수나 모욕으로 일하더라도 주님의 뜻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선하고 의로우며 저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 점에서 잘못했고, 그의 잘못이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성령께서는 인내의 거울과 같은 이 거룩한 사람이 여기서 우리 눈앞에 놓이고 바라보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가 거기서 우리 쓰임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CO 303 우리에게 어떤 큰 고난이 닥칠 때마다 이런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압시다. "그렇다, 나는 이 고난을 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방식으로 다루신다면 나는 그것을 잘 이겨 낼 것이다." 거기에 우리 신뢰를 두지 말고, 우리가 인내를 잃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며 그분께 완전히 반역하게 되는 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우리 악덕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이렇게 압시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방식으로 단련하려 하신다면 지금 알려지지 않은 것이 드러날 것이다.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는 모르는 숨은 병이 많다.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을 알고, 그분께 내 안에 있는 그토록 많은 악덕이 들판으로 뛰쳐나와 그분을 거슬러 싸우도록 허락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욥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지 않으신다면 나는 불평하지 않을 것이고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할 때 내리는 이 결론을 함부로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억누르거나 감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요컨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괴롭게 하신다 해도, 나는 그분이 모든 찬양을 받으실 만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주님께서 저를 괴롭게 하시는 것은 정당합니다. 저는 주님의 피조물이고 주님 손안에 있으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저를 처분하십시오’ 하고 알아보려 했을 것이다.” 욥은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단언하지만, 자기를 알지 못한 채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신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매달리지 않기를 배웁시다. 우리가 그런 단언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웃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하고 말할 때 그것은 어리석음과 헛됨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거기까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오만을 비웃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느 쪽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처리하시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이 분별을 언제나 가져야 하고, 그분이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만큼 우리에게 인내의 힘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 힘이 무엇이기에 내가 견디겠는가? 내 힘이 돌의 힘이란 말인가? 내 살이 강철이란 말인가?” 여기서 욥은 자기가 한도를 넘더라도 이렇게 분을 품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이런 탄식을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 편에서 그를 징계하시는 데 지나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것이 그가 CO 304 하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이미 다룬 것을 봅니다. 곧 욥이 이 현재의 고통에 짓눌려서 나머지는 전혀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잘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우리가 그렇고, 경험이 그것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우리 눈이 부셔서 빨강과 초록도 더 이상 분간하지 못하고, 이것저것을 엉뚱하게 늘어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담긴 것을 더욱 지켜야 합니다. 욥은 여기서 “내 힘이 무엇인가?” 하고 말합니다. 그의 힘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알고 거기서 멈춘다면, 그것은 그를 전보다 더 조급하게 만들 뿐이지 않습니까? 욥은 자기 힘이 자기가 견디는 이 고난에서만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이 자기를 샅샅이 살피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잘 조사하면, 그들을 괴롭히고 찌르는 가장 작은 고난도 몸에 관해서조차 큰 고통 없이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말한 이 영적인 고통에 관해 욥이 견디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자기가 이렇게 다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고백하려고 자기 고난에서 덜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상한 방식으로 다루신다는 것,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짓눌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치싸움터에 나가듯이 하나님과 맞서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서 같은 칼이나무언가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욥은 곤두박질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이 무엇인지 물어야 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언제나 헛됨밖에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짐을 질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아래 짓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 고난이 와서 우리를 짓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겉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결론지읍시다. "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위에 손을 대시면 어떻겠는가? 나는 더 무거운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그 때문에 나는 그분을 거슬러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과 영혼을 다 괴롭게 하시더라도, 마치 그분이 우리에게 잘못하시는 것처럼 그분께 불평하여 그분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힘이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분께 CO 305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시기를 구하기를 배울 것입니다. 힘의 영을 가지신 분이 그분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분의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께 붙들리지 않고 그러는 동안 오래 견뎌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공격에 우리가 곧 쓰러지리라는 것을 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누르시려고 고난을 오래 끄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하루, 아니 한 시간만이라도 참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보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길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고, 더욱이 완성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그분만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쓰러졌을 때에도 우리를 일으

켜 주시기를 구하도록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약함을 생각해야 하고, 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도를 지키지 않으신다고 말하려고 그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거슬렀고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분의 매 아래서 나아지는 대신 우리가 더 나빠진다는 것을 압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드리시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악의 극한이요 절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악덕을 고치려 하실 때,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마귀 같은 오만을 꺾으셔야 한다는 것을 배웁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이 보내실 모든 징계에서 결코 유익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알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싫어하고 치료법을 찾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 나의 하나님, 제가 너무 약하고 연약해서 제 안에 헛됨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주님께서 저를 강하게 하기를 기뻐하신다면, 주님께는 돌이나 강철의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모든 돌과 바위가 와서 부딪치고, 폭풍과 비바람이 있고, 온 세상이 심연으로 녹아내리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 주님의 힘은 언제나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를 주님의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제가 본성상 연약하더라도 우리를 공격해 오는 시험과 싸우는 데 지 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 교훈에서 많이 진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분량을 넘으셔서 우리가 숨 돌릴 틈도 없을 만한 시험을 보내셔서 우리가 “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그렇습니다, 백 개나 보내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소리쳐야 할 때에도 그렇다는 것을 압시다. 우리 본성이 거기서 쓰러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분을 불러 우리 고난 가운데 도우시기를 구할 때, 그렇게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인내로 모든 것을 이겨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사람들은 고난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손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닥칠 싸움에 맞서도록 그분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분의 영의 능력으로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비참을 꿋꿋이 지나가, 하늘에 그들을 위해 마련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진 그 영원한 안식으로 거두어지기까지 이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25편

욥기 6장 설교 3

CO 33:306–319

> 내 형제들은 시내처럼, 골짜기를 지나가는 물처럼 나를 속였네. 그물은 얼음으로 탁해지고 눈이 녹아 넘치다가, 가뭄이 들면 줄어들고 더위가 오면 제자리에서 사라지네. 이리저리 여러 길로 흩어져 사라지고 없어지네. 데마의 길에서 그것을 본 이들이 기다리고, 스바로가는 이들도 바랐지만, 그곳에 이르러서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바라던 곳에 와서는 낯을 붉히네. 자네들도 내게 그런 시내가 되었네. 내 처지를 보고 놀랐기 때문이네. 내가 자네들에게 "무엇을 가져오라, 자네들 재산에서 내게 넉넉히 주라" 하고 말한 적이 있는가?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 달라, 폭군의 손에서 나를 속량해 달라" 하고 말한 적이 있는가? (욥 6:15–23)

이 설교는 13절과 14절 풀이의 나머지와 그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CO 306 우리가 들은 첫째 말은, 너무 짓눌려서 더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그가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더라도 CO 307 너그러이 봐줄 만하다는 것을 겨냥합니다. 욥이 자기를 변명하려고 내세우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나치게 말하더라도 그것을 큰 잘못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고난이 나를 그렇게 몰아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구실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받아들여질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고난이 너무 엄청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내세운다고 해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그러뜨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변명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아무 고려 없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처럼

동시에 하나님을 고발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에는 온전한 경외와 절제로가 아니면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지 아닌지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유를 아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며 결코 한도를 넘지 않으신다는 결론이 나면, 우리가 변명하러 갈 때 그것은 통하지도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유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욥이 이 점에서 잘못한 것을 보니 오히려 치료법으로 갑시다. 곧 우리가 큰 역경을 견딜 때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께 거기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우리 짐을 덜어 주시고, 또 우리가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재난이 우리를 삼키는 구렁텅이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보존되어 완전히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이 알려지고 드러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자랑할 거리를 갖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리석은 높음이 꺾이게 하실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알맞은 때에 우리는 그분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는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잘해 주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를 버린다고 욥은 탄식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충분히 흔한 것이어야 합니다. 고난을 견디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학교에 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구나 자기를 불쌍히 여겨 주고 자기에게 위안을 주려고 생각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야 할 교훈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 변명할 수 없습니다. 흔한 속담들이 그만큼 우리를

정죄하는 데 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지하고 가장 무식한 사람들도 CO 308 모든 사람에게 흔하고 익숙한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는 속담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나는 배우지 못했다, 나는 그것에 대해 경고받지 못했다" 하고 어떤 핑계를 대려는 자들을 책망할 증언을 충분히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을 더 무겁게 해서는 안 되고 그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말할 줄 알면서도 그것을 거의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웃에게 저지르는 잔인함에 대해 우리에게 긴 소송을 걸 필요가 없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점에서는 각자가 자기 재판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긍휼과 인정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이 아주 멀리까지 미친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어떤 사람이 배고프고 목마를 때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몸의 어떤 위안을 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번민으로 흔들리면 그를 위로하려고 애쓰고, 어떤 사람이 고난에 둘러싸여 있으면 그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려고 더 찌르러 가지 말고 오히려 그의 짐을 덜어 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성상 빚지고 있는 인정은 어떤 친절을 베푸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치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고난이 커지도록 갑절로 정죄할 만큼 잔인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비로워야 하고, 성경이 권하듯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롬 12:15) 이웃의 좋은 일을 기뻐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 경외를 버린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을 붙든다면, 우리가 이렇게 물러설 때 우리 안에 하나님 경외가 전혀 없다는 것이 잘 보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여겨지기를 원한다면 그분을

본받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일깨우십니다(마 5:45, 48). 이방인들도 사람이 선을 행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인정을 베푸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닮고 그분께 자신을 맞추는 일은 없다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그분의 해를 비추십니다. 내가 내 형제를, 내 육신과 본성의 거울과 같은 사람을 보는데 그가 고난에 짓눌려 있고 내가 그것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짐승 같다는 표시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불쌍한 비참한 사람들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 CO 309 하나님 경외를 버렸다고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율법의 중요한 조항은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진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마 23:23).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기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 주려면, 사람들과 온전함 가운데 걷고 속임수와 악의에 빠지지 않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또 각 사람에게 그의 권리를 돌려주고, 할 수 있는 한 좋고 옳은 사정을 지켜 주며,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할 수 있는 한 그들의 짐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잔인함으로 가득하여 각자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일은 무시한다면, 그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않는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눈앞에 둔다면, 그분이 우리를 함께 살고 서로 나누도록 여기 두셨다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 것이고, 우리가 서로를 돌보도록 그분이 우리를 같은 본성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알 것이며,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아무도 따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정에서 돌아선 자들은 하나님께도 등을 돌렸고, 더 나아가 사람의 본성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경외를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애써야 한다는 이 구절을 잘 붙듭시다.

일반 규칙을 지키려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아무리 굳어 있더라도 누가 고난을 견디는 것을 보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실제로 바로 그것이 전에 있던 원한과 미움을 깨뜨리고 허무는 구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형통하고 기세를 떨칠 때 미움을 받다가 그가 떨어져서 그의 머리 위에 큰 폭풍이 닥치면, 전에 있던 그 미움이 그쳐서, 그에게 독을 품고 흔히 말하듯 그의 심장과 내장을 먹고 싶어 하던 자들도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고 얼마간 누그러집니다. 고난이 미움을 죽이고 원한을 그치게 하는 구실을 한다면, 묻겠습니다, 우리 이웃이 고난당하는 것을 알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도우려고 갑절로 마음이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찌르는 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므로 인정이 없을 뿐 아니라, 와서 고난을 키우니 CO 310 훨씬 더 지나칩니다. 내가 신음하며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보고 등을 돌린다면 나는 잔인한 것이고, 하나님도 본성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얼마간 위안을 청하는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며 와서 그를 갑절로 번민하게 한다면, 그 사람도 갑절로 잔인한 것입니다. 나도 나대로 크게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쌍한 사람의 목에 발을 올려놓으러 오는 그 사람은 자기가 들짐승이고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을 보여 주지 않습니까? 욥이 탄식하는 그의 친구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려 할 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치지 않기를 배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거기이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여기는지 아닌지 그분이 증언을 얻으려 하시는 곳, 곧 우리가 사람들과 형제애를 행하는 곳이 거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떤 고난을 견디는 사람들을 거슬러 일어나 그들을 더 짓누르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우리가 보다시피

그것은 그들을 무시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대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욥은 한 가지 비유를 씁니다. 곧 그는 자기 친구들을 시내에 비유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언제나 흐르지는 않는 강이 있는데, 거기에 시내가 생긴다. 큰물이 오고 얼음이 얼면 물이 얼어서 큰 덩어리가 보일 것이다. 그리고 눈이 오면 물이 흘러내리고, 시내가 불어나서 둑 안에 머물지 못하고 넘쳐흐르면 사람들은 그것이 언제나 계속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내는 지나간다. 그것은 이리저리 흩어져서 마침내 마른다. 사람들이 데마로 가는 길과 스바로 가는 길에 가면서 거기서 물을 찾기를 바랐다면 그들은 속을 것이다." 그런데 그 우물들은 유다 땅에 비하면 꽤 황량한 곳이었고, 그 사이에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마르고 거의 다닐 수 없는 길이 있었고, 바로 거기서 원기를 회복하려고 물을 찾을 필요가 가장 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그런 시내를 보면 기뻐하며 '우리에게 시원함을 줄 강이 있다. 목마르면 그 물을 마실 수 있고, 그것이 언제나 가까이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마른 곳에 이르러 큰 더위 속에서 원기를 회복하고 물을 얻으리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자기가 속은 것을 본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며 분을 품는다. 자네들이 그렇다." 그가 여기서 이 비유를 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겉보기에 그럴듯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존중받고 이름이 났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CO 311 뒤에서도 보겠지만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들 안에 뛰어난 은사가 있었습니다.

또 욥은 그들의 모든 지혜가 바람의 부풀음일 뿐이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결같은 굳건함을 지니는 것, 곧 들판으로 뛰쳐나가 크게 방패를 치켜드는 한때의 기세를 부리다가 아

무것도 아니게 되는 일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세만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들은 멋지게 과시하다가도 손바닥을 뒤집는 사이에 완전히 달라져서, 때로는 사람들이 “천사들이다” 하고 말하다가도 그들이 물처럼 흘러가 버리고 아무 지속성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 비유를 친구들에게 적용하면서, 그들에게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한결같은 굳건함과 지속성이 없었다고 밝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아주 유익한 교훈을 거두어야 합니다. 곧 때로 마르는 그런 큰 시내가 되는 것보다, 물이 많아 보이지 않는 작은 샘이 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샘이 있다고 합시다. 좋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뿐이어서 물 한 단지 길어 내기도 어렵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그 샘은 언제나 남아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쓰며, 그것은 쓸모가 있고 마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럴듯한 겉모습이 없고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받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샘은 숨겨져 있기도 해서 그 위를 지나가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 그 근원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큰 소용돌이와 큰 과시를 가지고 있다가 마르는 것보다, 그런 작음을 지니면서 그러는 동안 끝까지 가는 지속성이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여기 평온하게 지내며 큰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일하는 사람, 어떤 장인이어서 대단한 평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의 삶에는 나무랄 데가 없고, 그는 신실하게 일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적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셨다면 그는 그들을 기르고, 좋은 본이 되며, 추문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 그의 손이 이리저리 뻗을 만큼 길지 않으니 그가 많은 소란이나 모욕을 일으킬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그는 그의 작음 속에서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좋은 본으로 그들을 굳세게 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작은 일들에서 그들을 위해 힘쓰는 은혜도 주십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과시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의 작음 속에서 사람들이 그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 이렇게 겸손 가운데 머물며 자기 길을 계속 간다면, 그는 작지만 결코 마르지 않는 CO 312 작은 샘에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놀라운 일을 할 것이어서 그들만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놀랍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쇠약함에 이를 것입니다. 성경에 단련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하고 자기를 내세울 만큼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들 삶에도 어떤 그럴듯한 과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물이 섞이고 눈이녹을 때 큰 소리를 내는 시내와 같아서, 큰 샘이 열두 개쯤 거기 쏟아져 거세게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기 멋지게 과시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바라보면, 곧 그가 오래 두고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면, 그가 쇠약해지고 아무 지속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덕의 겉모습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참할 만큼 큰 악덕이 있을 것이어서, 그가 자기를 내세우기만을 구했다는 것, 이 사람을 찌르고 저 사람을 속이는 그토록 터무니없는 잘못이 있어서 온 세상이 부끄러워하거나 그를 비웃으리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한동안 크게 불어났다가 마침내 마르는 시내입니다. 이런 까닭에 제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한다고, 각자 자기를 가까이서 살피고 하나님께 우리 연약함을 느끼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서, 사람들 앞에서 큰 평판을 얻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돌쩌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장 큰 노력은 요한복음 7장(38절)에서 말하는 그 생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이 흘러나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그 근원은 속에 숨겨져 있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배 부르고, 그다음에 각자 자기 분량대로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요컨대 이것이 여기 놓인 이 비유를 우리가 적용해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멀리까지 미칩니다. 우리는 욥이 필요할 때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체하다가 너무 실패해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품었던 기대가 꺾이게 하는 친구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편 41편에서 (9절)[78] 말하듯 식탁의 친구들은 있겠지만 궁핍할 때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여기서 하는 말을 경험합니다. 곧 세상에 많은 시내가 있다는 것, 곧 큰 소리를 내며 요란한 많은 큰물이 있지만 거기에는 아무 확실함이 없고, 그다음에 끝까지 계속될 한결같은 흐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란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매를 맞기 전에 우리에게 경고하시니 그것을 생각합시다. 곧 CO 313 사람들은 시내와 같아서, 한동안은 그들이 놀라운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라지고 흘러가 버려서 사람들이 소망을 두었던 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고 우리에게 밝히시고,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 밖에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으로 알 때,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놀라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정신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붙듭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기대에서 어긋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언자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일깨우듯 (렘 2:13) 생수의 샘에 머물기를 배웁시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사람들의 배은망덕을 고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을 담지 못하는 웅덩이와터진 우물을 스스로 파면서, 그러는 동안 그들이 언제나 배부르게 마셔야 할 생수의 샘이신 그분을 버립니다. 누가 어떤 사람에게 큰 약속을 하면 필요할 때 실패할 경우 탄식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그는 내게 산과 기적을 약속했고, 나는 그를 기대했으며, 실제로 그를 섬기려고 애썼는데, 이제 그는 내게 등을 돌리고 나를 무시한다.” 말하자면 이것이 사람들이 흔히 하는 탄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그분께 머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78. 원문에는 시편 41편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1절로 세는 프랑스어 성경의 절수이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돕지 않으신 것이 그분 탓이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에게 물러나창조주보다 거기에 더 신뢰를 두었다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소망에서 어긋나고,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소망을 두었던 자들과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고 낮아지는 것이 지극히 옳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우리는 시내 같은 자들을 혐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묶으셔서 우리가 여기서 서로 짐을 덜어 주고 각자 이웃의 짐 일부를 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멋진 과시만 있고 그러는 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만 걱정한다면, 그것은 자연의 질서를 뒤엎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멋진 단언만 하다가 결국 흘러가 버려서, 그들이 보여 준 물이 눈만 부시게 했고 사람들이 헛되이 그것을 기대했던 자들을 혐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정죄받아 마땅하다면, 모든 것을 망치고 휩쓸어 가는 시내는 어떻겠습니까? 시내가 들과 풀밭을 망치고 모든 것을 뒤엎는 그런 부풀음을 갖느니 차라리 말라 버리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시내가 넘치면 땅의 열매도 집도 나무도 CO 314 다 휩쓸어 갑니다. 또 그 손해는 한 해만으로 끝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땅이 그것을 느껴서 아무것도 심을 수 없게 되고, 모든 것이 모래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시내를 많이 보고, 우리 모두 그것에익숙해져야 할 정도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정의의 지팡이를 쥔 자들은 시들어 가는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강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짓밟고, 모든 정의와 공평을 억누르며, 모든 것을 혼란에 빠뜨리려 하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나는 악인들을 지켜 줍니다. 이런 일들을 길게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눈으로 보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 넉넉하고 땅과 재산이 있어서 그 소득으로 사는 자들, 장사가 잘되는 상인들, 그들은 강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넉넉함으로 그들이 지나가는 모든 곳을

적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넘쳐서 이 사람을 망하게 하고 저 사람을 뒤엎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실수록, 그는 이웃을 해치고 짓누를 수단이 더 많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람들은 이런 실패로 그들을 기대한 자들을 속입니다. 그들은 계곡의 급류 같은 물줄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망치고 뒤엎으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그런 자들이 자연의 원수요 하나님께 대드는 자들이라는 것을 압시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그분께로 끌어당기셔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망을 그분께 두기를 배우게 하신다는 것도 주목합시다. 또 이미 다루었듯이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직무에 대해 권고를 받습니다. 곧 우리가 이 생수의 샘, 곧 우리 하나님에게서 길어 마신 뒤에 우리 안에 이 근원을 가지게 될 때, 이 은혜를 우리 안에 가두어 두지 말고, 그것이 결코 마르지 않는 근원이 되어 그러는 동안 물이 이웃에게도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각자 받은 분량에 따라 공동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을 열매 맺게 하고 가치 있게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은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어 내가 그것을 묻어 두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며, 각자도 똑같이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데마로 가는 길에 이르면 큰 더위에 시내의 물이 다할 것이라고 하는 말도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겨울과 더 습한 곳에서는 물이 많아서 놀라운 것처럼 보였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CO 315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그토록 큰 소리를 내는 허세꾼들에게서 흔히 보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절제 안에 머물지 않고, 넘치고 부풀어서 그들 안에 이길 수 없는 것 이상의 덕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편안할 때 날개를 펴고 이것저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가 오면 그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이 겨울과 습한 곳보다 여름의 큰 더위와 마른 곳에서 더 필요하듯이, 우리 덕도 참된 시험이 올 때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괴롭게 하신다면 그가 인내를 보여야 할 곳이 거기입니다. 또 그가 이웃을 돕는 데 힘써야 한다면 그가 사랑을 밝혀야 할 곳이 거기입니다. 그러므로 매에서 멀리 있을 때 자기를 내세우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은 결국 시내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잘 붙듭시다. 그러나 절도와 분수를 지키며 걷는 사람들은 절제 안에 머물 것이고, 큰 과시도 큰 소리도 내지 않을 것이며, 자기 경계를 넓히려고 멀리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덮이고 숨겨진 샘과 같을 것이고, 이미 다루었듯이 그 샘은 좋은 일을 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거기에 결코 모자라지 않을 것처럼 보일 만한 큰 넉넉함이 있는 것을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이 넘치면서 큰 소리를 내는 그 모든 큰 시내보다 더편리하고 더 많은 유익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기 전에 자기를 과시하고 큰 허세를 부리는 자들은[79] 하찮은 잡동사니일 뿐이고, 우리 편에서는 그것을 생각하여 물러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헛됨에 빠진 사람들에게 있는 이 어리석은 야망이 조롱거리로 바뀌고 그들이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내세우려는 모든 사람이 야망에 이끌린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 안에 바람과 부풀음이 없다면 그들은 지금보다 더 잠잠히 있을 것이고, 큰 평판을 얻기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기 안에서 높아져 있으니, 곧 야망이 그들을 밀고 이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람들의 치욕에 내놓으시고 결국 그들의 경우에 거짓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내가 되지 않고 각자 필요를 위해 자신을 아껴 두도록 우리를 더욱 재갈에 물려 두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기더라도,

79. 원문의 grands limaçons(큰 달팽이)는 1563년 초판에도 그렇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과시와허풍을 비판하는 문맥에 따라 '큰 허세' 로 옮겼으나, 이 관용 표현의 정확한 어감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이 있다, 나는 저것이 있다" 하고 과시하기보다 겸손 가운데 걷기를 더 원합시다. 오히려 우리 자신과 이웃의 궁핍을 돕도록 좋은 쓰임을 위해 아껴 두고, 한동안 헤프게 써서 단번에 모든 것을 내던졌다가 결국 말라 버리지 맙시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CO 316 시내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동시에 자기가 친구들에게 그들의 재산으로 자기를 도와달라거나,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끌어내도록 몸값을 치러 달라고 청한적이 없는데도 그들이 자기에게서 물러섰다고 덧붙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아무것도 달라거나 자기를 위해 몸값을 치러 달라고 청한 적이 없다고 말할 때, 그는 우리가 풀이한 비유를 자기 쓰임에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언제 자네들에게 자네들 재산을 달라고 청했는가? 내가 그렇게 했다면 그때는 자네들이 물러설 수도 있었을 것이네. 더더욱 물이 자네들 쪽에서 마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자네들에게 도와 달라고 졸랐다면 자네들이 샘으로 가는 길을 끊을 수도 있었을 것이네. 그러나 나는 자네들에게 아무것도 청하지 않네. 그런데도 보게, 자네들은 내 재난을 보기만 하고도 눈이 부신 것 같구먼. 그러니 자네들은 그 점에서 자네들이 시내라는 것을 잘 보여 주네." 그런데 이 고발을 붙들어 거기서 유익을 얻읍시다. 우리가 어떤 과시를 해서 우리가 가장 준비되어 있고 가장 유능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웃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그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시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또 궁핍한 사람들을 우리 재산으로 돕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쪽에서 아무것도 줄어들지 않으면서 그들을 얼마간 불쌍히 여기는 것도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대가도 들지 않으니, 우리가 거기에 인색하고 고난을 견디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더욱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욥은 잠깐 동안 그토록 멋진 광채를 지녔으면서도 그들 안에 아무 굳건함이나 지속성이 없었던 자들의 더 큰 위선을 보여 주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날 그와 비슷한 자들에 대한 정죄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부족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자기 것을 내놓기는커녕, 아무도 그들에게 아무것도청하지 않는데도 이웃의 가난을 아는 것을 언짢아하고 싫어합니다. 말하자면 언짢아한다는 것은 그것을 두고 신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한숨 한 번 끌어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불쌍한 이웃이 없어져 버리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들이 견디는 것을 보는 것이 불쌍하고 염려되어서 그들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사람들에게서 물러나게 하는 경멸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비인정이 아닙니까? 여기 끝까지 우리 친구였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가 형통했던 동안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게 하시면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피조물로 쳐다봐 줄생각도 하지 않고, 차라리 새로운 세상에 있어서 CO 317 그런 사람을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다시피 하며, "저 사람이 언제 내게 말을 걸었던가, 내가 언제 그와 말했던가" 하고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합니다. 성령께서 욥의 입을 통해 여기서 그토록 극단적인 위선을 정죄하시니, 우리 자신을 살핍시다. 그리고 큰 사람과 작은 사람에게 있는 고난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베풀어야 할 인정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소환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면 온 인류를 잘 대비하셔서 아무도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각자 만족하며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분은 그런 궁핍을 보내셔서, 그런 결핍과 가난 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따라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여기 아주 편안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는 어떤 가난을 보면 염려에 마음이 움직이고, 궁핍한 사람을 보는 것이 그를 아프게 하며, 자기 재산을 다 나누어 주지는 않더라도 이 사람 저 사람을 도울 것이고, 바랄 만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마지못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 더 부자인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가 궁핍할 때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시듯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긴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어떤 고난에 짓눌릴 때 그들이 남에게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그들에게 되돌려 줄 것입니다.[80]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곧 우리 이웃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도우려고 마음이 움직이고 애틋해지도록 우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우리 재산을 주어 CO 318 의무를 다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궁핍하고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는 사람들을 우리에게서 잘라 내려는 그런 거만함을 지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줍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정이 있는지 시험하려 하시는 곳이 거기라는 것을 압시다. 실제로 우리는, 가난하고 큰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을, 형통하고 편안한 사람들이 세상의 눈에 멋지게 과시한다고 해서 그들을 사랑하여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박수를 보내는 것보다 언제나 더 경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거나 그들의 신용이나 재산이 나 호의를 이용하려는 생각으로만 이웃을 사랑한다면 사랑은 바르게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 곧 가장 필요가 있다고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을 베푸는 것을 따르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또 이 교훈을 우리 자신에게도 넓힙시다. 곧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보내시면 그 때문에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신뢰를 두기를 그치지 맙시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의

80. 마 7:2.

비참과 괴로움으로 이리저리 흔들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지실 만큼 충분히 강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섭리에 온전히 자신을 맡겨 형통할 때나 역경 가운데서나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것에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만 하면 그분이 그렇게 하시리라는 것을 압시다. 요컨대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욥이 “내가 잘못했다면 나를 가르쳐 달라” 하고 덧붙이는 것은 지금 풀이할 수 없으니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26편

욥기 6장 설교 4

CO 33:319–334

> 나를 가르쳐 주게. 그러면 내가 잠잠하겠네.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보여 주게. 바른 말은 얼마나 굳건한가! 그런데 자네들 가운데 책망하는 자가 무엇을 책망하겠는가? 자네들은 말을 뒤엎으려고 논증을 쌓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의 말을 바람에 날려 보내는구먼. 자네들은 고아를 꾀어 속이고, 자네 친구를 위해 구덩이를 파는구먼. 돌아서서 생각해 보게. 내 이유를 보고 내가 거짓말하는지 보게. 돌아서게. 그러면 불의가 없을 것이네. 다시 돌아서게. 그러면 이 일에서 내 의가 드러날 것이네. 내 혀에 불의가 있는가? 내 입천장이 쓴맛을 분별하지 못하겠는가? (욥 6:24–30)

CO 319 가르침을 잘 받는 것, 곧 이치에 복종하는 것은 큰 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들듯이 날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영예는, 우리가 그분에게서 온 것으로 아는 것을 아무 말대꾸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좋고 의롭다고 여기며, 그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진리와 이치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진리와 이치로 아는 것에 온전히 따르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주권도 권위도 갖지 못하신다고 결론지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치를 알자마자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거기에 동의하는 데 고집스럽거나 까다롭지 않을 만큼 자신을 낮추기를 배웠다면, 우리는 평생에 많이 진보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충성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서 맞선다면 그것은 주님과 싸우는 일임을 봅니다. 주님의 진리는 주님의 신적 영광의 참된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경배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의 진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발아래 짓밟힌 것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이 구절에서 다루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르침을 받으면 잠잠하겠다고 단언하고, 자기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보여 달라고 청하기 때문입니다. 욥이 여기서 자기 인격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공통된 규칙을 준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곧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면 더 이상 입을 열어 하찮은 핑계를 끌어오고 변론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우리에게 하는 말을 반대하지 말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사람이 말하자마자 모든 좋은 교훈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런가, CO 320 그렇지 않은가?" 하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가시 채를 뒷발질하지 말고 그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 우리에게 큰 덕이라고 말했듯이, 그것이 아주 드문 덕이며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압시다. 오히려 우리는 각자 자기 머릿속에서 지혜롭고 싶어 하는 어리석은 주제넘음을 봅니다. 그 위에 마귀 같은 고집이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유죄가 입증되고도 남는다고 일깨워 주어도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고 낯이 두꺼워서 모든 이치에 어긋나는 것을 고수하려 합니다. 지지만 않으면 그것으로 그들에게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는 말을 더욱 잘 주목해야 합니다. 욥이 여기서 자기 덕을 다루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할 거울이요 본으로 여기서 우리 눈앞에 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상에 빠지지 말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 잘못을 책망받을 때에도 평온하게 들읍시다.

그런데 욥은 그것을 특별히 다룹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있는 어리석은 오만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고 생각을 잘못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자기를 휩쓸어 가는 수많은 터무니없는 일에

뛰어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짐승처럼 되어 하나님께 대들듯이 흥겨워하며, 고집스럽고 결코 지지 않는 것을 자기의 모든 영광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누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내놓을 때 "이것이 내가 생각한 것이니 나는 그것을 고수하겠다" 하고 말하는 그런 굳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집스러워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우리가 그런 완고함을 가지고 우리 계획을 고집 한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역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 문을 닫아걸고 "그분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구원에 좋은 것을 보여 주려 하셔도 우리는 그 은혜를 물리치겠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온유한 영을 가져야 한다는 것, 곧 평온한 정신을 가지고 그분께 다루어지는 것을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백성을, 목자의 음성을 따르고 그가 부르자마자 그것을 듣는 어린양이나 양에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요 10:4–5). 그러므로 CO 321 책망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정을 받아들이기를 배웁시다.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아는 모든 것에 우리를 맞추기를 배웁시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루었듯이, 이렇게 고집스러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조롱과 치욕에 내놓으시고, 그들이 더 이상 아무 부끄러움도 절제도 없이 거기서 들짐승처럼 되도록 허락하시며, 사람들이 그분의 뜻에 따르려고 자신을 맞추고 목을 숙이지 못할 때 그런 굳은 마음에 대해 보복하십니다. 욥이 '잠잠하다' 는 이 말로 뜻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르칠 수 있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으며, 언제나 "아멘" 하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잠하면서도 그러는 동안 어떻든 자기 공상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따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말하면, 그는 거기서 침울하게 있을 것이고,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게서 말 한마디도 끌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잠잠함에도 반역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이 잠잠하다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은 권고를 받았을 때 반박하려고 하지 않는 것, 누가 한마디 하면 반대로 세 마디를 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는 말을 그저 듣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경에서 '잠잠함' 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고 명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소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은 일어나는 그만큼의 소음이 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귀 기울여지시지 못하고 들려지시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때 말하기와 잠잠하기를 배웁시다. 먼저 잠잠하기를 배웁시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가로막지 말고, 귀를 기울이며, 말대꾸하지 않도록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또 말하기도 배웁시다. 곧 하나님의 진리가 좋고 나무랄 데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116:10)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리라" 하고 말하는 대로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런 증언을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거기로 이끌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무지한 사람들이 덕을 세우고 우리가 한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스승의 직무를 행하려 하실 때 그분의 교훈이 받아들여지도록 쓰여야 합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을 실천해야 할 때가 있었다면 오늘이 그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무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둠 속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한번 CO 322 생각한 것을 고수하려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잘못 배워서 우리 온 삶에 혼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 잠잠함을 그분께 드리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자기들에게 내놓는 것을 평온하게 들을 수 없어서 무지 속에 머무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거슬러 일어나는 그들의 그 성급함을 정당하게

벌하십니다. 또 우리는 일들이 어디서나 너무 뒤죽박죽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을 듣고 그것을 우리 쓰임에 적용하도록 잘 준비되고 침착하지 않으면, 우리가 길 잃은 짐승처럼 되리라는 것을 봅니다. 각자 이리저리 헤매겠지만 바른 길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르침을 잘 받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온유한 정신을 가질 필요가 그토록 크다는 것을 보니, 우리 안에 어떤 야망이 있는 것을 볼 때 일어나는 이 모든 어리석은 감정을 억누르기를 배웁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내세우려고 자기에게 알려진 진리를 반박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끓어오르고 변덕스러운 정신을 지녀서 결코 그들에게 재갈을 물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악덕을 알아볼 때, 그것을 고치기를 배워서 우리가 잠잠하는 것, 곧 좋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까지 거기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아무것도 가로막지 않게 합시다. 첫째 절에 대해서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또 "나를 가르쳐 주고,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보여 주게" 하고 말합니다. 그로써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정과 좋은 교훈을 받아들이는 데 온유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 지혜와 분별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교황권 안에서 단순함을 핑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아, 단순함 가운데 걸어야 한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이 흰 것과 검은 것을 분간하지 않고 짐승처럼 끌려다니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믿는 사람들에게 분별의 영을 약속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미끼에 꾀여 이리저리끌려다니거나 불쌍한 눈먼 사람처럼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그것에 순종하도록 그것에 대한 앎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또 누가 우리 잘못을 일깨워 줄 때 우리가 참으로 경고를 받아 선을 따르고 악을 피해야 합니다.

여기 놓인 '가르치다' 는 말이 담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주 유익한 경고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길 사람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신하지도 CO 323 거기서 아무 굳건함도 갖지 못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진리가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인 쳐져서 우리가 온전히 확신해야 합니다. 요한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 하고 말하는 대로입니다(요일 5:19). 그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거나, 혼란스럽고 얽힌 의견을 품었다고 말하지 않고, 앎에 대해 말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의 육적인 이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여기에 우리 감각이나 정신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사람의 모든 역량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잘 확신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모든 말을 단순함을 핑계로 이유도 방법도 모른 채 함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놓는 것을 부지런히 캐물어야 하고, 어떤 교훈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거기에 머물기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때는 더 이상 말대꾸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입을 열려 한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르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변장시키려는 자들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욥의 본을 따라 무장하여, 하나님과 그분 말씀의 원수들이 우리 믿음을 뒤엎고 돌려놓으려고 애쓰는 모든 악한 비방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보십시오, 교황주의자들은 우리를 거슬러 심한 욕설을 써서 우리가 땅이 우리를 떠받칠 자격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는 동안 무엇 때문인지 보여 줄 일은 없고, 그들이 무지한 사람들의 귀를 선점해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반박하고 그들이 만든 모든 전통에 복종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말하든 그는 자기 공상을 끌어오려고 나서지 말고, 자기가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는 것이 알려지도록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황주의자들이 소리치고 거품을 내뿜을 때에도 우리는 언제나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교훈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스승으로 세우신 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목자라고 부르셔서 우리가 그분의 양 떼가 되고, 그분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며, 우리가 낯선 자들의 음성을 내 치게 하십니다. 또 이 권고로 무장해야 할 것은 교황주의자들에 맞서서만이 CO 324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비참한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그토록 많고 여러 가지인 원수들에 맞서려면 꺾이지 않는 꿋꿋함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은 악을 고발하고 정죄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공공연히 눈감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심연에까지 이르러서, 나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덮고 심지어정당화하며, 좋은 것이 있으면, 아, 그것은 정죄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예언자를 통해 선언하신 그 끔찍한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다"(사 5:20).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기는커녕, 말씀드렸듯이 악은 눈감아 주고, 그렇습니다, 정당화하며, 선은 억누릅니다. 어떤 사람이 한두 번이 아니라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대들 만큼 잘못했어도, 그에게 어떤 의식의 겉모습만 있으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와서 "봐라, 네가 잘못했다" 하고만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집의 하인이 자녀들과 짜고 몰래 술을 마시고 탐식하며 온갖 나쁜 짓을 했는데, 좋습니다, 잘못이 드러나면 자녀들이 "네가 잘못했다" 하고

말하는 척하지만, 그러는 동안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런 방탕과 못된 짓을 공모했던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악이 더할 나위 없이 엄청날 때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이런 의식을 씁니다. 그리고 반대로 단순함과 정직 가운데 걸었고 하나님의 사정을 지켰던 사람들을 정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나가서 정죄를 받을 것이고, 그러는 동안 악인들은 눈감아 주고 편들어 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든 자들을 담대히 비웃고, 하늘의 재판관 앞에서 그들을 망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데 쓰일 이 지팡이를 가집시다. 곧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면 다루기 쉽고 평온하지만,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진리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바꾸려고 애쓰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런 모든 행태를 혐오하고 언제나 우리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바른 말은 굳건하니, 책망하는 자가 무엇을 책망하겠는가?” 이로써 욥은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지면 사람들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하든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남으리라는 것을 보여 주려 합니다. 악인들이 그를 완전히 멸하려고 애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는 언제나 그의 굳건함 가운데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CO 325 걷고, 우리 안에 아무 위선도 없었다는 좋은 증언을 가지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에게는 버틸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기를 그치지 않으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욥이 여기서 말하는 이 정직이 있을 때 악인들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르고 한결같이 행한 사람들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특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거짓 비방으로 짓눌리고 명예를 더럽혀져서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더 이상 정직도 공평도 다스리지 않는 비뚤어짐을 우리가 보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언자 이사야가

탄식했던 때에 이르렀습니다(사 59:14). 곧 정의가 공공연히 억눌리고 공평과 진리가 세상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서 악이 커지고 점점 더 넘치는 것이 보였을 때, 뒤죽박죽인 일들을 밝히려고 한마디라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모두가 언제나 악을 키우려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가 지금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기 헤아릴 수 없는 특권이 있습니다. 곧 세상이 우리를 혐오하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람들이 우리 얼굴에 침을 뱉고 모든 이치를 짓밟더라도 우리가 버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도 놀라서 탈선하지 말고, 우리를 지키기에 충분히 강한 이 진리 안에 언제나 뿌리내리고 세워져 머뭅시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에게 밝히는 대로 언제나 바른 말을 가지기를 배웁시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편에 계실 것이고, 그분의 진리가 너무강해서 결국 이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변덕스럽고 생각 없이 나아가므로 진리가 언제나 기세를 떨치지는 못하고 무너진 것처럼 보일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듯 주님의 날이 빛날 때까지 참읍시다(고전 4:4–5). 그는 거기서 그렇게 엉뚱하고 혼란스럽게 판단하며 그에게 이런 비난을 퍼붓는 자들의 오만을 비웃으면서 그날에 호소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겠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게 씌워진 거짓 비방을 드러내실 것이다. 날이 밝기 시작하면 정직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비방하는 자들이 유죄가 입증되며 모든 것이 그들의 수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짓 없이 진실하게 걸었을 때 우리를 발로 짓밟으려고 애쓰는 모든 간사한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이 좋은 것을 베푸신다면, CO 326 믿음과 하나님 섬김과 구원의 교훈이 문제일 때에는 더더욱 우리가 그렇게 머물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굳건한 꿋꿋함을 주셔서, 마귀가 모든 힘을 쏟아도 우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약속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에 있는 소란을 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굳건하지 못한 것은 누구 탓입니까? 왜 우리는 그토록 많은 사람이 탈선하는 것을 봅니까? 그들에게 이 정직이 없고, 사탄이 그들에게 걸어올 그토록 많은 공격에 맞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권고하면 그들은 교정을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아무도 그들을 괴롭히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해치려 하지 않고 추문을 일으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가 기세를 떨치고, 단순함과 공평 가운데 걸으려면 한쪽에서 찔리고 다른 쪽에서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 것을 보면, 그때 그들은 탈선하여 모든 바람에 굽힙니다. 그런 변덕이 어디서 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정직이 그들 마음에 잘 뿌리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확신하지 못하는 변덕스러운 사람들을 많이 보는 원인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바람에 도는 바람개비같거나[81] 굽는 갈대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그분 진리의 능력을 결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너무 강해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그가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소란을 일으켜도, 어떻든 우리는 버틸 것이고 우리 상태에서 꿋꿋이 머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여기서 말하는 그분 말씀의 능력, 곧 그것이 꺾이지 않는 요새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으로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실제로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무지한 사람들처럼 "나는 어느 쪽으로 돌아서야 할지 모르겠다. 사람들의 반박을 보니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말한다" 하고 말하지 맙시다. 여러 다른 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그렇게 시험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바울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드러나고, 그들이

81. 원문의 viroirs는 1563년 초판에도 같은 어형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모든 바람에 도는" 것이라는 설명에 따라 '바람개비'로 옮겼습니다.

결코 거기서 돌아서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에 붙어 있는 이 꿋꿋함을 지니게 하려면 이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고전 11:19). 그러므로 많은 싸움과 논쟁이 있다고 내세울 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정직의 굳건함이 어디서 드러나겠습니까? 곧 이 진리가 그토록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으며, CO 327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가 아니면 어디서 드러나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고 할 때, 그것은 그 말씀이 하늘에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폭풍과 회오리바람에 흔들리더라도 우리 믿음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로입니다(벧전 5:9).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공격에 맞설 만큼 강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다" 하고 말하는 대로입니다.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요일 5:4)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학교에서 잘 진보하기를 원합니까?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따를 뿐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런 일을 하겠다" 하고 단언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귀가 내게 걸어올 시험에 맞설 능력을 주실 것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쓰러지지 않으리라고 굳게 결심하기를 배웁시다.

또 "자네들 가운데 책망하는 자가 무엇을 책망하겠는가?" 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아무리 술책을 부리고 온갖 예리함과 악의를 써도 결코 진리를 억누르지 못하리라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애쓰지 않고 자기를 강하게 할 무언가를 지어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분 백성의 사정을 지키시고 마침내 진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악인들이 힘을 쏟을 것이고, 때로는 그들이 모든 것을 이긴 것처럼 보이기도 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세상의 배은망덕을 벌하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딤후 3:13). “악한 자들과 교회를 해치는 자들은 점점 더 나아가고 불어날 것이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고삐를 풀어 주셔서 마귀의 앞잡이들이 이렇게 나아가 다스릴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유 없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배은망덕을 보기 때문입니다. 알면서 속기를 원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온전히 순수하게 그들을 가르치면 언짢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얽혀 있기를, 그렇습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알아보거나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흔히 말하듯 두 얼굴을 갖기를 바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는 것을 참기는 하지만, 거기에 잘 뿌리내리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것이 그들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악의를,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무관심을, 심지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두시는 이 밝음을 꺼 버리는 노골적인 반역을 보시니, 그분이 악인들과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CO 328 변장시키는 자들에게 고삐를 풀어 주신다고 놀라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진리를 가르치신 사람들을 끝까지 굳게 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책망하는 자들이 아무리 애써도 마침내 그들이 유죄가 입증되고, 하나님께서 옳은 쪽 편이심을 보이시리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의 교훈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삶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하는 말입니다. 구원의 교훈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기서 그분의 능력을 보이셔서, 그분 입의 영으로 악인들을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멸시했던 이 말씀이 그들을 죽이고 멸망에 두는 칼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그 점에서 그분의 능력을 펼치셔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일들에서도, 우리가 사람들 쪽에서 부당하게 짓눌리고 우리가 지지를 받아야 할 곳에서 정반대인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그치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동안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 악밖에 없는 것처럼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을 우리 온전함의 좋은 증인으로 가진 것으로 만족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두운 어둠을 쫓아내시고 우리 무죄를 빛나게 하셔서 그것이 새벽처럼 알려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립시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동시에, 위로한다는 핑계로 온 그의 친구들이 거룩한 말, 곧 바른 명제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말을 쌓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의 말이 바람에 날아가게 한다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욥은 자기를 그렇게 신랄하게 몰아붙이던 자들을 극도의 악의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점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지 않고 그분께 공공연한 전쟁을 걸듯이 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보여 주신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좋은 말을 뒤엎으려고 예리해지려 할 때, 특히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거슬러 일어날 때, 그들을 절망에 빠지도록 부추기려는 그런 오만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악덕입니다. 그런데도 이 악덕은 너무나 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여기서 밝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사람들이 어떤 고안물을 쌓을 때, 곧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공평이 뒤엎어지고 진리가 더 이상 알려지지 않고 설 자리가 없게 하려고 무언가를 지어내고 그런 핑계를 가질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 와서 부딪치고 그분을 상대편으로 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CO 329 그것을 생각하여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전쟁을 걸고 있다" 하고 말한다면, 그들은 소름이 끼치고 머리털이 곤두설 것이며, 그것이 그들을 붙드는 재갈이 되어 그렇게 함부로 뛰어들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토록 잘못 생각하니,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을 받아들입시다.

그러므로 이것이 요컨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곧 사람들이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 우리는 판단을 보류해야 합니다. 어떤 말이 오갈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닌지, 참된 것인지 듣고 깨달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분별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말대꾸가 없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덤비는 상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무턱대고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악한 양심으로 그렇게 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딪치러 간다" 하고 말할 만큼 그런 직접적인 의도를 가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선을 거슬러 일어나고 좋은 사정을 억누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압니다. 그들은 그것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에 그저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은 분명한 악의로 하나님을 거슬러 싸웠다는 것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펴보면,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날마다 하나님께 치명적인 전쟁을 걸고 그분께 대들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선을 악으로 바꾸려는 많은 술수 없이 소송이 재판에서 다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곳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특권을 받은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더할 나위 없이 추하게 더럽혀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너무 짐승 같은 뻔뻔함이 있어서 사창가의 창녀들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들을 변장시키고, 그렇습니다, 너무 왜곡해서 모든 공평과 정직에 문을 닫아걸기로 공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러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척하려 하고, 악이 너무나 드러나고 분명할 때 그것을 덮으려 합니다. 그것은 마치 해를 어둡게 하려고 재를 한 줌 던지고 "이제 날이 밝지 않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들이 더할 나위 없이 알려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게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특히 재판석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마귀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순수하게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는 데 바쳐져야 할 하나님의 성전들이 우상으로 가득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부패와 악취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CO 330 요컨대 사람들의 온 삶에서 일들을 변장시키는 것밖에 없고, 우리가 말한 그 한결같음과 정직은 더 이상 소식도 없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 또는 멸시받는 사람의 말이 바람에 날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나는 원인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이 자기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자기 머릿속에만 지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다툼에서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 애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자기가 받아 마땅한 벌을 피하려 할 때,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려지지 않도록 곧바로 멋진 아첨과 뇌물을 쓸 것입니다. 돈 문제든다른 문제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그것을 거짓으로 바꿀 때 자기 이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믿음의 교훈과 복음이 문제일 때, 그토록 많은 반박의 원인이 무엇이며, 오늘날 와서 자기 궤변적인예리함으로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궤변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흔히 말하듯 찬성과 반대를 다 말하며 자기를 내세울 만한 머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있는 교만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여기서 이 교만과 주제넘음을 지적하려 하셨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진리를 거슬러 싸우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이 오만에서 벗어나고, 이웃을 업신여겨 발아래 두지 말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우리보다 더 많이 계시하셨을 때 그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여 주는 대로입니다. 예언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

람들을 가르치는 은혜를 주셨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많은 앎을 주신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기를 꺼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82] 그러므로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욥은, 자기 친구인 체하는 자들이 붙들어 주어야 할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구덩이를 파기만 하고, 고아를 꾀어 속이려고만 한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는 고아가 자기를 지킬 방법이 없어서 먹이처럼 내놓여 있으니 이 비유를 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끝까지 고난을 당한 사람으로서 욥은, 우리가 비참한 사람들, 곧 어제 말했듯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 만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쓰지 않는 한 하나님의 손과 그분의 보복을 피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CO 331 그러나 결론으로 그는 그들에게 돌아서라고 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불의가 없을 것이네. 다시 돌아서게. 그러면 이 일에서 내 의가 있을 것이네." 욥은 이렇게 권하면서 우리가 어떤 의도로 악을 정죄하고 책망해야 하는지 잘 보여 줍니다. 곧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을 돌이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악덕 속에서 망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거스른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더 큰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오도록 그것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거스른 자들이 그분의 심판과 보복을 깨닫는 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들을 위협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할 때, 그들을 회개로 이끌려면 그들을 부끄럽게 하도록 깊이 찔러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는 언제나 여기서 보여 주는 이 목표, 곧 그들을 끌어오는 것을 향해야 합니다. 욥이 이런 방식을 지키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서게, 그러면 불의가 더 이상 없을 것이네" 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너희 안에 더 이상 불의가 없을 것

82. 고전 14:30.

이다" 하는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돌아서라, 그러면 불의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다시 돌아서라, 그러면 내 의가 여기서 알려질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 더 이치에 맞습니다. 마치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네들이 나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정죄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처럼 보이게 한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속으로 부르짖었는데 자네들에게서 들어 주는 귀를 얻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가? 자네들이 모든 이치에 등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네. 그러니돌아서게. 그러면 내 의가 자네들에게 분명해질 것이네." 이것을 우리 가르침에 적용하면 더 잘 이해될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선을 정죄하고 악을 인정할 때 그것이 순전히 우리 잘못에서 비롯되며, "보라, 나는 속았고 실상을 알지 못했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받습니다. 이것이나 저것을 내세우지 맙시다. 우리가 선을 정죄하고 악을 인정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유죄로 여겨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을 떠서 그분이 보여 주시는 것을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고 밝히심으로써 우리 유죄를 입증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진리 대신 거짓을 따릅니까? 그들이 너무 눈멀어서 무엇이 좋은지 알아보지 못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분명한 악의나 위선이나 무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눈이 이렇게 후벼 파여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없도록 허락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친근하게 우리를 가르칠 준비가 되어 계셨을 때 CO 332 우리가 마땅히 잘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조항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치료법은, 우리가 이렇게 휩쓸려서 분별의 영이 없었고 심지어 악을 인정하고 그것을 키웠을 때,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되게 품은 것에 머물려고 고집스럽게 굴지 맙시다. 그렇게 눈부셔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추시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출구가 없는 심연에 떨어지고 싶지 않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은 모든 혼란의 절정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잘못을 알았으면 고삐를 돌리도록 조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그분께 귀를 기울이면, 그분은 우리가 언제나 악 속에서 길을 잃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돌이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동안 욥이 덧붙이는 "다시 돌아서게, 그러면 내 의가 드러날 것이네" 하는 말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는 두 가지를 뜻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래,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고 마치 의식처럼 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거슬렀고, 고칠 수 없는 악의 원인이 되어 그 상처가 피를 흘릴 수밖에 없고, 교회에 어떤 추문과 혼란이 있었던 자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신성모독의 죄가 있는 자들은 와서 "내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고 말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조롱일 뿐입니다. 그들이 어떤 열심과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지 사람들은 잘 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가 있다는 것이 알려질 만큼 돌아오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욥이 한 번 "돌아서게" 하고 말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두 번째로 돌아서게" 하고 말할 때 보여 주려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불의를 드러내셨을 때, 우리를 선에서 돌아서게 한 어떤 나쁜 생각이 있었을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잘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 가르침에 적용하면 더 쉽게 이해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동안 하나님의 진리와 좋은 길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망설임이나 어떤 나쁜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이상 맛이 없고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언짢아하게 하려고 이것저것을 우리 앞에 내놓는 그런 술책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면 더 이상 불의가 없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전처럼 그분의 말씀에 싫증 나 거나 언짢아하지 않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CO 333 사람들이 돌아올 때 불의가 그칩니다. 그러나 좋은 길에 들어섰어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두 번째로 돌아와야 합니다. 곧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아,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나는 절망적인 불쌍한 피조물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나를 긍휼히 받아 주기를 기뻐하셨으니, 나는 온전히 그분께 나 자신을 맡기고, 앞으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두 번째로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각자 자기를 생각하여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이 한번 우리를 그분의 진리로 가르치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를 굳게 하셔서 우리가 결코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마귀가 결코 우리를 거기서 돌아서게 하지 못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27편

욥기 7장 설교 1

CO 33:334–345

> 땅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때가 있지 않은가? 그의 날들은 품꾼의 날들과 같지 않은가? 종이 그늘을 바라보고, 품꾼이 자기 수고의 끝을 기다리듯이, 나는 헛된 달들을 얻었고, 수고로운 밤들이 내게 정해졌구나. 누울 때면 나는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하며, 침상에 있으면서 저녁까지 괴로움에 배부르구나. 내 살은 벌레와흙먼지를 옷 입었고, 내 피부는 온통 터지고 썩었구나. 내 날들은 베틀의 북처럼 달아나고, 소망 없이 다하는구나. (욥 7:1–6)

CO 334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악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자신의 잣대대로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여리고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자마자 그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인내심이 많은 사람들조차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면, 바로 그때 우리의 불평이 드러나고 더욱 밝혀집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내용입니다. 욥은 자기의 고통이 너무 오래 계속된다고 탄식하면서, 사람에게는 정해진 때가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 위에 두신 것은 우리가 지금 겪는 이런 불안 속에 두시려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비참함을 끝낼 어떤 때가 있다. 그런데 나는 밤이나 낮이나 아무 쉼도 안식도 없다. 그러니 내 처지는 다른 사람들의 처지보다 더 나쁜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인간 삶의 조건이 감당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괴롭히시려는 것 같다." 이것이

그의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연결됩니다. 곧 우리는 처음에는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시달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기꺼이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껴 주시기를 바라고, 그분이 손가락 끝으로 우리를 건드리시자마자 손을 거두셔서 우리의 고난이 오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새겨 두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욥이라는 인물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어떠한지를 거울처럼 우리 눈앞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몸의 연약함이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욥은 사람들 가운데서 놀라운 덕과 꿋꿋함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봅니다. 그렇다면 연약함밖에 없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지탱할 덕을 겨우 세 방울 받았을 뿐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그토록 강하게 하셨던 욥조차 이렇게 꺾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땅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이 가르침을 따라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데 유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두려움과 조심함으로 행하는 일에 관해서도 이 가르침이 우리를 맞이해야 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욥이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며,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가르침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벧전 1:17).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시고

CO 335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심판하시며, 우리가 언젠가 그분 앞에서 셈을 드려야 하므로, 우리는 두려움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모양으로 죽을 인생들을 만족시킨다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처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가혹한

조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이 나그네 길 동안이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해야 할 때를 정해 준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얼마간의 위로를 주어서, 하늘에 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끝없이 길어지고 우리가 이런 처지에 계속 있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아무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자기의 쾌락을 즐기면서 좋은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들은 많은 비참에 둘러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기서 벗어나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안에 가두어 두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젠가 건짐받고 풀려날 소망도 없이 비참하게 지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분하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그 많은 괴로움과 가난과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시고 짐을 덜어 주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너희의 삶은 짧다. 그러니 이토록 짧은 고난을 참으며 견디라. 그러면 마침내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그 안식에 이를 것이다.” 우리가 이 가르침에서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바로 이렇게 이 가르침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모든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 일반적으로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견딜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끝을 두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사 40:2). 거기서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네게 정해진 때가 끝났다.” 그분은 거기서 바벨론 포로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때문에 괴롭게 하시더라도 그들을 아주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며, 그분의 징계에 어떤 한도를 두셔서 그 뒤에 그들이 얼마간 숨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끝까지 몰아붙이려 하지 않으셨음을 알고, 그런 선하심에 대해 그분께 감사하게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서 이 땅에서 늘 고난을 겪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CO 336 정해진 때 이상으로 그것을 늘이지 않으신다는 것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것은 누구나 아는 일처럼 보입니다. 이방인들조차 늘 여기에 의지해 왔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가장 거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일에서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 끝나지 않을 만큼 큰 불행은 없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정해진 때가 있고 그의 날들은 품꾼의 날들과 같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위로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쓸데없는 가르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상상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누르시면 그들은 어쩔 줄 모르게 되고,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심연 속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크고 혹독한 고통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잘 말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앞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죄를 느끼게 하시면, 그분의 심판은 우리에게 너무나 두려워서, 마치 사방으로 우리를 에워싼 미로와 같아집니다. 우리는 빠져나갈 출구를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를 계속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실 것만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건드릴 때 그들은 어쩔 줄 모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만큼 더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고통을 지나가야 한다면 우리의 삶이 지나가는 것임을 생각하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때가 있으니,

그런 조건에 매여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분께 징계를 받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보내실 때에도 이렇게 말합시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누르시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오래 버틸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도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참으며 기다립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소망에서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각자 자기를 돌아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되새겨 주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았더라도 잊어버릴 것이고, 실제로 겪을 때가 되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이것이 끝나기는 하는가?" 하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병들고, 어떤 사람은 가난에 쪼들리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들볶는 어떤 근심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까지나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끝은 결코 없는가?" 우리의 육신과 본성이 이처럼 날뛰고 속을 태우는 쪽으로 기울어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언급된 이 정해진 때를 우리에게 두신 것이 이유 없는 일이 아님을 압시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이것을 주목합시다. "사람에게는 정해진 때가 있지 않은가?"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때를 미리 정하시는 분은 CO 337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좋고 맞는지 모르신다면, 우리 비참함의 때가 그분의 손과 다스림 안에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속이 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아시고, 우리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면 그 짐 아래 허리가 굽고 심지어 아주 부서지고 꺾일 것임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보시는 대로 우리를 받쳐 주신다고 선언하

십니다. 또 우리가 늘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아주 꺾일 위험이 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고난의 무게를 잘 조절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런 약속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정해진 때를 기뻐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것을 잘 주목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해진 때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는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그는 잠깐 동안의(고후 4:17) 비참함과 하늘의 영광을 비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고난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하고 끝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보다 저울에서 훨씬 무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심과 조급함과 절망으로 유혹받을 때마다 여기서 말한 것에 의지합시다. 곧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것이 무엇이 좋은지 미리 보셨고, 고난은 그분의 기뻐하심 없이는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다는 것을 압시다. 또한 그분은 공평과 이치로만이 아니라 아버지다운 부드러움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을 압시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아주 넓게 미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로 논하는 것보다 경험에 더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꽤 길게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각자 필요할 때 그것을 활용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토록 많은 가난에 매여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짧게 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평안히 지내는 동안에는, 누구나 삶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보다 짧은 것이 없을 만큼 짧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삶을 가득 채운 끝없는 고난을 생각할 때, 한 고통에서 빠져나오면 또 다른 고통에 들어가야 하고, 늘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때에는 그 길이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것에 의지합시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정하셨고,

우리를 처분하시는 것도 그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분이 CO 338 우리의 약함에 무엇이 맞고 유익한지 아신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언제까지나 여기서 시들어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나그네 길에서 거두실 때 출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안식으로 부르시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끝이 없고, 거기에는 정해진 때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어떤 가난이나 징계를 견딜 때에도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 이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출구를 아시고, 우리가 여기서 짐 아래 짓눌린 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역경 가운데서 손을 내미시기를 기다리자. 그리고 그분이 알맞은 때에 그것을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신하자." 우리는 이 가르침을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우리는 욥이 이 가르침을 잘못 활용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주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제시하신 말씀을 악용하지 않고 그것을 정반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은 우리에게 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위로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괴로움을 덜어 주려는 것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위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전혀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망에 빠뜨리시려고 그분의 믿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 내가 그분의 은혜의 모든 소망에서 쫓겨났다는 것 말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매번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부드러울 수 없을 만큼 부드럽게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누그러뜨려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밀쳐 내고, 오직

우리 안의 고통을 키우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스스로를 쫓아내며 그것을 멀리내던지기만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욥에게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유혹에 매여 있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경고를 우리의 쓰임과 구원에 적용할 줄 아는 분별의 영을 주시기를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한 것을 다루어 봅시다. 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찌 된 일인가? 땅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때가 있지 않은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난하고 비참한 피조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곳에 언제까지나 있게 하시려고 두신 것이 아님을 보며 어느 정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땅에서 견디는 모든 괴로움을 크게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고통에 끝을 두지 않으신다.” 이렇게 욥은 자기의 처지가 다른 사람들의 처지보다 더 나쁘다고 탄식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 CO 339 하나님께서 나를 한도 이상으로 괴롭히신다. 그분은 나를 누르는 고통에서 나를 건지려 하신다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으신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곧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많은 가난을 견디는 것이 마땅하다고 충분히 고백할 것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 우리는 이런 조건으로 이런 목적을 위해 태어났다. 다르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태어날 때 너무나 많은 비참과 가난을 가지고 와서 가엾을 지경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자마자, 그분이 더 이상 아무 한도도 지키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이 바로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해진 때를 우리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돌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욥이 자기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가 하는 말을 잘 생각했다면, 그는 분명 잘못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은, 욥이 재판관이 되려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권위를 빼앗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의도가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능력을 빼앗고, 그분의 권리와 그분이 우리에게 가지신 권위를 가로채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인내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잠잠히 머물러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께 법을 정해 드리거나 당장 이렇게 저렇게 하시라고 재촉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끝을, 그것도 복되고 바랄 만한 끝을 두실 줄 아신다고 우리에게 선언하셨으니,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참으며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예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급하고 온통 끓어오르며 우리의 탄식을 아무렇게나 내던지며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에 아무 끝도 두지 않으시려는 것 같다" 하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그분의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그분이 더 이상 우리 위에 아무 높으심도 갖지 못하게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욥이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그가 인내하는 사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악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인내는 요구되는 만큼 늘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욥이 이 점에서 실패했다면, 그에 비해 이토록 연약한 우리는 스스로를 잘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잘 주목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마다, 고통이 계속되고 길어지더라도, 또 그분이 우리를 곧건지시려는 기색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욥처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기 끊임없는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신다. 그분은 내 고통이 CO 340 끝이 없음을 보신다." 오히려 소망

으로 우리 자신을 기릅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정해진 때는 우리의 욕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 좋은지 아시는 대로 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또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비참함의 끝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아직 훨씬 더 견뎌야 할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하심을 맛보기를 그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죽음의 어둠 속으로 이끌 것이고, 거기서 우리를 비추어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고통에서 건짐받으리라는 소망을 늘 얼마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살후 1:7) 우리가 이리저리 흩어지고 아주 버림받은 것처럼 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거기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모으셔서 그분과 하나 되어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을 활용하여, 우리의 비참함 가운데서 그것을 맛보아야 합니다.

이제 욥이 덧붙이는 말로 넘어갑시다. 그는 자기가 언급한 이 정해진 때로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표현하려고 비유를 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불쌍한 종이 있다.” 그는 오늘날의 하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노예였던 자들을 말하고, 그다음에 품삯을 받고 일하는 하인들을 덧붙입니다. “여기 그늘, 곧 밤의 쉼을 바라는 종이 있다. 그는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이다. 그래, 그 사람은 그늘을 바란다. 또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자기의 하루가 지나가기를 바란다. 한 달이든, 더 길든 짧든, 그는 얼마간쉬려고 자기 기한의 끝을 바라본다. 그러나 나는 아무 그침도 숨 돌릴 틈도 없다. 누울 때면 나는 말한다. ‘어떻게 아침까지 갈까? 언제 일어날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일 년처럼 길게 느껴진다. 사정이 이러하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괴롭히시는 보통의 방식으로 나를 괴롭히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도록 내게 벼락을 치시려는 것 같다.” 이것이 욥의 탄식입니다. 그는 자기의 고통이

지나치고 흔한 고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에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비참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자네도 보지 않는가. 자네는 경험을 알고, 하나님께서 늘 어떻게 하시는지 알지 않는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를 대적하여 그분의 모든 능력을 펼치셔서, 나를 여기서 깊이 빠뜨리시려는 것 같다. 내가 나 자신을 그분이 바로잡으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는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고, 그들은 아직 자기 고통에서 건짐받아구원받을 소망이 얼마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이미 다룬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곧

CO 341 욥은 육체의 고통에만 짓눌린 것이 아니었고, 그의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신다고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이것을 덧붙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살은 내 뼈에 들러붙은 것 같고, 내 피부는 온통 터지고 썩은 것 같다. 나는 여기서 절망한 가엾은 사람처럼 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내 삶은 베틀의 북처럼 지나가고 흘러가 버린다. 그 북은 너무 빨리 달려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 빠르기를 잴 수도 없다. 내 삶이 그와 같다. 일어날 때 나는 온통 어지러워서, 밤이나 낮이나 쉼도 숨 돌릴 틈도 없다.” 그런데 욥이 몸으로 고통을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자기의 재판관으로 느끼고 그분이 자기를 고문대에 매어 두신 것처럼 느끼는 이 유혹은, 그가 몸으로 견딘 모든 고통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토록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 단련된 사람은 매우 적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찾아오시면, 그들은 때와장소에 맞게 이 가르침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정신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것을 주목합시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통이 우리에게 혹독하고 몹시 괴롭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짓눌린 사람들이

견디는 고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하게 나타나시고 그분의 진노와 보복의 어떤 표시를 주실 때, 그들은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일하지 않으시면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하셔서, 그분이 마침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그분을 부를 수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염려와 괴로움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때, 고난은 우리에게 달고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을 닫아 버리는 절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이시며 우리를 핍박하신다고, 그분을 부르는 것은 헛수고이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상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지옥의 심연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욥이 부분적으로, 아주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보다 훨씬 더 멀리 이끄실 수도 있음을 압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아끼신다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임을 압시다. 그분은 욥을 끝까지 시험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토록 엄격한 시험을 쓰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그분의 무한하신 선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CO 342 각자 이런 유혹에 빠질 때 저항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우리가 파도처럼 흔들리더라도, 그런 폭풍 가운데서 용기를 잃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 욥이 아주 물에 잠기고 심연에 삼켜진 것처럼 보였을 때에도 그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깊은 구렁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마침내 거기서 건짐받으리라는 것을 압시다. 우리는 이렇게 싸움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 닥칠 때 우리가 정신을 잃지 않게 하고, 매번

칠 때마다 쓰러질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욥에게 하신 것처럼 알맞은 때에 우리를 도우실 것을 기다리게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미 얼마 동안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계속되도록 허락하실 때, 심지어 우리가 어떤 출구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정반대로 되어서 우리가 결코 거기서 건짐받지 못할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 눈앞에 놓일 이 유혹에 저항합시다.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잘 처리하실 줄 아시고, 그것이 그분의 일이며, 그 모든 것을 그분의 손과 그분의 선하신 뜻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저항합시다. 여기서 욥은 "나는 내 비참함에 끝이 있을지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엄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언제까지입니까?"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참아 주십니다. 다윗이 꽤 자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에 어떤 출구가 있을지 바라보았다면, 또한 서두르지 않는 법을 배웁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어쩔 줄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앞의 것들에는 눈을 감고, 육신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숨겨진 그 출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분의 선하신 뜻에 우리를 온전히 맞추면서 그것을 바라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것이 믿음과 인내를 함께 기르는 유일한 처방입니다. 혹은 우리의 고통이 오래 계속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기서 나오게 하실지 보여 주지 않으실 때에도,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어둠 속의 가엾은 소경처럼 붙들어 두려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의 위로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눈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것들을 바라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제게 숨겨진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욥처럼 "나는 더 이상 아무 대책이 없음을 보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CO 343 말할 때 그는 절망한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울 때면 나는 '언제 일어날까?' 하고 묻는다. 아침에는 '밤은 언제 오나?' 하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짓눌린 양심이 늘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음을 보여 주려고 한 말임을 주목합시다. 모세도 하나님의 율법에 고집스럽게 계속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보복을 다루면서 그렇게 말합니다(신 28:66–67).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생명이 실에 매달린 것처럼 네 앞에 매달려 있을 것이다. 아침에 너는 '누가 나를 저녁까지 살게 해 줄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욥은 여기서 자기가 느낀 유혹에 대해 말합니다. 곧 밤은 그에게 너무 길고 낮은 너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가 일 년보다, 아니 한 사람의 평생보다 더 길게 느껴진다. 나는 그저 시들어 갈 뿐이다. 익숙한 어떤 고통 속에서가 아니라 너무나 무서운 고통 속에서 시들어 가서, 하나님의 손 아래서 쓰러져 간다." 그런데 이 유혹이 욥에게 닥친 것을 볼 때, 제가 이미 말씀드린 처방에 의지합시다. 곧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비참함을 처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가 길게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좋게 여기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께 분을 품는 것 말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욥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입에서 새어 나온 모든 말, 마치 하나님께 분을 품으려는 듯이 하나님을 향해 내던진 모든 말에서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돌아와 이렇게 말합시다. "어찌 된 일인가? 때를 제한하는 것이 네 일이냐? 그것이 네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 않으냐? 너는 그분에게서 그분의 직분을 빼앗으려 하느냐? 가엾은 피조물아, 무엇을 하려 하느냐? 이렇게 감히 나설 때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날개도 없이 하늘 위로 날려고 할 때, 그것은 네 목을

부러뜨리는 일이 아니냐?" 그러므로 겸손하게 행하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좋게 여기고 거기에 순순히 따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그분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모든 일에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서 받아들이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육신으로는 견디기 힘들고 쓰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가 자기 날들이 베틀의 북보다 빨리 지나갔다고 말할 때, 여기에 어떤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자기 삶이 너무 길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날들이 너무 빨리 흘러가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덧붙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너무 격렬한 감정에 CO 344 휩쓸렸다고 대답한다면, 좋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놓인 비유를 가까이서 잘 살펴보면 아무 모순도 없습니다. 이 비유는 이사야서의 히스기야 왕의 노래에도 잘 나와 있는데(사 38:12),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짓눌릴 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더 이상 모른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견디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헤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맹렬하게 몰아치시면, 우리는 거기서 얼이 빠진 것처럼 되고, 늘 살던 대로 있지 못하며, 온통 어리둥절해집니다. "어찌 된 일인가? 그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었단 말인가?" 이것이 이 비유가 담고 있는 뜻이고, 욥이 지금 자기 삶이 베틀의 북처럼 금세 지나간다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너무나 누르는 것을 느껴서, 신음하고 탄식하며 "도대체 무엇인가? 아무 끝도 없겠는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는 그런 두려움과 고뇌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문대에 매어 두신 것처럼, 자기를 징계하시면서 아무

한도도 지키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거기서 깊이 빠진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이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그 안에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자신과 그분을 생각할 얼마간의 쉼을 갖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알고,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는지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시달리게 하실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즐기며,[83] 그것도 그분을 거슬러 일어서려고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잘못을 잘 살필 여유를 주시기를 그분께 기도할 필요가 참으로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얼마간 쉼을 얻고 기쁨을 얻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근심 속에서 재갈을 씹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느끼게 하시려는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그분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잠잠하고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굴레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얼마간 짐을 덜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마 11:28–29).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마다, 우리가 CO 345 우리의 감각과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쉼을 얻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도록 힘씁시다. 그리고 그 쉼을 찾은 뒤에는, 우리가 거

83. 전자본문에는 'en nous essaient' 로 되어 있으나, 초판(1563년) 147쪽의 'en nous esgayant' 를 잘못 읽은 것입니다. 초판에 따라 '즐기며' 로 옮겼습니다.

기에 붙들려 하나님의 징계와 바로잡으심을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선하신 뜻에 순순히 따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분이 마침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견뎌야 할 모든 비참과 고난 가운데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그분께로 거두실 때 우리가 온전히 누릴 그 복된 위로를 누리기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28편

욥기 7장 설교 2

CO 33:345–357

> 내 생명이 바람일 뿐임을 기억하소서.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보던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나는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구름이 흩어져 사라지듯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의 처소도 다시는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입을 아끼지 않고, 내 고뇌 속에서 말하며, 내 괴로움 속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고래입니까? 주께서 나를 이토록 바짝 죄시다니요. 내가 "내 침상이 나를 편하게 하고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리라" 하고 말할 때, 내가 속으로 말할 때, 그때 주께서 생각과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십니다. 보소서, 내 영혼이 내 뼈보다 차라리 올가미와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욥 7:7–15)

CO 345 CO 346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자주 선언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가치로 그분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면,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아시는 가난함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대로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곧 지나가 시들어 버리는 풀과 같음을 보셨다. 사람들은 육체일 뿐이다." 곧 썩음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영일 뿐이다." 곧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 흘러가 버리는 바람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 하므로, 우리도 우리의 기도에서 이것을 내세워야 합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 목적을

위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여 불쌍히 여기시게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공로로 쌓았다든지, 우리 인격이나 본성에 어떤 뛰어남이 있다고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오직 이것을 인정하는 것만 남아야 합니다. "아, 주님, 저는 썩은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저는 금세 흘러가 버리고, 제 안에는 아무 힘도 없으며, 제 생명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을 어떻게,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쓰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곧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어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 나는 벌레일 뿐이다. 내 안에는 헛됨밖에 없고, 내 생명은 사라지는 연기일 뿐이다" 하고 잘 말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 받았음을 인정할 겸손도 순종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은 이런 불평을 하는 쪽으로 기울 것입니다.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피조물 위에 권위를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에게서 빼앗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것저것을 가져야 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이것을 주목합시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토록 연약하고 우리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함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선언할 때, 그것은 우리의 처지가 이처럼 하찮고 우리 안에 자랑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온통 부끄러움뿐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원망하거나 속상해할 구실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만한 이유를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을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이끌 만한 무엇인가를 찾으신다면, 아무것도 찾지 못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께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참함 이상의 존재임을 보시고, 우리 생명에는

흘러가는 그림자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지혜에는 순전한 어리석음밖에 없으며, CO 347 우리의 모든 덕에는 거짓과 불의밖에 없음을 보시고 우리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모든 영광을 벗기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분은 우리가 감히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돌리거나 그분 앞에 어떤 가치를 가져가서 "주님, 왜 제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것저것을 했고, 제 안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시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자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순전하고 값없는 긍휼에서 길어 와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을 내세워야 할 목적은 이것입니다. 탄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낮추고 완전히 없는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만 영예를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때,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이거나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실 의무를 지게 하는 무엇을 찾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처럼 연약하고 우리의 생명 전체가 아무것도 아님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담긴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내 생명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소서." 욥이 하나님께 "주님, 저는 여기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게 숨 돌릴 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가 어떤 존재이며 제 본성이 어떠한지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할 때, 그 간구는 좋은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호소할 때, 그것은 선하고 거룩한 간구입니다. 물론 마음이 바르다는 조건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른 목표를 가졌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지나침으로 잘못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뒤의 전개에서 더 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주목합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세울 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

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처지로 만드신 것이 의로우시다고 고백하는 겸손도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또 그분이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감추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상대로 따지거나, 너무 몰린 사람들처럼 속에 분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갖 고통과 고난에 둘러싸인 이런 처지에 두신 데에는 의로운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를 붙드는 굴레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그분께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주제넘음이나 교만으로 부풀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어서 자기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며, 다시는 돌아와서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현세에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을 다시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던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곧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끝에 그는 사람을 구름에 견줍니다. “여기 흘러가는 구름이 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것은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처럼 CO 348 무덤으로 내려간 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욥은 여기서 인간 생명의 연약함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토록 엄하게 다루지 않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구절에서 “제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제게 팔을 펼치십니까?” 하고 말할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주님, 그림자와 싸우시렵니까?”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욥이 죽음에 대해 말하면서 자기에게도 온 인류에게도 아무 소망을 남기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죽으면 우리가 멸망하고 아주 삼켜져서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번 무덤으로 내려간 자는 거기 머물고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하니까요. 여기서 욥은 참된 신앙을 전혀 알지도 맛보지도 못한 불신자처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여기서 사람의 죽음을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매우 자주 그런표현 방식을 씁니다. 그런데 욥이 우리가 성령께 배운 대로 말했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들이 그때에는 아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모든 것을 그분의 백성의 마음에 새겨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것을 우리 영혼 속에서 느끼게 하시고, 그분의 손가락, 곧 그분의 성령으로 거기에 새기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린 이 항목으로 돌아갑시다. 곧 성경은 우리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지 않은 채 우리 본성 안에서 겪는 싸움에 대해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몇 가지 증언을 인용했습니다. 사람은 영, 곧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바람일 뿐이라고 말하는 곳에서는, 사람이 짐승에 견주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신다면 사람은 짐승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있는 불멸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총이 아니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이 죽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딤전 6:16). 그러므로 우리는 쇠하는 존재이고, 흘러가 버릴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낙원의 천사들조차 죽을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능력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 안에서 존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거기서 천사들의 불멸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도 그 샘에서 길어 와야 합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는 대로입니다(시 36:9).[84] "주님, 생명의 샘이 주께 있으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을 그 자체로 보면 쇠약함밖에 없다는 것을 봅니다. 시편 104편의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대로입니다(시 104:29–30). "주님, 주의 영을 거두시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CO 349 부활의 소망을 빼앗으려는 것이

84. 원문에는 시편 36편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1절로 세는 프랑스어 성경의 절수이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아니며, 우리가 죽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늘 그 끝에서부터, 곧 우리의 약함이 어떠한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그다음에 한 단계씩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바람이요 연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속하는 능력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한번 우리 안에 두신 것을 우리 안에서 굳게 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그분의 은혜로 그것을 유지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기울어 쇠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가장 높은 단계, 곧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우리 본성 안에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위로 올라가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참된 거울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다시 살리시려 하신다는 것, 우리가 향해 가는 썩음과 부패에서 우리를 건져 내시려 하신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 특별한 처방이 없다면, 우리는 그 썩음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소망하고자 할 때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부활을 보여 주려고 자연의 일반 질서에서 가져온 비유를 몇 가지 씁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때처럼 말입니다(고전 15:36). “밀알과 다른 씨앗들이 땅에 뿌려지고, 거기서 썩은 뒤에 거두어진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밀을 뿌릴 때, 그리고 밀이 먼저 변해야 하는 그 썩음에서 자라날 때, 우리는 부활의 모형과 형상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부활을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불신자들이 “우리 몸이 그렇게 썩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하고 따질 때, 그들이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고 너무나 비열하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일 뿐입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그토록 지혜로워지고 싶어 하는 자들이 자기의 교묘한 이론을 끌어와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짓는다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악의에 차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능력을 그들이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배은망덕뿐임을 보여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려고 자연의 질서 안에서 친숙한 비유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런 논증을 쓰는 것은 우리의 부활이 자연스러운 일과 같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CO 350 그분께 마땅한 찬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감각을 넘어서고, 우리가 썩음으로 변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한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기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빌립보서의 다른 곳에서(빌 3:21)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라고 말하는 대로입니다. 이제 사람의 정신이 이리저리 따져 보고, 지옥의 마귀들에게까지 내려간다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줄일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약속, 곧 우리의 모든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거스를 때, 그들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줄이려 하고, 그들에게 달린 한 아주 없애려 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한 것으로 돌아갑시다. “아, 주님, 저는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보던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저는 다시는 무덤에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욥은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는 부활에 관해 이전에 느꼈던 하나님의 선하심의 모든 맛을 내던지는

절망한 사람과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순전한 선하심으로 그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혜들에서 떼어 놓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잘 지켜야 할 항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잘못 생각하고, 이렇게 말할 분별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선을 베푸셨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한쪽에 두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신을 낮출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분이 내게 남겨 두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대해 그분께 경의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내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너그러우신지 느껴야 한다." 그러므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사람이 무엇인지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나는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보던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나는 무덤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쇠하고 연약한지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살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하다고 결론짓기를 배웁시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CO 351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지, 곧 천하고 비천하다는 것을 알더라도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그 끝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멀어진 적이 결코 없어서 속에 얼마간의 소망을 간직했고, 인내가 전혀 없는 사람과는 달리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래도 그는 한도를 넘어섰습니

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본 뒤에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절망으로 이끄는 슬픔에 삼켜지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이것은 매우 유익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보다 더 바라야 할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만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무엇인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그들은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그들에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이 앞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잘 묵상하여 우리 자신에게 아무 신뢰도 주제넘음도 갖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든 공부 가운데 으뜸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간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구원에 그토록 유익한 것을 그들을 거스르는 독으로 만들고 준비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의 비참함을 알게 되었을 때 짐승처럼 멍해지고, 너무 겁에 질려서 절망에 뛰어들게 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물론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늘 우리를 어리석은 자만에 취하게 합니다. 그는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믿게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자신을 낮추고 낮아지는 것을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며,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막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를 알게 되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보면, 그때 그는 다른 피난처로 갑니다. "자, 이제 너희는 꺾였다." 흔히 말하듯이 그는 그들의 배와 목을 발로 누르고, 그들을 절망에 빠뜨릴 때까지 그렇게 붙잡아 둡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가난함을 알게 될 때, 그것을 묵상한 뒤에 그것에 아주 짓눌리지 않도록 잘 살핍시다. 그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 안에 두시고 끊임없이 넓혀 주시는 선한 것들을 늘 알아봅시다. 또 그분의 특별한 선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썩어 버렸을 이 가난함을 돕기 위해 그분이 주시는 처방들도 알아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도록 이것을 압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나는 내 입을 아끼지 않겠다. 나는 말해야 하고, 탄식해야 하며, 내 아픔과 고뇌를 이야기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을 봅니다. 곧 욥은 CO 352 그의 생각이 좋았고 그가 여기서 내세우는 것이 거룩하고 성령의 가르침에 맞는 것이었음에도, 지나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보라, 나는 살 날이 한순간밖에 없으니 말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짓눌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아픔을 이야기함으로써분을 풀어야 한다. 나는 참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탄식하려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짐을 던다고 생각하면서도 오히려 우리의 아픔을 더 무겁게 하는 분노가 거기에 있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서 그만큼 짐을 덜어야 합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입을 크게 벌려 모독하는 사람들보다 그들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을 더 무겁게 거스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감히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할 때 거기에 이중의 악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독으로 가득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교만과 쓴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여기 노새처럼 재갈을 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살펴보면, 그가 분해서 터질 지경이고, 불타는 광기 같은 것을 품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상대로 싸울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처음부터 속을 다털어놓아서 나쁜 말이 많이 새어 나오지만, 그래도 마음에는 그만큼 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둘 다 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뇌가 우리를 너무 누르면, 그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거스르는 반역, 곧 그분이 영예를 받으시지 못하게 하는 반역을 조금도 품지 않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우리는 애쓰고 싸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고집이나 분을 품으면 굳어지고 그 속에서 자기를 기르지만, 우리는 거기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을 힘으로 누르고, 그것을 들짐승처럼 가두어 둡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격정을 억누르고 굴복시키려고 애썼을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된 일인가? 죽을 인생이 고삐를 풀어 하나님께 소송을 걸려는 듯이 그분과 다투는 것이 허락되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방종,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왜 그분은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가?" 하고 말하는 고삐 풀린 혀를 경계합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탄식을 하되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서 영예를 받으시도록 하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든 CO 353 그분이 의로우시고 공평하시다고 고백합시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다음으로, 우리의 모든 호소를 그분께 드립시다. 사람들이 자주 잘못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들은 탄식하려 할 때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에게서 물러나서 이웃들과 따집니다. "어찌 된 일인가? 나는 이런 고통을 겪고 있고, 나만큼 견디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없이 쉬지 않고 괴롭히려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은 늘 투덜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원망을 입으로 내뱉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늘 마음속에 어떤 뒷방을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것을 그분 앞에 펼쳐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자기의 쓴 마음 속에서 말하고 이야기하겠다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곧 그것은 그가 지켜야 할 한도가 아니며, 그가 너무 많은 자유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거울과 같았던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이미 드린 경고들을 기억합시다. 곧 우리 마음에 쓴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누그러뜨려 주시기를 기도하러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하게 되면, 우리의 혀를 수다 떠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붙들어 두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호소를 그분께 드려서, 이리저리 다니며 탄식하고 수다 떨며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한숨과 신음의 증인이 되시게 하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도록 곧장 그분께 달려가야 합니다.

욥은 이렇게 말한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고래입니까? 주께서 나를 여기 빗장을 지른 듯이 두셔서, 내가 그토록 큰 장애물로 억눌려야 합니까?" 욥은 여기서 하나님께 자기가 그런 폭력으로 저지당할 필요가 없었다고 호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방벽과 장애물이 필요한 바다와 같지 않습니다." 바다가 넘치면, 사람들은 천 명, 이천 명을 동원하고, 나무와 흙과 돌을 날라 그 엄청난 기세를 막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넘치면 그것은 무서운 일이어서, 큰 장애물로 맞서야 합니다. 고래도 큰 어려움 없이는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토록 억세고 힘센 짐승을 붙잡으려면 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다도 아니고 고래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폭력으로 다루십니까?" 이것으로 그는 자기가 견디는 고통이 너무 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자기가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자제하지 못했음을 드러냅니다. 물론 CO 354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는 여전히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내가 늘 완전하지는 않을 것이며, 그 가운데 회오리바람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서 무엇을 거두어야 합니까?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더 잘 알아야 한다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므로 "나는 고래도, 사자도, 곰도, 어떤 다른 들짐승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의 욕심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들을 보고, 우리가 모두 가진 그 많은 악덕들을 봅시다. 그것들은 모든 악으로 넘쳐흐르는 광포한 것들과

같아서,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까지 올라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께 저항할 때, 묻건대 우리는 그분과 전쟁하려고 저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본성에서 사람의 악한 욕심만큼 맹렬한 고래도, 사자도, 땅의 다른 들짐승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렬한 처방을 쓰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거칠게 우리를 막으신다면, 욥처럼 "내가 고래입니까? 내가 바다입니까?" 하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신들린 자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힘으로 사슬에 묶어 두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악한 격정의 그런 반항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고 우리에게 매우 맹렬한 처방까지 쓰신다 해도 그것이 이유 없는 일이 아니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지나치시다고 고발할 수 없고, 사정이 어떠한지 알고서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이중의 앎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자기 안에 썩음과 부패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분을 움직여 우리에게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을 베푸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또한 우리가 악에 대해서는 너무나 억세다는 것을 봅시다. 미친 사람이 몸을 내던지고 날뛰지만 바른 힘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무력하지만, 악에 대해서는 거인들과 같아서 너무나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팔을 펼치셔서 큰 타격으로 치시고, 들짐승에게 하실 것보다 더 벼락을 치셔야 합니다. 들짐승들이 잔인함을 지니고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다 해도, 비교해 보면 사람이 훨씬 더 넘쳐흐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누르시더라도 그것이 이유 없는 일이 아님을 알고, 여기서 탄식하지 맙시다. 우리가 CO 355 아무리 잘 변론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단 한마디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이만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내 침상이 나를 위로하리라’ 하고 말하면, 내가 속으로 말할 때 보라, 내 잠자리가 불타오른다. 주께서는 밤의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고, 꿈으로 나를 겁에 질리게 하신다.” 물론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풀이됩니다. 욥이 침상에서 위로를 얻으려 했는데잠자리에서 뜨거움을 발견했다고 말할 때 그렇습니다. 여기 쓰인 말은 때로는 ‘불타다’ 를 뜻합니다. 다른 구절에서도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물러나다’ 를 뜻하기도 하고, 비유적으로 ‘내버려 두다’ 를 뜻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불타다’ 라는 뜻이 여기에 아주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어떻게 풀이하든, 그 뜻과 가르침은 언제나 같습니다. 곧 욥은 잠자리에서 얼마간 위로를 얻으리라고 기대했는데 소망이 꺾였다고, 거기서 오히려 더 큰 뜨거움을 발견했다고, 그가 속으로 말할 때 그것이 마치 불붙은 불과 같았다고 탄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이미 보여드린 것을 봅니다. 곧 욥은 무서운 고통 속에 있었고, 그를 누르는 것은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었으며, 그는 영혼의 싸움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재판관으로서 그를 대적하신다고 느꼈고, 지옥의 고통 속에서처럼 고문을 당하며 그렇게 짓눌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주 그것을 생각하는 것도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 관해 견디는 것만 느낀다 해도 싸움에 잘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셈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 때입니다. 그분이 엄한 재판관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를 느끼게 하시면, 마치 지옥의 심연과 깊은 구렁이 우리를 삼키려고 열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리 묵상해 두어서, 우리 자신을 낮출 줄 알고, 또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아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뛰어난 덕을 가진 사람이었던 욥도 이렇게 짓눌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본보기를 통해, 그분의 위엄 앞에, 그분의 재판석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온 생애에 대해 답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선언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우 거친 공격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주시는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힘씁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신뢰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는 만큼 우리를 낮추실 때까지 견디며 버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합시다.

또 이 정황을 잘 주목합시다. "나는 CO 356 내 침상이 내게 쉼을 주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속으로 말할 때 불붙은 불을 발견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덜어 주시리라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께 때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며, 그것은 그분의 선하신 뜻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상이나 다른 어떤 것에서 쉼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 가운데 숨 돌릴 틈을 주시기를 그분께 탄식하며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욥이 속으로 말할 때 이렇게 불타는 것을 느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 정황이 주목할 만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탄식하려고 그토록 수다를 떠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면서 더 달아오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격정 속에서 이토록 넘쳐흐르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각자 들판으로 뛰쳐나가서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여기서 자기에게는 그 반대였다고, 곧 자기가 속으로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람이 자기 안으로 물러나서 하나님께 저항하는 말로 넘쳐흐르지 않으려 애쓰고 자기의 격정을 억누르는 것이 그를 달아오르게 하는 원인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시편 32편(3절)과 다른 그런 구절들에서 말하는 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우리의 아픔에서 위로를 얻고 여기서 언급된 불을 끄기 위해 이처럼 아무에게나 말과 탄식으로 헤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 안으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이렇게 속으로 말할 때 때로는 우리의 격정이 불붙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그분의 직분을 행하셔서, 그분이 붙이신 불을 꺼 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때로 그 이유를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를 좋은 결말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쌍한 사람이 계속 그런 고뇌 속에 머문다면 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자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느냐?" 혹은 "보라, 가엾은 피조물아, 하나님께서 너를 이토록 엄하게 다루시니, 너는 하나님을 무겁게 거스른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마침내 성령께서는 그가 이것을 붙잡고 맛보고 자기에게 적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곧 성경은 가장 거친 공격에 대해 말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가장 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알맞은 때에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건지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단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그는, 자기가 탄식하고 속으로묵상했을 때 더 큰 뜨거움을 느꼈다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인정했어야 했습니다. "그래, 나의 하나님, 저는 아직 충분히 받지 않았습니다. 제 고통이 CO 357 제 분량에 비해 이미 너무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더 커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욥이 생각했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참된분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그것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토록 덕이 있던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 그분을 상대로 따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부끄러운 처지에 두지 않으시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밤의 환상으로 자기를 어지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본 대로입니다. 곧 그는 그저 몸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시는 것처럼 유혹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그는 자기 영혼이 올가미를 택했다고 결론짓습니다. 곧 그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바랐고, 그런 상태에 있느니 차라리 목매달리는 편이 낫겠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것은 절망한 사람의 말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거기에 머물렀다거나 그런 생각을 속에 굳게 정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님을 주목합시다. 그는 다만, 자기 삶을 자기에게 닥칠 수 있었던 가장 나쁜 죽음과 비교하면서, 한동안 너무 짓눌려서 자기를 누르는 그 아픔의 느낌 너머를 보지 못했다고 호소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바탕으로 살핍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욥을 아끼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그처럼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량을 아시므로, 우리보다 성령의 능력을 더 많이 받았던 이 사람에게 닥쳤던 것만큼 큰 유혹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의 손의 찾아오심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목매달린 사람의 죽음보다 더 비참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하고, 그것에 온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기를 배웁시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진보할 때, 죽음에서나 삶에서나 기뻐할 넉넉한 이유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비참함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다면, 그것은 모두 우리 구원을 위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주 망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 하나님을 부르기를 그치지 맙시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기쁨과 영광으로 바꾸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온전히 느끼게 하실 때까지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계속 베푸실 것을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29편

욥기 7장 설교 3

CO 33:358–369

> 나는 괴롭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놓아 주소서. 내 날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이토록 크게 여기시며, 그를 마음에 두십니까? 주께서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시고, 순간마다 그를 살피십니다. 언제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렵니까? 내가 침을 삼킬 틈이라도 주소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살피시는 이여, 내가 주께 어찌하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의 맞은편에 두셔서 내가 나 자신에게 짐이 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내 죄를 없애지 아니하시며, 어찌하여 내 불의를 용서하지 아니하십니까? 이제 내가 흙 속에 누우리니, 주께서 아침에 나를 찾으실지라도 나는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욥 7:16–21)

이 설교는 15절 해설의 나머지와 그 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O 358 욥은 여기서 우리가 어제 다룬 이야기를 이어 갑니다. 곧 그는 자기 생명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혀 맛보지 못해서 거기서 위로를 얻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 생각에 굳게 머물러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토록 엄하게 다루시는 동안 자기 생명이 어떤 것인지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를 죽게 하시는 편이 훨씬 낫겠다고 결론짓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자기의 현재 처지만 바라볼 때에는, 자기가 비참함 이상의 존재이므로 아주 어쩔 줄 모를 만큼 그런 싫증에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CO 359 그분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엄격함을 행하시려는 것 같고, 그들을 악인들보다 더 괴롭게 다루

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에 휩쓸려 우리 생명을 싫어하고 차라리 죽음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곧 우리의 비참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여전히 사랑받고 있으며, 그분이 마침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괴롭고 지겨움만 가져다줄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께 분을 품게까지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욥이 여기서 자기의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표현하려 했으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 가운데서였다는 것을 주목합시다.[85] 그래서 그는 이제 이렇게 덧붙입니다. 자기는 괴롭고, 영원히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 날들은 헛될 뿐이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놓아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 주님, 왜 저를 핍박하십니까? 주께서 여기 보시는 것은, 주께서 돌아보지 않으시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가엾은 사람입니다. 그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될 뿐입니다. 그런데 왜 저를 놓아 주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미 본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곧 사람들은 바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힘을 쓰셔야 할 만큼 억센짐승도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죽을 인생이요 쇠하는 인생인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분의 힘을 펼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고뇌에 빠져 자기의 신음을 그칠 수 없는 사람처럼 이 말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여기십니까? 무엇이기에 아침부터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돌보시며, 그토록 크게 마음을 쓰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이토록 크게 여기십니까?"라는 이 말씀을, 욥이 여기서 하나님

85. 전자본문에는 'Iob n' a ici voulu exprimer' 라는 부정형으로 되어 있으나, 초판(1563년) 154 쪽의 긍정형 'Iob a icy voulu exprimer' 를 따랐습니다. 뒤의 'sinon d' autant que Dieu l' a soustenu' 는 접속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앞 문맥에 따라 하나님의 붙드심을 상기시키는 유보로 옮겼습니다.

을 책망하려 한 것으로 풀이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작은 왕들인 것처럼 높이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다운 돌봄을 가지신 척하시며 우리를 모든 피조물보다 앞세우시다가, 그 뒤에 우리를 쓰러뜨리신다는 것입니다. 흔히 그리는 운명의 수레바퀴 그림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욥이 자기를 온 인류와 비교하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 주께서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선하셔서 주의 긍휼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주께서 자기에게 아버지이시며 많은 선한 것을 넓혀 주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이토록 매정하게 대하시는 사람은 오직 저 하나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왜 저는 사람들 축에 끼지 못합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잘 살펴보면, 욥이 말하려는 자연스러운 뜻은 이것입니다. "주님,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노하십니까? 주께서는 그들을 너무 높이 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노하시는 것이 CO

CO 360 하나님께 어울리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큰 군주가 농부에게 노한다면, 거기에는 아무 영예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자기와 대등한 자를 상대하지 않는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다니 스스로를 크게 깎아내리는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만한 자들도 "저 사람이 나와 대등한 자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 주었을 텐데" 하고 잘 말할 줄 압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흔히 경멸의 표시를 보이려고 이런 말을 씁니다. 땅의 벌레일 뿐인 사람들도 자기보다 훨씬 낮은 자들과 맞붙는 것은 점잖은 일이 아니라고 내세울 줄 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하러 오신다면, 그분은 그들을 너무 크게 여기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업신여기셔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벌레일 뿐이고, 버러지일 뿐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와 맞붙어

싸우러 가겠느냐? 그것은 내 영광과 위엄을 너무 깎아내리는 일일 것이다." 이것이 욥이 주로 말하려 한 뜻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구절이 시편 8편(4절)[86]의 구절과 같지 않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거기서는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이토록 크게 여기십니까?"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 담긴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뜻은 정반대입니다. 다윗은 제가 인용한 그 시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이끄시고 다스리시려 하신다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을 인정합니다. 사람을 그 자체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거나 그에게 눈길을 주실 필요가 없을 것처럼 보일 만큼 가엾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스리려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그분의 모든 피조물 위에 세우시는 것을 볼 때, 곧 거기서 말하는 대로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 기를 우리가 쓰도록 하셨을 때, 그분이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를 섬기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도록 마련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품으셔서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 손에 맡기시며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비참함과 그들 안에 있는 가난함은, 우리가 그분을 움직여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게 할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에 더 큰 빛을 줍니다. 이것이 다윗의 자연스러운 뜻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그분의 인성에 관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셨고,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와 같은 처지에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크게 높이셔서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시고,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을 CO 361 그분 안에서 되찾게 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분의 긍휼의 크고 무한한 보화를 보여 주셨습니다.

86. 원문에는 시편 8편 5절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1절로 세는 프랑스어 성경의 절수이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참된 거울이시며, 그 은혜는 그 뒤에 그분의 모든 지체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여야 합니다. 그분이 아담 안에서 시작하시고,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아담 안에서 쓰러지고 비뚤어졌던 모든 것을 회복하신 그분 안에서 시작하신 뒤에, 오늘날에도 계속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가 그분의 모든 부요함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놀라며 이렇게 말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아, 주님, 우리가 누구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토록 가까이 대하셔서 우리가 주의 자녀들과 같고, 주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것처럼 하시며, 우리에게 이토록 너그러우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욥은 그것을 정반대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입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그들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병으로 위가 상하면, 그 앞에 내놓는 음식이 가장 좋고 가장 맛있는 것이라도 아무 맛이 없고, 오히려 속을 불편하게 하고 거의 토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그릇되어 있으면 바르고 곧은 판단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아무 맛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말하자면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를 먹이시며, 모세의 노래에서 말씀하시는 대로(신 32:11) 우리를 받으시려고 날개를 펴고 계심을 알 때, 그보다 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북돋워야 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그토록 친밀한 돌보심을 볼 때, 그것은 우리를 놀라움으로 사로잡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괴롭고 고뇌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맛보고 활용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서 멀리 계시기를 바랍니다. 욥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봅니다. 물론 그의 육적인 감정에 관해서 말입니다. 그가 이것에 저항했고, 비록 안에 숨겨져 있었지만 인내를 가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

다. 그러나 어쨌든 그의 격정도 드러나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낮추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이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거꾸로 돌리는 것을 봅니다. 그는 거기서 위로를 얻고 기뻐해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이토록 크게 여기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너무 높이시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신다고 말해야 합니까? 그분은 죽을 인생들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이 CO 362 모욕을 당하면, 그는 자기보다 낮은 자를 상대하려 하지 않고 자기와 대등한 자를 상대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복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수하시려는 것이 아니며, 그분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분을 업신여겼을 때 우리가 싫든 좋든 그분을 재판관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분이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그분께로 돌이키시려고 바로잡으시며,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잘못에서 돌이키시려고, 또 우리의 재판관으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분께 복종하기를 배우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이 그분께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한 것들을 이렇게 뒤엎을 때 그들의 배은망덕이 어떠한지를 봅니다.

또한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멀어지시기를 바란 것처럼 유혹을 받았다면, 그런 유혹은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음을 압시다. 그것도 우리를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를 아주 쓰러뜨릴 만큼 극한 상황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비해야 하고, 우리가 밝힌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삶을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아버지다운 돌봄을

베푸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우리를 그분께 넘치도록 빚지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아무리 높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벌하실 때에도, 우리가 그분의 징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거기에 손을 대실 필요도 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보내시는 벌 가운데서도 그분의 선하심과 의를 보여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회개로 초대하시고, 또 그들을 낮추시려고 재판관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들의 배은망덕이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유익을 얻지 못하게 막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구절에서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이토록 크게 여기셔서 아침마다 찾아오십니까?" 하고 말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켜보신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맙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징계하지 않으시도록 고삐를 풀어 놓고 제멋대로 즐기려는 자들이나 하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들판을 가로질러 제멋대로 다니게 내버려 두셔서, 우리가 방탕해져도 그분이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차지할 것이고, 우리는 그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때까지 그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늘 눈을 뜨고 계시는 것보다 우리 구원에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압시다. CO 363 그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살피시며, 우리가 손가락 하나 움직이고 한 걸음 내딛는 것도 모두 적어 두고 표시해 두십니다. 그분이 다르게 하신다면 우리 구원에 유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구절에서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곧이어 이렇게 덧붙입니다. “언제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렵니까? 내가 침을 삼킬 때까지 나에게서 물러나 주시지 않으렵니까?” 여기서 욥은 자기를 유혹하던 격정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는 앞에서 말한 것을 간직해야 합니다. 곧 그는 늘 얼마간의 위로를 느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여기서 자기가 육신을 따라 얼마나 격정에 사로잡혔는지 드러내어, 그의 친구들이 그가 그토록 크게 탄식하는 것이 이유 없는 일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한 고뇌를 더 잘 표현하려고, 사람들에게 말해 보아야 아무것도 얻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여전히 사람들을, 그것도 지나치게 바라보았습니다. 만일 그가 마음을 잘 가다듬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는 분명 더 평온하게 처신했을 것이고, 믿음과 인내의 더 큰 표시를 보였을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분을 품어서 언뜻 보기에 절망한 사람처럼 보이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에게쏟아진 책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것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이것입니다. 곧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찌르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시선을 두거나 눈길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탄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어쩔 줄 모르게 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고, 곧장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 앞에서 신음하며, 그분이 그분의 징계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에게 더 잘 느끼게 하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그 대상인 것처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욥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로 말을 돌림으로써 자기 고난의 격렬함을 더 잘 표현하려 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자네들은 아무것도 모르네.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넣으신 이 영적 싸움을 자네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보네. 그러니 나는 내 재판관이신 분께 말해야겠네.” 요컨대 욥은 “내가 하는 말은 꾸민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것처럼 하는 말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앞에서 자기 생명이 헛될 뿐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가 침을 삼킬 때까지, 곧 우리 말로 숨을 돌릴 때까지 자기를 놓아주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 거칠게 핍박하신다는 뜻을 나타내며,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다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CO 364 그가 자기 육신의 격정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고 자기의 십자가와 고난을 인내로 지게 하실 때, 그것은 그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거나, 괴롭힘과 고통을 당할 때 흔들리고 동요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인내로 져야 한다고 결단하고, “그래도 나의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실 것이니, 나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야 한다“라고 결론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무도 싸움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여기서 자기가 느낀 그대로의 격정을 표현하고,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한동안 묻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아주 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 격정이 믿는 사람들에게 덮칠 때, 그들은 말하자면 휩쓸려서, 마치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들이 고삐 풀린 말처럼 날뛰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말 위에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뒷발질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고삐를 벗어나 들판을 가로질러 달리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솜씨 좋은 기수는 그 말을 잘 길들여, 고삐로 거두어들이고 다시 바른 길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너무 격렬한 격정에 자주 휩쓸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거두어들이시고 그분께로 돌이키십니다. 그분이 욥에게 그렇게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밝힌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긍휼과 숨 돌릴 틈을 얻고자 할 때 우리 생명의 연약함을 그분께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여기서 정신이 다하여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치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제 날들은 헛되고 연기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토록 비참한 이 피조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간구는 선하고 거룩하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성령께 그렇게 말하도록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다른 방식과 말투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내 날들은 헛될 뿐인데, 주께서 여기 나를 상대하러 오십니까? 주께서는 내가 침을 삼킬 틈도 주지 않으십니다. 왜 나를 놓아 주지 않으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손이 물러나면 얼마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침을 삼킬 힘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에 힘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미 밝힌 대로, 욥은 자기 고통만 바라보는 어쩔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CO365 좋고 매우 유익한 권고가 됩니다. 우리가 격정에 짓눌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곧 우리가 모든 분별과 모든 인내를 잃고 짐승처럼 얼이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격정이 어떠한지 멀리서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를 모두 어리석게 만들고 우리에게 아무 분별도 없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결코 적합한 재판관이 될 수 없으며, 필요할 때 우리의 모든 감각이 흐트러져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각자 살펴보십시오. 사람이 격렬한 격정에 흔들릴 때, 혹은 하나님께서 너무 거친 어떤 고통으로 우리를 누르실 때 우리가 어떠한지 생각해 보십

시오. 우리는 거기서 기운이 꺾여서 하나님을 부를 용기도 없고, 성경에 담긴 약속들을 묵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통에 무슨 처방이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격정에는 그런 맹렬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다스리시지 않는다면, 그것도 그분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스리셔서 우리가 거기서 그분의 위엄과 사람 이상의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번 하늘과 땅을 뒤섞고 뒤엎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욥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신 한, 속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만 사람을 순전한 본성대로 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의 은혜로 고쳐 주시지 않을 때 육신을 따라 있는 그대로의 격정을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욥은 "내게서 물러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과 도움 없이 남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행 17:28), 그리고 우리가 경험으로 보는 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뒤에 우리가 침을 삼킬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그럴듯한 말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하늘의 천사들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죽지 않는 피조물이고, 이미 하늘의 영광에 가까이 있으며, 그 신적 위엄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 물러나시면 그들도 사라지고 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썩음으로 가득한 우리가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간 여유를 주셔서, 우리 안에 그토록 지나친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처분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배웁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마다 쓰러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자 인내하는 사람인 이 사람의 인격 안에서 CO 366 우리의 지나친

감정의 거울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고,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도움과 위로를 느끼기를 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모든 능력을 그 안에 가지신 분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에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 그분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곧이어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살피시는 이여, 내가 주께 어찌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욥이 하나님과 따지는 것처럼 풀이합니다. "나는 죄짓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주께서 사람을 지키시는 분이라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면서 왜 이렇게 나를 정죄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자연스러운 뜻이 아님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이 구절에 대한 성령의 의도를 결코 알지 못했고, 어쨌든 욥이 인내하는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 증언되는 것도 잘못 보았습니다. 그러면 욥은 무엇을 말하려 했습니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 나는 내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사람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키는 이' 라는 말은 잘못 풀이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인류를 그분의 보호 아래 두고 보존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욥이 말하려 한 것은, 그리스어 번역자[87]도 잘 살핀 대로 (그런 일은 그에게 흔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위에서 깨어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누군가를 감시하여 그가 하는 모든 일과 말을 엿보고 살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런 뜻에서 하나님께 사람을 살피시는 이라는 칭호를 돌립니다.[88]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

87. 칠십인역의 번역자를 가리킵니다.

88. 'garde des hommes' 는 '사람을 지키시는 보호자' 로도, '사람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시는 분' 으로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뒤의 뜻을 택하므로 '사람을 살피시는 이' 로 옮겼습니다.

를 그분의 손안에 두시며, 우리 생명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속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분을 살피시는 이라고 부르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시고 바라보시며, 우리는 그분에게서 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분은 사람들을 살피시고, 생각을 아시며,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온 삶에서 그분께 숨겨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욥이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왜, 무슨 목적으로 "내가 주께 어찌하겠습니까?" 하고 말하겠습니까? 그가 유죄 판결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핑계로 주께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빚을 인정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제가 주께 어찌하겠습니까? 저는 그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왜 저를 놓아 주지 않으십니까? 여기 힘도 능력도 없이 쓰러진 가엾은 피조물을 보시면서도, 주께서는 여전히 엄하게 다루기를 계속하십니다. 저는 주께 빚진 자임을 고백하는데도, 주께서는 아직도 저를 고문대에 매어 두십니다." 마치 재판관이 범죄자를 고문대에 매어 두고 "네 죄를 자백하라" 하고 말하자, 범죄자가 "예, 저는 그런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두 번, 세 번 저질렀고, 제 공범은 이런 자들입니다" 하고 대답했는데, 재판관이 CO 367 그런 자백 뒤에도 그를 여전히 고문대에 매어 둔다면, 그것이 무슨 목적이겠습니까? 욥에 관해서도 이와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서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시거나 제 잘못을 자백하게 하시려고 고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주께 빚을 인정했는데, 왜 저를 핍박하십니까? 주께서는 사람을 살피시는 분이시니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께서 지금 주께 숨겨진 것을 캐내셔야 한다면, 그렇다면 '네 모든 잘못을 알게 될 때까지 너를 여기 붙잡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것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지

못한다 해도, 주께서는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왜 제게서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 저를 이렇게 누르십니까?" 이것이 이 구절의 참되고 자연스러운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자기 감각과 이해에 따라 재려 할 때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곧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매번 한도를 넘으시고 너무 큰 엄격함을 쓰시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 그분을 잔인하다고 고발하려는 의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욥이 그렇게 하도록 유혹받았듯이 여전히 그분께 속상해하고 분을 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압시다. 곧 우리는 여기서 그분의 눈길 아래 있으며,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핑계를 대고 숨어 보아도, 우리의 모든 위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분별하시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소환되었을 때 나뭇잎으로 몸을 가려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는 싫든 좋든 출두해야 했고, 그의 죄가 그 앞에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장부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말과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우리 소송 기록이 작성된 그대로 읽지 못하지만, 다니엘서의 이 구절(단 7:10)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곧 심판이 열릴 때 책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개구리처럼 뒤엉켜 제멋대로 뛰어들 수 있고, 흔히 말하듯 짚더미 속의 쥐처럼 지낼 수 있으며,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적어 두시고 표시해 두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알고서 두려움과 조심함으로 행하기를 배웁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니, 그분 앞에 있는 것처럼 행합시다. 만일 이 가르침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 있다면, 지금과는 다른 조심함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부끄러워

해서 CO 368 대낮이나 큰길에서 추악한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눈이 우리를 막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이 우리 삶의 증인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훨씬 더 큰 두려움으로 행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앎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의 불의가 벌받지 않고 남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니, 그분은 또한 그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방식대로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갖지 못한 다른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고백했다 하더라도, 그분은 안에 숨겨진 것과 우리 자신도 모르는 것까지 아십니다. 범죄자가 땅의 재판관 앞에서 자기 죄와 악행을 자백하면, 사람들은 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재판관이셔서, 우리를 우리 죄에 대한 내적인 앎으로 이끌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해야 하고, 우리 각자가 자기의 재판관이 되어 죄를 미워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가두어 두셔서, 우리가 때로는 절망한 가엾은 사람들처럼 시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자기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저 "그래, 나는 내가 죄인임을 잘 안다"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잘못에 대한 생생한 느낌을 가져서 그분 앞에서 더없이 부끄러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주의 맞은편에 두셨습니까? 어찌하여 내 불의를 없애지 아니하시며, 어찌하여 내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십니까? 이제 내가 흙 속에 있으니, 주께서 나를 찾으실지라도 나는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서 욥은 앞에서 꺼냈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곧 그는 침을 삼킬 때까지만이라도 얼마간 휴전과 숨 돌릴 틈을 얻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는 "어찌하여 나를 주의 맞은편에 두셨습

니까?“라고 말합니다. 곧 활을 쏘는 과녁처럼 두셨느냐는 뜻입니다.[89]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주께서는 누구를 상대하십니까? 나는 가엾은 땅의 벌레인데, 주께서는 나를 과녁처럼 세워 놓고 쏘십니다. 주께서 내게 주의 힘을 시험해 보셔야 합니까?” 그는 뒤에서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탄식은 욥에게서 자주 되풀이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맞은편에 두실 때 우리가 그런 맹렬함을 견딜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분에게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자마자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버티며 제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거기서 그분께 과녁처럼 되어 그분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를 치시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CO 369 내신 상처의 아픔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느끼게 해 주신다는 조건에서 말입니다. 하박국의 노래에서 말하는 대로(합 3:2), 그분이 진노 가운데서도 그분의 긍휼을 잊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알게 하신다는 조건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이 격정이 우리 앞에 제시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라고 구하지 않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심연과 멸망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벌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손을 벗어나려고 길 잃은 자처럼 굴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분이 그분의 모든 바로잡으심을 인내로 견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매를 맞으려고 등을 내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긍휼을 맛보게 하셔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잃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물론 여기서 욥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89. 원문의 ‘blanc’ 은 여기서 흰색이 아니라 활을 쏘아 맞히는 ‘과녁’ 을 뜻합니다.

있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서 그분의 은혜를 거두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버리신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갈 때, 우리는 그분이 늘 우리 가까이 계시며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을,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하늘 영광 안으로 거두셔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머물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늘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30편

욥기 8장 설교 1

CO 33:370–381

>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자네는 언제까지 그런 말을 하겠는가? 자네 입의 말은 거센 바람과 같구먼. 하나님께서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전능자께서 정의를 없애시겠는가? 자네 아들들이 죄를 지었고, 그분이 그들을 그들의 악행의 자리로 보내셨네. 그러나 자네가 아침 일찍 하나님께 돌아가서 전능자께 간구한다면, 자네가 깨끗하고 정직하다면, 그분이 자네를 위하여 깨어나셔서 자네 의의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네. (욥 8:1–6)

CO 370 이 장에 담긴 내용에서 잘 유익을 얻으려면, 우리가 이미 밝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욥의 친구들은 나쁜 소송을 끌고 가면서도 좋은 논거와좋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잘못 적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 자체는 거룩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좋은 말씀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실제로 빌닷이 주로 노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벌하실 때 의로우시며, 그분을 고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그는 주장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 전체가 좋을 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으뜸 되는 항목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잘못은 오직 빌닷이 자기 말을 욥이라는 인물에게 적용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이 거룩한 사람의 의도는 하나님을 고발하거나 그분을 거슬러 일어서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견딘 고통이 자기의 약함에 비해 너무 무겁고 힘겹다고 탄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빌닷이 나쁜

소송을 가졌지만, 그가 여기서 내놓는 것은 좋고 옳으며, 그것이 우리의 덕을 세우는 데 알맞으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예를 들어,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상대로 따지는 자들은 허공에 바람을 내던지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욥이라는 인물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담긴 것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입시다. 우리는 악인들과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헐뜯을 때 어떻게 모독을 쏟아 내는지 듣습니다. 그들은 천둥을 치고 벼락을 내리기라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든 말은 바람일 뿐이어서 흘러가 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이 거기서 드러나는 그 높이에 결코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런 모독을 들을 때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고 언제나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전하게 남아 계시며, 사람들이 입을 크게 벌려 그분을 헐뜯더라도 그분의 위엄을 조금도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두 바람이요 헛됨입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로, 우리 각자는 하나님에 대해 절제하며, 온갖 경외와 겸손으로 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그런 바람을 내던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 해를 끼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은 CO 371 이렇게 그분을 거슬러 일어서려 애쓰고 교만하고 주제넘은 말을 내던지는 자들에게 보복하기를 그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마음에 품는다면, 그것이 우리를 참된 굳건함 속에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말할 때, 우리는 그저 그럴듯한 입김을 내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에서 하나님께서 높임받으시고 크게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주된 말씀으로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전능자께서 의를 뒤엎으시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영예를 돌리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곧 그분은 모든 공평과 정의의 샘

이시며, 선하고 의롭지 않은 일은 하나도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능력을 돌리기는 하지만, 그분을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의로우신 분으로 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둘을 서로 떼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서로 나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능력을 잘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어야 하고, 말하자면 그분의 본질에 속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절대 권력이 있다고 상상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마치 그분이 폭군처럼 세상을 다스리시며 지나침이나 잔인함을 행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그분이 모든 것을 손안에 두시고 무한한 권능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면서도 여전히 의로우시다는 것을 압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의가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감각이나 정신으로 잴 수 있습니까? 분명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알려지고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분의 계획은 깊은 바다라고 말씀하며(시 36:6), 그분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딤전 6:16).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알 만큼 높이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모든 것을 온전히 행하셔서 흠잡을 데가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고유한 본성이라는 것을 확고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지극히 높은 창조주라고 잘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분께 고유한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려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곧 그분의 의와 선하심과 지혜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맛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안에서 나타나시려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엄이 무엇인지 교묘하게 알았다 하더라도, 그분에 대해 우리가 경험으로 느껴야 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CO 372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기동하며 존재하고(행 17:28), 그분의 긍휼이 모든 것을 채우며,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으로 붙들리고,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만큼만 빛을 가지며 그 이상은 갖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부패를 고치시는 것이 그분의 일이며, 의의 샘이신 그분에게서 길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의를 한알갱이도 한 방울도 가질 수 없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품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위엄을 얼마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하는 말을 그만큼 더 잘 주목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본성은 의로우시며, 그분이 정의와 공평에서 벗어나시는 것은 그분이 그분의 본질을 버리시고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정된 원리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유 없이 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존재하지 않으신다거나 그분의 본질이 줄어들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덜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논증합니다. 그는 자기가 전한 가르침을 거슬러 일어날 수 있었던 모독을 끌어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순전한 진리를 헐뜯고, 그것을 거슬러 대들며 말대꾸하려는 독으로 늘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롬 3:5–6).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 속한 분께서 어떻게 모든 의를 지키지 않으실 수 있겠는가?" 그는 거기서 '심판하다' 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정의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과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그 기준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신해야 함을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여기에 상응한다는 것을 봅니다. 빌닷은 '하나님' 이라는 말 아래 의와 정의를 포함하고, 또 '전능자' 라는 말 아래에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너무나 밀접하게 결합되어 결코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벗겨 낼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신 것처럼 그분을 상대로 따지려 한다면, 그것은 그분을 없애고 그분의 보좌에서 끌어내려 무로 돌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거나 거기에 전능자라는 칭호를 덧붙이는 대신, 그분의 직분을 끌어옵니다. 곧 하나님은 세상의 재판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부패한 자들처럼 재판관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을 인생들은 높은 지위와 권위에 오르고도 자주 CO 373 그것을 남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세상의 재판관이신 것은 얻어 낸 것이거나, 우연히 선출되신 것이거나, 그분이 그 직분을 따내려고 애쓰셨거나 사신 것이 아니라, 본성상 그분께 속한 것입니다. 그분은 동시에 재판관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그분의 뜻이 지극히 높은 기준임을 잘 알고서, 그분에 대해 온전한 정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맙시다.

더 나아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의는 우리가 그 실상을 해독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그 이유를 볼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드러나 있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우리에게 매여 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잣대에 굴복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일을 좋게 여기지 못할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죽을 피조물들, 가엾은 땅의 벌레들이 하나님께 그분의 일이 어떤 것인지 알려 달라고 강요하고 그것을 근거로 판결하려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오만한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이유를

우리에게 감추시고, 우리가 그분의 일을 이상하게 여기며, 우리 생각에는 그분을 상대로 따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헤아릴 수 없고 은밀한 심판을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온 정신을 이런 겸손 속에 모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보라,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는 모든 이치에 완전히 어긋나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떻다는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로 우리 소송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말대꾸 없이 그분이 의로우시다는 그 결론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그것도 거울로 보듯 희미하게 보고 있으니(고전 13:12),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바라볼 수 있을 날을 기다립시다. 그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믿음을 단련하려 하십니다. 곧 우리가 그분의 의는 흠잡을 데도, 물고 늘어질 데도 없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온전한 앎이 없으며, 각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분과 따질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분께 돌리는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르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한 그분의 영원한 본질을 없애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거칠게 다루시더라도, 우리는 역경 가운데서 인내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을 견딜 때 분을 품는 사람은, CO 374 그것이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서는 일임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정의와 공평에 저항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런 소송의 결말이 수치와 파멸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앎은 우리를 인내 속에 붙드는 굴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정의에 저항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멸망을 향해 싸우는 것이며,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 화를 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전쟁을 거는 것이고 우리에게 달린 한 그분의 의를 굽히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인내하려면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았더라도 여전히 절망으로 유혹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끝까지 몰렸다고 느끼는 가엾은 죄인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벌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다고, 그것도 꾸밈없이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기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자기 경우에는 더 이상 용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의 찾아오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인정하면서도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욥에게 일어난 일을 봅니다. 그가 인내를 아주 잃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보았고 뒤에서도 보게 될 것처럼, 그는 여전히 무서운 격정에 시달렸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의심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는 이토록 연약한데도 주께서는 저를 대적하여 주의 능력을 펼치십니다. 제가 무엇입니까? 주께서는 벌레보다 못한 작은 피조물에게 벼락을 내리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괴롭고 고뇌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곧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엄격함 가운데서도 자기를 도우시며, 자기가 그분을 기다리기만 하면 좋고 복된 결말을 주시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맛보지 못합니다. 욥이 그것을 얼마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슬픔으로 너무 어지러워서 처음부터 마음을 정하고 자기를 벗어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우리에게 인내의 거울로 제시되었지만, 부분적으로 조급합니다. 그의 고난이 너무 격렬해서 그는 미끄러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지신 아버지다운 돌보심을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맛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것을 잘 확신하는 것이 우리를 인내로 이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 번째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으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엄격함을 쓰시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우리의 모든 고난이 그분의 은혜로 누그러질 것이고 그분이 거기에 바랄 만한 결말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CO 375 빌닷은 이렇게 말한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자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불의의 자리로 보내셨네. 그러나 자네가 아침 일찍 그분께 돌아가면, 그분이 자네를 향해 깨어나시거나 좋은 것을 되돌려 주실 것이네." 이것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욥의 눈앞에 훌륭한 거울을 두셔서, 그가 더 이상 일어서지 않고 고삐 풀린 말처럼 굴지 않게 하셨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아주 삼켜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여기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직 그를 기다리시고 그를 회개로 돌이키려 하시므로, 알맞은 때가 있는 동안 그가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닷이 여기 놓은 두 가지 요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욥이라는 인물에게 잘못 적용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끌고 간 나쁜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일반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서, 각자 자기 정도와 필요에 따라 자기에게 적용합시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분께 반역하는 자들을 벌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그분은 우리를 낮추시려 합니다. 우리가 방종으로 가득한 만큼, 우리 육신의 연약함에 고삐를 풀어 주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을 품는 일이라면, 우리는 우리보다 낮거나 대등한 누군가에게 맞서는 것보다 덜 거리낍니다. 이것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적인 대담함입니다. 곧 죽을 피조물은 두려워하여 그를 거스르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는 아무 거리낌 없이 대담하게 분을 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이 교훈을 잘 간직합시다. 곧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시고

무서운 보복의 어떤 행위를 하실 때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머리를 숙이고, 크고 작은 자가 입을 다물며, 우리가 더 이상 감히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을 걸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따라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는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만큼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판을 행하실 때 사람들에게 의를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것으로(사 26:9) 죄가 벌받지 않고 남아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굳어지고 그것을 핑계로 제멋대로 즐긴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들은 자기가 재판관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거기에는 더 이상 아무 두려움도 절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리에 앉으셔서 그분의 심판의 본보기를 보이시자마자, 우리는 놀라고 큰 두려움을 품어 그분 아래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행하시는 심판은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어, 각자 그분의 손 아래 몸을 굽히게 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도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CO 376 물론 우리는 욥의 자녀들이 버림받았는지 아닌지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시려고 그들에게 일시적인 벌만 보내셨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우리는 앞에서 그들 사이에 있던 화목을 보았고, 성경은 그들에 대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 말하듯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우리는 욥이 그들의 잔치 차례가 끝나면 엄숙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밝힌 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그 일에서 그들의 아버지와 함께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의 자녀들이 버림받았다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 그분이 택하시고 구원으로 정하신 자들을 먼저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거두시며, 그분이 보내시는 징계가 그들에게 구원으로

바뀌도록 그들을 다루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영원히 구원받도록 몸은 한동안 멸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욥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여기서 인물들을 보아서는 안 되고 오직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벌하시려고 그분의 팔을 펼치실 때마다 우리 가운데 떨지 않아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방탕했고, 마귀가 우리를 얼빠지게 하여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하더라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하고,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시며, 그렇게 그분을 거슬러 일어서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바라보고 느끼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엡 5:6). "아무도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기 죄를 꾸며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처럼 오늘날에도 이런 마귀적인 비웃음이 여전히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음행에 대해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스러운 죄로 만들어 "아, 그것은 본성이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술 취함에 대해 말하면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으로 즐거워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는가?" 하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짐승처럼 되어 하나님을 거슬러 모독을 쏟아 내고, 자기 잘못과 불의 속에서 스스로를 속이려고 어떤 핑계만 찾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친구들아, 그런 세속적인 말에 속지 말라."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가 삼켜질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을 알라. 너희에게는 그토록 훌륭한 거울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과 CO 377 불신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과 반역자들과 그런 모든 사람들을 징계하실 때마다, 그분은 어떤 악도 벌받지 않고 남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 주려 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의 보복을 앞질러 대비하라. 그분이 너희에게 덮치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분이 멀리서 주시는 가르침에서 유익을 얻으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징계가 우리 앞에 제시되어, 하나님께서 모든반역자들을 그들의 불의의 자리로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물론 너무 어리석고 미쳐서 하나님을 거슬러 악인들의 편을 들려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에게 손을 대시자마자, 우리가 그분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더라도 그분이 의로우시다고 고백하기를 배웁시다. 이것은 우리가 더 자세히 밝힌 것을 따른 것입니다. 곧 우리 눈앞에서 벌받는 명백한 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말하는 대로 그것을 생생한 그림처럼 우리 앞에 두신다." 모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멍에도 훈계도 전혀 지려 하지 않는 사람, 요컨대 전혀 고칠 수 없는 사람을 볼 때, 세속적인 사람, 음행하고 방탕한 사람, 행실이 나쁘고 방종한 사람을 볼 때, 술 취한 자를 볼 때, 이 사람을 속이고 저 사람의 재물을 빼앗기만 바라는 어떤 악인을 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에서 선언하신 보복을 이루시고 집행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모두 확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되며, 그분이 그분의 입으로 선포하신 위협을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위협쯤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위협에는 실행이 함께 따릅니다. 분명하고 눈에 보이는 이유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엄격함을 쓰실 때 우리는 그래도 캐물으며 "왜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가?" 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시다. 우리는 모르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알려고 주제넘게 굴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재앙과 고난을 볼 때, 우리에게 분명한 죄가 있는지

살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기를 배우고, 각자 자기를 살펴서 비슷한 정죄에 휩쓸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갑시다.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시들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 심하게 억눌려 우리 삶이 어떤 죽음보다 더 괴롭고 CO 378 더 쓰라리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회개할 여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그분께 돌아가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받으실 준비가 다 되어 계심을 발견할 것이고, 그분이 우리 의의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갈 때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좋고 유익한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아주 쓸어 버리지 않으시고 이 삶에 남겨 두실 때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호의를 잘 인정하라는 권고를 받기 때문입니다. 욥이 처해 있던 그런쇠약함이 죽음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괴로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처지만 바라볼 때에는 목매달리기를 바란다는 것도 우리는 봅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끝, 그분이 우리 앞에 두시는 그 목표에 눈을 던지면, 그때 우리의 모든 슬픔이 누그러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서 자기 지옥 같은 것을 느낀다고 해 봅시다. 위로를 받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시는 원수이심을 느끼는 그 무서운 두려움을 가진다고 해 봅시다. 그래서 그의 영혼에 불이 붙은 것 같다고 해 봅시다. 그리고 가엾은 사람이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으면서, 몸으로는 한편으로 수치를 당하고 다른 한편으로 견딜 수 없는 큰 고통과 공격을 당한다고 해 봅시다. 그 가엾은 사람이 처음에는 죽음을 바라고 갈망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불과 물과 칼을 지나야 한다 해도 그보다 더 바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은 산들이 자기들 위에 무너지고 세상이 뒤집혀 자기들을 삼키기를 바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눅 23:30).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나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내게 그분의 긍휼을 내미시고, 내가 그분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분의 손에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그분은 그토록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너그럽고 자비롭게 나타나시리라는 확실한 약속과 함께 오라고 권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슬픔을 누그러뜨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쇠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남겨진 소망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을 소중히 여겨서, 우리 고통의 무게가 지나치고 그것을 질 어깨가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얼마간 그 무게를 덜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적용할 분별을 가질 때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봅니다. 곧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CO 379 우리에게 쓸모 있을 처방을 남겨 두시며, 우리가 그분께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의 병이 고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일반적인 말씀을 거두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그분은 그분의 긍휼이 늘 함께 섞이지 않을 만큼 큰 엄격함을 결코 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모두 그분 앞에 출두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소환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느끼면서 그분의 은혜와 무한한 긍휼에 피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이 아버지로 나타나실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상의 배은망덕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은 보편적이어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방식으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는 채로 이 현세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고, 또 우리 모두가 일반적으

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는지 봅니다. 그런데 그분께 돌아갈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수는 매우 적고 드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배은망덕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시는데도, 우리는 고집을 부리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경고를 밀쳐 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그분께로 다시 부르신다는 것을 소망하게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오로지 그분께 의지하려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가 거기 나아갈 때 실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소망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담대히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처음부터 우리를 이 현세에서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생각하여 그것을 싫어하고 그분께 돌아갈 여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이제 여기 놓인 위로로 넘어갑시다. "자네가 아침 일찍 그분께 가서 기도로 그분을 찾고, 자네가 정직하고 깨끗하다면, 그분이 자네를 향해 깨어나실 것이네." 이것이 특별히 덧붙여진 것은,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돌아오라고 재촉하셔도 그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가시채를 뒷발질하거나(행 26:14), 말을 듣지 않는 말처럼 굴거나, 멍하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요컨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신속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대로, 곧 기한을 늘리며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방탕한 자들을 우리는 봅니다. "아, 한숨 한 번이면 충분하다." 마치 그들이 자기 생명을 CO 380 소매 속에 넣어 두었고, 자기가 세상에 머물 시간에 대해 확실한 약속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또 마치 회개가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어서 그가 원할 때 마음대로 돌이킬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거룩하고 귀한 것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싸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늘 뒷걸음질 치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합시다. 세상은 나쁜 채무자들처럼 하려 합니다. 그들은 기한을 얼마간 연장받으면 기한이 올 때까지 근심 없이 잠을 잡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늘리시며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실 때,[90] 그들이 수치스럽게 멸망할 시간이 올 때까지 그것을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아침 일찍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여기에는 우리가 잘 주목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자마자 우리가 서둘러 그분께 달려가고, 오늘에서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기도하며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께 용서와 자비를 얻으려고 우리 잘못을 스스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의 기도가 위선으로 드려지지 않고,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된 세 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펼쳐 온 이 모든 가르침을 요약하려면, 이 세 가지 요점이 우리 기억에 잘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요컨대 사도가 권하는 대로(벧전 5:6)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 자신을 낮추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분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배웁시다. 그것도,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 가혹한 심판을 행하실 때에도 그분이 모든 것을 정의와 공평으로 하신다고 고백하기를 그치지 않고, 그분을 거슬러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도록 입을 다물 만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이 의가 있다는 것을 알 뿐 아니라 거기서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곧 그분이 반역자들, 그분의 위엄을 업신여기는 자들, 전혀 고칠 수 없는 자들을 벌하실

90. 전자본문에는 'les attendant honteusement repentance' 로 되어 있으나, 초판(1563년) 163 쪽에는 'les attendant à repentance' 로 되어 있어 초판을 따랐습니다. 'honteusement' (수치스럽게)는 바로 뒤의 '수치스럽게 멸망한다' 에만 있는 말입니다.

때, 그분이 우리를 그분께로 초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치실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르침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앞에서 인용한 선지자 이사야의 말대로 의를 배워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손을 펴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를 기뻐하실 때, 사도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대로(히 12:5) 우리는 그분의 바로잡으심에 속상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가 그분께, 그것도 아침 일찍 나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께 우리의 CO 381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또 다윗의 본을 따라(시 51:2)[91] 그분이 우리의 모든 얼룩을 씻어 주시기를 그분께 구해야 합니다.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그런 깨끗함으로 그분의 얼굴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께 씻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립시다.

91. 원문에는 시편 51편 4절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절수에 넣어 세는 프랑스어 성경의 절수이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제31편

욥기 8장 설교 2

CO 33:382–393

> 자네의 시작은 보잘것없었을지라도, 자네의 나중 형편은 크게 불어날 것이네. 청하건대 옛 시대에 물어보고, 조상들에게 알아보도록 마음을 쏟게. 우리는 어제 났을 뿐이어서 아는 것이 없네. 우리의 날들은 땅 위의 그림자와 같기 때문이네. 그들이 자네를 분명히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에서 말을 내지 않겠는가? 골풀이 젖은 땅이 아니고서 자라겠는가? 늪의 풀이 물 없이 자라겠는가? 그것이 아직 푸르고 베이지 않았어도, 다른 모든 풀보다 먼저 말라 버리네. 하나님을 잊는 모든 자들이 이와 같으니, 위선자의 소망은 사라질 것이네. (욥 8:7–13)

이 설교는 5절과 6절 해설의 나머지와 그 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O 382 먼저 우리는 이미 풀이한 내용의 요점을 거두어야 합니다. 곧 우리가 잘못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부르면 그분은 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그 조롱하는 자들처럼 그분의 인내를 악용하지 않도록 서둘러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직함과 깨끗함으로 그분께 간구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그런데 '간구한다' 는 말은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한다는 것을 담고 있고, '깨끗함' 이라는 말은 그것이 꾸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으로 우리를 그분께로 초대하시고 이끄시려 한다는 것을 봅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멸망의 길에 들어서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자비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들이 스스로

원해서 멸망해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실 때,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중으로 정죄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절망은 방탕했던 자들 대부분을 굳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흔히 말하듯 그들이 모 아니면 도 하는 식으로 굴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이 늘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실 때, 그것이 우리를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담긴 이 약속을 잘 주목합시다.

더 나아가 서두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나아오는 것을 미루거나 지체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92] 그분이 우리 죄를 생각하라고 재촉하실 때, 그것을 싫어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무엇보다 하늘에서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울릴 때, 시편에서 말하는 대로(시 95:8) 이제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맙시다. 오히려 선지자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을 행합시다(사 55:6–7).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라." 다른 구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사 49:8).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권하실 때 우리가 기다리면,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우리는 문이 닫힌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두르라' 는 이 말을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변명을 가져가 보아야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우리에게 말대꾸할 말이 한마디 있다면 하나님께는 우리를 정죄할 항목이 백 개, 아니 천 개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대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죄를

92. 전자본문에는 'ne veut point que nous hastons ne dilayons' 로 되어 있으나, 초판(1563년) 164쪽의 'ne veut point que nous diffférions ne dilayons de venir à luy' 를 따랐습니다.

순수하고 단순하게 고백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곧 고백과 함께,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회개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마땅히 벌하셨고 자기 잘못이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크다고 말하기를 거리끼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다시 그리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병이나 다른 고난으로 꽉 죄고 계시면, 그들은 그럴듯한 약속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졌습니까? 그들은 자기 안에 꾸밈밖에 없었다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 잘못을 고백하라고 명령받을 때,

CO 383 이 깨끗함과 정직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곧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악을 정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얻은 뒤의 열매가 여기 선언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의의 처소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빌닷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화목하시고 그들을 자비로 받아들이실 때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긍휼과 사랑의 능력을 느끼게 하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저지른 잘못을 용서한다고 장담하면서도 복수할 수만 있으면 결코 놓치지 않고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처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저 사람이 나를 상대할 일이 있는가? 그가 내게 불쾌한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 이런 것은 엉터리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언하실 때, 곧바로 그 효과를 덧붙이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선하심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의의 처소라고 말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표현하려는 것입니다. 곧 그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온 집에도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그의 영혼과 몸에 느끼게 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을 더 멀리 넓히셔서, 그

사람이 자녀와 가축과 온 살림에서 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넓게 확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서둘러 그분께 돌아오는 사람의 처소를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조금 전에 언급한 그 정직함과 깨끗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늘 상기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핍박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불을 붙일 땔감이 있다는 것, 곧 우리가 우리 죄로 우리 안에 그 재료를 쌓아 두었다는 것을 압시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의가 우리 집에 거한다면, 곧 우리와 우리 살림이 잘 다스려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앞서 맞이할 것이고, 우리는 오직 모든 선과 모든 안식만 느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핍박하시고 고난을 보내신다면, 그것을 우리 죄의 탓으로 돌려야 합니다. 요컨대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덧붙이는 말도 같은 이야기를 더 확증합니다. 곧 우리의 시작이 보잘것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치도록 불려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덧붙여진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알아차리는 것에 따라 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잃고 매우 빈약한 소망을 갖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을 바라보고 그것을 근거로 CO 384 앞으로 일어날 일을 결론짓습니다. "이런 일이 이런 상태에 있으면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쉬운 일임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일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비뚤어진 판단을 바로잡으려 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이해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 맞추어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매우 작아 보이는 것을 불리시는 놀랍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곧 우리가 죽음에 짓눌린 것처럼 되어 결코 우리 비참함에서 건짐받지 못할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출구를 찾아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출구는 처음에는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가 그분께 달려가기를 배우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그것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어떻게 단련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낮은 수단들로 생각하는 대로 일하실 것이다"라고 계산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알려지겠습니까? 우리를 놀라게 해야 할 그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시편에서(시 126:1)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이끄시며 구원하실 때 그것은 꿈과 같다고 말합니다. 곧 그 일이 너무나 놀라워서,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볼 때 누구나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가 우리를 깊은 심연까지 끌고 가서 우리가 아주 절망 속에 갇혔다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각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작은 것들을 넉넉히 불리실 줄 아신다고 결론지어야 함을 잘 주목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롬 4:17),[93]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셔서 우리가 갖지 못했던 새로운 존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분의 직분이요 그분께 고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구절에서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빌닷은 자기 말에 권위를 주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옛 시대에 물어보고, 조상들에게 알아보도록 마음을 쏟게." 이것으로 그는 자기가 한 말이 오랜 세월의 모든 경험을 통해 참된 것으로 알려질 것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이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도 알아보게. 시대에서 시대로 훑어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께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이 꾸밈없이 그분께 구할 때 그들의 기다림이 결코 쓸데없거나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는 어제 났을 뿐이

93. 원문에는 로마서 4장 18절로 되어 있으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말씀은 로마서 4 장 17절에 있으므로 바로잡았습니다.

어서 아는 것이 없네.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이네. 그러나 조상들은 자네에게 대답하고, 그들의 마음의 힘으로 말할 것이네." 곧 자네는 혀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 숙고된 생각에서 나오는 온전한 결론과 분별과 굳건한 이치를 CO 385 얻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빌닷이 조상들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가 모든 시대의 경험을 뜻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그때 살아 있던 노인들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어찌 된 일인가? 욥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알아보는 것이 가능했는가?" 대답은 쉽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대로 그들의 시대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합니다. 빌닷이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자네에게 알려지지 않은 가르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네. 세상 창조 이래로 길게 훑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자네는 알게 될 것이네. 곧 사람들이 자기 불의에서 돌이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고, 구원의 문이 그들에게 열렸다는 것이네. 자네는 그것을 알게 될 것이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모든 시대에 세상에 보여 주신 것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옛날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헛된 것에 빠져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강제하지 않으시면 그들이 정신을 모아 그런 공부에 쏟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 옛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되새겼다고 고백합니다(시 143:5).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 묵상하는 이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본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역사가 있어서 그것으로 일들의 기억이 보존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읽는 것을 즐기겠지만, 그것은 헛된 오락일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삶을 다스리는 법을

아는 참된 학교인 지난 모든 시대의 역사를 자기 가르침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봅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분이 그분께 달려간 자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은혜를 확증하셨는지, 모두가 믿지 않을 때에도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지만 어떻게 사람들을 그분의 진리를 얼마간 알도록 남겨 두셨는지를 봅니다. 요컨대 우리 눈이 지금처럼 흐려 있지 않고 깨끗하고 맑다면, 하나님의 일은 지혜의 바다요 심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가르침에 잘 굳게 서고자 할 때, 흔히 말하듯 코앞의 한 발짝만 보지 말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우리 감각을 넓히기를 배웁시다. 무엇보다

CO 386 하나님께서 거울 같은 것이 있기를 원하셔서, 세상이 창조된 이래 모든 시대에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교회를 지키시고 유지하셨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크게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분은 선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셔서 모든 공격과 싸우게 하셨고, 마침내 그들의 잘못을 징계하셨으며, 그들이 완고해졌을 때에는 갑절로 징계하셨습니다. 그분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경고하셨는데도 그들이 고집스럽게 남아 있을 때에는, 그들은 더 크고 더 지나친 엄격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로 그 일에 힘쓰셔서 묻혀 버릴 수도 있었던 것이 이제 우리 가르침을 위해 우리 앞에 놓이게 하신 것을 볼 때, 묻건대 우리는 그만큼 더 열심히 거기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을 간직합시다. 곧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 자체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에게 다가갈 수 없고, 그들에게 가서 알아보는 것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 시대에 섬긴 것 말고는 그들을 우리의 선지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죽지 않는 기록을 통해서입니다. 그들 자신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무리에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 물어보아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 우리에게 남긴 증언을 따라야 하며, 그것으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을 경외함 속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기로 더욱 이끌어야 할 이유가 덧붙여집니다. 빌닷이 우리는 어제 났을 뿐이고 아는 것이 없으며 우리 삶은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할 때 말입니다. 물론 이 구절은 두 가지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빌닷이 이렇게 말하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가져오든 자네는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 것을 아네. 자네는 내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귀를 기울여 줄 만큼 나이가 많지 않다고 말할 것이네. 그리고 내 말이 내 사람됨에 걸맞지 않아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 보세.[94] 그러나 자네는 옛사람들도 자네에게 똑같이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네." 저는 그 뜻은 그 정도의 가치로 남겨 두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까이서 잘 살펴보면, 이 구절의 자연스러운 풀이는 이것입니다. 곧 빌닷은 욥이 지난 시대를 알아보도록 이끌려 했는데, 우리가 우리 앞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보잘것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르침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한 두 해, 아니 하루 동안 알아차린 것 말고 우리를 핑계할 수 없게 할 다른 소송 기록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선언하셔서 더 이상 핑계가 없고, 우리는 "나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CO 387 그것을 느끼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내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가르침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디고, 흔히 말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음식을 씹어 주셔야 하며, 그분이 그렇게 씹어 주셔도 우리가 겨우 삼킬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94. 이 대안 해석의 'd' autant qu' il n' est point egal à ma personne' 는 초판(1563년) 166쪽에도 같은 형태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구문이 매끄럽지 않지만 문맥에 따라 옮겼습니다.

지난 시대를 알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모든 일을 업신여기고 "내가 내 생애에 보는 것들을 살피면 충분히 지혜로워질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먼 시대에 대해 우리에게 주시는 증언이 쓸모없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성경이 세상 창조 이래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다스리셨는지,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셨으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럼에도 그분의 선하심이 그분을 거스른 자들의 악의를 늘 이겼는지, 무엇보다 그분이 그분의 백성의 보호자가 되셔서 그들의 고난 가운데 그들을 도우셨는지 우리에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대에서 시대로 우리에게 그토록 유익한 것들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그것이 업신여김을 받고 발밑에 짓밟히기를 원합니까? 우리에게 더없이 유익한 것을 멀리 내던진다면, 그것은 너무나 추한 배은망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하는 사람인 빌닷이 욥을 이끌려 한 곳이 바로 여기라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에 알맞은 것들을 알아보도록 움직여지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나이를 조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제 났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잘 계산하고 빼고 나면 곧 녹아 사라지는 달팽이와 같습니다. 오십 년이나 육십 년을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의 노래, 곧 시편 90편(4절)에서 말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 년이 하루와 같고, 그러므로 사람의 삶은 이미 지나간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이 짧다는 것, 모든 시간이 그림자처럼 흘러간다는 것을 잘 알 때, 우리는 지난 일들을 알아보는 데 그만큼 더 부지런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짧음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역사와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을 통해 우리에게 현재처럼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서 모든 시대를 모으셔서, 이 세상에서 오십 년을 사는 사람이 자기 앞에 오천 년을 놓고 그것을 정리하여 차례대로 알 수 있게 하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너그러우셨습니다. "홍수 전에 이토록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려 하셨을 때, 그분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셨는가? 진리를 증언하다가 핍박받은 CO 388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했는가? 그리고 잘못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으셨는가? 그리고 교회는 다시 일으켜 세워진 뒤에 어떻게 제자리를 지켰는가?"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들이 지나간 지 오천 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를 자극하여, 우리 발 앞만 보지 않고 눈길을 더 멀리 던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장 위에 두신 것처럼 하셔서, 우리가 백 년이나 그 이상의 기간만이 아니라 세상 창조 이래로 두루 살펴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빌닷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봅니다. 곧 우리는 어제 났을 뿐이고 우리 삶은 그림자일 뿐이므로,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것으로 충분할 만큼 오래 이 세상에 있지 않으므로, 더 멀리 바라보는 것이 좋으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난 시대를 알아볼 수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컨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난 일들에 대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모든 것을 잘 살피되, 우리와 아무 상관 없는 일로가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억 속에 되살려진 일로 살피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옛 시대의 모든 역사를 우리의 가르침에 적용하여,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필요 가운데 그분을 부르며, 그분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분을 경외하고 공경하게 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 구

절에서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풀이 젖은 곳이 아니고서는 자라지 않듯이, 늪의 풀도 물 없이는 자랄 수 없으며, 그런 풀들이 꽃을 피우고 베이지 않더라도 저절로 말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위선자와 하나님을 잊는 모든 자들의 소망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의 반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미 이 장의 첫머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빌닷은, 한동안 방탕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그는 앞에서 말했던 것, 곧 하나님께서 위선자들과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데로 돌아갑니다. 그는 매우 알맞은 비유를 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풀 같은 늪의 풀이나 그와 비슷한 풀들이 젖은 곳이 아니고서 자랄 수 있겠는가?" 물론 산에서 물 없이 자라는 풀들도 있습니다. CO 389 흙이 거의 없고 바위가 온통 드러난 곳에서도 어떤 풀들이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풀들은 본성상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풀과 그런 풀들은 늪이 아니면 자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의 양분은 물이므로, 땅이 늘 젖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곧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골풀이나 늪의 풀이 젖은 곳이 아니면 자랄 수 없듯이, 하나님에게서 양분을 얻지 않는 사람도 그의 모든 그럴듯한 겉모습과 함께 멸망할 것이고, 말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비유는 이 구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꽤 자주 나옵니다. 시편 1편(3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데 온전히 힘쓰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으며, 뿌리가 늘 물을 마시므로 그 나무는 결코 시들거나 마르지 않고 푸름을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이 멸망하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표현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늘 그들 위로 흘러내려 그들을 끝까지, 아니 끝없이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 동안 유지되기 위해서만 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 물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늘 꽃을 피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레미야 17장 (5–8절)에서 더 잘 표현됩니다. 선지자가 두 부분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팔을 자기의 소망이나 힘으로 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모래땅과 황무지 사이에 조금 돋아난 풀이나 떨기나무와 같을 것이다.” 좋습니다. 얼마간 푸름이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더위에 그을려서, 그런 떨기나무는 금세 햇볕에 타 버릴 것입니다. 푸르게 보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거나 피조물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햇볕이 아무리 뜨겁고 모든 것이 타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사람은 물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분을 주셔서 그가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두 비교를 놓아 서로를 돋보이게 함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것을 충분히 표현하지만, 이 본문에는 그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빌닷은 물 없이는 양분을 얻을 수 없는 종류의 풀을 골랐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는 (시 129:6) 악인들이 지붕 위에서 자라는 풀과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집 지붕 위에서 자라는 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CO 390 풀들은 발에밟히고, 사람들이 풀밭 위를 걸어 다닙니다. 그러나 철이 오면 풀밭의 풀들이 자라고 꽃을 피웁니다. 심지어 풀밭을 베어도 풀들은 자라고 다시 생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지붕의 풀은 무엇을 냅니까? 그것을 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팔에 가득 안아도 거기서 추수할 것을 찾지 못하고, 거기서 열매를 찾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풀로 뒤덮인 지붕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풀들에 복을 주시기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뽑히면 좋아할 것이고, 해도 그것들이 익기 전에 태워 버려서 그것들은 결코 완성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처럼 악인들도 높아지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보다 더 높이 평가받

더라도 말라 버려서, 아무리 그럴듯한 겉모습을 가져도 아무 열매를 내지 못하며, 속에는 아무 실속이 없습니다. 여기서 골풀과 늪의 풀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것을 주목합시다. 잘 자라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양분을 얻어야 하고, 그분 가까이 있어야 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물 주기를 그치지 않으셔서 우리를 살리고 힘을 주시는 끊이지 않는 물과 같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요컨대 여기 담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잘 확신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각자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우리는 모든 선한 것이 어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조차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대로(호 12:1) 각자 바람을 먹고 삽니다. 곧 사람들은 알면서도 스스로를 속여서, 자기가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바람, 곧 어리석은 자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푸르고 꽃을 피울 수 있고,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눈이 멀어서, 자기 안에 그럴듯한 겉모습이 조금 있으면 각자 하나님 없이도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일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각자 자기의 헛된 어리석음으로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있지도 않은 것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눈먼 일임을 보여 주시면서 우리를 그분께로 이끄신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렘 2:13) 그분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나는 참된 시내다. 너희는 내 은혜로 끊임없이 물을 받아야 한다. 너희 안에는 메마름밖에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푸르게 보여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시들 것이다.” CO 391 빌닷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

로 이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풀들을 베지 않더라도, 물기가 없으면 그것들은 마를 것이네. 그렇다네, 그것들이 한창무성할 때에 모든 것이 말라 버린 것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놀랄 것이네. 위선자들의 소망도 그와 같다네.” 이것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손을 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은밀하고 알려지지 않은 능력으로 우리를 소멸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 안에 좋고 살아 있는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들의 손으로 악인들을 벌하셔서 멸하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그들을 서로 대적하게 하셔서 그들이 서로 망하고 파괴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능력을 자만하던 자들, 놀랍게 높아졌던 자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눈으로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멸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햇볕 아래 눈처럼 녹아 버리는 것을 사람들은 봅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라져 버리는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사람들을 쓰지 않으셔도 사람들뿐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큰 성들과 수많은 재산과 영지와 재물까지도 흘러가 사라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그 모든 것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표현된 대로, 그런 풀들은 베이지 않더라도 익을 물기가 없으므로 여전히 말라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선자들의 소망이 사라질 것이라는 말도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곧 속에 연기와 거짓밖에 없는 자들도 겉보기에,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에는 여전히 푸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모든 선한 것을 빼앗긴 상태인데도 너무 짐승 같아서 우리가 매우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빌닷은 여기서 특별히 위선자들의 소망에 대해 말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선자들이 그럴듯한 겉모습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네. 그들은 자기 덕에 대해 가진 그 그럴듯한 겉모습을 즐길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모든 일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보이네. 그러나 그들은 시들고 말라서, 그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삼켜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놀랄 것이네." 그러므로 더 이상 알면서 스스로를 속이지 맙시다. 곧 우리가 한동안 일시적인 번영을 누리더라도, 그것을 믿고 잠들지 말고, CO 392 이 세상의 재물과 쾌락으로 눈가리개를 만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 모든 선과 행복의 샘이시니, 온전히 그분께 기댑시다. 이것이 여기서 언급된 '소망' 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끝으로 빌닷이 위선자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라고 묘사한다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꽤 많이 말하지만, 그래도 그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선이 그분 안에 있고, 오직 그분 안에서만 구원을 찾아야 하며,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이 없으면 우리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사람들이 자기 덕을 즐기며 자기가 앞으로 나아가고 자기를 유지할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 안에서 모든 고통의 처방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달려가야 하는데,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서는 모든 선한 것을 빼앗긴 상태이므로 모든 선한 것을 그분의 손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덕을 신뢰하는 자들, 자기 수완으로 자기를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어떤 식으로든 자기를 믿고 주제넘게

구는 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분에게서 그분의 직분을 빼앗아 스스로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자기의 악한 감정과 육적인 욕심에 빠진 자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사는 자들을 어떤 식으로도 길들일 수 없는 것을 봅니다.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하게 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진 사람에게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고 일깨우면, 결코 그를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그에게 하나님을 들이받을 뿔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추악함에 빠진 음행하는 자를 권고와 바로잡음으로 거기서 건져 내려 하면, 그는 고쳐지기는커녕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기 감정에 휩쓸린 모든 자들은 들짐승과 같아서, 알면서도 멸망으로 뛰어들고, 아무도 그들을 바른길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바르게 행하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우리 눈앞에 모셔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성경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칭호입니다. 위선자들은 하나님을 잊는다고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분명히 표시하시고 그분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려 하실 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CO 393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그러므로 거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인정하기를 배웁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의 가난함을 도와주시도록 그분을 부르게 합시다. 우리가 그분께 구걸하러 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로 물을 주셔서, 우리가 큰 더위를 느끼더라도, 곧 이 세상에서 무거운 고난을 당하더라도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을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번 그분 안에 좋은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러지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께로 거두셔서 하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실

때까지 늘 우리를 지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늘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로 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그것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32편

욥기 8장 설교 3

CO 33:394–405

> 위선자와 주를 잊는 모든 자들의 길이 이와 같으니, 그들의 신뢰는 끊어지고 그들의 기대는 거미집이라네. 그는 자기 집에 기대지만 집이 버티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만 서 있지 못할 것이네. 해 앞에 심긴 나무라면 그 가지가 동산에 두루 뻗을 것이네. 그 나무는샘 곁에 뻗고 돌집을 향해 뻗어 나가네. 그 나무가 제자리에서 뽑히면, 그 자리는 그에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고 말할 것이네. 그 나무의 기쁨은 다른 곳에 다시 심기는 것이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아니하시네. 마침내 그분이 웃음으로 자네 입을, 기쁨으로 자네 입술을 채우실 것이네. 자네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악인들의 장막은 서 있지 못할 것이네. (욥 8:13–22)

CO 394 우리는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앞에서 밝혔습니다. 이것은 잘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이 말 아래에 위선, 곧 사람들의 헛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거룩함을 그분 앞에서 갖기를 원합니까? 그분 앞에 있는 것처럼 행하고,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시게 하며,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가 그분의 지키심 아래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로 이끄시는 것이 그분의 일임을 알도록 힘씁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한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여기서 위선이라고 부르시는 그 헛됨에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잘 표현하려고 그분은 그런 사람들의 신뢰가 거미가 짜는 거미줄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짠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거기에는

아무 굳건함도 없습니다. 헛된 소망을 쌓는 자들도 그와 같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끝까지 버틸 것이라고 스스로 믿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헛된 주제넘음에 보복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지하시고 우리 평생에 복 주시는 영예를 그분 자신에게 남겨 두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런저런 것을 스스로 믿을 만큼 어리석거나 자만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헛된 소망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또 마땅히 그분께 돌아가야 할 영예를 그들이 그분께 돌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우리의 모든 헛됨에서 건져내고 좋은 길로 걷게 하는 방법과 처방은 오직 하나뿐임을 잘 주목합시다. 곧 하나님의 직분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거기에 힘쓰는 사람은 매우 적고, 그래서 세상이 이런 위선으로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 더 이 구절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이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만큼 둔해졌거나 이리저리 내던져졌다면, 우리가 그렇게 길을 잃었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다시 부르시고 우리가 어리석은 신뢰 속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확실한 의지처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실 때에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거미처럼 짓지 말고 그분 안에서 굳건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의지처와, 우리가 피조물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 사이에는 분명 비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피조물에게 두는 모든 소망을 정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CO 395 하나님 밖에서 굳건함을 찾으려 합니까? 분명 거기서는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에 빠져 거기에 기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멀리 쫓아내려 합니다. 그분이 그것을 참으시고, 그런 모든 헛된 신뢰를 저주하지 않으시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그러나 이 구절은 말로 잘 풀이하는 것보다 잘 묵상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실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 인간적이고 낮은 수단들을 찾으면 그것이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그분의 영예를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다른 데로 돌린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에 보복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 삼아 그분이 우리가 쌓으려 애쓴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과 은혜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거미줄이 아니라 영속하는 굳건함을 가질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마땅히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날마다 위선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는 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런 본보기에서 유익을 얻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이제 여기 덧붙여진 비유로 넘어갑시다. 앞에서는 마른 곳에 있는 골풀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골풀이 본성상 늪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골풀이나 그와 비슷한 풀이 물 없이 마른 곳에서 자라면, 모든 것이 때가 되기 전에 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뽑으려고 손을 대지 않더라도, 베거나 깎지 않더라도, 그것은 멸망해 갑니다. 반대로 여기서는 좋고 살아 있는 뿌리를 내린 나무가 샘 곁에 심기면 그 가지와 줄기를 뻗어서 집 가까이까지 이르거나, 돌집처럼 튼튼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잘 심긴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동산의 주인이 그것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무를 아주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그 자체로 좋고 좋은 뿌리를 가졌지만, 알맞은 자리에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것을 다시 심으려고 뽑습니다. 그런데 아무 방해가 없고 좋은 양분과 물기를 얻을 수 있는 더 넓은 곳에 그것을 옮겨 심는다면, 그 때문에 나무가 탄식해야 하겠습니까? 그 처지가 더 나빠졌습니까? 아닙

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에게 기뻐할 감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이렇게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심겨도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아주 뽑아 버리지 않으실 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그들을 한동안 뽑으시지만, 뿌리를 보존하셔서 그들이 다시 심겨 다시 푸르러지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런 일은 날마다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CO 396 우리를 징계하시되, 처음에는 그분이 우리를 아주 짓눌러 버리시려는 것처럼,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만큼 거칠게 징계하실 때 말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은 마치 큰 재산을 가진 부자가 자기 동산에서 나무를 뽑아, 나무가 더 잘 뻗을 수 있는 밭에 옮겨 심는 것과 같습니다. 햇볕이 나무에 양분을 주고, 나무가 심긴 땅은 더 깊이 뿌리내리기에 알맞아서, 나무가 자라고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손에 괴로움을 당하되, 그것이 일종의 죽음처럼 보일 만큼 혹독하더라도, 그 때문에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상태로 회복시키실 수 있고, 우리가 꽃을 피울 것이며, 그분이 우리를 전처럼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컨대 이것이 여기서 선언된 내용입니다.

결론으로 빌닷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편들려고 그의 손을 잡지 않으실 것이며, 선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입을 기쁨으로 채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여기서 욥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이 그분이 자기에게 너그럽고 은혜로우심을 느낄 것이라는 뜻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컨대 악인의 장막은 서 있지 못할 것이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의 모든 원수를 부끄럽게 하실 것이네." 그리고 그분은 그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누가 그들을 괴롭히고 들볶으면

그 사이에 들어서셔서 그들을 그분의 변호와 보호 아래 두셨다는 것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구절입니다. 곧 우리는 어떤 곳에서 뽑혀 다시 심기는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들도 뿌리째 뽑힐 수 있지만, 그것은 소망 없이 그대로 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 그 나무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마 3:10; 7:19) 위협을 우리가 듣는 대로입니다.[95]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무섭게 찍어 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그들이 완전히 버림받아 멸망에 빠진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을 영원히 쓸어 버리셔야 합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마 15:13). "하나님의 손으로 심지 않은 나무는 모두 뽑힐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동안 어떤 겉모습을 가져서, 마치 나무처럼,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동산과 소유 안에 두신 나무처럼 보이는 자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위선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가장 앞선 자가 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좋고 굳은 뿌리를 갖도록 심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 버리셔야 합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CO 397 우리 주 예수께서는 포도나무의 밑동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 심긴 가지들입니다(요 15:1–6).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꾸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고 늘리시려고 늘 우리 위에 손을 얹고 계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거나 아주 쓸모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이 탄식을 하실 수 있다면(사 5:4)[96] 어떻겠습니까? "나의 포도원아, 내가

95. 원문에는 이 인용에 마태복음 15장 13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불에 던진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0절과 7장 19절에 있고, 15장 13절은 바로 뒤에 나오는 '심지 않은 나무는 뽑힐 것이다' 라는 말씀에 해당하므로 그에 맞추어 바로잡았습니다.
96. 원문에는 이사야 6장 5절로 되어 있으나, 포도원을 향한 이 탄식은 이사야 5장 4절의 내용이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너는 내게 쓴 것만 내느냐? 나는 네게서 단 것을 기대했는데, 너는 네 주인을 목 졸라 죽이려는 것 같구나. 그러니 너를 뽑아 버리는 것 말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 머리털을 곤두서게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 우리는 아주 쓸려 버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과 고칠 수 없는 자들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은 그만큼 뽑아내는 일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시들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징계하실 때에도 그분은 그에게 자기를 생각하고 돌이킬 여유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들은 이 세상에서 징계를 하나라도 느낄 때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기 시작하시며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멸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매로 고쳐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지고 그분께 더 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악의가 아주 가망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손을 드실 때마다, 그것은 이미 그들을 뽑으시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러나 그분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꾸밈없이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우리 처지를 더 나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님을 잘 주목합시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새로워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는지 느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우리는 또한 우리가 거기에 피해야 할 필요를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은 가엾을 만큼 많은 재앙에 매여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셔서 우리가 멸망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고전 15:19).[97] "우

므로 바로잡았습니다.

97. 원문에는 고린도전서 16장 19절로 되어 있으나, 소망이 이생에만 있다면 가장 불쌍한 자라는

리의 소망이 세상에만 있어서 이 땅에 머문다면, 우리는 모든 피조물보다 더 불쌍하다."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시절을 보낼 것이고, 그들의 처지가 더 행복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뽑힐 것처럼 보이고 이토록 고난을 당한다면, 여기 놓인 이 위로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매로 우리를 치시고 낮추실 때 우리가 뽑히는 것은 아닙니다. CO 398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느낌, 특히 우리가 고통에 짓눌릴 때의 느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것과 같은 어느 정도의 고난, 곧 어떤 병이나 어떤 모욕이나 재산 손실이나 다른 어떤 고난을 보내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감정으로도 뽑히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무에 쓸데없는 것이 있는 것을 보고 가지를 많이 잘라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 나무의 절반을 잘라 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무는 여전히 남아 있고, 그 뒤에 새 가지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바로잡음을 쓰시고 극도의 엄격함으로 나아가지 않으실 때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시험하려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덤에까지 들어가서, 보기에 생명의 불꽃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처럼 될 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거슬러 들릴 때 어지러워하며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고난에서 빠져나갈 출구를 찾지 못할 때, 고통이 그들을 몰아치고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이렇게 크고 지나칠 때, 바로 그것을 '뽑는다' 는 말이 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징계하실 때마다, 그 징계가 가혹해 보이고 우리 본성으로는 괴롭더라도 놀라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흔히 말하듯 우리는 그대로 있기를 바라고, 우리 처지가 줄어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떤 가지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있으므로 바로잡았습니다.

잘라 내시면, 우리의 타고난 감각에서는 어떤 거부감과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고난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용기를 내어 여기 놓인 이 셈법을 따르도록 힘씁시다. "그래, 나무에서 가지를 자르면 한 해 동안 그만큼 아름다움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좋은 농부, 자기 재산을 잘 불리는 사람, 좋은 살림꾼이 나무를 자를 때에는 분명 그 나무를 더 나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더 잘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이 우리를 처분하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열매 맺게 해야 하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서 어떤 가지를 자르고 쳐내시는 것을 참고, 이 타고난 괴로움과 처음에 품게 되는 근심과 싸웁시다. 그것과 싸워서 우리가 꺾여 이렇게 말하게 합시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부분을 잘라 내기를 기뻐하실 때, 그분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신다." 더 나아가 CO 399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작고 흔한 고통이 있을 때 우리의 인내를 보여 준 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까지 이끄신다면, 곧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시는 것처럼 보일 만큼 극한의 방법을 쓰셔서, 우리가 이리저리 생각해 보아도 스스로를 정죄하고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도, 우리는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뒤에서 말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소망해야 합니다(욥 13:15). 그분은 상처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고치시는 의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시 23:4). "내가 사망의 어둠 속을 걸어갈지라도, 내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기만 하면 ", 곧 그분이 나의 목자이심을 나타내시기만 하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 한도 이상으로 우리를 누르시고 우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를 절망으로 유혹하는 이 유혹과 싸우기를 배웁시다. 그래도 버티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가 뽑혔는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심으실 수 없

으시겠는가? 땅을 가는 농부도 나무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없으시겠는가?"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를 기뻐하실 때 우리가 전보다 더 잘 회복될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렇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이성으로 재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 그런 모욕을 드리지 맙시다. 오히려 그분이 죽을 인생들에게 주신 능력을 그분 자신에게서 빼앗지 않으셨으며, 그분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은 능력을 가지셨음을 압시다. 그래서 그분은 가장 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데 방해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재앙이 아주 치명적일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뻐할 이유를 가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현세의 처지가 어떠한지 봅니다. 각자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탄식할 줄 모르고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은 입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그는 아픔에 갇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내게 이런 불행이 닥쳤다. 나는 이것이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 큼줄이셨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잘 생각할 줄 압니다. 그리고 마귀도 그것을 우리 앞에 내놓기를 빠뜨리지 않아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시달리며 하나님께 분을 품기까지 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면, 모든 것이 그들에게 구원으로 바뀔 것이며, 멸망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에서 그들이 유익과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CO 400 그래서 처음 보기에 훨씬 더 낯설고 거친 경우까지 여기서 우리 앞에 놓입니다. 곧 '뽑는다' 고 말할 때, 그때 나무는 죽은 것이고 끝난 것입니다. 나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흙을 걷어 내면 더 이상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세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서 거두시면, 우리는 뽑힌 것이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이 재물을 가지는 데, 우리를 부양하고 먹일 것을 가지는 데 달려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무처럼 하지도 않습니다. 나무는 자기 뿌리가 차지할 수 있는 만큼의 자리로 만족하지만, 사람은 끝없는 욕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깊은 구렁이어서, 온 세상도 우리를 부양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밭과 재산과 포도원과 다른 유산을 가진 자들도 땅이 모자랄 것처럼 생각합니다. 지갑에 돈이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자기 몫을 깎으시고 자기 분깃을 줄이실까 봐 두려워하고 의심하며,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욕심이 이토록 멀리 뻗어 있으니, 우리는 나무뿌리 같은 정도가 아니라 끝도 한도도 없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에 머무르는 절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 정하신 일상의 수단 없이는 우리 삶이 유지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분은 우리에게서 빠져나간 수단들을 다시 세우셔서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그 일이 우리에게 쉬워 보이지 않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분은 그것을 잘 정리하셔서, 그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셨을 때 우리가 그분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높일 이유를 가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각자 그런 곤경에 처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재산이 그만큼 줄어든 것을 본다. 나는 내가 가졌던 이런 수단들에서 밀려났다. 어찌 된 일인가? 내 살림이 이것저것 줄어든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라 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잘라 내신 것은 내게 쓸데없는 것이었다고 말해야 하고, 나는 그것에서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렇다는 것을 내게 보여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쓸데없다고 아시는 것을 이렇게 잘라 내시는 것은 이유 없는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결론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뽑힐 준비를 합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은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CO 401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몫을 줄이시면, 그들은 꿋꿋함을 보여서 거기에 엄청난 야심이나 지나치게 무절제한 탐욕이 없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보게 됩니다. 그들은 남은 것을 받아 그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평온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금 더 세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짓눌러 버리려 하시는 것처럼 보일 만큼 몰리면, 그때 그들은 온통 놀라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싸움, 곧 아주 뽑히는 싸움을 감당하도록 마땅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가지를 자르시고 그분이 쓸데없다고 아시는 것을 쳐내시도록 허락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뽑으시는 것도 허락합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거기에 저항해 보아야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다시 심으실 것을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긍휼에 자리를 내어 드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고난을 당한 뒤에 "이제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새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는 것이어서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마다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더 이상 우리를 다시 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을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불신으로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그런 복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르러야 할 곳은 이것입니다. 곧 각자 뽑히는 것처럼 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분적으로 괴롭

게 하셨다면, 그분이 우리 자신과 아내와 자손과 명예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서 우리를 온전히 괴롭게 하기를 기뻐하셔서, 말하자면 우리가 가엾은 송장처럼 되어 생명이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되더라도, 그래도 평온하게 머무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인간의 덕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애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그분이 우리 생명을 마음대로 다루실 수 있게 되어 우리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준비도 죽을 준비도 되어 있게 해 주시기를 그분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기록된 것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었다가 뽑고 마침내 더 좋은 곳에 다시 심는 나무에 견주셨을 때, 그분은 우리 소망을 헛되게 하려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 관해서는 우리가 늘 다시 심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뽑힌 채로 남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처지에 따라 판단하려 한다면 CO 402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려 하셨다면 그렇게 오래 기다리거나 미루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분이 나를 여기서 내 고통 속에 썩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보니, 그분은 결코 나를 다시 일으키려 하지 않으신다는 표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늘 생명의 소망 속에 우리를 붙들어 두심으로써 우리 믿음을 시험하려 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얼마간 번영을 주신다 해도, 그들의 마지막 상태가 그들에게 더 좋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서 끝없이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그분의 교회에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된 부활과 새로워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 두셨다가 그분의 나라

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다니게 하시고 물과 불과 온갖 고난을 지나게 하신 뒤에, 마침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비참에서 벗어나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간직합시다(골 3:3–4). 곧 우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으며, 우리 주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것이 참되고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컨대 우리에게 꽤 친숙할 또 다른 비유를 봅시다. 겨울에는 나무들이 죽은 것처럼 보일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비가 와서 나무들을 썩게 하려는 것처럼 보고, 나무들이 비에 흠뻑 젖어 터질 지경입니다. 그래, 그것은 썩음입니다. 그다음에 서리가 와서 그것들을 태우고 말려 버리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지만 꽃 한 송이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다 잘려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넉 달이나 다섯 달 동안 계속되는 일종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무의 생명은 감추어져 있고, 푸름은 뿌리와 나무 속심에 있습니다. 우리 생명도 이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잘것없는 숨을 곳일 것입니다. 그것을 태우는 데 큰 서리가 필요 없고, 그것을 썩게 하는 데 큰비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멸할 불과 서리를 우리 안에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분이 그것의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모든 생명을 길어 오는 분이심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 숨을 곳으로 만족합시다. 물론 농부가 나무를 뽑았다면, 그것을 다시 심으려 할 때 서둘러야 합니다. 나무가 얼마 동안 그대로 있으면, 새로 다시 심더라도 결코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땅의 농부들이 갖지 못한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사람들의 솜씨도 봅니다. 그들은 나무를 얼마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CO 403 그들은 나무를 그늘진 곳에 두어 바람이나 햇볕이 그것을 말리지 못하게 하고, 그 수액이 늘 그 안에 갇혀 있게 합니다. 사람들은 나무의 생명을 영원히 구할 수는 없지만, 어떤 방법을 찾아 어느 정도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뽑힌 채로 두려 하실 때, 그분이 그래도 우리를 보존하실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분은 원하실 때 우리가 새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우리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에서 잘 유익을 얻으려면 각자 여기에 힘쓰고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결론으로, 그리고 이 이야기를 확증하려고,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시고, 반대로 선한 사람들의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늘 선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확정된 법을 강요하여 "현세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분께 복을 받고 늘 번영하도록 우리를 다루셔야 한다"라고 말하려 한다면, 이 가르침은 거짓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아버지와 구원자가 되시는 자들이 편안하고 안식하게 하는 그런 규칙을 여기서 지키려 하지 않으신다는 증언은 성경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드럽게 대우받고 모든 것을 바라는 대로 다 가지며, 악인들이 혹독하게 벌을 받는다면, 마지막 날을 기다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점에서 잠들어 버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재판관으로 나타나실 필요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 드러나 있어서, 다른 구원의 소망이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들을 뒤죽박죽인 채로 두시고, 선한 사람들이 끝까지 시달리며, 악인들이 개선 행진하듯 높아지는 데도, 우리는 여기서 졸고 있고 너무 둔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곧 지금 우리 생명이 감추어져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것이 드러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을 바라보도록 감동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촉하시고 거의 억지로 거기로 끌어당기시는데도, 어쨌든 우리는 그런 생각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을 이끄셔서 모든 것이 잘 정돈되고 아무도 역경을 겪지 않으며, "보라,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을 도우시고, 그러는 동안 악인들의 원수이심을 보이셔서 그들을 CO 404 참거나 견디지 못하신다"라고 알아볼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분명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낙원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헛된 기다림이며 거기에 기대를 걸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일정하고 고른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셔서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악인들을 벌하시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넘쳐흐르고 그분께 대들며 그분을 조롱하기만 할 때, 한동안 그분이 못 본 척하시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무시거나 그들을 억누를 방법이 없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들은 제멋대로 즐기며 가장 좋은 시절을 보낼 것입니다. 반대로 선한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들이 그분을 향해 신음하고 그분을 부르지만, 그것이 헛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들이 응답을 받았다면 그 효과가 나타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미 내세운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성경의 다른 구절들도 끌어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믿음은 썩어질 금속보다 훨씬 더 귀하며, 금과 은이 찌꺼기를 없애려고 불을 지나야 한다면, 우리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만큼 더 세게 시험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벧전 1:7).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유익을 얻으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의 친구로 나타나시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반대로 그분은 그분의 믿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그분의 사랑을 선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시들게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발에 짓밟히고 결코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분은 여기 담긴 것을 이루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곧 그분은 악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진 모든 좋은 것, 그들이 즐기고 자랑하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 수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그때 그분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을 바라볼 눈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기 우리 주 예수께서 외치십니다(눅 6:25).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너희여, 너희가 울 것이다. 즐거워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그만큼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기쁨은 그들에게 비싼 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말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확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CO 405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영예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그분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곧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역경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아직웃을 이유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된 결말을 바라보므로 위로받고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말이 우리의 육적인 눈과 이해로는 알아볼 수 없더라도 말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완전히 확실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떤 번영을 누리든, 겉보기에

꽃을 피우든, 모든 것이 그들에게 파멸과 수치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믿는 사람들은 여러 방식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시달리지만, 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므로 결코 쓰러지지 않으며, 모든 것이 그들에게 구원과 유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여기 담긴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요컨대 이것이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처를 이 세상이나 이 땅의 모든 낮은 수단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기를 배웁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심겨 그분에게서 힘과 양분을 얻어, 우리 생명이 감추어져 있고 우리가 죽음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버티고 좋고 굳은 상태로 유지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비참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하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위해 얻으신 그 영광으로 부르시고 들이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33편

욥기 9장 설교 1

CO 33:406–417

> 욥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참으로 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할 줄을 아네. 사람이 그분과 따지려 한다면, 천 가지 가운데 하나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할 것이네. 그분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누가 그분을 거스르고도 평안하겠는가? 그분은 산들을 옮기시되 그들이 알지 못하게 하시며, 진노하셔서 그것들을 뒤엎으시네. 그분은 땅을 그 자리에서 흔드시니 그 기둥들이 떠는구나. (욥 9:1–6)

CO 406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며 그분께는 흠잡을 데가 없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만, 누가 괴로움을 당하면 그들의 격정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듣게 될 뿐 아니라, 그렇게 몰린 자들이 목청껏 그분을 모독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상대하는 분께 그렇게 분을 품을 수 있을 때,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복수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만큼 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의를 미리 묵상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 늘 이런 겸손 속에 머물러 그분을 있는 그대로, 곧 의로우시고 나무랄 데 없는 분으로 인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공평밖에 없다고 일반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빌닷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이 주장을 지키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들이 받을 만한 대로 벌하신다는 데 머무름으로써 그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풀어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본 대로, 거기에는 고른 규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악인들을 아끼시고 참으시며, 때로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셔서 전혀 고칠 수 없는 자들보다 훨씬 더 엄하게 다루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각자 받을 만한 대로 징계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분의 의를 지키려 한다면 잘못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잘못입니다. 곧 하나님의 의를 재려 하여 "그분은 각 사람을 그의 잘못 때문에만 괴롭게 하시며, 각자 그분을 거스른 만큼의 성질과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갚으셔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빌닷이 앞에서 한 것보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를 훨씬 더 잘 다룹니다. CO 407 곧 이 죄나 저 죄를 보지 않고, 사람들을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으며, 고난이 가혹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반박받으실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말하기 방식임을 잘 주목합시다. 하나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분은 사람들을 그들이 받을 만한 대로 벌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분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든 우리는 모두 입을 다물고 그분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거기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룬 대로,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는 악한 사람을 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특별한 심판을 알아서 경고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음행을 벌하시고, 잔인함을 벌하시고, 거짓 맹세를 벌하시고, 모독과 그와 비슷한 것들을 벌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든, 어떤 죄에 빠진 나라나 지역에든, 하나님께서는 손을 대시고 거기서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거울을 보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보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니, 각자 조심하라" 하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고전 10:6–

11). 그분이 그분의 말씀을 거스르는 반역을 벌하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악한 욕심을 벌하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고삐에 짧게 매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음행을 벌하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몸과 영혼이 온전히 깨끗하게 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의 심판을, 그것이 분명할 때에는 바라보고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무개를 벌하셨는데, 그는 행실이 나쁘고 방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어떤 나라에 보복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나라가 온갖 더러움과 오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고른 규칙을 지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든 늘 의로우시다는 데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 감각과 공상에 따라 하나님의 의를 지키면서 스스로 정교한 박사라고 생각하는 짐승들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으로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말한 대로, 그분이 사람들을 각자의 잘못에 따라 다루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들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돌려야 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무너지고 없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을 택하시고 그분의 값없는 선하심으로 구원으로 부르시며, 다른 자들은 CO 408 그분께 버림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으므로 매우 이상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자인 체하는 이 거지들은 그들의 공상대로 하나님의 의를 증명하려고 우리 믿음의 첫 기초들을 뒤엎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비교하여 늘 의로우시다는 것을 알 만큼 높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또 다른 잘못된 극단도 조심해야 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추한 삶을 사는 자들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추함이 드러난 것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세상에서 보기에는 선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을 나도 고백한다." 그들은 이 공통의 외투로 자기를 가릴 것입니다. 여기 십 년 동안 매음굴을 드나든 음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분께 대드는 모독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과 모든 신앙을 업신여기는 비열한 자가 있습니다. 여기 오직 재물만 탐하는, 믿음도 신의도 없는 방탕하고 양심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엄청난 자기 잘못은 내버려 두고 인간적 연약함이라는 외투 아래 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등할 수 있는 죽을 인생은 하나도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고백을 한 것만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 두 항목을 모두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미 보여 드렸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대해 의로우시며,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든 무엇을 내세울 수 있든 하나님과 따지거나 다투어서는 안 되고, 크고 작은 자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둘째는, 각자 자기 자신을 개별적으로 돌아보고, 각자 자기 잘못에 대해 신음하며, 그것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죄에 내리시는 보복과 벌을 깨달아 거기서 유익을 얻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매에 맞으면 각자 "이것은 정당하다. 나는 이것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 눈앞에서 다른 이들을 바로잡으신다면, 그것은 우리와 관계된 일이므로 그런 본보기를 우리 가르침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여 주신 징계로 유익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덮치실 수

밖에 없게 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막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주목하고 실천해야 할 두 항목입니다.

이제 여기서 욥이 하는 말을 풀어 봅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할 줄을 아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CO 409 이 '함께'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와 같은 뜻입니다.[98] 그런데 이것을 잘 알면 이것은 매우 무게 있는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대담하게 자기를 의롭다 하는 원인, 곧 그들이 자기를 믿고 자기를 높이 평가하며 교만으로 가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땅에 머물러 각자 자기를 이웃들과 비교하기 때문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큰 재판관께로 다시 데려갑니다. "각자 자기 짐을 질 것이다"(갈 6:5).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친구들아, 그런 비교를 할 때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인다. '도대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도 나보다 더 잘 살지 않는다. 내게 악덕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있다. '" 그래서 사람들은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자기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의롭다 하면서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곧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 죄에 대해 말하고 그것을 우리 앞에 내놓을 때마다, 우리 눈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우리가 셈을 드려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석을 바라보아야 함을 배웁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위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자 거기를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깨어나서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돌이킬 것이고, 죄인들을 늘 잠재우는 그런 헛된 상상과 몽상을 더 이상 갖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켜졌다면, 오늘날 그리스도교 세계에 믿음의 의에 관한 논쟁이

98. 원문의 'avec Dieu' 는 '하나님과 함께' 로 직역할 수 있으나,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본문 상자의 번역은 칼빈의 풀이를 따랐습니다.

없었을 것입니다. 교황주의자들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우리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구원이 달려 있는 공로와 선행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데 교황주의자들이 자기 공로에 머물러 거기에 취해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학교에서 이렇게 논쟁합니다. "악행이 벌을 받아 마땅하듯이 선행은 보상과 삯을 받아 마땅하다. 그것들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죄가 벌을 받아 마땅하다면, 덕에는 어떤 보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고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보이고, 그늘 속에서는 그렇게 논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황주의자들은 이 논쟁 위에서 잠들어 버리고,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분 편에서 심판하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그들의 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분의 위엄에 따라 다스리십니다. 곧 그분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을 사람들에게서 찾아내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덕이 참으로 신적인 것, 곧 하나님 앞에서 충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인가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CO 410 그것은 연기일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모든 것이 내려놓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 곧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잘 간직합시다. 그리고 그것으로 권고를 받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 죄에 대해 말할 때마다 이 땅에 머물지 말고, 오히려 각자 자기를 하나님 앞에 소환하여 그분이 어떤 재판관이신지 알게 합시다. 우리가 그분을 상대로 따지려 하자마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삼켜지는 것처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곧이어 사람이 하나님과 다투려 한다면 천 가지 가운데 한 가지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곧 우리가 아무리 변론해도, 천 개의

항목이 있는 긴 소송을 걸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반론에 답하려고 입을 여시는 것조차 마다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매우 참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롭다 하려고 내세우는 모든 구실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해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분명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모든 것은 무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변명하고 우리 덕을 내세우는 일에서 거품을 내뿜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고 큰 소송에 놀라시리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신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그분은 사람들이 가져오는 모든 허세를 그저웃으시고 조롱하실 뿐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 가지를 내세워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에도 대답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좋고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분 앞에서는 통하지도 받아들여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이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전혀 놀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자연스러운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싸우게 되면 너무 곤경에 빠져서, 그분이 우리 앞에 내놓으실 천 가지 가운데 한 가지에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99] 물론 우리는 처음에 너무 얼이 빠져서, 흔히 말하듯 칼을 빼기도 전에 하나님께 전쟁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묻건대,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보다 죽을 인생이나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과 맞붙는 것을 더 어렵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싸우려 하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에게 복수할 수단이 있는가? 어떻게 그를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괴로움과 불쾌함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많이 따져 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딪치려 할 때에는 무턱대고 덤빕니

99. 칼빈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다' 는 해석도 참되다고 인정하지만, 본문의 자연스러운 뜻으로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답하지 못한다' 는 해석을 택합니다.

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우리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맞붙는 광기, 그것도 마귀적인 광기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CO 411 그러나 거기에 이르면, 우리는 그분과 부딪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주인을 상대로는장난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여기서 보여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대담함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내놓고, 그다음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때 그들이 빠지는 혼란을 내놓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하고 다투려 하겠지만, 싸움에 들어선 뒤에는 거기서 짓눌린 채 남을 수밖에 없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싫든 좋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느끼게 하실 것이라는 점을 잘 주목합시다. 이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는 어리석은 자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따지는 데서 나온다고 저는 이미 보여 드렸습니다. "그렇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내게 악덕이 있다 해도 그것을 상쇄하는 덕이 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아래 낮아질 만큼 그것을 생생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잠들어 버립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여기서 하는 말을 잘 주목합시다. 곧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하고 다투려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눈이 멀어서 우리 자신을 보며 이렇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된 일인가? 여기 우리를 삼키시고 지옥의 깊은 심연에까지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분을 거슬러 일어서려 한 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눈이 먼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그 이유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한다는 말을 들으면, 본성 자체가 우리에게 그것을 소름 끼치게 여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가장 악한 자들조차 그렇습니다.

양심도 신앙도 없는 방탕한 자들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 안에는 본성의 어떤 감각이 새겨져 남아 있어서, 누가 "자네는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하려는가?" 하고 말하면 놀라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선하고 겸손해 보이는 자들이 이 소송에 뛰어들어서, 고삐 풀린 말처럼 하나님과 다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조차 이런 유혹에 공격받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이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저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그들을 어느 정도 어지럽혔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이상한 것을 보고 때로 괴로워했으며, 그들의 이성이 그들을 휩쓸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으니, 이 가르침은 그만큼 더 우리 기억에 새겨져야 합니다. 곧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다투도록 유혹받을 때, CO 412 우리가 무엇을 하든 거기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잘 알고서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날뛰는 것을 보아도 너무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걸림돌은 약한 사람들을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그분의 긍휼이 온 세상을 채우며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하나님께 대들고, 다른 자들이 그분을 모독하는데, 그들이 세상에서 위세를 떨치고 개선하듯 하므로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거나 반박하려고 감히 입을 열지 못할 때, 그것을 보면 약한 사람들은 어지러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의가 그만큼 줄어든 것처럼 느껴서 그분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거의 사람의 본성임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괴물 같은 일이고 우리가 몹시 미워해야 할 일이지만, 그런 악덕은 흔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너무 어지러워하지 맙시다. 이것이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항목으로 덧붙여진 것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천 가지 항목을 내놓으시면, 우리는 한 가지에도 겨우 대답할까 말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악덕을 잘 살펴보아도 그 백분의 일도, 아니 천 가지 가운데 하나도 알지 못할 것이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위선 없이 자기를 잘 살핀다면, 그들은 너무나 많은 악에 휩싸여 있음을 발견하여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아주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렇습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들을 골라도 그들은 다윗의 반열에 서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자기 죄를 참으로 알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시 19:12).[100] 그런데 천사처럼 보이는 가장 거룩한 사람들도 자기 죄의 수가 끝이 없어서 그 죄 속에서 완전히 부끄러워한다면, 묻건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제가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아직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만큼 잘 진보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진실하게 자기 삶을 살핀다면 그들은 그런 죄의 심연을 발견하여 완전히 쓰러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입니까? 우리는 그래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의 백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이 살핌에 들어간 다윗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잘못을 바라보았을 때 "누가 자기 죄를 알겠습니까?" 하고 외칩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그것을 넘치도록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님, 숨은 허물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가 왜 이렇게 말합니까? 어떻게 숨은 허물이라고 부릅니까? CO 413 우리 죄는 알려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죄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답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분명하게 보신다는 것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순서는 이것입니다. 각자 자기 안으로 들어

100. 원문에는 시편 19편 13절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1절로 세는 프랑스어 성경의 절수이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가서, 자기가 알 수 있는 데까지 자기 악덕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까? 좋습니다. 여기 재판관인 우리 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재판관입니까? 그것이 매우 두려워할 만한 재판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을 인생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보시지 않습니까? 내 양심이 천 가지 죄로 나를 책망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셈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찾아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는 말을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곧 천 가지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에도 하나님께 겨우 대답할까 말까 하며,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한 가지 잘못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숨겨진 것들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잘못을 생각하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보시고 아시는 대로 심판하려 하신다는 것을 확고히 정해 두기를 배웁시다.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대로가 아닙니다. 흔히 말하듯 우리는 숯불 위를 대충 스쳐 지나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파고드십니다. 성경에서 그분이 자신에게 돌리시는 대로 마음을 살피시는 직분은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악덕과 덕을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잘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분께 맡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분별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를 잘 그리고 바르게 판단하려면, 우리는 완전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완전함 없이는 하나님 앞에 아무 선도 없고, 곧 악취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야가 이토록 흐리고 우리가 반쯤 밝은 빛속에서처럼밖에 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함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지만, 우리 시야는 그분이 보여 주시는 빛을 쓸 수 있을 만큼 깨끗하고 맑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 뼈와 골수와 모든 것을 꿰뚫는 것은 사실입니다(히

4:12). 그것이 타오르는 등불인 것도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라고 불리시며 모든 곳을 비추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우리 시야는 여전히 흐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함이 무엇인지 알기에는 한참 모자랍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권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CO 414 좋다고 여기고 거기서 악덕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에도, 그래도 악덕이 거기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완전함과 온전함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그것을 아시며, 우리는 거기까지 이르기에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그분이 우리 앞에 천 가지를 놓고 내놓으시면 한 가지에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하려 하면 늘 부끄러움을 당하여 멸망에 이를 것이라는 권고를 받는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이 경고도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이 닥치기 전에 각자 절제와 겸손 속에 자기를 붙들어 이렇게 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하다니, 그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소송에서 이기리라고 생각하는가? 그 반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키실 것이다. 그분께 무죄 선고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각자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무턱대고덤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을 벌하실 것입니다. 아마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여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침내 우리는 거기에 휩싸여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맞붙어 여기서 말하는 그 싸움을 벌이는 이 모든 주제넘은 자들을 미로에 빠뜨리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는 그들을 꺾으셔서 그들이 마침내 순종하게 하시는 일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늘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교만으로 가득하고 자기 의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자기에게 빚지게 하려는 자들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꺾으시고 길들이시며, 극도의 부끄러움에 빠뜨리셨다가 그 뒤에 거기서 건져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같은 길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 곧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삼키시려고 그들을 거슬러 손을 펼치실 것이라는 말을 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하십니다. 위선자들은 교만과 주제넘음으로 너무 부풀어서, 자기 덕이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삯과 보수까지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그것을 즐기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십니다. 사탄은 다른 편에서 그들에게 꿀을 바르고 어르며, 그들이 자기를 넘치도록 높이 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공작처럼 자기 깃털을 들여다보며 "나는 이것저것을 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만족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그들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모든 덕을 실컷 즐긴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셈하러 부르셔서, 그들이 덕으로 여긴 모든 것이 그분 앞에서 악덕일 뿐이요, 아니 악취와 CO 415 가증한 것일 뿐임을 내놓으시면, 그때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것도 정당하게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속였을 뿐 아니라,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을 신뢰하여 자기 자신도 속였을 때, 성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눅 16:15)이 늘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곧 사람들에게 높고 뛰어나게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께는 추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싸우고 우리를 의롭다 하려고 소송을 걸 만큼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도록 잘 조심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와 너무 세게 부딪치셔서 우리가 천 가지 죄에 눌리고 짓눌려 한 가지에도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 가지 죽을죄, 곧 셀 수 없이 많은 죄로 고발당할 때, 우리가 단 한 항목에 대해 변론하려 해도 기각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더 감동받도록,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다고 말합니다. 이 가르침은 앞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말하는 것은 이유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할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기대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고 자기의 하찮은 상상 속에서 사라져 버린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악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 봅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분이 그들에게 자신을 선언하시는 대로 그분을 인정하도록 생생하게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영화롭게 할 만한 그런 두려움과 경외에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하고 충분히 말할 것입니다. 그 말이 우리 입에서 맴돕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그분의 무한한 위엄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모독과 거짓 맹세와 그와 비슷한 것들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조금이라도 감동받았다면, 그토록 거룩하고 신성한 것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는 소리를 듣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마치 그분이 그들의 하인인 것처럼 말입니다. 주인이 성이 나면, 그가 경솔한 사람이라면, 자기 하인에게 주먹을 한 대 날리고, 정신 나간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혹은 말이 그를 성가시게 하면 말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보다 낮은 자인 것처럼 그분께 화를 내던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참으로 얼이 빠졌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화를 내는 데까지 가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이 개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갈기갈기 찢는 것을 전혀 거리끼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자극하는 아무 계기가 없는데도, CO 416 그들은 걸핏하면 모독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괴물 같고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충분히 날아다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거짓 맹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증인으로 불려 나온 자들을 이끌기 위해 아무리 엄숙한 절차를 거쳐도 진실한 말 한마디를 끌어낼 수 없을 만큼 끔찍합니다. 그들은 모두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신문받는 모든 사람 가운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열에 하나도 겨우 찾을까 말까 합니다. 실제로 그들 사이에는 증인이 없으면 소송에 이긴 것이라는 흔한 속담이 있습니다. 곧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대듭니다. 또 묻건대,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성경과 모든 신앙과 그토록 신성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두려움에 붙들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된 표지는 그분의 말씀 앞에서 떠는 것이라고 말하는 대로입니다(사 66:2).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꽤 많이지껄이고, 이야기하고, 수다를 떨며, 그분의 위엄의 모든 비밀에 대해서도 마치 농담하듯이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분의 이름이 모든 사람의 입에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덧붙여진 것, 곧 하나님께서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다는 것이 쓸데없지 않음을 잘 주목합시다. 이 말들이 사람들이 말할 만큼 그렇게 강렬해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따져보면, 거기서 우리 뿔을 숙이게 하기에 충분한 실속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지혜로우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인간적인 지혜나 우리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강하시다고 말할 때, 그분은 거인처럼이나 산처럼만 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여, 우리가 피조물에서 보는 모든 것 가운데 그분과 같은 권능도 힘도 능력도 없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힘과 능력을 오직 하나님께서만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말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을 지금 그 가치만큼 다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아니 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지 보여 주시려고 여기서 어떤 순서로 나아가시는지 보려면, 우리는 이것을 다루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느끼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이런 일반적인 결론을 붙잡아야 합니다. 곧 우리에게서 명백한 죄가 발견되지 않고, 우리 삶이 방종하지 않으며,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CO 417 정직하고 책망받을 것 없이 행했다 해도,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실 수 있고, 그분은 의로우신 채로 남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대들려 한다면, 우리 공상대로는 한동안 흠잡을 데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참으시며 처음부터 우리에게 맞서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는 머리를 숙여 정죄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고 우리를 무죄 선고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큰 재판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정죄받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날카롭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온통 더러움과 오염밖에 없다고 솔직히 고백한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고 우리 죄가 덮이게 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압시다. 거기에는 온전하고 완전한 의가 있어서,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우심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34편

욥기 9장 설교 2

CO 33:418–429

> 그분은 해에게 명하여 빛을 내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도장 찍듯봉해 두시네.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이시네. 아르크투루스와 오리온과 히아데스와 남쪽의 밀실들을 지으신 분이시네. 그분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끝없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네. 보게, 그분이 내 앞을 지나가셔도 나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분이 이리저리 다니셔도 나는 알아차리지 못하네. 그분이 빼앗고 낚아채 가시면 누가 그분 손에서 되찾겠으며, 누가 그분께 "무엇을 하십니까?" 하고 말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시니, 강한 도움들도 그분 앞에 꺾이네. 그러니 내가 그분과 말을 주고받고 그분 앞에서 말을 고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의롭다 해도 나는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재판관께 간구할 것이네. (욥 9:7–15)

이 설교는 4절, 5절, 6절 해설의 나머지와 그 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O 418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선언하시는 대로 그분을 아는 분별을 가지고 있다면, 긴 말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놓인 것들을 분별하기에 각자 충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점에서 너무 비뚤어져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배은망덕을 책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목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늘이 크고 두꺼운구름으로 덮여 해가 보이지 않고, 반대로 그분이 빛을 보내기를 기뻐하시면 하늘의 펼쳐짐이 드러나고 그분의 위엄의 하늘인 그 아름다운 장막이 나타나며, 그분은 바다 위를 걸으신다, 곧 그분의 능력이 거기서도 나타

난다고 말합니다. 또 그분이 하늘에 별들을 배치하셨다고 말하며, 여기서 그 가운데 몇을 꼽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더 잘 알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데 우리 정신을 쏟아 그분을 마땅히 공경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악덕을 책망하신 뒤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 구원을 위해 우리를 가르치려 하십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잘 유익을 얻으려면 우리가 지켜야 할 두 가지 요점입니다.

첫째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마땅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그것을 충분히 고백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마음까지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업신여김으로 그것을 드러냅니다. 어제 다룬 대로, 우리가 사람의 모든 지혜는 헛됨일 뿐이고 우리가 피조물에서 바라보는 모든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을 경외함 속에 붙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은 고삐에 매인 것처럼 되어,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추지 않고서는 무엇이든 감히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CO 419 이렇게 무관심하여 각자 자기를 용서하고, 우리의 악한 생각에 고삐를 풀어 주며 아무 거리낌 없이 그것을 기르고, 그것이 다시 바깥 행위에까지넘쳐흐른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이 결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적이 없고,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맛본 적이 전혀 없거나, 그 맛이 너무 밋밋해서 묻혀 버린 것과 같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힘에 대해 하는 말을 듣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그토록 유익한 것에 힘을 쏟지 않을 만큼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피조물을 보게 하시는 아름답고 넓은 극장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것이 우리 눈앞을 그냥 지나가고, 그러는 동안 우리가 그 창조주이신 분을 잊어버린다면 그

것은 큰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의 거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보이는 것들 안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대로입니다(롬 1:20).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세상에 두셨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우리에게 너무나 악한 정신이 있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눈이 멀어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비추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든 감각에 어둠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거기에 악의가 함께 있었다면, 곧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무슨 우울한 일인 것처럼 싫어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무지를 핑계로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고발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르침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을 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덕을 느끼게 하셔서 그것을 고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분은 좋은 선생의 직분을 행하셔서,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실 것에 주의를 기울입시다. 본문이 우리 각자가 모르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친숙한 일들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바른 목표로 돌리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선생의 직분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교훈을 여러 번 되풀이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CO 420 앞에 두시는 것에서 우리가 이미 유익을 얻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해가 빛나게 하시

고, 그때 하늘의 온 펼쳐짐이 큰 장막처럼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은 그리 모호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땅의 군주들의 화려함사이에 얼마나 큰 거리가 있는지 우리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땅의 군주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애쓸 때, 그들은 그들의 모든 기교와 모든 계획으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높이 서른 자짜리 장막을 겨우 세울 것입니다. 그것이 한 리그 길이라 해도, 그것이 비교하면 무엇입니까? 여기 끝없는 하늘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펴셨으며, 땅은 그분의 발판입니다(사 66:1).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더라도, 이 생각에서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곧 하늘을 보면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위엄을 그만큼 더 생각하여, 그분을 경배하고 마땅히 그분 아래 우리 자신을 낮추도록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께서 해에게 명하여 빛을 내지 못하게 하시면 해가 구름에 가려 하나님께서 휘장을 치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다음 그분이 원하실 때 하늘을 펴신다는 말이 쓸데없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분이 바다의 물 위를 걸으신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그 위를 걸으시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다가 기적적인 능력에 붙들려 있지 않다면 지금처럼 그런 상태로 머물 수 있겠습니까? 물의 본성은 흘러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여기 바다가 산의 모양처럼 솟아 있고, 우리가 38장에서 보게 될 것처럼경계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땅은 곧 온통 물에 덮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 마른 땅이 얼마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살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는 동안 그분은 바다를 가두어 두시고,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그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바다에는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만큼 큰 기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살 마른 땅이 있으리라고

하신 그 한마디 말씀으로 오늘날에도 바다를 막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감각을 쏟아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다 위를 걸으신다고 말하는 이 가르침이 쓸데없지 않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별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 수가 끝이 없을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시편에서 말하는 대로, 별이 너무 많아서 그것에 대해 길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여기서 몇 가지 이름으로 CO 421 하늘의 이 모든 아름다운 군대를 우리에게 일깨우려 했습니다. 우리는 행성들 말고도 창공에 있는 별들을 보며, 그것들이 모두 무엇인가를 표시하는 데 쓰인다는 것을 봅니다. 하늘의 운행에 있는 놀라운 솜씨를 우리가 더 잘 살피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가 날마다 한 바퀴를 돌아서, 떠오른 뒤에는 지고, 우리 위와 아래로 땅 둘레를 도는 것을 잘 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봅니다. 또 해가 그와 정반대인 다른 운행을 한다는 것도 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겨울은 어디서 오고 여름은 어디서 옵니까? 해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거나 멀어지고, 또 우리가 보기에 더 높이 올라가고 낮아지기 때문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해는 우리에게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데 따라 계절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가장 거칠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봅니다. 그들이 해가 날마다 한 바퀴를 돌면서 정반대인 다른 길도 간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험은 그 효과로 드러납니다. 해에게서 그것을 얻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겨울도 여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았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의 이 길을 어떻게 정하시는지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한편, 욥이 여기서 이름을 드는 별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표시해 줍니다. 수레바퀴가 도는 것은 가로지르는 막대가 있고 거기 두 구멍이 있어서 바퀴가 그것을 축으로 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수레바퀴의 구멍과 같은 이 두 별을 두셨고,

사람들은 그 둘레로 해가 도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가 더 잘 알려질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얼마간 맛보고, 그분을 높이도록 이끌려서 "주님, 주님의 작품의 뛰어남이 어떠합니까?" 하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욥이 여기서 다루는 것은 학문을 익히지 않고서는 온전히 배울 수 없습니다. 그는 여기서 천문학을 다루기 때문입니다.[101] 그는 가장 거칠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보는 것을 말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몇 가지 종류를 자세히 다룹니다. 하늘의 솜씨를 우리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천문학자는 아니지만, 해가 빛날 때 눈을 감으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깨닫게 하지 않으신다고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들의 목자들도 별들에 대해 잘 말할 줄 알고, 별들에 이름도 붙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별에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잘못은 사람들에게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름이 나오는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들은 많은 꾸며 낸 이야기와 CO 422 아주 어리석은 것들을 지어냈습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일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들의 악의와 헛됨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어떤 별은 어떤 여인의 관이라고, 혹은 그 여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암소가 있다, 여기 이것이 있다, 여기 저것이 있다." 요컨대 어리석은 짓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어리석은 짓들이 사탄의 더 교묘한 간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바라보이고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거울을 비틀려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그 모든 군대로 꾸미셨다고 말합니다(창 2:1).

101. 원문의 'Astrologie' 는 여기서 천체의 질서와 운행을 연구하는 학문, 곧 오늘날의 천문학을 뜻 하므로 '천문학' 으로 옮겼습니다. 칼빈은 뒤에서 이것을 점쟁이들이 운수를 말하는 '사생아 같은' 점성술과 분명히 구별합니다. 해가 땅 둘레를 돈다는 설명 등은 당시의 천문 이해를 반영합니다.

모세는 행성이든 다른 별이든 별들을 하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장비입니다. 별들로 꾸며지지 않았다면 하늘은 형체도 모양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선언하는 대로 그것은 세상 창조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을 꾀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에 대해 주신 증언을 잊게 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는 별들이 이것저것에서 생겨났다고 믿게 합니다. 게다가 거기에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까지 섞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의 별들에 대해 말할 때에는 오직 그들의 우상들의 음행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교황이 자기 마음에 드는 자들을 성인으로 시성하듯이, 우상 숭배자들도 그들의 우상의 창녀들을 시성했고, 땅처럼 하늘도 그들의 오물로 더럽혀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세상에 그의 환상을 퍼뜨렸습니다. 할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없애고, 그것을 흐리게 하여 사람들이 자기 어리석음을 따라 헤매고 순수한 진리에 마땅히 감동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욥이 여기서 우리가 우리 분량이 허락하는 만큼 천문학자가 되어, 하늘에서 보는 그토록 아름다운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모든 것을 돌려야 한다고 가르치려 했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첫째 요점에 관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문학자로 만드시려 한다고, 그것도 각자의 능력이 허락하는 만큼 그렇게 하시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별이 몇 개 있는지, 행성이라고 부르는 천체들은 어떤지, 위아래와 앞뒤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관계들이 어떤지 자세히 풀어내는 일은, 좋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경험으로 해가 달보다 높이 있다는 것을 잘 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달이 우리 시선과 해 사이에 들어오면 일식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달이 더 낮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는 달이 이렇게 해와 우리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구분과 이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그

것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낮추기에 충분한 어떤 이해가 있어서, CO 423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투박한 사람들, 곧 학문을 따라갈 방법이 없는 사람들도 그분을 영화롭게 할 충분한 계기를 얻고 그만큼 지혜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두 큰 광명이 있어서 하나는 낮을 주관하고 하나는 밤을 주관한다고 말할 때(창 1:16) 그렇습니다. 달이 다른 별들이나 행성들보다 더 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달보다 더 큰 별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들을 그렇게 크게 볼 수 없습니까? 먼 거리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보기에 더 높이 있어서, 하늘과 우리 사이의 큰 거리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 그것들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보는 대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행성들의 크기가 어떠한지, 별들의 비율이 어떠한지, 그것들의 구분이 어떠한지 알 만큼 날카로운 지식에 이르지 못할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모두가 그것을 알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눈을 뜨고 보기만 하면, 여기 빛의 그릇, 곧 온 세상을 비추는 큰 광명인 해가 있고, 여기 빛나는 달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영화롭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렇게나 헤매지 않도록 그들에게서 모든 핑계를 없애셨다고 말하는 대로입니다. 그들이 대학자가 아니더라도 그분은 그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지식 없이 눈만 떠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공경하고, 나의 지혜와 능력과, 내가 그런 피조물들을 너희를 섬기는 데 쓸 때 너희에게 베푸는 선하심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은 우리가 이것을 그 바른 목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사람 정신의 헛됨을 봅니다. 철학자들은 천문학에 관해 하나님의 지혜의 큰 보화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감추어진 것을 어떻게 관찰할 수 있었는지 보는 것은 모든 인간적 생각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천문학 책을 읽는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간 이해하고 책에 쓰인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처음 쓴 사람들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바른 천문학을 말하는 것이지, 점쟁이와 마술사들이 운수를 말하려 할 때 쓰는 그 사생아같은 것과 그와 비슷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늘의 질서가 어떠하며 거기서 보이는 그 아름다운 장비가 어떠한지 알기 위해 이 학문에서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좋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천문학자들이 말하면 누구나 놀랄 것입니다. 그들이 CO 424 하늘에 있지 않은 것들을 상상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이유 없이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높고 깊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들을 단계와 일정한 척도로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철학자들이 그 모든 것에 대해 많이 논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에 있는 비밀들을 그렇게 적고 표시하게 하셔서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에서 실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 생각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롬 1:21).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 높이 올려 주셔서 사람들이 땅 한 뙈기나 집 한 채를 재듯이 "여기는 몇 걸음이고, 여기는 몇 자다" 하며 하늘을 재게 하신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어떤 곳을 재듯이, 철학자들은 행성들 사이와 별들 사이의 모든 공간을 쟀습니다. 요컨대 그것은 결코 기대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그들은 그분의 모든 피조물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들은 그분을 알아서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그분의 위엄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야 함을 봅니다. 여기서 해와 행성들과 별들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저 이런 자연의 이치만 알고

거기 머물러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는 피조물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선언하시는 그 영광을 느낀 뒤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께 경의를 드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날에도 모든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정신이 헤매고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표현된 것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별들에 대해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무엇이신지 느끼려고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 자신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102] 각자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움직임도힘도 없을 것입니다(행 17:28).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 나는 눈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더듬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행 17:27). 그는 소경이 더듬으며 가듯이라는 이 말을 씁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더듬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싫든 좋든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가 어떠한지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멍하고 짐승 같으며 모든 감각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헛되고 하찮은 일들에는 꽤 날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에 관한 일에서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좋은 감각이 한 방울도 없는 짐승보다 더 나쁩니다. 그러므로 CO 425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이 구절들을 그만큼 더 잘 주목해야 합니다. 곧 우리가 위로 하늘을 바라보면 이것이 생각나야 합니다. "여기 이 아름다운 질서를 알아보라고 우리에게 눈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아래를 바라보면, 이리저리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도록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요컨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깨달아 그분을 공경하라는,

102. 원문에는 사도행전 11장으로 되어 있으나, 바울의 이 말은 사도행전 17장 27–28절에 있습니다. 칼빈도 바로 뒤에서 17장 27절을 인용합니다.

그분께 마땅한 대로 공경하라는 권고를 받을 때까지 이 공부에 힘쓰도록 잘 살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가볍게 의무를 마치고, 하나님께 어떤 의식을 행하면 그분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요구하시고 그분께 마땅한 공경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 들을 때마다 그분 아래서 떨고, 그분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알며, 그분이 한 번 바라보시는 것만으로 우리를 삼키실 수 있고 산들을 햇볕 아래 밀랍이 녹듯 녹이실 수 있음을 알고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연약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놀랍시다. 그리고 그분의 의도 마땅히 깨달아, 그분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존속하지 못한다고 말합시다. 그분은 모든 선의 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무엇이신지 느껴서 진정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위엄 아래떨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얻어야 할 유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각자 이 교훈을 되새기기를 배웁시다. 이것이 요컨대 우리가 이 구절에서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산들이 심연으로 녹아내린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역사에서 찾아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산들을 그것들이 알지 못하게 옮기실 것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분이 한번 땅을 고정하시고 매우 깊은 기초 위에 있는 것처럼 세우셨듯이, 그분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바꾸셔서 산들이 골짜기로 변하게 하실 것임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어떤 때나 어떤 특정한 곳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보여 줍니다. 다른 구절에서 말하는 대로입니다(시 97:5).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산들이 그분 앞에서 햇볕 의 열기에 밀랍이 녹듯 녹아내립니다. 그것은 그분이 원하실 때마다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우리에게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비교해야 합

니다. 산에 비하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산의 굳건함이 어떠합니까? 세상의 모든 대포도 산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짓누르는 데에는 작은 손가락 하나면 충분합니다. CO 426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눈길이 하늘과 땅이 흔들릴 만큼 무섭고 두렵다면, 죽을 인생이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거의 생각하지 않으므로, 평생 담대히 배우고 이 가르침을 공부하며 늘 학생으로 있읍시다.

욥은 이렇게 말한 뒤에, 하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셔도 자기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분이 이리저리 다니셔도 자기는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덧붙입니다. 이것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더라도 보이지 않는 분이실 것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그분의 일을 통해서이지, 그분의 본질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본질 속의 그분을 결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알아서, 그분의 손이 거기를 지나가셨다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임재의 증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지나가신다는 것은, 그분이 온 세상에 퍼져 우리 가까이 있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곧 그 나타나심이 우리 본성에 맞추어진 것이라 해도,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 정신의 작은 능력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서 어쩔 줄 모르고 머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저는 땅이 열매 맺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봄에 땅이 그 품을 열고 그 부요함을 펼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이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맑은 해가 있고 어떤 때는 비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저쪽으로 걸으십니다. 나타나는 다양함에 따라 그분은 이리저리 다니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시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거기 앉으셔서 의자에 앉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잘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쪽저쪽으로 걸으십니다. 우리를 더 잘 모으시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무와 곡식과 풀밭과 포도밭과 모든 것에서 그분을 나타내는 그 능력을 이해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얼마간 느끼고 얼마간 알아보겠지만, 그것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쪽저쪽으로 지나가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고 우리에게 그다지 값지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걸으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있는 그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작은 부분만 알아본다면, 우리가 그분의 더 높고 더 은밀한 일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CO 427 특별한 방식으로 일하려 하실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분은 때로 그분의 의를 행하셔서 우리 모두가 놀라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여 주시고 자연의 질서에 따라 깨달을 수 있는 것에서조차 우리가 어쩔 줄 모른다면, 그분의 훨씬 더 큰 일에 이를 때 우리는 쓰러지고 어쩔 줄 모르고 머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는 말,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지나가셔도 우리는 그분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잘 주목합시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분이 어떻게 그것을 해내실 것인가?" 하고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그분의 권능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장 작은 것들에서 나타날 때에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거기 계셔도 우리는 그분을 일부분만 느낍니다. 저는 이미 이것을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선

언하시는 그분의 일에 대해서만 풀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조차,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토록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셔도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이기려고 소송을 걸려 할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만큼 용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맞붙으려 하고 자기가 구름 위로 날아오를 만큼 능숙하다고 생각할 때 그들의 자만이 어떠한지 봅니다. 아,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니 얼마나 미친 일인지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풀어 온 대로 이 말씀이 여기에 어떤 목적으로 놓였는지 잘 주목합시다.

그다음에 욥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다룹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낚아채 가시면, 누가 그분의 주먹에서 그것을 빼앗겠는가? 누가 그분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하겠는가?" 욥이 여기서 하나님께 그 자체로 아무 정의도 이치도 없는 절대 권력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제 밝힌 요점을 늘 따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곧 하나님의 의는 그분이 죄가 명백한 악행자들을 벌하시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상한 방식으로 일하셔서 우리에게는 그분께 아무 이치도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잘못하시는 것처럼 보이며, 불신자들은 그것을 핑계로 그분을 원망할 때에도, 바로 거기서 우리는 그분의 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낚아채 가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낚아채 가십니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무서운 권능을 쓰신다면, 마치 그분이 사자인 것처럼 (그분은 자주 자신을 들짐승에 견주십니다) 모든 것을 삼키시고, 흔히 말하듯 땅을 위아래로 뒤엎으신다면, 하나님께서 CO 428 이렇게 벼락을 치셔서 우리가 놀라 더라도, 아무도 그분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없고, 하물며 그분의 주먹에서 먹이를 빼앗을 수는 더더욱 없다는 뜻입니다. 곧

그분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사람들의 일이 아니며, 그들은 시간만 낭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탄식할 좋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너무 어리석어서, 모독을 쏟아 낸 뒤에 자기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과 소송하려 하시고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느끼게 하시면 그들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상상한 폭군 같은 권능이 아니라, 우리 감각에 나타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의로우신가, 아닌가?" 하고 말하게 하지 않는 무한한 권능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정죄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시편 51편에서 (51:4)[103] "주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의롭다 하심을 얻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들 수 있지만, 그래도 마침내 모든 입이 막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주제넘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굴복시키고 자기를 무죄로 만들려고 그분을 정죄하기를 조금도 거리끼지 않는다는 것 말고, 선지자 다윗이 거기서 그런 말투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욥의 이 구절은 이렇게 풀이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컨대 그가 어제 우리가 다룬 말, 곧 하나님의 힘과 권능에 관한 말을 어떻게 확증했는지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과 권능이 어떠한지 알기를 원합니까? 우리 감각을 기울여 자연의 질서, 곧 우리가 하늘과 땅에서 보는 것을 살핍시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고,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생각하여 그분 앞에서 낮아지고 그분께 모든 영예를 돌리게 합시다. 그것으로도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갑시다. 하늘과 땅과 자연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이 무엇이신지 보여 주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 큰 짐승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여기 꽤 큰 글씨로 쓰인 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이 너무나 다양해서,

103. 원문에는 시편 51편 6절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절수에 넣어 세는 프랑스어 성경의 절수이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천 가지에서 유익을 얻었을 때에도 우리가 무엇인가 유익을 얻어야 할 다른 십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둔해서 하늘과 땅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에게로 옵시다.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에서도, 우리 안에서 보는 모든 것에서도 이토록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우리가 그분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없다면, 적어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토록 친밀하게 일하실 때 그분을 느낍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점에서 실패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CO 429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 감각이 없다고 결론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과 권능을 알아본 뒤에, 욥이 여기서 결론으로 덧붙이는 대로 우리 자신을 낮추기를 배웁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그분 앞에서 대답해야 할 때에도 나는 나를 의롭다 하려 하지 않고, 나의 재판관 앞에서 나를 낮추어 그분께 간구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욥이 한 모든 말이, 그의 말이 어지럽기는 하지만, 무엇을 향하는지 봅니다. 앞에서 이미 밝힌 이 일반적인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가 좋은 가르침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욥이 이제 자기가 어떤 목표를 향하는지 보여 줄 때,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갑절로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잘 주목합시다. 욥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에 대해 말하고 그것의 몇 가지 거울과 증거를 여기서 보여 준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여,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우리 각자가 자기를 돌아볼 때, 여기 우리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계시네." 우리가 아주 악한 삶을 산 악행자가 아니라고 해 봅시다. 우리가 음행하는 자도, 살인자도, 도둑도 아니었다고 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하고 방종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 앞에 내놓으실 수 없다고 해 봅시다. 그래도 누가 감히 그분 앞에서 입을 열어 "나는 의롭습니다. 주께서 나를 자비로 받아 주셔야 마땅합니다" 하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런 대담함을 꾀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재판관 앞에 나아가 그분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구한다' 는 이 말은 우리가 유죄를 인정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곧 우리 안에 죽음과 정죄의 재료밖에 없고, 죄와 불의밖에 없음을 알고서, 그분의 순전한 긍휼 말고는 다른 피난처를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간구한다' 는 말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를 내놓는 일에 대해 말할 때마다, 우리가 거기서 어쩔 줄 모르고 머물지 않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서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19절)에서 말하는 대로, 모든 입이 막히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재판관 앞에 간구하러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의롭다 하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런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예가 의식이나 허세나 그와 비슷한 것들에 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교황주의자들처럼 원숭이 같은 흉내와 사람들이 스스로 들여온 이런저런 것들에 머물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섬김과 공경을 받으려 하신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분이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에 우리를 맞추면서 온전히 그분께 우리 자신을 바치도록 힘씁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때까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점점 더 늘려 주실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35편

욥기 9장 설교 3

CO 33:430–442

> 내가 그분을 부르고 그분이 내게 대답하신다 해도, 나는 그분이 내 말을 들으셨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네. 그분은 회오리바람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나를 상하게 하셨네. 그분은 내가 숨 돌릴 틈도 주지 않으시고 쓴 것으로 나를 배불리시네. 힘으로 하자면, 보게, 그분은 강하시네. 공의로 하자면, 누가 그분과 함께 법정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내가 의롭다고 내세우면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내 온전함을 내세우면 그분은 나를 비뚤어진 자로 여기실 것이네. 내가 온전하다고 말한다 해도 나는 내 영혼을 알지 못하니, 나는 내 삶을 혐오하네. 내가 확정한 한 가지가 있네. 곧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멸하신다는 것이네. (욥 9:16–22)

이 설교는 13절, 14절, 15절의 해설을 이어 가며, 여기 놓인 본문을 다룹니다.

CO 430 우리는 어제 이 항목을 다루었습니다. 곧 우리가 우리 죄를 충분히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각자 자기가 가엾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를 정당하게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의 긍휼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CO 431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모두 그분께 빚진 자입니다(롬 3:19). 왜 그렇습니까?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롬 3:23). 사람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그것이 이유 없는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큰 재판석에

나아가면, 거기서 우리는 모두 부끄러움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면 모든 강한 도움이 그분 앞에 꺾일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누그러지지 않으시면, 곧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자비로 받아 주시지 않으면,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뒤엎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상대로 우리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화해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과 화목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자기 안에 갚을 것을 가지고 있어서입니까? 그분이 조사하셔서 그들이 의롭다는 것을 보일 수 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그분께 간구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맞서고 그 진노에 소멸되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방법을 찾는 것은 헛되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오히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길, 곧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과 함께 말을 고르는 것은 시간 낭비일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이것으로 그는 사람들이 아무리 수사법을 써도 소용없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흔히 말하듯 자기 말에 취해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속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은 여기서, 우리가 말을 고르고 듣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잘 꾸민 말을 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 재판석 앞에 나아갈 때에는 모든 수다와 모든 수사가 그쳐야 합니다. 거기서는 혀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밝히 드러나야 하고, 책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심을 내놓으시는 것 말고는 다른 조사를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양심이 많은 핑계로 숨고 변명할 수 있지만, 그때에는 그것이 펼쳐져야 하고 모든 것이 알려지고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앞에 소환하시면 그 모든 것은 무너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이것으로 욥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의 의에 따라 재서는 안 된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방식으로 소송한다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소송에서 이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CO 432 우리를 무죄 선고하고 의롭다 하며 우리에게 박수를 보냈다 해도, 그리고 우리 편에서 흠잡을 데 없이 처신했다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할 말을 잃을 것입니다. 그때 판세는 완전히 뒤집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유리함이 헛됨일 뿐임을 배웁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까?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주목해야 하고, 앞에서 언급한 그분의 힘과 권능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롬 3:27) 우리는 모든 영광을 빼앗길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에 충분한 어떤 덕이 있다고 생각했던 대신, 높이 평가받을 만한 선은 한 방울도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정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에 피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려는 곳도 거기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분을 불렀고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다 해도, 나는 그분이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네.” 이것은 이상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겉보기에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분은 그분의 선하심을 느끼게 하셔서 우리가 아주 도움을 잃지는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가 간구한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대답하셨을 때에도, 여전히 그분께 정죄받을 것이고 자기 기도가 아무 소용도 없었다고 믿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대적하시는 것처럼 나타나시는 동안 그 사람이 겪는 유혹이 어떠한지 표

현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앞에서 그가 그런 말투를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욥이 거기에 머무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격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셔서 그분의 심판을 알게 하시면 그가 완전히 정신을 잃는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러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원수나 상대편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두려움으로 정신을 잃어서 우리를 사로잡고 어지럽히는 고뇌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셨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핍박하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더라도 계속 타격을 늘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신다고 이미 생각한 모든 자들은 이런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격정은 무서운 것이므로 우리는 거기에 맞서도록 잘 무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욥이 가졌던 그런 처지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CO 433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우리가 감각적이어서, 몸으로 그리고 현세에 관해 느끼는 것 말고는 고통도 역경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너무 꽉 붙들어 두셔서, 그분이 우리를 거슬러 일어나셨고 벼락을 치시며 우리를 과녁처럼 세워 놓고 쏘려 하신다는 것 말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게 하시는 그 영적 싸움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생생하게 살피지 않으시더라도, 각자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병만 보내시거나 몸에 관해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면, 그것은 그분이 피조물에게 그분의 진노와 보복만 내놓으시고 그들을 정죄하여 아주 삼키려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들에게 느끼게 하시는 그 고통에 비하면 작은 일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까지 이끄시려 할 때 우리에게 버틸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분의 약속이 우리 기억에 떠오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것을 사르는 불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의 작은 표시라도 주시자마자 우리가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싸움에 맞설 힘을 자기 안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빌려 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복의 어떤 표시를 주셔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만큼, 반대로 그분은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약속을 통해 맛보게 하실 때 우리를 무덤에서, 아니 지옥의 심연에서 일으키시고, 심지어 하늘의 구름 위로 들어 올리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유혹과 싸울 힘을 하나님께 빌려 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욥은 여기서 가장 믿음이 깊고 가장 인내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보다 그분의 영을 더 넓게 부어 주신 자들도 이 유혹에서 면제되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르실 때 그들은 고뇌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응답하셔도 그들은 자기가 여전히 그분께 버림받은 것처럼, 그분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려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만일 이런 유혹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이 꺼지면 우리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같은 광기가 우리를 휩쓸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상하게 하실 때, 그분은 곧 그들의 상처를 누그러뜨리시고 고쳐 주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런 고뇌 가운데 그분의 선하심을 얼마간 맛보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짓눌러 지옥에 떨어뜨리는 데에는 한순간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만일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하려 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완전히 굳혔다면, CO 434 그는 멸망했을 것이고 더 이상 아무 처방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보여 주는 대로 그런 절망에 사로잡히고 짓눌렸더라도,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그에게

그분의 선하심을 느끼게 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목합시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더 잘 봅니다. 그분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말씀하십니다(마 27:46). 실제로 그분은 거기서 온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신 분으로서 극한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잠시 동안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그분은 그와 반대되는 위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말씀하심으로 그것을 보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음을 알고서 그분을 부를 수 있는 동안에는 믿음이 다스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지나친 격정을 가집니다. 우리 육신은 깊은 구렁 속에 있는 것처럼 되어, 타고난 느낌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선에 관해서는 아무 빛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따져 보아도 이것 말고는 결론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시다. 적어도 그분은 우리를 여기 먹이로 내놓아 사탄에게 넘기셨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구원의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까지, 적어도 우리의 육적인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이성과 우리가 본성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으로는 거기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의 불꽃 같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거나 분별할 수 없더라도 얼마간의 믿음의 느낌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롬 8:26)[104]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탄식은 말할 수 없는 것, 곧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신음하고 한숨짓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믿는 사람이 주님께 간구할 때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104. 원문에는 로마서 8장 25절로 되어 있으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은 로마서 8장 26절에 있으므로 바로잡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신과 그의 모든 생각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무 깨달음도 없는 짐승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렇게 격정에 시달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롭고 너그러우시려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말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상태에 놓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 주실 것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앎이 어둡더라도, 그래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너무 높은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기다립시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답하셔도 그분이 자기를 보셨다거나 CO 435 자기 말을 들으셨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선언합니다. 요컨대 그는 지금의 유혹이 너무 엄청나고 지나쳐서, 그의 타고난 감각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모두 잃었고, 그의 믿음이 꺼진 것과 같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믿음이 아주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재 밑의 작은 불씨처럼 거기 있어서 숨이 막혀 있습니다.

욥이 이 유혹에 거의 짓눌렸다면, 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성령께서 인내의 거울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사람이 그토록 낮아져서 그런 깊은 두려움의 우물에 내려갔다면, 묻건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생하게 건드리신다면 우리는 그 구렁에 더 깊이 삼켜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시기를 그만큼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 그런 유혹에 빠지더라도 용기를 잃지 맙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거나 우리가 그분의 성령을 잃었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건지시는 놀라운 방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본성으로는 그들을 어쩔 줄 모르게 하고 심연에, 아니 지옥에까지 떨어뜨리는 감각과 생각이 있어서, 마귀가 자기들을 포로로 잡고 있다고 말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한동안 그들의 눈이 흐려져서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거기서 눈이 부신 것처럼 됩니다. 그래도 그분은 그들에게 그분의 위엄에 대한 얼마간의 느낌을 남겨 두셔서, 그들이 아주 절망하지 않도록 늘 그들을 굴레로 붙드십니다.

요컨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곧 마귀가 우리를 이겨서 우리가 아주 짓눌릴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큰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계속 불러야 하며, 그분이 한동안 우리에게서 감추어진 것 같던 빛을 되돌려 주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빛이 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두신 믿음과 그분의 성령의 이 빛이 숨이 막힌 것처럼 되도록 허락하십니다. 제가 이미 재 밑의 작은 불씨를 비유로 들었듯이 말입니다. 그러는 동안 시간이 지나면 불은 다시 붙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짓누르던 어둠을 흩으실 때까지는 불꽃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욥은 이 말을 한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보라, 그분은 회오리바람으로 나를 짓누르시고 까닭 없이 나를 상하게 하셨다." 욥이 하나님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자기를 짓누르셨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대적하셔서 자기가 타고난 감각으로는 그분께 아무 은혜도 바랄 수 없다고 상상한다 해도 놀랄 것이 없다는 뜻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CO 436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셨어도 나는 그분이 내 말을 들으셨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놀라는가? 나는 내 아픔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나를 사로잡은 지금의 고난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다룬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처럼 나타나셔서 우리를 심판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진노하신 얼굴만 볼 때 그분이 우리에게 내시는 상처는 놀랍도록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에 이르면, 우리는 아픔에 너무 짓눌려서

우리를 기쁘게 하거나 우리에게 인내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욥의 의도가 무엇인지 봅니다. 곧 그때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가 그것에 대해 가진 느낌이 그에게서 기뻐할 방법과, 그를 위로하려고 하는 어떤 일깨움에도 귀를 기울일 방법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밝힌 것을 늘 간직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결코 그렇게 진노하신 모습만 보이지 않으시고, 어떤 식으로든 그분의 선하심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늘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해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천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겨우 이해할까 말까 할 것입니다. 이런 유혹에 공격받는 가엾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는가? 아니다. 나는 여기서 시들어 가며 그분을 부르는데 아무 위로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 그분이 나를 버리셨다는 표시다." 그다음에 죄들이 앞으로 나올 것이고, 마귀는 소름 끼칠 만큼 많은 것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짓눌린 것처럼 느끼는 가엾은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에 놓으실 것입니다. 전에 그렇게 시달리던 양심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어둠밖에 없던 곳에 하나님께서 빛나셔서 맑은 하늘처럼 부드럽고 다정한 얼굴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런 유혹 속에 있던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멸망하여 아주 없어지도록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우리 영혼 속의 썩지 않는 씨이기 때문입니다(벧전 1:23). 그러나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모든 타고난 감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보여 주실 때까지 우리가 눈이 먼 것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자기를 괴롭게 하셨다고 말할

때 이 말들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특별한 방식을 표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몽둥이로 치신 것이나 내가 그분에게서 칼에 한 번 맞은 것과 같지 않다. 그분은 나에게 벼락이나 회오리바람을 던지신 것처럼 나를 정신 잃게 하셨다.” 이 땅에서 받는 타격은 CO 437 늘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기가 받은 상처가 마치 자기가 심연에 던져진 것과 같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벼락과 회오리바람이 하늘에서 내 위에 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잘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례 없는 엄격함으로 다루신다고 믿게 함으로써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사탄의 간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내놓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징계하시고 그 뒤에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백성을 찾아오시지만, 아버지다운 방식으로 하시고 늘 그 거칢을 조절하신다. 그런데 너는 그분이 그렇게 대하셨느냐? 그분은 너를 거슬러 벼락을 치신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언젠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려 한다고 믿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마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례 없는 엄격함을 쓰신다고 믿게 하면, 그는 곧 우리가 더 이상 그분께 의지할 수 없고, 그분이 언젠가 우리를 받아 주시리라고 더 이상 바라서는 안 된다고 결론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욥이 회오리바람으로 괴로움을 당했다고 말하는 이 구절을 그만큼 더 잘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그 길을 지나갔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욥이 여기서 자기 고난에 따라 말한다는 것, 그가 무감각하지 않았다는 것도 잘 주목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벼락을 치셨을 뿐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벼락을 치신다“는 그 앎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를 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가 말한 대로 그에게는 은밀한 처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같은 것을 소망합시다.

그가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자기에게 많은 상처를 내셨다고 덧붙이는 것은 매우 거칠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신다면, 그것은 순전한 불의이거나, 그분을 더 이상 세상의 재판관이 아니라 폭군으로 볼 수밖에 없게 하는 잔인함이 아니겠습니까? 욥이 자기가 까닭 없이 괴로움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다고 말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을 간직하면 우리는 그의 의도와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혀를 이끄시고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가르침이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욥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자기를 괴롭게 하셨다고 자기의 타고난 느낌에 따라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까닭 없이' 는 사람들의 분명한 앎에 관한 것임을 주목합시다.[105] 우리는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로 알려진다고 말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죄를 벌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가 더러움과 추악함으로 가득한 악명 높은 음행하는 자임을 알았고, 모독하는 자임을 알았으며, 술 취하고 방종한 자임을 알았고, CO 438 약탈과 온갖 불의에 빠진 자임을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그분의 의를 행하시면, "보라, 하나님께서 잘못이 벌받지 않고 남지 않게 하시니 의로운 재판관이시다"라는 것을 잘 보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또한 그분의 은밀한 심판에서도 알려집니다. 눈에 띄는 악덕이 없고 오히려 어떤 덕이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괴롭히시고 시달리게 하시는 것을 볼 때 말입니다. 때로는 어떤 도시나 나라가 약탈당하여, 순결밖에 보이지 않던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불과 칼에 넘겨집니다. 좋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도

105. 칼빈은 'sans cause / sans propos' 를 하나님께 아무 이유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욥이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에게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시고 정하시는지첫날부터 보여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이치가 있는가?" 하고 그분과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까닭 없이' 라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에 관해서 이유 없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신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말한 대로 그것은 불의한 폭정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까닭 없이' 를 우리가 깨닫는 것에 관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의가 감추어져 있고 우리에게 어둡고 짙은 구름이 있더라도, 거기에는 온전한 공평과 정의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아무 의도 찾지 못하고 그분의 의가 불의로 모양이 바뀐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래도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처럼 욥은 자기가 까닭 없이 상처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곧 "누가 내게 '하나님께서 왜 너를 괴롭게 하시는지 네 안에서 분명한 이유를 아느냐?' 하고 묻는다면, 나는 아무 이유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거기서 버림받은 사람의 거울과 같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진노와 분노를 그에게 펼치려 하시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보지 못합니다. 그에 관해서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위선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그런 관점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는 악한 자이니 다른 자들보다 더 벌받아야 한다" 하시며 욥을 벌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마귀가 그를 고발하여 그에게는 온전함도 한결같음도 없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시험을 받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는 욥이 그분을 거스른 만큼의 분량으로 그의 죄를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분은 그렇게 거칠게 다루지 않으시는 많은 악인들을 아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욥이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자기를 상하게 하셨다고 말할 때, 그 말을 그가 한 그대로 단순하게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가 전혀모독하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CO 439 곧 욥은 자기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지 특별한 이유를 알지 못했고, 실제로 그런 이유는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사람, 온전함과 완전함 속에 행하는 사람에게 가능한 모든 엄격함을 행하신다 해도, 그분은 여전히 의로우실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까닭 없는 일이다."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서 회의를 열고 우리의 육적인 느낌대로 따진다면 "그것은 까닭 없는 일이다"라고 말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캐묻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그분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신다고 결론지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아무 까닭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으시고 쓴 것으로 자기를 배불리신다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욥은 고통이 크고 지나쳤을 뿐 아니라 그것이 계속된다는 것, 그리고 그의 유혹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쓴 것으로 그를 배불리신다는 것, 곧 그를 고뇌로 가득 채우셔서 그가 기운을 차리고 용기를 얻을 선하심의 작은 맛조차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 그분의 백성을 무덤 밑바닥까지던지신다는 것을 더 잘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잘 주목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거나, 우리가 두려운 얼굴처럼 느끼거나, 그분이 우리에게 분을 품으신 것처럼 나타나실 때, 너무 곤경에 빠지지 않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 가장 대담하고 가장 능숙한 자들도 그때에는 너무 정신을 잃어서 그들 눈앞에 죽음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이토록 약하고 연약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

절들을 그만큼 더 잘 지켜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가엾은 피조물들에게 그분의 진노의 어떤 표시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거기에 가두어 두셔서, 그들이 숨을 쉬고 숨을 돌리려 할 때, 그들의 괴로움을 누그러뜨릴 은혜의 맛을 조금 얻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늘 오셔서 고통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극한에 있었다면, 왜 우리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고쳐 주실 때까지 그분이 보내기를 기뻐하신다면 더 무거운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힘씁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욥은 더 분명하게 자기를 밝히며 이렇게 말합니다. "힘의 문제라면 누가 하나님과 대등하겠는가? 법정으로 가야 한다면 누가 그분을 소환할 수 있겠는가?" 혹은 누가 우리가 대등한 권리를 가진 자로서

CO 440 그분과 소송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신다고 결론짓는다."

누가 우리 것을 빼앗았을 때 우리 권리를 되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으로 하거나 법의 길로 합니다. 군주들은 피를 흘리며 그들의 다툼을 해결합니다. 개인들도 허락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늘 실력 행사부터 시작할 것이고, 벌이 그들을 위해 다 준비되어 있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일상의 방법도 있습니다. 욥은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다룹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끝까지 시달린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하나님께 맞서겠는가? 내가 폭력으로 나아간다면 무엇을 얻겠는가? 나는 그분과 대등하지 않다. 내가 법의 길로 가려 한다면 그분이 나를 받아 주시겠는가? 누가 우리 사이의 재판관이나 중재자가 되겠는가? 내 소송을 어디서부터 시작하겠는가? 요컨대 나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멸하시

는 것을 본다."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내놓은 말보다 더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우리는 이것을 어느 정도 평탄하게 풀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좋고 우리 쓰임에 알맞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과 능력이 대등하고 법으로 그분과 소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할 때, 그분은 거기에 복종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때, 그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되 불의하게 하시는 절대 능력을 그분께 돌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선하신 뜻 말고 다른 이유를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은 의롭고 공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보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여기서 우리가 이미 풀어 온 것을 주제로 삼습니다. 곧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가진 앎, 사람들의 머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 자체에 있어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잘된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는가? 그분의 뜻은 바르고 공평하며, 흠잡을 데가 없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면 아무 까닭도 없고 마땅히 그래야 할 것과 정반대인 것을 발견할 텐데, 그것을 바탕으로 그분이 의로우시다고 인정하라니,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제가 이미 다룬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의는 그 자체에 있으며, 다른 데서 인정을 빌려 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 곧 그분이 우리에게 불의해 보이더라도 그분이 의로우시다고 온전히 확신하는 고백을 요구하신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묻건대 우리 감각이 무엇입니까? CO 441 죽을 인생들이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잴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야는 흐리고, 말하자면 한 발짝 앞도 겨우 분별할까 말까 하니, 우리 분량과

한계를 인정합시다.

물론 우리 시야가 이 세상에 던져질 때에도 그것은 여전히 제한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리저리 더 능숙하게 따질 수 있는 공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늘 위로 올라갔다 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토록 높은 위엄에는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해의 빛도 눈부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데, 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살펴서 우리에게 숨겨진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 책상을 거쳐 가게 할 만큼 높은 데 이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욥이 쓰는 말투가 지나치기는 하지만, 그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 힘과 의에 대해 그런 방식과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님을 잘 주목합시다. "누가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하겠는가? 그분은 그에게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외상으로 의로우시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이 그분과 그분이 자기 사건에 대해 하시는 말을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이 결론으로 돌아갑시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반열에 계셔서, 그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만큼만 의로우시다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고 심지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와 동료가 되실 것이고, 그분은 자신을 잊으셔야 하며, 그분 자신의 신성을 벗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이런 우월함을 가지는 것은 매우 마땅합니다. 곧 그분이 우리와 셈을 하려 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려 하지 않으시며, 심지어 그분이 우리 감각과 이성과 정반대로 모든 것을 하실 때에도, 우리는 그분의 의가 온전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탕으로 욥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의인과 악인을 멸하신다고 결론짓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의 의가 모든 인간적 깨달음을 넘어선다고 해서, 그분이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한 그릇에 섞듯이 뒤섞으셔야 한다는 말인가? 선은 그분에게서 나오지 않는가? 그런데 왜 그

분은 그것을 알아보지 않으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는가? 왜 그분은 그것을 기뻐하지조차 않으시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CO 442 선한 자를 악한 자와 함께 멸하신다면, 그분께 더 이상 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도 창세기 18장(23절 이하)에서 이렇게 논증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욥은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는 늘 이 원칙을 간직해야 합니다. 곧 욥은 여기서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드러날 자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이를 때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대로의 악인과 의인을 말합니다. 여기 의로운 사람, 곧 좋고 정직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온전한 깨끗함과 한결같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오, 거기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우리 감각으로는 의인과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저들을 치시며, 솔로몬서에서 말하는 대로(전 9:2) 벌이 거의 차별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간직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분명할 때, 다시 말해 그분이 악인들을 벌하시고 선한 자들과 그분을 충성스럽게 섬긴 자들을 건지실 때 그것이 드러난다면, 좋습니다, 우리는 그 점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분이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공상에 따르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벌하시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래도 그분이 그 자체로 의로우시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기를 그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일들이 아주 뒤죽박죽으로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을 주셔서, 그분이 이유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불리해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바뀔 것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단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싸움에서 건지실 때까지 우리는 거기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단련하시려는 가장 중요한 싸움은, 그분이 우리를 아주 벼락으로 치시려는 것처럼 보이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36편

욥기 9장 설교 4

CO 33:443–454

> 재앙이 갑자기 죽인다면, 그분이 무죄한 자들의 시련을 비웃으시겠는가? 땅은 악인의 손에 넘겨졌고, 그분은 재판관들의 얼굴을 가리시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어디서 오겠으며, 누구겠는가? 내 날들은파발꾼보다 빨리 지나가서 나는 거기서 좋은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하였네. 그것들은 빠른 배보다, 날아가는 독수리보다 더 빨리 흘러가 버렸네. 내가 속으로 "내 탄식을 잊고 내 노여움을 가라앉히며 기운을 내리라" 하고 말해도, 나는 내 비참함을 두려워하네. 주께서 나를 무죄하다고 판결하지 않으실 줄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욥 9:23– 28)

CO 443 이 가르침에서 잘 유익을 얻으려면 앞에서 밝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욥은 하나님의 의가 사람들에게 늘 알아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손가락으로 만지듯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방식으로 일하셔서, 그분께는 아무 이치도 공평도 없고 그분이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하시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때로는 드러나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표지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면, 그분이 그런 본보기로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신다고 판단하지 않을 사람은 없고,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107편에서 말하는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경외하며 행한 어떤 사람을 건지시면,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늘 그렇게 하시는 고른 방식을 가지고 계시

지 않습니다. 그분에게는 은밀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심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이치에 어긋나 보이는 일들을 하실 때 우리는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의 판단과 공상에 맞추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는 정신을 잃은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이 쳐서 죽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자들의 시련을 비웃으시겠는가?" 이 말씀은 모호하고, 그 모호함을 낳는 짧은 말이라서 여러 가지로 풀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잘 살펴보면 자연스러운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거슬러 일어나신다면, 어떻게 그분이 선한 자들의 고난을 보고 웃으시는가?" 앞에서 말한 빌닷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받을 만할 때에만 그분의 징계를 펼치신다고, CO 444 누군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잡으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컨대 그의 말을 들으면 이미 마지막 날에 이르러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남겨 두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분이 뒤죽박죽으로 다스리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분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벌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끝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모으실 소망이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잘못을 벌하지 않고 두실 필요가 있고, 또 선한 자들이 괴로움을 당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수고를 헛되이 한 것처럼 보일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욥의 말로 넘어갑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이 곧바로 죽인다면",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바로잡으심을 미루지 않으시고,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그를 벌하시려고 손을 드셔서 각자에게 그의 잘못과 받을 만한 대로 행하신다면, "그분이 왜 선한 자들의 고난을 보고 웃으시겠는가?" 우리는 의와 공평에 두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는 악인들이 벌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한 자들이 위로받고 그들의 권리와 온전함 속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신다면, 반대로 그분은 선한 자들을 유지하시고 지키셔서,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거나시달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분께 부르짖자마자 그분의 도우심을 느끼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듯이 선한 자들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평생 시들어 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려는 어떤 표시를 보이시기는커녕 그들에게 보복하시며 그들을 심연에 빠뜨리시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악인들을 모두 즉시 벌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아무개가 잘못했으니 그를 징계해야 한다"는 데로 그들을 끌고 가지 않으신다고 결론지읍시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이 여기서 쓰는 논증은 좋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이렇게 일깨웁니다(살후 1:6–7). 곧 선한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벌하시고, 한동안 부당하게 억눌렸던 자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와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이 세상에서 그것을 온전히 보이려 하신다면, 한편으로 그분은 잘못하는 모든 자들을 지켜보셔서 CO 445 그들이 그분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셈을 드리게 하셔야 합니다. 또 선한 자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해나 폭력을 당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그분의 손안에 두셨다는 것을 보이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이렇게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의의 한 부분만 있을 것이고, 그것은 온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이 이렇게 말할 좋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그가 악의로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밝힌 대로, 그는 하나님의 의가 늘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짓자마자 그들을 벌하시려고 손을 드신다"거나 반대로 "그분은 처음부터

선한 자들의 구원자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모든 비참에서 건지신다"는 일반 규칙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가 늘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직 그분의 심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공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식을 쓰실 때 우리는 자신을 낮추어야 하며, 그 때문에 그분을 원망하려 해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능력을 넘어서는 그분의 큰 비밀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욥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그가 여전히 자기를 괴롭히는 지나친 격정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배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칠게 다루셔서 우리가 공평도 정의도 알아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눈을 숙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원망하는 쪽으로 기운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그분이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찔려서 그분께 분을 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나는 어떻게 된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게 다루실 때 그들은 이렇게 사나워집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유혹과 싸웠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알았고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잘 확신했지만, 막상 부딪치고 고통이 그를 누르면 그때 그는 하나님께 분을 품도록 떠밀리고 재촉받았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더 나아가 우리가 말한 그 대상이 있습니다. 곧 고난 가운데 위로받으려는 자들은 욥이 여기서 붙잡는 이 규칙을 늘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핍박받는 것은 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CO 446 사람들을 그들이 받을 만한 대로 벌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일상적인 방식에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에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렇게 말하며, 자기 말을 확증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선한 자들이 시들어 가는 것을 본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지 않는다. 그분은 그들이 일 년, 이 년, 평생 고뇌 속에 있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기색도 보이지 않으신다. 그들은 절망한 가엾은 사람들과 같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자들을 그들의 필요 속에 버려 두신다면, 왜 재앙이 곧바로 친다고,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잘못과 죄를 서둘러 벌하신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반대를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거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한동안 편안하게 지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 주신다고 해서 스스로를 속이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분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려 한다는 것을 압시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악의 속에 고집을 부리던 자들에게 말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인내를 악용하느냐?" 하고 말합니다(롬 2:4). 하나님께서 그분께 돌아와 잘못의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세상에서 괴롭게 하시는 모든 자들을 그 때문에 버리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즉시 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죄 선고를 받았고 결코 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그분의 긍휼로 돌아가 우리를 자비로 받아 주시기를 구할 여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개선하듯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그분의 손에 눌리지 않는 것을 볼 때,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직분을 버리시고 더 이상 세상의 재판관이 아니신 것처럼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맙시다. 오히려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이 하시려는 바로잡으심을 미루실 수 있고, 다른 한편 그 시간이

우리에게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정신을 붙들어 짧은 고삐에 매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세상의 모든 죄를 벌하려 하지 않으시며, 그분이 그 이유를 아신다는 것을 알고서 말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꽤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다시 질서와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부르도록 늘 우리를 기다림 속에 붙들어 두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계속되는 동안 많은 뒤섞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과 소망으로 단련하셔서, 오늘날 이렇게 뒤섞인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회복하실 때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게 하려 하십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들의 시련을 비웃으신다고 덧붙이는 것은, 그가 인간적인 이해에 따라 CO 447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자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조롱하신다고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품으신 사랑이 어떠한지 압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눈의 눈동자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 말고는 그 사랑이 얼마나 다정한지충분히 표현하실 수 없습니다(슥 2:8).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달릴 때 비웃으시는 그런 잔인함을 우리에게 쓰신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육신으로는 다르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제가 처한 비참을 아십니다. 저는 주를 부르고, 주께 한숨짓고,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느낍니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저를 그대로 두십니다. 저는 주께서 어떤 식으로든 저를 도우시려 한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저 웃고만계신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 본 척하시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를 그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그것을 곧바로 보여 주지 않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므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시는 대로, 본성상 악한

육신의 아버지들도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면, 모든 선의 샘이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마 7:11)?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웃으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분이 못 본 척하시면서 우리를 단련하려 하실 뿐이며, 더 나아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지켜보기를 그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바라봅시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욥은 땅이 악인의 손에 넘겨졌고 재판관들의 눈이 가려졌다고 덧붙입니다. 곧 저질러지는 혼란과 걸림돌과 방종을 바로잡아야 할 자들이 모든 것의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어디서 오겠으며, 누구겠는가?" 요컨대 욥은 여기서 이 현세동안에는 일들이 너무 뒤섞여서, 흔히 말하듯 흰 것도 검은 것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땅은 악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곧 사람들은 악인들이 여기서 위세를 떨치고, 가장 방탕한 자들, 방종한 자들, 새벽부터 싸움질하는 자들, 불의로 가득한 자들, 믿음도 정의도 인정도 없는 자들이 모든 것을 바라는 대로 가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들에게 고삐를 풀어 주시는 것을 볼 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처방은 하나뿐입니다. 곧 정의의 지팡이를 쥔 자들이 선한 자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자들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은 자기 일에만 빠져서 모든 것을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각자에게 권리를 돌려주어야 할 위정자들이 악인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말하는 것 말고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아무 위로도 얻지 못하고, 그들이 자기 직분을 행하기를 기다려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우상입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고 CO 448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지 않으시는가? 그렇다면 모든 악인이 거기서 멸해져야 하지 않겠는가? 혹은 그분이 그들을 편드셔서 그들 목에 고삐를 걸어 주어 선한 자들을 괴롭히고 들볶게 하시고, 그러는

동안 그들을 막지 않으신다면,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반대로 두려움과 겸손으로 행하는 자들을 그분의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직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그분은 세상의 질서를 세우셨고, 재판관들은 그분에게서 받지 않으면 분별도 판단력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이렇게 눈먼 채로 두셔서 그들이 우상이 되고, 너무 무기력해서 선을 지키거나 악을 징계할 힘도 능력도 없다면, 욥이 여기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 말고는 탓할 데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풀이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여러 풀이에 머물 필요가 없고 자연스러운 뜻만 보면 됩니다. 요컨대 이것이 욥이 말하려 한 것입니다.

이 절에서 우리는 좋은 가르침을 거두어야 합니다. 첫째로, 일들이 이렇게 어지럽고, 악인들이 개선하듯 하며, 그들이 쾌락 속에 살고, 많은 재물을 차지하며, 아무도 그들에게 반대하지 않고, 그들이 아무 막는 사람 없이 지나침과 폭력을 행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새로운 일이 아님을 알아서 그런 유혹에 너무 놀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공상에 맞서 무장하는 것은 좋고, 아니 필요합니다. 우리 정신은 일들이 우리 공상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운수대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을 돌보지 않으시거나, 그분의 직분을 행하지 않으시거나, 잠드신 것 같거나, 선에도 악에도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생각하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성경이 보여 주는 대로 땅이 이렇게 악인들의 손에 넘겨졌다고 해서 너무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붙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상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는 악인들이 우리 위에서 위세를 떨칠 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한다면, 여기서 일들은 우리가 만족할 만큼 잘 정돈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반역하고 고삐 풀린 말처럼 구니, 그분이 악인들에게 넘치는 방종을 주셔서 우리가 그들의 손에 징계를 받게 하시는 것도 매우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배은망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매를 펼치셔서 온 엄격함으로 우리에게 느끼게 하실 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이 땅에서 일들이 이렇게 뒤죽박죽이어서 CO 449 땅이 악인들의 손에 넘겨졌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경고하시는 것이므로 신음합시다.

더욱이 우리는 악인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땅의 더러움일 뿐 아니라 거기서 위세를 떨쳐야 하는 것을 보며 신음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그분의 대리자가 되도록 모든 것을 그들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직 하나님께 대들고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없애려고만 하는 악인들이, 그분이 그분의 유업으로 여기 세우신 그분의 자녀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뒤집힌 것을 볼 때, 우리는 신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아 주시기를 기도하도록 우리를 북돋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재판관들의 눈을 감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정의를 다루는 자들이 위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스스로는 지혜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임을 주목합시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에도 충분하지 않은데, 어떻게 온 백성을 다스리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뛰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지위와 존엄에 세우신 자들 안에서 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끄시고 도우시도록 그만큼 더 부지런히 그분을 불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의의 자리에 앉아 자기가 충분히 능숙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분별과 능력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조롱하시고 아주 멍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조금도 믿지 말고 그만큼 더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의 영, 힘의 영, 공평의 영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충실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위정자들은 온갖 조심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아래 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 편에서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의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그분의 마지막 보복을 펼치실 때까지 땅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고, 그러는 동안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선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며 마땅히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군주들과 위정자들과 모든 법관들에게 그분의 영을 주시는 것이 온 백성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을 불러서, 그들이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소경처럼 되거나 저질러지는 악행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처럼 멍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CO 450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구하여 그분이 위정자들에게 그분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너무 자주 보듯이 일들이 잘못되어 가고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을 보아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은 필요를 보고 앞으로 나서서 권리를 지켜야 하며, 자기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는데도, 오히려 악을 참고 그것을 편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며, 그런 방법으로 그분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셨음을 보여 주시는 것임을 압시다. 그분이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에 우리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 모든 죄의 열매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질서가 비뚤어져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그런 혼란과 어지러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서 모든

감각과 깨달음을 이렇게 거두실 때 그분이 우리를 벌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사 19:14) 그분이 그들을 어지러움의 영으로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그분은 이유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욥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어디서 오겠으며, 누구겠는가?" 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왜 그토록 많은 악이 있는지 그 모든 이유를 아무리 찾아도 결국 하나님께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이 정죄받아야 할 것인 한, 하나님께서 악의 장본인이시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행하신다고 말할 때, 그것은 모든 것, 곧 번영이든 고난이든, 생명과 죽음처럼, 빛과 어둠처럼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대로입니다(사 45:7).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마귀가 하는 모든 것이나 악인들이 꾀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고삐를 풀어 주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꾀할 수 없을 것이고, 그들이 무엇을 꾸미든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낮은 수단들을 찾으려 할 때에는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하고, 그분이 모든 피조물 위에 최고의 통치권을 가지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뒤집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직 그분께 반역하려고만 하지만, 그분은 그들이 싫든 좋든 그들을 쓰십니다. 욥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어디서 오겠으며, 누구겠는가?"라고 말하면서 표현하려 한 것이 이것입니다. 악이 있을 때 CO 451 사람들은 "누가 이것을 했는가?" 하며 사방으로 찾습니다.

악이 닥치면 우리가 잘 따져서 이 땅에서 어떤 근원을 찾을 줄 아는 것은 사실입니다. 왕이나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에 있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군주는 자기 백성을 약탈하고 먹어 치운다. 그러면서 정의를 행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 그에게는 자기와 똑같이 그저 긁어모으려고만 하는 관리들이 있다. 모든 것이 비뚤어지고 뒤죽박죽이다. 백성이 완전히 망하는 일만 남은 것이 보인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누구를 탓합니까? 그것에 대해 어떤 탄식을 듣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완전히 비뚤어지고 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들에게 불러일으켰다는 것, 모든 악에 빠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모든 일에서 방종하여마치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붙여 모든 것을 태우려는 것 같다는 것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다스리는 자들의 악의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무시며 세상을 잊으셨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분이 그분의 손으로 일하시고, 관리들과 법관들이 악할 때 그것은 백성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셔서 그들이 그분의 진노와 보복의 거울이 되게 하신 것임을 압시다. 그러므로 우리 감각과 정신으로 알아볼 수 있는 원인들과 낮은 수단들을 살피되,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늘 그분의 최고 통치권 안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그 원인을 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캐묻고 크게 돌며 따져 보아도 마침내 우리는 눈이 부신 채로 머물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이나 저것을 하시는지 아무 이유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 의를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분의 의가 완전히 드러나서 눈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일하실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에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경배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아, 주님, 주의 판단은 깊은 바다여서 우리는 거기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주께서

의로우시다고 고백하기를 그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지도 않으시면서 그저 허락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분의 권능을 깎는 것이고, 마치 그분이 하늘에서 주무시며 사탄이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내버려 두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없애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분이 정하셔야 하고, 그분의 뜻과 선하신 CO 452 처분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로우신지 늘 보지는 못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그런 분으로 알아야 하고, 온전한 절제와 겸손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욥이 덧붙이는 말로 넘어갑시다. 그는 자기 날들이 파발꾼이나 빠른 배보다 더 빨리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원문에는 '날아가는'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욥이 짐을 실은 큰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서 즐기며노닐려고 이리저리 돌리는, 빨리 가는 작은 배를 말한다는 것을 더 잘 표현하려고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삶을 물 위를 빨리 달리는 가벼운 작은 배에 견주고, 그다음에 파발꾼에 견주며, 마지막으로 먹이를 찾아 공중을 나는 독수리에 견줍니다. 여기서 욥은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격정에 얼마나 휩쓸렸는지 보여 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증언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 각자가 욥이라는 인물 안에서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유혹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욥이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선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의 모든 아픔을 잊게 할 것입니다.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 나

를 괴롭게 하신다. 그러나 어떤가? 나는 그분의 손에서 그토록 많은 선한 것을 받았고, 그분은 내게 그토록 너그러우셨다. 그것은 내가 늘 그분의 긍휼을 맛보고, 그것을 신뢰하며, 거기서 피난처를 얻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빵 한 조각을 먹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이 늘 우리의 아버지와 구원자가 되시려 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의 모든 아픔을 누그러뜨리는 헤아릴 수 없는 처방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선한 것들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아는 사탄은 정반대의 간계를 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넓혀 주신 선한 것들을 잊게 하여, 우리 안에 우리를 분하게 할 고통만 있고 쓴 것만 있게 하며,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를 기쁘게 하거나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욥이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날들은 물을 따라 흘러가는 작은 배처럼, 공중을 나는 독수리처럼, 파발을 달리는 파발꾼처럼 흘러가 버렸다." 이것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CO 453 그분의 아버지다운 사랑의 그토록 많은 표시를 주셔서, 마땅히 가져야 할 시선과 생각을 가졌다면 위로받을 이유가 충분했다는 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욥이 늘 하나님의 선하심의 얼마간의 맛을 간직했고 결코 절망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시달리고 이리저리 흔들렸지만 늘 그런 느낌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아는 그 굴레에 자기를 붙들었으며, 자기가 비참에서 건짐받으리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그런 유혹을 볼 때, 우리 각자는 자기를 돌아보고 여기서 자기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생하게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을

잊고, 그분의 손에서 결코 아무 선도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유혹이 욥에게 닥친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만큼 더 일이 닥치기 전에 무장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보내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결코 선을 베푸신 적이 없는가? 그분이 내게 베푸신 선이 사라졌는가?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 배은망덕이 갑절로 벌받아야 한다는 것 말고 그 모든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삶은 더없이 연약하므로, 각자 하나님의 은혜와 베푸심을 생각하도록 그만큼 더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견딜 때, 곧바로 처방에 의지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견뎌야 하든 그분을 원망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교회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다면 그분의 형상을 닮아야 하고(롬 8:29), 저 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갚기에 충분하다는 것(롬 8:18)을 잘 알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우리의 모든 슬픔을 누그러뜨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결론짓습니다. 자기가 탄식을 잊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시달리기를 그치겠다고 말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주께서 나를 벌하지 않고 두지 않으시리라는 것, 나를 무죄하다고 여기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욥은 이 구절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으므로 자기 고통과 슬픔에서 아무 숨 돌릴 틈도 찾을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CO 454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 가두어 두셔서 그가 자기 안에서 아무 쉼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한다면 그래도 어떤 핑계를 찾을 수 있고, 숨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개의 손에서 빠져나갈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가 사자 같아서 나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어도 나는 여전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는 그래도 어떤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의 상대편이심을 보여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갇혀서 "아니다, 여기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말하게 될 때, 우리는 아무리 이리저리 돌아보고 세상을 다 돌아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구름까지 날아오를 수 있다 해도 그분은 그보다 더 높이 계십니다. 우리가 심연까지 내려가도 그분의 손은 거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 건너로 가도 그분의 손은 더 멀리 뻗어 있습니다 (시 139:8–10). 그러므로 하나님을 상대할 때에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되고, 그분이 우리를 소환하실 때 그분 앞에 출두해야 하며, 미루어 보아야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를 배웁시다.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쓰여야 할 용도는 이것입니다. 곧 사람들 안에 있는 위선을 보면서, 우리가 꾸밈없이 곧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기서 우리 마음을 펼쳐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분은 우리를 깊숙이 살피셔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줄 알든 그분께 아무것도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화평 속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늘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헛된 공상을 쓰지 않도록 힘씁시다. 오히려 그분 앞에서 두려움과 조심함으로 행하며, 그분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를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그분의 진노를 느끼게 하시면서도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그치지 않는 정도가 되게 해 주시기를 그분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아픔을 누그러뜨리는 데 쓰이고, 그분이 그것이 우리에게 좋고 유익하다고 아실 때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려고 우리 가까이 계실 것을, 그

것도 우리가 그분을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일 풀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립시다.

제37편

욥기 9장 설교 5

CO 33:455–466

> 내가 악하다면, 어찌하여 헛되이 수고하겠습니까? 내가 깨끗한 물로 몸을 씻고 내 손을 깨끗하게 씻어도, 주께서 나를 진창에 처박으시리니 내 옷이 나를 더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분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니, 내가 감히 그분께 대답하거나 우리가 함께 법정에 나아갈 수 없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중재자가 누구인가? 그분이 그 매를 내게서 거두시고,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때 나는 두려움 없이 말하겠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으므로 나는 버티고 있네. (욥 9:29–35)

이 설교는 27절과 28절, 그리고 여기 덧붙여진 절들을 다룹니다.

CO 455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풀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욥은 자기를 핍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아무 쉼이 없고, 그래서 자기 고통 속에서 어쩔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편에서 어떤 고난을 견딘다면 그래도 저항할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런 혼란에 빠져서 이리저리 처방을 찾아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거슬러 자기를 의롭다 하려 한다는 고발을 받았고, 사람들은 그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일깨웠으므로,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좋다, 내가 악하다. 그러면 내가 왜 헛되이 수고하겠는가?” 욥은 여기서 유죄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 그때 사실상 원수처럼 말하던 그들이 이해한 그런 유죄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를 정죄받은 악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버림받은 사람으로 여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밀한 의 속으로 들어가려 한다면 자기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내 소송을 변론해 보아야 소용없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삶을 인정받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엄하게 다루시려 한다면 나는 늘 그분 앞에서 정죄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앞에서 밝힌 이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을 섬기고 공경한 자들로 인정하실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은밀한 의, 그분이 인정하고 승인하시는 그 의로 이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넓게 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에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에 따르면 의롭다고 여겨질 죽을 피조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CO 456 거기서 요구되는 완전한 사랑, 곧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도, 이웃을 향한 사랑에도 모자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죄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갈 3:10) "율법에 담긴 모든 것을 이루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구절을 인용하고, 거기서 행위에 머물면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다면,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점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에 대해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대로(약 2:10–11), 살인하지 말라고 금하신 분이 도둑질하지 말라고도 금하셨습니다.[106]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을 범하고 그분의 의를 거슬렀다면, 우리는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06. 야고보서 본문에는 둘째 예가 '간음하지 말라'로 되어 있으나, 칼빈이 든 예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에 담긴 규칙에 따라 우리와 셈을 하신다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성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겉모습을 가져도, 사람들이 알아보는 그 모든 거룩함은 위선과 거짓일 뿐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건드리시고 그 안에 그분의 율법을 쓰시면 그때 우리는 그분께 순종합니다.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무죄 선고를 받으려고 그분 앞에 머리를 들고 나아갈 만큼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과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많은 연약함이 있고 바라는 만큼 곧게 행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려는 갈망이 있어서 그것을 향하고 그것을 위해 애씁니다. 불신자는 모든 선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내던지며 그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 욕구를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여겨질 자격이 없는 어떤 사람들도 의롭다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에게서 완전한 가치를 찾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빚지셨고 CO 457 그들이 그분과 다투며 그분이 자기들과 자기 삶에서 흠잡을 데를 찾지 못할 만큼 잘 받을 만하다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값없는 선하심으로 받아 주시는 의를 말합니다. 또 정당하게 정죄받을 수도 있는 반쪽짜리 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악덕과 불완전함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방종한 사람처럼 악하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추악함에 빠져 대놓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음행하는 자를 사람들은 볼 것입니다. 약탈에 빠진 잔인한 사람을 볼 것이고, 모독하는 자를 볼 것입

니다. 그런 자들은 삶에서 악할 것입니다. 그들의 불경건은 너무 엄청나서 우리가 마땅히 그들을 가증한 자로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기가 그런 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그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그는 자기가 고아들의 후견인 같았고, 과부들의 도움이었으며, 소경들의 눈이었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요컨대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그에게는 천사 같은 온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 구절에서 어떻게, 어떤 뜻으로 자기가 악하다고 스스로를 정죄합니까? 그것은 꾸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말한 대로, 그가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의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그는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내세워 보아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의 은혜로 주를 섬기는 데 힘쓰는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완전하게 행하지 못했다 해도, 어쨌든 그것이 제 목표였고 저는 거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온전히 거기에 힘쓰는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많은 일에 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주께서 멀어진 적이 없습니다." 욥은 그 모든 것을 잘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엄격한 의 앞에서는 그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선을 행하려는 어떤 갈망이 있었다고 일깨울 수 있다 해도,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욥이 이 구절에서 말하려 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럴듯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낙원의 천사들 앞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꾸밈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셈을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의가 흘러가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온 삶이 아니라 자기 직분에 대해서만 말하면서(고전 4:4), 자기 안에 아무 가책이 없고 죄 있는 자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자기를 의롭다 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거기서 한 가지, 곧 그가 좋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만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가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CO 458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가 알지 못했던 잘못들을 찾아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에 대해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에서 자기를 정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거기 머문다면, 우리가 우리 온 삶을 살핌받게 될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 곧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생각까지 소송하려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이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곧 욥은 우리 모두를 삼킬 만큼 견딜 수 없는 율법의 이 엄격함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 의에 대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왜 헛되이 수고하겠는가?" 하고 덧붙일 때, 여기서 그는 자기에게 지나친 격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가 거기에 완전히 동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거기에 저항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을 따라 자기 안에 있던 감정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나는 유죄를 받아들인다.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악하다고 고백한다. 그런데 내가 왜 헛되이 수고하는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핍박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정죄받았다면 더 이상 처방이 없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삼키셔야 하지 않겠는가? 왜 나는 이 세상에서 쓸려 나가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기서 시들게 붙들어 두시기를 기뻐하시는가? 내가 정죄받아 마땅하다고 고백하는데 그분은 무엇을 더 원하시는가?" 이처럼 욥은 여기서 넘쳐흐르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밝힌 대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 유혹과 싸우더라도 여전히 흔들리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를 만큼의 공격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마치 그가 하나

님을 거슬러 자기를 의롭다 하려는 것처럼 그를 찌르던 자들의 유혹 때문에 더욱 그렇게 하도록 자극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뒤에 덧붙이는 말은 더 분명한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로 몸을 씻고 깨끗이 닦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진창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오물 속에 처박혀서 내 옷이 나를 더럽힐 것이다." 곧 "내가 잘 씻었을 때에도, 오늘 그럴듯해 보이는 그 깨끗함은 하나님 앞에서 오물과 더러움일 뿐일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욥은 자기 이야기를 이어 가며, 우리가 우리 삶을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경외하며 행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발견했다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엄을 감추고 계시며, 그 위엄 안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의가 있다는 것을 간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에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의 본과 형상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능력에 맞춘 것이었습니다. CO 459 우리 깨달음은 너무 거칠어서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있는 것을 생각할 만큼 높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의조차 사람의 분량에 맞추어진 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완전한 의라고 부를 것이고, 그렇게 부를 수 있으며, 성경도 그것을 완전한 의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곧 피조물에 대 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아담 안에서 모두 저주받은 자로서의 우리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우리에 대해서입니다. 혹은 모든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천사들에 대해서라고 합시다. 그러므로 그 의는 천사들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드려야 할 의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안에는 그보다 더 높은 의, 곧 완전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이를 수도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고, 지금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거울로 보듯 희미하게만 보는 그 영광을 바라볼 때까지는 말입니다(고전 13:12). 그때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여기서 자기가 씻어도 여전히 더럽혀진 자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서 물과 눈에 대해 말하지만, 그는 비유로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깨끗함을 뜻합니다. "내가 온전한 깨끗함으로 내 손을 씻겠습니다"(시 26:6)라고 말하는 대로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할 때 그는 율법의 의식,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경배하러 성전에 올 때 자기를 깨끗이 하기를 원하셨던 의식을 염두에 둡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 더럽혀져 있고 오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 할 때 우리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물이 우리 영혼의 영적인 씻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의식을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의 모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곧 모든 악한 감정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며, 모든 악한 행위를 버리고 우리 모든 지체를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여기서 말하는 씻음입니다.

요컨대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써서 눈처럼 희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서 흠잡을 데를 찾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분이 나를 처박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진창에 처박으실 것이라는 이 말은 이상한 말투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더러움을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직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더욱이 우리가 더러움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그분께 달려가서 그분이 우리를 깨끗이 하고 씻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CO 460 그런데 왜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진창에 처박으실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전에는 알아보지 못했던 더러움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시겠습니까? 율법에 따라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의 율법만으로도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충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죽음의 전갈이라고 불립니다(고후 3:7). 우리가 율법에 담긴 가르침만 가진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삼켜질 것이고 아무 처방 없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소송을 거시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충분히 많은 더러움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따른 그 깨끗함을 가졌다 해도, 다시 말해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명하시는 것을 이루었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 앞에 설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천사와 같아서 율법의 의에 따라 하나님께 충분할 수 있었다고 해 봅시다.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밀한 의에 따르면 그는 늘 빚진 자로 드러날 것입니다. 천사들조차 하나님께서 그들과 셈을 하려 하시면 그분 앞에 설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욥 4:18). 그러므로 욥은 이 구절에서, 자기 안에 온전한 깨끗함만 있다 해도, 곧 율법의 의에 따라서조차 그렇다 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오물과 더러움밖에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담긴 것들을 잘 따져 보면, 이것은 모든 육체를 낮추어야 할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일상적인 가르침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었는지 아닌지 자기를 돌아보면 거기서 모두 정죄받은 자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거기로 다시 데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알고, 위선도 압니다. 우리에게는 억지로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그분의 은밀한 의로 우리를 몰아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고삐 풀린 말처럼 굴고, 하나님을 들이받으려고 뿔을 세울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확신을 얻고 자기 양심이 자기를 책망하여 대꾸할 말을 모르면서도, 여전히 입을 열어 하나님을 헐뜯고 그분을 원망하며 대놓고 그분께 대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주제넘음과 위선을 없애시려고

우리 본성에 맞는 정죄 방식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으로 다시 데려가셔서 우리가 CO 461 모두 멸망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좋다, 나는 너희 각자가 스스로를 속이고 너무 스스로를 즐거워하는 것을 본다. 너희를 이치로 이끌어 낮출 수가 없다. 나는 너희와 다투지 않겠다. 그러나 내 율법 안에 거울을 주니, 너희 각자가 거기서 자기를 비추어 보아라. 거기서 너희가 아름다운지 보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나아갑니까? 각자 거기서 자기 더러움을 봅니다. 그리고 전에는 우리 안에 생명과 구원과 놀라운 것들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던 대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롬 7:9–10)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깨달을 때 그렇습니다. 눈앞에 수건이 덮여 있어서(고후 3:14)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그들에게 읽혀도 그들은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거기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눈앞에 수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온갖 악취와 불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건드리십니다.

그러나 여기 더 높은 말씀이 있습니다. 욥은 가장 완전한 자들을 위해서도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하게 다루려 하신다면, 그분 앞에서 기에 충분한 율법의 의조차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어려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분이 명하시고 정하신 것을 이루었는데도 그들을 정죄하시겠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의 율법에 맞추었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겨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이것들을 행하는 자는 그것으로 살 것

이다“(레 18:5)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거짓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것은 늘 남아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고 거기서 요구되는 그토록 큰 깨끗함을 가졌다 해도 (그것은 죽을 인생들에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여전히 그것으로 만족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그분은 자기 안에서 그런 완전함을 찾으실 수 있어서, 우리가 가져온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씻은 뒤에 자기를 진창에 처박으실 것이라고 말할 때 이해한 것이 이것입니다. 곧 “내가 온전한 깨끗함에 힘쓰고, 내 삶이 그분의 율법과 그분이 정하시는 것에 맞추어지고, 내 행위가 선하고 거룩하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러운 가엾은 피조물로 버리실 방법을 찾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그 위를 지나가면 그 모든 깨끗함은 악취일 뿐일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이 우리를 크게 부끄럽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천사들과 같다 해도, CO 462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피조물로서 참아 주시고 엄격함을 쓰지 않으시는 한에서만 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우리가 받을 만한 대로 다루려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천사들과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키실 수 있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물고기가 물을 들이켜듯 우리가 죄를 들이켜고(욥 15:16),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을 끊임없이 거스르며, 우리가 보는 것이 정죄 한 가지가 아니라 십만 가지(그 수는 끝이 없습니다)라면, 아, 우리가 우리를 높일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교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우리는 교황권 안에서 그렇게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미친 짓, 얼마나광기였고 지금도 그런지 봅니다. 그 가엾은 사람들은 교만으로 너무 부풀어서 자기가 낙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 실패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보상할 수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보속이 있고, 그들이 남는 공로 또는 여공(餘功)이라고 부르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빚을 갚으려는 그만큼의 지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빚지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마귀가 사람들을 홀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을 잘 따져 봅시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 격정을 억누르고 고삐에 매어 두어서 욥이 이른 곳까지 가지 않도록 합시다. 그가 이 말에 머문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것은 모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이렇게 말하도록 유혹받고 흔들렸다고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처럼 사람이셔서 내가 감히 그분께 대답하고, 우리가 법정에 나아가며, 우리에게 손을 얹을 어떤 중재자가 있다면, 그때 오, 나는 말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허락을 주셔서 내가 그분을 법정에 부를 수 있고, 우리 둘 위에 재판관이 있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나는 그분께 대담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유혹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욥이 속으로 그렇게 결론지었다면 그것은 저주받을 모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이 유혹에 흔들렸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그는 거기에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 그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 해도 (곧 그것이 가능하다면) 여전히 그분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지 못하리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에 매우 이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늘 어떤 대꾸를 가질 것이고, 적어도 탄식하고 하소연하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엄하게 다루셔서 우리가 그분의 율법을 이루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니,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 사건이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사람들에 관해서는 실제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CO 463 우리가 이렇게 찔릴 때에는 고삐에 매여 있어야 하고,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은 우리가 그것을 경배하게 하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 가지 방식으로 높여야 합니다. 첫째는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대로입니다. 여기 그분의 율법에서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재판관으로 자신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복음에서 우리를 무죄 선고하시려고 아버지로 자신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곧 그분이 우리에게 선하고 의로운 것을 행하라고 명하시고, 우리가 무엇에서든 실패하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위협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선언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어쨌든 의로우시다는 것을 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한다 해도 원망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미시며, 그분이 오직 우리와 화목하기를 바라신다고 선언하실 때, 그분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으니 그분의 의 안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이유가 더욱 넓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선언하실 때 우리는 이미 이렇게 그분을 두 가지로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로 우리를 참아 주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벼락을 치실 수 있었다는 것과,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 그것이 그만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려고 우리 잘못을 징계하실 때, 그것이 모두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께 찬양을 부를 이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일을 통해 자신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지혜로우시다고 우리에게 선언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감추실 때에도,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의도 선하심도, 그분께 그런 영광이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보여 주지

않으실 때에도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분의 선택에 대해 말할 때, 곧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택하시고 다른 자들은 버리시며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인류를 처분하신다고 말할 때, 또 그분이 선한 자들을 괴롭게 하시고 그들을 억눌린 채 두시며 우리가 세상의 일들이 그토록 뒤죽박죽인 것을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십니다. 곧 그분은 우리가 우리 감각으로 그분의 의와 선하심과 능력과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욥이 여기서 말하는 유혹을 바로잡고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법정에 나오셔서 내게 그분과 소송할 자유를 주신다면 나는 대담하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욥은 여기서 CO 464 우리가 다룬 대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분을 품도록 재촉받았다는 것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싸움에 저항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과 소송할 그런 자유를 주신다 해도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것을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정신이 그런 고뇌에 얽혀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내의 거울로 우리에게 제시된 그토록 완전한 사람이 이렇게 괴로워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는 말을 그만큼 더 잘 주목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선언하시면 거기서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그분이 자신을 감추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비밀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방식으로 우리는 입을 다물고, "내가 따진다면 내 소송에서 이길 것이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물론 우리는 때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오라, 함께 변론하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대로입니다(사 5:3). "보라, 나는 누가 좋은 사건을 가졌는지 나쁜 사건을 가졌는지 보려고 우리 둘 사이에 재판관이 있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분께 독을 품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면 다 이겼다고 생각하던 악인들의 입을 막으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폭군의 권력을 쓴다고, 너희가 이유와 이치 없이 억눌린다고 내세우지 못하도록, 오라. 나는 사람들의 반열에 있는 자처럼 여겨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 나는 피조물들처럼 되겠다. 나는 내 권리와 내 안에 있는 이 최고의 통치권과 위엄을 내려놓겠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보지 않아도 좋다. 그래도 너희는 정죄받기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셈을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분께 대들고 완전히 반역하는 업신여기는 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서는 그분이 정죄할 것을 충분히 찾으실 것입니다.

욥은 자기를 어느 등급에 둡니까? 하나님을 섬기려 했고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여 행한 자들의 등급에 둡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크게 잘못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분의 율법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규칙에 따라서조차 흠잡을 것을 많이 찾지 못하실 만큼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는 또 다른 요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곧 욥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거칠게 다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욥은 자기 삶이 율법에 따라 살핌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자로 드러날 것을 모를 만큼 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가 아픔 속에서 휩쓸리고 눈이 먼 것처럼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서 늘 흠잡을 데를 찾으실 것을 잘 압니다.

CO 465 그러면 왜 그는 대담하게 말하겠다고 합니까? 그는 자기를 고발한 자들에게 말하고 있으며, 이 말은 흔히 말하듯 사안 자체보다는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욥이 상대편 없이 말했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잘 고백한다. 그러나 내가 율법에 따라 그분께 아무것도 빚지지 않는 것이 가능했다 해도, 곧 내가 내 의무를 온전히 다했다 해도, 나는 그분의 순전한 선하심에 피해야 했을 것이다." 욥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마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인 것처럼 그의 불의 때문에 이렇게 벌받는다고 고발했으므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나는 대담하게 변론하겠다." 그런데 그가 "나는 대담하게 변론하겠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한 대로 그가 자기 격정에 휩쓸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상대편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미 밝힌 것 말고는 다른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뜻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에서 어떻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봅시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것을 행했다 해도 (그것은 사람에게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정죄할 방법을 찾으실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의로우신 채로 남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율법을 주셨을 때, 그리고 그 뒤에 그 율법이 우리를 빠뜨리는 정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이중의 선하심을 쓰신다는 것을 압시다. 그분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자,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고, 너희는 내 것이므로 내게 빚지고 매여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를 쓸 수 있고, 그러는 동안 너희는 내게 '우리에게 갚으라' 고 말할 수 없다. 너희는 내 것이므로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내게 바쳐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가

내 율법을 이루면 보수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마다하지 않겠다. 내가 아무 보상 없이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이미 큰 선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는 낙원의 천사들처럼 깨끗한 피조물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부패한 있는 그대로의 우리 본성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분이 더 나아가 그분의 긍휼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고 정죄받은 채로 남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에 담긴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해도 우리는 늘 저주받은 채로 남을 것입니다.[107] 그러나 CO 466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실패했는데도 우리를 참아 주시니, 그것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 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께 나아올 이유를 주시되, 거기서 변론하거나 우리 사건을 주장하려고 나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입이 막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분께 빚진 자임을 고백하려고 나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간직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감각으로 그분을 이해하는 대로도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 위선이 그것을 알지 못하게 막지 않는다면, 우리 각자가 자기의 재판관이거나 재판관이어야 한다는 그 판단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변론할 중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분이 화해시키시는 중보자가 되시게 합시다. 하나님께 그분과 우리에게 손을 얹을 재판관을 구하지 말고, 우리를 그분의 위엄과 화목하게 할 방법이 있기를

107. 이 대목은 앞의 조건(율법을 이룬 자는 의롭다 여겨진다)과 긴장을 이루지만, 전자본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감추어진 의에 따르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앞의 논지를 이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께 구합시다. 여기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 죄라고 말합니다(사 59:2).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움직임과 힘을 가집니까? 그분의 능력이 모든 곳에 퍼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존속합니까(행 17:28)?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도 우리는 우리 죄와 불의 때문에 그분에게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 더 남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이에 서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굴복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 모두를 자기 뒤로 이끄셔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요 17:11) 우리가 모두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결합시키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기를 배워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 우리는 변론하거나 우리 안에나 우리 자신에게 있는 무엇을 믿으려고 주께 나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받아 주시려 하시기 때문에 나아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관해서는 부끄러움을 당한 채 남아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음에 내주셨을 때 그분 안에서 펼치신 주의 무한한 선하심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기를 기뻐하시니, 이제 우리는 우리가 더없이 합당하지 않더라도 주께서 우리를 받아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립시다.

제38편

욥기 10장 설교 1

CO 33:467–479

> 내 영혼이 살아 있으면서도 끊어졌으니, 나는 내 탄식을 나 자신에게 쏟아 놓고 내 쓰라림 속에서 말하겠네. 나는 하나님께 말하리라.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엇 때문에 나와 다투시는지 내게 보여 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억누르시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내버리시며 악인들의 꾀를 빛나게 하시는 것이 주께 좋으십니까? 주께 육신의 눈이 있습니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십니까? 주의 날이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죽을 인생의 때와 같아서, 주께서 내 불의를 캐물으시고 내 죄를 조사하셔야 합니까?" (욥 10:1–6)

CO 467 욥이 여기서 하는 말들은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선하고 거룩한 기도입니다. 먼저 우리가 고뇌에 짓눌려 있다면, 하나님을 법정으로 끌고 가려 하여 그분을 거슬러 일어서 보아야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 죄를 느끼게 해 주시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시는 가장 중요한 정죄도, 우리가 감동받아 우리 자신 안에서 꺾이지 않는다면 우리 구원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려면 자기의 재판관이 되어 스스로를 정죄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곧이어 덧붙여지는 모든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그들의 모독과 불의를 즐길 구실을 주시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 다른 한편 그분은 복수하려는 땅의 사람이 아니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모든 것이 그분께 알려져 있으니 그분이 사람들의 죄를 알아내려고 그들을

고문대에 올리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다루는 말들을 좋은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이 자기를 휩쓸던 격정을 드러낸다는 것을 봅니다. 앞에서 밝힌 대로 그가 거기에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처음에 그것 때문에 어지러워지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자기가 너무 쓰라림 속에 있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 해도 여전히 자기 탄식 속에서 버티거나 그 탄식에 고삐를 풀어 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내버려 두다' 를 뜻하기도 하고 '강하게 하다' 를 뜻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여기서 격정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말한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그러나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한지 알고 자기를 붙듭니다. 그는 하나님을 고발함으로써 자기 사건을 좋게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는 자기가 어쩔 줄 모르며 CO 468 흔히 말하듯 정신이 다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로 피합니다. 곧 그분이 그를 정죄하시기 전에 왜 그와 다투시는지 보여 주시고, 그가 왜 고통을 견디는지 그 이유를 느끼게 하실 만큼 낮아져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을 하나씩 따라가 봅시다. 그는 "내 영혼이 살아 있으면서도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때로 '미워하다' 를 뜻하기도 합니다. 마치 "내 영혼이 내 삶을 싫어한다, 나는 더 사는 것이 괴롭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살아 있으면서도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살아 있지만 자기 처지가 죽은 자의 처지와 같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 삶은 삶이 아니다. 나는 죽음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바라보면 자기가 절망한 사람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을 신뢰하려면 자기 자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것은 우리가 잘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재 처지를 바라보면, 완전히 쓰러지는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증거로, 사람이 편안하더라도 그에게는 이 삶의 괴로움을 견딜 만한 지속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연약함을 바라보면 그는 백 가지 죽음에 포위되어 있고 생명의 그림자밖에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우리의 상대편처럼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벼락을 치려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한편으로 우리 죄를 알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토록 완전하고 높은 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아무 구원의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에 굴복하는 자들은 자기가 무감각하다는 것, 곧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108] 참으로 생생하게 감동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죄를 생각할 때 지옥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분의 재판석 앞에 소환하셔서 그가 얼마나 죄 있는지 느끼게 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욥이 자기가 절망한 사람과 같다고 고백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유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가 늘 의지했던 그 아버지다운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붙들렸고, 이렇게 그토록 큰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CO 469 우리가 우리 죄를 바라보고 부끄러워한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시는 그 부드럽고 다정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천사들과 의롭게 드러날 수 있는 자들에게만 구원과 생명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생명과 구원에서 배제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안에서 완전히 쓰러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 한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108. 이 문장은 프랑스어 원문에서도 앞뒤 논리에 긴장이 있습니다. 부정어가 빠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확정할 수 없어, 전자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보고 슬퍼한 뒤에, 우리를 삼키려고 열려 있는 지옥의 심연밖에 보이지 않을 만큼 어지러움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 밖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눈을 높이 들어, 우리가 이미 정죄받은 자와 같은데도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사정이 이러하니 자기를 거슬러, 혹은 자기 위에 자기 말에 고삐를 풀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그는 자기를 흔들던 격정을 표현하려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 격정들은 그 자체로 악하고 정죄받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것을 선언하여, 그가 슬픔에 짓눌려서, 그것도 아무 처방을 보지 못할 만큼 짓눌려서 연약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께서는 더 멀리 보셨습니다. 그분은 욥이 우리에게 선지자요 교사가 되어 우리의 감정이 어떠한지 우리 앞에 내놓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야 하고, 자기 연약함에 대해 경고를 받아 경계하며 자기를 억누르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자기를 용서한다면 아무 절도도 한도도 지키지 못할 것임을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이렇게 우리 가르침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이 자기를 거슬러 탄식할 자유를 스스로에게 준다고 말할 때 이 말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다투려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을 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가 쓰는 서두이며, 거기에는 매우 유익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원망할 수 있으면 그만큼 짐을 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위안을 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모독을 토해 내거나 조급함을 드러내고 나면 자기 짐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무 유익도 얻지 못했고, 자기 처지를 훨씬 더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있을 때, 좋습니다, 그것을

땅에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짐을 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깨나 팔에 짐을 지고 있다가 그것을 내 머리 위로 던져 크게 부딪친다면, 그것은 내 머리를 깨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CO 470 거기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하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 머리 위로 짐을 던지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싫든 좋든 그것은 다시 그 위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피해 보아도 그것은 우리 위로 다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원망과 모독을 토해 내고 쏟아 낼 때 자기를 망칠 뿐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품에 와서 짐을 내려놓는 이런 친밀함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아가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대로(시 62:8)[109] 그리고 성경의 다른 많은 구절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그분의 직분이니,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실 수 있고, 우리가 너무 짓눌릴 때 우리에게 숨 돌릴 틈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의 품에 맡길 수 있고, 그분은 그것을 맡아 주실 것이며, 우리는 그만큼 짐을 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간구와 기도로 그분께 나아갈 때 말입니다. 우리를 누르는 어떤 슬픔이나 괴로움이 있다면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 주의 가엾은 믿는 사람들이 시들어 갈 때 그들을 도우시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제가 여기 나아왔는데, 주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이 우리 간구에 귀를 막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게 될 때, 그것이 좋은 짐 내려놓기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09. 원문에는 시편 62편 9절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1절로 세는 프랑스어 성경의 절수이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맞으러 나오셔서 우리가 그분께 내놓는 짐을 받아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 교만 속에 굳어지고, 거기서 부풀어 조급함에 휩쓸린 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누군가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려는 것처럼 하나님께 덤빕니다. 오, 그 화살은 그의 머리 위로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돌을 던지려 해도 그 돌은 거기로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탄식할 때에는 온전한 겸손으로 하도록 힘씁시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그분의 선하심과 아버지다운 사랑에 기초하여, 간구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때 우리는 짐을 덜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을 품고 어떤 쓰라린 말을 내던짐으로써 우리 사건에서 이기리라고 생각한다면, 오,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 처지가 늘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욥이 자기 지나친 격정에 고삐를 풀어 주면 그것이 자기 위로, 혹은 자기를 거슬러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때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그는 자기 의도가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서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모든 CO 471 탄식이 자기 고통 때문에 견디던 괴로움에서 나온 것임을 고백하려는 것이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악덕을 압시다. 그러나 그것을 안 뒤에는 처방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고난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까? 능력의 영을 가지신 분께 달려갑시다. 그분은 그 영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 연약함을 알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 그들을 도우시고 강하게 하실 수 있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병에 대해 경고를 받을 때, 왜 의사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성으로 이렇게 말할 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

나 나는 육적인 사람이다. 나는 쇠나 강철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내게 어떤 고통이 있으면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권고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악덕을 경고하실 때,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싫어하고, 각자 자기가 그런 자임을 보고 자기를 미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덧붙이시는 약속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곧장 그분께 나아가 그분이 그 약속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분이 우리를 누르는 필요를 보실 때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계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곧 우리 악덕을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이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고쳐 주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겠다고 말합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엇 때문에 나와 다투시는지 보여 주십시오." 여기서 욥은 여전히 격정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 다룬 그 은밀하고 감추어진 의로 자기를 다루지 않으시고, 그분의 일상적인 방식대로 자기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에서 우리에게 확실한 규칙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잘못에 따라 다루어진다면 우리는 거기에 선언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우리 소송 기록이 글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전달되어, 우리를 거슬러 증명된 항목들을 거기서 봅니다. 그것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잘 증명된 항목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괴로움을 당할 때, 그때 그들은 율법에서 자기 판결뿐 아니라 자기 소송 기록 전체를 봅니다. 일들이 거기서 하나하나 풀어져 있어서 그들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일상적인 방식으로 괴롭게 하지 않으시고 사탄에게 그를 괴롭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은 "먼저내 소송을 다루시기 전에 나를 정죄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

님의 은밀한 의가 우리가 알기에 매우 낯설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 정신은 거기까지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CO 472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셈을 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면서 왜 그런지 느끼게 하지 않으시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놀라고 괴로워합니다.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신가? 그렇다면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이치와 공평에 맞아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나는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를 본다." 이렇게 사람들은 부풀어서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하려 하고, 속으로 따집니다. 그것도 근심과 분에서 나온 따짐입니다.

이것이 욥이 이 구절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여 주실 수 있었습니다. 곧 그가 아무리 의롭다 해도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징계받는 것이 매우 마땅하다는 것을 그에게 느끼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왜 이렇게 다툽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의 규칙에 따라 그를 징계하려 하신다면 그가 좋은 사건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곧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토록 무겁게 벌하실 의로운 이유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그것이 그의 죄 때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그는 자기가 고통을 견디는 동안 세상의 많은 악인들이 아낌을 받는 것을 보았고, 자기는 힘닿는 데까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그가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욥이 여기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일상적인 방식으로 다루셔서 그에게 그의 잘못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우리는 이 가르침을 우리 가르침에 잘 적용해야 하며, 그것은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다투시는지, 왜 우리를 심판으로 부르시는지 보여 주시기를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징계는 우리에게 쓸모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거슬러 굳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대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매가 크고 작은 자를 치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누구나 "아, 오늘날 가엾은 세상이 더는 견딜 수 없구나"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회개는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징계가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께 맞서고 그 타격을 물리치기로 공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망치로 내리치시면, 우리는 마음이 모루처럼 되어 부드러워지기는커녕 오히려 굳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다투시는지 알 분별과 생각이 없기 때문이 아니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간구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정죄하지 마시고,

CO 473 우리가 무엇에서 죄가 있는지 느끼게 하시며,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가 우리 양심을 살피게 해 주시기를 그분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잘 안 뒤에 우리가 신음하며, 그분께 돌아가 거기서 부끄러워하는 것 말고는 다른 소망을 갖지 않아서,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간구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짓눌러 버리려고 벌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생각할 여유를 갖도록 다투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는 앞의 것과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크고 맹렬한 폭력으로 오셔서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정신을 잃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지만, 그래도 나의 아버지이시기를 그치지 않으신다"라고 알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형 선고를 받은 가엾은 범죄자가 교수대로 끌려갈 때 거기서 멍하니 나무토막처럼 되어, 누가 그에게 어떤

위로를 건네도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대적하신다고 선언하시는 그토록 무서운 끝에서부터 시작하실 때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혼란이어서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좋은 위로의 불꽃 하나도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주 앞에 나오는 주의 가엾은 피조물에게 아직도 회개할 여지를 주시겠지요" 하고 생각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의 본을 따라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시기 전에 우리 소송을 다루어 주시기를, 곧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여유를 갖도록 알맞은 정도로 우리를 다루어 주시기를 기도할 필요가 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렘 10:24). "주님, 저를 징계하시되 알맞게 하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하게 다루려 하시면 우리가 삼켜질 것이고 끝장날 것임을 잘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알맞게 징계해 주시기를, 곧 그 징계가 조절되고 누그러져서 그가 자기 잘못을 읽고 평온하게 살펴서 그것을 싫어하게 되기를, 그리고 그 뒤에 용기를 얻어 그분께 용서를 바라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매가 온 세상에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악의 원인은 제가 이미 말한 것입니다. 곧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이렇게 치시는지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사람들이 헛된 주제넘음, 아니 어리석은 광기에 취해서 CO 474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교만이 우리 본성에 그토록 뿌리 깊이 박혀 있으니,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이 간구를 하도록 그만큼 더 재촉받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다투시는지 보여 주시기를, 다시 말해 그분이 우리에

게 우리 죄를 느끼게 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유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 돌아가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왜 그들과 다투시는지 보여 주려 하실 때, 그들 가운데 자기 소송 기록이 다 작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가장 의로운 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율법의 규칙에 따라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높은 의에까지 데려가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을 보며, 우리 행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규칙과 비교하기만 하면, 그때 우리는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자기 행위와 덕과 공로를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황권에서 자유의지와 공로와 보속을 설교하는 그 위선은 어디서 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뿔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이마를 들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뻔뻔한 창녀들처럼 나아가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그들은 더러움과 오물로 가득하면서도 자기 공로를 설교합니다. 그들은 잘못했을 때 보속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만이 그들이 결코 그 재판석 앞에 마땅히 소환되어 자기가 얼마나 죄 있는지 느낀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왜 우리와 다투시는지 보여 주시기를 구할 때, 우리를 의롭다 하거나 무죄로 만들 수 있으려는 목표를 가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유죄를 받아들여 자비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처방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우리 편에서 그분께 온통 부끄러움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욥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런 억울한

일을 하시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내버리시며, 악인들의 꾀를 빛나게 하시는 것이 주께 좋으십니까?" 혹은 "주께서 악인들의 증인이 되시거나 그들의 꾀에 함께하시는 것이 좋으십니까?" 여기서 욥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도 자기 간구를 얻으려고 말합니다. 제가 이미 다룬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그런 말을 쓰도록, 곧 우리가 CO 475 친밀하게 말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겸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친밀하셔서 낮아지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내세우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지, 우리에게 자만의 대담함을 주셔서 우리가 업신여기며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깔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픔이 우리를 너무 짓눌러서 우리가 숨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리라고 더 이상 소망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보일 때 얼마간 짐을 덜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그분이 우리에게 그 허락을 주시니, 아이가 아버지에게 가듯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친밀하게 쏟아 놓고 하나님께 우리 탄식을 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은 교만이나 오만이 아니라 바른 겸손 속에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제 욥이 하는 말로 넘어갑시다. "주께서 나를 억누르시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내버리셔서 무엇을 얻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그분이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들과 같지 않으시다는 점에서 인정됩니다. 사람이 왜 이웃에게 사기나 악의로 해나 폭력이나 다른 손해를 끼칩니까? 거기서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왜 재판관이 매수됩니까? 왜 그가 악인들을 편들려고 선한 자들을 억누르겠습니까? 그가 영향력과 호의에 끌려다니겠습니까? 그것은 누군가의 환심을 사거나 복수하려고, 그것이 자기에게 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편으로 그분의 의가 인정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실 때 그분이 그분의 원수들을 상대하십니까? 그분은 그분의 피조물을 상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이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고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자기가 만드신 것을 파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의도 잔인함도 쓰실 수 없다고 결론지어야 합니다.

그분은 불의를 쓰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그분께 마땅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이 악하고 비뚤어져 있어도 늘 그분을 얼마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악의에 너무 절고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본성의 감각은 늘 사람들에게 새겨져 있어서, 그들이 이웃에게 어떤 강탈이나폭력을 행하는 것이 자기에게 좋고 이롭지 않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들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면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모든 선의 샘이시고 모든 정의의 규칙이신 하나님께서 CO 476 아무 이익도 없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우리를 부당하게 괴롭히도록 자극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인정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잔인함을 쓰실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빚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니 그분이 이유 없이 우리를 파괴하지 않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장인은 자기가 만든 작품이 보존되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의와 선하심과 지혜의 증거와 같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까닭 없이 우리를 파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 가르침에 잘 적용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사탄에게 재촉을 받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큰 엄격함을 쓰시고 불의하신 것처럼 그분께

화를 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굴레를 가지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어찌 된 일인가, 가엾은 피조물아, 너는 누구를 상대하느냐? 네 하나님께서 네게 억울한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것이 가능하냐? 너는 죄로 가득하고, 악의와 사기와 속임으로 가득하다. 그런데도 너는 누군가에게 악을 행할 때 네 이익을 바라본다. 네가 해를 끼치는 것은 남의 손해로 앞서기 위해서다.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네게서 무엇을 얻으실 수 있겠느냐? 너는 그분을 네 불의와 죄의 동료로 만들려 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다루고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논쟁거리로 삼는 것을 소름 끼치게 여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께서 너를 이 세상에 두시고, 네 위에 그분의 은혜, 그분의 선하심의 큰 보화를 펼치셨다. 네 몸만 보아도 너를 놀라움으로 사로잡기에 충분한 것이 있다. 그러니 네게 그토록 너그럽고 다정하게 나타나신 네 하나님께 어떤 잔인함을 돌리려고 주제넘게 군다면, 너는 참으로 정신 나간 자가 아니겠으며, 마귀가 너를 사로잡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르침에서 유익을 얻을 줄 알려면 이렇게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덧붙여진 말은 더욱 실제적입니다. 악인들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이 땅에서 마치 모든 일이 그들에게 뜻대로 되는 것처럼 즐기는 것을 볼 때 괴로워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복음과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를 조롱하며 개선하듯 할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괴롭게 하실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악인들이 개선하듯 하여 자기가 다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편드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혼란이 일어나서 일들이 정반대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데서 점점 더 굳어지고 믿음과 CO 477 모든 선에서 굳어져야 할 대신, 복음을 믿는 척했던 많은 사람들이 방탕해지고 심지어

드러난 원수들보다 더 악하고 엄청난 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더 나아질 소망이 거의 없는 다른 일들도 봅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분은 여기서 악인들을 높이시고, 그들의 입을 열어 그분을 거슬러 모독을 쏟아 내게 하시려는 것 같다. 그분은 우리를 대적하시고,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온갖 치욕에 내놓이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인들의 꾀를 빛나게 하시려는가? 그분은 그들 편에 서려 하시는가? 그분은 그들의 부패와 오물에 함께하려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유혹에 맞서 그만큼 더 무장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욥은 두 가지를 모두 내놓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이런 생각이 자기에게 떠올랐다고 고백합니다.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께서 악인들 편에 붙으셔서 그들에게 더 큰 대담함을 주시려고 그들과 공모하신 것 같다." 그러므로 욥은 그런 유혹이 자기 머리에 떠올랐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그는 거기에 저항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악을 대적하지 않으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본성상 악을 미워하시며,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의 재판관이시니 모든 불의를 징계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결코 악인들의 꾀를 빛나게 하지 않으실 것, 곧 결코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이지 않으실 것을 압시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분은 그러는 동안 우리의 인내를 단련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걸림돌에 맞서 무장합시다. 악인들, 진리의 원수들이 세상의 뒤죽박죽인 일들을 구실 삼아 하나님과 우리를 조롱하는 것을 볼 때, 이렇게 말합시다. "좋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 편이신 것은 아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들의 교만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지금은 어둠의 때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대로입니다(눅 22:53). 마귀가 악을 행할 그런 방종을 얻어서 악인들이 목에 고삐를 걸지 않은 때입니다. 그분은 일들이 어둠 속에서처럼 뒤죽박죽일 때 그것이 어둠의 다스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지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비추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아주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고 평온하게 있으며, 그러는 동안 그분이 못 본 척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꾀를 편드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읍시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분이 알맞은 때에 우리가 그분을 기다린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 관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CO 478 욥이 덧붙이는 것, 곧 하나님께 사람처럼 눈이 있는지, 혹은 그분께 죽을 인생처럼 시간이 있는지 묻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 대해 긴 조사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께 알려져 있고, 그것들은 세상 창조 전에도 주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께서는 범죄자들을 고문대에 올려 놓고 긴 소송을 하는 땅의 재판관들의 방식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지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주께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이토록 엄하게 다루십니까?" 욥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는 아주 잘 말하지만, 결론은 잘못 내립니다. 우리가 이미 말한 대로 그는 자기의 지나친 격정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가르침을 우리 쓰임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죽을 인생 같은 눈이 없으시니 자기 짐을 덜어 주시기를 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 그것은 그분께 알려지지 않거나 숨겨진 것을 확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쓸어 버리실 수 있는데도 왜 얼마 동안 우리를 시들게 두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잘

생각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더욱이 욥은 여기서 자기모순에 빠집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람들의 격정이 너무 다양해서 대개 서로 모순된다는 것을 봅니다. 바다의 파도가 그 맹렬함으로 서로를 부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의 격정도 우리 안에서 서로 반대되고 어긋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잘 뜬다면, 우리가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저렇게 말할 만큼 그런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앞에서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엇 때문에 나와 다투시는지 보여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보여 주려 하시지만, 그는 그 편에서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는 자기가 너무 몰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그가 늘 인내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가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맞을 때마다, 한 고통에서 벗어나자마자 다른 고통에 들어갈 때, 우리의 쇠약함이 계속되고 우리 고통에서 아무 출구도 보지 못할 때, 한 발을 진흙에서 빼려고 생각하면 다른 발이 더 깊이 빠질 때,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은 그분이 그것을 기뻐하시거나 거기에 어떤 이익과 유리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그분께로 돌이키려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 구원을 향한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달고 다정하게 여기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CO 479 그분이 우리를 여러 방식으로 괴롭게 하실 때에도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한 번 치신 뒤에 두 번, 세 번 다시 치신다면 이렇게 말합시다. "좋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고문대에 매어 두듯 붙들어 두기를 기뻐하시니,

110 우리가 우리 죄를 확신하면서도 주를 거슬러 이를 갈 만큼 악의에

110. 원문의 'gehenne' 는 여기서 지옥이 아니라 문맥상 '고문대' 를 뜻하므로 그렇게 옮겼습니다.

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바른 온유함으로 나아가 주의 긍휼을 간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심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그분께 달려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길을 주셔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현세 동안 많은 고난과 비참을 견뎌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인내로 견딘다면 모든 것이 구원으로 바뀌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약이 될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39편

욥기 10장 설교 2

CO 33:480–491

> 주께서는 내가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을 아시고, 아무도 나를 주의 손에서 건질 수 없음을 아십니다. 주의 손이 나를 빚으시고 나를 두루지으셨는데, 이제 나를 허무십니까? 주께서 나를 진흙처럼 지으셨음을 기억하소서. 그런데 나를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시렵니까? 주께서 나를 젖처럼 쏟으시고 치즈처럼 엉기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에게 살과 가죽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엮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내게 생명과 은혜를 주셨고, 주의 돌보심이 내 영을 지켰습니다. 주께서는 이것들을 주 안에 감추어 두셨지만, 나는 주께 그러하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 나를 가두시고, 나를 벌하지 않고는 놓아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였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요, 내가 의로웠다 해도 나는 머리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수치로 배불렀고 내 고난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 10:7–15)

CO 480 어제 밝힌 것에 이어서, 욥은 여기서 하나님께 땅의 재판관들처럼 조사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일깨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을 행할 수 없다는 것과, 아무도 나를 주의 손에서 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범죄자를 붙잡고 있으면 그가 빠져나가서 전보다 더 나쁜 짓을 할까 봐 두려워하고, 지난 일에 대해 복수하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쳐질 소망이 더 이상 없는 자들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주께서 나를 이 고난에서 건지신다 해도 내가 늘 주께 매여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다시 지금 내가 처한

이토록 불행한 상태로 데려오실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무엇이 주께서 나를 그토록 괴롭히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이 모든 간구는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전한 겸손으로 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 엄하게 다루신다고 고발하려는 것처럼 다투거나, 우리 사건을 좋게 만들려고 우리 편에서 어떤 이유를 끌어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 이 말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이렇게 말하며 나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아, 주님, 주께서는 사람들의 방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무엇이 주를 그렇게 하도록 이끌겠습니까? 주께서는 제가 누구인지, 제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저를 굴레에 매어 두시는 것도 주께 달려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라 해도 빠져나갈 수 없으니, 주를 거슬러반역해서 제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제가 누구입니까? 저는 티끌일 뿐이고, 가엾은 죽을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께서 제게 입김을 부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께서 저를 괴롭게 하실 때 육적인 감정에 끌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결론짓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았습니까? 제게 주의 선하심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아주 확실히 붙잡으면서, 그러는 동안 이 말들을 가지고 좋은 신뢰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욥의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한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빚으시고 나를 두루 지으셨는데, 그런데도 나를 허무시렵니까?" 그는 CO 481 어제 이미 밝힌 것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다루어졌지만, 그는 그것을 다시 확증하며, 그것은 이유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격함을 쓰신다면 그분이 잔인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를 크게 위로해야 할 논증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그분의 작품과 그분의 피조물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나는 나를 빚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낯선 것을 거슬러 일어나시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그분이 나를 이렇게 다루실 의로운 이유가 있다고 말해야 한다. 그분은 잔인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그분의 작품을 알아보신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안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시고 바라보십니다.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그것을 좋다고 여기신 것은 이유 없는 일이 아닙니다(창 1:31). 그런데 사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뛰어난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모든 동물에 작은 몫으로만 두셨던 것을 거기서 펼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작은 세계라고 불리고, 우리는 거기서 그토록 많은 놀라운 것들을 보아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작품을 바라보시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를 유지하시도록 움직여지고 기우실 것이라고 늘 확신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분께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곧 그분은 그분이 지으신 것을 보존하시고, 시작하신 것을 완성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빌 1:6).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그토록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분이 끝까지 계속하려 하신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논증을 좋은 용도로 적용할 때,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욥도 그것을 더 넓게 풀어 나갑니다. 그는 이 절에서 "주님, 나를 삼키시렵니까?"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곧 "주께서 나를 두루 지으셨는데 나를 허무시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흠잡을 데가 없다는 뜻으로 말합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꾸민 작품을 만들 수는 있지만, 어디서나 그렇게 잘 다듬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솜씨를

쓰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태피스트리를 만들면 앞면만 아름답게 보이고, 감추어진 부분은 온통 볼품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잘 다듬어져 있어서, 자연의 질서에 따라 고른 솜씨가 있고, 손톱 끝에서도 흠잡을 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욥은 여기서 사람의 형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표현하려 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주를 영화롭게 하려고 주의 지혜와 능력과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을 볼 수 있는 그토록 뛰어난 작품을 CO 482 파괴하시렵니까? 사람들 안에 나타나 빛나는 주의 영광을 이렇게 없애기를 기뻐하시렵니까?"

이제 우리는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봅니다. 그런데 그는 제가 이미 다룬 것을 덧붙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를 진흙처럼 지으셨고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주의 작품을 내게서 거두시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내 시작은 땅의 진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으로 빚으신 것은 아담뿐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근원이 거기서 시작되며, 우리는 모두 거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으며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곧 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한다는 것을 압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으로 빚으셨으니, 그분이 거기에 두신 것을 거두시면, 곧 우리에게 펼치신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떼어 내시면, 우리는 우리가 온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괴하려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영광을 없애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신다면 말입니다. 그분이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을 멸하실 때, 그것은 그들이 자기에게 달린 한 그들의 본성에 새겨진 형상을 지워 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한 것을 보셨을 때 불쾌해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보라,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말합니다(창 6:6). 하나님께 한탄하실 만한 변화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모든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기서, 사람들이 그렇게 비뚤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두셨던 그 온전함과 정직함에서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아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사람들 안에서 그분의 작품을 알아보시지만, 그러는 동안 늘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죄는 그분에게서 나오지 않으며 그분께 돌려질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욥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께서 나를 젖처럼 쏟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여기서 사람의 출생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며, 거기서 우리의 모든 감각이 어지러워집니다. 사람의 씨에서 살아 있는 피조물, 그렇게 잘 다듬어진 피조물, 정신을 놀라움으로 사로잡을 수 있는 질서가 보이는 피조물이 나온다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높임을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근원과 치즈 만드는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젖을 모아 엉기게 하면 그것으로 치즈를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람의 출생에 있는 그 시작에서 살아 있는 피조물,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 그토록 잘 갖추어진 피조물이 나온다니요? 그러므로 사람이 CO 483 사람의 씨에서 빚어져야 할 것처럼 보이는 기색이 전혀 없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기서 경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더욱 잘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로잡힌 것처럼 되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 주님, 주께서는 어떤 장인이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오물과 더러움으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그토록 뛰어난 것이 나오다니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싫든 좋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디서 나옵니까? 부끄러워서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출생에서 우리를 이렇게 낮추셨지만, 그러는 동안 그분의 능력과 의와 지혜가 그만큼 더 잘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욥이 여기서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님, 주께서 내게 살과 가죽을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사람의 씨에서 나옵니까? 거기에는 더러움과 오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가죽이 있고, 살이 있고, 힘줄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온 세상을 어쩔 줄 모르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몸에 그토록 많은 기적을 모으시고 거기서 그분의 위엄의 그토록 아름답고 생생한 형상을 보여 주실 때, 우리가 “주님,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감각과 이성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말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욥은 사람의 창조에 대해 말한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생명과 은혜를 주셨고, 주의 돌보심이 내 영을 지켰습니다.” 이것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머니 배 속에서 빚으시고 그토록 뛰어난 모습을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주께서 내게 생명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생명’ 이라는 말로 영혼에 있는 힘과 능력을 뜻합니다. 몸 자체에는 아무 움직임도 없을 것이고, 그것은 죽은 것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곧 주의 작품에서 가장 높여야 할 것은 내 몸의 모습이 아닙니다. 거기서도 이미 주의 능력과 놀라운 지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보다 더하며, 그것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그 영혼도 짐승들의 생명처럼 흔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들도 느끼고 움직이며 마시고 먹고 오가는 영혼을 가지지만, 사람에게는 이런 바깥 감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과 이성과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안에 있는 정신이 그토록 많은 것을 이해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욥은 ‘생명’ 이라는 말 말고도 ‘은혜’ 를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생명이 짐승들과 함께 가진 흔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크고 소중한 존엄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계속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주의 돌보심이 내 영을 지켰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상태에 두셨다 해도, 그분이 CO 484 늘 우리 위에 손을 펴고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존속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세워진 상태에 머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분의 능력을 불어넣으시고 우리 가까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욥은 '돌보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주께서 아버지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으신다면 나는 순간마다 멸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늘 나를 바라보시고, 내 필요를 아셔서 그것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존되고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것들이 주 안에 감추어져 있고 주께서 그것을 주의 계획 안에 두고 계시지만, 나는 주께 그러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마치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이것들이 너무 높아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그것을 얼마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주께 그러하다는 것을 압니다. 곧 내가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완전한 앎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렇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내 편에서 그것을 얼마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주께서 내 안에서 주의 지혜와 선하심과 능력의 그토록 큰 보화를 보여 주셔서 내가 그것을 마땅한 만큼 높이고 기릴 수 없다고 결론짓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봅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주께서 나를 여기 감옥에 가두셔서 나는 결코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주께서 나를 빠뜨리신 고난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무 출구도 알지 못하니 나는 어쩔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 해도 주 앞에서 나를 변명하려고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판관이 자기 앞에 제출된 것을 받으려 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를 기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러면 그의 모든 반론에도 불구하고 정죄가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나도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 있다고 느끼지 않는데도, 주께서 나를 여기서 너무 무겁게 괴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룬 그 지나친 격정을 따라 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의에 나아가면,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다루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가 그것을 그의 타고난 감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든 것을 생각한 뒤에 그는 이 유혹에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컨대 이것이 여기 놓인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욥이 여기서 사람의 창조와, 사람들이 그들의 상태 속에 유지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 선언하는 것을 잘 지키고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로,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흙처럼 빚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 주셨던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가 티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야 합니다. CO 485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각자 구름 위로 높아지고 싶어 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흔히 말하듯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은 자기를 낮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 평가할 수 있도록 눈을 감고 자기를 잊어버리며, 자기가 무엇이며 자기 처지가 어떠한지 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스스로를 속이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르침을 그만큼 더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꺼이 가려 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흙과 수렁에서 가져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존엄과 덕이 있다고 자랑하러 다녀도, 마침내 그것이 진흙일 뿐이고 수렁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낮추는 데 쓰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한 그 상태

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 본성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몸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모든 것이 진흙으로 지은 건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다면, 좋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대로(사 40:6–7) 풀의 푸름과 같습니다. 우리는 꽃을 피우지만 곧 시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의 질서만 바라본다면, 죽음이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존엄을 없애 버려서 모든 것이 수렁과 진흙과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우리 눈썹을 낮추고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헛된 오만으로 부풀지 않도록 이 교훈을 자주 되새기기를 배웁시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받았으니 우리 자신을 높이지 말고 그분께 경의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영예를 가로채고 우리에게 아무 몫도 없는 것을 가로챔으로써 너무나 추한 배은망덕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확고히 정해 둡시다. 곧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꽤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너무 잘못 실천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자주 그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편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더럽혀져 있는 만큼,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을 지금보다 더 잘 생각하기를 배웁시다. 사람들이 만들어진 재료와 그들에게 주어진 형체를 바라보고 그 둘을 비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신 것에 그만큼 더 큰 빛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나 별의 실체로 빚으셨거나, 사람들이 취해진 어떤 하늘의 재료를 만드셨다면, CO 486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작이 영예롭다고 말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정도 흐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진흙을 앞에 놓으면 누가 그것을 바라봅니까?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흙을 거의 바라보려 하지도

않습니다. 옷자락 끝에 진흙 얼룩이 조금 묻어도 우리는 그만큼 더럽혀졌다고 여기고, 손에 묻으면 견디지 못하며, 얼굴에 묻으면 더욱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 진흙입니다. 우리는 옷자락이나 발뒤꿈치 끝이나 신발에만 그것이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온통 가득합니다. 우리는 안팎으로 진흙과 오물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결합시키신 그 놀라운 솜씨를 바라볼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지혜를 그만큼 더 잘, 더 분명하게 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바라보며 머리를 숙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보고 완전히 자기를 없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상태와 어떤 영예의 자리로 높이셨는지 보고 놀라움으로 사로잡혀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분이 그토록 업신여김 받고 하찮은 재료로 그들을 취하셨는데도 거기에 그토록 귀하고 높고 고귀한 그분의 은혜를 두셔서 사람들이 싫든 좋든 "여기 자신을 온전히 선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알 수밖에 없게 하셨으니, 그들은 그분께 그만큼 더 빚진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이 두 가지가 기억나게 합시다. 곧 우리를 취하신 재료, 그것은 우리에게서 모든 교만을 빼앗고 모든 높음을 벗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솜씨, 그것은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매이고 빚진 자인지 그만큼 더 잘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아, 주님,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넓혀 주신 선한 것들의 백분의 일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욥이 여기서 덧붙이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젖처럼 쏟으셨고, 나를 모아 치즈처럼 빚으셨으며, 나에게 가죽과 뼈를 입히셨습니다." 이 말투가 처음 보기에 꽤 이상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 된 일인가? 성령께는 말할 더 알맞은 것이 없

었는가? 사람의 창조가 무엇인지 더 잘 표현할 말이 없었는가?" 이것들은 하나님의 위엄에 맞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욥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유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밝힌 대로

CO 487 사람들은 싫든 좋든 낮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늘 교만 속에 높아져서, 그토록 필요한 이 생각,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두셨는가? 그분이 그분의 은혜를 거두시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떨어지면 우리는 누구일 것인가?" 하는 생각에 결코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억지로가 아니면 결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그 수렁과 진흙으로 이끌려 와야 합니다.

물론 교묘한 자들, 곧 자기 머릿속에서 매우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여기서 대꾸할 거리를 찾아서, 이 말투가 자기들이 바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철학자들에게 묻는다면, 좋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우리를 더 잘 세울 수 있는지 아셨습니다. 여기서는 교묘한 논쟁의 학교를 여는 것도, 우리를 철학자로 만드는 것도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빚졌는지 가르치고, 제가 다룬 이 두 항목으로 우리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고유한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고 우리 본성이 무엇인지 보면서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아름답고 뛰어난 솜씨로 지으셨을 때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를 알고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공부를 쏟아야 하며, 사람의 창조에 있는 원인과 이치와 방법을 자세하고 교묘하게 캐묻는 데 쏟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 감각이 거기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철학자들이 이것들을 논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창조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일하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체로 그토록 업신여김 받는 것에서 사람의 몸처럼 완전하고 뛰어난 작품을 끌어내셨다는

것은 아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은 자연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썩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참 이상한 시작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감각과 정반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운 자들도 그분의 일을 바라보면 어쩔 줄 모르게 될 것을 보여 주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동안 철학자들에게 보통 사람들과 배우지 못한 자들은 배우지 못할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고찰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학교로 부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 구원에 유익한 것을 선언하려 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인지, 어떤 재료로 빚어졌는지 알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솜씨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체를 바라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해서, 크고 작은 자도, 학자도, 무지한 자도, CO 488 단순한 사람들도 아무 핑계가 없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들을 너무 교묘하게 다루신다면, 대학자들은 자기가 공부로, 혹은 더 지혜로워서 그런 지식을 얻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일들을 많이 철학할 필요도 없고 큰 고찰도 필요 없는 뜻으로 내놓으셔서, 배우지 못한 자들이 "아, 나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다" 하고 말할 수 없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학문도 큰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자들이 가장 거친 자들도 알아야 할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만큼 더 정죄받을 것이고, 공부하지 않은 자들도 자기를 가릴 핑계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져야 할 것을 내놓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욥의 입을 통해 쓰시는 이 말투, 곧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죽과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엮으셨다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은 앞에서 한 말, 곧 사람의 씨의 재료와 우리가 사람의 몸에서 보는 것 사이에 얼마나 큰 거리가 있는지를 더 잘 표현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오물과 썩음일 뿐인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아 있는

살이 있고, 가죽이 있고, 힘줄이 있고, 뼈가 있습니다. 사람의 가죽에만 해도 어떤 솜씨가 있는지 조금 보십시오. 이방인들조차, 지극히 높은 신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사람의 손톱 하나로도 확신을 얻을 수 있으며 더 멀리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몸의 군더더기 같은 우리 손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손톱을 보면 우리는 거기서 놀라운 솜씨를 볼 것입니다. 손톱은 손을 쓸 수 있게 하고, 손을 강하게 하며, 손가락을 굽힐 줄 알게 하고, 필요한 것을 붙잡게 하는 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군더더기일 뿐인 사람의 손톱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거울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 잘 일하셔서 우리가 그분이 거기 두신 솜씨의 백분의 일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표현된 것은 이것입니다. 곧 사람들이 태어나는 씨와 사람의 몸에서 보이는 것 사이에 큰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영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께서 나를 입히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이것으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눈에 보이는 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것에 있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 말투가 무엇을 담고 있으며 "주께서 나를 입히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몸 안에 묵는 손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손님이 누구입니까?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CO 489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두신 영이라는 것을 봅니다. 몸에도 우리가 어쩔 줄 모를 만큼 뛰어난 솜씨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고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귀한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밟아야 할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투가 거칠고 투박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가장 배우지 못한 자들을 가르치려 하셨으므로),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교묘하고 날카로운 자라 해도 우리 모든 공부를 거기에 쏟도록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여전히 거기서 봅니다.

그러나 욥은 더 나아가 영혼의 뛰어남과 존엄이 무엇인지 표현합니다. 그는 "주께서 내게 생명과 은혜를 주셨고, 주의 돌보심이 내 영을 지켰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주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할 때, 그는 거기서 몸에 그토록 놀랍게 아름다운 솜씨가 있다 해도 그 안에 부어진 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만큼, 거기서 그분은 그분의 큰 선하심을 펼치셨고, 거기서 우리는 그분을 그만큼 더 경배하며 우리가 끝까지 그분께 빚진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흔한 생명보다 더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움직임만 있다 해도 그것은 이미 큰 것입니다. 짐승들을 바라보십시오. "여기 씨에서, 곧 썩음에서 나온 짐승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몸에 관해서는 짐승에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 움직임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짐승들이 먹는 것에서, 그들이 풀을 먹으면 그것이 피와 젖과 살로 바뀌고, 짐승들이 살고 나면 그들이 우리도 먹여 살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미 사람들이 동물적 생명이라고 부르는 이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뛰어난 증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그는 사람의 생명이 깨달음과 이성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 1장(4절)에서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살아나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지혜가 생명과 능력의 샘이라고 선언했을 때, 사람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하듯 그들에게 빛나는 빛도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는 '빛' 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깨달음과 이성이 있고,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사람들이 서로 간에 어떤 질서와 다스림을 가지도록 태어났고, 각자 "이것은 악하고, 이것은 선하다"라고 증언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CO 490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곧 그분은 그들을 살리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비추셔서, 그들이 판단하고 분별하며 심지어 영원한 생명까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잘 생각하면 우리는 분명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이 이성만큼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들을 듣고 그것을 자기 정신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올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지난 일들과 비교할 때 그 모든 것을 기억 속에 담아 둡니다. 그리고 누가 무엇을 읽거나 말하면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두신,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바라보기를 배웁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도 그분을 높일 이유를 충분히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덴 성에서 한 그 훌륭한 설교에서(행 17:27–28)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멀리 갈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존재하고, 살고, 움직입니다. 우리가 눈이 멀었다 해도, 가엾은 소경처럼 손으로 더듬으며 가기만 합시다.” 소경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더듬고, 그 뒤에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이 멀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각과 이성을 주셨으니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일을 더듬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욥이 놓은 말, 곧 “주님, 주의 돌보심이 내 영을 지켰습니다“라는 말도 잘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우리 창조에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태어날 때 진흙이 드러납니다. 곧 우리는 더러움과 오물로 가득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몸과 영혼에

관해 거기에 두시는 이 솜씨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순간마다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는 대로입니다(시 104:29–30). "주님, 주께서 주의 영을 부으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그 영을 거두시면 그것들이 무로 돌아가고 쇠하여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지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늘 우리 가까이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우리 영을 지키는 하나님의 이 돌보심에 관한 이 항목은 잘 따져 볼 만합니다. 특별히 영에 대해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주의 돌보심이 내 몸을 지킵니다. 내 몸이 CO 491 곧바로 썩지 않는 것은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그것을 유지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좋습니다, 그것도 큰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영혼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이 그 자체로 몸을 살리고 힘을 주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참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영혼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죽지 않는 것이 아니며, 그 생명이 마치 거기에 뿌리를 둔 것처럼 거기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에 생명의 한 방울과 한 불꽃을 두시는 한에서만 거기에 힘이 있고, 다른 방식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 구절에 관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돌보심'이라는 이 말에서 성령께서 표현하려 하신 것을 들읍시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지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려고 찾아오시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빚으셨으며 우리가 그분에게서 존재를 받았다고 잘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그들은 그분이 우리를 출발시키신 뒤에는 각자 스스로 처신하고 다스린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흐리게 하며, 사람들은 그런 악의로 기울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돌보심' 이라는 말을 그만큼 더 잘 새겨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거기 내버려 두시며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머무시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늘 그분의 능력을 불어넣으시려고 손을 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존속할 수 없으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을 다스리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하게 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무한한 선하심을 알았을 때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마땅한 찬양을 드리게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40편

욥기 10장 설교 3

CO 33:492–505

> 내 고난이 더해 가면, 주께서는 사자처럼 내게 오셔서 내게 기이하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거슬러 주의 상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분노가 내 둘레에 더해 가며, 바뀌는 무리들의 칼이 내 위에 있을 것입니다. (욥 10:16–17)

이 설교는 14절과 15절을 이어서 다루며, 여기 덧붙여진 본문을 다룹니다.

CO 492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이 두신 상태 속에 어떻게 보존하시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한 번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분이 계속하셔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세에 관해 인정해야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시며, 우리가 우리 경주를 마칠 때까지 손으로 이끄시듯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기뻐하셨으니 그분이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거기서 그분은 자연의 질서에서보다 더 큰 능력으로 일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기를 배웁시다.

더 나아가 이것을 잘 주목합시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토록 많은 선한 것을 넓혀 주셨다는 것을 느꼈는데도 여전히 너무 고뇌하여 지나친 격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이 날마다 나누어 주시는 은혜를 마땅히 묵상하지 않았을 때에는 훨씬 더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밝힌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너그러우시며 그분이 우리 위에 그분의 선하심의 어떤

부요함을 펼치시는지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누그러뜨리는 참된 처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 때, 그것은 모든 유혹을 고치는 것이어서, 우리가 거의 지옥에 있을 때에도 그분을 부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것들을 잘 알았지만, 고난이 너무 크고 무서워서 그것이 위에서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날마다 베푸시는 선한 것들을 귀히 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은망덕을 벌하실 것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는데 CO 493 큰 고난이 필요하지 않고, 작은 고통을 느끼자마자 우리가 정신을 잃을 것이라는 점을 주목합시다.

그 증거로, 욥이 덧붙이는 말로 넘어갑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 나를 가두시고 나를 벌하지 않고는 놓아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나를 쇠약함 속에 붙들어 두실 것입니다." 그는 감옥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수 있는 갑작스러운 벌과 대비합니다. 갑작스러운 벌이 그에게는 견디기 더쉬웠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에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고통이 견디기 무겁다는 것을 압니다. 큰 추위를 견디는 사람은 더위에 타기를 바라고, 더우면 극한의 추위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의 손에 너무 거센 폭력으로 짓눌려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게 하셔서 더 이상 시들지 않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마치 이미 자기 정죄를 느끼는 가엾은 죄수가 빠져나갈 수 없음을 보는데도 사람들이 그를 그대로 두고, 심지어 그의 고통을 새롭게 하여 고문대에 올리며, 날마다 새 소송을 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태에 있는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핍박하신다고, 처음부터 자기를 세상에서 거두셔야 했다고 탄식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런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실 때나 우리 인내를 단련하려 하실 때 그분의 매를 조절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너무 쓰러져서 그분의 바로잡으심 아래서 유익을 얻기는커녕 날뛰기만 하거나, 우리 안에 혼란과 반역밖에 없을 것입니다. 욥은 인내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대들려는 것처럼 큰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의 연약함이 그를 그렇게 몰아갔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의 은혜로 그를 보존하지 않으셨다면 그랬을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곧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려 하시거나 우리 인내를 시험하려 하실 때, 우리에게 그런 부드러움을 쓰셔서 우리가 무엇보다 그분의 손을 알아보고 거기서 유익을 얻게 하시며, 너무 지나친 격정에 휩쓸리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우리 육신이 우리를 휩쓸어 가도록 허락하시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저항할 것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감정에 완전히 고삐를 풀어 주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접전을 벌이는 것처럼 보여서 그분께 돌아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만큼 우리 안에 그런 혼란을 느낄 때에도 용기를 잃지 맙시다. 우리는 욥에게 일어난 일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을 부릅시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CO 494 이제 주된 말씀으로 넘어갑시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악하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요, 내가 의롭다 해도 나는 머리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내 고난을 보고 수치로 배불렀습니다." 욥은 여기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풀이한 이야기를 이어 갑니다. 그는 자기가 악하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가 의롭다면 그 위에 또 다른 의가 있어서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일이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에서 우리가 모두 정죄받은 자라고 선언하셨고 그것이 분명하지만,

거기에 이르는 사람은 백에 하나도 겨우 찾을까 말까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선이 우리를 막고 눈을 가리며, 아니 우리를 완전히 눈멀게 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지고 친숙해야 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큰 명성을 얻은 박사들의 반열과 무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지 못했고, 스스로를 속이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여 교만으로 부풀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나는 살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롬 7:9). 곧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했고 자기 공로를 즐겼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율법을 주셔서 각자 거기서 자기를 비추어 보고, 우리 안에 불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거기서 부끄러워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힘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고 심지어 흠잡을 데 없던 사람이 교만에 눈이 부셨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나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는 데 별 관심이 없고 자기 악덕에 절어 방종한 삶을 사는 자들, 혹은 왜인지도 모르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수도사들과 위선자들과 교황권의 모든 사제 무리처럼 말입니다. 그 아름다운 경건 행위들을 가진 그 남녀 신심가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어떤 자들은 음행하고, 어떤 자들은 술 취하고, 어떤 자들은 잔인함으로 가득하며, 어떤 자들은 배신과 시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를 의로운 자로 여기기를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만큼 팔 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그것에 속았으니,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위선이 사람들에게 너무 무거워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토록 오래 참으시는 것이 얼마나 인내하시는 것인지 놀라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에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이 정죄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보다 더 높고 더 낯선 의를 CO 495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너는 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할 때(마 22:37–39), 우리가 이 규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마땅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 두신 이 공동체를 기르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본성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어린아이들에게까지 흔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에서 명하신 것과 비교해 보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기는커녕 단 한 항목도 해낼 수 없고, 선을 행하려고 생각하는 데까지도 이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좋은 생각 하나도 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고후 3:5),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경험합니다. 그런 비교를 하고도 우리는 여전히 멍하니 있습니다. 누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처럼 느껴서 이렇게 말합니까? "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그분이 거기서 내 재판관이 되실 것이며, 나는 그분 앞에서 더없이 유죄라는 고백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누가 그것을 생각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죄받거나 책망받을 만한 행위를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다 해도, "탐내지 말라"는 말씀에 관해서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출 20:17).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인자나 도둑이나 음행하는 자나 모독하는 자나 그분의 말씀을 거스르는 반역자가 되는 것만 금하신 것이 아니라, 악에 동의하는 것도 금하셨습니다. 음란한 눈길 하나만 가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는 자입니다. 자기 형제를 저주하거나몰래 미워한 사람도 살인자입니다(마 5:22, 28). 남의 재물을 갖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더라도 이미 도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려는 의지만 금하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십니다. 그분은 탐심을 금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어떤 악한 욕구에 간지럽혀지고

자극받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한 대로 이것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율법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에 그토록 맑고 분명한 거울인데도 우리가 너무 둔해서 우리 자신을 보지 않는다면, 묻건대 누가 자기가 그토록의로워서 율법에 있는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기 담긴 것을 다 행할 수 없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 가르침에서 잘 유익을 얻으려면 우리가 이미 밝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CO 496 곧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 관해서는 잘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완전한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담긴 의는 완전하다고 불릴 것임을 주목합시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 관해서, 곧 그들의 능력과 분량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상응하거나 그것과 대등한 의가 아닙니다. 거기에 한참 못 미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것은 천사들에게서 더 잘 알려질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율법이 없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자신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기도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합니다(마 6:10). 거기에는 반대가 없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온전히 순종을 받으시며, 그분은 하늘에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같아지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에게는 충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피조물에게 있어야 할 만한 완전함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하나님의 의와 대등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의를 가졌습니까? 거기에는 하늘과 땅 사이만큼 먼 거리가 있습니다. 천사들의 의는 피조물에 관해서는 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위엄 앞에 나아가려 할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연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주목합시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잘 사는 확실한 규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정해진 것을 행하고 이룰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로운 자로 여겨지고 인정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가치가 있다거나 그분 앞에서 무엇을 공로로 쌓았다고 말할 만큼 의로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이것들을 행하는 자는 그것으로 살 것이다"(레 18:5)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순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요구하실 수 있고, 그러는 동안 우리는 결코 그분께 빚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가 그분께 가져가는 것을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할 나위 없이 의롭다고 여기고 흠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곧 그분의 순전한 은혜와 너그러움으로 그렇게 하도록 움직여지지 않으시면, 그분은 그것을 좋은 눈으로 바라보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이중의 의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율법에서 우리에게 드러난 의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십니다. 또 하나는 피조물의 모든 감각과 깨달음을 넘어서는 감추어진 의입니다.

그것을 따라 욥은 여기서 "내가 악하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책에 담긴 모든 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CO 497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남의 재물을 훔치거나 빼앗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기 이웃을 죽이거나 해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온 백성이 "아멘" 하고 대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신 27:15–26). 곧 우리가 모두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고 버리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시대에는 아마 율법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지만(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미 이 증언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악한 자로 드러나면,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방종한 삶을 살았다면 자기는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둘째로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의롭다 해도 나는 머리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내 고난을 보고 수치로 배불렀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보내시는 고난을 더하신다면, 그것은 그분이 사람들 위에 최고의 권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의롭다 해도 그분은 그들에게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는 엄격함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은 대들어 보아야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변론하고 이것저것 끌어와도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의로운 자로 드러나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의로운 자로 드러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참으로 이루는 완전함을 자기에게 돌리려 했다면 그는 자기를 잘못 아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말한 대로, 사람들이 자기 본성 속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 자기 의무나 그 일부라도 다하기는커녕 그들 안에서는 반역밖에 찾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롬 8:7) 우리 육신의 감정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원수 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타고난 성향을 따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며, 악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을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까지 우리는 결코 그분께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셨습니까? 그것은 어느 한 부분에서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분을 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거기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좋은 감정이 있겠지만 그것은 약할 것이고, 우리는 많은 헛걸음을 하며 절뚝거리고, 넘어지며, 자주 바른 길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의의 가장 높은 단계로 가 봅시다. 아브라함이나 CO 498 거룩한 조상들, 천사들처럼 그토록 완전하게 행한 자들을 예로 들어 봅시다. 그들이 율법을 이루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펴질 때 죄 있는 자로 드러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욥은 왜 여기서 자기가 의롭다 해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자들을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곧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 안에 악덕이 있더라도, 좋습니다, 그분은 거기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엄하게 다루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우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참아 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것을 승인하시고 좋은 것으로 여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욥은 여기서 불가능한 일을 말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셈을 합시다, 내 삶을 잘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거스르지 않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의무를 다했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고 말할 만큼 의롭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율법을 이루었다 해도 나는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여기서 내 고난을 보고, 수치로 배불렀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위에 그런 주권을 행하셔서 나는 어떻게 되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대꾸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욥은 자기 격정을 드러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좋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분의 율법이 내게 굴레가 될 뿐 아니라, 나는 그분의 뜻과, 그분이 우리 삶을 다스리도록 선과 악에 대해 주시는 증언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의보다 더 높은 의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그보다 더 높은 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분 아래 나를 낮추어야 한다.” 욥은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 율법보다 더 높은 의가 있다는 것을 거의 억지로 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는 “나는 내 고난을 보고 수치로 배불렀다. 그러므로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의를 잘 생각하는 데 힘쓰고, 그분의 모든 비밀 안에서 그것을 경배합시다.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우리 감각에 따라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의 작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컨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를 정죄하는 데에는 “하나님께는 피조물이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감각이 이를 수 없는 의가 있다“라고 말하는 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데에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보여 드린 대로 율법만으로도 충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CO 499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가질 때마다, 자기 삶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보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인정하니까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살핌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성인으로 시성했다 해도, 하늘의 재판관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율법 말고 다른 데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리저리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이나 위선으로 유혹받을

때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살핍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너무나 무서운 부끄러움을 발견하여 영원한 죽음 말고는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하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면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이라는 두 번째 항목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로운 자가 어디서 발견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의로울 때, 곧 우리가 아주 악하고 방탕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 안에 있을 모든 의는 값없고 너그러운 받아들여짐이라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어떻게 말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자비로 받아 주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분께 기쁨이 되기 때문이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하고(눅 2:25),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의로웠다고 말합니다(눅 1:6).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계명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족장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분의 값없는 선하심으로 그들을 받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목합시다. 우리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면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행위에서 의롭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시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행위는 늘 그분께 버림받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온통 추악함과 반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다스림을 받고 그 영의 은혜로 선한 행위 가운데 행할 때에도, 그가 하는 모든 선한 행위는 불완전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이 상상하듯 거기에 가치나 공로가 있기는커녕 더러움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서 나온 것을,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어도 받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CO 500 의로울 때, 곧 우리에게 어떤 의의 겉모습이 있을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하지 않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갈 3:10).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라도 이루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정죄하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한계를 넘지 않고도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에게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르면 그것은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마땅히 의무를 다했다고 해 봅시다.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상대로 변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거기서 할 말을 잃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러나 그분은 '이것들을 행하는 자는 그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것을 그분의 너그러움으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압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봅니다(눅 17:7–10). 종이 주인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을 때, 그분은 그 시대의 종들, 곧 팔고 바꿀 수 있는 노예 상태의 종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종이 주인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면, 주인이 식탁에서 일어나 "이번에는 내가 너를 섬기겠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을 섬기는 것이 종의 직분이고, 주인이 종에게 복종하거나 그에게 어떤 것이라도 빚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한 뒤에, 너희가 아직도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알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하

시는 모든 것을 행한 죽을 인생이 언젠가 있거나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가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켰다고 해 봅시다. 그래도 그는 온전한 겸손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 주님, 저는 여전히 주의 손 아래 저 자신을 맡기겠습니다. 제가 한 모든 것이 주에게서 왔고, 제게서는 선이 한 방울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주께서 저를 받아 주신다 해도, 그것은 제가 합당하거나 그것을 공로로 쌓아서가 아니라 주의 순전한 너그러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욥에게 있던 이 지나친 격정을 잘 경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지극히 높은 의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더 겸손으로 이끌리게 하려는 것이지, "내가 의롭다 해도 내 고난을 보며 나는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 곧 "이것들을 행하는 자는 그것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능숙해서 온 율법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시려고 그분의 보수를 CO 501 다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처럼 "우리 수치를 보고, 그분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을 보며,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권능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것이 지나치다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므로 감히 그것을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거기까지 휩쓸리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이유 없이 결코 그분의 백성을 괴롭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시다. 욥의 경우처럼 그분이 그들의 죄를 고려하지 않으실 때에도 그렇습니다. 욥이 악한 자로 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백 배나 더 벌하실 의로운 이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점도 그런 의도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분은 그의 인내를

시험하려 하셨고, "욥은 형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말한 사탄의 중상을 없애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를 보여주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의에 대해 말할 때, 그분이 우리를 한도 이상으로 몰아치신다고 생각하고 억지로 그분을 거슬러 일어서려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그분의 놀라운 비밀 안에서 그분을 경배하려고 말하기를 배웁시다. 그것도 그러는 동안 우리 안에 늘 이것을 확고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아, 우리는 '내가 의롭다 해도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내세워서는 안 된다. 우리는 늘 머리를 숙여야 하기 때문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그분의 보좌에 앉지 않으신다 해도, 우리 안에는 우리의 재판관이 있기 때문입니다.[111] 각자 자기를 정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가 더없이 죄 있다는 것을 느낄 그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작은 자와 큰 자 모두에게 친숙해야 할 율법에 담긴 것 말고 다른 정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한 뒤에, 자기 고통이 더해 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더해 가도 주께서는 사자처럼 내게 오셔서 나를 거슬러 기이하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욥은 앞에서처럼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밀한 심판을 다룹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그의 감각과 정신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이하신' 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우리 공상을 넘어 우리를 깨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것을 낯설게 여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자들도 온전함과 완전함에 대해 말할 때 하나님의 율법의 엄격함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이미 그것은 우리 분량을 넘어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사정이 어떠한지

111. 전자본문의 'nostre ie' 는 초판(1563년) 218쪽에서 'nostre iuge' 로 확인되어 '우리의 재판관' 으로 옮겼습니다.

알면 우리는 그렇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에 고삐를 풀어 주셔서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려고 그분의 학교에 가지 않았다면, CO 502 우리는 거기서 반쯤 짐승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빚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에게서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돌릴 때 우리는 아무것도 낯설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에 이치와 공평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그 의에 이르러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해도, 하나님의 그 의에 비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욱 낯설어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우리 모든 감각이 쓰러지며 거기서 눈이 부십니다. 욥이 "주께서 나를 거슬러 기이하게 나타나실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이해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심판에서 기이하시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낯설게 여기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이 우리 감각을 넘어서 하시는 모든 것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그것은 우리에게 심연과 같은 비밀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구원으로 이끄시려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버리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두 똑같이 찾으셔서, 아무도 자기 이웃보다 낫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나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분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다른 사람들은 버리셔서 멸망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 그분의 뜻이라는 것 말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그것을 매우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어찌 된 일인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 자신으로는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도 다른 사람보다 앞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른 자들은 그분께 버려진다니, 그것이 이치에 맞는가?"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자극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기이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이하지 않다면 우리는 늘 우리 정신이 많은 질문에 얽혀서 마침내 모독을 쏟아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변론하고 공상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반항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시므로 그분을 정죄하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대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선택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 말할 때 우리에게 기이한 일이어야 하고, 우리는 그것에 놀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도록 이끌려 이렇게 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CO 503 "아, 우리는 주의 은밀한 회의에 들어가 거기 담긴 것을 알 만큼 그토록 높은 비밀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유가 우리에게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께서 의로우시고 선하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이르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공상대로 판단하는 경솔한 무모함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모든 시대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보는 대로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논할 때 그것은 절제와 겸손으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외칩니다(롬 11:33). "주의 판단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들은 거기서 사로잡혀서 이것저것을 교묘하게 캐묻지 않고, 이렇게 압니다. "좋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부분적으로 깨닫는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드러날 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선택을 논했고, 일들을 교묘하게 캐묻느라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매우 이상하게 여겼고 그것이 그들에게 기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마

땅한 영예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의 일은 너무 높아서 거기까지 이르려고 주제넘게 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평온하게 머물렀고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들은 그들에게 기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들에게 기이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들에게 기이했던 것은 거기에 사람 깨달음의 모든 능력을 넘어서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기이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선택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으로 택하시고 그분께로 부르시며 다른 자들은 버리신 것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112]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처분하신다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으키신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미친 격정에 휘둘리는 자들을 이끄신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야망이나 탐욕으로 가득한 군주들이 피를 흘리고, 약탈하고, 빼앗아서 지옥 같은 혼란이 일어나고, 거기서 그들을 섬기러 가는 자들이 죽이고 겁탈하고 약탈하는 데 아무 양심도 거리낌도 없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들짐승과 같고, 아니 그보다 더 나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도구들을 쓰신다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다음에 우리는 교회도 시달리는 것을 봅니다. 박해가 일어납니다. 누가 그것을 일으킵니까? 그다음에 우리는 복음의 가르침이 악인들의 폭정으로 망한 것처럼 되고, 진리 대신 거짓이 다스리는 것을 봅니다. 누가 그런 혼란을 일으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CO 504 보복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보지 못할 것이고, 그분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손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낯설고, 또 우리를 낮추려면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분의

112. 놀라움에 관한 이 긍정과 부정의 반복은 초판(1563년) 219쪽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경탄과, 그것을 낯선 일로 여겨 거부하는 태도를 구별하는 문맥에 따라 옮겼습니다.

일의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이 의로운 이유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높이는 데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거슬러 기이하게 나타나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구절을 우리는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한도를 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여기서 자기가 엄청난 격정에 유혹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가 "주께서 기이하게 나타나실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는 자기 편에서 완전히 정신을 잃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선언하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과 비밀을 알아볼 때 놀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 주님, 우리가 주의 손으로 하신 일을 이상하게 여기니 우리의 약함과 투박함을 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께서는 우리가 주의 성소에 이를 때까지 조금씩 우리를 비추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기 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뜰에 있을 뿐이고 주를 멀리서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더 친밀한 앎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감각을 넘어서는 이런 비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언짢지 않게 합시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된 일인가? 우리의 모든 선과 행복은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아는 데 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맞고 어울리는 그분을 아는 방식을 주셨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빛을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 일정한 몫을 주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맞추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로 지금 하나님을 아는 이 앎을 분량대로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언짢지 않게 합시다. 그분이 우리에

게서 이 죽을 몸을 벗기시고, 우리 영혼을 온전히 새로 지으셔서, 그것이 더 이상 사람과 땅에 속한 것과, 심지어 아담의 죄에서 나온 악덕들에 이렇게 감싸여 있지 않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곧이어 자기를 밝히며, 그것이 끝이자 결론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점에서 자기를 거슬러 기이하게 나타나셨는지 선언합니다. 곧 그분이 자기의 상처를 새롭게 하시고 바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상처' 라는 말이 '증인' 이라는 뜻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유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CO 505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상처는 그들을 거슬러 세워진 증인과 같고, 하나님께서 일들을 알리시려고 하시는 그만큼의 신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욥은 여기서 상처에 대해 말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보내신 징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것이 새롭게 되어 새로운 징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가 우리 정신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낯설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의가 알려지는 것을 막는 데 이 유혹보다 우리에게 더 어려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곤경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요점이 우리 공상에 맞지 않는 채 우리 앞에 놓일 때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가 곧바로 하나님께 대꾸하러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맞고 치일 때 우리는 우리 반역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징계에서 의로우시다고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순종하게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대해 말한 뒤에 "주께서는 나를 거슬러 주의 상처를 갑절로 하십니다"라고 덧붙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오늘 다 풀 수는 없으니,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에 대한 그런 맛을 주셔서 우리가 거기 담긴 모든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뿐이라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엄격함을 쓰기를

기뻐하실 때에도, 그분의 매를 조절하셔서, 그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더라도 우리가 아버지께 가듯 그분께 달려가기를 그치지 않고, 그분이 늘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 주시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41편

욥기 10장 설교 4

CO 33:506–518

>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아무 눈도 나를 보기 전에 내가 숨이 끊어졌더라면, 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었을 것이요, 사람들이 나를 배에서 곧장 무덤으로 옮겼을 것입니다. 내 날의 몫이 곧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곧 물러나셔서 내가 숨을 돌리게 하소서. 돌아오지 못할 곳, 어두운 땅, 죽음의 그늘의 어둠으로 가기 전에, 어둠밖에 없고 짙은 어둠뿐인 어두운 땅, 무질서밖에 없고 빛이 비칠 때에도 어둠밖에 없는 곳으로 가기 전에 말입니다. (욥 10:18–22)

CO 506 어제 다룬 것, 곧 하나님의 상처가 바뀌는 것에 관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실 때 그분에게는 그렇게 하실 여러 방법이 있고, 한 종류의 바로잡음을 쓰신 뒤에는 다른 종류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한 고통에서 건지셨다고 해서 그분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실 때까지 준비합시다.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모세의 노래에 담긴 것, 곧 그분의 곳간과 보물 창고에 여러 종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신 32:34).

그런데 그러는 동안 우리는 욥이 몰려서 하나님께서 차라리 자기를 갑자기 죽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말을 확증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혹독하게 핍박하셔서 내게 어떤 숨 돌릴 틈도 없고

내가 완전히 어쩔 줄 모르니, 내가 그런 바람을 가지는 것은 이유 없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욥이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하고 말할 때, 그가 거기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비참함 이상의 삶을 산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고 빚으셨을 때 그들이 그분께 더없이 빚졌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배은망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셔서 다스리고, 그분의 피조물을 누리며, 그분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알며, 경험으로 그분을 그렇게 느끼게 하신 것이 작은 일입니까?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영예를 업신여겨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욥이 모태에서 무덤으로 옮겨졌기를, 혹은 아예 태어나지 않았기를 바랄 때 모든 면에서 변명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물론 그가 거기에 온전히 머물려고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를 CO 507 움직인 격정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교황권의 박사들은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큰 어리석음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복수나 도둑질이나 그와 비슷한 것으로 유혹받아도, 마음속으로 그것을 결정하거나 결론짓지만 않는다면 거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덕으로 돌립니다. 그것이 사람이 저항하는 싸움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세례 전에는 그것이 죄라고 고백합니다. 투르크인이나 이방인이 악을 행하도록 유혹받으면 그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로 그런 모든 잘못이 우리 안에서 지워져서, 우리가 유혹받고도 동의하지 않았을 때 죄인으로 여겨지고 잘못했다고 평가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너무나 무거운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의 교회에 속한 유대인들에게가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날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공통된 규칙이 아닙니까? 우리가 힘을 다하고 모든 감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건드려지는 악한 감정이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을 거스르는 반발이요 원수 됨이라면, 그것이 모두 죄라고 결론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을 거슬러 반역하고 그분의 계명을 어긴 것도 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 죄가 우리에게 돌려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순전한 선하심으로 우리를 받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받아 마땅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이 우리를 악으로 재촉할 때, 결정이나 결론이 없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당하게 벌하실 수 있지만 그분이 그분의 값없는 선하심으로 우리를 아끼셔서 그것이 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므로 욥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유혹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그것에 지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는 길을 벗어났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과 셈으로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을 압시다. 우리는 우리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잊으시고 묻으시니, 그분이 베푸시는 이 값없는 긍휼에 기대야 합니다.

이제 욥의 말로 넘어갑시다. 그는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 이방인들 사이에, 적어도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 사이에 흔한 속담으로 늘 돌아가게 될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결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고, CO 508 둘째로 좋은 것은 곧 없어지는 것이라는 속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여 있는 비참과 재앙을 헤아려 본 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사람들이 결코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들의 삶의 시작이 울음과 신음이 아니면 무엇인가?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느끼기 전에도 우리 안에 가엾고 소름 끼칠 만큼 많은 가난의 심연이 있다는 것을

선언한다. 그리고 나이와 함께 고통은 수와 양이 늘어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결코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고, 태어나야 한다면 곧 숨이 끊어지는 것이 그들에게 좋을 것이다. 그래서 긴 길을 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배은망덕이 없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짓누르는 끝없는 비참이 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영예를 저울에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피조물 위에 세우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아버지로 느껴지게 하시는 영예입니다. 더욱이 그분은 우리를 더 높은 곳, 곧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간 느끼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늘 생명을 향하게 하시려는 것 말고는 우리를 이 세상에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잘 알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비참과 고난을 이기기에 충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결코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이 말이 어떤 이치에 근거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배은망덕이 없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보상처럼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욥은 자기가 결코 태어나지 않았기를 바라는 데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너무 어지러워서 그의 정신이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괴로움에 그렇게 사로잡히고 몰두하여,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로 세상에 두셨으며 사람들이 초대받은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맛보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욥은 거기까지 이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정신이 고뇌에 너무 갇혀서 자기 고통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크면 우리는 늘 욥이 자기 안에 있었다고 고백하는 이 악덕에 매여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앞에 놓여도 우리는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감동시켜 우리를 기쁘게 하거나 우리 슬픔을 누그러뜨려서 우리가 숨을 돌리며 이렇게 말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의 손에 맞고 그것이 너무 무거운 짐이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지만, CO 509 다른 한편 저는 주께서 제게 그토록 선하셔서[113] 제가 주를 그토록 자비로운 아버지로 느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를 기쁘게 하고 위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곧 이 악덕이 본성상 우리 안에 뿌리박혀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고난을 누그러뜨릴 그 위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그런 혼란에 빠뜨리는 데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서, 우리 안에는 절망밖에 없고 우리가 결코 태어나지 않았기를 바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혹은 내가 어머니 배에서 무덤으로 옮겨져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었더라면." 이것은 우리가 불신자들 사이에서 쓰였다고 말한 그 속담의 둘째 부분입니다. 곧 사람들이 태어났다면 곧 이 삶에서 거두어져 없어지는 것이 그들에게 좋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피조물 위에 그런 존엄과 우월함을 주실 때 그분이 베푸시는 이 영예를 잘못 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와 상속자의 반열에 두신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가라앉히기에 충분한 헤아릴 수 없는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시는지 봅시다. 우리가 어려서 죽으면 우리에게는 깨달음도 이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배웁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빚으셨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그저 지나갈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영속하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없었던

113. 전자본문의 'osté' 는 초판(1563년) 222쪽에서 'esté' 로 확인되어 '선하셨다' 로 옮겼습니다.

것처럼 이 세상에서 거두어진다면, 우리는 그런 복,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려 하며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 길에 있는 동안 이미 그분의 사랑의 어떤 표시를 주신다는 이 앎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결코 살지 않았던 것처럼 없어졌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견딜 수 없는 배은망덕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삶을 그 자체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향하는 끝, 곧 우리가 아직 하늘에 감추어진 이 소망으로 이끌린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의 투박함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그것을 얼마간 맛보게 하시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바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쇠약함 속에 살더라도 사는 것을 참을 뿐 아니라 기뻐해야 하는지도 주목해야 합니다. 앞에서 밝힌 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기를

CO 510 그치지 않는다는 점, 가엾을 만큼 많은 부패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에서 죽음을 바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종살이에서 건지시기를 바라며 신음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죄와 모든 악을 미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거스르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가장 덕 있는 자들을 데려와도 늘 흠잡을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과 죄를 미워하면서 우리 삶을 괴로워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힌 상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토록 많은 연약함의 감옥 속에 붙들어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바라는 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으니, 이 세상에서 살며 시들어 가는 것을 늘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될 뿐 아니라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곧 자기를 이 세상에서 거두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빌 1:22–23). 그리고 그가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 7:24) 하고 말할 때에도, 그는 자기 지금 상태만 생각하면 자기가 곤고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서 건짐받기를 구할 때, 그는 인간적인 격정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떠밀려 가졌던 그 열심에서, 선에 힘쓰려는 그 시선에서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이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삶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곧 우리가 악덕 있는 자임을 알고 우리 삶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이를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치셔서 죄를 미워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하도록 강요받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미 우리 안의 악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가 그런 바로잡으심으로 우리 죄를 미워하라는 경고를 받아도, 그분이 계속 그것을 느끼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손을 거두시면 전과 같아서, 그분이 참아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행위 속에 썩어 있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두 번째 악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현세를 미워할 때, 그것은 우리가 거기서 우리 육적인 욕구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며, 그 욕구는 악하고 부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거스를 허락을 주시기를 원할 것이고, 그분과 그런 계약을 맺을 수 있다면 우리 삶이 달콤할 것이며,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것 말고는 바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사는 것을 괴로워할 때, 그것은 그들이 CO 511 바라는 것을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임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악과 그들이 저지르는 본성의 부패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할 방종을 주지 않으시고, 그들이 기우는 대로 여기서 쾌락과 즐거움 속에 그들을 두지 않으시는 것을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정죄받아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곧 우리는 결코 절도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미워할 좋은 이유가 있다 해도, 그것을 아쉬워하게 되면 그것은 넘치는 방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용한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정반대로 이끕니다. 그는 자기를 곤고하다고 부르고 자기 몸의 감옥에서 건짐받기를 구하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만족하는 데로 돌아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롬 7:25).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시지 않은 채 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악에 저항할 힘을 주실 것을,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묻혀서 자기에게 돌려지지 않을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분이나 조급함으로 자기 삶을 아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들 만큼 끓어오르는 데까지 넘쳐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그는 자기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악을 돌리지 않으신다는 것과, 자기가 사탄과 죄에게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사로잡힘 속에 두시므로 현세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 절도를 지켜서,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기를 기뻐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손 아래서 시들어 가야 합니다. 그분이 필요할 때 우리를 도우시려고 가까이 계시니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욥이 "나는 태어나지 않았기를, 혹은 어머니 배에서 무덤으로 옮겨졌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때 그는 지나친 격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결론에 머물지 않는다 해도 그는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는 말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세를 미워할 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곧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아버지다운 사랑을 느끼게 하시면서 우리를 더 나아가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중용과 절제를 지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현세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하게 나타나셔서 이미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 곧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얻으신 그 죽지 않는 영광을 약속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기를 바라지 않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조상들의 본에서 CO 512 우리에게 보여 주는 대로 "나는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리로다"(시 118:17), "나는 살아서 성전에 가서 내 하나님을 높이리라"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시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고 우리 첫 창조의 뛰어남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짐승 같은 감정으로, 여기서 편안히 지내고, 먹고 마시며, 각자 자기 기질대로 이끌리는 욕심을 채우려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안하지 않다는 것 말고는 사는 것에 다른 괴로움이 없다면, 그것은 매우 나쁜 극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죄 속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비위를 맞추지 않으시고 우리 육신이 바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이시기를 원할 것이고, 그분이 그렇게 매이려 하지 않으셔서 일들이 정반대로 되면,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찌르고 시달리게 하여 우리는 사방에 분을 던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르침을 그만큼 더 잘 주목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세에 두셔서 그것이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여기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려 하신다는 증거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현세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곧 우리가 아담 안에서 너무 부패해서 여기서 늘 사탄에게 사로잡힌 것처럼 붙들려

있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알고서 선하고 거룩한 감정을 품도록 우리 자신을 재촉하여, 괴로움 가운데서도 늘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고치실 것이며, 한번 우리에게 그분의 아버지다운 사랑을 느끼게 하시면 그분의 은혜를 점점 더 늘리시고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실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분을 품는 쪽으로 너무 기울어 있으니, 그분의 은혜를 늘 우리 기억에 잘 새겨 두도록 힘씁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유혹, 곧 우리가 결코 살지 않았기를 바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합시다.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어머니가 그들을 유산했거나, 땅이 그들을 삼켰거나, 결코 잉태되지 않았던 편이 나을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에 대해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마 26:24).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는 이 규칙을 붙잡아야 합니다. 곧 사람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너무나 귀하고 고귀한 선물이어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마다 그에게 그분의 형상을 새기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그 형상이 지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CO 513 자연의 질서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늘 위에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높이고 마땅히 인정해야 할 그 우월함의 자리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욥이 덧붙이는 말로 넘어갑시다. 그는 자기가 이렇게 배에서 무덤으로 옮겨졌다면 아무 눈도 자기를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배은망덕입니다. 이 삶은 우리 각자가 자기가 어떤 조건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는지 알기 때문에 바랄 만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바랄 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피조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서 그분의 선하심의 거울 같은 것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처음부터 죽었기를 바랄 것이고,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하는 것이니 배은망덕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정도를 벗어났는지, 그가 마땅히 지켜야 할 절도를 지키지 않았는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만큼 더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유혹이 그런 인물에게 닥쳤다면, 지금처럼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거기에 휩쓸리겠습니까?

그는 곧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서 그분의 손을 거두시고 조금 멀어지셔서, 내가 어두운 땅, 혼란밖에 없는 이 죽음의 그늘로 내려가기 전에 얼마간 숨 돌릴 틈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는 늘 욥이 하나님의 심판에 짓눌려서 휩쓸렸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입니다. 곧 그에게는 우리 각자가 느낄 몸의 고통에 대한 깨달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주된 시선은 하나님께서 마치 그에게 죽음의 전쟁을 거신 것처럼 그를 대적하신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욥을 그런 고뇌로 짓누르고 너무 시달리게 해서, 그가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인내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영적 싸움으로 이끄실 때, 그때 그분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생생하게 살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나 다른 고난을 견뎠을 때 우리는 용감한 병사이고 끝까지 시험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빚을 다 갚았으며, 용감한 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몸의 고난은 가엾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의 상대편처럼 계셔서 그를 핍박하시고 그분과 합의하거나 화해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빠지는 그 곤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가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고,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게 하며, 다른 한편 우리 양심이 CO 514 우리를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진노하신 것처럼 나타나실 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육신으로 견딜

수 있는 모든 고통보다 더 크고 더 두려운 고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영적 싸움에 대비합시다. 그리고 이 점에서 사람의 모든 덕이 쓰러질 것이며, 위에서 붙들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키시고 길을 잃었을 때 바른 길로 돌려놓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곧 삼켜질 것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런데 욥이 "그분이 내게서 조금 멀어지시기를" 하고 말할 때, 우리는 가엾은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핍박하시고 대적하신다는 생각을 가질 때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더 잘 봅니다. 우리의 모든 선과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고 그분의 능력이 결코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는 데 있지 않다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가엾은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에 그렇게 두려워할 때, 숨을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를 보지 않으시고 그분의 손을 더 이상 느끼게 하지 않으시도록 어떤 피난처를 얻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엾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그렇게 시달릴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선은 그분께 가까이 가서 도움과 구원을 구하는 것이고, 그들의 가장 큰 파멸은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노하신 모습을 보이실 때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불의의 극치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 말고는 더 좋은 피난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참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 붙들어 두시고 그분 안에는 진노와 저주밖에 없다고 느끼게 하실 때 모든 가엾은 죄인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재촉받아야 합니다. 곧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어떤 보복을 받아 마땅하든, 그분이 내미시는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늘 그분의 선하심에 의지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정당하게 진노하신다 해도, 그분이 그래도

우리를 초대하기를 그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에게 마땅한 그분의 심판의 엄격함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분이 우리에게서 손을 거두실 때까지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신다 해도 뒷걸음질 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 주의 진노를 멀리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 얼굴을 보이시면 우리는 이미 지옥에 삼켜진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유혹 가운데서 우리의 힘과 꿋꿋함이 어떨지 시험하시고 생생하게 살피려 하실 때 우리가 지지 않도록 CO

CO 515 이것에서 유익을 얻도록 힘씁시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롬 8:38–39).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곧 우리가 우리 슬픔을 조절하고 누그러뜨리시려고 그분이 우리에게 쓰시는 그분의 아버지다운 사랑을 늘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래 일을 넣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수도 양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넘치는 비참에 매여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우리 본성에 있는 재앙의 미로와 같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끈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를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께 결합시키시는 분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늘 기뻐할 것을 가지는 데 아무것도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하나님께 해야 할 간구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끝에 죽은 자들의 처지에 대해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두운 땅, 어두운 구덩이, 혼란과 무질서밖에 없는 곳, 낮이 비쳐야 할 때 밤인 곳으로 가기 전에." 욥은 여기서 영혼의 불멸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에 대해서도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러면

그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룬 대로, 그가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밖에 깨닫지 못하는 가엾은 죄인의 격정을 표현한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러나 이것은 자주 우리에게 되새겨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여기서 이 고문대로 끌려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의 재판관이시고, 그는 거기서 버림받은 사람처럼 있으며, 그에게는 은혜나 용서의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에 대해 말할 때 거기서 온통 혼란밖에 느끼지 못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죽음은 죄가 하나님의 질서를 뒤엎었던 것처럼 그 질서를 뒤엎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은 그가 죽을 존재가 되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있던 상태로 이 세상에서 늘 살지는 않았을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불멸로 바꾸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죽을 존재가 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죽을 것이 새롭게 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의 처지는 그가 세상에서 산 뒤에 하나님과 함께 그의 영원한 유업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닥쳤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곧이어 죽음을 덧붙이셨습니다. 그것도 혼란밖에 없는 죽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그 위에 있지 않고서는 그것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저주는 사람을 피조물의 수에서 잘라 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살도록 이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서 CO 516 이 생명을 빼앗으실 때 그분은 우리를 거기서 데려가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마치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집에서 쫓아내시며 더 이상 우리를 그분의 피조물의 반열에 두려 하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혼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앎밖에 가지지 않을 때, 우리는 거기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욥이 죽음에 대해 말하면서 사람들이 어두운 땅으로 가며 거

기에는 어둠과 무질서밖에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죄를 죽음과 결합시키고 하나님의 저주를 결합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뇌 속에 가두어 두시는 동안 그는 분 같은 것을 품어서, 그분의 은혜의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죽음 속에 빛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토록 어두운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없어진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므로 어떤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참된 처방입니다. 욥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분의 가혹하고 엄한 엄격함을 느끼게 하시고, 그 뒤에 그를 위로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잘 주목해야 할 구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미시는 은혜를 잘 받으려면,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 처지가 무엇인지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 생명이 무엇인지 잘 맛보기를 원합니까? 먼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인 한 무엇을 위해 태어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썩을 것이 먼저 온다"(고전 15:46)라고 말하는 것은 이유 없는 일이 아닙니다.[114] 그는 하나님께서 자연에서 지키시는 이 질서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도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더할 나위 없이 고귀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해도,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 안에 있던 이고귀함을 없애고 뒤엎은 것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손으로 빚으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우리가 일그러졌고 마귀가 우리 안에 그의 표지를 찍고 새겼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아담 위에 선포된 저주에 매여 있으므로 우리는 온 세상에서 추방당한 것과 같아서, 하늘도 땅도 우리를 가증한 자로 여기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안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14. 고린도전서 15장 46절은 통상 '육의 몸이 먼저요 신령한 몸이 나중' 이라는 순서를 말합니다. 칼빈이 의역한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에 들어가면 우리는 분명 더없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자기를 즐거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묵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이르러야 합니다. CO 517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죽음은 그보다 더 비참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죽음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으로 우리 위에 선포하신 저주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보여 주는 큰 구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또한 슬픔에 완전히 삼켜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처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비추시는 방식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보이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의의 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말 4:2).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시선을 가질 때 어떤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죽음의 그늘과 어둠 속에서 자기를 위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시 23:4). 그가 지팡이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목자로 나타나실 때 자기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말고 어디서 자신을 나타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욥이 여기서 어떤 처지에서 말하는지 압시다. 그는 사람의 본성을 그 자체로 생각하면 그들의 삶에도 죽음에도 온통 혼란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계실 때, 우리 상태가 매우 비참해 보이고 우리가 썩음과 부패에 매인 가엾은 벌레 같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을 맛보게 됩니다. 세상 창조 때 말하는 대로 그분이 어둠 가운데서 빛을 내셨고, 하나님께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셨듯이 말입니다(창 1:3; 고후 4:6). 그것을 알고서 우리는 그분이 그분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 죽음 속에서, 아니 우리 삶 속에서보다 더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를 빛나게 하셨다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옥의

심연과 구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 나라의 문을 열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추방당한 것과 같은 그 거처로 우리를 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속에서 우리를 비추셔서 거기 있는 어둠이 우리에게 캄캄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에 짓눌리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를 비추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대로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하고 우리는 거기서 가엾은 소경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복음으로 거기서 우리를 비추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타오르는 등불 같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습니다(벧후 1:19). 우리에게는 CO 518 더욱 넓은 빛, 곧 한낮 같은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삶과 우리 죽음 속에서 우리에게 충분한 빛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까지 우리는 먼저 우리를 둘러싼 무질서와 혼란이 무엇인지 느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 속에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거두시고 죽음이 우리 눈앞에 있어도, 그분이 우리 영혼을 그분의 나라에서 기쁘게 하실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부르기를 그치지 맙시다. 우리 영혼은 우리 몸 안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그분께로 거두실 때까지는 늘 어느 정도 혼란스럽고 온전한 기쁨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지 않고 그저 죽음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 욥을 이끄신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욥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 그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음 속에서 온통 혼란과 무질서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가 무덤을 바라볼 때, 그는 자기를 삼키려고 열린 지옥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런 생각을 가질 때, 그것은 그가 몸으로 견딜 수 있었던 모든 고통보다 그에게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에게 그런 유혹을 이기게 하셔서 그를 거기서 건지셨듯이, 그분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우리는 조심함 속에 행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받습니다. 곧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심판으로 셈하러 부르기를 기뻐하실 때, 그것이 우리를 엄하게, 우리가 받아 마땅한 대로 다루시려는 것이 되지 않고, 그분이 그분의 백성에게 늘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둠과 죽음의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행해야 하지만, 참된 의의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앞에 모시고 있으니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데로 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불멸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그 하늘 유업을 우리가 사모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립시다.

제42편

욥기 11장 설교 1

CO 33:519–530

>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말 많은 사람에게 대답하지 않겠는가? 수다쟁이가 자기 소송에서 이기겠는가? 그렇다, 자네의 말이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겠고, 자네가 조롱해도 아무도 자네를 부끄럽게 하지 않겠구먼. 자네는 "내 길은 바르고, 나는 주 앞에서 깨끗하다"라고 말하였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말씀하시고 자네를 거슬러 그분의 입술을 여시기를 바라네. 그분이 자네에게 지혜의 비밀을 드러내시기를 바라네. 그분의 판단은 갑절로 바르니, 하나님께서 자네의 불의 때문에 자네를 잊으셨네. (욥 11:1–6)

CO 519 이 가르침에서 잘 유익을 얻으려면 앞에서 밝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여기 담긴 말들은 그 자체로는 참되지만 욥이라는 인물에게 잘못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좋고 유익한 가르침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바른 쓰임이 무엇인지 알 분별과 판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요컨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다룰 때 우리가 우리 수다를 내세우고 헛된 수사로 우리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위엄을 알고 쓰러지고 놀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지혜를 캐묻는 것은 불가능하며, 온 세상이 그 아래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컨대 이것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잘 간직되고 실천되었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두고 세상에 이런 논쟁이 판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으려고 어떤 공로를 세우고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자들은 여기서 언급된 위엄을 알지 못하고 하찮은 잡동사니를 두고 논쟁하듯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상대하는 문제라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논쟁할 때 우리가 보는 그런 대담함은 없을 것입니다. 요컨대 사람들은 너무 얼이 빠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위엄 앞에 나아가 은혜를 얻을 수 있는지 다룰 때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CO 520 그러므로 "말 많은 사람에게 대답하지 않겠는가? 수다쟁이가 자기 소송에서 이기겠는가?" 하고 말할 때 우리는 이 가르침을 그만큼 더 잘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의 재잘거림이 꺾이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그것을 즐기고 헛되고 하찮은 수사를 가지고 있어도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온통 가난과 오물밖에 없는 곳에서 사람들을 의롭다 하고 그들을 천사로 만드는 것을 쉬운 일로 여기는 자들을 속이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이성을 따라 의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람은 책망받을 것 없이 살고, 자기 의무를 다하며, 각자에게 바르게 행해야 한다. 이것이 의다." 그러나 "사람은 가엾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육적인 감각에 들어갈 수 없는 이상한 일입니다. "어찌 된 일인가? 내가 의롭다고 여겨지는데, 그 의는 내 밖에 있다니? 내가 그것을 다른 데서 빌려 와야 한다니? 하나님께서 나를 가엾은 정죄받은 자로 아시면서도 나를 구원하신다니? 무슨 까닭인가?" 그러므로 궤변가들과 위선자들이 사람의 공로를 세우고 우리가 우리 덕으로 낙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할 때, 그것은 그럴듯한 빛깔을 띠고 세상의 대부분에게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만큼 더 굳어지고 독해집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좋게 여기고 받아들이니, 하나님께서도 그것으로 만족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동안 우리가 그럴듯한 말재주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긴 것처럼 보이도록 허락하신다 해도, 우리는 우리 소송에서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리에 나타나실 때, 오늘날 사람들이 즐기고 자랑하는 이 모든 논쟁이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말할 때, 우리는 세상이 받아들이는 그럴듯한 이유를 끌어와서는 안 되고, 각자 자기 안으로, 자기 양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해야 할 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들을 친숙한 순서로 풀어 보면 더 잘 이해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가?" 하는 질문에 이르면, 사람의 이성을 따라 곧바로 CO 521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의란 사람들의 삶이 잘 다스려져서 흠잡을 데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자기에게 명해진 것을 온전히 이룰 때를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풀이하겠지만, 이 의가 우리에게 없으므로 우리는 다른 의를 얻으려고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자기 의무를 다해야 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안 뒤에 이런 공상에 빠집니다.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그것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들이 지푸라기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면서 큰 산을 어깨에 질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려고 애쓰는 이 어리석은 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경험으로 자기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한동안 그들은 허풍을 떱니다. 더욱이 또 다른 악덕이 있습니다. 곧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자기를 의롭다 할 수 있다고 상상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들의 어리석은 경건 행위로입니다. 교황권에서 우리가 보듯이, 거룩함과 의를 얻으려 할 때 자기 삶을 하나님의 계명에 맞추는 것은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각자 머릿속에 어떤 그럴듯한 경건 행위를 품습니다. 의식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 섬김이라고 부르는 미신들이 판칠 것입니다. 날마다 미사를 듣고, 많이 중얼거리고, 금식하고, 이것저것을 하기만 하면, 그 가엾은 신심가들에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잘 의무를 다한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빚지신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동안 거기서 잠듭니다. 그러나 누가 그들에게 그것이 헛수고라고 일깨우면 그들은 독해지고 성을 냅니다. "어찌 된 일인가? 그토록 아름다운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내가 그토록 수고하고 애써서 드리는 섬김을 받으셔야 한다."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하며, 그분이 그들이 스스로를 속인 그들의 모든 하찮은 잡동사니를 받아들이고 좋게 여기지 않으시면 그분이 그들에게 큰 잘못을 하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 판치는 술 취함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침내 그들은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신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치셔서 살피실 때, 그때 그들은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아, 의식을 이렇게 많이 쌓아 올린 것은 작은 일이다. 더욱이 내가 모든 것을 했다 해도, 내 양심이 나를 책망한다. 내가 한 곳에서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다 해도 다른 많은 곳에서 실패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CO 522 자기 양심에 책망을 받으면 그 뒤에 처방을 찾습니다. "좋다, 하나님께서 나와 셈을 하려 하시면 나는 그분께 많이 빚진 자일 것을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보속을 지어냅니다. 교황권에서 누구나 살아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없다고 잘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잠들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 가엾은 신심가들에게는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지불을 가져가서 그분께 보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점에서 실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이런 방식으로 보속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만족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모든 여공(餘功)의 행위, 곧 그들이 하나님께 빚진 것보다 더 드린다는 행위가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언젠가 그런 재판관 앞에서 셈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에게 달린 모든 것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 말고 왜 수고하겠는가? 그 모든 것이 그분께 버려지고 그분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신다고 생각하는가? 더 나아가 우리가 약하고 우리 안에 악덕과 불완전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우리 죄를 갚으려고 애썼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려하셔야 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수다를 떨며 자기가 무죄 선고 이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모든 책망에 독해지고 불타오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여기서 정죄하시는 것을 봅니다. 곧 사람들이 너무 스스로를 속이고 헛된 상상 속에 잠들어서, 자기 소송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이겼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 재판석 앞에 나아갈 때 이 모든 하찮은 잡동사니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의가 가증한 것일 뿐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취 나는 것처럼 버리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아니 그것을 확고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분이 우리에게 선을 향하는 은혜를 베푸셨더라도 우리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한다 해도 그것은 너무 연약해서 우리는 넘치도록 정죄받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다룬 것, 곧 우리가 한 가지를 내세우면 하나님께는 우리를 부끄럽게 할 천 가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 관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다를 떨거나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한 빛깔을 띤 어떤 이유를 끌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각자가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환된 것처럼 우리 삶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CO

CO 523 수다가 그칠 것이고, 각자 자기를 더 가까이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완전히 부끄러워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이제 이 말을 더 잘 이해하려고 그가 덧붙이는 것으로 넘어갑시다. "자네는 '내 길은 의롭고 바르며, 나는 주 앞에서 온전하다' 라고 말하였네." 여기서 소발은 자기가 정죄하는 그 수다가 어떤 것인지 보여 줍니다. 우리가 이미 일러 둔 대로, 그가 이 말을 욥이라는 인물에게 잘못 적용하여 그에게 큰 잘못을 하고 그를 부당하게 고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 자체는 좋고 거룩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의롭다 하고 흠 없는 자로 보이려는 모든 자들은, 세상 앞에서 지혜롭다고 여겨진다 해도 헛된 수다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잘 주목해야 할 항목입니다. 적용에 이르지 않는다면 "좋다, 하나님의 비밀이 문제이고 그분의 말씀이 문제일 때에는 수다를 떨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재미로 지껄이기에는 너무 신성한 것이어서 온전한 절제와 경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작은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매우 유익한 권고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소발은 명시합니다. 곧 사람의 덕을 높여서 그들 안에 하나님 앞에서 의밖에 없다고 설득하려는 모든 자들은 아무리 그럴듯한 겉모습을 가졌어도 수다쟁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없는 것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 주며, 요컨대 그들을 부끄럽게 하여 하나님의 순전한

선하심과 긍휼 말고는 다른 피난처가 없게 하는 가르침 말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굳건하고 잘 세워진 가르침이 없다는 것을 배웁시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우리는 여기서 두 항목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경과 신앙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해 어떤 말을 하든, 절제 있게 말하기를 배우고 재미로 논쟁하려고 우리 혀에 고삐를 풀어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절제를 경계합시다. 이 악덕이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비틀어 거짓으로 바꾸는 원인이 된 것을 우리가 보는 대로입니다. 그 증거로, 교황권에서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대놓고 조롱하는 세속적인 방식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거기서는 공을 가지고 놀듯이 지껄이는 것이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황주의자들이 성경은 자기들에게 밀랍 코와 같다는 속담을 쓸 때 그들은 참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것을 그들의 책에 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붙잡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믿음의 확실성을 갖지 못하며 사람들이 정한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려 할 때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성경은 CO 524 밀랍 코가 아닌가?" 그들이 그것을 이리저리 비틀어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대놓고 조롱함으로써 자기들에게는 그것을 밀랍 코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드러내셨을 때, 그것은 각자 자기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우리 양심을 잘 살피며, 성경에 담긴 모든 것을 우리 쓰임과 가르침에 적용하게 하려는 것이었음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호기심을 먹이려 하지 않으셨고, 우리 귀를 간지럽히려 하지 않으셨으며, 마땅히 우리 영혼을 세우려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항목을 간직합시다. 곧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온전한 경외와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기서

하는 말로 갑시다. 곧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고 의롭게 만들려고 그들을 높이려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도 수다쟁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공로를 인정하려고 주제넘음으로 부푼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무엇이신지, 우리가 그분의 심판에 얼마나 빚진 자인지 알도록 진정으로 깨어난 적이 결코 없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이라도 자기 양심을 잘 살핀 사람은 누구든지 입을 다물어야 하고, 온 인류가 부끄러움을 당하며 우리에게 온통 저주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교황권의 모든 박사들이 완전히 짐승 같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며, 그분의 의를 업신여기는 자들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자유의지를 높이고, 사람의 덕을 높이며, 우리가 이것저것을 공로로 쌓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도 우리 선행으로 여전히 용서를 얻을 수 있다고 믿게 하는 데 얼마나 대담한지 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니,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요 짖는 개들이며 결코 한 번도 가책이나 양심의 거리낌을 가져 본 적이 없고 마귀가 그들을 눈멀게 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에는 여기 놓인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떤 느낌과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분명 하찮은 잡동사니일 뿐인 자기 공로를 높이려고 그렇게 수다를 떨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다른 더 좋은 학교에 가기를 배웁시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끝에 말하는 대로 우리는 우리를 완전히 삼켜 버릴 대답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리를 날카롭게 갈아서 우리 의를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다는 이 헛된 생각, 아니 차라리 광기로 부풀어 있다 해도, 마침내 그분은 우리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CO 525 그것도 우리가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한 채 남도록 대답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로 "수다쟁이가 자기 소송

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서 속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풀이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는 자는 헛된 수다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그는 결코 생생하게 감동받은 적이 없고, 그의 양심은 잠들어 있으며, 그는 선을 행하는 것과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실체 대신 그림자를 붙잡으며, 요컨대 하나님께서 그의 재판관이 되실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흔히 속담으로 말하듯 사람들은 주인 없이 셈을 합니다.

이제 소발이 덧붙이는 말로 넘어갑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자네를 거슬러 말씀하시고 그분의 입을 여시기를 바라네."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한 채 남도록 반박받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을 여실 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로 논쟁하는 동안에는, 좋습니다, 각자 자기가 좋은 사건을 가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자마자 우리는 대꾸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굳건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흘러가 버려야 하며, 우리의 모든 말은 거품일 뿐일 것입니다. 큰 거품이 일겠지만, 그것은 흘러가고 곧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 점에서 그들을 완전히 벙어리로 만드셔야 한다는 이 구절을 잘 따져 봅시다. 곧 그들이 더 이상 자기 공상에서 나온 아무것도 감히 내세우지 않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를 낮추어야 할 것을 충분히 선포하셨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정죄받고 그들이 모두 아담 안에서 어떻게 저주받았는지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너무 가증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싫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실 때, 각자 개별적으로 자기를 더없이 치욕스러운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에게 분을 품고 자기 삶을 혐오한다 해도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악의 백분의 일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온 인류를 너무 큰 치욕에 두어서, 우리가 그 구절을 읽을 때 머리털이 곤두서야 할 정도인 것을 봅니다. 곧 우리가 거기서 온갖 악으로 정죄받았고, 각자 실제로 죄가 있지는 않더라도 우리 안에 그 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롬 3:10–1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위에 정죄의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완전히벙어리가 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너무 오만해서 성경이 CO 526 그들을 부끄럽게 해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 하려고 생각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는 대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교황주의자들과 가진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곧 우리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교황주의자들은 그들의 자유의지와 공로와 보속밖에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사람은 모든 의를 잃고 자기 안에 온통 저주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에 피해야 하며, 자기 안에 없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에 관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것에 관해 성경에 담긴 모든 것도 여전히 우리를 꺾을 수 없고 우리 육신의 그 오만과 주제넘음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곧 그분이 성경에 담긴 것을 경험으로 우리에게 느끼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눈을 감기고 닫아 두는 위선의 눈가리개를 우리에게서 벗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고, 모두 악에 빠졌으며, 모두 자기 죄와 부패 속에 악취 나고 더럽다는 것을 읽을 때, 그다음에 사람들에게는 헛됨밖에 없고, 그들의 모든 지혜는 어리석음일 뿐이며, 그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은 악일 뿐이고 하나님과 모든 정의를 향한 원수됨일 뿐이라는 것을 들을 때, "아, 그것은 악인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나는 그 수에 들지 않는다" 하고 각자 자기를 제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 방울만 있어도 그것을 넓고 길게 늘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눈가리개를 벗기셔야 합니다. 곧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이며 무엇인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갖지 않고, 성경에 담긴 이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해당하고 속한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 부끄러움을 알도록 치명적인 상처처럼 그것에 찔려야 합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가 무엇인지, 곧 우리가 어떻게 의롭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알고자 할 때, 사람들에게 좋아 보일 것, 그들의 이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피조물이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캐묻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살핍시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 곧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업신여길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싫든 좋든 CO 527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에게 권위를 가져야 하고, 각자 거기에 복종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거기서 잠잠히 있으며 늘 하던 대꾸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벗어 버려야 할 이 위선이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무서워야 하고 우리가 그것에 놀라야 한다는 것도 살핍시다. 그러므로 그분이 두려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뒤에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얼마간 맛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그분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이 항목에 관해 많은 논쟁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의롭다 함을 받을 것인가?" 하고 호기심으로 캐묻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온통 악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더 높아지려는 자는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자기 안에 온통 저주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말입니다(사 1:6).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며 행할 준비가 온전히 되어 있음을 발견하신다 해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늘 불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우리가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있고, 어쨌든 우리 안에 늘 무엇인가가 있으며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를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셔서 우리 안에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것을 더 이상 아무것도 막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으로 부풀어 있다면 우리는 아무 식욕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람으로 가득 찬 위장 같아서, 너무 상해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모든 주제넘음을 비우면, 우리는 굶주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자람을 채워 주시기만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모든 자들, 곧 먼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을 찾고, 그다음에 그것을 자기 가르침에 적용하는 데 힘쓰며, 이 글이 자기를 향한 것임을 안 모든 자들은 이 가르침에 쉽게 동의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의 말고는 아무 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요, 저주받고, 멸망하고, 정죄받은 자로 발견하셔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속과 구원을 위해 그분의 피를 흘리셨을 때 그 값이 치러졌으므로 그분이 우리를 그 부끄러움에서 속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CO

CO 528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신 순종이 우리에게 인정될 때, 그것은 마치 우리가 율법을 이룬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롬

5:19).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르침에서 이렇게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도 사람들이 자만하며 취하는 그 어리석은 높음을 낮추고 벗어 버리려고 듣기 전에는, 아무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소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네를 거슬러 그분의 입술을 여시기를" 하고 말할 때 이해한 것이 이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여시기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식 말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하게 말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어떤 이야기를 다룰 때 지나가며 한마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풀어내서 결론을 짓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잘 따져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반쯤만 듣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은 들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리 무게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모든 것을 간직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에서 확실한 결론을 얻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한쪽 귀를 빌려 드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 가운데 몇 마디를 들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든 면에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입술을 여셨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수다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곧 우리는 우리 의를 높일 대담함을 주는 그 헛된 자만을 더 이상 갖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부끄러움을 당한 채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비밀을 드러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욥이 갑절로 벌받을 수 있었다는 것, 다시 말해 그에게 갑절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 때문에 그를 잊으셨다는 것, 혹은 그분이 그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때로 '요

구하다’ , 셈과 잔액을 청구하다는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것들을 셈에 넣으셔서 그것이 갑절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같은 뜻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전에 욥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지혜를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 죄와 우리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에 대해 우리가 가진 앎이 우리의 모든 능력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지혜이며, 위에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이 욥에게 잘못 적용된다고 일러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자기 감각으로 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욥은 그것을 아주 잘 CO 529 풀어냈고, 우리가 보여 드린 대로 그는 자기 사건을 잘못 풀어 나갔지만 좋은 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줄기를 따라야 합니다. 곧 이 가르침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서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곧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의 의에 대해 보여 주는 것은 사람들이 이를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황주의자들은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늘 자기 공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방 철학자들이 그랬듯이 의가 무엇인지 압니다. 이방 철학자에게 “의란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그는 “모든 덕을 따라 잘 다스려진 삶이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교황권의 신학자들도 그렇게 논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 자체로 참되다고 잘 말합니다. 그러나 더 멀리, 곧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거기서 한 방울도 찾을 수 없는 다른 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의를 가져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으로는 우리를 정죄하신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자비로 받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분께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순종

이 우리에게 돌려지므로 우리가 그분께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사람들의 머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교묘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것을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자기 덕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를 드러내셔야 한다고 말하니,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감각으로 상상하고 자기 좋을 대로 판단하려 하는 동안에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이 무엇인지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수다만 떨 것이며, 그럴듯한 빛깔을 끌어와도 그 모든 것은 연기일 뿐일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드러내시며,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없고 가증한 자로 완전히 버림받았으며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CO 530 나아가는 것 말고는 그분께 나아갈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함을 받는지 아는 것은 헤아릴 수 없고 사람의 이성에 감추어진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언하실 때까지 우리는 늘 수다, 곧 우리를 움직이고 유혹하는 이 헛된 주제넘음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 지혜를 드러내셔서, 우리가 우리 한계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요컨대 이것이 여기서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덕이 무엇인가 가치가 있어야 하고 우리 공로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이런 어리석은 주제넘음을 가질 때마다, 여기서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으로 돌아가기를 배웁시다. 곧 그분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그런 앎에 이르기는커녕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피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든 느낌과 깨달음을 없애려고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발이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이 보내신 전령이나 사자처럼 우리를 그분의 재판석 앞에 소환하며 말하는 이 엄격함을 그만큼 더 잘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쓰려 하신다면 그 엄격함이 어떠한지, 곧 견딜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느끼고 우리 자신을 낮추기를 배워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오기만을 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참된 회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 때문에 신음하며, 그분의 심판에 대한 이 깨달음에 너무 찔려서 그분이 우리를 자비로 받아 주시기만을 구하며 거기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받아 주시되, 우리 지난 잘못을 용서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바로잡으셔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며 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그것은 우리 공로와 행위로 그분께 갚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가 늘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고 구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43편

욥기 11장 설교 2

CO 33:531–543

> 자네가 찾는다고 하나님을 찾아내겠는가? 전능자의 온전한 완전함을 찾아내겠는가? 그것은 하늘의 높이를 넘어서니 자네가 무엇을 하겠는가? 그것은 심연보다 깊으니 자네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겠는가? 그 크기는 땅보다 넓고, 그 너비는 바다보다 크네. 그분이 움직이셔서 가두시거나 내보내신다면 누가 그분을 막겠는가? 그분은 헛된 사람들을 아시고, 아무 가치 없는 자들을 보시는데, 텅 빈 사람이 마음을 얻고 사람이 들나귀 새끼처럼 태어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시겠는가? (욥 11:7–12)

CO 531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그토록 강조하셔서 우리가 거기에 힘쓸 기회를 더 많이 갖게 하십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다면 그분께 대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분이 그래도 우리를 아끼셨고 정당하게 우리에게 더 큰 엄격함을 행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분께 응답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죄가 그분을 우리에게서 떨어지게 했고 우리가 더 이상 그분께 응답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며, 우리 불의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잊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대로(시 18:41)[115] 악인들은 그분께 의지하려고 생각할 때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실제로 그들은 진실로 그분께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115. 원문에는 시편 18편 42절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1절로 세는 프랑스어 성경의 절수이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에게 응답하신다 해도 그렇게 곧바로는 아니며, 적어도 그것을 곧바로 느끼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들이 낮아지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이 항목을 풀이한 뒤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캐물으려 한다면 헛수고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늘을 넘어서고, 심연보다 깊으며, 그 크기가 모든 곳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분량을 봅시다. 여기 온 땅을 넘어서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숨기는 데에는 여섯 자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자기 공상 속에 바다보다 더 많은 것을 담으려 하지만, 그러는 동안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늘을 넘어서려 하지만, 어떻게 거기에 이르겠습니까? 그는 심연을 살피려 하지만, 그렇게 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정신이 하늘 위로 날 수 있어서 그것에 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 봅시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CO 532 심연에도 하늘에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들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이유를 알려고 할 때 우리의 주제넘음이 어리석다는 것을 압시다. 요컨대 이것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지혜' 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뜻한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혜의 작은 부분은 맛볼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을 바라볼 때처럼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선언하십니다. 풀잎 하나만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떻게, 어떤 솜씨로 일하셨는지 볼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지혜의 참된 거울입니다. 하물며 더 크고 더 정교한 일들에 이르면, 우리가 그것을 얼마간 맛본다면 하나님의 이 지혜가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여기서는 완전함에 대해 말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모든 것을 하시는지 알려 하거나,

그분이 어떤 목적을 노리시며 어떤 원인에 움직이시는지 보려 하면 우리는 완전히 어쩔 줄 모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는 우리 정신과 깨달음이 투박하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경계를 넘지 않고 고삐 풀린 말처럼 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의 오만과 교만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또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연약함에 자신을 맞추셔서, 우리에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을 적어도 우리가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깨닫고 온전히 맛보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만큼 그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잘 지켜야 할 두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에 관해서 저는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투박하고 정신이 약한지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허락하시는 것보다 더 깊이 그분의 일을 캐물으려고 주제넘게 굴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분이 원하시고 허락하시는 것보다 더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아주 배제하지 않으시지만, 거기에는 절도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살핍시다. 각자 자기 능력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교묘하고 날카로 우며 우리 본성이 늘 우리를 재촉하는 이 대담함에 빠져 있는지 봅시다.

CO 533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그분께 셈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데 누가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분하셨으니 그분의 기뻐하심이 그러하다. 우리는 그분을 상대로 따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그러나 왜 그분은 다르게 하지 않으시는가? 여기서 이런 악이 생길 것이고,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과 정반대로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왜 이것이나 저것을 하시는

지 우리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에게 내세울 것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이 가지신 가장 큰 비밀에까지 들어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정신이 이 점에서 얼마나 간지럼을 타는지 봅니다. 어떤 자들은 다른 자들보다 더 들썩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가장 큰 자부터 가장 작은 자까지 우리 모두가 물든 공통의 악덕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곧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을 넘어서고, 심연보다 깊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 머리에 담으려 해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 분량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금보다 백 배 더 많은 깨달음을 가졌다 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의 백분의 일에도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 지혜는 무한한 심연이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짧은 고삐에 우리를 매어 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이상을 캐물으려고 우리 공상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그만큼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 앞에 와야 합니다. "가엾은 피조물아, 어디로 가느냐? 너는 결코 빠져나오지 못할 심연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권고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맞추시고, 그분이 왜 이것이나 저것을 하시는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이로운 만큼 그분의 일을 선언하실 때 그분이 베푸시는 이 은혜에 관해 밝힌 것도 간직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맞추시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할 의무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무슨 의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그렇게 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토록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요 15:15).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보인 친밀함

때문에 너희는 내 친구다.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 위임받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친밀하게 알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친밀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크고 특별한 증거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려 그렇게 하게 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캐묻기를 배웁시다.

CO 534 그런데 이것은 잘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늘 어떤 극단으로 기우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사람의 정신에는 그런 오만이 있어서 모든 것을 알고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 하며, 우리 각자가 이 악덕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지혜로워서는 안 되며 그분이 보여 주시는 것을 절제 있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악덕을 삼간다고 생각하면서 반대로 다른 극단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눈을 감아야 하고 아무것도 캐물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용과 아무것도 아닌 것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일부러 짐승처럼 되어 그분이 보여 주시는 이 빛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꺼지라고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기뻐하시는 만큼 알기를 배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할 분별과 판단력을 주실 능력이 있으시며, 우리는 거기서 실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입을 다무실 때에는 우리 감각도 닫혀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로잡아 두어야 하며, "나는 이것을 알고 싶다, 저것을 알고 싶다" 하고 말할 방종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보여 주신 것 이상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악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만큼 더 지켜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유익한 것을 보여 주실 때 그분이 베푸시는 이 은혜와 특권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캐물어서는 안 된다는 흔한 속담을 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 주시는 만큼이 아니라면 캐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놀라운비밀이라고 부르며 천사들조차 그것에 놀라움으로 사로잡혀 경배한다고 말하는 복음이 있습니다(엡 3:9–10). 그런데도 그것은 우리에게 쉬운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분의 뜻을 표현하시고, 흔히 말하듯 음식을 씹어 주셔서 삼키는 일만 남게 하시며, 우리의 투박함에 낮아지시고 넘치도록 친밀하게 자신을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그 자체로 천사들도 이해하지 못하니 우리가 결코 이를 수 없을 만큼 높은 지혜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말하는 대로 투박하고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도 알려져야 할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에게 자신을 맞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가 이르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는 다른 비밀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CO 535 우리에게 알려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고전 13:9, 12). 곧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것도 희미하게 안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그분의 형상과 영광으로 온전히 변화될 때 완전하게 드러날 것을 얼마간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의 작은 능력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죽을 삶 동안 우리에게 감추어 두시려는 그분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분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을 어떻게 하시기로 정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유업에서 그분의 자녀로 택하시고 입양하셨다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자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지 알려고 하늘의 장부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선택의 좋은 사본을 주셨다는 것으로 그들에게 충분하며, 그들은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분의 지체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분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택함받은 자들의 무리를 알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들이 누구인지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이나 저것을 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섭리와 온 세상에서 보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거기서 어쩔 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밀한 계획은 우리에게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감추어진 비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겸손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요컨대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단순하게 따르고 더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참된 지혜는 두 가지에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과, 그분의 말씀에 담긴 것을 반대 없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아래 자신을 낮추게 하는 권위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워지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이 보여 주시는 것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에 담긴 것 이상을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지혜로워지려 할 때 그들은 완전히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에게 일어난 일을 봅니다. 그가 온전함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때, 그에게는 오늘날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고귀한 처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너무 흐려져서 더 이상 빛이 없고 거의 어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그것으로 만족하려 하지 않고 더 높은 완전함을 가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너무 추한 수렁으로 떨어져서 이제 우리는 우리

처지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묻건대, CO

CO 536 우리가 아담이 유혹받았던 그 높음을 향하고, 우리가 떨어진, 아니 굴러 떨어진 이 가난함이 우리를 낮출 수 없다면, 우리는 갑절로 벌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 이상을 알기를 바라지 않기를 배웁시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성경에 담긴 비밀을 캐묻기를 그치지 맙시다. 그리고 교황주의자들처럼 하지 맙시다.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이 모두에게 이해될 수 없고 많은 오류와 이단에 얽힐 큰 위험이 있으므로 아무것도 알기를 삼간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은 욕구에 휩쓸려서, 감싸인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교회가 붙잡는 것을 단순히 믿는 겸손을 가지지 않았을 때 세상에 모든 혼란이 생긴 것이 바로 거기서라는 것입니다. 처음 보기에 그것이 얼마간 그럴듯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하나님을 거스르는 저주받을 모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율법과 복음에 있는 가르침이 우리 정신이 이를 수 없을 만큼 높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헛되이 선포하지 않으셨고, 복음을 모든 피조물에게, 가장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까지 전하라고 헛되이 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거기서 너무나 다정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셔서, 거기서 보여 주는 것을 친밀하게 알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배은망덕하지 말고, 그분이 병바닥에서 말씀하시듯 말씀하셨다고 그분을 고발하지 맙시다. 그분은 그분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사 45:19)[116] 그분이 우리를 헛되이 그분께로 초대하지 않으시고, 은밀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며, 높고 분명하게 울리는 그분의 음성이 모두에게 들려야 하고 우리가 모두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공부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감각을 쏟읍시다. 그러면 우리 수고는 헛되지 않을

116. 원문에는 이사야 40장 19절로 되어 있으나, 내용상 이사야 45장 19절에 해당하므로 바로잡았습니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늘 제가 말씀드린 이 절제를 가집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있는 이 어리석고 무모한 호기심을 바로잡으려고, 그들이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 보여 줍니다(엡 3:18). 곧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것이 필요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난 이 은혜를 부지런히 캐묻기만 하면 됩니다. 곧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폭정에서 건짐받았고 죄와 죽음의 종살이에서 풀려났는지, 우리가 본성상 완전히 정죄받은 자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가엾은 죄인이었는데 이제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고 그분이 우리를 받아 주시며 CO 537 우리가 그분께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아 우리 육신의 욕심과 싸우는지, 마귀가 순간마다 우리를 망치려고 꾀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손과 보호 아래 지켜져서 그를 물리칠 수 있는지를 캐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목자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지키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그분의 손에 맡기신 모든 것 가운데 아무것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요 10:28–29). 그러므로 이것들을 압시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지,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그분을 부르는 것이 허락된다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께 나아가게 하는 중보자를 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말씀 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의심 없이응답받는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안다면 우리 시간을 잘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우리의 높이요, 우리의 깊이요, 우리의 너비라고 덧붙입니다. 그는 요컨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드러나고 베풀어진 은혜를 잘 알 때 이렇게 완전하게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이 지혜가 그 자체로 무엇인지 알려고

그렇게 높이 올라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시다. 그것은 깊은 심연이니누가 거기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덕이 거기서 쓰러질 것을 압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간직합시다. 곧 우리가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갈 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선하심을 아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알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높이와 너비와 길이와 모든 방향으로 펼쳐지는 모든 지혜의 완전함을 가지게 될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이 말로 사도 바울은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아주 높이 올라가고 아주 낮게 내려 가며 이리저리 가려는 호기심 많은 정신들을 조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거기에는 헛됨밖에 없고, 그들이 가벼울수록 확신과 굳건함은 그만큼 적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찮은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을 조롱하며, 그러는 동안 그들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간직하는 데 힘쓴다면, 그때 성경에서 그들에게 단순하게 보여 주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배울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모세도 율법을 선포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신 30:12–14). “더 이상 ‘누가 구름 위로 올라가겠는가? 누가 바다를 건너겠는가? 누가 심연으로 내려가겠는가?’ 하고 묻지 말라. 말씀이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가르침에 적용하는데(롬 10:6–8), CO 538 그것은 이유 없는 일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너무모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옛 조상들이 부분적으로만 가졌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 입과 마음에 두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조금 맛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욕구에 만족을 모르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사람들의 욕심은 모든 일에서 깊은 구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캐묻는

일에 관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구렁이 거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 위엄을 삼키려 하고, 그분의 온 영광을 한 덩어리로 꾸려서 그분이 아무것도 남겨 두지 않으시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자들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구절을 잘 간직하고, 평생 거기에 우리 공부를 쏟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점점 더 진보합시다. 그분이 한번 우리를 그분의 몸에 접붙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완전히채워질 때까지 날마다 그 은혜를 늘려 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 관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두시려 하면, 놓아주시려 하면, 모든 것을 움직여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려 하면, 누가 그분을 막겠는가? 누가 그분의 뜻을 돌이킬 수 있겠는가? 누가 그분의 기뻐하심을 거스르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지나치게, 한도를 넘어 캐물어서는 안 되고 그분이 허락과 자유를 주시는 만큼만 캐물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 뒤에, 여기서 이 앎이 우리에게 선언됩니다. 곧 우리가 그분을 붙들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이 하실 일을 원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왜인지 모르고 그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감추시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것을 좋게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시기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일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셔야 하고, 우리도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일을 온전히 선언하신다면, 누가 우리 오만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정신이 너무 약해서 우리가 어둠이나 구름에 싸여 있고 우리 감각이 석 자도 뻗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너무 높아지기를 그치지 않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짧은 고삐에 매어 두지 않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영예를 드리겠

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동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교만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CO 53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셔서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처음에 그것들을 이상하게 여겨 "이것은 다르게 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러하니, 나는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 사람들이 그런 이치에 이를 때 그들은 많이 진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왜 이것이나 저것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 주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움직이고 가두고 죄어 둔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바꾸신다 해도, 우리는 반대로 나서서 그분을 상대로 변론하거나 무엇을 내세우려고 주제넘게 굴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대로의 자연 질서를 볼 때 우리가 이미 그분을 잘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셔서 우리가 큰 극장에 있는 것처럼 그분의 일을 바라보고, 그분이 놀라운 방식으로 지혜롭고 의롭고 강하게 나타나신다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온전한 경외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가르침을 받을 뿐 아니라, 그들의 감각과 깨달음을 넘어 사로잡혀서 다윗과 함께(시 104:24) 그분의 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지혜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외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보이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단련하시려는 이 모든 질서를 바꾸신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그분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말하기를 배웁시다. "그렇다. 그러나 가엾은 피조물아, 너는 누구냐?"

묻건대, 사람이 많은 것을 이해하고 깨달았지만 자기를 알지 못한다면 그를 지혜롭다고 하겠습니까? 사람이 학문에 공부를 쏟았고 일에도 단련되어 남에게 좋은 조언을 할 수 있는데, 자기와 관련된 일, 자기 자신에 관한 일에서는 완전히 어리석고 정신 나간 사람 같다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머리가 없다. 그가 남을 위해서는 감각과 기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 분별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 공상에 가두려는 자들도 그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곧 그들은 자기를 잘못 압니다.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잘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가 더할 나위 없이 투박하고 약하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져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CO 540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 깨달음으로 재려 할 때 휩쓸린 것처럼 되어 이성도 기억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르침을 그만큼 더 잘 주목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가두시든, 놓아주시든, 모든 것을 바꾸시든,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대로 그분의 권능을 경배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하고, 그분이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모든 일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께 허락되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피조물을 쓰실 수 있는 것은 매우 마땅합니다. 주께서는 하늘을 내리시고 땅을 높이 올리실 수 있습니다. 요컨대 주께서 주의 기뻐하심대로 주의 피조물을 다루실 때 주께서는 주의 권리를 넘지 않으시고 남의 것을 가로채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이 주께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우리는 교황권의 박사들이 부르는 대로 하나님께 절대 권력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가증하고 마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절대 권력으로 천사들

에게 벼락을 치시고 그들을 정죄하실 수 있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 절대 권력을 불의하고 폭군 같은 권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폭군 같다고 상상하지 않도록 잘 조심합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공평과 정의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그분에게는 우리에게 감추어진 그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우리 정신과 모든 감각이 거기까지 이를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를 바꾸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기를 기뻐하실 때 죽을 인생들이 그분의 권능에 맞서고 그분의 의를 고발하려고 그분을 거슬러 일어서는 것이 그들의 일이 아니라면, 묻건대 우리가 보는 그토록 아름답고 흠잡을 데 없는 이 배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배은망덕하고 비뚤어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해가 심연으로 떨어지고, 땅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된다고 해 봅시다. 그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서 놀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매우 낯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께서 이것이 좋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때까지 우리를 굴레에 매어 두소서."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우리가 싫든 좋든 어떤 피조물도 이를 수 없는 솜씨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배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CO 541 우리가 온전한 겸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117] 우리 정신은 악함 이상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자연 질서에서 우리는 어떤 혼란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랄 만한 대로 일들을 처분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뒤집혀야 할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죄에서

117. 전자본문에는 문단 경계에서 부정어가 빠져 있으나, 초판(1563년) 236쪽의 'quand nous ne pourrons glorifiier Dieu' 에 따라 보완하였습니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하신 것이 계속되지 않고 우리가 많은 혼란스러운 뒤섞임을 만드는 원인은 우리입니다. 어쨌든 그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관이시라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 그분이 자연의 질서를 그렇게 뒤섞으셔도 늘 우리에게 그분의 선하심과 아버지다운 사랑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이 우리 죄의 크기와 엄청남을 이긴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만큼 더 겸손으로 이끌려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헛된 사람들, 아무 가치 없는 사람들을 아신다. 그러니 들나귀 새끼처럼 태어난 사람이 자기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그분의 권능과 대등하고 같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그분이 어찌 깨닫지 못하시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들은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하늘 위까지 펼쳐지고 심연보다 깊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지나치게 캐물으려고 주제넘게 굴 때 그들은 자기가 삼켜진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지 살피려고 자기 호기심에 고삐를 풀어 주려 한다면, 그분은 그들에게 피조물이 그분이 무엇을 하시든 그분을 거슬러 일어서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일반적인 가르침을 여기서 하는 이야기에 적용하는 선언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분 편에서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을 아신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셈에 부르려고 일어설 이유가 있을 만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출생이 어떠한지 조금 봅시다. 사람들은 들나귀 새끼와 같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 말고는 그들에게 아무 감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헛된 사람들과 아무 가치 없는 자들을 아신다고 말하는 것은 이유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감각에 따라,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우리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않기를 배우게 하

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 평가할 때 그것은 자기 공상에 따른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저것을 스스로 믿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판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판결하신 대로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 알기에 적합한 재판관이시며 그것에 대해 말할 권위를 가지신 분은 그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견해대로 자기를 높이 평가할 때 그들이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CO 542 미친 사람이 자기를 어느 나라의왕이라고 부르는데 모두가 그를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갑절로 미친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온통 헛됨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인지, 자기 처지가 어떠한지, 요컨대 자기가 무엇의가치가 있는지 알려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것을 간직합시다. "주님, 주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짧고 확정된 대답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는 말을 봅니다(고전 3:19). 곧 사람들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별에는 어리석음밖에 없고, 그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할수록 그만큼 더 얼이 빠지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헛됨을 조롱하시고, 그들이 아주 높이 이르렀다고 생각할 때 그분은 그들에게서 멀어지시며 그들은 자기 이야기 속에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무엇인지 진실로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압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보기에는 이것이 흔한 말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헛된 사람들을 잘 아신다"라고 고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는 이 말이 담고 있는 실속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터져서 자기가

헛됨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어떤 자인지 느끼게 하셔야 그들이 자신을 낮추기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첫째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있습니다. 곧 텅 빈 사람이 마음을 얻을 것이며, 그는 들나귀 새끼와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정신이 우리 본성 밖에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 주려고 우리출생으로 다시 이끌려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능력을 봅시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 그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옵니까? 어떤 철학자들이 우리가 가진 깨달음은 기억일 뿐이며 우리가 이전에 감추어진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었음이 틀림없다고 상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가장 가엾은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봅니다. 어디를 보아도 사람들이 세상에 올 때만큼 그토록 짐승 같고 이성과 깨달음이 없는 짐승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자체로 들나귀 새끼와 같습니다. 그가 원하는 만큼 자기를 높이 평가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실상이 어떠한지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라서 어떻게 깨달음의 정신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텅 빈 사람이 마음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마음' 이라는 말은 깨달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118]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감각과 이성을 가질 때 그것은 우리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우리가 그것을 우리 땅에서 난 것처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것이 CO 54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뛰어난 선임을 압시다. 우리가 그것을 그분에게서 받았는데 그분을 거슬러 그것을 남용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배은망덕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자랐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분별과 판단력을 주셔서 그분과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분을 공경하게 하실 때 그분이 베푸시는 선을 압시다.

118. 여기서 'cœur' (마음)는 칼빈의 설명에 따라 이해하고 깨닫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 속에 머물기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이 그분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며, 그분이 우리 정신을 그런 용도로 쓰게 하셔서 그것이 늘 그분을 따라 행하고 그분의 굴레 아래 머무는 데 쓰이게 해 주시기를 그분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죄의 사로잡힘에서 건짐받아 그분의 하늘 영광에 들어가서 그분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바라볼 때까지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44편

욥기 11장 설교 3

CO 33:543–555

> 자네가 자네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분을 향해 손을 펴며, 자네 손에 있는 불의를 멀리 치우고 불의가 자네 장막에 머물지 않게 한다면, 그때 자네는 흠 없는 얼굴을 들고, 굳게 서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네. 자네는 비참함을 잊고, 흘러가 버린 물처럼 그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네. 자네의 때는 한낮보다 밝게 솟아오르고, 자네는 빛나며 아침처럼 될 것이네. 소망이 있으니 자네는 안심하고, 구덩이를 파고 편안히 누울 것이네. 자네가 쉬어도 아무도 자네를 두렵게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자네에게 은혜를 구할 것이네. 그러나 악인들의 눈은 쇠하고 그들은 피난처를 잃을 것이며, 그들의 소망은 영혼의 고뇌가 될 것이네. (욥 11:13–20)

CO 543 CO 544 우리는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가져야 할 겸손을 보았습니다. 곧 그들은 자기 공상대로 그것을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므로 자기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므로 그분을 막으려고 주제넘게 굴어서는 안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권위를 가지시며 모든 사람이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소발이 덧붙이는 두 번째 요점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온 삶을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순수하고 바르고 꾸밈없는 감정으로 그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것이 여기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으로, 하나님의 손에 핍박받는 자들은

어쨌든 자기 불의가 그들이 견디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욥이라는 인물에게 잘못 적용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그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서 유익을 얻도록 힘씁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분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로우실 것이라고 선언할 때, 이것은 온 성경에서 꽤 자주 우리에게 증언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슥 1:3; 말 3:7) 하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사람들을 그분께로 초대하시면서 그들을 실망시키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그분은 우리가 우리 편에서 그분을 막지 않는다면 그분이 늘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준비가 다 되어 계시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이 우리 가까이 계실 것을, 그것도 온갖 은혜와 복과 함께 계실 것을 주목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로우시기만 바랐고, 그분께 순종하려 하며,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 자기의 가장 큰 바람이라고 스스로 믿는데, 그러는 동안 정반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섬김받기를 원하시며 무엇을 요구하시고 인정하시는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먼저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분께 우리 손을 펴야 하며, 그다음에 모든 불의를 우리 손에서 쫓아내어 그것이 우리 집에 머물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에게서 돌아서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마음의 온전함에서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꾸밈을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위선이 우리 본성을 너무 다스려서 마음은 늘 뒤에 남고, 우리는 많은 표정과 원숭이 같은 흉내를 내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우리 열심이 온통 불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의식밖에 없고 CO 545 겉모습만

너무 많을 뿐, 그러는 동안 아무 진실도 아무 정직함도 없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는 말을 그만큼 더 주목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을 찾으려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바르게 되지 않는다면, 곧 그들이 순수한 감정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아무 가치 있는 일도 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뒷걸음질 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에 더 굳게 서려면, 하나님께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머무는 죽을 피조물과 같지 않다고 선언하시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만큼 우리는 겉모습이 그럴듯한 것을 아름답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우리 자로 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감추어진 생각을 살피시는 것이 그분의 고유한 직분이고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드러나야 하므로, 그래서 그분의 눈은 믿음과 진실을 바라보십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대로입니다(렘 17:10). 요컨대 하나님 섬김은 성경이 그토록 자주 말하는 이 단순함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창 17:1)라고 말하는 대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규칙을 주신 것은 이유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규칙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토록 자주 되풀이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위선자들과 구별하는 확실한 표지로 늘 이 온전함을 두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리이시니 그분은 영과 진리로 섬김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요 4:24). 하나님 섬김이 영적인 것이니 모든 꾸밈과 거짓이 우리에게서 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위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넘치도록 높인다 해도 그것은 오물이나 헛됨일 뿐이며,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실 것입니다.

물론 교황주의자들은 이것을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라는 권고를 받으

니, 그것이 그들의 권능과 능력에 있다"라고 말할 그럴듯한 빛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명해진 것으로 그들의 힘과 능력을 재려는 것은 너무 어리석고 하찮은 논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보여 주실 때,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매이고 빚졌는지, 우리 직분이 무엇인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에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살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반대를 봅니다. 우리 본성은 하나님께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려 하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CO 546 곧장 멸망으로 가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갚을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리를 잃으신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빚진 사람이 있다고 해 봅시다. 그가 가난해져서 자기 재산을 다 먹고 탕진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그의 채권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잃겠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되찾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빚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사람들이 완전히 악하고 비뚤어지며 마귀가 그들을 종으로 붙들고 그들이 악과 불의에 빠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분께 속한 것을 빼앗기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라고 명하신다고 해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 마음의 움직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결론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다만 우리가 그것에 매여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언급된 그 깨끗함을 가질 때까지 우리가 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평가받지도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것임을 보여 주실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 자기를 살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돌 같은 마음을 가졌고, 거기에 굳음밖에 없으며, 악의가 거기서 다스릴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결코 굽힐 수 없는 고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

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손을 대셔야 합니다. 그분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섬기도록 부드럽고 굽힐 수 있는 살 같은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겔 36:26). 그분은 우리 마음과 속에 그분의 율법을 새기셔서, 우리가 그분이 인정하시는 것을 향하고, 우리의 모든 바람과 감정이 율법에 담긴 이 의와일치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렘 31:33). 이것이 하나님의 고유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그분을 섬기도록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서 거기에 쓸모없고, 정반대로 가며, 우리 욕구에는 선을 거스르는 온갖 반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능력도 수단도 없으니, 우리를 그분께 붙이시고 그분을 섬기기에 알맞고 충분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깨끗함과 정직함에 대해 말한 뒤에,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소발은 한 가지 종류 아래 하나님 섬김의 가장 중요한 것, 요컨대 율법의 첫째 판을 담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진 믿음의 증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선 없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선이 그분 안에 있고,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할 분이 그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요컨대 그분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그분께 속하고 그분이 자신을 위해 남겨 두시는 영광을 그분께 돌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르는 이 종류 아래 소발이 CO 547 첫째 판의 모든 내용을 담으려 했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만이 우리에게 경배받아야 하고 어떤 동료도 참으실 수 없으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그것을 더럽혀서는 안 되고, 그분께 마땅한 영예를 드리며, 그분이 그분의 교회에 세우신 질서를 따라야 한다고 일깨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분을 부름으로써 오직 한 하나님만 모신다고 고백하고, 모든 우상 숭배와 미신을 버리며, 우리 신뢰가 온전히

거기에 기대고 있음을 보이고, 의와 능력과 생명,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며 우리가 길어 와야 할 샘이 거기라는 것, 우리가 그분께 너무 매이고 빚져서 결코 그분께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그분의 이름이 영예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에서 그분과 그분의 섭리에 우리를 맡김으로써 그분의 영적 안식이 지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구할 뿐 아니라, 그분에게서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것 아래 그분의 영예에 속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는 교황권에서 하나님 섬김이 어떻게 비뚤어지고 부패했을 뿐 아니라 완전히 없어졌는지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입니까? 거기 이르기 전에 이 성인에서 저 성녀에게로 달려가고 뛰어다녀야 할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은혜의 어머니요 구원의 금고지기가 될 것이고, 각 성인은 자기 직분을 가질 것이며, 사람들은 거기에 의지하고 모든 신뢰를 둡니다. 하나님께는 그저 몇 방울의 뿌림만 돌아갈 것이어서, 그토록 많은 무리 가운데 그분이 겨우 알려질까 말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부터 시작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성인과 성녀들에게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그분을 우리가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중보자로 찾는 것은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예에 속한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서 지켜지지 않으니, 그보다 낮은 나머지 모든 것도 그렇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무서운 심연에서 건지셨을 때 그분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 우리 아버지로 불러야 할 분이 그분이시라고 선언하셨으니, 그분이 거기 이르도록

보여 주시는 방법을 지키도록 힘씁시다. 곧 그분의 보좌가 우리를 달아나게 하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정한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니 우리가 거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를 위해간구하시는 것이 그분의 CO 548 직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도열어 주셨고 날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오기만을 바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선이라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하나님을 부르는 일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만큼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는 그 가엾은 소경들을 불쌍히 여깁시다. 더욱이 거기서 그들의 처지가 비참함 이상이라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모든 선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모든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욜 2:32)라고 말하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데 있지 않다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엾은 교황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그들은 모든 구원의 소망을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된 자라고 결론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의심과 떨림으로만 거기 나아오고, 하나님께 이르기 전에 천 번이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도자요길잡이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손을 편다고 말하는 이 구절을 잘 주목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늘로 올라갈 수 없으므로, 안에 감추어진 행위를 고백하는 어떤 표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꾸밈없이 기도하면 우리 마음은 저 위로 올라가고,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출두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께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펴는 손으로 우리가 온전히 피하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표시로

기도를 나타냅니다. 그것이 전부이거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위선자들도 손과 팔을 잘 펼 줄 알아서 그들이 온통 타오르는 불처럼 보이지만, 그런데도 거기에는 거짓밖에 없고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므로 이 표시는 참되어야 하고, 성경도 그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바르게 되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소발이 "하나님께 네 손을 펴라"고만 말했다면, 사람들이 의식으로 그분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지 여전히 따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보다 먼저 우리 마음이 꾸밈없어야 하고[119] 거기에 굽거나 비뚤어진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 위에 지어야 할 기초처럼 놓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앞서 가지 않고 손이 사람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서 아시는 것의 참된 증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손을 하늘로 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삶의 나머지 모든 것에 관해서는, 좋습니다, CO 549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도 그들을 얼마간 의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피조물에게 인정받으려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 상을 받는 것이니(마 6:5), 그것이 야망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삶의 나머지 모든 것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각자 물러나서 마음을 모아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보라,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그분의 위엄의 보좌에 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온 삶에서 위선과 거짓에서 가장 멀어야 할 행위입니다.

그러는 동안 이것은 아주 잘못 실천되고 있습니다. 교황권에서 신심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조롱하는지 보십시오. 중얼거림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가장 자기를 드러내는 곳이 거기입니다. 다른 모든 일에 꾸밈이 있다면, 교황주의자들의 기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도 제가

119. 원문의 'rond / rondeur'는 숨김이나 꾸밈이 없는 태도를 가리키므로 '꾸밈없음'으로 옮겼습니다.

말씀드린 그런 생각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면 각자 물러나서, 우리가 거기 갇혀 있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에 지금과는 다른 온전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지금처럼 그토록 대담하게 입을 크게 벌려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부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좋은 바람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십니다.[120]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물러나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공중 기도에서 우리 본으로 서로를 북돋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 자기 방이나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마치 한 입으로 하듯 그분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엄숙한 고백이 있고, 각자 자기 이웃으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공적으로 기도하되, 여전히 물러나서 각자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저 위의 그분을 바라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손을 든다' 는 이 말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소발은 율법의 둘째 판으로 내려와서, 우리 손에서 모든 불의를 치우고 그것이 우리 집에 머물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손이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은 꽤 흔한 말투입니다. 우리는 손으로 이웃과의 일들을 다루고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거나 이웃에게 어떤 폭력이나 해를 끼치는 사람은 손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평과 정의를 지키고 악을 행하는 데 빠지지 않으며 CO 550 오히려 각 사람을 위해 힘쓰도록 살필 때 그들의 손을 씻는다고 말하는 대로입니다(시 26:6).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소발이 하는 말입니다. 곧 하

120. 원문의 'Dieu n' y voit goutte' 는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좋은 바람을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찾지 못하신다는 뜻입니다.

나님께 복을 받고 번성하려는 사람은 자기 손을 모든 불의에서 거두거나 자기 손에서 불의를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우리가 구원과 모든 선을 기대하는 분은 오직 그분이시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마땅히 영화롭게 했습니까? 남은 것은 우리가 사람들과도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않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자기에게 손해나 해를 끼쳤다고 탄식할 수 없도록, 우리가 모든 폭력과 사기에서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이웃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분이 우리가 바랄 수 있고 우리 구원에 알맞은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넓혀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를 용서하고, 더욱이 악을 행하면서 자기를 변명할 핑계와 빠져나갈 구멍이 소름 끼칠 만큼 많으므로, 불의가 우리장막에서 쫓겨나고 추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곧 사람이 자기를 책망할 수 있는 악을 직접 하나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그늘 아래서 아무 악도 행해지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가족이 있다면, 그는 아내와 자녀와 종들을 굴레에 매어 두어야 하고, 비뚤어진 방법이나 악한 거래로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불의가 우리 장막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컨대 여기서 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각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보다 그것을 더 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그것을 실천하고 묵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충분히 흔하고 친숙하지 않아야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것에서 그토록 멀리 있습니까? 대부분이 그것에 대해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을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잘, 더 생생하게 감동받으려면, 먼저 더 이상 돌아서 하나님께 가서는 안 되고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곧은

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를 모든 미신과 사람들이 너무 기꺼이 스스로를 속이는 그 헛된 원숭이 흉내에서 건지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 원칙들은 사람들이 충분히 고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섬김과 공경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마땅하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분께 저주받고 버림받아야 하며,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고난으로 소멸된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들었다면 그분이 우리를 삼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것을 잘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CO 551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그분을 섬기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나쁘게 다루지 않으셔서 우리가 경험으로 그분을 아버지와 구원자로 알게 될 것이라는 것도 사람들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이르면, 그 모든 그럴듯한 고백에 위선밖에 없었고, 사람들이 자기의 헛된 공상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킨다고 생각하는 동안 그분에게서 아주 멀리 있었다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돌이킴은 헛되고 쓸데없는 일에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바른 온전함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임을 배웁시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숨는 곳들을 봅시다. 각자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살펴봅시다. 우리 자신을 속여서 검은 것을 희다고 믿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빠져나갈 구멍이 그토록 많으니 우리는 잘 싸워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꾸밈없음을 가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평생 여기에 힘써도 죽기 전에 길 한가운데까지 오면 그것은 많은 것일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애써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안에서 어떤 꾸밈을 느낄 때마다 우리 자신을 싫어하도록 힘씁시다. 각자 자기를 가까이 바라본다면, 오, 우리는 하루에 백 번이나 신음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은 졸고 있고, 심지어 아주 강하게 자기를 의롭다 하려는 곳에서 말입니다. 자기가 순수하고 솔직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온 공부를 거기에 쏟는다고 사람들이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그들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들이 꾸밈으로 가득하고 좋은 열심이 한 방울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알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인생들이 그들에게서 그것을 알아본다면, 그들이 일부러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면 그들도 자기 안에서 그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각자가 마땅히 자기를 살필 때, 우리는 분명 잠들어 있지 않고 오히려 찔리고 재촉받아 점점 더 바른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분께 손을 펼허락과 대담함을 주실 때 서두릅시다. 그러므로 그런 헤아릴 수 없는 선을 남용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우리를 앞서 맞이하시고 그분께 나아가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감히 그분께 가까이 가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버림받을 것입니다. CO 552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 마음의 움직임으로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그것은 마귀적인 대담함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송장일 뿐인 죽을 군주에게도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창조주의 위엄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의 원수이고, 더할 나위 없이 많은 죄를 가져가지 않고서는 거기 나아갈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께 가증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우리를 보는 것을 싫어하셔서 우리가 죄인인 한 우리를 그분의 피조물로 부인하시고 버리시는 것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서 자유를 얻어야 하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가 환영받을 것이고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고 선언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씁시다. 곧 우리가 모든 선을 잃었고 더할 나위 없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모자란 것을 이리저리 찾아보아도 어디서나 텅 빈 것밖에 찾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굶주릴 것이며, 피조물에게서 처방을 찾아 자기 궁핍을 채우려는 자들은 바람을 먹고 살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거기 이르는 방법을 찾읍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셔서 우리가 거기서 은혜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우리가 미움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우리를 가증히 여기셔야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거기 나아가니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도 우리에게 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아직 그토록 어둡던 율법 아래에서 이것이 말해졌다면, 이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으니 우리는 훨씬 더 그것에 마음을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백성이 성전 뜰에 머물러 멀리 있었고 모든 것을 가리는휘장도 있던 율법 시대에 이 가르침이 쓸모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부지런히 그것을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을 어깨와 가슴에 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출 28:9–29). 그러나 이제 여기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길을 여셔서 우리가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사도가 말하는 대로 그분의 피로 그 길은 늘 새롭고(히 10:20), 우리를 막을 가시덤불도 가시도 없으며,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할 만큼 그 길이 굽거나 험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피로 거기 나아가기만 하면 그 길은 이제 아주 평탄합니다. 이 요점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분께 마땅한 영예를 드린

다는 것을 보이면서 CO 553 우리 하나님을 깨끗하게 부르려면, 우리 이웃과도 온전한 정직함으로 교제해야 한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우리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졌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약탈하고 저 사람을 먹어치우며 각자 자기만 챙긴다면, 묻건대, 그분이 그분의 형상대로 빚으신 자들에게 어떤 해를 끼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향해 침을 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강탈과 폭력을 행하며 우리 개인 이익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갈기 찢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거기서 은혜를 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 이웃과 온전한 정직함으로 교제해야 한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손에 대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어떠한지 시험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구나 혀로는 능숙해질 것이고, 우리를 믿는다면 좋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에 이르면 거기서 정반대가 보입니다. 사랑에 대해 설교하고 그것에 대해 놀라운 것들을 말한 사람이 이웃과 맞닥뜨리면 자기가 완전히 자기에게만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 줄 것입니다. 실제로 그토록 뻔뻔해서 "사랑"이라는 말을 그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사랑을 베푸는 데 너무 익숙해져서 다른 것은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빚진 것을 요구하면 "사랑, 사랑" 말고는 그들에게서 다른 대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들은 남의 재산을 약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죄가 있는데도, 사랑을 설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의 재산을낚아채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특별히 손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공경하도록 사랑하는지의 참된 시험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 안에 정직과 공평이 있다는 것, 요컨대 인정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웃과 교제하면서 각자 자기 처지와 능력에 따라 모자란 자들을 돕는 데 힘써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두시고 바치신 결합이 지켜진다는 것이 알려질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 손에서 모든 불의를 멀리 던진다고 말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술직에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는 자기 일을 충실히 하고 자기 손으로 한 일의 정직한 이익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펴야 합니다. "나는 남의 수고를 얻어야 한다. 내 형제가 나를 위해 일하고 자기 수고를 쓸 때, 그가 자기 시간을 잃는 것은 CO 554 마땅하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의 입에서 빵을 빼앗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그의 양식을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두셨기 때문이다. 내가 그에게 잘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고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의 피를 빠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 처지를 이렇게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각자 그것을 자세히 풀어 나가도록 몇 가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교제해야 할 대로, 아무에게도 우리를 탄식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합시다.

더 나아가 각자 자기 집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 직접 악을 행하기를 삼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모든 비뚤어진 길이 우리에게서 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가 우리 집을 다스리는 데 마음을 써서,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주인과 종들과 하녀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영예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보다 더 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집의 가장들이 길을 잃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신앙도 전혀 없는 만큼, 모든 것이 엉망으로 가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들도 더 낫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 분별도 가지기 전에 악의에 절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종들과 하녀들은 부패로 가득할 것입니다. 주인들과 안주인들이 종들이 어떤 장난

을 치고 어떤 도둑질을 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섬기지 않을 때 탄식할 줄 아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천 가지 방식으로 거스름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고, 사람들은 그것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만큼 더 잘 주목해야 합니다. 곧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에만 마음을 쓴다고 하나님을 만족시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을 지켜보아야 하며, 어떤 식으로든 악을 기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동의한다면 악인들과 같은 정죄에 휩쓸려야 할 것임을 알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살필 만큼 부지런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시고 여기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복과 은혜와 함께 우리 가까이 계실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물론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담긴 약속들은 율법에서 가져온 것이거나, 적어도 같은 실체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이 책이 언제 쓰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기 모세의 율법에 담긴 것과 일치하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은 CO 555 그분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 느끼게 하시겠다고, 곧 그들의 삶이 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다룬 것을 간직합시다. 곧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분의 은혜를 느끼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그분이 그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로 그분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서 멀어지신 것처럼 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분을 불러도 그들은 시들어 가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이중의 위로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더라도 그것이 마땅히 그래야 할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매인 만큼의 감정으로 그분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악덕에 대한 벌과 징계를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가난함을 바라보아 자신을 낮추고 그것을 고치게 하시며, 그분이 보내시는 고난으로 이렇게 단련되어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큰 위로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와죽음을 통해 하늘 나라에 들어가셨듯이, 이제 그분의 지체인 우리도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 그분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서,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빌 3:10–11).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통이 선으로 바뀐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도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알맞고 유익하다고 아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고전 10:13). 그리고 우리가 많은 가난과 비참을 견뎌야 하고 우리 처지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그분이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으며, 우리가 그분께 구하고 우리가 밝힌 대로 모든 위선을 벗고 바르고 순수한 감정으로 그분을 섬기고 공경하려 했을 때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임을 느끼게 하기를 그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제45편

욥기 12장 설교 1

CO 33:556–567

> 욥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참으로 자네들이 온 백성이로군. 지혜도 자네들과 함께 죽겠네. 나도 자네들처럼 마음이 있고, 조금도 자네들보다 못하지 않네. 자네들이 내세우는 것들을 갖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내 친구에게,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이 응답해 주시는 자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네. 의롭고 온전한 자가 비웃음을 당하네. 발이미끄러지려는 자는 부자에게 업신여김받는 횃불 같네. 약탈자들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손에 쥔 자들은 대담하게 그분을 노엽게 하네. (욥 12:1–6)

CO 556 언뜻 보면 이 두 명제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분께 복을 받으리라는 것과, 악인들이 형통하리라는 것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들은 대로 욥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자주 편안히 지낸다고 대답하면서 앞에서 소발이 내놓은 것을 반박합니다. 그런데 욥은 앞에서 한 말과 반대로 대답하여, 이 가르침이 율법에서 가져온 것이기는 하지만 잘못 적용되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선한 자들을 그분의 보호 아래 두실 것이고, 그들에게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며, 그들에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몸과 가축과 모든 재산이 복을 받으리라고 선언하고 공포하실 때, 그분은 선한 자들이 결코 고난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내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궁핍할 때 그분의 백성을 건지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 그분의 선하심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CO 557 받아야 하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고난에서 완전히면제된 그런 형통을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경외하며 행하는 자들을 대체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는 목적을 향합니다.[121]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는 이 두 가지 요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그리고 언제나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마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나무랄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가장 온전한 자들입니다. 가장 의로운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 있는 자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그들을 징계하신다면 그것은 정당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지은 죄에 따라 그분이 보내시는 고난을 재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실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곧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을 죽이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우리에게 감추어진 악덕을 앞질러 막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를 짓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악에 빠질 것을 잘 보시고, 앞서 가서 그것을 고치십니다. 또 그분은 우리를 낮추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신뢰를 두지 않고 땅에 너무 매이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또 그분은 우리가 형통할 때와 마찬가지로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께 순종할지 알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그분께 피할지도 알고자 하십니다. 요컨대 그분은 우리가 하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구원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요점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121. 원문에는 'fera preparer' (준비하게 하실 것이다)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fera prosperer'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의 잘못으로 보고 옮겼습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아시는 모든 것을 보내신다는 결론을 내리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욕구를 따라서가 아니라 그분의 앎을 따라서이며, 그분이 늘 그것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분이 그들을 괴롭히신다면 그분은 까닭이 있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늘 그분의 은혜와 선하심을 느끼고 그분 안에서 기뻐할 거리를 가지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삶에 대한 모든 약속을 받아들여야 할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결같고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시겠다고 스스로 매이신다는 것이 아니라, 요컨대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그분의 백성에게 은혜로우시고 그들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보여 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면 평안과 안식 가운데 있으리라고 말할 때(레 26:6), 우리가 사람들 쪽에서 괴롭힘과 시달림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쟁을 걸었기 때문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죽을 사람이 자기 창조주를 거슬러 일어났을 때 그를 괴롭히고 해를 끼치는 원수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 쪽에서 핍박을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냈는지 살펴봅시다. 우리가 그분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봅시다. 그러므로 그분이 CO 558 사람들이 그들 쪽에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도록 허락하신다고 해서 놀라지 맙시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렇게 거스른 자들에게 전쟁을 보내시리라고 말합니다(레 26:25). 그리고 그 밖에, 아무도 그들을 쫓지 않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도, 그들은 그 안에 자기 사형 집행인을 지니고 다닐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들 가운데 이렇게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늘 떠는 듯할 것이요, 네 눈은 머리 속으로꺼질 것이며, 네 생명은 실에 매달린 듯할 것이다. 너는 아침에 '내가 어떻게

저녁까지 이르겠는가?' 할 것이고, 저녁에는 '누가 나로 이 밤을 지나게 하겠는가?' 할 것이다. 너는 늘 두려워할 것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신 28:65–67). 여기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온유함에 자신을 맞추지 않은 자들에게 내리는 정당한 벌이 있습니다. 곧 그들이 자기 자신의 사형 집행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대 없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평안할 것이고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리라는 이 복이 율법에서 주어진 것이 까닭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꾀하더라도 우리를 해칠 수 없도록 그들에게 굴레를 씌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는 동안 우리가 밖에서 공격받고 마치 먹잇감처럼 되더라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보호 아래 두시리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도 주목합시다. 그 약속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꿋꿋함을 시험하시려고 악인들이 우리를 찌르고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기를 마다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우리 정신에서 시험을 받아 어떤 의심과 불신에 빠지도록 허락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부르고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시기를 그분께 기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환난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며 그분이 그들 가까이 계시리라는 것을 느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땅히 받을 대로 그들을 버리셨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율법의 나머지 모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컨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 잘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징계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고서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춥시다. 그분이 우리 고통을 누그러뜨리시기를 원합니까? 그분께 피하고, 악을 행하기를 그칩시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거스른 자들을 벌하실 때 똑같은 척도를

지키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어떤 이는 더, 어떤 이는 덜 징계하시는 것을 보고, 더욱이 그분은 많은 벌을 마지막 날로 남겨 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발이 한 것처럼 그런 명제를 일반적으로 선언해서는 안 됩니다.

CO 559 그래서 욥은 그를 반박합니다. 그는 "참으로 자네들이 온 백성이로군" 하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마치 욥이 말한 자들이 바보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아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한 것처럼 풀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네들이 온 세상인 것 같군. 지혜가 자네들과 함께 죽어야 할 것 같군. 그런데 자네들은 내게 지각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자네들은 나를 못하다고 여기는가? 그리고 자네들이 내세우는 것들은 아주 잘 알려진 것들일세.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께 응답받는 자들,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바람을 들어주시므로 그들에게 은혜로우신 것처럼 보이는 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아야 하는군. 나는 그런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야 하는군. 나는 부유한 자네들에게 꺼져 가서 업신여김 받는 횃불 같아야 하는군. 요컨대 하나님을 손에 쥔 자들, 그들은 대담하게 그분을 성나게 하고 노엽게 하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악인들과약탈자들의 장막은 형통합니다. 이것으로 욥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거스른 모든 자를 현재의 삶에서 벌하시고 사람이 악을 행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잡으셔서 그가 받아야 할 대로 복수하시려고 그 위에 손을 대신다고 일반적으로, 예외 없이 선언하는 것은 큰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완전히 반대를 봅니다. 제가 이미 언급한 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어기는 모든 자를 저주하시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그분의 은총과 선하심을 보이시리라고 말하는 율법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약탈자들은 그분께 은총을 입은 것처럼 보이고, 선한 자들은 업신여김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그런 저주를 선언하셨을 때 우리를 조롱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서 똑같은 척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이미 이 어려움을 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다룬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죄지은 자들을 이른바 한 치 어김없이 벌하셔서, 큰 잘못이 있으면 그만한 벌이 있고, 가벼운 잘못이 있으면 그 징계도 곧바로 그와 같으며, 선한 자들은 여기서 바라는 대로 대우받는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기다리는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지을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자로 나타나신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선을 행하라." 더 이상 하늘의 삶은 없을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 낙원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거스르는 모든 자에게 똑같은 벌을 내리신다면 그분이 우리 구원을 아주 잘못마련하시는 것이 되리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남겨 둔 징계가 있어야 하고, CO 560 그것도 대부분이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두려움과 조심 가운데 행하도록 가르치시려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그분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질러지고 현재의 삶에서는 벌받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모든 잘못이, 마지막에, 곧 큰 재판이 열릴 때 셈에 들어올 것이라고 결론지어야 합니다.

이처럼 욥은 율법의 가르침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소발이 내놓은 거짓 풀이를 반박합니다. 소발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의 심판을 나무랄 데 없이 집행하셔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다릴 필요가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에서 보인 대로 맞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셔서 참되고 선한 가르침을 우리 쓰임에 잘 적용하고

그것에서 유익을 얻을 줄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도록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면 그것이 헛수고가 아니며 그분이 늘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고 우리가 평생 그것을 느끼게 하시리라는 것을 보여 주실 때, 이것은 우리를 세우는 데 매우 유익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신다고, 혹은 우리가 그분께 하는 모든 섬김이 그분이 돌아보아 주시지도 않은 채 흘러가 버린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에 이르러야 합니다. "만족하라. 의인은 그의 삯을 받을 것이다"(사 3:10).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자기에 대해 고백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곧 그가 모든 순결함으로 손을 씻으려 애쓰고 하나님을 섬기려 수고한 것이 헛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흘러내린 것 같았고, 그의 발이 미끄러졌으며, 마치 얼음 위에 있는 것처럼 넘어질 뻔했다는 것입니다(시 73:2, 13).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켜보시고, 그분을 섬기고 공경하려는 자들을 아시며, 시편에서 말하는 대로 악인들에게도 눈을 두고 계셔서(시 34:16) 그분이 그분의 은혜에 대한 그런 업신여김을 참으실 수 없다는 것을 마침내 보여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알맞은 때에 그분의 심판을 보내시기를 기다립시다. 서두르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자마자 그분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자들의 잘못을 벌하시기를 우리가 바란다면 그것은 큰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른 때로 미루려 하십니다. 그것이 그분께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는 그분께 분별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이 명제를 우리 생각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잘 풀이하는 자가 되어서, 여기서 소발이 한 것처럼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가 CO 561 곧바로 보상을 받아야 하고, 이 삶이 그들에게 낙원과 같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게 은혜로우셔서 그것을 실제로 보여 주셔야 한다고 결론짓습니다. 욥은 "그렇지 않네" 하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고 그만큼 더 대담하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경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판을 그렇게 빨리 집행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좋게 여기시는 때까지 그것을 감추어 두시고 보류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그러는 동안 선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의 단순함으로 그분 앞에서 행한 자들은 끝까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들의 죄가 가장 엄청난 것인 양 그 죄 탓으로 돌려서, "오, 저 사람이 그토록 엄하게 벌을 받으니 그는 극도로 악한 자라고 결론지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증한 자로 여기신다고 말해야 한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한 자들을 괴롭히시는지 아시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계시며, 그것에 대해 선언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그토록 가혹하게 대하시니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겁게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율법의 약속과 위협을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가 날마다 보는 그 섭리의 흐름으로 되돌려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기는 자들을 저주하시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위협은 참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첫날에 집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분이 알맞다고 아시는 몫과 분량대로 그분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분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그분은 그들을 괴롭히실 권위를 가지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선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늘 그들 가까이 계시고 필요할 때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그들의 고난이 그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느끼게 하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한동안 그들은 심연에 있는 것 같고, 이리저리

흔들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위해 낮아지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과 위협에서 참되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그분의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셔서, 선한 자들이 그분을 섬기느라 수고를 잃은 것처럼, 악인들이 목에 고삐가 풀려서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고 그분의 손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보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 정신으로 잰다면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낮추어 이렇게 말합시다. "그렇다,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이시다. 그러나 그것은 첫눈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분이 감추어 계시더라도 우리는 CO 562 오늘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마지막에 드러나리라고 결론지을 이 믿음과 소망을 우리 안에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 담긴 대로 욥의 말로 가 봅시다. "자네들이 온 백성이로군. 지혜도 자네들과 함께 죽겠네." 이것으로 그는 말한 자들의 어리석은 교만과 주제넘음을 꺾으려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분별에 대한 헛된 확신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른 자들을 당해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자주 별 소용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자만에 취한 사람은 무엇을 보여 주어도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아닌 것이 된 줄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비뚤어지게 하는 자들과 싸워야 할 때에는, 우리도 그들에게 그들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들이 누가 가장 예리하고 가장 능란한지 보여 주려 할 때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야망과 허영밖에 없는 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각자 크게 과시하려 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자기 말로 모두를 놀라게 하려 하며, 대답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서려 합니다. 그러면 거기 바보들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부패시키고 그것을 거짓으로 바꾸는 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무지를

보여 주게 된다면, 우리는 더 능란한 자로 드러나고 사람들이 우리를 더 높이 평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진리에 자리를 내주어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하고, 잘 세워진 것을 무너뜨리려고 평판이 있는 자들에게 사람들이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게 한 것으로 만족합시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미신에 붙들려 있는 가엾고 단순한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그토록 많은 대학자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따르는 가르침을 붙들었고, 지금도 그들이 그것을 고수하는데, 그들이 속았단 말인가?" 많은 가엾고 연약한 사람들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과 학자들과 그 위대한 인물들이 속았을 리가 없다는 이 공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게 하려면, 그들이 지금까지 그토록 높이 평가한 자들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알아야 하고, 오늘날 교황권의 가증한 것들을 고수하는 위선자들처럼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들켜야 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대담함이 있어도, 그들은 너무 둔해서 어린아이들조차 그것에 대해 일깨움을 받으면 그들의 우롱을 알아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속상해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충분히 아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CO 563 단순한 사람들과 제가 말한 그 거짓 견해에 이미 너무 얽혀 있는 자들에게 아무 접근도 하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욥은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풀이하여 그것을 완전히 낯선 뜻으로 돌린 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들이 누구나 알아야 할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는데도 대학자 행세를 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그는 "자네들이 온 백성이로군. 지혜도 자네들과 함께 죽겠네" 하고 말하면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가 "나는 자네들보다 못하지 않네. 나도 마음, 곧 지각이 있

네” 하고 말할 때, 그것으로 욥은 자기를 높이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각자 자기편에서 더 능란하고 더 예리하게 보이려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야망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많이 싸울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거기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욥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토록 자만으로 가득한 자들보다 참된 것을 더 잘 알고 분별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자랑해도 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학식 있는 사람, 큰 지각과 큰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박수 쳐 주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헛된 것들은 버려 둡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관련된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우리 공부를 쏟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 평가하기를 바라는 동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많은 무지에 빠지고 우스꽝스럽게 되어 온갖 수치에 드러나도록 허락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평가받기를 원하는 모든 자의 삯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거기 땅에 쓰러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는 동안 사람들이 자기 명예만 바라본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잊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내어, 우리가 옳은 일을 가졌을 때 그것이 지켜지고 우리가 내세우는 것이 권위를 가지고 받아들여지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보로 여겨져서 지식도 지각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를 깔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내세워진 것에서 유익을 얻으려면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 그 은혜는 업신여길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욕을 끼치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성령에게서 나온다. 사정이 이러하니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자.” 이것이 우리가 좋은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는

까닭입니다. 곧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입니다. 이것이 욥이 자기도 CO 564 마음이 있고 그토록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고 존중한 자들보다 못하지 않다고 선언하는 의도입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은혜를 드러내기를 배웁시다.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이 유익을 주고 열매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예를 앞세우고 그분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성령의 뛰어난 은사를 받은 것을 볼 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가 하는 말을 온 공경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권고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욥이 "나는 내 친구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것 같네" 하고 말하는 것으로 가 봅시다. 그가 글자 그대로는 자기가 그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것 같고 자기 친구에게 버림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 대해 3인칭으로 말합니다. 그다음에 그는 자기를 꺼져 가서 업신여김받는 횃불이나 초롱불에 견줍니다. 횃불이 끝에 이르면 거기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밀랍이 흘러내리니 사람들은 묻지 않으려고 물러나고, 또 그것이 떨어지면 옷을 버립니다. 그러므로 초롱불이나 횃불이 한동안 불을 밝히고 끝까지 쓰이고 나면 사람들은 그것을 내던집니다. 모두가 그것에서 물러나고, 더욱이 고약한 냄새밖에 남지 않습니다. 욥은 자기가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나타냅니다. "보게, 내가 넘어지려 하니 나는 자네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비유의 이유를 보여 줍니다. "내가 무덤 가장자리에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자네들이 보기 때문이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네들에게 버림받는 것이네." 그런데 그는 부자들도 고난받는 사람을 조롱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이 그들에게 응답하시네"

하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욥은 악인들이 하나님께 어떤 선을 기대하거나 그분 안에서 그것을 찾는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이 모든 바람을 이룰 것이어서, 뒤에 덧붙여진 것을 우리가 보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손에 쥐고 흔히 말하듯 소매에 넣고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이 구절을 하나님을 자기 손에 오게 하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 풀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풀이입니다.[122] 욥은 악인들이 가진 그 형통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악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거기에 더 넘쳐 나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과 동맹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박수를 치시며 그들의 욕구에 자신을 굴복시키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안식 가운데 있고 형통하며 요컨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첨하려 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그들이 그만큼 더 대담하게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그러는 동안 그들의 집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그는 우리가 위에서 밝힌 것, 곧 소발이 그를 그토록 큰 죄인이라고 선언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CO 565 왜 그렇습니까? 그는 "완전히 반대가 보이기 때문이네" 하고 말합니다.

이제 그가 업신여김에 대해 하는 말로 가 봅시다. 그는 "나는 꺼져 가는 초롱불이나 횃불처럼 업신여김을 받네" 하고 말합니다. 욥이라는 인물에게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 처지가 너무 비참해서 우리가 꺼져 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허락하신다는 것, 그래도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욥에게 일어난 일을 봅니다. 우리가 그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므로 그토록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 버림받고 조롱받았으며 사람들이 그를 망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까지 이르게 하실 때 놀라지

122. 칼빈은 '하나님을 손에 쥔다' 는 구절을 우상 숭배에 대한 말로 보는 해석을 물리치고,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듯 여기는 태도로 풀이합니다.

말고 그분을 거슬러 불평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대우받을 때 그분이 너무 잔인하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는 것을 압시다. 그것이 우리를 깨우고, 우리는 우리 소망이 여기 아래 세상에 뿌리내려서는 안 되고, 사도가 말하는 대로 그 닻을 하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히 6:19). 세상의 조롱이 우리 구원에 쓰이도록 정해질 때 그것은 좋은 가르침이 아닙니까? 그런 비웃음이 마침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던지는 악인들의 얼굴 위로 되돌아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점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유익합니다. 곧 그것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기다림이 온전히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나는 내 친구였던 자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전에 우리를 사랑했던 자들이 우리를 저주받은 자처럼 여길 때 이 시험이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삼키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욥에게 일어났으니, 그의 발자취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낮추려 하실 때 머리를 숙입시다. 특별히 그는 자기 발이 실족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서 있던 동안에는 횃불이나초롱불 같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타는 횃불을 가지는 것을 기뻐하고 그 빛을 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동안에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꺼져 가면 사람들은 그것을 진흙탕 한가운데 내던집니다. 그것을 들고 있는 사람은 손을 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거기에는 어둠이나 어떤 검은 연기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두셨던 동안에는 그가 영예와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 그가 꺼져 가니 버림받은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는, 때로 우리도 꺼져 가는 것처럼 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아무 빛도 보지 못하고 연기밖에 없으며, 우리가 조각조각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

가 끝에 이르게 되리라는 일깨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CO 566 욥이 우리보다 앞서 거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서 인내로 그것을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었으니 그 길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꺼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그분을 부르고 그분이 그들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대로) 이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관련됩니다. 악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 얻으려고 그분과 공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선적인 자들이나가장 방탕한 자들도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롱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주시면 좋겠다." 악인이 남의 재산을 빼앗기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개의 재산을 주시면 좋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다른 모습으로 바꾸고 그분의 위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요컨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여 그분을 자기 죄에 휘감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그들은 완전히 미친 것입니다. 그들은 가증한데도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토록 터무니없는 그들의 욕망 속에 섞이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것이 없고 참된 기도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욥이 여기서 하는 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곧 악인들이 하나님께 자기가 좋게 여기는 모든 것을 구하고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곧 그분이 그들의 모든 욕구를 들어주려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악인들이 이렇게 아무 공경도 믿음도 없이, 기도의 정당한 형식도 전혀 없이 하나님께 자기가 바라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마치 터무니없는 말처럼 아무렇게나 던질 때, 그것은 그들을 더 크게 정죄할 뿐이라는 것을 주목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본성이 우리에게 모자란 것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이것을 그들의 마음에서 미리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예를 받으셔야 한다. 그분은 모든 선을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시고 그분이 그 샘이시니, 거기서 길어 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 겸손으로 그분께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말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악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먼 충동으로 그들을 몰아붙이셔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시면 좋겠다” 하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에게 모자란 것을 구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앎을 그들의 본성에 새기고 있고, 그것은 그들이 이렇게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서 그것을 그들의 엄청나고 가증한 욕망과 바람 속에 섞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더 죄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면 온 공경으로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비참하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순전한 선하심에 피하고 그분이 그분의 손에 있는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넓혀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우리 비참함과 재앙을 CO 567 고칠 수 없다는 결심이 우리 마음에 뿌리내린 채로 그분을 불러야 한다는 권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욥은 악인들의 장막이 평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렇네, 그들이 하나님을 손에 쥐고 그분을 그들의 손에 오게 하기 때문이네. 그런데도 그들은 그만큼 더 대담하게 그분을 노엽게 하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의 업신여김이 나오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로우신 것처럼 자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단순함과 올곧음으로 행하는 모든 자를 교만과 잔인함으로 짓밟습니다. “이자는 누구인가? 저자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버릴 수 있도록 자기들을 높이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괴롭고 이기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더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악인들이 한동안 높여져서 즐거워하고 개선 행진을 할 때, 그것이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시다.

그것은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더 큰 파멸을 위해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를 낮추시려고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판을 치게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말고 꿋꿋하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이 오늘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더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자랑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가치 없는 자들을 앞세우시고 그들을 구름 위에 두시는 것 같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늘 우리 부르심에 굳게 꿋꿋하게 머물 때, 그것은 우리 믿음의 좋은 증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살피시는 것이 좋고 유익하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욥의 때에도 이미 그러했으니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들의 손에 오게 하는 자들, 그들이 그만큼 더 대담하게 그분을 노엽게 합니다. 이 말투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거나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육을 따라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모든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할 때 그것은 그들에게 멸망과 파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편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들이 그분의 사랑받는 자들인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마침내 그들의 모든 것이 멸망으로 바뀌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물러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시며 우리와 갈라지신 것처럼 보여도, 그분의 강한 손 아래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선한 뜻에 복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를 배웁시다(벧전 5:6). 그분이 늘 우리 가까이 계셨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우리 믿음이 늘 참된 꿋꿋함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섬긴 것을 언짢아하지

않으며, 그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견뎌야 하는 모든 싸움과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실 때까지 늘 우리 달음질을 계속합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46편

욥기 12장 설교 2

CO 33:568–579

> 짐승에게 물어보게, 그것이 자네를 가르칠 것이네. 하늘의 새들에게 물어보게, 그것들이 자네에게 알려 줄 것이네. 또는 땅에게 말해 보게, 그것이 자네를 가르칠 것이네. 바다의 물고기들이 자네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이것을 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살아 있는 혼과 모든 영이 그분의 손에 있네. 입천장이 음식 맛을 분별하듯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않는가? 노인들에게 지혜가 있고, 나이가 분별을 가져다주네. 지혜와 능력은 그분께 있고, 계략과 분별도 그분께 있네. 그분이 허무시면 다시 세울 수 없고, 그분이 가두시면 풀어 줄 수 없네. 그분이 물을 막으시면 모든 것이 마르고, 그분이 그것을 내보내시면 땅을 휩쓸어 버리네. 힘과 능력이 그분께 있네.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그분께로부터 오네. (욥 12:7–16)

CO 568 욥은 소발이 그에게 한 모든 말에 순전한 야망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자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CO 569 온 세상을 다스리는 데 무엇을 담고 있는지 잘 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명백한 가르침이어서, 소발이 내세우려던 것을 그토록 대단하게 여길 필요가 없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그것들은 알려진 것들이네" 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발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높이는 것으로 자기가 큰 지각을 가졌다고 여겼을 때 그것은 그에게 있던 어리석은 허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그 모든 것이 충분히 흔하고 평범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는 그의 친구들이 그가 전에 한 말을 더 잘 알아듣지 못한 것에 놀랐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들에게 귀가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자네들이 먹거나 마시면, 자네들의 입천장은 음식에 맛이 있는지 없는지 잘 분별할 수 있네. 그러므로입천장이 사람에게 그가 먹는 것을 맛보라고 주어졌듯이, 귀도 말을 들으라고 있는 것이네. 그런데 자네들은 귀가 먹어서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한 것 같네." 이것이 둘째입니다. 셋째로, 참된 지혜를 찾으려면 사람들이나피조물에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지혜는 그분께 있네" 하고 말합니다. 앞에서 사람들이 그를 나무라서, 그가 옛사람들에게 묻기를 달가워하지 않고 지나간 시대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네, 내가 자네들을 믿는다면 나는 완전히 사람들에게 매달려야 할 것이네. 그런데 그들의 지혜는 사라질 것이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굳은 의지할 곳은 거기서 찾아야 하네. 우리가 그분의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아 지혜롭게 되기까지는 늘 흔들릴 것이네." 그리고 그 밖에,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모든 것은 그분이 자신을 위해 남겨 두시는 그 무한한 지혜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압시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함은, 그분이 허무시면 아무도 세울 수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어 사로잡아 두려 하시면 아무도 그를 풀어 줄 수 없다는 데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너무 높고 감추어진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압시다. 그는 "더욱이 속이는 자와 속는 자도 그분께 속하네" 하고 말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실 것이네." 이것은 낯선 일이고 우리가 아주 가혹하다고 여기는 일입니다. "그분은 속임에서 자신을 지켜야 할 자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그들이 둔하게 될 것이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의 뜻 없이 일어나지 않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당황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심판의 큰 비밀처럼 그렇게 높이 이르기에는 너무 미묘하다고 결론지어야 합니다. 그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알고 있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헛되이 논쟁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욥의 말의 요지가 무엇인지 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좋은 가르침을 받으려면, 먼저 욥이 온 세상과 피조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빛나서, 우리가 CO 570 마땅히 가져야 할 분별을 가졌다면 우리에게 충분한 가르침이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말한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짐승처럼 되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온전히 보이고 명백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자 변명하려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 나는 학자가 아니다. 나는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 못 하는 짐승들에게서만 배우면 될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땅, 말 없는 물고기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은 아니지만 그분에 대해 얼마간 깨닫게 할 만큼은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둔해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오직 우리의 배은망덕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을 바라보려고 눈을 뜨기를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어야 합니다. 여기 주목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나 드러난다고 선언하시는 곳은 여기만이 아닙니다. "하늘이 그것을 선포한다"(시 19:1)라고도 말하기 때문입니다.[123] 우리가 보는 낮과 밤 사이의 그 아름다운 질서,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별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그린 살아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별들은 말하지 않지만, 잠잠하면서도 너무 크게 외쳐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거스르는 다른 증인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 준 것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 자신과 그 본질에서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피조물에서 충분히 자신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핑계하

123. 원문에는 시편 19편 2절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1절로 세는 프랑스어 성경의 절수이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롬 1:20).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대로, 그분은 자신을 증언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행 14:17), 그분의 피조물을 통해 모든 선이 그분에게서 나왔다고 크고 분명하게 외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그분의 손과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다면, 묻건대, 우리가 우리 생명을 그분에게서 받고 온전히 그분의 것이니 우리가 그분께 경의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정죄하는 데 그토록 긴 소송을 벌일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124] 우리의 악의는 너무나 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창조주께 마땅히 드려야 할 순종을 거부했고, 그분에게서 벗어나려 했으며, 그분을 공경하는 대신 우리 악덕과 부패로 그분을 성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온통 드러나 있을 때 우리는 수치 이상의 것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하는 말을 잘 간직합시다. 곧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 높은 일이었다고 내세우려 할 때, 그들에게는 무지라는 핑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짐승들의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까? 짐승들이 그들에게 충분한 박사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귀든 CO 571 소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짐승들이 스스로 창조되었습니까? 그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이 무슨 목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 쓰임에 맞추셨는지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분께 더할 나위 없이 매여 있다는 것을 보여 주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머지 모든 피조물보다 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너그러우셨다면, 그분이 그분의 풍성함을 펼치신 것이 그것을 진흙탕에 던지듯 하시려는 것이어야 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느끼게 하신 이 선하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124. 원문에는 'et si nous le faisons'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으로 되어 있으나, 1563년 초판(250쪽)에 따라 빠진 부정어 'ne' 를 살려 옮겼습니다.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와 짐승들 사이에 하는 비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선과 악의 분별을 새기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경배와 섬김을 받으셔야 한다는 데로 우리를 잘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관심과 둔함과 배은망덕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 묻어 버려서, 짐승들조차 우리보다 더 많은 지각과 이성을 가진 것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짐승들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들의 본보기로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이미 언급한 대로) 짐승들 자체가 우리 직분이 무엇인지 보여 줍니다. 그것들은 우리보다 자기 의무를 더 잘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두 배로 정죄받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를 거기로 돌려보냅니다. 그는 "나귀는 그 주인의 외양간을 알고 소는 그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사 1:3)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그분의 집에 속했다고 말할 것이고, 더욱이 가장 앞선 자가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분의 교회에서 그분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이 거기서 크고 분명하게 울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소나 나귀에게 죽을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각과 이성이 있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분은 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까? 더욱이 우리는 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배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무 비뚤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는 데 게으를 때, 그들이 짐승들의 본보기로 꾸짖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우리에게 이중의 수치가 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욥은 우리가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충분히 배운다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눈만 뜨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학식이 있거나 큰 지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위로든 아래로든 눈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사방

에서 나타나시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말입니까? 저는 그분의 영광이 어디서나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에 있습니까?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과 지혜와 의에 있습니다. CO 572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더할 나위 없이 잘 배열하신 것을 봅니다. 여기 놀라운 지혜가 있고, 우리는 거기에 넋을 잃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지으신 것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며 모든 것이 제자리에 떠받쳐져 있다는 데에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의 능력에서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의 선하심도 있습니다. 그분은 왜 세상을 지으셨습니까? 왜 그것을 그토록 많은 풍성함으로 채우셨습니까? 왜 그것을 이렇게 꾸미셨습니까?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더욱이 그분의 자비를 선언하시려는 것이 아닙니까? 시편에서 그 자비가 말 못 하는 짐승들에게까지 미친다고 말하는 대로입니다(시 145:9). 그렇다면 그분께 훨씬 더 가깝고 그분이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은 고귀함을 두신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를 봅니다. 그분이 그분의 피조물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다른 쪽에서 그분의 심판도 봅니다. 그분이 세상을 너무도 놀라운 방식으로 다스리셔서, 악인들이 거기서 물어뜯을 거리만 찾아도 그들이 거기서 당황한 채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데 우리 공부를 더 잘 쏟기를 배웁시다. 해가 빛날 때, 하나님께서 그 빛을 켜셔서, 우리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께로 인도되게 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넓혀 주시는 선한 것들에 대해 우리가 그분께 경의를 드리고, 아무것도 우리가 그것들을 잘 주목하고 새기는 것을 막지 않게 합시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지혜의 끝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깊은 심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분량대로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좋은 학생이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우리를 거스르는 이 책망 하나면 될 것입니다. 곧 우리가 짐승들과 말 못 하고 지각없는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보여 준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낙원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려고 나타났고, 그것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더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증언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서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핑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빼앗기고 아무 가르침도 없다 해도, 짐승들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정죄하고 모든 핑계를 빼앗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끌어당기려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알도록 우리에게 친숙해지셨을 때 우리가 일부러 눈을 감으려 했다는 이 책망을 마지막 날에 받지 않도록, 지금까지 한 것보다 이것을 더 잘 생각하고 욥의 이 권고를 따릅시다. "짐승에게 CO 573 물어보게, 그것이 자네에게 대답할 것이네. 땅에게 말을 걸어 보게, 그것이 자네에게 보여 줄 것이네. 하늘의 새들이 자네에게 대답할 것이고, 바다의 물고기들은 말 못 하는 것들이지만 그것에 대해 말할 줄 알 것이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여기서 내놓는 둘째 요점으로 가 봅시다. 그는 "입천장은 음식 맛을 시험하고, 귀는 말을 시험하네" 하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그는 그의 친구들이 그가 전에 한 모든 말을 흘려보내고 마치 귀가 먹은 것처럼 그가 무엇을 향하는지 한 번도 주의하기를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꾸짖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그들을 그런 무관심으로 고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향한 것입니다. 그러함은, 우리가 음식을 분별하는 데 얼마나 예민한 입천장을 가졌는지 봅시다. 각자 "이것은 내게 좋다, 나는 이것이 입맛에 맞는다" 하고 잘 말할 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천장에만 충분한 예민함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각에 그것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것을 보면 우리 눈은 깨어 있고, 더욱이 가서 달려야 한다면 팔도 다리도 아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사람은 자기 육과 자기의 어리석은 욕망을 채우는 데 알맞은 모든 일에는 충분히, 아니 너무나 예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덕을 세움받아야 할 어떤 가르침을 판단하는 일이라면, 거기서 우리는 둔해져서 마치 나무 그루터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거기에 우리의 모든 지각을 쏟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더욱이 우리 귀는 똑같은 척도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어리석은 일들이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고전 15:33) 우리를 오염시키는 독과 같은 어떤 악한 말들에 대해 이야기하면, 거기서 우리는 귀를 쫑긋 세웁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마디를 두 번 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곧바로 그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굶주린 사람처럼 거기 와서, 사람들이 하찮은 것들과 자잘한 잡동사니, 그렇습니다, 해롭고 악한 것들로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온통 뛰어드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는 데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놓으시면, 거기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입니다. 곧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세 번 되풀이해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흘려보내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의 때문에 그들에게서 지각과 이성을 빼앗으셔서) 이렇게 둔해지고 어리석어진 자들을, 사람들이 "a" 하고 말해 주는 어린아이들에 견주기 때문입니다(사 28:9–10).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것을 네다섯 번 말해 주고 잘 따라 하게 하면, 그들은 "a"라고 잘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글자냐?" 하고 물으면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b"로 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 글자를 발음해 주는 동안 그들은 한 번 CO

CO 574 "b"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으

면 그들은 곧바로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유익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풀이해 주어야 하고, 그들에게 한마디 한 마디, 한 음절 한 음절을 씹어 주어야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이고 그것이 결코 그들의 머리에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욥의 입을 통해 여기서 세 사람만 고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정죄하신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삶에 알맞은 것들을 듣는 데는 그토록 주의 깊고, 거기서는 우리가 학교에 다니거나 학자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기 즐거움과 이익을 위해서는 선생이요 박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이것은 내게 알맞다, 이것은 내 마음에 든다." 곧바로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긴 권고를 쓸 필요가 없고, 긴 서문은 더더욱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앞질러 가고 성급하기 때문입니다. 하찮은 일에 그것을 쓰는 일이라면 우리 깨달음보다 더 날쌘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에 이르면 우리는 짐승보다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입천장은 음식을 판단할 것인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아무 맛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맛보지 않아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온 인류를 수치스럽게 하는 데에는 이 조항하나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곧 우리가 이 세상의 일에 너무 빠져서 우리 영혼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것을 들을 겨를을 갖지 않았다는 것, 우리 정신이 재물이나 쾌락이나 다른 헛된 것들이나 악한 감정에 휘감겨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짐승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세상의 재물을 탐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한 푼도 속이지 못할 것이고, 그는 늘 자기 셈과 이것저것에 매달려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가 살펴보지 않고서 그에게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의 정신은

떠돌고, 그는 일을 벌이고, 이리저리 궁리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민함은 어디서 옵니까? 감정이 사람을 이끌고 휘몰아서 그가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출세하고 자기를 드러내며 신용과 지위를 얻으려 애쓰는 자들에게서도 똑같은 것을 봅니다. 그들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모을 것이고, 이쪽저쪽에서 끌어모은 그들의 이유들을 가질 것입니다. 짐승 같은 욕망에 휘몰리는 음란한 자들이나돼지 같은 술주정꾼들조차, 그들도 자기 악행에 어떻게 이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입천장에 맛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물러갈 아무 지각도 없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CO 575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쓰기를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사람들을 거스르는 또 다른 고발이 있습니다. 곧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않고 모든 가르침을 발밑에 두려고 그럴듯한 핑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보이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 보라, 나는 분별할 수 없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신앙을 핑계로 나를 속일 수 있다. 그러니 내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낫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배은망덕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 순종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에게 귀를 주셨는데, 우리는 “오, 나로서는 알아보고 싶지 않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먹고 싶지 않다. 나쁜 음식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내게 나쁜 풀을 줄 수 있고, 그러면 나는 독에 중독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먹지 않는 것이 낫다.” 어떤 사람이 너무 어리석어서 자기 안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다면, 그는 죽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성경을 알고 싶지 않다. 내가 그것으로 속을 수 있다” 하고 말하는 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네 영혼의 양식이다, 가엾은 피조물아. 우리 주님께서는 마실 것과 먹을 것으로 몸을 기르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영혼을 기르시는데, 그러는 동안 우리는 어떤 부패가 두려워서 그 양식을 버리려

할 것입니다. 그것은 드러내 놓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귀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자신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내놓는 것을 들으려고 온 겸손으로 나아오고,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도록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그분께 구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귀를 헛되이 지으시지 않았으며,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 그분이 우리에게 내놓으시는 것을 온 경외와 공경으로 받게 하시려는 것임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가르침을 받는 데 부지런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세우고 잘 준비할 때 그분이 그것을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하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덧붙이는 것으로 가 봅시다. "노인들에게 지혜가 있고, 나이가 분별을 가져다줄 것이네. 지혜도 분별도 계략도 능력도 그분께 있네. "[125] 욥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앞에서 그는 지나간 시대를 돌아보지 않고, 옛일을 생각하지 않으며, 더욱이 세상에 오래 산 자들이 가르친 것을 간직하지 않는다는 고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그는 "그렇네, CO 576 노인들에게 지혜가 있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을 조롱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네들은 내가 옛사람들과 노인들에게 매달리라고 그들을 내세우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시겠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그분의 자리를 이어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예를 빼앗기셔야 하겠군." 그러나 욥은 여기서 사람들에게 얼마간의

125. 원문에는 'te, ut. le' 라는 판독할 수 없는 글자로 되어 있으나, 설교 첫머리에 인용된 13절 본문과 뒤의 설명에 따라 '능력' (force)으로 보고 옮겼습니다.

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들을 지나치게 높이지 않는다는 조건에서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서 오래 살아서 많은 것을 보았다면 얼마간의 분별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깎아내려야 하겠는가? 아니네. 사람들의 모든 지혜는 그 자체로는 평가받을 만하지만 헛된 것일 뿐이네." 사람들을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내려놓아야 하고 그때에는 하나님만 지혜로우신 분으로 여겨져서 그분 안에만 지혜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욥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에서 좋고 매우 유익한 교훈을 거두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미로 보내시는 사람들이 가질 분별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에서 유익을 얻기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모욕을 끼치는 것입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께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좋은 지각을 주셨고, 더욱이 그에게 계략과 판단을 주셨으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능력과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그 모든 것을 물리친다면, 성령께서 짓밟히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서나 자기 힘으로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위에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그것으로 도움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나누어 주실 때, 그것은 각자 그것을 자기 것으로 붙들어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나누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공동의 덕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좋은 가르침을 가진 자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좋은 계략을 가진 자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끄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려던 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가르칠 사

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의 말을 기꺼이 들어서 가르침을 잘 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뻣뻣하지 않도록 온순한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완전히, 그리고 가리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엾은 세상이 오늘날 이런 신용에 얼마나 눈멀어 있는지 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뭐라고? 지금 사람들이 지키는 생활 방식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던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그것을 지킨 지 얼마나 되었는가? 이것이 그토록 오랜 기간 쓰이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엾은 사람들이 멸망에 뛰어듭니다. CO 577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끄실 준비가 되어 계셨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설교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위에 온 권위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고, 우리가 꾐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며 지혜롭게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엡 4:14).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방법입니다. 곧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분의 성령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을 받았을 때, 그래도 그분이 우리 위에 온 우위를 가지셔야 한다는 것, 모든 지혜가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사람들의 신용에 휘몰려 갑자기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가르침을 그분에게서 받는다는 이 확신에 온전히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잘 깨달으려면 두 가지 극단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업신여길 경솔한 자들이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지한 자들이 이 점에서 가장 주제넘을 것이며, 그것은 너무 흔해서 그들은 자기 어리석음을 자랑할 정도입니다. 여기 아무것도 알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큼 더 자기를 높이 평가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더 큰 교만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성경 구절들을 가져다 쓸 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비밀을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과 큰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신다고 말하지 않는가“(마 11:25). 가엾은 짐승 같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신학이 자기들만을 위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들의 작음 속에서 자신을 높여서, 그분에게서 온 것이고 인정받아 마땅한 은사들을 업신여기기를 원하셨습니까? 모든학문은 어디서 옵니까?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있을 판단력조차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모두 그 샘, 곧 하나님의 영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들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그것을 업신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에서 유익을 얻어 그것을 우리 쓰임에 적용하기를 배웁시다. 우리가 분별없이 사람에게서 온 모든 것을 물리친다면, 그것은 너무 큰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재판관은 판결이 짧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도 분별하지도 못한 채 판단한다면 우리는 두 배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자들을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것이 지켜지고 준수되었다“라고 내세우고 더욱이 거기에 이유가 있는데도, “그것이 사람에게서 왔으니 나는 그것을 물리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을 통해 먼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CO 578 어떤 가르침을 내놓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는 데 그토록 성급하고 서둘러서는 안 되고 분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그 극단을 피하려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겸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언급한 다른 극단도 있습니다. 곧 우리가 교황주의자들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보라, 나는 어릴 때부터 내게 보여 준 것을 붙들겠다. 나는 내 아버지들과 조상들을 따르겠다. 그리고 이것은 오래된 것이다.” 그러면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위를 잃으셔야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아래 놓이실 만큼 높여져야 합니까? 차라리 하늘에서 해를 뽑아 바다 가장 깊은 곳에 두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더 크고 더 엄청난 혼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히 사람들에게 매달려 하나님을 뒤에 버려 두는 이런 모욕을 그분께 끼치지 않도록 잘 조심합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되, 늘 그분이 온전히 남아 계시고 사람들이 그분을 높이며 크고 작은 자들이 그분께 가르침을 받도록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 위에 가지신 주권을 조금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로 인도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분이 말씀하실 때 모든 입이 닫힌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잠잠히 귀 기울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데 방해받지 않으시게 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것을 반대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교황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입니다. “오, 보라, 겸손은 너무 큰 덕이어서 결코 하나님께 정죄받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황주의자들의겸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멍에를 물리치는 것이며, 더욱이 모든 것에서 어디서나 그분을 성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마귀적인 겸손입니까? 피조물들이 높여져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순종하고, 창조주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게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낮추되, 사람들에게 이런 온유함을 가져서 우리에게 좋고 유익한 것을 받아들이도록 온순한 정신을 가지기를 배웁시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위에 다스리시고 유일한 선생이요 박사가 되셔서, 그분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위가 그분을 조금도 깎아내리지 않게 합시다. 우리가 어떤 공상에 사로잡혀 “오,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니 그렇게 붙들어야 한다” 하고 말하지 않게 합시다. 그러면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죽을 사람이 아닙니까? 헛됨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매달리되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그분 위에 서지 않으며, 우리 믿음의 확신이 CO 579 그분의 말씀에 결합되고 연합되지 않을 만큼 매달리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분별, 지각과 계략이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께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해가 빛날 때 그것은 별들의 빛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앞에 나서실 때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빛나실 때 모든 피조물이 그쳐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사 24:23). 그리고 특별히 욥은 여기서 하나님 안에 모든 지혜의 완전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 말로 되풀이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무엇을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으면 거기에 무엇을 덧붙이고 무엇을 섞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대로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서는 기우거나 땜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를 내놓으실 때 그것은 순수하고 단순해야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아무것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욥은 우리가 언급한 대로 더 나아가려 했습니다. 곧 하나님 안에는 감추어져 있고 모든 인간 정신을 넘어서며 우리가 아직 이를 수 없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에 관해서는 이런 방식과 저런 방식으로 지혜로우신 것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126] 하나님의 지혜는 나눌 수 없고 가르거나 쪼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 관해서,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지혜로우십니다. 곧 우리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담긴 이

126. 원문에는 'quant à moy' (나에 관해서는)로 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지혜 자체는 나뉘지 않는다는 문맥에 따라 'quant à soy' (그분 자신에 관해서는)의 뜻으로 보고 옮겼습니다. 이 대목의 판독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가르침을 받았을 때 지혜롭게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분이 피조물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 안에 간직하시는 이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계획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지각으로는 아주 혼란스럽다고 여기는 일들을 배열하십니다. 뒤에서 말하겠지만 폭군들이 다스리고, 가엾은 사람들을 꾀어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악인들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무엇인지 캐묻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각이 삼켜져야 할 만큼 깊은 심연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께서 자신 곁에 간직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거기 이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이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기뻐하신 것을 우리 분량과 몫대로 깨달아 지혜롭게 되었을 때, 그분 안에는 아직 우리가 경배해야 할 비밀들이 있다는 것을 압시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고 그렇게 높이 오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욥도 뒤에서 더 넓게 풀어 나가는 대로 그것에 대해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니 나머지는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47편

욥기 12장 설교 3

CO 33:580–592

> 그분이 허무시면 다시 세울 수 없고, 그분이 가두시면 풀어 줄 수 없네. 그분이 물을 막으시면 모든 것이 마르고, 그분이 그것을 내보내시면 땅을 휩쓸어 버리네. 힘과 능력이 그분께 있네.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그분께로부터 오네. (욥 12:14–16)

CO 580 이 설교도 앞 설교에서 다룬 14, 15, 16절에 대한 것입니다.[127]

CO 581 우리는 여기 이야기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되는대로 흘러간다고, 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 아무 이유도 목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분께 그분의 교훈을 읊어 드리고, 그분이 해야 할 것을 보여 드리며, 마치 그분이 잘못하시는 것처럼 그분을 바로잡으려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지각에서 혼란에 빠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꾸짖으려 할 만큼 무모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욥은 여기서 그가 언급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계략과 지혜를 인정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란스러운 일들을 볼 때 아무것도 운수에 돌려서는 안 되고, 위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분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낯설게 여기더라도 그것에 대해 말대꾸할 만큼 주제넘지 말고, 그분 안에 있는 감추어지고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경배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그가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 돌린 두 조항입니다. 곧 능력이 그분께 있고,

127. 원문에는 '11, 15, 16' 으로 되어 있으나, 앞 설교에서 다룬 본문에 따라 14절로 읽었습니다.

계략과 지혜와 분별이 그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이 세 말을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많은 계략과 이성을 가지려 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좋게 여겨 만족할 수 없을 때 그들에게 있는 그 어리석은 교만을 억누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의 의도를 잘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께 앞에서 말한 그 지혜를 돌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일에서 어떤 이유들을 알아챌 수 있을 것이고, 그분도 사람들이 그분이 왜 이것이나 저것을 하시는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늘 그런 것은 아니며, 우리는 그것을 일반 규칙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분의 진리를 물리친 자들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아주 분명한 복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분께 가르침받기를 원하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모든 앎을 빼앗으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분의 말씀을 거두시는지 모르고, 우리는 어리둥절해집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분의 엄밀한 계획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그분의 일의 이유도 목적도 알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의롭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우리 정신의 연약함이 우리 앞을 막아서서, 우리가 무한한 것을 우리 지각 안에 가두고 재려고 주제넘게 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 놓인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허무시면 아무도 다시 세우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거스르시면 우리가 모든 피조물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것이 이 명제에 담긴 것입니다.

그런데 첫눈에 우리는 그렇다고 잘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러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도울 수단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재주로, 혹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려 하기만 하면 그 악에서 잘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고 살피며 처방을 마련할 생각을 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효력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던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실 때 첫째 처방은 그분의 손 아래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분과 화평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우리 필요를 채울 수단을 CO

CO 582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도록 그분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거슬러 무장하는 것은 그분의 손에서 오는 타격을 물리치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의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는커녕 완전히 거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낮추려 하실 때 세상에는 반역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르침을 잘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억에 떠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무시려 하는가?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분이 친히 거기에 손을 대셔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거슬렀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그분께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심판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그분 아래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가 이렇게 엎드렸을 때 그분이 우리를 받아 주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위협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에돔에 대해 그분이 그것을 허물기로 하셨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일으키려 애써도 헛수고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말 1:4).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거스르시면 사람들과 피조물 쪽에서 우리에

게 오는 모든 도움이 헛되고 쓸모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에) 우리를 지킬 것을 충분히 가질 수는 있겠지만 아무 유익도 느끼지 못할 것이고, 모든 것이 우리 소망과 거꾸로 갈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누구든지 그것을 다시 세우려 하는 자는 그의 맏아들 위에 기초를 놓아야 하리라고 말합니다.[128] 곧 하나님의 심판에 맞서려는 모든 자는 그전에 고난을 당한 자들의 뒤를 따르고 그들 자신이 그들과 동무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강하게 되고 그 손으로 우리 처지에 지켜지기를 구합시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온 세상이 우리 편이라 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곧 사람들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어도 아무리 집을 지어 봐야 소용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로 물리시리라는 것입니다(시 127:1). 그리고 '세운다' 는 이 말로 욥이 사람의 처지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담는다는 데는 의심이 없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네. 그분이 우리를 어떤 길에 들어서게 하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거기서 굳게 서야 하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없애고 완전히 망하게 하려 하실 때, 우리가 아무리 해 봐야 소용없네. 사람들 쪽에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쓸모없을 것이기 때문이네." 반대로 하나님을 우리 편에 모시면 우리는 우리를 거스르는 모든 것을 무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가 되실 때, 우리가 가능한 모든 편의를 가진다 해도 모든 것이 우리에게 수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요점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두시면 아무도 CO 583 그를 위해 열어 줄 수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마치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128. 1563년 초판(255쪽)에도 '바벨론' (Babylone)으로 인쇄되어 있어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시 세우는 자가 맏아들을 잃는다는 저주는 보통 여리고에 대한 여호수아 6:26의 말씀입니다.

자유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라는 것, 그분이 원하실 때에는 (우리가 손발이 자유로운 것 같아도) 우리가 모든 지체가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으리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끌어내려 애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두어 두시는 동안에는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는 제가 이미 언급한 것을 나타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우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나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 나빠지기만 할 것이며, 우리가 첫 번에 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소멸하실 때까지 조금씩 무너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뒤에 그는, 하나님께서 물을 막아 두시고 가로막으시면 가뭄이 들 것이고, 하나님께서 물을 풀어 놓으려 하시면 모든 것을 휩쓸어 갈 급류가 생겨서 땅을 뒤엎는 것처럼 나무도 집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으리라는 것도 덧붙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욥이 물을 막아 두고 풀어 놓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한결같이,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일할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해가 뜹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평범한 일이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를 만큼 충분히 깨어 있지 않습니다. 비가 내립니까? 그것은 우리 정신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를 볼 때 누가 그것을 보내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이시라고 잘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생각은 우리 안에 생생하게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있고 그분이 우리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 자신을 낮추도록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여기서 우리에게 더 드물고 사람들에게 그리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골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오래가는 가뭄을 볼 때에는 그때 모두가 감동받습니다. 날씨가 좋고 그러는 동안 어느 정도 비가 와서 땅이 완전히 마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큰 가뭄이 와서 사람들

이 알아챌 정도가 되면, 곡식이 자랄 수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며, 씨앗이 땅속에서 말라 죽고, 아무 열매도 거기서 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통을 넘어서는 그런 가뭄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감동받습니다. 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좀 오고 그것이 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나가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계속 와서 모든 강이 넘쳐 홍수와 같은 것처럼 보이면, 그때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고 새깁니다. 이것이 욥이 말하려 한 것입니다. 곧 자연의 질서가 CO 584 바뀌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모든 것이 타 버릴 것처럼 보이는 극심한 가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운수에게 고삐를 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모든 것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될 만큼 큰비를 보내실 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시다. 그런데 가뭄이 때로는 아주 드러난 죄 때문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수가 왜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율법에서, 하늘을 닫으셔서 그것이 놋과 같아 물 한 방울도 끌어낼 수 없게 하고, 땅이 쇠처럼 굳어지게 하며, 씨앗이 시들고 땅이 그것에 아무 양분도 힘도 주지 않게 하겠다고 위협하시는 대로입니다(신 28:23). 땅이 목마른 것처럼 입을 벌리고 갈라질 때 하늘도 귀가 먹어 그것에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에서 그런 벌을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행하겠다고 위협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것이고,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유를 보여 주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앎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 목적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이 물에 잠긴 것처럼 되거나 가뭄에 타 버린 것을 볼 때, 모든 면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말입니까? 그것을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분의 능력을 인정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분의 능력에 그런 지혜를 덧붙여서, 우리가 그분을 거슬러 불평하지 않고 그분을 폭정이나 지나침으로 고발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사실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러는 동안 그분 안에 폭군 같은 권능을 상상하는 것으로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미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려면,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고, 그와 함께 무한하여 우리가 이를 수 없는 그분의 지혜를 경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것이 우리 지각에 굴복되어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명하셔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욥은 다시 모든 능력과 모든 솜씨가 올곧음과 함께 그분께 있다고 되풀이합니다. 여기 있는 둘째 말은 '있다' 에서 온 말이어서 '존재' 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떤 겉모습은 있지만 그러는 동안 굳건함은 없는 모든 것에 대한 말로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어떤 겉모양을 가지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어서 곧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붙드시지 않으면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굳건함이 있습니다. CO 585 늘 계셨고 계실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에게 어떤 능력을 가지게 하셔서 그것들이 제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거기서 잘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주 하나님의 율법과 가르침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군주의 명령이나 칙령을 뜻하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욥이 그분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시다고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완전하게 지혜로우시고 그분의 계략이 놀랍다고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올곧음, 곧 그분이 가지신 통치에 대해 말하려 한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우리

는 그분이 세상의 심판자이신 한 모든 것을 공평으로 다스리셔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앞에서 한 말을 되풀이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욥이 그것을 되풀이하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우리가 이 생각에 이르기는 어렵고, 거기 이르렀을 때에도 그 기억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곧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제가 무슨 뜻인지 잘 주목합시다. 곧 하나님 안에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공평과 올곧음으로 배열하시는 세상의 통치도 그분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잘 외웠을 때 우리는 하루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많은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욥이 이 가르침을 되풀이하는 특별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는 그가 말한 것들보다 우리에게 더 낯선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가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와 속는 자를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시다고 말할 때 그렇습니다.

여기 모든 이성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들을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시고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몰아붙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본성과 완전히 모순되는 요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욥은 이 서문을 썼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무모하게 덤비지 않도록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첫눈에 우리를 어지럽히는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억제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벗어 버리지 않으시면 그분을 거슬러 일어나 그분을 성나게 하고 모독하는 많은 들짐승처럼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열하고 가증한 말을 거리낌 없이 토해 내는 자들을 봅니다. 곧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몰아붙이시기까지 모든 것을 하신다면 그분이 의로우시다고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면 그분이 죄의 장본인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들에게 그것을 계시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공상에 맞추려 하고, 그분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더라도

그것을 경배하려고 CO 586 그것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을 자기 방식과 자기 욕구에 굴복시키지 않으면 그분께 전능하심을 인정해 드릴 수 없는 교만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담대로 가장 무지한 자들이 가장 대담합니다. 그들은 "오, 보라,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우리는 여기서 가엾은 바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학문에서 박사 행세를 하지만, 너무나 무지해서 딱할 지경이고, 그들 안에 어리석음밖에 없다는 것이 잘 알려집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다" 하고 말할 대담함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서 가장 박식하고 가장 예리한 사람이라 해도, 그가 감히 이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뿔을 쳐든다면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가증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욥이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알맞고 유익한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을 봅니다. 곧 그가 하나님께서 속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을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시다고 말하려 했을 때, 능력과 솜씨가 그분께 있다는 이 서문을 두었다는 점에서입니다.

이제 우리 정신을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머릿속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늘과 땅에 가두는 일이라 해도 그척도는 너무 작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거기까지 자기를 높이려듭니다. 묻건대, 그것은 창조주가 계신지 안 계신지 더 이상 알지 못하고 자기가 무엇인지 돌아보지 않는 괴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기 선언된 것을 잘 간직합시다. 곧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들과 속는 자들을 그분의 손과 그분의 이끄심 아래 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어렵게 여기더라도, 그런데도 그것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들이 이 세상에서 그분의 뜻을 거슬러, 그리고 그분이 관여하시지 않은 채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어떻게 전능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오, 그렇다, 그러나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는가?"

하고 말할 것입니다. 너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아야 하고, 네가 거기 이를 수 없으니 네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온 겸손으로 경배해야 한다. 너는 구름 위로 올라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분으로 인정받으셔야 한다. 그리고 네가 아직 그 이유를 알아채지 못한다면, 그렇다, 하나님께서 지금 네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네게 계시하실 때까지 잠잠히 안식 가운데 기다려라. 지금은 거울로 보듯 희미하게밖에 바라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고전 13:12)? 우리가 성경을 위조하려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에 담긴 것을 소화할 수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섭리를 부패시키고 흐리게 하는 이 뽐내는 짐승들은, CO 587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로 아무것도 남겨 두지 않으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토록 무지하고 둔한 것이 보일 때, 그분이 그들을 더 큰 학자로 만들지 않으셨다고 그분을 고발하지는 왜 않습니까? 그들이 그런 척하지만 그들에게는 판단력도 분별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한 때문이든 다른 이유에서든 그들을 높이 평가해도, 어쨌든 그들이 더할 나위 없이 둔한 짐승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예리한 정신을 주지 않으셨다고, 그들이 학교에 가서 더 유익을 얻을 수단을 가지지 못했다고 그분을 고발하지는 왜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자격있는 자라고 생각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 두셨으니, 그분이 그들을 그들의 욕구대로 대하지 않으신다고 그분을 고발하지는 왜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너무 유능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개선 마차에 태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는 동안 그들은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셈에 불러내려 한다면 그분을 고발할 말대꾸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여기서 하는 말을 간직합시다. 곧 하나님 안에 있는 계략과 지혜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더라도 그것을 경배하는 이 단순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욥이 여기서 그릇 가는 자와 속이는 자에 대해 하는 말로 가 봅시다. 그가

그 둘, 곧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들이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명제는 너무 싱거워서 아무것도 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여기서 헤아릴 수 없고 우리 지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으셨고, 그토록 악하고 속이는 자와 속는 자를 바라보신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낯선 심판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자연의 일반 질서를 넘어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이 더 나아가려 했다는 것을 봅니다. 곧 어떤 사람이 그릇 가고 속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 없이,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정하시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한 속이는 자가 그의 술수와 간계를 이룰 때 그 위에서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의의 혐의에서 변호하려는 자들은 그분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허락하실 뿐이지 그분이 그것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핑계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묻건대, 그들이 이 구절을 풀 수 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능력과 올곧음이 있다고 말한 뒤에, 속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그분의 손에 있다고 덧붙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욥은 속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그분의 손에 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세상의 통치를 가지신 방식을 인정합니다. 단순한 허락이 있을 뿐이라면 욥은 아주 잘못 말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셔서 그분이 정하신 것 말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결론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우리는 CO 588 이미 언급한 것을 간직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들이 속기를 원하시되 드러난 이유로 그것을 원하실 것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어디서 나오고 어떤 목적을 향하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높이 이르기에는 너무 무지하고 연약하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정신을 가두고 굴레를 씌워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임이 다스리고 사람들이 미혹되기를 원하신

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 줍니다. 거기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하시며 허가만 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명령하십니다. 그분이 "누가 가서 속이겠느냐?" 하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들을 찾으시고 속임이 판을 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토록 분명한 구절을 흐리게 하려고 무슨 주석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귀가 나서서 "내가 가서 모든 선지자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을 꾀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내셔서 그가 왕과 온 백성을 속이고 눈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왕상 22:20–22).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는 내버려 두겠다" 하시며 한구석으로 물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정하시고 배열하신다는 것을 잘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전능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 이 칭호를 돌릴 때, 그것은 그분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쉬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실행과 함께 뜻합니다. 곧 그것이 모든 것에임재하고, 하나님께서 배열하신 것 말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없애거나 제한하려고 이렇게 얼버무리려는 자들은, 마귀적인 광기에 사로잡힌 지각없는 자들답게 우리 신앙의 첫 조항을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정된 요점이고, 우리가 성경을 위조하려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미혹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구절이 주목할 만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실제로 겪으므로 우리에게 그만큼 더 친숙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교회의 앞날을 다루면서, 배교가 있으리라고, 사람들이 복음이 설교된 뒤에 배교자가 되어 하나님을 떠나고 온 교회에 무서운 흩어짐이 있으리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살후 2:3, 9–11).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교황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토록 오랜 기간 그릇 가도록 허락하셨겠는가?" 하고 말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리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허락입니까? 아닙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주시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CO 589 그분이 사람들을 속이도록 사탄에게 고삐를 풀어 주시리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속임과 거짓이 힘을 가져야 하고, 사람들이 그것에서 자신을 지킬 수 없어서 그것에 미혹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복수를 봅니다. 곧 사람들이 눈이 멀어 사탄의 거짓과 속임을 알아채지 못하고 말 못 하는 짐승처럼 휩쓸려 갔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드러난 이유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흩어짐이 사람들의 배은망덕 때문에 일어나리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거절했으니 사람들의 멍에를 메고 그들의 폭정에 복종해야 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진리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짓을 실컷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그것을 다루는 대로입니다(롬 1:28). 그러므로 세상이 속기를 바라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것을 비추려 하실 때 눈을 감으니, 사탄이 그것을 속이고 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를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캐묻는다면, 오래 빙빙 돌아다녀도 그들은 거기서 당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흔히 말하듯 멍에를 메고 그분의 능력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온 올곧음과 공평으로 다스려진다는 것을 알고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을

속이도록 꾀는 자들을 일으키시며, 거짓 가르침과 그릇된 관행과 이단들이 판을 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벌하시려고 사탄에게 그런 힘을 주실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 밖에, 여기서 많은 질문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쓰신다는 것이 가능한가? 그 안에는 악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 "여기 모든 선을 비뚤어지게 하고 그것을 허무는 것 말고는 다른 의도가 없는 악인이 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하고 그것을 이룬다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섬겼으니 그는 무죄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사람들은 우리 정신을 어지럽히는 이런 질문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욥은 이 서문을 썼습니다. 곧 하나님께 능력과 통치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해 그분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시니 그분이 그분의 피조물을 그분의 뜻대로 배열하시는 것이 마땅하며, 그분이 세상의 심판자이시니 그분은 악을 행하실 수 없고, 그분이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벗어나시는 것은 불가능하며, 올곧음밖에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모든 의의 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가 한 일을 살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위에 있는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뜻은 CO 590 선에서 악으로 바뀌기 쉽고, 더 나쁜 것은 본성적으로 완전히 악하고 굽고 비뚤어져서 거기에는 아무 올곧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공상에 이리저리 휩쓸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살펴져야 하고 상위의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다스린다면 그들의 일에는 혼란밖에 없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조차 율법이 하나님처럼 우리 위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율법이 되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뜻에 이를 때, 그것은 모든 의의 규칙입니다. 우리가 맞추고 복종해야 할 의는 우리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룬 대로 하나님의 의는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그분이 그분의 율법에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으로, 그분은 그것을 따라 세상이 다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하나는 헤아릴 수 없는 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때때로 눈을 감아야 하고 어떻게, 왜 그런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떤 일의 이유가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을 때, 그것은 그분의 감추어진 뜻에 있는 의이며, 그 의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알려진 이 규칙을 넘어선다는 것을 압시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많은 사람에게 어려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선언된 것으로 만족합시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니, 우리는 모두 아멘으로 대답하고 여기서 우리에게 선언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우리가 사람들이 그릇 가는 것을 보고 속이는 자들도 판을 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 외에도 사도 바울과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권고를 기억합시다(롬 9:20; 사 45:9). 곧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본다면,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나고 그분의 진리에 대들 만큼 대담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흙과 진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셨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 처지를 잘 돌아본다면,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나려고 주제넘게 굴지 않으리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물지는 못해도 짖기를 그치지 않는 이 개들도 그런 대담함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버려 둡시다.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다른 데서 대답을 찾으러 가라고 합시다.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많이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한계를 넘어가려 한다면 드러내 놓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분이 지금은 그 이유가 우리에게 감추어진 많은 일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을 CO 591 억지로 허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빗장을 걸어 "너희는 더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성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의 어리석은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방식과 문체대로 그들을 물리치기를 배웁시다. "사람아,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의 입을 막는 데에는 이 한 마디, "사람아, 사람아"면 됩니다. 이 말 아래에는 너무 많은 가난함이 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나는 이 마귀적인 교만이 있을 때 우리는 머리를 숙여야 할 뿐 아니라, 땅이 열릴 수 있다면 거기 심연에 삼켜져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이 가르침이 우리가 그것을 우리 쓰임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릇 가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다고 말할 때,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탄과 모든 꾀는 자에게 굴레를 씌우고 계시다는 것, 그분의 뜻 없이는 우리가 거짓 가르침이나 이단이나 우리를 복음의 순수함에서 돌아서게 하려는 다른 가라지들로 괴롭힘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들을, 그렇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인 사탄부터 그가 부리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시니, 그분이 그들에게 고삐를 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꾀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꾀하더라도, 속는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들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손에 있으니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깁시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가 사탄이 넘어뜨리는 자들의 무리에 들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내놓으러 올 거짓을 늘 이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불평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어 CO 592 "오, 나는 이 모든 것에 맞서 논쟁하겠다. 사람들이 내게 이유를 대지 않으면 나는 결코 굽히지 않겠다" 하는 어리석은 허세를 부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허세를 부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온 경외로 경배하도록 우리 자신을 낮춥시다. 그리고 세상에서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서 우리에게 멸망에 빠지는 것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피조물 위에 최고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 거기서 확신을 얻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원수 사탄의 간계와 사람들의 모든 간계와 속임을 뒤엎으셔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 하시고 이단들이 활개 치며 많은 소요가 있도록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것을 보더라도, 오, 그분은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잘 지키실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미혹의 역사를 주시는 것은 그분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택함받은 자들이 구원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마 24:24). 사정이 이러하니 우리 하나님의 보호에 우리 자신을 맡깁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구원의 책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기를 기뻐하셨으니 그것으로 만족하여, 안식 가운데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겠는가? 우리가 쓰러질 위험이 있다" 하며 불안에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가 늘 경계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데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부르고 순결한 삶 가운데 행할 때, 그분이 우리를 지키셔서 세상의 모든 소요가 우리를 해칠 수 없고 우리가 늘 그분의 진리에 굳게 서며, 사도 바울도 말하는 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가 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48편

욥기 12장 설교 4

CO 33:593–604

> 그분은 모사들을 약탈당하게 끌고 가시고, 재판관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시네. 그분은 왕들의 띠를 푸시고, 그들의 허리를 띠로 동이시네. 그분은 군주들을 약탈당하게 끌고 가시고, 강한 자들을 가두시네. 그분은 진실한 자들에게서 말을 빼앗으시고, 군주들에게서 마음을 빼앗으시네. 그분은 귀족들 위에 멸시를 쏟으시고, 강한 자들의 힘을 빼앗으시네. 그분은 감추어진 것들을 밝은 데로 내놓으시고, 죽음의 그늘을 빛 가운데로 내놓으시네. 그분은 민족들을 넓히시고 그들을 멸하시며, 나라들을 펼치시고 그들을 줄이시네. 그분은 땅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에게서 마음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처럼 헤매게 하시네. 그분은 그들을 빛 없는 어둠 속에서처럼 더듬게 하시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게 하시네. (욥 12:17–25)

CO 593 우리가 어제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들과 속는 자들을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듯이, 이제 욥은 이어서, 세상에서 보이는 변화와 격변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열하시는 것이며,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울 때 위로부터 감추어진 굴레가 있다는 것, 일들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그분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정하지 않으시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는 더 두드러진 일들을 듭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더 잘 알아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군주들은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보다 특권을 누리고, 거의 일반 계층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주로 거기서 그분의 능력을 펼치시고 그것이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어떤 가엾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거나 그에게 어떤 재앙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거기에 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에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높이 들려 있는 것 같은 군주가 넘어지면 거기서 우리는 더 감동받고, 우리가 아주 둔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백성을 다스려야 할 자들이 어리둥절해져서 그들 안에 깨달음도 이성도 없을 때, 그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사사로운 사람들의 일일 때보다 더 가까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좋은 지각을 가졌고, 경험과 함께 어떤 학식도 있었으며, 공적인 통치를 다루도록 온전히 다듬어진 사람들이 갑자기 아주 둔해져서 전과 같지 않은 것이 보일 때, 그 변화는 두드러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여기서 일반 백성에 대해서가 아니라 CO 594 다스리는 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단순하고 무지한 자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분별이 알려져서 세상 하나를 이끌 만큼 충분히 유능해 보였던 자들이 그런데도 지각과 이성을 빼앗긴다고 말합니다. 요컨대 이것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드러지고 무게 있는 일들에 대해 말하므로, 욥은 그가 하는 말을 한 마디로 표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되풀이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군주들과 강하고 억센 자들을 약탈당하게 보내시고, 그들의 띠를 푸셔서 더 이상 복종이 없고 그들의 동맹이 무효가 되며, 그들이 옆구리에 칼을 차고 있어도 그것이 땅에 떨어지리라는 것, 요컨대 하나님께서 땅의 군주들을 내리치기를 기뻐하실 때 그들이 가진 수단이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거기에 힘주어 말하는 것은, 그런 게으름이 있고 또한 우리가 훨씬 더 잘 생각해야 할 것에 대해 눈멀어 있는 것을 그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간 알더라도, 욥이 말하는 대로 그것은 우리 정신에 들어올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묵상했더라도 그것에서 유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권들을 이렇게 다스리신다면 그분의 팔이 더 작은 일들에도 똑같이 미치며 아무것도 그분에게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컨대 이것이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통치권들이 바뀌면 누구나 동요하겠지만 곧 그 뒤에 우리는 그것을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역사가 여기 담긴 것으로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하나님의 이 섭리와 그분이 모든 사람 위에 최고의 주권을 가지신다는 것을 마땅히 확신할 만큼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까닭은 우리 둔함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운명의 바퀴를 상상하듯 바꾸기를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속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구 놀이에서 공을 이리저리 굴리듯 사람들을 가지고 노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좋은 상태로 정돈되면 사람들은 편안히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날뛰고, 너무 잘 먹은 말처럼 발길질합니다. 지위에 있는 자들은 자기를 잊고 CO 595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더 이상 자기 위에 굴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변화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 위에 한결같고 끊임없는 질서를 지키시는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이 그분의 모든 피조물 위에 주인이시라는 것을 느끼게 하셔야 합니다. 영예 가운데 있는 군주들이 온갖 악행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그들의 지위를 남용하지 않는다 해도, 그들은 교만으로 부풀어서 자기가 자기 재주로 얻은 그토록 높은 지위에 이를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 우리는 운수만이 다스린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묻혀 있던 것 같은 일들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그분이 모든 것을 다루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토록 큰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읽을 때, 그토록 큰 왕국이 있던 곳에서 어떻게 일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토록 낯설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무너질 수 있었는지 놀랄 것입니다. 앗수르와 갈대아의 첫 왕국들을 따라가 봅시다. 영원한 나라인 것처럼, 결코 뒤엎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 만큼 그토록 컸던 왕국을 들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제가 말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기 온아시아를 다스린 페르시아와 메대가 있습니다. 그들이 백 리의 땅을 얻어도 아무것도 아닐 정도였고, 오십만 명의 군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증언되어 있어서 지어낸 이야기나 꾸며 낸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확실성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여기삼만 명으로 삼십만 명의 군대를 무찌르는 사람이 있고, 칠십만 명의 군대를 무찌르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일을 읽을 때 놀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에 자기가 모든 힘의 꼭대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아무도 감히 투덜거리지 못하고 자기가 입김만 불어도 모든 원수를 삼킬 수 있다고 여긴 자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만함을 조롱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 큰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의 띠를 끊으셔서 그의 칼이 떨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하는 대로) 페르시아와 메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로스 대 왕이 사방에서 그런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그는 사람들이 그의 소문을 듣기만 해도 이미 패배할 만큼 벼락과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나이 의 한창때에 세상에서 거두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무엇이 남습니까? 그에게는 아들들이 있고, 아내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습니다. 요컨대 그는 그의 혈통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 만큼 큰 친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CO 596 [129]

129. 전자텍스트에는 596쪽 표시가 빠져 있습니다. 595쪽과 597쪽 사이의 분량에 따라 단락이

적어도 그의 자녀들이 이어받을 자격이 있을 만큼 큰 제국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죽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그는 신처럼 경배받으며, 그의 군사들은 그에게 그토록 큰 공경을 바쳐서 그와 그의 온 혈통을 위해 죽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온 혈통 가운데 꼬리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가 땅을 그의 잔인함으로 채웠듯이, 그 모든 자가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쏟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온 집을 멸절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그것은 놀라운 심판이 아닙니까? 성경을 한 번도읽은 적이 없는 자들도 신적인 능력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를 악물고서라도, 하늘에서 다스리시며 아무도 결코 기대하지 못했을 그런 복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역사가 그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에서 어떻게 유익을 얻습니까? 로마 제국에 이르면, 그것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도록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공화국, 곧 로마 공동체에서 권위를 가진 자들은 다른 사람이 그들의 지위를 깎아내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국은 어떻게 그것을 얻은 자에게 넘어갔습니까? 자유가 짓밟힌 것은 전쟁 의 힘으로였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은 자는 군주나 황제라고 할 만한 상속자나 후계자가 뒤에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일들이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들이 뒤섞여서 한 아이가 황제가 됩니다.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가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는 분별도 지각도 아무것도 없어서, 제국이 잠자는 그의 품에 안겨지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싸워야 할 때 그는 침대에 있었고, 사람들이 그를 억지로 일으켜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꿈에서처럼황제가 되는

나뉜 이 자리에 두었으나 정확한 위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로마라는 도시에 있던 교만을 꺾으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들판의 소몰이꾼이 황제가 되어야 하고, 자기 친형제의 아들이라는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그 어머니가 근친상간을 한 여자인 창녀의 자식이 황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어떤 친족에게서입니까? 그들이 땅에서 나왔는지 물에서 나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람들이 역사를 읽을 때 머리털이 곤두설 만큼 그토록 추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배열하셨습니다. 그런 변화가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것 말고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만큼 더 잘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시편 107 편에서 그것에 대해 더 온전하게 말하는 대로입니다(시 107:40–43). 그러므로 CO 597 욥이 이 구절에 그토록 힘주어 말하는 것이 까닭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그는 하나님께서 군주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그들에게 분별도 판단도 아무것도 없고 그들이 지각없는 자들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순간에 일어날 것이며, 그다음에 그분이 그들의 띠를 끊으시면 칼이 떨어져서 더 이상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들을 공경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신여김받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들 위에 수치를 쏟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둘은 군주들을 지탱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셋째는 감추어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두 가지는 힘과 분별입니다. 여기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권위를 가집니까? 그가 지혜롭거나, 혹은 노련한 모사들이 있어서 일들이 잘 이끌어지고, 그들이 그의 일을 가까이 살피고 대비한다면, 그것이 한 가지 수단입니다. 둘째는 왕에게 사람들이 있고, 전쟁 물자가 많으며, 동맹을 잘맺고, 그의 나라에 요새들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가 알아채는 두 가지, 곧 이 세상에서 왕국과 통치권과 나라를 지탱하는 두 가지, 힘과 분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뒤엎으시면 그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잘 깨닫는 자들에게서 지혜를 빼앗으실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모두 어리둥절해져서 어린아이들보다도 지각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감추어진 셋째 것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군주들에게 위엄을 새기셔서 그들이 영예를 받고, 더욱이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큰 갈대아 왕국을 세우려 하셨을 때 모든 피조물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주셨다고 말하는 대로입니다(단 2:38; 5:18–19). 여기 왕이었던 벨사살과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 크게 하셔서 하늘의 새들조차 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표지를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그런 교만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수단으로 통치권들을 지탱하지 않으신다면 그것들이 굳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누구나 다스리고 싶어 하고 아무도 멍에를 참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자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이 본성의 교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그 질서가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면, 어떻게 소수나 한 사람이 다스리도록 사람들이 허락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귀족이었고 사람들이 공경하던 자들 위에 멸시와 수치를 쏟으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드셔서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무시하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높이시는 것도 그분이 하실 일이고 낮추시는 것도 그분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를 잘 주목합시다. 이 세상의 CO

CO 598 군주들이 그들의 물자와 요새와 그들의 사람들과 그들의 수입과 그들을 지탱하려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신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매인 것들을 끊으시고, 그 힘을 꺾으시며, 그 띠를 푸시리라고 말합니

다. 그러므로 군주들이 그들 생각에 모든 것을 잘 갖추고 무장했다고 해서 자기가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헛됩니다.

선지자들이 말하는 대로,[130]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주들이 그들의 지혜를 신뢰한다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지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있던 그 헛된 주제넘음을 어떻게 조롱하는지도 봅니다. "바로의 지혜로운 모사들은 어디 있느냐? 애굽은 지금까지 세상에 큰 재주가 있다면 거기 있다는 명성을 얻지 않았느냐? 그런데 보라, 그들이 둔해지고 모든 판단을 빼앗겼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라졌느냐? 누가 그것을 생각했겠느냐? 오, 거기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사 19:11–14).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큰 자들은 자신을 낮추기를 배우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연기일 뿐임을 우리가 보니, 그들이 자기 분별이나 자기 능력으로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어리석은 교만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큰 자들이 거기에 자신을 맞출 수 없고 이 가르침을 들을 수 없다면, 적어도 그들의 본보기가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게 합시다.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왕들과 군주들을 무대 위에 세우셔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 각자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분의 피조물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배열하신다는 것을 알아 두려움 가운데 행하게 하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작지 않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므로 군주들은 눈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때문에 그것이 막히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그분의 학교에서 가르치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높여진 자들을 뒤에 남겨 두실 때, 그것이 그분

130. 전자텍스트에는 이 자리에 앞뒤 문맥과 이어지지 않는 'prophetes' (선지자들)라는 낱말이 홀로 놓여 있습니다. 조판 요소가 섞여 들어간 것인지 본문의 일부인지 확정되지 않아, 바로 뒤에 선지자들의 말이 이어지는 문맥에 따라 이렇게 살려 옮겼습니다.

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권들을 바꾸시고, 너무 능력 있고 억세어서 모든 것이 그들 아래서 떠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에게서 힘을 빼앗으신다면, 그들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은 어떻겠는가를 잘 주목합시다.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의 위대함이나 우리 능력을 자랑하러 가겠습니까? 여기 어디서나 다스렸던 그 큰 왕들과 군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무엇인지 모를 것을 핑계로 자기가 대단하다고 여기고 남보다손가락 반 마디쯤 높다는 이유로 구름 위로 날아야 한다고 스스로 믿는다면 (그러면 그들은 우상과 같습니다), 묻건대, 그런 뽐내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CO 599 하나님께서 거기서 큰, 기억할 만한 심판을 펼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우스꽝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교만과 거만함이 세상에서 악취를 풍기고 사람들이 그것을 참을 수 없으며 아무 기초도 구실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사사로운 사람인 우리도 뿔을 쳐들지 않도록 잘 조심합시다. 모든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그들을 대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고유한 직분이기 때문입니다(벧전 5:5). 그리고 그들이 높아지려고 애쓰고 힘쓰면 쓸수록,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려고 하나님의 손은 그만큼 더 거칠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슬러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합시다. 우리가 그분의 손과 맞닥뜨리면 그것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이미 언급한 대로, 사람들이 자기 지각이나 분별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시다. 우리는 여기서 재판관들과 모사들과 왕들에 대해 선언된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것인) 국가 질서를 지키시려고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분의 영을 넓혀 주십니다. 왕들이나 그들의 모사들이나 백성을 다스리는 책임을 가진 자들은 얼

마간의 분별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자신에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지위에 두시니, 그들은 그들의 본성에 속하지 않은 무엇인지 모를 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럴 자격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그분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그다음에 왕들과 군주들과 그들의 모사들에게서 지각과 이성을 빼앗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그분의 영을 특별하게 넓혀 주시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사사로운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온 겸손 가운데 행하기를 배우고, 우리 지각과 이성으로 이것이나 저것을 할 만큼 그토록 유능하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것을 완전히 빼앗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지각과 이성을 남겨 두시되 그러는 동안 아무 효력도 없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히도벨에게서 그 예를 보는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늘 그랬던 대로 영리한 사람이도록 허락하셨고, 그가 압살롬에게 준 계략은 큰 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아히도벨은 충분히 예리한 정신을 가졌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조금도 덜어 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의 계획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그의 모든 모사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아히도벨의 말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삼하 17:1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술수와 간계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자들에게서 효력과 힘을 빼앗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분은 욥이 말하는 대로 그들을 둔하고 어리둥절하게도 하십니다. 사람들이 살펴본다면, 사사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기 자기 CO 600 일을 너무도 잘 꾸려서 나무랄 데가 없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지혜에서 효력을 빼앗으시고 그것을 쓸모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압니다. 그러나 또한 아주 영리하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 사람들이 놀랄 만큼 어리석은 짓을 하는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 세상에 계략을 줄 만큼 그토록 앞을 내다보던 사람이 그토록 어리석고 둔한 짓에 빠질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과 분별을 주셨다면, 먼저 그것을 마땅히 쓰도록 합시다. 곧 우리 지각을 악에, 어떤 사람을 속이거나 사기나 모욕이나 손해를 끼치는 데 쓰지 말고, 선을 지키고 악을 억누르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지각을 굳게 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것이 영원한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대로 그분의 은혜를 계속 베푸셔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나를 도우셨으니 나는 그만큼 더 주께 빚졌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어떤 사람이 하루, 일 년, 평생 동안 자기 지각을 잘썼다면,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경의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나는 그것을 주께 받았고, 내가 거기에 계속 머무는 것은 나 자신에게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전에 영리하던 자들에게서 지각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어둠 속에서처럼 더듬게 하셔서 그들이 눈멀고 술 취한 자처럼 되며, 그들이 전에 가졌던 그 힘이 흘러가 버려 그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 때 말입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거기서 본보기를 삼읍시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첫째 조항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전에 귀족이었고 사람들이 공경하며 영예를 받던 자들 위에도 수치를 쏟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멸시를 쏟으시면 그들은 부끄러움으로 가득하여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이 더 이상

아무 권위도 가지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이 멸시가 올 때 아무것도 우리에게 소용이 없으리라는 것,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 멸시 속에서 볼 때 우리는 아무 모양도 생김새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리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를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큰 지위와 위엄에 높여진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왕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업신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판단과 계략이 없거나 모든 수단과 힘과 솜씨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CO 601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내쫓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골라 보면, 때로는 군주들이 너무 추하고 방탕해서 선술집이나 사창가 밑바닥에 있을 자격도 없었는데 그러는 동안 권위 가운데 지켜졌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나이도 들고 큰 분별도 있으며 전에 큰 권위도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신여김받게 하셔서 그들이 스스로 무너져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그런 일이 사람들의 일반 계층 위로 높여진 자들에게 일어난다면, 우리가 큰 지위와 명성 가운데 있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뻐하실 때 우리를 낮추시고 부끄러움으로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웁시다. 그 밖에, 욥은 이렇게 군주들과 그들의 나라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말한 뒤에, 우리가 민족들의 몸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그는 머리들에 대해 말했고, 이제 몸으로 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크고 강한 민족이 있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하시네. 다른 민족이 넓어져서 그 경계를 아주 멀리 펼치면,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좁히시네." 사람들이 흔히 그것을 운수에 돌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배은망덕으로 스스로 눈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을 뜬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점에서 너무 명백해서 아무도 그것을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선언되는 시편 107편의 끝에서도 불의가 그 입을 다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시 107:42). 악인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원하는 만큼 흐리게 하려 해도, 그들이 이렇게 온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잘 살펴보면 그들은 설득당하여 입을 다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높고 교만한 머리들을 치실 때 작은 자들이 떨고 자신을 낮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온 몸, 곧 민족들을 찾아오실 때 지체 하나하나와 사람 하나하나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나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처럼 우리는 큰 일들을 작은 일들에 적용해서, 각자 자기 개인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 겸손하게 행하고 거기에 자신을 맞추도록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온 주권을 가지신다는 것을 알면, 그분은 여기서 말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는 그분의 보호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 되리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그분께 다스림받기를 참는다면, 그분은 그분의 손을 펴서 그들을 그들의 처지에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CO 602 더욱이 그분의 능력으로 떠받쳐질 것이고, 그분은 모든 나쁜 일에 맞서 그들에게 방패와 방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높이 날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민족들을 치시는 것을 볼 때, 우리 각자가 자신을 맞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여기 담긴 것을 우리가 잘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풀이한 것에서 어떻게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한 민족을 번성하게 하셨을 때 그분이 순식간에 그것을 줄이실 수 있다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더욱이 한 민족에게 큰변동이 일어날 때,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시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잘

확정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훈을 잘 공부하고 각자 거기에 잘 익숙해져서 그것이 결코 우리 기억에서 지워질 수 없게 될 때까지, 그것은 진지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운수에 돌릴 만큼 지각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시다. (제가 말하는 대로) 이것이 우리가 시작해야 할 끝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온전한 확신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 쓰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가 그것에서 유익을 얻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말할 때 딱할 만큼 둔한 사변에 얽히기만 하고 거기서 아무 덕도 세우지 못하는 공상가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꾸신다, 하나님께서 흔드신다" 하고 충분히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을 경외하는 데 덕을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다룰 때, 성경은 우리가 거기서 그분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 알게 됩니까? 우리를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시며 삶과 죽음에 온 주권을 가지신 분을 경배하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위에 온 권위를 가지셨으니 우리가 그분께 복종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쪽에서 성경은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 통치에 관하여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이 좋게 여기시는 것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선한지 악한지 모른다" 하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르더라도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다고 고백하고 그 감추어진 지혜를 경배합시다. 그리고 그 밖에, 그분이 왜 이렇게 세상의 나라들을 바꾸시고 흔드시는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또한 일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 눈을 뜨고 있도록 합시다. 여기 하나님께서 한 민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순전한 선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때 CO 603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공로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께서 이 민족 위에 그분의 선하심을 펼치셨으니, 그분이 그만큼 그 일로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 민족이 모든 악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아오신다면, 거기서도 그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딱할 만큼 큰 혼란을 보지만, 홍수와 같은 불의도 봅니다. 크고 엄청난 악덕에 빠진 나라가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매가 곧, 곧 얼마 뒤에 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자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멸망하는 자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정죄했습니까? 곧 우리 자신에게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타격 전에 우리에게 경고하셔서 각자 돌아서게 하시는 그 선을 베푸실 때, 우리가 남의 희생으로 유익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에서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은 데로 내놓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과 같은 캄캄한 어둠, 곧 지옥의 어둠과 같은 것을 그분이 좋게 여기실 때 밝은 데로 다시 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은 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표현합니다. 곧 가장 기억할 만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는 것입니다. 그가 일반적이고 평범한 일들에 대해 말한다면, 이미 풀이한 대로 우리는 잠든 것처럼 되어 그것이 우리를 별로 건드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지각이 놀랄 만한 방식으로 일깨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게으름이나 어떤 둔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감동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욥이 하나님께서 죽음의 어둠을 밝은 데로 내놓으시리라고 말하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분의 해를 비추신다. 우리는 밤이 그 길을 가고 낮이 뒤따르는 것을 본다. 여기 크고 놀라운 변화가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평범하므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기서 비범한 것을 언급하려 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변화를 일으키셔서, CO 604 마치 지옥이 위로 들려 올라오고 죽음이 들려 올라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어둠이 이렇게 빛으로 바뀔 때, 그것은 낯설고 아무도 결코 기대하지 못한 방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보다 그분의 능력을 더 잘 생각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을 잘 간직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토록 많은 가르침에서 충분히 유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크게 감동받아야 할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는데도,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고 더 크게 외치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을 때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곁에서 천 가지 말을 해도 그는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도, 잠든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면 그는 깨어납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무리 낮게 말해도 그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어야 할 많은 것을 보여 주시지만 우리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깨우시려고 큰 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섭리를 그만큼 더 잘 생각하고 이렇게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신다. 그러므로 이제는 게으를 때가 아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심판에서 유익을 얻으려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분의 보호 아래 피하도록 힘씁시다. 그분이 모든 피조물을, 그렇습니다, 값도 평가도 보잘것없는 작은 참새들까지도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시다면(마 10:29–31), 그분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입양하신 대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49편

욥기 13장 설교 1

CO 33:605–617

> 보게, 내 눈이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내 귀가 그것을 듣고 깨달았네. 나도 자네들만큼 아네. 나는 자네들보다 못하지 않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말하고, 그분과 따지고 싶네. 자네들은 거짓을 지어내는 자들이요, 아무 쓸모없는 의원들이네. 자네들이 잠잠하면 좋겠네. 그러면 그것이 자네들에게 지혜로 여겨질 것이네. 내 변론을 듣고, 내가 따지는 것을 깨닫게. 자네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고, 그분을 위하여 거짓으로 말해야 하겠는가? 자네들이 그분을 편들려는가? 자네들이 그분의 소송을 변호하려는가? 그분이 자네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이 좋겠는가? 자네들이 사람을 놀리듯 그분을 놀리겠는가? 자네들이 은밀히 그분을 편든다면 그분이 자네들을 책망하실 것이네. (욥 13:1–10)

CO 605 우리 각자가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자기 동료보다 못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 그것은 아주 악한 일입니다.[131] 우리가 남에게 보이고 지혜롭다고 여겨지려는 이 어리석은 욕구를 가질 때, 그것이 우리 사이에 많은 다툼을낳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에 대해 말하는 대로입니다 (빌 2:3). 이 야망은 모든 다툼의 어머니요 근원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겸손으로 선하고 합당한 것에 복종하고 남들 위에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결코 평화롭게 서로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 가장 높이 평가받기를 주장하는 이 허영을 가진다면 곧바로 불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는 성경이 우리

131. 전자텍스트의 표제에는 '제3장' (III. CHAPITRE)으로 되어 있으나, 1563년 초판(265쪽)의 표제와 쪽머리와 본문에 따라 13장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에게 내놓는 것을 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서 그 은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의 연약함과 악덕을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머리를 숙이게 하고, 우리가 물리치려고 주제넘게 굴었던 자들을 존중하게 하며, 그분의 은혜가 전혀 없지는 않은 자들을 업신여겨서 하나님께 모욕을 끼칠까 두려워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은 말한 자들보다 자기를 앞세우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나도 자네들만큼 깨닫네. 나는 못하지 않네. 내 귀가 이것들을 들었고, 내 눈이 그것들을 보았네" 하고 말합니다. 욥은 여기서 그가 말하는 이 세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더 유능하다는 평판을 얻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야망에 이끌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그들의 자만으로 그를 짓누르려 했고, 더욱이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의 공상대로 비뚤어지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기가 그들보다 그것들을 더 잘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CO 606 [132] 이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라면 자신을 낮추어 그렇게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헛된 주제넘음으로 더 이상 부풀지 않는 데까지 자신을 맞추기 전에는, 그들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기를 너무 높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려면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욥이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자들이 완고해져서 자기 지혜에 대한 눈먼 주제넘음에 머물러 있었다 해도, 욥은 진리가 들려지기를 원하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물리친다 해도 그것이 그래도 권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요컨대 이것이 욥의 의도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때때로 사람들 사이에서 앞서 나선 자들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헛된 영광에 이끌리지 않았고 사람들 사이에서 평가받기를

132. 전자텍스트에는 606쪽 표시가 빠져 있습니다. 605쪽과 607쪽 사이의 분량에 따라 단락이 나뉜 이 자리에 두었으나 정확한 위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하거나 바라는 그런 정신에 이끌리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왜 그는 자기를 높이는 데 익숙한 자들과 자기를 비교합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오랜 혈통이냐? 나도 내 친족을 셀 수 있다. 그들이 율법에 열심이냐? 나는 그들만큼, 혹은 그들보다 더 그렇다. 나는 흠 없이 살았다. 그들이 어떤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느냐? 나는 어릴 때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좋은 스승이 있었다"(고후 11:22; 빌 3:5). 거기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그에게 박수를 치고 그를 아주 큰 자로 여겨 높이 평가하게 하려고, 흔히 높이 평가받는 모든 것을 모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이 그것이 어리석음이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너희가 나를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여, 날개를 펴고 사람들 사이에서 높여지려고 이것저것을 내세우는 자들의 방식대로 하게 만든다. 나는 그것을 써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내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고후 12:11). 왜 그렇습니까? 그는 고린도 사람들과 그들 같은 자들이 아무 가치 없는 사람들의 헛된 명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귀가 가려워서 그런 교사들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업신여김을 받았고 그 말씀꾼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을 주목할 분별도 판단도 없던 자들은 멋진 과시만 있고 거룩함은 전혀 없는 자들에게 끌려다녔습니다. CO 607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보여 줍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수단으로 자기를 내세운다면 나도 그들처럼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그만둔다. 우리가 평가받아야 할 것은 그런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마지막에 결론짓는 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정받으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고후 5:17). 그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은 이것이지, 사람들이 즐기는 그 모든 허풍이 아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는 동안 (우리가 보는 대로) 사도 바울은 세상을 따라

어떤 우위와 지위에 있으려고 큰 칭호들을 내세우던 자들보다 자기가 못하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 주려 했습니다. 이제 욥도 그렇게 합니다. 그는 이 사람들이 평판이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진리를 발밑에 두려 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욥은 그의 편에서 자기도 그들처럼 그것들을 잘 깨달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그들에게 더 겸손하고 가르침을 잘 받는 자가 되라고 권고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고칠 수 없고 그들의 어리석음에 고집을 부린다 해도, 욥은 그런데도 그들이 비뚤어지게 한 듯한 하나님의 진리가 마땅한 대로 온전한 권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째 요점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나 평판을 구하지 말라는 일깨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진리를 지키는 대신 모든 것을 부패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 어리석음 속에서 어리둥절해지고 완전히 우스꽝스럽게 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광을 구하지 않도록 잘 조심합시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이 사람들이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에게서 온 것이 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사람들이 거기에 복종하게 하려는 이 목표를 향하게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본을 보이게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좋고 참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이 표지를 두십니다. 곧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것으로 그가 진리의 일꾼이라는 것이 알려진다는 것입니다(요 7:18). 그러나 그가 높여지고 평가받기를 구한다면, 그는 꾸미고 모든 것을 부패시킬 수밖에 없고, 순수한 가르침이 그의 야망으로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하는 말로 가 봅시다. 그는 "자네들은 거짓을 지어내는 자들이요, 아무 쓸모없는 의원들이네. 나는 자네들이 잠잠하기를 바라네. 그것이 자네들에게 지혜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네" 하고 말합니다. 욥

이 위에서 말한 자들을 거짓을 지어내는 자들이라고 부를 때,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지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덧붙여진 말, 곧 그들이 아무 쓸모없는 의원들이라는 말을 봅시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본 처방을 아주 잘못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놓은 이 가르침이 선하고 거룩했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CO

CO 608 욥이라는 인물에게 잘못 맞추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의원이 좋은 약을 고르기는 했지만 어떤 사람의 병이나 체질과 본성을 알지 못한 채 "오, 여기 좋은 약이 있다. 그것은 검증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진행한다면, 한 사람을 살렸을 때 다른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은 분별이 있어서, 자기가 치료하는 사람의 체질이 어떠한지, 또 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들을 아무 쓸모없는 의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목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일상적인 양식이요 그들의 음식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에게 약으로도 쓰여야 합니다. 빵은 늘 그 익숙한 쓰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병을 고치고 우리를 그것에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분별 있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뒤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어떤 가엾은 사람이 낙심해 있고 그의 양심이 어지러워 그가 절망에 가까운 것을 우리가 보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하나님의 위협과 그분의 복수를 내놓는다면, 그를 더 깊이 떠미는 것 말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미 흔들리는 담을 보고 그 위를 망치로 세게 내리친다면, 그것은 그 담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상대하는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에 겁에 질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가엾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가엾은 죄인들을 그토록 부드럽게 그분께로 부르실 때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위로받고 기쁨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은 그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뻔뻔하고 하나님을 성나게 하며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는 모든 말을 조롱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그들을 달래러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밀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리라고 내놓는다면, 그것은 어리석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생생하게찔릴 필요가 있고, 위협받을 필요가 있으며, 할 수만 있다면 마음 깊은 곳까지 상처를 입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성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경이 우리 영혼의 영적인 약이므로, 각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는 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봅시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신 고난에 끝까지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보았습니다. 곧 그의 인내가 단련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내를 주시지만 거기에 많은 연약함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엾은 사람은 길을 잃고, 하나님을 거슬러 CO 609 끓어오르는 거품을 내뱉기 때문입니다. 그가 완전히 넘쳐흐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는 마땅히 지켜야 할 절제와 분수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욥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히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보지 못하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 몰아붙이시고 자기를 더 아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를 위로하는 자들은 무엇을 하러 옵니까? 그들은 그에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이유 없이는 사람들을 벌하지 않으시고(그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가혹하게 대우받는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각 사람이 받을 만한 대로 하나님께 대우받는다고

결론지을 때 그들은 개별 사례에 잘못 적용하고, 우리는 완전히 반대를 봅니다. 선하고 참된 일반 원칙에서 그들은 잘못된 결론을 끌어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사람들이 죄인이며 그들이 마땅히 받을 만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할 나위 없이 괴롭히신다고 해서, 그러는 동안 똑같은 척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죄지은 모든 자를 벌하시며 마지막 날로 아무것도 남겨 두지 않으신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욥이 악인이고 위선자이며, 하나님께서 그가 버림받은 자라는 것과 그 전에 그에게 꾸밈밖에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신다는 결론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참된 원칙에서 가져와 끌어내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들을 아무 쓸모없는 의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을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마땅한 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그것을 맞출 줄 아는 솜씨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서 유익을 얻게 하시며, 그것을 남용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흔히 말하듯 머리채를 잡아끌듯 이리저리끌어다 쓰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우리 이웃을 가르쳐야 할 때 그들에게 알맞은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봅시다. 사도 바울은 성경이 가르치고 권하고 일깨우고 꾸짖고 책망하는 데 유익하다고 말합니다(딤후 3:16).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말을 건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자기 잘못을 탄식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만을 구하는 가엾은 죄인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고 맞아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을 그에게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해야 합니다. 반대로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을 본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도록 그의 단단한 머리를 망치로 두들겨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을 본다면 나귀처럼 그를 찔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그 유익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는 CO 610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 이웃에게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그들을 괴롭혀서 겁에 질려 있을 때 그 속에서 자기를 기르는 자들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협을 너무 엄하게 받아들여서, 절망에 이르는 것이 아무리 빨라도 충분히 빠르지 않은 것처럼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조심합시다. 오히려 우리가 완전히 절망한 자이며 우리를 달래 줄 처방이 더 이상 없다고 우리에게 믿게 하려는 사탄의 간계를 볼 때, 그에게 맞서고 처방을 적용합시다. 일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려 줄 어떤 부드러움을 찾고, 그분의 약속에 들어가며, 거기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의 모든 지각을 거기에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 안에 게으름이 너무 많아서 우리를 찌르고 몰아붙여야 할 것을 볼 때, 성경에 있는 권고를 붙잡도록 힘씁시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알맞고 맞는 것을 살펴서,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이웃에게도 좋은 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의 친구들이 잠잠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지혜로 여겨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말은, 솔로몬도 쓰는 흔한 속담을 따른 것입니다. 곧 미련한 자도 잠잠하면 지혜롭다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잠 17:28). 사람의 어리석음이 늘 그 안에 남아 있고 그가 그것을 몰래 기른다면, 그가 자기추함을 덮었다고 해서 별로 얻은 것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를 억제하고 자기 혀를 조절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이미 유익을 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어리석음을 온전히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표시입니다. 얼마 동안 자기 어리석음을 덮을 수 있는 자들이 보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은 드러나서 있는 그대로, 곧 미련한 자로 알려져야 합니다. 어쨌든 사람이 잠잠할 줄 안다면, 그의 머리가 약하고 그에게 필요한 만큼의 분별이 없더라도, 그가 자기를 알아서 자기 악덕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고치려 애쓰는 것은 그에게 큰 지혜입니다. 저는 이 어리석음이 사람 안에 남아 있을 때에도, 그가 자기 분수를 넘어서 나서지 않고 자기를 알아서 자기를 싫어하고 낮춘다면 그것은 이미 지혜의 표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혀로 미련한 자임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그가 극도로 미련하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대로, 분별이 가장 적은 자들이 이유 없이 지껄여서 아무리 해도 그들을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들이 그들과 한 시간만 이야기하면 그들이 어떤 자인지 압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그것을 알아챌 때, 그것은 CO 611 어리석음의 극치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담으로 우리는 사도 야고보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 곧 사람이 자기 혀를 억제할 줄 알고 그것을 절제하여 쓸 수 있을 때 그것이 큰 덕이라는 것을 일깨움 받읍시다(약 1:19; 3:2).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데 그토록 가벼우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들을 수 없게 막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코 유익을 얻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너무 앞으로 나서기 때문입니다. 잠잠해야 할 곳, 하나님만 들으심을 받으셔야 할 곳에서 그들은 와서 지껄이고 자기 말을, 그것도 엉뚱한 말을 던집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르침이 그들에게 주어져도 가르침을 받을 수 없도록 스스로 문을 닫습니다. 그 때문에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권고할 때, 그는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말에서 유익을 얻으려면 잠잠하고 분별 있게 들어야 한다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그리고 그 밖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성가시게 굴지 말고 쓸데없는 지껄임으로 그들을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각자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 긴 설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말로 넓게 풀어 나가기보다 묵상할 만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자신을 맞추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보면 볼수록, 사람이 마땅히 말해야 할 만큼만 말하고 더 말하지 않을 줄 알 때 그 덕을 그만큼

더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 봅시다. 욥은 그래도 하나님께 말하고 그분과 따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논쟁으로 그를 이기려 한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편들어 말하려는 것 같다고 나무랍니다. "그분이 자네들의 거짓이 필요하시겠는가? 자네들이 여기 와서 그분의 대리인과 변호인이 되어야 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그분을 편들어 주어야 하시겠는가? 그분이 자네들을 시험하러 오실 때, 자네들은 그것이 자네들에게 유익하리라고 생각하는가? 자네들이 지금 그분을 의롭다 하려는 척할 때, 자네들은 그분께 삼켜질 수밖에 없을 것이네. 그분은 그런 것들이 그분께 가증하며, 그분이 사람들에게서나 그들이 지어낸 거짓과 훈계에서 무죄가 되는 수단을 빌리지 않고 그분 자신의 의로 지켜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실 것이네." 욥이 하나님과 말하고 그분과 따지고 싶다고 말할 때, 이 명제에 지나침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선도 주목하여 그것을 악과 분별합시다. 욥의 이 말에 있는 선은 이것입니다. 곧 그가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려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상대하던 자들이 그가 자기 안에서 가진 그 영적 싸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로 그의 CO 612 상처를 누그러뜨려 주셔서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우시고 결코 나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백 배라도 더 견디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욥이 그것을 잘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셨다면, 그가 백 배라도 더 견딜 준비를 했으리라는 데는 의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서 온통 엄격함밖에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스르시고 끝까지 그를 핍박하신다고 생각하므로, 그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싸움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때문에 욥은 하나님과 말하겠다고 말합니다.

곧 그가 자기 안으로 물러가서, 이렇게 자기의 은밀한 곳에 마음을 모은 채 거기에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대충 받아들여서 자기 마음대로 비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할 때 무엇을 향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를 인내에 굳게 세우는 일이라면, 곧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견딜 때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우리가 시험을 받아 마귀가 우리를 꾀어 절망으로 몰아갈 때, 마음을 모으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는 것도 주목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별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고, 더욱이 그것이 우리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어지럽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제가 멋진 겉모습으로만 위로를 얻고 사람들 앞에서 큰 다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제허영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에게로 돌아와 혼자 있을 때 제 양심이 저를 몰아붙일 것이고, 그때 저는 제가 보인 모든 것이 연기일 뿐이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내에 굳게 서려 할 때에는 마치 온 세상과 갈라선 것처럼 자기 안으로 물러가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다스림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런 궁핍 가운데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끊어진 것처럼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분을 부르겠습니까? 제가 여기저기매달려 있는 동안 저는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모든 줄을 끊어야 하고, 마치 그분홀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엄 앞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이웃을 세우고 그들에게서 위로를 받기 위해 그들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는 이 끝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곧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일과 고통과 근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리저리 흩트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CO 613 우리가 그분 한 분께만 눈을 두고 고정하며, 우리가 거기 와서 그분 앞에 나섰을 때 우리 마음에 감추어진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비워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이 말에서 우리가 거두어야 할 선이며,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 가르침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악도 있습니다. 곧 그가 하나님과 논쟁에 들어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따지도록 자유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논쟁은 길어서는 안 되고, 또한 그 결론은 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지자들이 그들이 보는 재앙과 황폐를 탄식하는 것을 잘 봅니다. 그들은 "주여, 주께서 주의 백성을 멸하시다니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주께서 일들이 이렇게 혼란스럽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결코 바로잡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과의 일종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과 성도들은 그 속에서 자기를 기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선언하고 나서는 늘 이렇게 결론지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의 놀라운 지혜를 따라 그것을 행하시고 배열하옵소서. 주께 말대꾸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의 결말이 어떠할지 인내로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들이 그런 혼란 속에 가는 것을 보고 몹시 겁에 질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잘 마련하실 것이니 주의 이름이 찬송받으소서. 모든 것이 다시 질서를 찾을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머리를 땅에 숙이고 있겠습니다." "내가 내 입을 티끌에 대리라"(애 3:29)고 말하는 대로이며, 성도들은 이렇게 낮아져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할 때 무서운 극한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의 극심한 황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언약이 폐지되고 그분의 모든 예배가 뒤엎어지며 세상의 구원이 묻혀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그의 탄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거슬러 혀를 놀리려고 부리를 높이쳐들기보다 차라리 입을 땅에 대고 티끌과 진흙을 먹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가 때로 하나님과 따지는 것이 허락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온 겸손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결론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곧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조건에서 말입니다. 요컨대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라는 인물로 돌아갑시다. 그는 하나님과 따지려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 안에 이중의 의, 곧 율법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의와 그분이 감추어 두시는 의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그를 이렇게 괴롭히시는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를 CO 614 더 참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논쟁에서 그는 언짢아하고, 욥 안의 그 격정은 지나칩니다. 그런데 논쟁이 그것과 결합되어 있고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욥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따질 때 잘못하고 정죄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혹하게 대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거슬러 발끈하고 언짢아지려는 시험을 받을 때, 우리 자신에게 굴레를 씌워야 한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분께 우리 고통을 펼쳐 놓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 주여, 주께서는 제가 누구인지 보십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원하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오래 시들어 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탄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을 때에도, 그분은 그런데도 우리가 늘 이렇게 결론짓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는 주의 것이니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에서 어디서나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아무 이유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큰 걸림돌들을 보고 악인들이 판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대처하지 않으시며, 선한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분이 그들에게 아무 덜어 줌도 주지 않으시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부르는 자들을 도우시겠다고 선언하셨는데 우리는 완전히 반대를 본다. 우리는 그분께 피하기를 그치지 않는데, 우리가 그분께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그분은 귀가 먹은 것 같다. 또 그분은 그분의 교회의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보라, 교회가 먹잇감으로 내던져져 있다. 우리는 다스리는 무서운 폭정을 본다. 그분의 백성을 도와야 할 하나님의 손은 어디 있는가? 교회가 짓밟히는 것이 보이고 모든 신앙의 원수들이 오늘날 딱할 만큼 맹렬하게 다스리는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누르지 않으신다면, 그분이 그분의 일을 지키려 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인가?" 그러므로 그런 시험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때, 그것을 앞질러 막고 하나님과 의 논쟁에 들어가지 않기를 배웁시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조항으로 가 봅시다. 욥은 말한 자들이, 우리가 죽을 사람을 편들려 할 때처럼 하나님을 편들려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얼굴' , 곧 '사람을 받아들인다' 혹은 '인정한다' 는 말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 아래에서 재판할 때 왜 사람을 외모로 취합니까? 어떤 사람이 나쁜 소송을 가졌는데 그가 우리 친척이나 친구이거나, 우리에게 부탁받은 사람이거나, 우리가 그에게서 어떤 이익을 기대하거나, 그가 지위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육적인 고려에 움직이고 휩쓸려서 소송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호의가 우리 눈을 멀게 합니다. 또한 이 '얼굴' 혹은 '사람' 이라는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거나 미워하게 하는 CO 615 겉의 것들과 관련됩니다. 그러므로 욥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자네들은 하나님께서, 나쁜 소송을 가진 죽을 사람처럼 자네들이 편들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줄로 생각하는군. 그렇네, 사람들이

그에게 호의를 베풀려 하면 '그는 내 친척이다, 내 친구다, 내게 부탁받은 사람이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혹은 해 줄 것이다' 하고 살필 것이네. 그것을 근거로 사람들이 일을 꾸며서 더 이상 올곧음과 공평으로가 아니라 비뚤어지게 진행하네." 그리고 욥은 "묻건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떠받치고 사람들의 방식대로 그분을 편들어야 하겠는가?"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송이 이렇게 다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모든 것을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을 압니다. 곧 우리가 바르게 재판하려면 모든 인간적인 고려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려들은 늘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올곧음과 분별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이 법을 만들 때는 합당하게 만들고, 소송을 재판하려고 앉을 때는 자주 엉뚱한 판결을 내립니까? 사람이 법을 만들 때는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공평이 있고, 그는 선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고려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이 섞이지 않게 사안을 우리에게 내놓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놓일 때 우리는 그 사안을 바르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은 부자이거나 우리 친족이거나 다른 그런 고려가 있고, 한 사람은 가난하거나 그렇게 부탁받은 사람이 아니면, 여기 재판관이 휩쓸립니다. 그리고 더욱이 사람들이 전에 그에게 사안을 내놓아서 그가 그것을 바르게 판단했더라도, 그는 모든 것을 뒤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에게서 그가 가졌던 그 올곧음을 벗겨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진리로 판단하라"(요 7:24) 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미움이든 호의든) 어떤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좋고 공평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우리 격정이 우리를 그런 어둠 속에

던져서 우리가 전에 보던 대로 옳은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모든 것, 곧 우리가 사람들에게 두는 이 고려를 정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자리 잡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가증히 여기신다면, 그분이 그것이 필요하지도 않으신데 그분을 향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CO 616 욥의 의도를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가르침의 유익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적용해 보기 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눈으로 보는 예들을 들어 봅시다. 자유의지를 반쯤 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송을 잘 변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을 순수하게 따릅시다. 성경은 사람들이 악하고 비뚤어져 있고, 좋은 생각 하나도 가질 수 없으며, 선을 행하려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고, 죄의 종이며, 그들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음모일 뿐이고, 그들의 모든 감정이 선에 원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이렇게 내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힘과 능력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악에 빠져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명하십니까? 그것은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용서받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삼갈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죄가 우리에게 돌려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면 세상에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것을 두고 철학자 행세를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비방에서 그분을 변호하려는 중재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준비되어 있으니 원하는 사람은 그것을 받으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효력 있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 탓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꾸밈으로써 하나님을 편들려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짓이 필요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좋게 여기시는 자들을 택하시고 다른 자들을 버리시며,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 말고는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모르고, 그분의 뜻만이 우리에게 모든 결론으로 충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에게서는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를 생각해야 하고, 버림받은 자들은 우리에게 그분의 복수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것,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성경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악한 자들이 독을 품고 하나님을 거슬러 그들의 모독을 토해 냅니다.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분이 좋게 여기시는 자들을 택하신다면,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분은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을 고르십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려고 우리의 고운 눈을 보셨고, 그 원인을 그분 자신, 곧 그분의 순전한 선하심에서 취하지 않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CO 617 대들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제가 말한 그 중재자들이 그것을 누그러뜨리려고 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께서 그분이 좋게 여기시는 자들을 그렇게 택하신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악인들에게 더 넘쳐흐를 더 큰 기회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두 물 사이를 헤엄쳐서 이쪽도 저쪽도 만족시켜야 한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그분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신 자들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분이 악하다고 아시고 택해도 아무 유익이 없을 자들은 그들의 자유의지로 멸망한 자들이라는 것을 잘 보시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러므로 이처럼 악한 자들은 모든 진리를 비뚤어지게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구절이 보여 주는 대로 그들이 그분께 가증하다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가르침에서 유익을 얻으려고 그것을 적용해야 할 쓰임입니다. 그것이 더 길게 풀어 나갈 만하다는 것은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더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50편

욥기 13장 설교 2

CO 33:618–629

> 그분의 위엄이 자네들을 놀라게 하지 않는가?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자네들 위에 떨어지지 않는가? 자네들의 기억은 재에 견주어지고, 자네들의 몸은 진흙으로 된 몸에 견주어지네. 내 앞에서 잠잠하게. 내가 말하겠네. 무슨 일이 내게 닥치든지 상관없네. 왜 내가 내 살을 내 이 사이에 물고, 내 영혼을 내 손에 두겠는가? 그분이 나를 죽이셔도 나는 그분을 바라겠네. 그래도 나는 그분 앞에서 내 길을 변론하겠네. (욥 13:11–15)

CO 618 이 설교도 7, 8, 9, 10절과 그다음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시작한 이야기를 이어 가야 합니다. 곧 성경이 우리 정신에 맞지 않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안에 반감이 있어서, 우리가 좋게 여기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두고 현자 행세를 하며 모든 것이 마음에 들도록 일을 꾸미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두 가지 예를 든 대로입니다. 하나는 자유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완전히 악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그렇다면 죄인들이 선을 행할 능력이 그들 안에 없으니용서받고 무죄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두 물 사이를 헤엄치며 이렇게 말하는 거짓을 지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얼마간의 자유의지를 돌려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 죄 있는 자로 여겨지게 하는 것이 낫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 다르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왜 그런 핑계에 이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들의 거짓이 필요하십니까? 그분의 진리가 그런 방법으로 지켜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 전에 그분이 좋게 여기신 자들을 택하시고 다른 자들을 버리셨다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흐리게 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고,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현자들은 이렇게 내세우고, 그러는 동안 이렇게 중재합니다.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셨다고 말하겠다. 그러나 왜 그러셨는가? 그분은 그들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잘 보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이 그분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들은 내 것이다' 하시며 그들에게 표시를 하셨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완전히 반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똑같은 자로 보시며, 우리를 구별하시는 분은 그분이시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고전 4:7). 곧 한 사람이 그의 동료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성경의 순수하고 단순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여기 와서 얼버무립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변호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거짓을 빌리셔야 하고, 우리가 그분께 궤변으로 가득한 변호인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보는 대로 나쁜 소송은 빛깔을 칠할 필요가 있고, 사람들은 재판관들의 눈을 어지럽혀 그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꾸밉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CO 619 그런 식으로 일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하는 말을 잘 주목합시다. 곧 우리가 성경에서 나쁘다고 여겨지는 조항이 하나도 없도록 사람들이 달리 물리치고 정죄하는 것을 꾸미려고 우리의 모든 지각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궤변적인 고안에서 우리를 정죄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멀리까지 미칩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황주의자들과 우리 사이에 중재안을 만들려고 끼어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교회에 많은 그릇된 관행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일들이 너무 무겁고 견딜 수 없다. 어떤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그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우리가 설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들에게 물으면, 그들은 우리 가르침에서 조금도 나무랄 것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복음의 순수한 단순함을 따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물리침을 받고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 모든 것을 한 치 어김없이 개혁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일 것이고 사람들은 그렇게 다루기 쉽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근거로 그들은 “그러므로 중재하는 것이 낫겠다” 하고 말하려고 고안을 찾아내고 지어냅니다. 우리가 이 ‘임시안’에서 본 대로입니다.[133] 그것을 꾸며 낸 자들이 연금술사 행세를 하여 무슨 정수인지 무엇인지 모를 것을 찾아내려 하지 않았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그 마귀 같은 것을 가져왔겠습니까? 그들은 온 교황권에 무서운 혼란밖에 없고 일들이 너무 넘쳐흘렀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상 숭배는 더할 나위 없이 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섬김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 공로에 신뢰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묻혀 버린 것처럼 상상했으며, 성인과 성녀들을 하나님 앞의 보호자로 삼으려고 그들 뒤를 쫓아다니고, 성례가 팔리며, 영혼을 놓고 장터를 벌이고 거래하며, 자잘한 잡동사니와 의식에 마땅한 것 이상을 돌려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 모든 것을 잘 알았고 그것을 고쳐야 한다는 것도 안 이 중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말입니까? “오, 루터파가 지금까지 원한 것은 불가능한 것과 같다. 세상

133. 1548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개신교와 로마 교회 사이의 잠정 타협안으로 공포한 ‘아우크스부르크 임시안’ (Interim)을 가리킵니다. 뒤에 이어지는 절충론의 내용은 칼빈이 반박하려고 소개하는 견해입니다.

은 그런 변화를 참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중간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 사람들이 사람에게 명령받은 것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 섬김을 부패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순종하기 위해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해야 하겠지만, 전처럼 그런 의무나 그렇게 엄격한 의무를 지키지는 않는다고 말해야 하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행위의 공로를 너무 믿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잘 시작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진 것처럼 CO 620 되어 사람들이 그분의 은혜에 피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분이 변호자라고, 그렇다, 최고의 변호자이지만 유일한 변호자는 아니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공로를 섞을 수 있을 것이고, 사람의 계명들은 늘 어떤 식으로든 지켜질 것이다. 또한 죽은 성인들을 변호자로 두기를 그치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료가 될 것이다. 형상을 경배하는 일은 더 이상 그렇게 심하지 않겠지만, 형상은 무지하고 단순한 자들을 위한 것으로 그들에게 경건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이 사람들이 이렇게 순례를 다녔을 때 너무 심한 어리석음이 있었지만, 그러는 동안 연약하고 무지한 자들을 위해 여전히 얼마간의 경건을 남겨 둘 것이다. 그리고 성례는 그렇게 높이 평가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만 여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보여 주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늘 무엇인지 모를 것을 남겨 둘 것이다. 미사에 대해서는, 그렇다, 그것은 더 이상 그렇게 팔리지 않을 것이고, 죽은 자들을 위한, 이런 성인의, 이것이나 저것의 개인 미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 미사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제사라고 늘 말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신 참된 제사장이 아니시라는 것이 아니라, 미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수난에 관련될 것이라는 뜻에서다." 이처럼 이 거짓을 짓는 자들은 복음이 세상에 너무 가혹하지 않도록 그런 혼합물을 만들었을 때 자기가

정교하게 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거짓의 도움을 받거나 그것을 쓰지 않으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꾸밈없음과 단순함 가운데 행하고, 입을 다물며,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아무 말대꾸 없이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것에 머무릅시다. (제가 말하는 대로) 이처럼 우리는 그분께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공상대로 그분을 편들어 드리려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의 순수함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며, 그분의 심판이 사람의 지각에낯설다고 해서 그것을 꾸몄을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핑계와 함께 우리를 정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덧붙여진 것으로 가 봅시다. 욥은 "그분의 위엄이 자네들을 놀라게 하지 않는가?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자네들 위에 떨어지지 않는가?"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는 그들의 기억이 재에 견주어지고 그들의 몸이 진흙으로 된 몸과 같다고 덧붙입니다. 그것으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짓말을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위엄을 붙잡지 않고, 그분을 우리와 같이 만들려 하며, 마치 우리가 그분과 같은 등급에 있는 것처럼 그분을 여기 아래로 끌어내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이것이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조할 만큼 그토록 뻔뻔합니까? CO 621 그들이 그분을 자기 자로 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엄이 어떠한지 마음에 품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그분의 말씀에도 그분의 심판에도 무엇을 꾀하려 할 만큼 더 이상 어리석지 맙시다. 우리는 거기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이 또한 선한 것을 행하시게 하고 우리가 그분의 모든 일에서 그분을 경배합시다. 특히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생각하는 데 들어가서 "우리는 무엇인가?" 하고 말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욥이 견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위엄이 자네들을 놀라게

하지 않는가?" 하고 말합니다. 그가 위엄이나 존엄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좀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경솔하게 진행하고, 그가 곧 덧붙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분을 가지고 노는 것을 참으실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그분 안에 있는 이 무한한 영광을 마음에 품기를 배웁시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었을 때 우리가 낮아져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 여기서는 사람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에 대해 말하거나 그분을 무엇에 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그분을 어디에, 어떤 등급에 두겠는가? 그분이 피조물들 사이에 섞이시겠는가? 그것은 그분을 없애는 것과 같지 않은가? 그리고 그분의 위엄을 이렇게 끌어내렸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어떠한지 마음에 품거나 맛보기만 할 분별이 있다면, 오, 우리가 그 아래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이것저것을 스스로 믿게 할 만큼 더 이상 그렇게 주제넘지 않기를 배우리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 자신을 생각합시다. 사람의 본성에 있는 약함과 가난함이 하나님의 위엄에 그만큼 더 큰 광채를 주어서, 우리가 우리가 어떤 자인지 잘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높여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천사들의 영광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만큼 더 가까이 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천사들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룹들의 형상으로 그것에 대해 말하는 대로, 그들은 얼굴을 가려야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사 6:2). 물론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말합니다(마 18:10).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봅니까? 그들은 눈을 내리깔지 않고는, 날개로 자신을 가리듯 하지 않고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곧 그들이 자기 위에 계시며 그들이 이를 수 없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겸손을 가지고, 그들을 낮추는 이 높으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낙원의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CO 622 썩은 것일 뿐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영혼에 관해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상태에 보존하시지 않고 그분의 순전한 선하심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곧 꺼져서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릴 작은 불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버틸 이 힘을 우리 안에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연기와 온갖 헛됨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 안의 모든 주제넘음이 잘 꺾이고, 우리가 우리 빛깔로 하나님을 그리려고 우리 방식대로 따지려는 이 어리석음을 더 이상 가지지 않으리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그분은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조각조각 찢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이 어떠한지 알고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주제넘음도 대담함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욥이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처럼 우리는 그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앎이 사람들에게 헛되이 남아서 그들을 낮추지 않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더 이상 그렇게 대담하게 지껄이지 않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엉뚱하게 그분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그들이 결코 그분을 알지 못했고 그분의 위엄이 어떠한지 결코 느끼지 못했다는 표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번 "여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위아래를 둘러보라, 그분의 손에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는 놀라운 의가 있고, 우리에게 감추어진 지혜가 있으며, 비할 데 없는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은 생생한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거기서 놀란 듯이 우리 자신 안에서 꺾여 그분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그분의 무한한 높으심을 경배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기를 배워서 우리가 온 겸손과 절제로 가르침을 받게 합시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우리가 누구인지도 살

펴봅시다. 우리 육이 우리를 간질여 우리 자신에게 박수 치게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아첨하려 하며,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을 찾는 것을 볼 때, 우리 자신을 재촉하여 이렇게 말합시다. "그런 잘못은 어디서 오는가? 네가 아직 너 자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가 누구인지 보라. 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고, 네 처지를 판단하는 자가 되라." 거기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죄의 심연이 있고, 우리가 소름 끼칠 만큼 많은 무지에 휘감겨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짙은 어둠과 같아서 우리를 완전히 숨 막히게 하고 목 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눈을 뜨고 있기는커녕 우리 코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때, 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감동받아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위에 떨어지리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교만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일이라면 CO 623 정신 나간 사람처럼 되어 공경도 겸손도 전혀 없던 것이 보였던 대신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보이는 그토록 크고 낯선 무모함 대신에,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발견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그분 아래 엎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쪽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자신을 기뻐하거나 높일 기회를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이 두 명제로 주목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굳게 확증하려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네, 자네들이 사람을 놀리듯 그분을 놀린다면, 자네들은 그분이 자네들을 참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사람들이 이 점에서 속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알지 못해서 마땅히 그분을 공경하지 못하므로 그분을 놀린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공경받으셔야 하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흔히 하던 대로 그분께 합니다. 속일 수 있는 사람은 들키지만 않는다면 대담하게 속일 것이고, 그것은 다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간계를 쓰듯이, 하나님에 관해서도 그 기술을 써먹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큰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주인을 놀리고도 벌받지 않은 채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한동안 사람들이 날뛰는 것을 참으시더라도, 마침내 그분은 그들에게 그분이 그들이 생각한 그런 분이 아니라 전혀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 주셔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생각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그들을 셈에 불러내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따라 잴 수 있도록 일반 규칙에 복종해야 하는 피조물과 같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율법을 우리 분량에 맞추시지만, 그분이 그것에 매이셔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동안 사람들도 그분이 그들이 상상한 것과 전혀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분 안에 있는 이 무한한 영광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놀이를 조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이든 그분의 일이든 다루는 일이라면 우리가 진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서 잠잠하게. 내가 말하겠네. 무슨 일이 내게 닥치든지 상관없네.” 여기서 욥은 자기가, 그렇습니다, 타격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심판에 대해 수다를 떠는 그런 떠버리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말을 잘하도록 혀가 날카로워져 있지만 실제와 동떨어진 하찮은 질문들을 논쟁하는 데 그것을 쓰는 자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들은 내가 내 살을 이에 물고 다니는 것을 보네. 마치 내가 조각조각 찢겨서 내 가죽과 내 살을 이에 물고 다녀야 하는 것 같네. 나는 내 영혼을 내 손에 두었네. 자네들이 나를 CO 624 그런 상태에서 볼 때, 내가 여기서 새장 속의 꾀꼬리처럼 지저귄다고 생각하지 말게. 아니네, 나는 진심으로 말해야 하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고문대에 매달듯 하시며 나를 살피시기 때문이네. 그러므로 나는 내 감정을 펼쳐 놓아야 하네. 나로서는 겪어 본 사람으로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피셔서 내가 일을 꾸미고 이것을 저것이라고 말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 잘 보이기 때문이네. 그러므로 내가 말하게 두게. 자네들이 내 짐을 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네. 나를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대답해야 할 분도 그분이시네. 그러므로 자네들의 논쟁은 그 값어치대로, 곧 완전히 쓸모없고 하찮은 것으로 내버려 두겠네. 그러나 나로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 주시는 대로, 실제로 내게 보여 주시는 대로 말하겠네." 요컨대 이것이 욥이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쓰는 이 말투를 주목합시다. 곧 그가 자기 살을 이 사이에 물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조각조각 찢긴 것처럼, 마치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그가 그것을 이에 무는 것 말고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욥은 자기가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는 자기가 더 이상 살아 있는 피조물 같지 않을 만큼 비참한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혹은 자기 생명)을 손에 들고 있다고 덧붙일 때, 그것은 그것이 바람에 날리듯 내버려지고 먹잇감처럼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자기 영혼을 손에 든다' 는 것이 선과 악을 행할 능력을 가진다는 뜻이라고 생각한 교황주의자들의 어리석음이 보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꾀하든, 나는 내 영혼을 내 손에 가지고 있다. 곧 나는 내가 좋게 여기는 것을 하겠다, 나는 자유로운 처지에 있다." 요컨대 그들은 "나는 내 영혼을 내 손에 가지고 있다"는 이 명제 위에 그들의 자유의지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협하실 때, 그분이 그들을 그들의 손에 내버려 두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고난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손에 내버려 두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벼락을 내리치십니다. 왜 그렇습니

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는 멸망에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처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황주의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비뚤어지게 했을 때 그들의 어리석음이 어떠했는지 봅니다. 그러나 욥이 자기 영혼을 바람 속에 있는 것처럼 손에 들고 다닌다고 말할 때 이 구절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영혼은 칼집 속에 있듯 우리 몸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것이 그것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손에 들고 있다면 그것은 내버려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기가 살아 있다기보다 죽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셔서 그가 썩은 가엾은 송장과 같으며, 그에게 더 이상 힘이 없고, 사람들이 그를 가증히 여긴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게, 나는 내가 더 이상 사람의 반열에 속한 자로 여겨지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CO 625 죽은 몸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말한 대로 욥은 자기가 사변적인 박사가 아니라, 그가 말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심판을 참으로 실제로 겪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도, 그분의 손도, 그분의 능력도, 그분의 의도,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욥처럼, 곧 그런 엄격함으로 살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사변밖에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법정에 소환하셔서 우리가 우리 죄가 무엇이며 영원한 죽음이 무엇인지 느끼고, 우리 자신에 관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빼앗기고 모든 소망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을 알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실로 다룰 줄 모를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우리는 그분에 대해, 진정한 감정으로는 한 마디도 모를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노는 그 떠버리들은 겉모습이 꽤 멋지고 사람들 앞에서 허풍을 떨겠지만, 거기에는 아무 굳건함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게, 마땅히 말하려 합니까? 우리는 먼저 단련을 받아

야 하고 실제에 이르러야 합니다. 곧 그분이 우리를 몰아붙이셔서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떤 자인지 알게 하셨어야 합니다. 요컨대 이것이 욥이 이 구절에서 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밖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시험으로 이끄실 때 우리가 버티려면 사람의 힘 이상의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우리가 욥이 한 어떤 말들을 들을 때 우리는 그를 정죄하려 할 것이고, 그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는 그가 있던 극한을 잘 살펴서, 어떤 시험들이 그 안에서 너무 크게 다스렸다고 해서 그것을 낯설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마침내 싸움에 맞서 버텼더라도, 그 가운데 연약함이 있었고 그는 거기서 겁에 질린 것 같았으며, 그의 믿음이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았더라도 흔들렸고, 그가 잘 느끼는 어떤 악덕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런 시험들이 견디기 아주 무겁더라도 그것들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을 낯설게 여기지 맙시다. 오늘날 누가 욥처럼, 가엾은 절망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가죽과 살을 이에 물고 자기 영혼을 손에 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시 119:109). 그러나 그래도 견주어 보면 욥은 우리가 보는 대로 심연에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몸으로 견딘 것만 보더라도, 그는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기도 꺼릴 만큼 썩어 있었고, 더욱이 그의 모습은 머리털을 곤두서게 할 만큼 그토록 흉측해서 사람들이 CO 626 부끄러워하고 더욱이 그를 가증히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그의 몸에서 그런 고통만 견뎠다 해도 그것은 큰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한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곧 그를 핍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그분 안에서 아무 은혜도 찾지 못하며, 그분이 그를 죽음과 저주의 깊은 곳에 두실 때까지 늘 고통에 고통을 더하려 하시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그토록 가혹하게 공격받을 때, 그 안에 너무 지나친 어떤 시험들이 있다고

해서 낯설게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사람의 연약함과 함께 그분의 능력을 온전하게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고후 12:9).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이것을 우리 가르침에 적용합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크고 지나친 고난을 보내셔서 우리가 삼켜진 것처럼 되더라도, (곧 더 온전히 밝혀지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알맞은 때에 우리에게 마련된 그분의 자비를 남겨 두신다는 것을 알고서 맞서 버팁시다. 그리고 우리가 바랄 만한 것보다 더 오래 시들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나은 치료를 주시려고 병이 익도록 내버려 두려 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종기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거기 고약한 냄새가 나는 고름이 있고 그것이 사람의 온 건강을 망칠 것이 잘 보입니다. 그런데도 의원이나 외과의는 처음부터 종기를 째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름이 아직 익지 않았으니 그가 거기에 염증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먼저 빨아내는 처치를 하고, 종기를 삭게 하려고 어떤 고약을 붙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거기에 대담하게 칼을 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분이 처음부터 그것을 고치지 않으시더라도 낯설게 여기지 맙시다. 병이 익어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손을 대실 수 있으며, 그분은 아주 알맞은 처방을 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좋고 알맞은지 아신다는 것을 알고서 인내로 그분을 기다립시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견딜 때 너무 지나쳐서 무모하게 덤빈다면, 우리에게 무슨 핑계가 있겠습니까? 욥이 지옥의 소용돌이까지 이르렀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고, 그토록 무거운 고통을 견디고 그토록 지나친 아픔 속에 있었으며 그토록 극심한 괴로움을 느꼈는데도 자신을 억제한 것을 볼 때, (제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고난당한 사람이 그래도 자신에게 굴레를 씌웠다면, 묻건대, 우리가 우리 고통 속에서 언짢아하려 할 때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자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각자 자기를 돌아봅시다. 그런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끝까지 살펴진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 고통 속에서 그만큼 더 절제해야 하고 CO 627 우리가 흔히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성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 대해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다 해도 그분께 소망을 두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자기 길을 변론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로 옮기는 '로' (Lo)라는 말은 '아니다' 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본래 그 뜻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것은 이른바 관계사가 되고, 한 글자가 다른 글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꽤 흔한 용법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읽든 저렇게 읽든 뜻은 늘 하나입니다. '아니다' 로 읽는다면 그것은 의문문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신들, 내가 소망을 두지 않겠는가? 그렇다, 나는 소망을 두겠다." 혹은 "나는 그분께 소망을 두겠다"로 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 실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134] 그러므로 요컨대 욥은, 그가 꺾이고 그의 격정 속에서 겁에 질린 것 같더라도 모든 소망을 잃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가 하나님을 거슬러 소송하거나 그분에게서 멀어지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성나게 해서 더 이상 그분과 상관하지 않으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망을 두겠다고 엄숙히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시고 나를 수치스럽게 하셔도 나는 그분께 소망을 두기를 그치지 않겠네. 그러나 그래도 나는 그분의 얼굴 앞에서 내 길을 변론하겠네. 보게, 나는 자네들이 보고 붙잡는 이 격렬함을 내가 하나님께 가진 소망과 섞을 수밖에 없네." 그런데 여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비추는 아름답고 뛰어난 거울이 있습니다.

134. 히브리어 본문에서 '아니다' 를 뜻하는 'lo' 와 '그에게' 를 뜻하는 'lo' 가 소리가 같아 생기는 읽기차이를 가리킵니다. 칼빈은 두 읽기와 의문문으로 읽는 대안을 소개하고 어느 쪽이든 뜻은 같다고 봅니다.

그분은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믿음이 그만큼 더 잘 시험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들을 화합시키십니다. 언뜻 보면 사람들은 "여기 불과 물이 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런 목적으로 되돌리셔서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십니다. 그들의 논쟁에서 늘 철학자들의 방식으로 결론을 내려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놓이고 아무 차이도 없으며 어디서나 합의가 있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루어지고 그분의 심판을 지나는 것이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거칠게 다루셔서 거기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안에도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것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살기를 바라고, 때로는 죽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서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본성적으로 존재하기를 바라고(고후 5:4), 따라서 죽음을 피합니다. 죽음은 우리 본성과 반대되므로 우리에게끔찍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겁에 질리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 우리는 여기서 감옥에 있는 것처럼 갇혀 있고, 이 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동안 우리는 CO 628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거두셨을 때 우리에게 약속된 이 영원함을 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가까이 갈 때 우리는 거기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입구이기도 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을 지나가셨으니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가지리라고 더 이상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그것은 날이 무디어진 칼, 혹은 끝이 부러져서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는 칼과 같고, 어느 정도 피를 흘리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서 건지려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이 감정들은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잘 화합시키셔서, 믿음이 주인이므로 우리가 본성적인 지각으로 두려워한 것이 내려놓아집니다. 욥이 이 구절에서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요점을 확정한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분을 그들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께 피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그다음에 내게 그분께 나아갈 이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부르고 그분의 보호에 나를 맡겨야 하며, 그분이 늘 내게 은혜로우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 그러나 그분은 나를 괴롭히시고, 내가 그분께 가까이 가려 할 때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견디기 가혹하고 괴로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잠잠히 내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고, 그분의 약속에쉬는 이 영예를 그분께 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 이 요점을 온전히 결정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연약함을 알면서 탄식하지 않고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것은 반대되는 것이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면 논쟁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탄식에 들어가야 하겠는가? 그것은 믿음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언뜻 보면 그것이 믿음에 반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화합시키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리저리 흔든 어떤 끓어오름이 있은 뒤에, 여기 믿음이 우리를 잠잠함 속에 모아서 우리가 마침내 이렇게 결론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늘 그분이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요컨대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욥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셔도 나는 그분께 소망을 두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따지고 내 길을 변론하겠다” 하고 말하면서 무엇을 목표로 삼았는지 봅니다. 그가 쓰는 이 말은 ‘논증하다’ 를 뜻하고, ‘따지다’ , ‘변론하다’ 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앞에서 CO 629 말한 자들이 생각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엄숙히 선언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가 하나님께 더 이상 아무 소망도 없어서 모 아니면 도로 내기를 걸려는 사람이 고, 이런 말을 홧김에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그렇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소망을 간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그는 그분께 자신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분이 내게서 물러나시고 내가 그분에게서 아주 멀리 있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이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거기 이르려고 온 힘을 다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 곧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숨고(시 91:4) 그분께 돌아가서, 아이가 그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지듯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품에 받아 주시게 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 담긴 것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욥이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말할 때, 그는 자기가 고삐 풀린 말처럼 굴려고 날뛰는 그 길 잃은 자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거꾸로네. 나는 그분 가까이 있고 그분이 내 위에 손을 두시기만을 구하기 때문이네.” 그러므로 그것으로 그는 그가 덮어쓴 거짓 비방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는 그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게, 그래도 나는 내 길을 따져야 하네.” 곧 “내가 가진 이 소망은 이런 탄식과 섞이지 않을 만큼, 내가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만큼의 것이 아니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연약함에서, 그렇습니다, 정죄받아야 할 악한 연약함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놓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믿음이 우리 격정 위에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부를 때, 우리에게 늘 싸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이겨야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 평강이 승리의 종려가지를 얻어야 합니다(골 3:15). 곧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 말하고 그것에 승리를 돌릴 때, 그는 우리가 회오리바람을 만나고 이쪽저쪽으로 흔들리리라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그러나 그것에 무슨 처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평강이 그런 힘을 가져서 마침내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격정이 굴레 아래 붙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고백하면서 자기 연약함도 고백하고, 자기에게 늘 나무랄 것이 많지 않을 만큼의 완전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그런데도 어쨌든 그는 늘 하나님께 피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우리 편에서도, 우리를 흔드는 우리 육의 공상들이 있고 우리 격정이 얼마간 우리를 휩쓸어 갈 때,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도우려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시다. 오히려 그분께 소망을 두도록 힘씁시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만큼의 완전함은 아니더라도, 그런데도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기다린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리라는 것을 압시다. 그분이 늘 우리를 믿음에 점점 더 굳게 세우시고, 그 믿음이 세상과 현재 삶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51편

욥기 13장 설교 3

CO 33:630–643

> 그분이 또한 내게 구원이 되실 것이네. 위선자는 그분의 얼굴 앞에 나아오지 못할 것이네. 내 말을 듣고, 내가 자네들에게 알리는 것을 받아들이게. 내가 내 소송을 정돈하면, 나는 내가 의롭다 함을 받을 줄 아네.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내가 잠잠하면 나는 쇠하여 버릴 것이기 때문이네. 오직 이 두 가지만 내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해 숨지 않겠습니다. 주의 손을 내게서 멀리 거두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고, 혹은 내가 말하면 주께서 내게 대답하옵소서. (욥 13:16–22)

CO 630 우리는 앞에서 욥이 한 엄숙한 선언을 보았습니다. 곧 그가 하나님의 손에 삼켜진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말한 대로) 그가 하나님 안에 두 종류의 의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대로,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더 높은 생각과 깨달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 말을 다시 확증하고 인정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이 되시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위선자는 CO 631 그분 앞에 나아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네" 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서는지 아네.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시고 끝까지 괴롭히신 뒤에도 그분이 여전히 내 구원자로 나타나시리라고 확신하네." 그렇다면 욥은 그의 구원의 소망을 무엇 위에 세웁니까? 그가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선자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에서도 그것에 대해 말하는 대로입니다. “이 백성은 날마다 나를 찾고, 마치 내 길을 알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게 가까이 온다“(사 58:2). 아무 감정도 열심도 없는 이 위선적인 신심가들이 그런데도 많이 빙빙 돌아다니고 애를 쓸 것이며, 그들 안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불과 불꽃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죽만 울릴 뿐입니다. 그들은 곧장 그분께 나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가까이 가지 않고도 하나님과 셈을 끝내기를 바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위선자들에게 많은 신심 행위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이것도 저것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목표로 합니까? 교황주의자들이 하루에 미사를 세 번 듣고, 많이 중얼거리고, 성수를 찍고, 이 제단에서 저 제단으로 쫓아다닐 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 가까이 보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분에게서 멀어지고 멀리 헤매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들이 가진 그 모든 허풍과 그토록 많은 경건 문구와 그토록 많은 의식을 강도의 소굴에 견주는 것입니다(렘 7:11). 강도가 들키지 않고 그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 은신처로 물러가듯이, 위선자들도 이것저것에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섬김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에서 많은 빛깔과 핑계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게 하려는 것이며, 그들이 그 가장무도회로 자신을 덮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위선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척은 잘하겠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닐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들이 헛된 주제넘음으로 부풀어 있을 때, 그들이 머리를 쳐들고 많은 엄숙한 선언을 할 만큼 대담하여 그분께 들이받으려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리둥절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분을 생각한다면 그런 대담함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선자들이 그들의 자잘한 잡동사니로 장난을 치고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가지고 놀았을 때, 자기가 천사처럼 의로워서 더 이상 나무랄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요구하신다면 그분은 그들을 너무 몰아붙이실 뿐이며, 그들이 그분께 빚지기는커녕 CO 632 그들 생각에 오히려 그분이 그들에게 빚지셨다고 여기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께 들이받을 것처럼 보일 만큼 불과 불꽃을 내뿜는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양심에 생생한 느낌을 가져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공경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하며,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좋은 마음으로, 순수하고 솔직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와 그분과 어떤 사귐을 가질 수 있기 전에 이 모든 것이 그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첫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곧 그분의 위엄이 어떠하며 우리가 모두 그분께 경의를 드리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이 위엄을 마음에 품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그분께 가까이 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곧 그분께 모든 우위와 주권을 돌린 뒤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지 알아서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욥은 "위선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서지 못할 것이네" 하고 말합니다. 곧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피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사람들이 그들에게 죽음에 대해 말하면 그들은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그분을 피합니다. 그러므로 욥은 위선자들이 하나님

께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고 말한 뒤에, 자기는 그 무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엄숙히 말합니다. 그러함은, 그가 하나님께 나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는 죽을 사람들과는 아무 이치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어 주시고, 마치 그분의 얼굴 앞에 있는 것처럼 말할 자유를 가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에게 구원이 되시리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그가 쓰는 말은 꽤 낯섭니다. 우리가 이미 비슷한 것을 보았고 앞으로도 볼 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참된 풀이를 얻으려면 여기 지켜진 순서를 따릅시다. 그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받아들이게. 내가 내 소송을 정돈하면 나는 내가 의롭다 함을 받을 줄 알기 때문이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욥은 그가 자기 소송을 변론하는 것이 허락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죄가 될 만큼 자기를 변호할 좋은 이유들을 가지리라고 전제합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변론하지 않습니다. 그는 귀먹은 귀를 상대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가 말하는 자들이 잠잠하여 그가 따질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선언하실 것의 끝과 결말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의 CO 633 요지가 무엇인지 봅니다. 곧 그가 자기 소송을 따질 수 있는 자리와 자유를 가지기만 하면 무죄가 되리라고 말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풀이한 것, 곧 하나님의 의의 이 두 종류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분의 율법을 따라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그분은 우리에게 알려지고 온통 드러난 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규칙을 주실 때 그분은 우리와 협약을 맺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보라,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누구든지 이 모든 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내 율법을 이루는 자는 살 것이다"(레 18:5).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확증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온통 드러난 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셈에 들어가서 계명 하나하나에 우리 삶을 살펴보고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너는 어디서 잘못했느냐? 여기 네 하나님께서 네게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하신다. 너는 그것을 이루었느냐?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너는 죄가 있다." (제가 말하는 대로) 이처럼 우리는 율법으로 정죄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가정해 봅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사람이 자기의 모든 행위를 잘 살펴서 자기 삶이 하나님의 율법에 맞았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는 우리에게 드러나고 알려진 의를 따라 의롭다 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욥은 위에서, 하나님 안에는 그분이 천사들조차 정죄하실 수 있는 더 높은 의가 있다고 엄숙히 말했습니다(욥 4:18).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삶이 그분의 율법에 온전히 맞추어졌을 때 그것을 인정하시지만, 그분이 그렇게 하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분께 더 빚지지 않은 것도 아니며, 그분이 우리 빚을 탕감해 주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완전함을 피조물 안에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가 온 세상을 비추더라도 어두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충분하거나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을 넘어서 우리를 심판하려 하신다면, 그때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아무 악이나 악 덕도 알지 못한다 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그런데 욥이 하는 말로 가 봅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소송을 변론하고 내 모든 사정을 순서대로 정리할 자유를 가지며 내 모든 이유를 내놓는다면, 그때 나는 내가 의롭다 함을 받을 줄 아네."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을 따라서만 나를 심판하려 하시고 내가 내 삶이 어떠한지

보여 주려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때 나는 의롭다 함을 받을 것이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주받고 정죄받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 모든 것을 CO 634 이루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말고 다른 증거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으며 모든 입이 닫혀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려 할 때 바로 그 명제를 내세웁니다(갈 3:10; 롬 3:19).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모두 정죄받았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 곧 자기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가 모두 그것에서 아주 멀리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다면 욥이 하나님께서 그의 변론을 받아 주시려 할 때 그가 의롭다 함을 받으리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그분이 그를 고발할 것이 없고 그가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가 죽을 사람이므로 많은 연약함과 악덕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자기가 무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먼저 우리는 앞에서 다룬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곧 욥은 단순히 자기가 무엇을 받을 만한지,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히시는 그분의 의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벌받아 마땅한 죄를 발견하시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참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용서하시며, 그러는 동안 다른 어떤 이유로 우리를 괴롭히려 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대로입니다. 그가 가엾은 죄인이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을 따라 그를 끝까지 핍박하실 수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그분은 그런 고려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 사람이 그럴 만하고 악하게 살았으니 그를 괴롭히겠

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일부러 욥의 죄를 벌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분은 욥이 모든 사람을 위한 거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무겁고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감추어지고 헤아릴 수 없는 심판을 따라 지금 하시는 것보다 십만 배나 더 가혹하게 우리를 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자신을 낮출 기회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의 인내도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욥을 쓰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의도가 그를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말하고 자기 모든 소송을 풀어 나갈 허락을 받는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자기가 의롭다고 드러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그가 견디는 이 현재의 고난에 관해서는 그 점에서 그 안에 불의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분의 종 가운데 하나로 인정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모든 의가 그 위에 세워진 죄 사함을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두 우리 CO 635 행위에서 정죄받았기 때문입니다(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정죄와 저주를 가지고 나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수치스럽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 기쁘시고 그분께 인정받는 의를 빌려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의로 우리를 입히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돌려질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수난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 죄에서 순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이끄시면서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섬김, 곧 그분이 우리 안에 두신 선한 것들을 받아 주십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받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위에서 주어지지 않은 선이 한 방울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넓혀 주시듯이 그것들을 받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완전함을 돌아보지 않으실 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얼룩이 없는 것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보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참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는 그분 앞에서 의로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기뻐하시는 대로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의무가 있거나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욥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드러나리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참아 주시고 엄격하게 대하려 하지 않으시며 그들의 삶을 한 치 어김없이 셈에 불러내지 않으실 때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욥이 앞에서 그랬듯이 지나치게 말한다는 것도 주목합시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고, 너무 크게 놀라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의, 그에게 너무 가혹했던 의에 대해서만따지고, 하나님께서 이유를 보여 주지 않고 그를 핍박하시니 그가 이렇게 어지럽고 절망에 삼켜진 것처럼 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욥은 거기서 놀란 사람처럼 되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을 따라서만 그를 살피신다 해도 그에게 그의 죄를 잘 느끼게 하시리라는, 그가 참되다고 아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온전함 가운데 행하는 그분의 백성을 용서하시는데, 그가 그렇게, 그것도 진심으로 행했는데도 가혹하게 대우받고 그분의 손의 무게를 느끼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더 잘 깨달으려면 그가 덧붙이는 것을 봅시다. 그는

하나님께 두 조항을 들어주시기를 구하고, “그러면 내가 주의 얼굴 앞에서 숨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곧 “나는 주께서 원하시는 어떤 벌도 받을 준비가 될 것이고, 더 이상 주의 손이 너무 가혹하다고 불평하지 않을 것이며, 주께서 나를 몰아붙이실 때 더 이상 버둥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CO 636 이 두 가지를 얻는다면 말입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가 “주의 손이 내게서 멀리 있고, 주의 두려움이 더 이상 나를 겁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그분의 판결을 집행하지 마시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듣지도 않으시고 그를 그토록 심하게 괴롭히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마치 죄수가 자기가 완전히 버림받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아무 심리도 해 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자기 처지를 되찾게 해 달라고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수가 아무 조사도 받지 않고, 신문도 받지 않으며, 그를 거스르는 증거나 조서도 없는데, 그러는 동안 지하 감옥에 갇히고 (욥이 여기서 불평하는 대로) 차꼬에 채워지며, 더욱이 고문대에 올려져 사지가 찢길 것처럼 보인다면, (제가 말하는 대로) 가엾은 죄수가 그렇게 대우받는다면 그는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거슬러 그런 엄격함을 집행하시면서 그러는 동안 그에게 아무 소송도 진행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가 말하는 첫째 조항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 곧 집행이 그치고 사법 절차를 따라 진행될 때 그의 소송이 순서대로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주의 얼굴을 피해 숨지 않겠습니다.” 곧 “나는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겠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처분하실 것이며, 나는 인내하고 모든 것에서 어디서나 주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욥이 정신이 놀란 사람처럼 지나치다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설 만한 것이 자기에게 없고 머리를 숙인 채 거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 나아올 때 그분 앞에서 수치스럽게 남아 있으려고 자기 안에 있는 가난함을 알아야 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놀랄 만큼 큰 경악에 사로잡혀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만한 절제된 분별을 자기 안에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그는 그런 말투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우리는 이 구절에서 좋고 매우 유익한 가르침을 거두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한 것을 압시다.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에 담긴 것보다 더 큰 엄격함으로 우리를 대하려 하신다 해도, 그분은 세상의 심판자로서 그렇게 하실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맞서 아무리 말대꾸해 봐야 소용없고, 우리의 모든 불평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두고 우리 자신을 낮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밖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맞은 척도로만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좀 살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율법을 주신 것이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CO 637 빚졌는지를 고려하신 것도 아니고 그분의 의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도 아니며, 피조물에게 알맞은 것을 바라보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삶이 그분의 율법을 따라 판단될 때 그분께 인정받기는커녕, 우리는 모두 거기서 수치스럽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천 가지 방식으로입니다. 우리 죄와 범법은 심연이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탄식하며 우리 추함을 부끄러워하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무리 대들어 봐야 그것은 늘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위에 더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밖에, 욥이 그것에 휩쓸려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되는 것을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견디기 아주 힘들다는 것을 간직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두려움으로 그를 몰아붙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격하게 벌하신다면 우리가 절망에 삼켜지고 완전히 수치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일깨움을 받습니다. 타격에서 멀리 있을 때 우리가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우리와 겨루러 오실 때 우리는 우리가 전에 업신여겼던 그분의 힘이 어떠한지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다고 상상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할 것이고, 거기에는 연기와 어리석은 상상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취해 있는 이 주제넘음보다 우리 구원에 더 반대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무모하게 하고, 우리를 들판으로 내달리게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는 우리 한계를 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구름 위로 날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 파멸의 원인이 있습니다. 곧 우리 눈을 어지럽히는 이 어리석은 자만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막아서, 우리가 그분께 피하고 그분의 날개 아래 숨어야 하는데, 우리 각자가 길을 잃고 우리 자신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모자랍니다. 곧 특히 우리가 어떤 고통에 몰려 정신을 잃었을 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도움을 찾으러 가거나 우리를 속인 헛된 공상에 자리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망상과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욥의 본보기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시다. 그리고 그가 이런 영적 싸움을 견뎠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붙이셔서 그가 그분을 자기 원수처럼 느꼈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로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손을 피할 수도 그분의 엄격함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는 것을 압시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CO 638 너무 정신을 잃어서 우리

앞에 지옥의 심연밖에 보지 못할 것이고, 우리에게 이성도 겸손도 절제도 분수도 있을 수 없으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떨기 위해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공포가 우리 안에 남아 있지 않을 만큼 떨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처방에 이르러야 합니다. 곧 우리가 우리 환난 한가운데서 그분 안에서 안식을 찾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이 한동안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거슬러 일어나려 하신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격하게 대하지 마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밖에, "이 두 가지를 내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얼굴을 들고 나아가겠고, 주 앞에서 숨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느끼게 하시기 전에는 우리를 벌하지 마시라고 그분께 최고장을 보내듯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재판권을 너무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엾은 죄인이 자기 재판관에게 법을 정해 주겠습니까? 땅의 재판관은 그래도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사람이 너무 잔인하게 몰아붙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벌하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참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분 안에는 결코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왜 그 일들을 하시는지 알아채지 못하고, 그분이 쓰시는 저울도 무게도 보지 못하며, 오히려 그분이 모든 것을 뒤엎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분의 감추어진 심판에서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낯설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그분에게서 나올 때 그것들은 그런데도 온 공평과 올곧음으로 다스려진다는 것과, 그것이 마침내 우리에게 드러나리라는 것을 압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공상에 맞추려 하고 그분께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시라고

요구하는 이런 거만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의 선한 뜻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온전한 순종을 주시기를 그분께 기도합시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기 전에 우리 소송을 진행해 주시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재판관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벌하시는데 그러는 동안 우리가 우리 악에 고집을 부리고 남아 있거나, 둔하고 어리석어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늘 우리를 더 크게 정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데 우리는 등을 굽히지 않습니다! 마음은 더욱 굽혀지지 않아서 타격을 튕겨 내는 모루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재판관이 되어 먼저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우리 구원에 유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CO 639 우리가 우리 잘못을 알지 않았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나는 내가 가엾은 죄인이고 내가 견디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안다” 하고 말하면서 그러는 동안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가 자기 죄를 느끼지 않은 자들은, “나는 이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 하고 말하면서 어떻게, 왜 그런지 모르니 위선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죄에서도 우리 자신을 정죄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끝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곧 우리 양심을 살피고, 우리가 충분히 납득한 것을 그 안에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진실로, 꾸밈없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기 전에 우리와 소송에 들어가 주시기를, 곧 우리에게 우리 죄를 드러내 보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우리 정죄가 어떠한지 보고 먼저 우리 자신 안에서 꺾이게 해 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목적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간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고난이 우리를 휩쓸 때 욥처럼 그렇게 놀란 채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 곧 그분이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우리 소송을 따지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허락되고, 그렇습니다, 유익하더라도, 우리가 그분께 그분의 손을 거두어 주시기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그분은 우리 소송을 진행하셔서 우리가 우리 죄를 볼 때 그분이 우리를 벌하실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 주실 것이고, 그러는 동안 우리도 그분의 손의 타격을 느끼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함께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으니, 그것들을 받는 것을 낯설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점에서 우리가 욥과 완전히 같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이렇게 자기 변론을 받아 주시기를 구할 때, (우리가 이미 언급한 대로)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거슬러 소송하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의롭다 함을 받고 무죄가 되리라고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할 권능을 주시면 자기가 먼저 말하겠고, 혹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을 때 자기가 대답하겠다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욥은 우리가 말한 목적,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엄격함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그러는 동안 우리에게 우리 잘못을 느끼게 해 주시며, 그분이 우리를 그 겸손에 이르게 하셨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재판관이 되어 각자 스스로 정죄를 받아들이게 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으로 그의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욥은 여기서 완전히 반대로 소송에 들어가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CO 640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그 분수를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가르침을 우리 쓰임에 잘 적용할 수 있다면 그것에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유익을 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말

을 들어 주시기를 구할 때, 그것이 마치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핑계를 대거나, 우리 잘못을 줄이거나 완전히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앎에 들어가려는 것이고, 우리가 완전히 꺾여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에 피하는 것밖에 우리에게 남지 않도록 그렇게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온 삶에서 정죄를 받아들였을 때, 그래도 가엾은 죄인들이 자기 악덕을 싫어하고 그것을 정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비로 받아 주시기만을 구할 때 그분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 자비에 소망을 두기를 그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는 이 간구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치에 이르기는 아주 어렵고,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어려움이 우리를 낙심하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재촉하여 하나님께 피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분께 그런 간구를 드려서 그 열매를 느낄 수 있도록 그분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분께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 잘못을 깨우쳐 줄 것이지만 그런데도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굼떠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인 것을 보시고, 그분은 손을 드셔서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은 고난일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어서, 흔히 말하듯 우리는 귀만 털어 버릴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타격을 두 배로 하시고 우리를 더 괴롭히시며, 우리를 거기 가두어 두시듯 하시고, 우리에게서 떨어지셔서 그분의 영이 꺼진 것처럼 되며, 우리는 그분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는 거기서 절망한 사람처럼 되어 “아,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겁에 질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숨 돌릴 틈을 주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분이 그것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완전히 수치스러워져서 우리 처지에 아무 처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의 손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허락을 주시기를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아, 주여, 주께서는 제가 가엾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십니다. 지금 저는 여기서 너무 큰 징계를, 그렇습니다, 제 연약함에 견주어 너무 큰 징계를 느낍니다. 이 징계가 제게 마땅한 것은 사실이고, 더욱이 저는 훨씬 더 많이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힘이 너무 약하고 연약해서 저는 이미 지옥의 심연에 갇힌 것처럼 생각됩니다. 아, 나의 하나님, 그러므로 주의 엄격함을 조금 누그러뜨려 주시기를 기뻐하옵소서. CO 641 제가 숨을 돌리고 지금까지 한 것보다 저 자신을 더 잘 생각할 겨를을 가질 때까지 말입니다. 제가 그런 숨 돌릴 틈을 얻으면 주께 나아가겠고, 제 상처가 누그러질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매가 유익을 주게 하는 참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손 아래에서 고칠 수 없는 자로 남아 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도록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 그런 간구를 할 때에도 이 조건이 덧붙여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제가 구하는 것이 제 필요를 위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께서는 제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제 고통을 앞질러 막지 않으시면 제가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심연과 혼란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여, 저는 저를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는 제게 무엇이 좋고 알맞은지 아시고, 제가 있는 이런 극한에도 처방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죽음에서조차 건져 내실 무한한 수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조건을 덧붙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그런 간구를 하는 것을 충분히 허락하시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분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욥이 자기 안에 나무랄 것이 하나도 없고, 소송에

들어가 먼저 말하며 하나님을 거슬러 변론해서 이기리라고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스스로 믿을 만큼 그토록 자만했다고 여기지 맙시다. 욥이 그런 어리석음에 취해 있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는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격정이 우리 안에서 너무 크게 다스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입니다. 우리 눈이 어지러워져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너무 언짢고 괴로워서 더 이상 자기를 알지 못한다면, 그에게서 어떤 경솔한 말들이 새어 나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그것을 말해 주면 그는 "그렇지 않다" 하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지각을 따른 것, 그렇습니다, 그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지각을 따른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격정이 우리를 너무 휩쓸어서 우리가 거기서 없어진 것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안에 어떤 앎을 간직하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숨 막힌 것처럼 되어 있을 것입니다. 큰 장작불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불을 재와 흙으로 덮으면, 그것은 그 아래 숨어 남아 있고 거기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아무 열기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안의 모든 분별이 숨 막힌 것처럼 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재, 곧 그 위에 있는 격정만 봅니다. 우리는 어떤 연기를 보고, 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하고,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서 먼저 말하겠다고 한 이 엄숙한 선언에서 그런 극한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그의 격정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은 사람으로서 말한다는 것을 압시다. 사정이 이러하니 CO 642 늘 겸손 가운데 행하기를 배우고, 우리 격정이 우리를 휩쓸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할지 모르게 되지 않도록 잘 조심합시다. 그런데 여기 아주 유익하고 좋은 가르침을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격정이 우리를 하나님께 내던지는 들짐승과 같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거기 와서 덤빈다면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보다 더 단단합니까? 우리가 그분을 물러나게 하거나 부술 수 있겠습니까? 아, 우리가 그런 광포함으로 그분께 들이받았을 때 우리는 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입김으로 우리를 뒤엎으실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분이 입김만 부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는 모두 멸망하고 무너지고 없어질 것입니다(사 40:24). 그러므로 우리 격정이 억눌러져야 하고, 우리가 그것에 굴레를 씌워야 하며,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슬로 묶어 두듯 해야 한다는 것, 곧 거기 있는 이 격렬한 광기를 꺾으려고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욥에게 일어난 일을 봅니다. 인내의 거울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감정을 굳게 지킨 이 거룩한 인물에게도 그런 격렬함이 섞여 있어서 그가 거기 와서 덤비며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격정이 너무 지나쳐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그러뜨리시고 그것이 그분을 거슬러 일어나지 않도록 억눌러 주시기를 그만큼 더 주의 깊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밖에, 때로 우리가 넘쳐흘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우리 한계를 넘었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처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이치로 되돌려 주시기를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꺼져 가는 불을 다시 지핍시다. 곧 선한 양심이 거기서 잠든 것처럼, 숨 막힌 것처럼 되어 있고, 우리에게 빛의 불티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혼란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때, (제가 말하는 대로) 그것을 알고서 우리가 이치로 돌아오도록 힘써서 이렇게 말합시다. “가엾은 피조물아, 너는 어디 있느냐? 너는 네가 여기서 마구잡이로, 그렇다, 네 하나님을 거슬러 너를 내던졌고 네 말에 아무 조리도 없다는 것을 본다. 그러므로 너는 네 안에서 너무 격렬하고 지나친 이 격정을 누그러뜨리며 너 자신을 억제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겁에 질려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를 때 우리는 이치로

돌아와야 하고, 바로 거기서 우리 자신을 더 가까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서, 욥이 여기서, 그렇습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것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지나친 말들을 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격정을 누그러뜨려서, 우리가 CO 64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를 맛보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수치스럽게 남아 있어야 할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래도 기뻐하고 그분의 선하심에 기대어 우리의 모든 고난 한가운데서 자랑하게 해 주시기만을 구하도록 배웁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52편

욥기 13장 설교 4

CO 33:644–655

> 내 죄와 불의가 얼마나 됩니까? 내 허물과 범법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 왜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께서 부서진 잎사귀를 쫓으시렵니까? 마른 지푸라기를 뒤쫓으시렵니까? 주께서 나를 거슬러 쓰라린 것들을 쓰시고, 내 젊은 시절의 불의를 내게 소유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내 발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차꼬에 채우시고, 내 발바닥에 자국을 찍으십니다. 그리하여 그는 늙은 나무처럼 썩고, 좀먹은 옷처럼 될 것입니다. (욥 13:23–28)

CO 644 욥은 앞에서 아주 참된 것을 선언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 언급한 대로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보지 못할 때, 우리가 그분을 거슬러 소송에 들어가려 한다면, 우리에게 한 조항이 있으면 그분께는 우리를 거스르는 조항이 더할 나위 없이 많아서 우리가 수치스럽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가장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입니다. 곧 우리가 그분의 율법과 일반 규칙을 따라서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선언되고 알려지셔야 하며, 우리는 잘 변론한 뒤에도 우리 부끄러움밖에 가져가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제도 다룬 것,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에서 우리에게 선언된 대로 우리가 아는 의 위에 감추어진 의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천사들조차 그 의로 살펴진다면 모두 정죄받을 것이고, 아무리 순결한 피조물이라도 그것을 만족시킬 피조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욥이 다시 이어 가는 것입니다. 그는 “내 허물과 내 불의를, 내가 얼마나 많은 죄와 범법을 가졌는지 내게 보여 주옵소서” 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이유를 보여 주지 않고 그를 괴롭히시는 것을 인내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느끼게 하셔서 우리가 이러저러하게 그분을 거슬렀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눈으로 보듯 본다면, 그것은 그만큼 유익이고, 그것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용서를 구하려고 우리 자신을 정죄할 지각과 분별을 가지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고해져 있다면, 우리 잘못을 안다고 해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 가두어 두시고, 우리가 그분의 매에 맞아 그 타격이 견디기 무거운데 그분이 무엇을 목표로 하시는지, 무슨 까닭으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시는지 모른다면, 그래도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되고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주께서 이 고난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게 보여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이 무엇을 뜻하시는지 우리에게 느끼게 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고 그것에서 유익을 얻게 해 주시기를 잘 바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간구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더 선언하시기를 기뻐하실 때까지 잠잠히 있는 이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유익을 잘 얻으려면, 욥이 그를 괴롭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을 거슬러 변론해서는 그의 소송을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을 온전히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흔히 사람들을 벌하시는 평범한 방식으로 그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분이 욥을 그런 방식으로 대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가 견디는 것이 일반적인 징계, 곧 익숙한 대로 맞출 수 있는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추어지고 숨겨진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욥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인내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말한 이 모든 것에서 그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의 손을 알고 그 타격을 느낄 뿐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알 때, 그것은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CO 645 여기 좋고 매우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늘 의로우시다고 드러나실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거슬러 불평해 봐야 우리 소송을 조금도 진전시키지 못하며 늘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우고 간직할 때 좋은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또한 우리를 낮추어서 우리가 입을 다물게 하고, 우리 정신이 붙들리고 굴레가 씌워져하나님을 거슬러 언짢아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챌 수 없는 감추어진 심판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더욱 우리를 복종하게 해서, 우리가 그분을 거슬러 따질 주제넘음과 대담함에 휩쓸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데 왜 그런지 모른다고 느낄 때 자신을 억제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감추어진 것을 계시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들의 정신을 평온하게 가져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욥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낀 고통이 너무 커서 그것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러므로 그가 그것에 놀라서 하나님께서 적어도 그의 죄를 따라 그를 대하시고 그 이상으로 그를 핍박하지 마시기를 구한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엾은 피조물을 상대하시고 그분의 팔을 펴셔서 그것을 벼락 치려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고 사람이 숨 돌릴 틈이 없이 점점 더 괴로움을 당하고 그의 고통에서 아무 출구도 보지 못하며 거기 삼켜진

것처럼 될 때, 아, 그에게서 어떤 엉뚱한 말이 새어 나온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싸움으로 이끄시려 할 때 우리가 쓰러지도록 허락하지 마시기를 그분께 기도하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서 우리가 악한 공상에 들어가려 할 때, 그분이 우리를 그분께로 모으시고 우리를 다시 그 지점, 곧 우리가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심판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지점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왜 욥이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가졌는지 내게 보여 주옵소서" 하고 단순히 '죄' 라는 한 말만 쓰지 않고 불의와 범법과 허물을 덧붙이는지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것에서 어디서나 잘 살피셨을 때, 그분은 나를 그토록 가혹하게 대하셔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미 말한 대로) 욥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혼란스러운 지각으로 말하고, 이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으며, 오직 이 고려, 곧 그의 친구들이 따진 대로, 하나님께서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어서 그를 벌하신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고려에만 마음을 둡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그는 CO 646 [135] 좋은 명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그는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요컨대 욥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잘 가려내셨을 때 그가 견디는 벌이 그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찾지 못하시리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의지로 짓는 죄와 무지로 짓는 죄, 하나님을 거슬러 짓는 죄와 이른바 태만으로 짓는 죄를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로 굳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미 언급한 대로) 욥은 그 일을 끝까지 구체적으로 말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잘

135. 전자텍스트에는 646쪽 표시가 빠져 있습니다. 645쪽과 647쪽 사이의 분량에 따라 단락이 나뉜 이 자리에 두었으나 정확한 위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깨달으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계명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규례, 율례, 법도, 의로운 판단과 비슷한 것들처럼 많은 말을 쓰신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거의 하나로 귀결되는 일고여덟 개의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 119편). 왜 그렇습니까? 먼저, 그분은 우리가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무지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온전한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길을 벗어나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잘 공부하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잘못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에서 어디서나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것이 이 다양한 말들이 향하는 것입니다. 율례, 규례, 지킬 것, 칙령, 법도, 증거, 의로운 판단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세심하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을 따르면 결코 헛발을 디딜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만큼 더 핑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려고 많은 빗장을 두시고, 우리에게 아주 확실한 길을 만드셨으며, 그다음에 사방에 경계를 두셨고, 더욱이 우리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치우칠 수 없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이며, 가르침과 함께 권고를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 쓰임에 확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대로 간다면, 그것이 일부러 꾸민 악의에서, 그렇습니다, 광기에서 나온다는 것이 잘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한 것을 한 마디로 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정하셨고, 규례와 율례와 지킬 것을 만드셨다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어겼을 때 너무 악한 반역의 죄를 입증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선언하실 때, 사람들은 핑계할 수 없는 자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에 대해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더 잘 감동받아서, 그들이 작고 가벼운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벌받아 마땅하며 그들의 범법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불의가 CO 647 가려지며 범법이 묻히고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으며, 사람들의 행복이 거기 있다고 말할 때(시 32:1–2), 왜 다윗은 죄와 불의와 범법에 대해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한 마디로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을 용서하실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은혜를 표현하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셈에 들어가려 하신다면, 아, 끝이 없을 것이고, 우리는 단 한 항목으로 빚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한 곳에서 우리를 정죄하신 뒤에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그들을 거기서 건져 내지 않으시면 사람들이 더할 나위 없이 깊고 무서운 정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그분이 그들에게 다섯 푼의 빚을탕감해 주신 것처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고, 그들의 허물과 불의와 범법을 잘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것을 기억에 되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왜 그런 다양한 말이 있는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욥은 그 반대편에 있어서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방식으로 잘못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할 나위 없이 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어쨌든 내 삶이 잘 살펴진 뒤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방식으로 대하실 만한 허물도 범법도 불의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말한 것을 주의 깊게 간직해야 합니다. 곧 욥은 마치 그 끝에 이른 것처럼 자기를 의롭다 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를 벌하시는지 그분의 의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본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죄가 얼마나 큰지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의 인내를 시험하려 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를 괴롭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에서 유익을 잘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하지 않으시면서 엄격함을 쓰려 하신다면, 그분이 죄 하나 때문에도 우리를 괴롭히셔서 우리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런데 더구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잘못을 벌하려 하신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분이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직접 돌아보시며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의로우실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참된 겸손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잘못 하나 때문에만 우리를 심판하려 하신다 해도, 우리가 "벌이 너무 크다" 하고 말하며 그분을 거슬러 말대꾸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이 이렇게 대들었을 때 무엇을 얻었는지 봅니다. 그가 CO 648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이미 그전에 죄를 입증받았습니다. 그는 "내가 내 아우의 목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잘 말했습니다(창 4:9). 그러나 그는 그의 불의가 온통 드러난 것을 보고 성을 내며 이를 갈고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큽니다. 보소서, 나는 절망한 가엾은 사람과 같습니다.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창 4:13–14). 그러므로 여기 가인이 그의 벌이 너무 크다고 하나님을 거슬러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한 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가 더 싸게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그의 불의가 그만큼 더 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잘못이 하나밖에 없다 해도 언짢아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우리 잘못이 무엇을 받을 만한지 보여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그것의 권한 있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욕구대로도, 우리가 좋게 여기는 대로도 아니라 그분의 판단대로 우리를 벌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 밖에,

둘째로 우리는 우리 잘못이 셀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방식과 저런 방식으로 핍박하시고 타격이 거듭되며 우리가 그토록 많은 고통 속으로 늘 더 깊이 빠져 거기서 짓눌린 것처럼 쓰러지더라도 그것을 낯설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을 낯설게 여기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잘못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직해야 할 둘째 요점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그분을 섬기려 애쓰고 우리 이웃에게 충실하게 힘썼으며, 그렇습니다, 사기도 악의도폭력도 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지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심판을 행하시려고 우리 위에 그분의 손을 펴실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순수하게 경배하고 부르며 또한 우리 이웃과 함께 온 올곧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그런지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변론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말을 멈추고 이렇게 말합시다. "그렇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가 견디는 이 고통의 이유를 내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시간이 내게는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여, 내가 주의 강한 손 아래 나 자신을 낮출 수 있을 때 나는 충분히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주께서 앞으로도 내게 이 선을 베푸셔서 주께서 무엇을 목표로 하셨는지 내가 알고 그것에서 점점 더 유익을 얻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를 영화롭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기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반 소송에서처럼 들어오시기를 구한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왜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그것은 이미 부서진 잎사귀를 쫓으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CO 649 마른 지푸라기를 뒤쫓으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욥은 그의 고난에 어떤 숨 돌릴 틈을 얻고 그의 상처가 누그러지도록 하나님께 그의 연약함을 내세웁니다. 그가 앞에서 그렇게 했고 뒤에서도 그렇게 할

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한 대로 그것이 진행되었다면, 이런 기도 방식은 좋고 거룩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서 그분이 우리를 우리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게 하려 할 때 그분께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그분께 우리 약함을 내놓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존엄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자기에게 매이게 하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비참하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비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함으로써입니다. "아, 주여, 우리가 누구인지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피조물이니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내세울 때입니다. "아, 내 몸에는 썩은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능력을 거두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은 무엇을 가졌습니까? 그것은 작은 입김일 뿐이니, 주께서 거기서도 주의 영, 곧 주께서 내게 주신 이 능력을 거두시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토록 많은 무지와 그토록 많은 악덕과 그토록 많은 가난이 있습니다. 아,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내가 이렇게 비참함으로 가득한 것을 보실 때, 그것이 주의 자비를 베푸실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려 할 때 여기서 욥이 하는 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그것이 다른 감정에서 나와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몰리는 것에 언짢아서 너무 큰 격렬함에 떠밀렸고, 그것을 두고 성을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께 우리 비참함을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쪽으로 기울어지시게 하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명제들로 가득합니다. "아, 주여, 사람이 무엇입니까?" 여기 다윗은 "내 생명이 가서 돌아오지 않는 입김일 뿐이니, 주여,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말할 것입니다(시 39:5; 144:4). 그런데 하나님께

서 그런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다른 증언들로 드러납니다. “그분은 그들이 육체요 지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바람임을 기억하셨다“(시 78:39).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그들의 잘못을 따라 대하지 않으셨을 때, 그것은 그들이 육체이고 그들 안에 부패밖에 없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며, 그 때문에 그분이 그들을 참아 주셨다고 증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함을 보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분에게서 자비를 얻으려 할 때 이 요점을 내놓을 수 있고 또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욥이 쓰는 말이 CO 650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며, 우리가 겸손 가운데 나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좋은 형식이라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주여, 내가 누구인지 보옵소서. 나는 잎사귀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시든 잎사귀입니다. 그런데도 주께서 나를 긁어내어 완전히 삼키려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이미 마른 지푸라기와 같고 베어진 풀과 같아서, 더 이상 힘도 실체도 없습니다. 아,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나를 더 핍박하시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탄식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그분이 우리에게 매이신 것처럼 거만하게 그분께 나아갈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우리 비참함을 내놓아서 그분이 그것을 돕고 처방하시게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도는 그분께 들어주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욥이 “왜 주께서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하고 다투는 것처럼 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런데 욥은 이것을 하나님께 걸맞지 않은 일처럼 놓습니다. “보소서, 주여, 주께서는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여기 와서 나와 다투십니다. 나는 썩은 가엾은 나무여서 내 안에 더 이상 힘도 실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께서 나를 거슬러 주의 능력을 시험하시렵니까?” 그가 위에서 그것에 대해 말한 대로이며, 그는 그의 말을 되풀이합니다. 그

래서 제가 우리 격정에 이렇게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연약하더라도, 그분이 우리와 싸움에 들어오시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낯설게 여기더라도 우리는 눈을 감아야 합니다. 곧 우리 지각에서 너무 예리해져서 "오, 그래도 나는 내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대우받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주제넘음을 조심합시다. "오, 그렇다, 그러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산들을 보려 하시면 그것을 불 앞의 밀랍이나 눈처럼 녹아내리게 하시는(시 97:5) 하나님, 말씀 한 마디만 하려 하시면 세상을 삼키실 하나님께서, 그러는 동안 일어나셔서 나를 거슬러, 가엾은 피조물인 나를 거슬러 (제가 말하는 대로) 맞붙어 싸우려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오, 우리는 그렇게 따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할 결론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지혜롭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실 때, 그분이 아무리 크시고 아무리 강하시며 그분의 위엄이 우리에게 아무리 두렵더라도 굳게 버티고, 그분이 우리를 거슬러 일어나시고 우리를 삼키려 하시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분이 의로우시고 모든 것을 이유를 가지고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그치지 맙시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로 자신을 선언하시는 데에는 충분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맞설 수 없고 그분이 우리를 업신여기실 것이라 해도 말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그분 아래 CO 651 굽히지 않고 늘 의롭게 보이려 하니,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교훈을 보여 주셔야 하고, 그렇습니다, 억지로라도 보여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정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대로 우리를 괴롭히실 때 우리를 거기에 강제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로 나타나시는 정당한 이유가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 가정해 봅시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요 반대자로 나타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정죄받는지 모르는 이 아주 크고 괴로운 시험에 맞서 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의 원수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데 굳고 꿋꿋하게 머무는지 보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면 왜 우리가 그것을 인내로 견디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로 자신을 선언하시고 우리 안에 아무 힘도 저항도 없더라도, 우리는 변론하지 않도록 억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그렇게 하실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부 보여 주시며,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작은 맛으로 만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이 두 비유로 우리가 어떤 자인지 일깨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행하기를 배우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리고 도움받으며 그분의 선하심으로 굳게 세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본성적 상태에 내버려 두셨을 때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가 더할 나위 없이 자기를 기뻐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만에 취해서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과 모든 것에 대해 대단한 것을 스스로 믿게 하는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여기부서진 잎사귀가 있다. 여기 시든 풀이 있다. 여기 마른 지푸라기가 있다." 곧 우리가 힘도 없고 실체도 없으며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영광이 무엇이든 그것은 한 줄기 바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사 40:6–7).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울을 내놓으시는 것을 보니, 우리 약함이 어떠한지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모든 교만을 벗고 비우기를 배웁시다.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자기에게 돌릴 때, 그들은 일부러 그러듯 자기를 속이는 것 말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 하나님

께서 앞서 오셔서,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헛되고 어리석은 견해에 속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것이 곧 시들 베어진 풀과 같을 뿐이며, 우리가 아무 힘도 없고 모든 능력과 모든 은혜를 빼앗길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요점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CO 652 차꼬에 채우신 것처럼 가두어 두신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거슬러 쓰라린 것들을 쓰시고 그에게 그의 젊은 시절의 모든 죄를 소유하게 하신다고도 놓습니다. 그는 "주께서 나를 차꼬에 가두십니다" 하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거슬러 온갖 진노의 표시만 보이신다고 말합니다. 판결은 흔히 문서로 내려지므로, 욥은 일반 문체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슬러 쓰라린 것들을 쓰신다고 말합니다. 곧 그분이 사람이 생각해 낼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죄목들을 그를 거슬러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재판관이 자기 앞에 있는 가엾은 죄인을 미워하여 그의 죄를 무겁게 하려 하고, 그 죄가 너무 엄청나서 아무리 엄격하게 벌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거슬러 너무 엄격한 판결, 머리털을 곤두서게 할 만한 판결을 쓰신다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그분이 그의 젊은 시절의 죄를 그에게 상기시키신다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에게 소유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덧붙입니다. 그런데 '소유하게 한다' 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곧 "내가 그것에서 벗겨질 수 없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에 있고 자기 밭에 있을 때 그가 자기 소유물을 입고 있는 것처럼, "주여, 주께서 나를 그렇게 소유하게 하십니다." 곧 "나는 내 죄라는 이 저주받고 불행한 소유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에 휘감겨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136] 여기서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히실 정당한 까닭을 가지고 계셨다는

136. 원문의 '소유하게 한다' (faire posseder)는 사람이 자기 집과 밭을 소유하듯 죄가 떼어 낼 수 없는 소유물처럼 그에게 붙어 있다는 칼빈의 비유입니다.

것을 잘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는 언짢아하고 성을 내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특별한 거울인 사람이 그런데도 그런 시험에 휩쓸리는 것을 보니, 우리는 그만큼 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왜 그의 젊은 시절의 죄에 대해 말하는지 알아봅시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나이에는 더 끓어오르는 욕망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길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써입니다"(시 119:9)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보다 젊은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까? 늘 악하고 나쁜 인간 본성이 그때 큰 거품을 내뿜고 더 끓어오르는 격정이 있어서, 더 강한 굴레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시절에 많은 잘못을 저지르므로 욥은 특별히 그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25편에서 "주여, 내 젊은 시절의 잘못을 잊어 주옵소서"(시 25:7) 하고 말합니다. 그는 특별히 그 나이에 대해 말합니다. 그가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서는 그 나이를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큰 경솔함이 있고, 넘쳐흐르는 욕구가 있으며, 젊은이는 눈이 멀어서 그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를 누그러뜨릴 절제가 없으며, 오히려 자만이 더할 나위 없이 많고, 그와 비슷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CO 653 여기 이미 젊은 시절의 죄에 대해 말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이유는, 욥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모든 불의를 상기시키시고 마치 그의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 같다고 말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는 너무 큰 엄격함을 탄식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전에 잘못했다면,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를 되돌려 주를 섬기는 데 바로 세우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께서 잊혀야 할 내 잘못들을 쌓아 올리십니까? 왜 주께서 그것을 아직도 내 앞에 내놓으러 오십니까? 주께서 그것을 내게 용서하셨는데, 내가 지금도 거기에 휘감겨 있어야 합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욥이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슬러 쓰라린 것들을 쓰실 때, 곧 우리에게 온갖 엄격함의 표시를 보이시고 우리가 그분께 가증하다고 선언하실 때, 우리가 탄식함으로써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받아 마땅하니, 늘 거기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슬러 쓰라린 것들을 쓰시고 그분이 그분의 백성에게 흔히 쓰시는 그분의 부드러움을 쓰지 않으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말하는 대로) 그분이 이렇게 부드럽게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판으로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처방, 그토록 격렬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분이 잘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함은, 이렇게 교만에 빠진 사람을 낮추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수치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거슬러 쓰라린 것들을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그분은 우리를 자비로 받아 주기를 그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욥에게 숨으셨던 대로 한동안 숨으실 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뒤에서 말하겠지만 “왜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하는 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시 동안 그분의 얼굴을 숨기셨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너그럽고 자비롭게 나타나시리라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것이 우리에게 알맞다는 것을 아실 때입니다. 그분이 미루시고 우리를 시들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은 알맞은 때에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슬러 쓰라린 것들을 쓰실 때마다, 그것은 그다음에 우리 고통을 누그러뜨리시려는 것임을 잘 주목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무덤에 두셨을 때 우리를 거기서 건져 내시는 것이 그분의 직분이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죄 가운데 남아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얻으신 구속에 나아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그분께 정죄받아 마땅한데도 무죄가 된 것을 볼 때 하나님께 잘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우리가 설교에 올 때 그분은 우리가 어떤 자이며 우리 죄와 악덕이 무엇인지 보여 주시고, 우리를 정죄하시며 CO 654 날마다 우리를 거슬러 많은 판결을 선언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각 장마다 어떤 정죄를 발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른 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 이러저러한 잘못이 있다, 여기 이러저러한 죄가 저질러졌다" 하고 보여 주시지 않고는 우리 악덕을 덮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우리 죄에서 수치스럽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그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은혜로우시려 한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잘 높이게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옛 죄를 상기시키시더라도, 그것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잘못하시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그분을 거슬러 말대꾸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압시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 옛 죄를 용서하신 뒤에도 날마다 여전히 우리를 자비로 받아 주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만큼 더 그분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태로 발견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의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 씨를 안에 품고 있어서, 우리가 저주받고 비뚤어진 혈통에 속하므로 이미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죄, 곧 우리가 인류의 뿌리에서 끌어오는 죄를 우리에게 용서하십니다. 그분이 그 죄를 우리에게 용서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마흔, 쉰, 예순의 나이에 이르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늘 더 많은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십 년 전에 저지른 죄를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늘 저지른 죄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옵니까? 그분은 우리를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우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그토록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그토록 빨리 하시는 것을 볼 때 (시 103:8), 아, 우리는 그분의 자비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넋을 잃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너무 쓰고 너무 거칠다고 해서 그분을 거슬러 투덜거리지 말고, 그분께 그분의 엄격함을 누그러뜨려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분이 그것을 누그러뜨리셨을 때 그것으로 그만큼 더 그분께 나아가도록 재촉받으라는 일깨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우리가 말한 것을 덧붙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를 차꼬에 채우시고, 그가 '발의 뿌리' 라고 부르는 그의 발꿈치가 그 안에 찍혀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는 "보소서, 그는 썩은 나무와 같고 좀먹은옷과 같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는 3인칭으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썩은 나무와 벌레 먹은 옷을 뒤쫓으려 하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137] 우리는 앞에서 밝힌 것, 곧 욥 안에 있던 이 어지러움을 더 잘 봅니다. 그는 그런 인내를 가졌는데도 흔들렸고, 그렇게 CO 655 흔들려서 하나님을 거슬러 언짢아하고 속을 태웁니다. 그가 차꼬에 채워지고 갇힌 것처럼 되었다고 탄식할 때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만큼은 우리에게도 일어나리라는 것을 주목합시다. 우리는 이 거룩한 사람만큼 하나님의 학교에서 유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 복종하려는 참된 바람을 가졌더라도 조급함이 드러날 만큼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면서 분수를 넘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분을 거슬러 일어나도록 우리 자신에게 고삐를 풀어 주지 않는 이 목표를 늘 눈앞에 둡시다.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아시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137. 칼빈은 28절이 3인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욥이 자기 자신을 '그' 라고 부르며 썩은 나무와 좀 먹은 옷에 견주는 것으로 풀이합니다.

아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고전 10:13).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 가운데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한동안 흔들릴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시기를 그분께 구합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53편

욥기 14장 설교 1

CO 33:656–667

>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날이 짧고 괴로움으로 배부릅니다. 그는 꽃처럼 나왔다가 잘리고, 그림자처럼 달아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런 자에게 눈을 두시고 나를 소송에 불러내십니까? 누가 더러움에서 깨끗한 것을 내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욥 14:1–4)

CO 656 우리는 어제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내세우는 것이 어떻게 허락되는지 보았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뻐하시도록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이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실 때, 그것이 그분을 자비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어제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불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내세우려고 그분께 탄식해서는 안 되고, 오직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게 하는 이 목적만을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완전히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기 욥이 한 탄식들을 우리에게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정죄받아야 할 것을 따르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아름답고 좋은 목적을 향하는 명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완전히 좋지는 않아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욥은 사람의 처지가 어떠한지 말합니다. 그는 "사람은 짧고 덧없는 삶을 가졌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러함을 그는 비유로 확증합니다. 그는 "그는 꽃처럼 나와서 잘리고 시들어 마르며, 머무는 데가 없는 그림자처럼 사라집니다" 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삶의 짧음이 어떠한지 봅니

다. 그것은 곧 마르는 꽃이나 지나가서 흘러가 버리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그는 이 삶이 어지러움과 불안으로 가득하며,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 짧은 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성가신 일에 찔리기를 그치지 않아서 아무 안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처지가 그 자체로 이렇게 비참 하고,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짧음과 우리가 또한 어지러움과 불안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생각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그토록 큰 엄격함을 쓰지 마시고 우리를 참아 주셔서 우리가 분수를 넘어 몰리지 않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정죄받아야 할 지나침을 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가엾은 피조물이 이렇게 덧없고 거기에 온통 가난밖에 없을 때 그 위에 주의 눈길과 시선을 던지셔야 합니까? 그리고 왜 주께서 나를 소송에 붙잡으려고 거기로 향하십니까? 내가 주와 대등한 소송 당사자입니까?" 우리는 욥이 그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을 봅니다. 그가 그 결심을 온전히 내리고 결론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맞서야 할 격정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그도 그것에 잘 맞섰지만, 그러는 동안 그는 우리 각자가 자기 안에서 경험하는 대로 자기가 많은 악한 생각에 흔들렸다는 것을 선언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는 또 하나의 명제를 덧붙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인이므로 까닭 없이 그들을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대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CO 657 우리는 부패하고 악한 덩어리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순결하고 깨끗하겠습니까? 우리가 더러움으로 가득하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근원에서 왔습니까?" 욥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사람들 안에 죄가 본성적으로 있으므로 그들이 용서받아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악을 덜어 주는 데 소용이 있기는커녕, 우리는 그만큼 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이고, 우리 안에는 악의와 반역밖에 없으며, 죄의 씨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듭니까? 악은 자라고 커지며, 선은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가 더러움으로 가득하여 태어난다고 말할 때, 그들은 그만큼 더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아야 한다고 결론지읍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욥 안의 또 다른 악한 격정을 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본성이 어떠한지 생각했을 때 그것에서 유익을 얻을 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컨대 우리가 욥의 의도를 알았으니, 사람은 삶이 짧고 그러는 동안 괴로움으로 배부르다고 말할 때 이 구절에 어떤 가르침이 담겨 있는지 봅시다. 그것으로 우리는 먼저 우리가 거기를 지나가기만 할 뿐이니 세상에 너무 머물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흔한 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필요한 만큼 마음에 품지 않습니다. 그러함은, 우리가 여기 사흘밖에 있지 않을 것인데도 이 덧없고 지나가는 현재의 삶의 감정과 근심에서 우리를 풀어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코 재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영예에 이르려는 사람은 이쪽저쪽에서 꾀하고 손을 씁니다. 요컨대 사람은 심연이요 채울 수 없는 소용돌이여서, 땅의 모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문제도 되지 않으며, 그 안에는 끝도 분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의 짧음을 생각한다면, 우리 욕망은 누그러지고 우리 욕구는 그렇게 끓어오르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는 재산과 이것저것을 모으는 데 너무 탐욕스러워서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여기 아래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하는 이 고백, 곧 우리 삶이 곧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고백이 순전한 위선과 거짓일 뿐이라는 것을 봅니다. 진리는 정말 그러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그것을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자주 우리 삶은 아무것도 아니며 CO 658 곧 사라진다고 말할 때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더욱이 그것이 우리 마음에 하나도 남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상기되고 기억에 되살려지는 것이 까닭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시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먼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짧음을 안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다음에 더 멀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나가기만 하고 우리 나이가 흘러가 버린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다가올 생명의 소망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를 언짢게 할 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 못 하는 짐승보다 더 비참하고 더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늘의 삶과 비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낮고 썩을 것들을 업신여길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처럼 그것들에 매여 있을 수 없을 것이며, 그다음에 위로 들려 올라가 거기서 우리의 모든 만족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할 때마다 이것을 그분께 잘 내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비참함이 그분을 움직여 우리를 돕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삶의 연약함과 짧음입니다. 그런데 놓인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아래 욥은 우리를 흔드는 우리의 모든 격정, 고문과 같은 모든탐욕과 넘쳐흐르는 욕구를 담았습니다. 사람은 넘쳐흐르는 격정으로 자기를 괴롭히므로 자기 자신보다 더 나쁜 사형 집행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망에 빠져 있다면 그 안에 불이 붙어서, 그는 결코 충분히 빨리 신용과 영예에 이르지 못하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영예를 바치지 않으면 그는 찔립니다. 다른 사람이 그가 높여지는 것을 막으면 거기 시기가 있습

니다. 요컨대 우리 안에 다른 천 가지를 낳는 데에는 욕구 하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결합했을 때, 우리는 그때 이 현재의 삶을 싫어할 기회를 그만큼 더 가질 것입니다.

(제가 이미 언급한 대로) 이 말이 세상에 완전히 낯선 것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경험으로 그것을 납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각자 거기에 잘 공부를 쏟아야 합니다. 성경이 사람이 여든 살이나 그 이상까지 이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큰 길이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시 90:10). 왜 그렇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이 어떠한지 압시다. 우리는 참으로 삶에 들어서기 전에 얼마 동안 세상에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지각도 이성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젊은 사람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더라도, CO 659 넘쳐흐르는 것 같고 날뛰며 그들 안에 차분한 꿋꿋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 나이의 일부가 우리가 살기 시작하기 전에 지나가고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자기가 왜 하나님께 지음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목적으로 세상에 놓였는지 알 분별이 자기 안에 없을 때, 묻건대, 엄밀히 말해 그에게 생명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혼란스러운 앎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년에 이르렀습니까? 그때 근심이 그만큼 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이 얼마간 분별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경솔했고 더할 나위 없이 철없이 놀았다. 이제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되찾겠는가? 그것은 아주 어려울 것이다." 그다음에 사람에게 자녀가 많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내 일을 정리할 생각을 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곧 데려가지 않고서는 제때에 거기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근심들이 사람들을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쉰 살에 가까워졌습니까? 죽음이 날마다 우리를 소환하는 것이 보인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병이 없더라도 우리가 우리 끝에 가깝다는 것이 잘 보입니

다. 여든 살에 이르렀습니까? 무덤이 가까이 보이고, 그것은 더 이상 거의 삶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 쓸모없다는 것을 보고, 자기가 짐이 되었다는 것을 보며, 그가 많은 성가심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라면, 자기 자신에게는 더욱 그러해서 괴로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깨우쳐지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세상의 한 해를 우리가 백 해를 여겨야 할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다음에 우리 삶이 그 바른 쓰임에 관련되지 않을 때 얼마나 잘못 이끌어지는지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명제와 권고, 곧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아주 짧고 덧없는 삶을 가졌다는 것을 그만큼 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짧음을 잘 깨달으려면 거기 있는 괴로움도 함께 결합해야 합니다. 우리 삶이 더 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그토록 기뻐할 무슨 기회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늘에 우리를 위해 마련된 안식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는 동안 우리는 이 괴로움들이 어디서 오는지도 주목해야 합니다. 곧 우리의 악한 감정에서 옵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만 어지럽힘을 당하고 그러는 동안 우리 자신 안에서는 안식을,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식을 가진다면, 우리가 평온하지 못하고 이 현재의 삶이 제 길을 가지 않으며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탄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각자 자기 사형 집행인이고, CO 660 우리탐욕과 격정과 욕구가 우리 불안의 원인이며 우리가 그것으로 언짢아한다면, 우리는 우리 탄식을 누구에게, 누구를 거슬러 내놓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고발하거나 그분을 거슬러 소송을 걸어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 자신을 싫어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시다. 우리 삶의 짧음을 알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거기서 수치스럽게 남아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돌아와야 할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다음에 오는 말, 곧 "누가 더러움이나 오염에서 나온 것을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겠습니까?"라는 말에서 더 잘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명제로 우리는 우리가 견디는 모든 고통이 인간 본성의 부패에서 나온다는 일깨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잘 깨달으려면, 사람과 그 안에 있는 것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합시다. 아담은 오늘날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리고 그의 인격 안에서 온 인류를 세우셨던 그 지위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뛰어난 은혜를 받았으며, 더욱이 죽음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형상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올곧음과 의와 온전함이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분의 큰 보화를 펼치셨고, 요컨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빛나는 그 뛰어난 영광을 비추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은혜에서 멀어졌고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버리셨으므로 우리는 또한 그분이 그 근원이요샘이신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모든 선의 완전함이 하나님 한 분 안에 있지 않다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에게서 끊어졌으니, 우리가 온갖비참함, 그렇습니다, 죽음 속에 있다고 결론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우리 창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을 우리가 빼앗긴 데서 나온 것이며, 이제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가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빼앗겼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우리 불신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악덕의 원인이 우리가 아담의 이 혈통에서 나오고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에 관해서만 아담의 혈통에서 나옵니다. 죄는 어디에 거합니까? 그것의 고유한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영혼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이렇게 아담의 혈통과 계보에서 내려온다는 데에는 아무 그럴듯함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잘 논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인격 안에서 온 인류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듯이,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졌던 은혜를 빼앗기고 그것에서 추방된 것이 그 혼자만이 CO 661 아니라 따라서 그의 온 혈통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138] 그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모두 그의 인격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러한지 아닌지 알려고 본성적인 이유로 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분이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신 것을 우리 첫 조상에게 주시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그에게서 빼앗겼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같은 파멸과 혼란에 빠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바라보고 거기에 머물며, 우리 지각과 공상을 믿지 맙시다. 요컨대 이것이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주제를 더 길게 풀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세 마디로 깨닫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곧 여기 담긴 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러움으로 가득하고 그들 안에 악취밖에 없다고 해서 놀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부패한 덩어리에서 취해졌으니, 그런 자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셨지만 우리의 모든 더러움에서 면제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잉태되시도록 정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이 더러움이 그분께까지 이르지 않고 그분이 그것에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잉태될 때, 그렇습니다, 사람의 질서와 본성에 공통된 방식으로 잉태될 때, 우리는 이 부패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온갖 불의로 가득하지 않은 죽을 피조물을 찾는 것은

138. 영혼이 혈통을 따라 전해지느냐는 물음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인류가 아담의 인격 안에 담겨 있었다는 칼빈의 대답은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칼빈은 앞의 것을 부정하고 뒤의 것으로 원죄의 전가를 설명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의 짧음과 그것이 매여 있는 비참함을 어떻게 내세워야 하는지, 곧 그분을 거슬러 불평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는 또한 우리 삶을 싫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이미 언급한 것입니다. 곧 우리가 우리 삶이 그토록 덧없다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이 가득 차 있고 꽉들어찬 가난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그렇게 그것에 빠져 있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더 잘 깨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분수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을 진실로 알았고 그런 확신을 가져서 세상에 사는 것을 언짢아하고 싫어했던 이방인들이 있었고, 더욱이 자기 목숨을 끊은 자들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들은 여기 있는 비참함을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극단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이 CO 662 한순간에 흘러가 버린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곧 죄에서 나온다는 것을 봅시다. 우리는 죽음이 우리 위에 다스리는 그런 처지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에게서 생긴 일이어서 우리가 모두 그것에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 삶의 짧음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원죄에 대한 이 앎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를 둘러싼 그토록 많은 비참함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면 어디서 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어서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죄 때문이니, 늘 거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고발하기를 배웠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거슬러 불평하는 자들처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의 걸작처럼 보인다. 그분은 여기서 나머지 모든 것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뛰어남과

존엄을 보이려 하셨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그들이 더할 나위 없이 괴로움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그것은 무슨 뜻인가?" 그러므로 여기 많은 속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불평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마치 그분이 사람을 무대 위에 세워서 조롱과 수치에 내놓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매여 있는 모든 고통이 우리 악덕에서 나오고 우리가 그것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우리는 입을 다물어더 이상 하나님을 거슬러 불평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절망에 휩쓸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밖에 할 수 없으리라는 데는 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성나게 하듯 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기가 자기 비참함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그들의 슬픔과 괴로움을 누그러뜨릴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을 바라봅시다. 예를 들면, 먼저 우리 삶이 비참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에게 그토록 여러 방식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은택에 참여하게 하시니 우리가 복되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짧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 아버지요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지 맛보며, 그분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 겨를을 주시지 않을 만큼 짧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선을 십오 분 동안만 가지고 그 누림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해도, 묻건대, 우리는 그런 선을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위와 더위를 겪고 CO 663 굶주림과 목마름을 겪으며 여러 방식으로 핍박을 받고, 다른 데서 우리에게 오는 고통 외에도 우리 안에 그

심연이 있어서 그토록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해도, 그렇습니다, 여기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자비를 얼마간 맛보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참아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괴롭히기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거나 그분의 엄격함을 누그러뜨리셔서 우리가 늘 그분의 선하심을 느끼는 것을 볼 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지러움과 불안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기뻐할 어떤 기회를 가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보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셨다고 탄식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할 거리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불행하다, 그가 세상에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느니 차라리 결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그 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우리가 이런 고려를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수치스럽게 남아 있으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둘을 함께 결합하여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 이 현재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안에 들어서자마자 이미 숨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얼마 동안만 머물렀는가? 우리는 우리 눈앞에 온갖 비참함만 보고, 무덤이 사방에서 우리를 에워쌀 뿐 아니라, 백만 가지 죽음에 이렇게 공격받느니 차라리 한 가지 죽음으로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토록 많은 괴로움을 지났을 때, 요컨대 우리는 시들어 가기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처지를 잘 생각했을 때, 우리가 견디는 모든 고통이 우리 죄에서 나오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싫어할 충분한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러는 동안 그분은 거기서 우리에게 그분의 선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괴로움에 짓눌려서 그분 안에서 기뻐할 거리를 가지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일 뿐이며 우리 고통이 늘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 주실 때, 이 삶의 짧음은

그때 우리를 언짢게 하기보다 오히려 위로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이런 공상에 머물러서 "그러면 어떻다는 것인가?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 손바닥만 뒤집으면 그것은 없어져 버린다" 하고 말하는 자들, 거기에 매달리는 자들은 성을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짧은 시간만 살아야 한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곧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며 우리를 조롱하셨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더 긴 삶을 주시거나, 적어도 우리 삶의 기한이 언제인지 알게 해 주실 수는 없었는가? 그런데 우리에게는 좋은 날이 하루도 없다. 우리 삶은 실에 매달려 있고, 죽음은 늘 우리 이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CO 664 (제가 말하는 대로) 온전히 사람의 삶의 짧음에 매달리고 머무는 자들은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서 늘 시들어 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여기서 많은 가난에 매여 있어서 자기 처지를 잘 아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동안 늘 탄식하고 한숨지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끝을 두셨고, 그분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실 때 거기 좋고 안전한 안식이 있다." 거기서는 우리가 이 삶과시간의 길이가 같은 삶을 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 자신의 생명, 곧 죽지 않는 생명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의 짧음 속에서 기뻐할 거리를 가지고, 인내하며 너무 언짢아하지 않을 거리를 가질 때 위로를 받읍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삶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진다면,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때때로 언짢아진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탄식하겠지만 그와 함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안식에 모으실 때 우리를 좋은 끝으로 이끄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가 이 가르침에서 유익을 잘 얻으려면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밖에,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에 흔들리고 그들 자신이 자기 격정과

탐욕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만큼 더 우리 육의 격정에 굴레를 씌워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는 대로 가진다 해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어지럽다면 그것이 너무 큰 괴로움이어서 나머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안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품으신 사랑, 그렇습니다, 그 값없는 사랑에 기대어, 그분이 우리를 그분께로 받아 주실 때까지 우리가 늘 불행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 마음이 이 썩을 것들에 머물지 않은 채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향할 때입니다. 사람들의 평안은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 전쟁을 걸어서, 그분이 우리를 거슬러 일어나시고 그분이 우리를 공격하셔야 할 때 우리가 어떤 원수를 가지게 될지 느끼게 하시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 격정과 욕구에 굴레를 조이도록 힘씁시다. 우리가 들짐승처럼 와서 우리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난다면, 우리는 지각없는 자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사람의 삶에 있는 괴로움에 대해 하는 말을 잘 묵상합시다. 우리를 모든 악으로 몰아가고 부추기는 우리의 모든 악한 욕구를 누그러뜨리고 바로잡는 데 그것이 쓰이도록 그것을 생각합시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는 이 CO 665 가르침을 실천하여, 우리 구원에 좋고 유익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아무도 더러움과 오염에서 나온 것을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지 못하리라고 말하는 이 요점에 관해서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수치에 빠뜨리려 하셨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우리가 오직 그분과 그분의 순전한 선하심 안에서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자기 안에 많은 존엄이 있다고 스스로 믿게 하니, 그들이 이렇게 망신을 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사람들

안에 있는 이 부패에 대해 성경에 담긴 것을 흐리게 하기를 결코 그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원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로 아담을 따르는 한에서만 존재한다고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 한 이단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완전히 이기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교황권에서도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지어내고 도덕적 덕을 세웠으며, 이성을 거기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뻐하고 자기 안에 어떤 선이 있다고 생각하게 하려는 것 말고 무엇을 향합니까? 사람들이 감히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황권에서도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셔야 한다고 고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그들은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은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얼마간의 선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께서 조력자가 되실 것입니다. 곧 그분은 우리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겠지만 우리 편에서 우리가 그분의 동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에게 마법을 걸어서 그들이 여기서 무엇인지 모를 대단한 존재라고 믿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 관해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기뻐하는지 봅니다. 어떤 지각이나 어떤 지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자기를 높입니까? 신용과 권위가 있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우상과 같지 않습니까? 요컨대 사람들에게 그들 안에 큰 존엄이 있다고 믿게 하는 데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각자 많은 거짓을 지어내고 세워서 자기를 속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첨이 있으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은 온통 설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려고 큰 몽둥이로 우리 머리를 내리치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교만이 늘 우리 안에 남아 있을 것이고, 우리는 목을 굽힐 수 없을 것이며, 흔히 말하듯 결코 빚을 고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있는 이 더러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CO 666 자기가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그의 어머니가 불의 가운데 그를 배었다고 말할 때처럼 말입니다(시 51:5).[139] 그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고발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졌다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에 대한 정죄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우리는 욥이 그의 첫 격정 속에서 너무 휩쓸려서 이것을 반대로 적용한 것을 봅니다. 왜 그는 더러움에서 나온 것이 순결하고 깨끗할 수 없으리라고 말합니까? 그는 모든 사람 위에 있는 정죄를 덜어 줄 어떤 핑계를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용한 다윗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잘 보는 대로 그것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거스른 그의 죄가 그토록 엄청나다는 것을 안 뒤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 주여, 내가 잘못한 것은 내 삶에서만이 아닙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소유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뒤로 나는 늘 내 안에 그 씨를 가지고 있던 악을 점점 더 키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 할 어떤 구실을 얻으려고가 아니라, 자기가 처한 정죄를 받아들이려고 원죄를 자기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원죄에 대해 말할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하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농담꾼들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죄를 짓도록 정해져 있고 본성적으로 비뚤어져 있으며, 그 안에 무지밖에 없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밖에 없다면, 가엾은 피조물이 무엇을 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정죄하

139. 원문에는 시편 51편 7절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절수에 넣어 세는 프랑스어 성경의 절수이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러 오셔야 하는가?"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 핑계가 없고, 더욱이 그것은 우리 악을 그만큼 더 무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본성적으로 진노의 자녀라고 말할 때 (엡 2:3), 그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좋은 소송을 가지게 하고, 우리가 우리 본성에 그 뿌리를 가졌으니 우리 죄가 우리에게 돌려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육체가 수치를 당하고 모든 입이 하나님 앞에서 닫히게 하려는 것이다"(롬 3:19)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죄에 대해 말할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이르러야 합니다. 곧 날마다 우리가 살핌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토록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슬러 죽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알게 된 모든 잘못을 모아 놓는다 해도, 그보다 무한히 더 많은 것이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저지른 그토록 많은 범죄의 백분의 일도 마음에 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밖에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CO 667 모두 그 속에 절여져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분별을 가지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리를 가질 것입니다.

그가 "누가 더러움에서 순결하고 깨끗한 것을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할 때, 그것으로 그는 사람들이 자기가 순결하고 깨끗하다고 스스로 믿을 때 그들이 정말 미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관해서는 수치와 파멸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압시다. 우리가 불의와 악덕에 너무 짓눌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우리를 버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우리를 씻고 우리의 모든 얼룩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이 직분을 자신에게 돌리시니, 그분께 피합시다. 특히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순결함을 그 안에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더럽혀지

고 오염되었으며 저 위의 그분께 이르는 길이 너무 멀다는 것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거룩함을 주시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씻길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더러움에서 순결하고 깨끗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덩어리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 영혼과 몸에 더러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뿌려 주시기를,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그분의 맑은 물을 우리 위에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겔 36:25). 곧 그분께 충만하게 주어진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씻겨서, 마침내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순결함에 이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중의 깨끗하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이고, 이처럼 우리 얼룩이 씻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분이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악한 감정과 욕망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하루 동안 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 평생 동안 그것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이 완전함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분을 기다리기만 했다면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둔 것이 헛되지 않고 우리 소망이 꺾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 주실 때까지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54편

욥기 14장 설교 2

CO 33:668–679

> 그의 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의 달 수가 주께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가 넘지 못할 규정을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에게서 눈을 돌리시어 그가 쉬게 하옵소서. 품꾼의 날처럼 그가 바라던 날이 올 때까지 말입니다. 찍힌 나무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푸르러지고 그 움이 다시 돋을 것입니다. 그 뿌리가 늙고 그 줄기가 말라 죽어도, 물기를 얻으면 싹이 나서 새로 심은 것처럼 가지를 뻗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쇠하여 숨을 거두면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물이 빠지고 강이 말라 버리듯, 사람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의 잠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욥 14:5–12)

CO 668 우리는 어제 욥이 사람의 삶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간구를 보았습니다. 그 요지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고 덧없는 피조물이니 하나님께서 그토록 엄격하게 그를 뒤쫓으시고 거기서 그분의 힘을 펼치셔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그는 그토록 짧은 삶이 더욱 비참하고 사람이 거기서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명을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시고, 넘을 수 없는 기한을 두신 분이 그분이시라고 덧붙입니다. 사람이 아주 짧은 날 동안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지 않으셨다면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거스름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자들을 벌하지 않으신 채 짧은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참지 못하신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가 살도록, 그것도 모두 그분의 기쁨과

계획 아래 살도록 정하시고, 우리 삶의 마지막 지점을 표시하시며, 우리가 거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그분이 사람이 자기 길을 마치고 그의 날이 품꾼의 날처럼 오는 것을 참지 못하신다면, 왜 그분은 나를 더 부드럽게 대하시지 않는가?” CO 669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현재의 삶에서 불안으로 어지러우니, 우리가 날품을 파는 사람과 같다고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돈 한 닢을 벌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날이 지나면 그는 쉬고 품삯을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 동안은 그것이 그토록 많은 가난에 매여 있으므로, 그것이 지나가면 우리가 풀려나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일을 마친 것과 같아서, 우리가 안식에 이르므로 기뻐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욥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는 늘 앞에서 말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곧 그가 여기서 그가 가졌던 격정들을 선언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기록되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한 자들을 괴롭히실 때 그들이 인내하더라도 그들의 육의 격정에 맞서 싸우는 데 큰 어려움을 겪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욥과 그와 같은 자들이 쇠로 되었거나 무감각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들 안에 특별한 덕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썼다 해도, 그것은 반대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육에서 놀라운 찔림을 느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험에 맞서고 그것을 이겼다 해도, 그러는 동안 회오리바람이 있었고 그들은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우리에게 선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더 경계하고, 우리가 그분을 공경하려는 좋은 바람을 가졌다 해도 그분의 손에 붙들리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힘을 주셔서 꿋꿋하게 싸우게 하시지 않으면 곧 지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는 일깨움도 받습니다. 우리가 쓰러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 때문에낙심하지 맙시다. 일찍이 있던 가장 뛰어난 자들도 한동안 이렇게 약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이 그들의 모든 싸움을 이겨 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르고, 우리 악덕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아첨할 만큼 어리석지만 않다면 말입니다.

그 밖에, 여기서 말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의 시간을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쓰임에 적용해야 하는지 봅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셔야 하고 우리에게서 손을 떼셔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욥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엾은 피조물들에게 눈을 뜨실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분은 사람들을 거기 내버려 두셔야 한다. 그들은 그분이 그들에게 매달리실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CO 670 거기에 무슨 힘이 있는가?" 하고 말했던 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손을 떼신다면 우리가 어떤 살림을 할지 봅시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바로잡으시려고 우리를 이끄시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은 채 하루만 지나도 우리는 우리 죄 속에 잠듭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우리를 아끼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사람들이 형통할 때 그들은 자기 위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멍에나 굴레에 붙들리기를 원하지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도 그들을 당해 낼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 동안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얼마나 큰 반역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삐 풀린 말처럼 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우리가 어떤 자인지 알게 할 방법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육의 모든 욕망을 길들이셔서 우리가 그분께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하게 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도록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

람들의 삶이 짧고 덧없으며 그분 자신이 거기에 일정한 기한을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좋고 알맞으리라고 내세운 것은 욥 안의 지나친 격정이었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그다음에, 우리 걸음이 우리 능력에 있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이렇게 가까이 바라보시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보호 아래 있지 않다면, 묻건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딱할 만큼 많은 죽음에 에워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아버지처럼 돌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물러나시기를 구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분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기도합시다. 첫째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만 살고 그분의 능력으로만 붙들리며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려고 그분의 보호 아래 두셔야 하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돕고 구하시려고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것이 둘째 방식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너무 길을 잃은 것을 보실 때 우리를 징계하시려고도 우리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몰리지 않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부드러움을 쓰시기를 그분께 잘 기도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바로잡음이 필요한 것을 보실 때 손을 드시기를 기뻐하시도록 그분께 구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기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잠들게 하고 완전히 둔하게 만드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점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 곧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고, 그분이 우리 달 수를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시며, 넘을 수 없는 규정을 두셨다는 것을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CO 671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큰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겁이 많아서 떨지 않고는 감히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것이나 저것이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분의 보호 아래 두고 계시며 그분이 그들을 창조하셨듯이 그들을 이 세상에서 거두시는 것도 그분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확신한다면, 우리가 우리 길을 가고 지금처럼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담긴 이 가르침, 곧 우리 날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다는 것을 그만큼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용을 지켜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우리가 확신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모하게 굴어서 경솔하게 어떤 위험에 뛰어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분별 있게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날이 세어져 있고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손과 그분의 기쁨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줄이거나 늘일 수 없다는 것을 들으면 곧바로 이렇게 말할 공상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다 해도 다 매한가지다. 목매달릴 사람은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 이것이 교황권에 있는 속담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여기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방탕한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려 할 때도 그 말을 쓸 것입니다. 그것이 그토록 흔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너무 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제가 누구에 대해 말하는지 잘 압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날을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눈을 감고 불과 물을 지나가도 된다고 말할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런 까닭에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으니 그분이 우리를 거기 얼마나 오래 두셔야 할지 아시며, 우리가 그분의 손에 있어서 그분이 기뻐하실 때마다 여기 아래에서 떠나야 하리라고 말합니다. 시편 90편에서도 그것에 대해 말하는 대로입니다(시 90:3).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집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처분하시니, 다만 우리가 주의 선한 뜻대로 살고 죽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상으로 살기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거기 두려 하실 때 우리 삶이 우리에게 너무 길게 여겨지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러는 동안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그것이 그토록 짧으니더욱, 주를 섬기는 데 쓰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 생명을 주의 손에 쥐고 계시면서 그러는 동안 우리가 CO 672 그 기한이 언제인지 알기를 원하지 않으시니, 그것은 주의 계획에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조심 가운데 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는 이 지나가는 삶을 보존할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고,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여 온 절도 있게 쓰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다음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처방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병들 때 주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고 공경하려는 것 말고는 이 덧없는 삶에 머물기를 구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주여, 우리는 주께서 명하시는 곳 어디로든 행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거나 헛발을 디디지 않게 하시리라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시 91:11).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길을 갈 때입니다. 곧 하나님께 전혀 복종하려 하지 않는 그 방탕한 자들처럼 고삐 풀린 말처럼 굴지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이 보여 주시는 길에 머물 때, 그때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천사들에게 지켜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위험에 들어가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좋고 거룩한 대담함도 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가엾은 그리스도인들의 처지가 어떠한지 봅니다. 곧 그들은 이리의 아가리에 있는 양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핑계를, 그것이 우리 생명에 위험이 없지 않다는 데서 찾으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찮은 핑계를 받아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 생명을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시니, 그분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대로 그것을 지키시리라고 그분을 신뢰합시다. 그분이 우리가 고난받기를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그분의 뜻 없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때 그분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을 우리 쓰임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는 대로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피하므로 하나님 섬김에서 물러나 그것을 버리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불신이 그 원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한을 정하셨고 그들이 무엇을 해도 그것을 늘일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적어도 참으로 확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요점을 잘 확정했다면, 하나님의 영예와 우리 의무가 걸린 일이라면 각자 자기 처지에 알맞은 대로 우리가 더 대담하게 힘쓰리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우리는 지금 가지지 않은 다른 꿋꿋함과 아량을 가질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를 무모하게 해서 스스로, 이유 없이 위험을 찾아가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에는 우리가 죽음에 나아가는 것을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CO 673 사람들이 우리를 거슬러 무엇을 꾀하고 꾸미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유익하니 그것을 잘 묵상하도록 힘씁시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대로) 우리 머리털까지 세어져 있으며(마 10:30),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보호 아래 두고 계셔서 그분의 기쁘신 뜻 없이 무엇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읍시다. 사탄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쪽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뒤엎으려 하고 하늘과 땅을 뒤섞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 힘을 다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원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 생명을 끝장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만 보고, 우리 부르심과 우리 의무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보며, 각자 충실하게 힘씁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우리 달음질을 마치리라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한 뒤에, 나무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덧붙입니다. 나무가 말라도 그것은 다시 움을 틔울 수 있고, 특히 물기가 있으면 다시푸르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소망이 없다. 그가 죽으면 다 끝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엾은 피조물을 불쌍히 여기셔야 한다." 여기서 언뜻 보면 사람들은 욥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에게서 모든 소망을 빼앗는 것을 낯설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영혼이 몸과 함께 죽는 것처럼 여기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먼저, 욥이 사람들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우리가 이미 본 대로) 그의 격정과 고통 속에서 말하고, 그다음에 그는 이 현재의 삶만 바라본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우리가 어떤 고통에 몰릴 때 그것만 생각하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있고 날이 아주 더우면, 얼음이 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바랄 만하고 건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몰아붙이고 괴롭히는 이 감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붙이셨으므로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만 바라보고, 다가올 생명의 소망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강하게 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에 어지러울 때 어떤 자인지 보입니다. 물론 욥이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땅에서 거두실 때 그들을 완전히 멸절하신다고 결론지은 것처럼 거기서 고발당할 수는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욥은 그런 최종 결론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그가 그의 격정 속에서 너무 눈이 어두워져서, 그때 이것이 그의 앞에 떠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곧 CO 674 사람이 죽은 뒤에도 하나님 안에서 존속하고 감추어진 생명을 가지며, 그 생명이 좋은 씨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은 아주 멀리 있는 완전함, 곧 그분의 하늘 영광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불멸에 온전히 회복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거기에 머물 만큼 그 깨달음을 가지지 못했고, 한동안 그의 격정 속에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는 그만큼 더 경계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말들의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실 때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엾은 송장일 뿐인데 그분이 그래도 우리에게 눈을 던지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듯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영예가 아닙니까?" 하고 물었다면, 욥은 "그렇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그는 처음부터 그것을 붙잡아서 그의 격정에 맞설 수 없고, 오히려 괴로움을 당하며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만큼 더 이 일깨움에 의지해야 합니다. "아, 주여, 우리는 그토록 짧고 덧없는 삶을 가졌고, 우리 안에는 온통 더러움과 부패밖에 없는데, 그러는 동안 주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자격이 있습니까? 아, 아닙니다, 주여. 낙원의 천사들조차 그런 존엄을 가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썩은 것과 오염일 뿐인데 어떻게 그것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가깝고 친숙하시려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거기 버려 두시는 대신에 우리를 주께로 다시 이끄시고,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려고 모든 수단을 시도하십니다.

주여, 이것이 어떤 선하심입니까?" 이처럼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유익을 잘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들 자신으로는 아무 힘도 없고, 땅에 어떤 뿌리를 가진 나무들처럼 다시 푸르러지거나 가지를 다시 뻗을 수 없으며 오히려 완전히 썩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자연의 일반 질서를 따라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를 기뻐하실 때, 그리고 또한 그것을 저 위에 감추어 지키셔서 그것이 알맞은 때에 드러나게 하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을 압시다. 그러므로 이것이 값을 매길 수 없는 특권이라는 것을 압시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더 잘 깨달으려면, 먼저 사람들이 죽지 않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자기 능력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합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특별히 이 칭호, 곧 그분은 죽지 않으시며 그분만이 불멸을 가지셨다는 칭호를 돌리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딤전 6:16). CO 675 그렇다면 천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말 못 하는 짐승처럼 죽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능력을 불어넣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느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는 이 영적인 생명을 다른 데서, 빌린 것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몸처럼 무로 돌아가고 썩어 버리지는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죽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갈라져서 그분을 우리를 거스르는 분으로 느끼느니 차라리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우리 처지에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을 주셔야 합니다. 곧 그분이 그분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그분께 결합하시고, 더욱이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입니다.[140] 그런데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낯설고 사람의 지각에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140. 칼빈은 영혼의 불멸이 영혼 자체의 독립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다시 성령으로 하나님과 결합되는 구원의 생명과 구별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들의 처지가 어떠한지 봅시다.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을 뿐 아니라 더욱 가난하고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 그들이 땅 위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인류에서 끊어져야 할 것처럼 보일 만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대우받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곧 우리는 죽었지만 우리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을 드러내시리라는 것입니다(골 3:3–4).

그리고 그것에 대해 우리는 욥이 놓는 것에서 아름다운 비유를 봅니다. 그는 겨울이 다가오면 나무들이 마르고 더 이상 푸르름의 흔적이 없으며, 잎이 떨어지고 나무들이 이렇게 얼어붙어 있으면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는 동안 생명은 뿌리와 속 한가운데 감추어져 있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봄이 오면 모든 것이 다시 움을 틔우고,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그 생기가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무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 주신다면, 그토록 뛰어난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서는 더 큰 능력을 펼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 말할 때, 그는 밀이 땅에서 자랄 때 하나님께서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부활의 형상과 같은 것을 보여 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습니다(고전 15:36). 여기 곡간에 있던 낟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라 있습니다. 그것이 땅에 던져지고, 거기 있을 때 그것은 썩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다시 움을 틔우는지, 그리고 낟알 하나에서 CO 676 스물이나 서른이나 열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밀과 다른 씨앗의 낟알들을, 그것도 썩음으로 새롭게 하신다면, 그분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거기서 더 큰 능력을 펼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

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소망에 굳게 서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마음에 품지 않을 때, 우리는 지각없고 짐승 같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이렇게 (적어도 보기에는) 죽은 나무들이 봄이 되면 푸르러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에 굳게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 생명이 감추어져 있고 우리가 여기서 죽음의 어둠 아래 있는 것 같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그분이 약속하신 이 부활을 갈망하며 늘 머리를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금 우리가 죽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충분한 보증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거두기를 기뻐하실 때 우리 몸이 썩어 가더라도, 그분이 우리 영혼에 그분의 성령의 표지를 새기셨으니, 그분이 그 보호자이신데 우리 영혼이 멸망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삶에 드러나는 이 연약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만큼 더 높이도록 우리를 재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질서로 일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믿음으로 그분께로 되돌리실 때 우리를 여기 작은 낙원에 두시고, 우리가 천사들과 같으며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향해 드러나고, 우리가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연약함을 가지지 않으며, 우리 삶이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지 않고 우리가 그토록 많은 비참함에 둘러싸이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거기서 그분의 평화로운 나라를 가지신다면, 그런 은혜는 참으로 귀하게 여길 만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그것은 우리에게 알아보이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 우리에게 오는지 모를 것이며, 우리는 헛된 영광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토록 여러 방식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현재 상태를 보면 죽음밖에 보지 못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런데도 그분이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서 살아 있고 그분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을

경험과 믿음으로 보여 주시고 느끼게 하시며, 우리가 기다리는 이 불멸을 거울로 보듯 보게 하실 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 뒤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소망으로 우리를 되돌리실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을 높일 기회를 더 가지지 않았습니까? “아, 주여, 주의 영이 여기 구더기일 뿐인 이 가엾은 몸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는 온통 불의밖에 없습니다. CO 677 그런데도, 주여, 주께서는 우리 몸과 영혼을 주의 위엄의 성전으로 택하셨고, 그것을 그 쓰임에 바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 무엇을 빚졌습니까? 우리가 주께 얼마나 매여 있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이 몸들이 쇠하여 가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이 언젠가 회복되리라는 것과, 이 덧없는 장막 대신에 하늘에 우리를 위해 마련된 집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고후 5:1).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조금씩 쇠약해지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만큼 더 재촉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는 욥이 여기서 잘못된 쓰임으로 돌린 것을, 그렇습니다, 그가 느끼고 맞서 싸운 격정들을 우리에게 표현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우리 가르침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봅니다. 그런데 그 밖에, 우리가 우리 처지에 대해 말할 때, 한쪽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인지 보고,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며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 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저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고 바라보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이미 보여 드렸습니다. 곧 우리를 어리석은 영광에 취하게 하는 데 아무것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날뛰고 방탕하며, 그들을 굴레에 붙들어 두어야 할 가난조차잊어버리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으신다면 우리 각자가 이 악덕에 물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비참함이 무엇이고 우리 약함이 무엇인지, 요컨대 우리 처지가 더할

나위 없이 가난하다는 것을 보는 데 잘못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할 거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는 동안 우리는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으로 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의 하늘 영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이 썩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것이 그럴듯합니까? 우리가 오늘 그토록 연약한 것을 볼 때 우리가 낙원의 천사들의 동료가 되리라는 것이,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되리라는 것이 그럴듯합니까? 우리는 그분께 모든 위엄과 하늘과 땅의 최고 주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고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어 그분께 주어진 모든 것에 참여하리라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지각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을 압시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 부활시키시리라는 것입니다(빌 3:21). CO 678 사도 바울이 우리를 부활의 소망에 굳게 세우려 할 때 우리를 돌려보내는 곳이 거기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벗들이여, 우리 공상에 가능한 것을 바라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높은 생각에 들어갑시다.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 정신을 넘어서 배열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일을 생각할 때 놀라고 그것이 까닭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적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되고, 우리 몸이 오늘 연약하고 그토록 많은 가난에 매여 있더라도 그것은 하늘 영광에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가 한쪽에서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쪽에서는 우리 지각을 넘어서고 우리가 있는 처지로는 마음에 품을 수 없는 것에 대한 확실하고 틀림없는 소망을 가지도록 생각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욥이 여기서 목표로 하는 것을 거두어 봅시다. 사람이 다시 살 수 없고 나무처럼 회복되지 않으며, 강이 마르거나 바다에서 물이 빠지는 것과 같으므로, 그는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손에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한데도 교만해지고 날뛰며 돌쩌귀에서 빠져나가기를 참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한 대로 아무 바로잡음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교만과 쉽게 고쳐지지 않는 그들 안의 이 거만함을 그만큼 더 꺾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나고 각자 자기를 잊어버리며, 그렇습니다, 그가 안식과 편안함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하므로, 우리는 징계를 받고 날마다 새로운 바로잡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매를 느끼게 하지 않으신 채 우리가 우리 삶의 길을 마치게 내버려 두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일으키지 않으신다면, 아, 결코 제때에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시는 바로잡음은 우리를 회개로 부르시려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향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음 뒤까지 기다리신다면 문이 닫혀서 그분께 돌아갈 때가 더 이상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고후 6:2) 하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길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길을 잃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이 파멸에 곤두박질치고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떨어질 때까지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욥이 한 것과 완전히 반대로 논증해야 합니다. 곧 CO 679 우리 삶이 그토록 짧고, (그렇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갔을 때

모든 것이 멸망한 것처럼 보이므로 그것이 나무의 경우와도 같지 않으니,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회개로 부르시려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는 더 이상 때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제가 이미 언급한 대로) 사람들이 그것을 피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찾아옴을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을 욥이 느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런데 욥의 본보기를 내세워 핑곗거리로 삼는 농담꾼들이 있습니다. "오, 여기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린 거룩한 인물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슬러 성을 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 몰아붙이셔서 그들이 그들의 불완전함을 길들일 겨를을 가질 수 없었다고 탄식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도 같은 것이 허락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밝힌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마땅히 평온하게 견디고 감당하도록 인내하더라도, 우리는 동요하기를 그치지 않고 우리 육은 늘 우리 안에서 어떤 반역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에서 공격받고 찔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우리는 싸우지 않고는 승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딤후 2:5).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싸움은 우리 자신과 우리 악덕을 거스르는 것이고, 우리가 힘써야 할 곳이 거기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여기서 다가올 부활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처럼 사람의 삶에 대해 말할 때, 그가 거기에 완전히 머문 것이 아니라 (그는 그것이 어떠한지 잘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격정을 느꼈는지 표현하려 했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우리 각자가 자기를 생각해서 그런 시험이 일어날 때 휩쓸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욥이 이 점에서 연약했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그러리라는 것을 압시다. 그러나 그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기에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를, 그렇습니

다, 줄어들지 않은 그분의 선하심으로 부르셔서, 옛날에 그분의 백성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람의 일들에서 모든 것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모든 비참함과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소요에서 우리를 건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던지면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 피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다고 느낍니까? 여기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죽은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셨을 때 우리에게 오신 분이 생명의 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죽음의 심연에서 건져 내시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우리를 위해 마련된 구원을 결코 빼앗길 수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죽음과 이 세상의 모든 소요 한가운데서도 확신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가 그토록 많은 비참함에 매여 있는 우리가 해야 할 달음질을 마쳤을 때, 그분이 우리보다 앞서 들어가신 이 하늘 영광에 이르리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55편

욥기 14장 설교 3

CO 33:680–692

> 주께서 나를 무덤에 숨겨 주시고, 주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나를 가두어 두시며, 나를 기억하실 기한을 내게 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겠습니까? 내 싸움의 모든 날 동안 나는 내 바뀜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부를 때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욥 14:13–15)

CO 680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견디기 무거운지 보여 주면서, 그것을 느끼는 자들은 산속에 숨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산들이 그들 머리 위에 무너지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사 2:1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말씀을 쓰셨습니다(눅 23:30).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처럼 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CO 681 하나님을 우리를 거스르는 분으로 모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핍박하실 때 우리가 견디는 고통을 충분히 느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진노가 어떠한지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두려워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죄를 생각하고, 그것으로 수치스러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느낌을 피하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려 할 때 우리를 잘 깨우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단련하십니다. 이것이 욥이 “주께서 나를 무덤에 숨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할 때 그의 말에서 알아들

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있던 그대로의 그의 삶보다 죽음을 낫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 재판관으로 모시는 것이 백 번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감동시켜우리가 지금보다 우리 죄를 더 잘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고통을 견딘다 해도, 셈을 치를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서는 것에 견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병이 있으면 "아!" 하고 잘 소리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우리의 탄식을 잘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 죄는 거기 묻힌 듯이 남아 있고 우리 생각에도 기억에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일을 판단하는 데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고난을 당한 자들이 죽음을 바라고 무덤에 숨기를 바랐다는 것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대편으로 자신을 선언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압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이라는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수단을 써서 그분께물러가려 애쓸 것입니다. 우리 죄가 우리 앞에 떠오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우리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로 자신을 선언하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처지가 어떠하겠는가? 그러므로 앞질러 가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려고 그분을 찾도록 재촉받아서, 그분이 우리와 화해하실 때까지 결코 안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이 가르침을 적용해야 할 쓰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주께서 나를 무덤에 숨겨 주셨으면, 내가 끊어질 때까지 거기 갇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141] 그는 왜 자기가 죽음을 바라는지 보여 줍니다. 곧 그가 하나님의

141. 여기 '내가 끊어질 때까지' (iusques à tant que fusse retranché)는 1563년 초판(299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 첫머리에 인용된 13절 본문('주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과

심판 아래 갇혀 있고 아무 빠져나갈 곳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핑계가 마침내 우리에게 CO 682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리저리 많이 버둥거린 뒤에도 갇혀 있는 것처럼 붙들려 있어야 하리라는 일깨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간직했다면 그것은 하루치로 큰 유익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하시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믿게 하는 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이것이나 저것을 상상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선이 원인이 되어,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하나님의 위협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진노를 무시하는 것을 보실 때보다 그분의 극한 복수를 더 빨리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그분을 끝까지 성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우리를 몰아붙이려 하실 때에는 이것이나 저것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갇혀 있어야 하리라는 것을 배웁시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숨 돌릴 틈을 주시고, 더욱이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지 보여 주실 때, 그 기회를 씁시다. 그와 함께 "주께서 나를 무덤에 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분의 저주의 표시가 아닌가? 우리가 거기 이를 때 그것이 어떤 숨 돌릴 틈을 얻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더욱이 그것은 극한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엄격함을 우리에게 행하실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욥은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밝힌 대로 바른 깨달음 없이 죽음을 마음에 품었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고통을 느끼게 하셨으므로 거기서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그는 어떻게 하면 풀려날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

표현이 다르지만 그대로 옮겼습니다.

다. “나는 적어도 이 어둠 속에서는 즐거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결론으로 말하는 대로) 내가 내 살을 지고 다니는 동안, 내 영혼이 내 안에 있는 동안, 나는 수고하고 괴로워하며 고난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거두셨다면 나는 얼마간 유예를 얻을 것이고 그것이 끝일 것이다.” 그리고 (그가 위에서 말한 대로) 그는 품꾼의 시간처럼 그의 기한을 가질 것입니다. 품꾼은 날품을 팔고 기한이 오면 쉽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가 여기서 무덤에 갇히기를 구하는 까닭입니다. 그 밖에, 그가 사람들이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기를 그치지 않고 그분께 심판받으며 그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았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욥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그는 그가 몰린 고통을 바라보고 거기에 매인 듯이 되어서 나머지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엾은 죄인을 핍박하실 때,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 내가 여기 갇혀 있어야 하고, 아무 처방이 없으며, 내 고통이 커지고, 하나님께서 늘 나를 뒤쫓으시므로 마침내 내가 멸망해야 하는가?” 죄인은 CO 683 그에게 견디기 그토록 힘든 것만 바라봅니다. 그 때문에 죽음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어떤 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이렇게 무덤에 덮여 거기 갇힌 듯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기한을 정해 주실 때까지” 하고 말할 때, 그것으로 그는 죽음 뒤에도 얼마간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휩쓸리고 넋이 나간 대로, 그가 숨을 돌릴 수 있는 어떤 틈이 있으리라고, 그가 이 세상에서 떠났을 때에는 그가 느끼는 것만큼 그토록 가혹하고 무거운 혼란 속에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욥이 죽음 뒤에도 우리가 셈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음에 틀림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나는 주께서 나를 기억하실 기한을 정해 주실 때까지 무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기억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을 심판하시려고 부르실 때를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욥은 혼란에 빠져 있었고, 이 격정이 그를 너무 흔들어서 그는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대로 차분한 지각으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잊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가엾은 사람입니다"(눅 5:8)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반대로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가까이 오소서. 우리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필요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시려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도우시려고, 그분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처지는 아주 비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잊히는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거두시더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늘 그분의 손과 그분의 보호 아래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죄받은 자들은 판결이 집행되는 날까지 사슬에 묶인 듯이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분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도움이 지금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가엾은 사람이 시들어 가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말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느낌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분은 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 점에서 잘못했습니다. 곧 그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분의 모든 피조물을 부르셔서 CO 684 그분의 심판대 앞에 소환하실 때까지 잊힌 듯이 되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기억을 마땅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확신하기만 하면 그것을 잘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우리를 거기 내버려 두시고, 우리 몸이 땅에서 썩으며, 우리 영혼이 온 세상이 회복될 날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142]

그 밖에,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벌하시려는 것이라 해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잘 확정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려고 우리를 생각하신다면, 여기 우리의 모든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시편 8편에서 말하는 대로입니다. "아,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고 그를 지켜보십니까?"(시 8:4)[143] 우리는 작은 그림자와 같아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아버지처럼 돌보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서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선하심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선하심을 느끼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한,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자비를 잘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 해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멸망의 길에 있는 것을 보실 때 우리를 그분께로 다시 부르시니, 그것으로 그분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회개에 이르도록 그분이

142. 원문의 'en suspens'는 영혼들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는 뜻으로 옮겼으며, 영혼이 의식 없는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는 표현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143. 원문에는 시편 8편 5절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1절로 세는 프랑스어 성경의 절수이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만큼의 경고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점에서 그분의 은혜를 더 잘 귀하게 여겨야 하고, 그분이 결코 우리를 잊으시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요컨대 이것이 이 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살겠습니까? 내 싸움(혹은 내 수고)의 모든 날 동안 나는 내 바뀜을 기다리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욥은 그가 얼마나 격정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앞에서보다 더 잘 보여줍니다. 그는 너무 괴로워서 사람들의 끝이 어떠한지, 그들이 죽은 뒤에 부활해야 하는지 아닌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이것이 낯설게 여겨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말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곧 욥이 그가 맞섰던 그의 첫 시험들에 대해 말한다는 것입니다. 시험 속에서 완전히 꺾이는 것과, 그것을 느끼고 그것에 흔들리면서 그러는 동안 그것에 맞서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악한 견해가 우리 공상과 머리에 떠오르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들은 사탄에게서 많은 속임을 받습니다. 여기 악한 공상이 우리 머리에 떠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많은 CO 685 불신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생각하시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분이 너를 내버리셨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분이 사람의 피조물들 쪽을 돌아보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여기 사람들이 늘 가질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낮추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헛됨으로 가득한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아, 이것이 무엇인가? 나는 내 모든 지각을 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바쳐야 하는데, 여기 내 지각의 일부가 그런 생각에 쏠려 있다." 그리고 더욱이 엄청난 모독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런 공상을 품을 때 자기 자신을 싫어할 충분한 기회를 가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곧바로 그것을 물리칩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어지럽히려

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음을 방패로 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사탄이 우리를 거슬러 불화살을 던지더라도(엡 6:16), 그것은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그 독은 우리에게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잘 공격하리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찔림은 치명적이지도 독이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공격받을 때 이 모든 악한 공상을 물리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거기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고, 다른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버리셨다고 생각하여 거기서 완전히 꺾인 것처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머리에 떠올라서 우리가 그것에 맞설 경솔한 공상과, 자리를 잡고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릴 확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모든 시험에 맞서 싸우고 그것을 이겨 냈을 때에도 우리가 죄 있기를 그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완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으니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탄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악에 맞섰을 때 그분은 그런 꿋꿋함을 받아 주십니다. 욥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그가 공격받은 시험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것에 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목할 세 단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들이 우리 공상에 떠오르고 우리는 곧바로 그것을 물리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생과 어려움에 빠져서 거기서 헐떡이며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 내겠는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마침내 사탄이 우리를 거기서 몰아붙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셋째 단계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완전히 짓눌려서 지는 때입니다. 욥에 관해서는, 그는 우리가 말한 첫째 단계처럼 "사람들이 CO 686 부활하겠는가, 아닌가?" 하는 경솔한 공상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시험의 둘째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자기 고통에 이렇게 몰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려는가? 그분이 나를 완전히 긁어 없애려 하시는 것 같다. 그분을 원수로 모시면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거스르시는 것을 바라보았으므로 이 시험(그것은 악한 것입니다)에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는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이 그에게 거칠고 견디기 어려웠다 해도 그는 그런데도 이겼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구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욥이 이 말에 머물렀다면, "사람이 부활해야 하는가, 아닌가?" 하고 말하는 것은 가증한 모독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공격받았어도 그가 품었던 믿음에 굳게 머물렀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게 이것을 모독으로 돌려서는 안 되고, 더욱이 그것 때문에 그를 믿지 않는 자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믿음은 결코 싸움 없이 있지 않고, 그것은 잘 단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불신의 많은 거리를 내놓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 믿음의 참된 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이렇게 공격받았다고 해서 그가 믿는 사람들의 무리와 동아리에서 버려져야 하기는커녕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단순히 의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몰렸으므로 이렇게 휩쓸렸다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욥에게 "자,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멸망하는가?" 하고 물었다면, 그는 "아니다. 몸이 썩어 가더라도 그것은 부활할 것이고, 영혼은 우리가 모두 회복될 마지막 날까지 보존된다" 하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죽음에 대해 일반적으로 물었다면 욥은 그렇게 잘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가혹하게 몰아붙이셔서 그가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를 수치스럽게 하고 완전히 삼키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거기서 이렇게 겁에 질려 있었으므로 그가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그의 인물에게 있던 것, 곧 그가 있던 고통에서 결코 벗어날 기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만큼 그토록 큰 하나님의 엄격함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 때문에 그는 "사람이 죽으면 부활하겠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없애려고 그분의 모든 힘을 펼치실 때 그런 성격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 주여, 주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에서 나를 배제하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나를 그토록 엄격하게 대하시면서 내게 쓰시는 이 낯선 방식은 나를 완전히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주께서 나를 없애셨을 때 누가 나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CO 687 다시 세우려 하지 않으시고 그를 피조물의 반열에서 완전히 멸절하려 하신다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무로 돌리려 하시는 것처럼 보일 만큼 그토록 낯선 방식을 그에게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분수에 맞게 대하셔서, 우리 고통이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거기에 처방을 내리시리라는 것과 무덤에 있는 자들을 거기서 건져 내시는 것이 그분의 직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이 소망을 우리가 늘 가지게 해 주시기를 그분께 기도하라는 일깨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강한 손으로 붙들지 않으셨다면 욥에게 일어났을 것으로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할 무서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징계하시되 법도대로 하옵소서"(렘 10:24)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불합리하시다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법도' 혹은 '판단' 이라는 이 말로 우리 연약함에 맞추어진 절제되고 알맞은 방식을 뜻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고통에 처방을 내리시리라는 것을 늘 알지 못할 만큼 그토록 심하게

시험받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겠습니까?"라고 말할 때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받는 일깨움은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오는 "나는 내 바뀜의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것을, 욥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려 하신다고 생각하고 부활과 새롭게 됨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졌다면 그날을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곧 "주여,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지금 나는 수치스러워져서 주께서 내게 쓰시고 내 위에 행하시는 온갖 힘과 격렬함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싸우고 애써야 하며, 내 바뀜의 날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다른 위로가 없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컨대 이처럼 욥은 이 말을 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보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따집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다시 생명으로 들어가겠는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여기서 내가 너무 가엾은 처지에 있는 것을 보니, 내가 수치스럽게 남아 있어야 하고 더 이상 회복될 방법이 없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스르시고 나를 없애려 하시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런데 그것을 두고 그런데도 그는 애쓰고 힘을 내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나는 내 바뀜의 날을 기다리겠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우리는 욥이 이겼고 이 싸움을 이겼다는 것을 봅니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에 대해 따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마침내 그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보라, 나는 내 바뀜의 날을, 그렇다, 내 수고의 모든 시간 동안 기다리겠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CO 688 같습니다. "시간이 내게 길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무덤에 가두어 두시고 어떤 심연에 두시며 산들이 내 위에 무너지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 그렇다, 내가 있는 고난 한가운데서 말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혹하고 견딜 수 없더라도, 바뀜이 있으니 그것이 내게 얼마간의 위로를 주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 가

운데 나를 기르기에 충분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욥의 말의 뜻이 무엇인지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에서 좋고 매우 유익한 가르침을 거두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탄에게 공격받고 악한 공상에 괴로움을 당할 때, 특히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려는 어떤 불신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이런 따짐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결단하는 짧고 간결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많은 악한 공상에 자신을 휘감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 어떤 견해가, 그렇습니다, 악하고 더욱이 그들을 하나님을 거슬러 몰아갈 견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그들은 따지고 상상합니다. "그것이 가능한가,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공상하고, 믿음에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악한 견해를 가지고 재갈을 씹고 있을 때, 그것은 마치 원수들이 성을 포위하러 올 때 그들과 협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박수를 친다면 그것은 온 성의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들에게 문을 열어 주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같은값입니다. 사탄이 그들에게 내놓는 악한 견해에 자신을 휘감는 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거기 머문다면 그 결말은 그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욥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경험을 따릅시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그토록 낮추셨으니 자기가 결코 부활할 수 있을지 의심할 때 위험한 방식으로 공격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끝까지 거기에 계속 머물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공격받은 뒤에 그는 단칼에 잘라 버립니다. 그는 "아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바뀜의 날을 기다리겠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결론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믿음과 구원의 길에서 돌아서게 할 수 있는 악한 공상을 품을 때에도, 우리는 곧 돌아와서 성경의 어떤 명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된 것을 볼 때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선언하실 때 그것을

두고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점에서 사탄을 물리치는, 곧 그가 우리를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돌아서게 하려 할 때 쓰는 최고의 처방이 있습니다.

CO 689 그 밖에, 욥이 자기 바뀜을 기다리겠다고 말할 때, 이 말은 잘 따져 볼 만합니다. 그가 부활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하고,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것이 없어져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의 불멸에 받아들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욥이 말하는 바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부활 없이는 우리는 결코 위로받을 수 없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모든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성경도 믿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그들에게 확실하고 굳은 안식을 주려 할 때 그들을 거기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늘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라. 그러므로 그것을 기뻐하라." 그러나 이 마지막 바뀜을 잘 확신하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삶의 과정 동안 하시는 바뀜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많은 바뀜이 있어서, 그것으로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이 마지막 바뀜을 얼마간 맛보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고, 그렇습니다, 갇힌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출구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처방이 없으며, 끝났고 우리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곧바로 건짐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멀리 이끌어야 할 바뀜이 아닙니까? 곧 우리가 오늘 개별적으로 느낄 모든 건짐보다 훨씬 더 완전한 건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시는 바뀜들을 잘 알기를 배워서, 우리가 위로 들려 올라가고 이 방법으로 하늘 나라에서 새롭게 될 때까지 평온하게 합시다. 다윗도 이렇게 그것에 대해 말했습니다(시 77:10).[144] 그리고 그가

144. 원문에는 시편 77편 11절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1절로 세는 프랑스어 성경의 절수이므로

어떤 고통에서 건짐받든 그것에 떨어지든 하나님의 손의 바뀜에 대해 말할 때,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이 말은 무게가 큽니다. 사람들은 늘 운수에 대한 이 어리석은 견해를 가지고 "오, 내게 나쁜 운이 닥쳤다" 혹은 "좋은 운이 닥쳤다" 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손의 바뀜이고, 우리는 늘 거기로 이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바뀜 가운데 이것이 마지막 새롭게됨의 살아 있는 형상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비추시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입니다(고후 5:17). 사람들의 태어남이 어떠한지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담이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흔적을 아직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CO 690 그러나 그 형상은 너무 일그러져서 우리는 불의로 가득하고, 우리 정신에는 눈멂과 무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람들이 태어날 때의 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가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의 영광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빚어지는 데 유익한 만큼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이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악한 욕구에 맞서 싸우며, 사람들이 흔히 자기 악덕을 기뻐하고 그 속에서 목욕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반대를 구할 때, 곧 우리 안에 악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언짢게 하여 우리가 그것을 탄식하고, 또한 우리가 선을 추구하여 하나님 섬김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바치기를 바랄 때, 그것이 놀라운 바뀜이 아닙니까? 그런 감정은 결코 우리 편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품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며, 더욱이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보여 주는 바뀜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본성으로는 결코 진실로 하나님을 부르려고 입을 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간의 의식을 가질 것은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듯, 교황주의자들도 중얼거리고 꽤 긴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도에서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셔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려 하신다는 것을 봅니까?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공경하기를 구합니까? 그것은 마치 그분이 우리를 바꾸시고 다시 녹여 부으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들에서는, 그분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고 합니다(엡 2:10).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사람이 되도록만 지으셨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의 특별한 일, 곧 그분이 그분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바꾸실 때 모든 본성을 넘어서 그분의 능력을 펼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려면 그런 바뀜을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지 우리가 의심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이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어떻게 바꾸셨는가?” 그분은 지금 그분의 은혜를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을 섬기고 공경할 용기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겠습니까? CO 691 우리가 불멸의 영광에 대해 가진 소망을 확신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이 쓸모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서 알아채는 이 바뀜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감추어진 이 하늘 영광에 대한 틀림없는 증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의 좋은 보증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그 보증이요 담보라고 말하는 대로입니다(고후 1:22; 엡 1:14).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열매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한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 선한 일에 우리 자신을 바치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욥은 그의 수고의 모든 날 동안 이 바뀜을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잘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에 흔들린다면, 우리가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하고 말할 어떤 좋은움직임과 감정을 가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싸움 한가운데서 계속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소망은 하루나 한 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있을 때, 그분은 우리를 거기서 기르셔서 우리가 날마다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간의 시간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 다른 때로 미루어진 일들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늘 점점 더 굳게 서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인내가 거기 없다면 어떤 좋은 감정을 가졌다거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 '수고' 혹은 '싸움' 이라는 말로 그것을 더 온전하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편안하게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견디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을 두 배로 늘 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괴로움 없이 대우받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어디서나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 바람에 순종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길을 가고 아무 시험도 없으며 슬픔도 두려움도 아무것도 없다

면, 우리는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그것도 싸움 가운데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라는 이 말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시간이 우리에게 길고 멀게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악을 행하고 성을 내며 길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내버리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CO 692 끝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움' 이라는 이 말로 현재의 삶의 처지가 우리에게 표현됩니다. 곧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니, 우리가 싸워야 하고, 사방에서 에워싸이며, 끊임없는 위험 속에 있고, 지금은 근심으로, 지금은 어떤 고난으로, 지금은 어떤 위험으로 시험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생각합시다. 그러는 동안 우리가 우리 육의 감정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도 압시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바뀜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으로 욥은 "주를 부르는 자에게 주께서 대답하시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한 말을 더 넓게 밝히려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가 기다린 이 바뀜이 무엇인지 보여 주려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 구절을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몰아붙이려 하신다는 뜻으로 풀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억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를 그분의 피조물로 받아 주시리라는 것을 실제로 선언하실 때까지 평온하게 기다리겠다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나타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145]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분께로 부르실 때 자기가 더 이상 달아나지 않고 더 이상 물러서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꺼운 마음으로

145. 설교 첫머리에 인용된 15절 본문과 이 해설의 앞부분에서는 '내가 부를 때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구하는데, 여기서는 '주께서 부르실 때 내가 대답하겠다' 고 응답의 주체가 바뀌어 있습니다. 전자텍스트대로 두 표현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고 엄숙히 말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자비롭게 나타나려 하신다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컨대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곧 우리 환난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이 나셔서 우리가 더 이상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고 더욱이 그분이 우리를 더 이상 그분의 피조물의 수에 넣지 않으실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에도 우리가 우리가 기다리는 이 바뀜을 소망하는 데 이를 때까지 그런 절망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는 이 구절로, 우리 고난 가운데서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기서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많은 회오리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더라도 늘 그분을 향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께 나아가기를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그분께 기도하도록 재촉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에게 언짢아하시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은 우리에게 대답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품으신 사랑을 맛보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잘 확신하고 결단하게 하시며 구원의 소망을 굳게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56편

욥기 14장 설교 4

CO 33:693–705

> 이제 주께서 내 걸음을 세시고, 내 죄를 미루지 않으십니다. 내 허물은 묶음 속에 든 것처럼 봉인되었고, 주께서 내 불의에 더하셨습니다. 산도 무너지면 사라지고, 바위도 쇠합니다. 물이 돌을 파고, 주께서 홍수로 땅을 허무시며, 비참한 사람의 소망을 끊으십니다. 주께서 그를 이기시려고 주의 힘을 펼치시고, 그에게 주의 얼굴을 감추시고 그를 떠나보내십니다. 그는 그의 아들들이 높아지는지, 혹은 괴로움에 짓눌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살은 그에게 붙어 있는 동안 아프고, 그의 영혼은 슬퍼합니다. (욥 14:16–22)

이 설교는 15절 해설의 나머지와 그다음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CO 693 우리는 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는지, 곧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곧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것으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지 모르는 동안에는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고 할 수 있는 한 그분의 임재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위로받을 수 없는 모든 가엾은 피조물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서, 그것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설 수 있을 만한 신뢰를 품고, 우리의 최고선이 그분께 대답하는 것, 곧 그분의 얼굴을 피해 숨지 않고 늘 그분의 손에 이끌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이끄심 아래 있기만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는 '손으로 지으신

것' 이라는 이 말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신뢰를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곧 그분이 우리를 빚으셨고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고, 그분이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라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사랑받는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 한 이미 그분의 작품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있습니다. 곧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새롭게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이것을 내놓으십니다. "주여, 우리는 주의 작품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사 64:8), 그다음에 시편 95편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시 95:6– 7).[146] CO 694 "우리는 주의 양 떼이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주께서 시작하신 것을 온전하게 하시기까지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시 138:8). 그러므로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때,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면서 그분이 우리를 받아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리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이 우리를 빚으셨으며, 그분이 그분에게서 나온 것을 버리려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의 첫 창조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죄로 우리 안에서 지워진 것과 같으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뢰가 아주 빈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하셨으며 그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새기셨으니, 이처럼 우리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146. 전자텍스트에는 '시편 9D' 로 되어 있으나, 인용 내용과 6–7절이라는 절수에 따라 95편으로 판독했습니다.

들고 나아가 그분을 부를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께 기쁨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이 유익한 대로 그것을 잘 주목합시다. 곧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아닌지 알지 못할 때 그것은 비참한 처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이 그들 안에 반역을 일으키고 낳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고 할 수 있는 한 그분의 손을 물리치며 그분께 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람들은 들짐승과 같아서, 그분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 때까지 하나님께 자신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는 대담하게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께 대답하려고, 곧 단순히 그분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를 처분하시는 것을 좋게 여기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과 근심을 당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우리 구원을 돌보시고 우리를 거기에 이르게 하실 분으로서 그분께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오, 그것은 우리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분의 은혜를 펼치시는 데 익숙하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선을 그분에게서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시작하신 것을 온전하게 하시리라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CO 695 우리가 이미 그분께 더할 나위 없이 매여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데도 그분이 우리를 완전함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더하려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말입니다. 요컨대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을 두고 다시 그의 탄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슬픔 한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그들에게 좋은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을 그들 눈앞에 두더라도, 어쨌든 그들은 그들을 흔드는 어떤 어지러움을 가져야 하고, 한 싸움을 견뎌 낸 뒤에 다시 둘째와 셋째

싸움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욥이 이러합니다. 그는 우리가 본 이 명제를 붙잡아서 자기가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결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다시 새롭게 공격받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주께서 내 걸음을 세시고 내 죄를 미루지 않으십니다." 거기에는 "주께서 내 죄를 간직하지 않으십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직한다' 는 말은 '지켜본다' 혹은 '기다린다' 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요컨대 욥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너무 지나치게 몰아붙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는 격정에 사로잡힌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노하기를 더디 하시리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대로이고(출 34:6), 우리도 그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분을 거슬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오랜 인내를 쓰신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구입니까?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를 벌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충분히 간직하신다는 것, 곧 우리가 받아 마땅한 만큼 엄격한 벌을 내리지 않으시려고 그것을 남겨 두신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왜 욥은 이렇게 탄식합니까? 그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괴로움에 갇혀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르게 바라보지 않고, 그런 어지러움 속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그의 격정을 따라 탄식합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감정에서 격렬할 때 하나님의 일을 차분한 지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에 마땅히 그래야 하고 마땅히 해야 할 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격정이 늘 우리를 휩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셔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만족시키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채울 수 없는 소용돌이와 같아서 그것이 너무 적다고, 그분이 이것저것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그분이 우리를 괴롭히시면 우리는 딱할 만큼 여려서 곧바로 불평에 이르고, 그분의 엄격함이 너무 크다고 여깁니다. 그분이 우리를 충분히 부드럽고 다정하게 대하시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나친 격정입니다. 그러므로 CO 696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한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육의 감정에 눈멀어 있고, 그것이 우리를 너무 어지럽혀서 우리가 절제되고 확실한 판단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시험에 맞서 싸우고 그것을 물리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와 공평으로 대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이유가 있으며 나무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으려면 우리 격정이 내려놓아지고 포로처럼 붙들려야 합니다.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보는 대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잘못 판단했다면, 그보다 백분의 일도 유익을 얻지 못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욥은 얼마간 변명받을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말한 대로) 그를 비범한 방식으로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알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랜 인내로 그들을 기다려 주셨는데도 그분께 불만을 품는 자들을 더 크게 정죄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여기 많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침내 그는 어떤 바로잡음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늘 제 길을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손에 닿자마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너무 엄격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아!" 하고 소리치고 한탄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마땅한 벌을 미루시는 데 부드럽고 너그러우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죄 하나를 벌하신다면 우리는 백 가지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바로잡음을 보내신

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에 견주면 아주 가벼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욥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붙이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지 모르고, 그분이 (우리가 본 대로) 우리에게 우리 죄를 느끼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무대 위에 세우듯 본보기로 삼으려 하신다면, 그분이 이렇게 이유를 보여 주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신다면, 우리 각자가 얼마나 언짢고 괴로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마다 우리 죄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엄격함을 보이실 만했다는 것을 봅시다. 우리가 참음을 받았고 처음부터 손대어지지 않았다면, 그만큼 우리가 그분께 빚졌으며 그것이 그분의 무한한 자비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지금 그분이 우리를 괴롭히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이 그렇게 하시도록 강제했고 우리 죄로 그분을 너무 성나게 했기 때문이며, 요컨대 우리가 그분이 오랜 기간 우리를 붙들고 참아 주신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를 남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시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남겨 두지 않으신다고 다투지 맙시다. CO 697 사람이 자기 안에 악을 감추고 있고 그것에서 깨끗해지지 않는다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너무 미루지 않았다면 좋은 처방이 있었을 텐데, 거기 있는 악이 고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을 피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니다. 우리에게 가까운 어떤 탈이 예견될 때, 우리가 그 병을 미리 막도록 어떤 하제를 먹기를 거절하고 극한까지 기다렸다가 대처하려 한다면, 거기 이르렀을 때에는 이미 때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이 이겼을 것입니다. 사람을 데려갈심한 열이 있거나, 밖으로 나와야 할 어떤 병이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면 종기가 염증을 일으켜서 지체 하나를, 그렇습니다, 온몸을 잃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고열을 일으켜서 더 이상 나을 방법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남겨 두려 하신다면, 그것은 고통을

더하는 썩음이 될 것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가왔을 때에는 더 이상 알맞은 때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알맞다고 아시는 대로 우리 잘못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거슬러 탄식할 거리가 없고,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더욱이 그분이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구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추어진 병을 고치시려고 앞질러 오시는 것으로 말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의 죄가 봉인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에 더하셨다고 덧붙입니다. '더한다' 는 말은 많은 사람이 풀이하는 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욥의 불의를 실제보다 더 크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잔인한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 가벼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지나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만들듯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명제를, 하나님께서 욥의 허물을 실제보다 더 크고 엄청나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분이 그것에 더하셨다는 뜻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가 다른 목적을 향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특히 욥기와 시편에서 반복을 보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고, 그것은 히브리어에서 꽤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절의 내용을 봅시다. 욥은 이 비유를 듭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묶음에 든 것처럼 두셨고, 그 모든 것이 갇혀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위에 그분의 인을 치셔서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무거운 추를 올려 두셨다고 덧붙입니다.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서 불의를 가두신다는 것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들어 있는 그릇 위에 납 덩어리를 올려 두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슥 5:8). 그분이 그것을 CO 698 그릇 안에 가두신 뒤에 그것이 나올 수 없도록 그 위에 납 덩어리를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욥은 그가 놓은 이 비유를 이어 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봉인하셔서 아

무것도 빠져나가지 않고 거기 남아 있지 않는 조항이 하나도 없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려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무거운 추를 올려 두셔서 아무것도 끄집어낼 수 없고, 그의 모든 허물이 셈에 들어와 심판받고 정죄받도록 하나님 앞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구절의 자연스러운 뜻이 무엇인지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한 대로) 그가 비범한 방식으로 몰렸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토록 가혹하게 대하시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 욥이 이렇게 말할 얼마간의 이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욥에게는 이렇게 한탄할 얼마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늘 우리가 언급한 것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곧 그가 지나친 격정에 몰렸고 그 때문에 아무 분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엄격하게 벌하려 하셨다면 그 안에서 훨씬 더 큰 죄를 찾으셨을 것이고 그에게 더 큰 징계를 느끼게 하셨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흔히 하시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두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먼저 우리가 욥 안에 있던 완전함에서 아주 멀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벌하실 때, 그분이 한두 가지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신다면 서너 가지, 그렇습니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있으리라는 것을 압시다. 각자 셈에 들어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을 잘 살폈을 때, 우리 안에 죄의 심연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각자 자기 안에서 수치스럽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소환하여 우리 삶이 어떠한지 좀 가려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기서 수치에 짓눌린 듯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주 위선적이고 아주 둔한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정죄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잘못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이 많은 잘못을, 그렇습

니다, 대부분의 잘못을 그냥 넘기시고, 우리를 엄격하게 벌하려 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 죄를 생각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싫어하여 그분께 용서를 구할 겨를을 가지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욥이 그의 죄를 알았다는 것도 주목합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가 위에서 자기를 의롭다 하려 했다고, 자기가 완전히 흠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더욱이 CO 699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빚지셨다고 생각하는 그 뻔뻔한 자들처럼 했다고 여기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자기를 의롭다 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어떤 방식으로인지 밝혔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것을 아는 것으로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욥은 자기를 죄인의 반열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나무랄 것을 충분히 찾으시리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토록 지나치고 흔치 않은 엄격함으로 대하시는 것에 언짢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일깨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주 우리를 조급함과 불평으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잘못했고 더욱이 더 죄가 있는 자들을 (우리 보기에) 벌하지 않으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참아 주신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비교해 보면 그가 나보다 더 잘못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지키셔야 할 만큼의 공평과 올곧음을 지키지 않으신다고 결론짓습니다. 혹은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모독하는 것이 부끄럽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속을 태우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왜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나를 벌하시면서 그러는 동안 나보다 나을 것 없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내 이웃들을 보면 그들이 나보다 더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할 텐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처

럼 그토록 엄격하게 대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처럼 사람들은 이리저리 바라볼 때 언짢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진행 방식입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눈을 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의로우시다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보다 더 잘못했다고 내가 여길 자들보다 더 큰 엄격함으로 나를 대하신다면, 그렇다, 그분은 그것이 내게 좋고 알맞다는 것을 아신다. 그분은 내게 감추어진 이유를 가지고 계시고, 나는 그분의 뜻으로 만족하며 그것을 두고 단순히 그분께 복종해야 한다." 그 밖에, 우리가 우리 이웃의 재판관이 되려 할 때에도 우리는 잘못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무겁게 하면서 우리 잘못은 가볍게 하고, 우리가 저지른 범죄의 십분의 일도 알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표시하고 주목하는 데에는 너무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쁜 것은, 어떤 일이 선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정죄하기를 그치지 않을 만큼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정죄를 삼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격하게 대하기를 기뻐하실 때, 그 까닭이 지금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그분이 정당한 까닭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와 함께, 산이 무너져 내리고 바위가 녹으며 물이 돌을 파는데, 비참한 사람이 CO 700 하나님께 허물어지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를 거슬러 그분의 힘을 펼치신다고 덧붙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서 욥이 죽음을 산과 바위와 돌에 견준다고 이해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산들과 바위들은 쇠하는데, 죽음은 늘 지속되어 그 힘과 기세 가운데 남아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러나 그 뜻은 보면 알 수 있듯이 너무 억지입니다. 다른 이들은 욥이 여기서 그토록 오래 시들어 가는 것에 언짢아서 그것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나는 내 끝을 볼 수 없다. 나는 죽음을 바라는데 그것이 오

지 않는다. 내가 산이라면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깎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바위라면, 우리가 바다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바위들을 보듯 무너져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돌이라면 그것을 파는 데에는 물만 있으면 될 것이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는 바다가 넘칠 때 그것이 온 나라를 망쳐 놓는 것을 봅니다. 급류 하나면 황폐가 생겨서 밭도 땅도 소유도 집도, 모든 것이 뒤엎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연약한 가엾은 피조물이고 산들처럼 억세지 않은데도 죽을 수 없다." 이 뜻이 꽤 알맞고 더욱이 참된 자연스러운 뜻에 가깝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욥은 단순히 산들도 쇠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힘을 쓰신다는 것을 말하려 했습니다. 산과 바위를 무너뜨리는 데에는 큰 격렬함이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욥의 의도입니다. "주여, 나는 누구입니까? 주께서는 내 안에 약함밖에 없는 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주께서 새끼 손가락으로 나를 건드리시기만 하면 될 것이고, 아니 주께서 내게 가까이 오실 필요도 없이 입김만 부셔도 나는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한 얼굴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는 죽음과 멸망 말고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한 그토록 비참한 피조물을 이기시려고 무장하시고 큰 권능을 갖추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산들을 벼락 치시려는 것처럼, 바위를 뒤엎고 쪼개며 돌을 무르게 하시려는 것처럼 큰 격렬함을 쓰실 때, 거기에는 아무 조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욥이 말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앞에서 밝힌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곧 욥이 차분한 지각을 가진 사람처럼, 일을 마땅히 바라보고 온 이치로 묵상하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슬러 넘쳐흐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가 어떻게 흔들리고 동요했는지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가 말한 대로) 시험에 맞서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가 언짢고 CO 701 괴로운 가운데 자기 안에서 그런 격렬함을 느껴야 했지만, 그러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버텼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자마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지러워지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우리 고통을 키운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만큼 더 우리의 모든 감정에 굴레를 씌워 두어야 하고,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피해서 그분이 우리를 우리 욕구 안에 단단히 붙들어 두시고 결코 우리가 방탕하게 되도록 허락하지 마시기를 기뻐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낮추려 하셔서 우리에게 고삐를 풀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괴롭히실 때 우리가 성내는 것을 억제할 수 없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맞서고 싸우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거기서 이런 불평 속에 머물며 재갈을 씹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자신을 누그러뜨리며 그분의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서, 우리가 우리 육을 길들이고 참된 복종 가운데 우리 자신을 붙들어 그분이 우리를 처분하시고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먼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그가 사람은 비참하고 그 안에 비참함이 너무 많아서 충분히 표현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토록 뒤쫓으셔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을 좀 봅시다.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얻어맞는데도 우리가 누그러지는 것이 보입니까? 우리가 목을 굽힙니까? 그분이 우리를 가르침 잘 받고 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이 지점을 우리에게서 얻어 내십니까? 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때에 하셨던 이 탄식을 하실 수 있음을 봅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하겠느냐? 이 백성은 발바닥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성한 데가 없다“(사 1:5–6).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이 백성을 그토록 징계하시고 그들을 어떤 바로잡음으로 이끌려고 애쓰셨기 때문에 언짢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맞고 또 맞은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전체적으로도 개별적으로도 깎여 나가서, 그들의 고난 속에서 썩은 가엾은 문둥병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할 나위 없이 반역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 그러므로 여기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서 아무 개선도 보지 못하는 아버지와 같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이 어떤 바로잡음을 쓰셔도 그분의 자녀들이 늘 그분께 반역하고 고칠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완전히 언짢아하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두고 "아,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헛수고를 했구나" 하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탄식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비참하고 우리 안에 많은 가난이 있더라도,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단단하고 억세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렇습니다, CO 702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만함과 이 눈멀고 미친 주제넘음에 관해서, 우리의 반역과 악의에 관해서 말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작은 그림자나 연기일 뿐이면서도 산과 바위를 능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으시려고 그런 능력을 펼치신다고 해서 낯설게 여기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맞서려는 이 악의적인 완고함을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산들이 아주 높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좀 봅시다. 거기에는 그런 반역심이 있어서 우리는 구름을 넘어서려 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보좌까지 가서 그분을 거기서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엾은 송장일 뿐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안에는 그런 대담함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일에서 그분을 감독하려 하고, 그분께 복종하여 "그렇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피조물 위에 온 주권을 가지시고, 아무도 주를 거슬러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소송을 걸려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 방식과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대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분이 우리가 바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굴레에 붙들어 두시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좁은 포로 생활 속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처지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일부러 여기서 사람들을 괴롭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여기 아래에서 살도록 명하신다면, 적어도 우리 본성이 바라는 것을 가지도록 허락하시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다른 성향을 주시지 않으셨는가?” 여기 사람들 안에 있는 마귀적인 거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고집스러운 악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되돌리려 애쓰실 때 그분이 우리를 다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르침을 잘 받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느 쪽으로 돌리시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 마음의 교만과 거만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동안 얌전한 고양이처럼 굴었더라도, 손바닥만 뒤집으면 그 안에 독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전처럼 하는 데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완고함이 낯선 방식으로 바로잡힐 필요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고칠 수 없는 백성을 탄식하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인용한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것과는 다른 비유 아래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드시는 비교는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에 아주 알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한쪽은 타고 다른 쪽은 날것인 떡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147] 예를 들어 사람들이 화덕을 데웠다고 해 봅시다. 여기 다른 쪽은 온통 타오르고 불꽃이 튑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떡을 들어서 그 위에 올려놓으면 그것은 익지 않고 한쪽은 타고 다른 쪽은 무른 반죽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한편으로는 CO 703 연약함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 사람이 무엇인가? 가난과 비참밖에 없다” 하고 충분히 말하는 것이 보이는 대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참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징계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바로잡음 아래에서

147. 전자텍스트는 이 비유를 예레미야의 말로 돌리지만, 한쪽은 타고 한쪽은 익지 않은 떡의 비유는 보통 호세아 7:8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문의 선지자 이름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익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까? 오히려 익기 전에 우리는 탈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실 모든 징계에서 좋은 바로잡음을 끌어내실 수 없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 분노와 성냄에 들어가서 그것을 두고 그분의 진노와 복수의 불을 지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익기를 원하셨는데 그 대신에 여기 탄 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런 격렬함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서 하나님께서 산들 위에 벼락을 치시고 거기에 아무 조리가 없다고 탄식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소송을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론해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것은 늘 우리 정죄를 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고집스러운 완고함을 보실 때 그분이 거기에 그분의 강한 손을 대셔야 하고, 부드러운 방법을 쓰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시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산이나 바위를 치시듯 그토록 거칠게 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그분의 자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압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거칠음을 쓰시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이 우리 구원을 바라보지 않으신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고난 가운데서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옥까지 이끄신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은 그래도 우리에게 위로받고 기뻐할 거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분의 아버지 같은 자비에 돌려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슬러 벼락을 치셔야 할 대신에 그토록 부드럽고 너그럽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선하심을 느끼게 하시기만을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쓰고 계심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컨대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바꾸시기까지 그분의

힘을 펼치시고, 그가 그분에게서 떠나가며, 그의 상속자들이 가난할지 부유할지, 귀족일지 업신여김받을지 알지 못한다고 덧붙입니다.[148] 욥은 그의 탄식을 이어 가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들의 평생 동안 괴롭히셨을 때 그들의 끝도 그와 같을 것이고,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기 아래의 일들을 더 이상 알지 못하리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는 결론으로, 그의 살이 그에게 붙어 있는 동안 그것이 아파야 하고, 그의 영혼이 슬픔 속에 있어야 하며, 그가 한탄하리라고 덧붙입니다. 이 탄식에 배은망덕이 없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고난 가운데 늘 그분의 은혜를 섞으셔서 CO 704 우리가 그분을 찬송할 거리를 가지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너무 격정에 사로잡히고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서 말한 것을 다시 간직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실 때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은택을 기억에 되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아픔을 누그러뜨릴 것입니다. 우리가 견뎌야 할 고통만 생각할 때 우리는 괴로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부르며 그분께 기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쪽을 바라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선을 베푸셨는데 그것을 계속하지 않으시겠는가?" 하면, 우리 아픔이 누그러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대담함도 가집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우리가 인내해야 하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 우리의 선한 아버지로 나타나신 것으로 충분하며, 그분이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바로잡으신 것은 그분이 우리 구원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곧 욥이 이 고통들만 바라보았으므로 그런 성냄으로 넘쳐흘렀다는 것, 그러므로

148. 설교 첫머리에 인용된 20절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의 얼굴을 감추신다' 고 하는데, 이해설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바꾸신다' 고 표현합니다. 원문의 두 표현을 각각 그대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동안 그분의 은택을 잘 기억에 되살려서 우리 아픔이 그만큼 누그러지고 부드러워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영혼에 늘 기쁨의 거리가 없을 만큼의 슬픔을 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가 많은 병과 추위와 더위와 그런 고통에 매여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께 우리 연약함을 선언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가 품은 모든 슬픔을 잘 누그러뜨려야 할 보상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배은망덕으로 가득한 그런 탄식에 어떻게 맞설 수 있는지 봅니다. 곧 우리가 전에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두고 그분이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하시리라고 소망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삶 동안 우리가 탄식해야 하고, 우리 살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 우리가 잘 한탄해야 한다는 일깨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편안하고 바라는 대로 있기를 갈망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몸과 영혼 모두에서 고난받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셈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슬픔 한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거리를 가지리라는 것을 주목합시다. 사도 바울이 하는 대로입니다. 그는 자기를 아주 비참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오, 나는 곤고 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내 몸의 감옥에서 나를 건져 내겠는가?"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롬 7:24–25).

CO 705 사람이 죽으면 그의 후손들이 가난한지 부유한지 여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다고 욥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거두신 자들이 우리 처지가 어떠한지 알지 못한다는 믿음의 조항을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어지러운 사람으로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가르침의 확실성을 끌어내

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캐물을 일도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귀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하게 합시다. 그리고 또한 각자 이웃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이러한 능력을 주셨으니 나는 거기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거두셨을 때 이 공동체는 우리에게서 거두어지고, 전처럼 사귐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황권에서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는 마치 죽은 성인들이 그들의 달음질을 마치지 않은 것처럼 그들에게 피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 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한 결정을 가지지 못한 것은 의심과 보류 속에 남겨 둡시다.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단순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관해서는, 요컨대 욥은 사람이 비참하다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가 사는 동안 그는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죽을 때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모든 비참함의 극치이다. 사람이 멸절되어야 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말한 대로) 그가 그의 격정에 휩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이 삶 동안 우리가 시들어 가고 우리 살이 아프며 우리가 슬픔 속에 있다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아버지요 구원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거리를 가진다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우리가 죽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압니다(빌 1:21).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우리를 이 세상의 가난에서 건져 내셔서 그분의 부요함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불멸에 참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57편

욥기 15장 설교 1

CO 33:706–717

>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이 바람 같은 지식을 말하고, 동풍으로 배를 채우겠는가? 그가 알맞지 않은 말과 허락되지 않은 말로 따지겠는가? 그런데 자네는 경외심을 흩어 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돌려놓네. 자네 입이 자네의 불의를 드러내고, 자네는 간교한 자들의 혀를 택했네. 자네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자네 입이네. 자네 입술이 자네를 거슬러 증언하네. 자네가 처음 난 사람인가? 산들보다 먼저 지음받았는가? 자네가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는가? 지혜가 자네에게만 한정되었는가? 자네가 아는 것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 자네가 깨닫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에는 머리가 벗어지고 나이 든 자들이 있고, 자네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네. (욥 15:1–10)

CO 706 우리가 진실로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말했다는 것을 아는데도 사람들이 우리가 한 모든 말을 물리칠 때, 그것은 아주 가혹하고 무거운 시험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 인격이 비난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물리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욥은 그런 싸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간계나 악의로나 무지로 그의 소송을 지킨 것이 아니었는데도, 그가 간교한 자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의 혀를 택했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이 바람 같아서 아무 굳건함도 이치도 없다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그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알던 가르침을 지켰기 때문에 여기서 무겁게 고발당합니다. 그런데 이 본보기는 오늘 우리에게 쓰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

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욱이 세상의 대부분이 그것을 정죄하는 것을 보고 어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언제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분이 그들에게 선한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셨으니, 우리가 여전히 그 길을 지나야 한다고 해서 낯설게 여기지 맙시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이 비뚤어져서 선에 자신을 바칠 수 없을 때, 우리의 반역과 사람들의 악의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권위가 줄어들지 않게 합시다. CO 707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책임을 가진 자들은, 사람들이 그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더라도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고 그것 때문에 흐트러지지 말아야 합니다. 욥만 그의 말에서 정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도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맹렬하게 그것에 맞서 일어났고, 그분이 신성 모독으로 고발당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그런 일이 여전히 일어난다 해도 그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하도록 힘씁시다.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일어나서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맞서게 내버려 둡시다. 그래도 그것은 지나가야 하고, 우리는 우리 의무를 다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우리는 여기 이야기된 엘리바스의 말이 욥이라는 인물에게 잘못 적용되었더라도,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좋고 유익한 가르침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바람 같은 말을 하지 않고 듣는 자들의 배를 동풍으로 채우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보는 것입니다. 곧 우리 말이 쓸모없어서는 안 되고 소금으로 맛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쓰고, 그다음에 그의 뜻을 표현하려고, 우리 말이 굳건해서 덕을 세우고 우리 말을 듣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인도받으며, 권고받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대로입니다(골 4:6). 그러므로

이것이 엘리바스의 이 명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곧 우리 말이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 있으면 그것은 바람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곧 그것은 헛되이 부풀지 않을 것이고, 영혼을 먹일 굳건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좋고 거룩한 가르침이 양식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맞은 음식을 먹으면 배부르고 기운을 얻으며, 우리 위가 부풀지 않고 좋고 알맞은 영양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 쓰임에 잘 맞추어질 때 우리는 그것으로 배부르고 그것으로 양분을 얻을 것이며, 그러는 동안 우리 위를 터뜨리고 아무 실체도 영양도 가져오지 않는 부풂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조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선하고 유익하며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내놓았는데 사람들이 우리 말에서 맛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종에게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CO 708 그들의 가르침이 세상에서 아무 맛도 없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조롱했으며, 그것이 바람과 하찮은 것일 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이 우리 이웃을 세우고 굳건한 유익을 가져오도록 힘씁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의 말에서도 이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더 많은 자유를 가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지껄이는 데 빠져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헛됨을 정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바람 같은 말에 빠져 헤매는 것 말고는 아무 즐거움도 얻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에 빠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그들을 꾸짖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인용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간직합시다. 곧 우리 말이 쓸모없어서는 안 되고 소금으로 맛을 내서, 덕을 세우고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이라면, 그것은 비할 데 없이 더 특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정하신 것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런 절제를 쓰도록 살핍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그분의 말씀을 다룰 때 장난만 치고 쓸데없는 질문과 헛된 논쟁만 벌인다면, 그것은 신성 모독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해야 한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 바르고 정당한 쓰임에 적용하지 않고, 공처럼 가지고 놀며, 거기에 어떤 좋은 가르침이 있는지 돌아보지 않고 귀가 바람으로 가득 찬 것처럼 되어서 그것이 사람들의 헛된 호기심을 만족시키려는 것일 뿐인 방식으로 그것을 다룬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원을 위한 것이 업신여김받고 발밑에 놓일 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끼치는 큰 모욕과 불명예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더 가까이 살펴봅시다. 그리고 거룩한 것들을 다루는 일이라면, 늘 좋고 튼튼한 가르침이 있도록, 곧 영혼이 거기서 양분을 얻을 만한 굳건함이 있도록 그런 공경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더욱이 엘리바스가 여기서 말하는 이 바람의 비유를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르침이 좋으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으로 배부를 만한 실체를 가질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좋은 버팀목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모든 호기심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많은 바람이 있고, 멋진 겉모습과 큰 외양이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는 거기서 쓰러질 것입니다. CO 709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랑이 없는 지식은 그 자체로 교만하게 할 뿐이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고전 8:1). 곧 우리가 마땅히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다른 사람들도 그것으로 가르침을 받도록 그것에 대해 말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박식하다고 여겨지기를 원하고, 각자 어리석은 야망으로 예리한 지각을 가졌다고 여

겨지고 성경에 잘 단련되었다고 판단받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람이요 부풂“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야망으로 지어내고 세운 신학들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온 교황권에서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말라 버리게 하고 가엾은 영혼을 먹이고 기를 아무 실체도 없는 동풍의 부풂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 가지 요점으로 일반적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은 그들의 신학의 일부를 아무 열매도 가져오지 않는 질문과 다툼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평생 동안 거기서 애쓰면서도 아무 결론도 찾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계시하지 않으셨고, 더욱이 우리에게 감추어 두시려는 것을 캐물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때 그분이 우리가 입을 다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될지 묻는 가려운 귀를 가지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실 때 우리가 무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지혜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학교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 이상을 알기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 질문을 만드는 교황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것을 논쟁해 봐야 결코 그것에 대해 결론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추측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얻을 수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그들이 그들의 학교에서 논쟁하는 것에 대해 결론을 얻는다 해도 아무 덕도 유익도 없습니다. 그러함은, 거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만으로 구원받는지 묻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우리 죄 사함을 확신하므로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높일 더 큰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우리 고난 가운데서 어떤 위로를 얻어야 하는지 선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거기서는 허공을 날아다니는 것만이 문제이고, 가장 쓸모없는 자들이 가

장 박식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들은 사변적이니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곧 그들은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고 아무 굳건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추악한 더럽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권에 그 자체로 나쁘고 온전히 거짓된 가르침이 하나도 없다 해도, 그래도 그들이 꾸며 낸 그런 문체는 가증히 여겨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그들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의 참되고 CO 710 자연스러운 쓰임을 비뚤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풀게 하는 데밖에 쓰일 수 없고, 영혼을 먹이고 좋은 양분 과실체를 주는 대신 말라 버리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온전히 물리쳐져야 한다는 것을 잘 간직합시다. 그런데 교황주의 신학의 둘째 부분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세워서, 그들 안에 선을 갈망할 어떤 힘이 있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앞서 이끌었을 때에만 그것을 갈망할 수 있다면, 그들이 그분의 조력자요 동료이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공로가 나온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모자라지 않으리라고(마치 그들이 그분을 매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그들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어떤 모자람이 있으면 그것을 보상할 보속이 있으리라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황주의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것저것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칠 때, 그것은 그들을 주제넘음과 교만으로 부풀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나고 마치 그들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 자신의 덕으로 자신에게 아첨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제가 이미 언급한 쓸모없는 질문들보다 더 해로운 요점이 있습니다. 둘 다 정죄받아 마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여기에 더 큰 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그들 자신의 덕으로 자신에게 아첨한다면, 그것은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고 치명적인 독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단순한 부풂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엾은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마귀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으로 온 교황주의 신학이 바람일 뿐이며, 그렇습니다, 가엾은 영혼을 부풀게 하고 그들에게 아무 양분도 주지 않는 바람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덕을 세우고 가엾은 영혼을 배부르게 할 말을 가지기를 배웁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가르침을 받고, 그러는 동안 우리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모든 의와 올곧음의 이 샘에서 길어 와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나누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합시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선이 완전히 비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르침이 내놓아질 때 그것은 덕을 세울 것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양분을 얻고 기운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이웃도 같은 양식으로 이끌도록 힘써서, 하나님의 진리가 굳건한 음식이고 우리를 잘 세워야 하는 것이니 우리가 그것으로 배부르게 합시다. 그러므로 요컨대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우리가 잘 주목해야 할 밝힘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왜 그가 하찮은 가르침을 말라 버리게 하는 바람에 견주는지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CO 711 그는 "자네는 경외심을 없애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빼 버리네" 하고 말합니다. 그가 쓰는 둘째 말이 때로는 '묵상'을 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흔히 기도와 간구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엘리바스가 좋은 가르침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덕 세움의 두 가지 주된 부분을 주목하게 하려 했다는 데는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놓으실 때 그분은 무엇을 향하십니까? 우리를 굴레에 붙들어 두시고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혜의 영과 의와 덕과 생명을 빼앗겼으니,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부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가 바른 목표를 향하려 할 때 지켜야

할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때 우리가 많은 것을 들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거기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는 어떤 가르침이 위를 부풀게 하고붓게 하는 바람일 뿐이라고 결론지으려고, 그것이 경외심을 없애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빼 버린다고 말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돌아서게 되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의 선하심에 피하라는 일깨움을 받지 않을 때, 여기 우리를 터지게 할 뿐 아무 양분도 가져오지 않을 바람이 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우리는 제가 말한 덕 세움이 무엇인지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주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가르침을 받고 거기서 점점 더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그분을 부르도록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선을 그분 한 분 안에서만 찾으라는 일깨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을 곳이 거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경외심에 관해서는, 그것은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려진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그들의 창조주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온갖 악으로 넘쳐흐릅니다. 우리는 우리 욕망이 어떠한지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우리를 다스린다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우리가 좋게 여기는 대로 그런 자유 속에 살라고 세상에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도록 우리 위의 모든 권리를 그분 자신에게 남겨 두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이것이 '경외' 라는 이 말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율법이 있어서, 그분은 그것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어떻게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하는지 보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히 수치스러워지지 않으려면 거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가 그분의 영으로 다스림받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나아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선이 비어 있고 악만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CO 712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들의 삶, 그렇습니다, 그들의 온 본성을 비교해 보면, 불과 물 사이처럼 치명적인 싸움을 발견할 것이고, 우리 육의 모든 감정보다 하나님의 의에 더 반대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대로 그것들은 그분을 거스르는 그만큼의 원수 됨이기 때문입니다(롬 8:7).

그러므로 사정이 이러하니, 우리가 온전히 악으로 끌려가고 더욱이 광포함에 휩쓸리고 사로잡혀 거기로 가니, 우리는 이 기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손을 두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성령께서 다스리시게 하셔서, 우리가 솔직하고 단순한 뜻으로 그분의 의와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모든 것에 붙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사탄과 세상의 모든 시험이 우리를 선을 행하는 데서 돌아서게 하도록 허락하지 마시고,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며 늘 우리에게 은혜롭고 다정하시기를 기뻐하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결합되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 직분이 무엇인지 보여 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그분께 온전히 피하며 우리에게 모자란 것을 그분께 구하라는 권고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유일하고 최고의 의원이시니, 우리 가난을 도우시고 거기에 처방을 내리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잘 간직했을 때 우리는 하루치로 많은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설교에 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두 조항을 가지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헤매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 무엇을 하러 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알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짐승처럼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 말고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규칙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신심 행위는 그만큼의 어리석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가엾은 교황주의자들이 많이 애쓰고, 끝이 없으며, 이것도 저것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대로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얻습니까? 그것은 모두 꾸며 낸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 사이에서 묻혀 버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힘씁시다. 오히려 우리가 설교에 올 때, 우리가 잘못할 수 없는 참된 확신을 얻으려고 오게 합시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온 삶을 다스리고 이끌 하나님의 뜻만을 가질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직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기 너희가 할 것이 있다,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다" 하고 설교로 우리 귀를 아무리 두드려도, 우리가 그분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CO 713 그것을 우리 속에 새기시는 분이 그분이시며, 우리에게 그분의 계명에 붙을 힘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그분의 성령으로 가르침에 힘과 효력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받아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배울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께 구하려고 그분께 피하도록 가르침을 받을 때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기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하고 말할 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구할 것을 이룰 힘을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 밖에,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 믿음이 악으로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피하려는 감정을 낳는다는 일깨움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시키셨고, 그분이 그분의 피를 흘리셨을 때 그것은 우리가 순결하고 깨끗하도록 우리를 씻으시려는 것이었으며, 그분이 우리 몸값의 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그분의 의로 풀려나고 그 의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자비를 쓰시게 하셨다고 말할 때, (제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 때,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거기에 붙어서 이렇게 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만족을 이루셨으니,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말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신뢰가 거기에 기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우리가 잠든 채로 남아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깨어나서 하나님께 피하며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선은 어디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수난에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거기서 찾아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것을 찾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여, 주께서 우리가 모든 선이 비어 있는 것을 보시니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가엾은 죄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아들의 몸의 지체가 될 때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룩으로 가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 있고 좋은 씻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빚졌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기서 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얻으신 것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선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여,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시험 때문에도 우리가 쓰러지도록 허락하지 마옵소서." 요컨대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다음에 욥에게, 그가 CO 714 간교한 자들의 혀를 택했다고 나무랍니다. 여기 이 말은 그가 모든 경외와 공경을 벗어 버리고 그들 안에 더 이상 아무 이성도 없는 자들처럼 하나님을 조롱하기만 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단순함으로 죄를 짓고, 그들이 얼마간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둔해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생하게 감동받지 않고 반쯤 말 못 하는 짐승 같은 자들을 우리는 많이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그들 안에 감추어져서 숨 막힌 것처럼 되어 있는 얼마간의 하나님 경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은 간계와 악의 보다 단순함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모든 신앙을 조롱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온 위엄을 가지고 놀며, 일부러 모든 악을 따르려고 자신에게 지나친 방종을 허락할 때 자기가 아주 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엘리바스가 이 구절에서 언급하는 이 간교한 자들이 어떤 자인지 있습니다. 곧 무지나 어리석음으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그것을 장난이나 익살극처럼 다루기로 작정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불의의 극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분을 거슬러 영리한 척할 만큼 고삐를 풀어 주신다면, 그때 사탄이 그들을 그렇게 차지해서 그들을 바른 길로 되돌리기가 아주 어렵고, 그렇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그런 자들에게 벼락을 치는지도 봅니다. “너희가 숨을 곳을 만드는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사 29:15). 그는 하나님을 잘 속이리라고 생각할 이 간교한 자들에 대해 말하면서 이 비유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신을 날카롭게 할 때 교묘한 것들을 지어낼 것입니다. “오, 보라.” 그들은 모든 수단으로 하나님 경외를 없애려 애쓸 것입니다. 그들이 시작하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굴레에 붙들려서 성경에 한 마디가 있으면 반대 없이 거기를 지나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고,

그다음에 이것이나 저것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권위를 주도록 강요받아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캐묻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영리한 척하려는 이 간교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문제 삼아 모든 입을 다물게 하며, 그것을 모든 것에서 어디서나 깎아내리려고 자신에게 방종을 허락하는 끝에서 시작할 것입니다.[149]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의심에 들어갔습니까? 그다음에 그들은 거기서 완고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사탄이 그들을 휩쓸어 가는 것이 아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 이르렀습니까? 그들은 모든 가르침을 거슬러 혀를 내밀 뿐이고, 더 이상 뉘우침도 거리낌도 없으며, 요컨대 그들은 모든 인간다움을 벗어 버리고 짐승처럼 되었습니다. CO 715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버려 두신 자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단단히 복종하여 그분의 말씀에 그런 공경을 바쳐서, 악인들이 즐기고 그 속에서 목욕하는 이 모든 영리함과 교묘함을 피하고 몸서리치며 가증히 여기도록 힘씁시다.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전에는 충분히 예리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자기가 너무 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기를 배워서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 하고 말하며 거기에 주의를 기울일 신앙이 그들 안에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는 충분히 이름을 날리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공상적이고 경박한 정신들도 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기꺼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너무 큰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다는 것인가? 모든 하나님 경외를

149. 원문의 'pour faire qu' en ne voye point ce qui est de la parole de Dieu qu' en appelle' 로 시작하는 이 대목은 1563년 초판(315쪽)에도 같은 연결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문장 연결이 난해하여,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권위를 깎는다는 문맥에 따라 잠정적으로 옮겼습니다.

물리치자.” 우리는 그런 심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만큼 더 경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단순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가 둔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교황주의자들이 상상하는 것, 곧 거위 떼처럼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황주의자들이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하고 말할 때, 그 단순함은 무엇입니까? 흰 것과 검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을 붙잡고 따라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무지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악의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지만 지각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고전 14:20).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벧전 2:2])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성령과 그분의 말씀의 빛으로 비춤을 받아서, 우리가 악의로 살지 않고, 젖과 같은, 단순함과 올곧음의 양식으로 길러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150]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분의 자녀들을 이런 방식으로 대하셨듯이, 그분은 오늘날에도 이 같은 양식이 우리에게 내놓아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걸림돌에 맞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곧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어디서나 혼란을 일으키려고만 한다고 나무랄 때입니다. 오늘날 교황주의자들이 너무 뻔뻔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육적인 방종으로 이끌려고만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더 이상 품위가 없으며, 아무도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데 마음을 쓰지 않는다고 우리를 나무라는 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비난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욥이 그런 시험에 공격받은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앞에서 CO 716 사람들이 그 악을 우리에게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것을 인내로 견딥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150. 원문은 ‘지각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는 표현까지 사도 베드로의 말로 돌립니다. 이 대목에는 고린도전서 14:20과 베드로전서 2:2의 표현이 함께 쓰였습니다.

주시는 것에 자신을 맞추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려는 이 고려를 가졌기만 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잘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그분의 학교에서 배운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진리의 대적들이 우리에게 덮어씌우는 모든 비방을 물리치는 데에는 이 한 마디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사람들을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에서 돌아서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모든 안식을 가지고, 우리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치우치려고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것을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모든 것에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단순히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야 하고, 우리가 바르게 행한다는 증언도 사람들 앞에서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우리를 비방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로 견뎌야 하고, 그러는 동안 그들이 뻔뻔하고 염치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한 뒤에, 욥이 그렇게 자기 지각을 신뢰해서는 안 되었다고 덧붙입니다. “자네가 처음 사람인가? 자네가 산들보다 먼저 태어났는가? 여기 노인들과 머리 센 자들이, 그렇네, 자네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자들이 있네. 자네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아는가?”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가 충분히 나이 들지 않았고 그런 판단의 자유를 자신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고 나무랄 때, 우리가 위에서 본 대로 그의 말에 얼마간 그럴듯한 빛깔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여기서 오래 사는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는 어떤 것을 잘 배웠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나이가 들면 지각이 더 차분해지며, 젊은 사람들은 많은 끓어오름을 내뿜지만 나이가 그 모든 것을 누그러뜨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든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유익을 얻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온전하고 더 확실한 가르침을 가져야 한다고 추정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유익을 얻는 대신 뒷걸음질 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주 좋은 지식과 깨달음과 얼마간의 분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점점 더 나빠지므로, 대부분의 사람이 젊은 시절이 보이지 않게 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더 나빠지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 지혜에 관해서는 우리 노년을 신뢰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젊은이에게든 노인에게든 그것을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보라, 그날이 이르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라. 너희 늙은이들은꿈을 꿀 것이다"(욜 2:28).[151] 곧 그들이 CO 717 내 선지자가 되고 내가 그들을 가르치리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너희 아들과 딸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세상에 보내시는 이 지혜를 받도록젊은이와 노인, 여자와 남자를 모두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모든 영광이 꺾여야 하고, 나이 든 사람들이 오래 살고 오랜 경험을 가졌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사람들이 오랜 시간으로 그것을 알리라고 주제넘게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시절에 부르셨을 때 우리가 점점 더 굳게 서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일하시기 때문이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거기에 우리 것이 무엇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기뻐하거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들 믿음의 모든 기초를 오래됨에 두는 교황주의자들의 어리석음이 어떠한지 봅니다. "오, 보라, 우리는 새로운 가르침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제나 일 년 전에

151. 원문에는 요엘 3장 1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 성경과 프랑스어 성경의 장절 구분이며, 한국어 성경으로는 요엘 2:28에 해당합니다.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고 우리는 그것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진리, 세상의 창조 전부터 있었던 진리를 가지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믿음의 굳은 버팀목을 가지려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십 년이나 사백 년이나 천 년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계시된 영원한 진리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질 때 우리 믿음은 잘 기대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헛됨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는 늘 흔들릴 것이며, 작은 바람만 불어도 우리 믿음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됨이 우리에게 가치를 가지되, 젊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많이 본 자들에게 완전히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될 만큼만, 그렇습니다, 그들이 젊은 사람들을 그들이 하나님 한 분과 그분의 진리에게서 배운 것에서 돌아서게 하려 할 때에는 그래서는 안 될 만큼만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간직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이 세상에 오래 산 자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 한다고 말하며 그들의 나이를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분하고 절제될 수단과 기회를 주셨으니 그만큼 더 그분께 매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알아서, 모든 교만이 내려놓아지게 하고, 그들이 오랜 시간이나 정신의 예리함이나 그 무엇으로도, 그들의 지각으로도, 많은 경험을 쌓은 것으로도 어떤 지식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빚졌는지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그들 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것도 그분이 나이 든 사람들과 더 오래 산 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서도 그분의 성령을 빼앗으려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모두 그분의 성령의 같은 은혜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모두 그분의 하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계시하신 그분의 불멸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58편

욥기 15장 설교 2

CO 33:718–730

> 하나님의 위로가 자네에게 하찮게 보이는가? 그것이 자네에게 낯선가? 어찌하여 자네 마음이 들떠 있고, 어찌하여 자네 눈이 눈짓을 하여, 자네가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나 자네 입의 말을 내놓는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순결하겠으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는가? 보게, 그분은 그분의 거룩한 자들에게서도 굳건함을 찾지 않으시고, 하늘도 그분 앞에서 깨끗하지 않네. 하물며 불의를 물처럼 들이켜는 사람은 얼마나 가증하고 악취 나겠는가? (욥 15:11–16)

CO 718 이 설교도 8, 9, 10절과 그다음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욥이 그의 나이에 대해 받은 책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오랜 경험으로 더 많이 겪은 노인들의 조언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CO 719 또한 노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래 사는 은혜를 베푸셨으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길을 보여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젊은이와 노인 모두, 위에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 말고는 참된 지혜가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분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그것을 나누어 주시며 사람들이 그분을 매인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큰 자와 작은 자 위에 그분의 영을 펼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값없는 선물이며 그 찬양은 그분 한 분께만 돌려져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둘째로, 엘리바스는 욥

에게 그가 하나님의 비밀을 듣지 못했다고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우리는 우리 정신의 거칠음과 연약함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방법은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그렇게 높이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지각을 주제넘게 믿고 하나님의 비밀의 가장 높은 곳까지 이르리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그들을 낮추거나 어떤 겸손으로 이끌 수 없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르러야 할 곳은 여기입니다. 곧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놀랍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만한 분별을 우리 안에 가지지 않았으니 그것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밖에 남지 않고, 각자 다윗과 함께 "주여, 주의 생각이 얼마나 깊으신지요! 그것은 우리가 잘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시 92:5) 하고 외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컨대 이것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가 하나님의 비밀을 듣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성경에서 자주 되풀이되고 더할 나위 없이 흔합니다. 본성적으로 모든 사람 안에 뿌리내린 교만을 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기 동료보다 더 지혜롭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우리 작음을 인정하여 자신을 낮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아질 필요가 있고, 성경이 하는 대로 그것에 대해 일깨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 높고 너무 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거칠음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에 이르러야 합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셔서, 그 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알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고전 2:11).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사가 아니더라도, 그분은 그래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감추어진 것을 계시해 주시는 은혜와 영예를 베푸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 안에 있는 것은

CO 720 그 안에 거하는 영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있었고 우리가 결코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것들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 특별한 은혜, 우리가 잘 귀하게 여겨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곧 가엾은 소경이었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아래의 것들도 깨닫지 못하는데도 우리는 하늘 위로 들려 올라가고, 천사들이 경탄하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계시됩니다. 그것이 값을 매길 수 없는 영예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비밀을 계시하려 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영감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성령께 돌리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신을 열어 주셔서 그분이 그분의 입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듣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읽고 들어 봐야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령을 말씀과 결합해야 합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율법을 주시고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해, 특히 복음에서 그분의 뜻을 가르치셨을 때 우리에게 그분의 무한한 지혜의 보화를 펼쳐 놓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그분이 우리 눈을 열어 주셔서, 성경에 담긴 것이 우리에게 낯선 말처럼 되지 않고 우리에게 친숙하게 되게 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각은 결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모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어떻게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지, 그러므로 어떻게 그분의 비밀을

경배해야 하는지 봅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뜻에 참여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대로 그분의 계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는 분수를 넘어 지혜로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지고 인간 이성의 지각을 넘어서는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넓혀 주실 때, 그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고전 13:12). 그러므로 우리 한계를 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만 부지런히 캐묻도록 살핍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성경으로 찾을 것이니 그 이상 넘어가지 맙시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의 십분의 일도 알아듣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을 계시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CO 721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아래 행하고, 그 이상 넘어가려고 무모하게 굴지 맙시다. 가장 앞서고 가장 온전한 자들도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아는 것이 아직 그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로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그토록 뛰어난 선지자였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것이라고 외치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죽을 육에서 벗기실 때까지 우리가 그런 깨달음 의 목표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길에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압시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자네에게 하찮게 보이는가? 자네 안에 무슨 비밀이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자네에게 낯선가?” 이 ‘비밀’ 이라는 말은 낯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여기서 욥을 교만과 배은망덕으로 꾸짖으려 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자네는 하나님의 위로를 업신여기는 것 같고, 그분이 자네를 위로하시는 것을 낯설게 여기는군.” 그것이 어떤 사람 안에 있다면, 그것은 너무 큰 교만이고, 그렇습니다,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업신여김일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모든 것보다 귀하게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지럽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되돌리시는 것 말고 무슨 방법이 있고 무슨 처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언짢게 하는 어떤 곤혹스러움이 있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 혼란스러워 결단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래시고 만족시키시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압시다. 그러나 그 방법은 우리가 모든 것 위에 귀하게 여겨야 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어지러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깨달음을 밝히시고 우리를 안식에 두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어지러움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늘과 땅이 모두 뒤섞이고 어디에나 심연밖에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기뻐하시면 그분은 모든 것을 다시 질서 있게 하셔서, 전에 더할 나위 없이 얽혀 있던 것이 온통 풀려서 우리를 언짢게 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아무것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보다 실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위로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그것이 우리를 달래는 데 어떤 힘을 가졌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괴로움만 가져도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들은 불안에 빠져 있고, 언짢아할 작은 기회만 있어도 끝까지 자기를 괴롭히려고 불을 지피는 것 같습니다. CO 722 (제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상에 내버려 두시는 동안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지러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되돌리시는지 알아챕니다. 물론 우리는 곤혹스러움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서 놀라서 "아,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결코 그런 혼란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런 질서를 두셔서, 우리는 우리 정신이 안식하고 달래진 것을 보고 아주 놀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토록 능력 있게 일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위로를 더할 나위 없이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바뀜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곤혹스러움과 괴로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실 때 우리가 만족할 충분한 거리를 가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납득했는데도, 우리는 한순간에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괴로움을 가지면 그 속에서 자기를 기르고 재갈을 씹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해서 "어떻게 된 일인가? 여기 네 하나님께서 네가 향해야 할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 주셨는데, 그런데도 너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고 말하는 것은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만큼 더 이 구절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곧 사람들이 그들의 괴로움과 곤혹스러움과 정신의 어지러움에서 건짐받으려고 하나님의 위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그들은 너무 배은망덕하며, 더욱이 배은망덕 외에도 그들이 그들의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처방을 찾지 않으니 너무 추악한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자네 안에 무슨 비밀이 있는가?" 하고 말할 때 교만은 이 '비밀' 이라는 말로 더 잘 표현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엾은 피조물아, 너는 네 연약함을 느끼지 못하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있는 그대로 안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은혜를 느끼게 하실 때까지 결코 안식하지 않을 만큼 그런 바람으로 불타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둔해서, 우리 안에 어리석음과 헛됨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고통의 처방을 소매 안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어지러움이 오면 우리는 우리 정신을 날카롭게 하러 갈 것이고, "여기서 무엇을 고안해야 한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그 모든 것을 우리 작업장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은 이렇게 자만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자네 안에 무슨 비밀이 있는가?"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거칠고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알아챈다면, 우리가 우리 괴로움과 어지러움 가운데 우리 자신을 건지리라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지 않으리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CO

CO 723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만이 거기에 질서를 두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곧장 그분께 갈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느끼고 그분이 그것을 충분히 보여 주시는 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제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실천합시다. 그리고 우리 삶이 그토록 많은 가난에 매여 있어서, 사람이 (자기를 휩쓸리게 하고 자기를 잊지 않는다면) 자기 안에서 한순간의 안식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니, 하나님께 가서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게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를 그것이 마땅한 만큼 귀하게 여깁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우리가 결코 빠져나오지 못할 것처럼 보였던 어지러움을 풀고 밝혀 주셔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거기서 건지셨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바스가 덧붙이는 것으로 가 봅시다. 그는 욥의 마음이 휩쓸려 있고, 그가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나려고 눈짓을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엘리바스는 욥의 교만을 꾸짖습니다. 그것은 잘못되고 엉뚱한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말한 대로, 이 말이 욥이라는 인물에게 잘못 맞추어졌더라도 우리는 그것에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유익한 가르침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찌하여 자네 마음이 들떠 있는 가, 혹은 그것이 자네를 사로잡았는가?" 하고 말합니다. 글자 그대로는 "어찌

하여 자네 마음이 자네를 붙잡았는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자네가 하나님을 거슬러 변론하려고 눈짓을 하는가?” 눈짓을 한다는 것은, 흔히 말하듯 우리가 비웃기만 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귀를 흔들 만큼 그런 거만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그에게 내놓는 것을 업신여기고, 그것이 쓸데없으며 사람들이 그가 이미 알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져다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요컨대 우리는 엘리바스가 여기서, 욥이 그에게 하는 말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 아래 자신을 낮추지 않는 그런 교만을 정죄하려 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욥의 마음이 들떠있다고 말할 때 그런 교만이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이 거만함이 늘 사람들에게 악덕이 되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기뻐하고 그들의 교만 속에서 완고해지는 것을 보실 때, 그분은 그들이 이렇게 자기를 주제넘게 믿고 자기에게 높이 평가할 거리가 있다고 스스로 믿게 하니 그들이 아주 어리석고 지각이 아주 없다는 것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을 만한 기미라도 있으면 우리는 곧바로 붙잡을 수 없을 만큼 높이 올라가서, 목이 부러질 지경까지 날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제넘음으로 부풀어 오르는 데 빠져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보여 주십니다. “자, 너희는 누구냐? 너희가 무엇을 가졌느냐? 여기 너희 온 가게를 펼쳐 놓아서, 거기 있을 모든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살핌에 이르면, CO 724 그때 그들이 자기 안에 있다고 상상한 모든 것에 어리석은 자만밖에 없었다는 것이 알려집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곧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입을 열거나 자기를 내세우려 하고 마땅히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광기에서 나오며 그들이 차분한 지각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앎과 분별이 있다면, 그들이 꺾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맞서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

안에 정죄밖에 없으며 그들이 그들의 부끄러움 속에서 수치스럽게 남아 있어야 하니, 자기 자신에 관해서도 아무것도 주제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가 그것을 우리 가르침에 잘 적용할 줄 알 때 뛰어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알기를 배웁시다, 배웁시다. 그러면 옛 속담대로 우리는 그와 함께 겸손해져서 우리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서 벗어나기를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를 곤두박질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자만에 우리를 내던져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의 원수이시듯 우리에게 덮치셔야 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로잡으려고 들뜨거나 휩쓸리지 않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덕이나 의나 지혜를 가진 동안 그토록 눈이 먼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스스로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이 일부러 눈을 가리고 스스로 눈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속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거기서 자기를 낮출 것을 충분히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부러 눈을 감으려 하고, 기꺼이 속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렇게 휩쓸릴 때, 그들은 하나님을 비웃고 어떤 깨우침에도 마음을 쓰지 않으며 사람들이 그들에게 내놓는 모든 것을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수치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 봅시다. 지금까지 엘리바스는 욥이 들은 권고에서 유익을 얻지 못하게 막은 것은 그가 교만으로 부풀고 하나님께 배은망덕했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서문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 할 수 있겠으며, 순결하고 깨끗하다고 드러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자들, 곧 그분의 천사들에게서도 굳건함을 찾지 않으시고, 하늘도 그분 앞에서 깨끗하지 않다. 그렇다면 불의를 물처

럼 마시는 악취 나고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은 어떻겠는가?" 물고기가 물로 길러지듯 사람들은 죄와 불의에 절어 있습니다.[152]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 하려 하겠습니까? 먼저 그들이 CO 725 천사들보다 더 깨끗하고 순결해야 하고, 해와 별들의 빛을 넘어서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비교하려 할 때 하늘조차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져 있으니 말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까닭 없이 되풀이되지 않듯이, 우리도 앞에서 말한 것을 기억에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목할 만한 가르침이어서 아무리 묵상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굳건함을 가지지 않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마귀들에 대한 말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엉뚱합니다. "마귀들이 의롭지 않으니 사람들도 의롭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마귀가 모든 불의와 악의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별히 천사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들에게 그 칭호를 돌리고, 때로는 그들을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라고 부르는 대로입니다 (딤전 5:21).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서 굳건함을 찾지 않으시는지 봅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키시지 않으면 그들이 선에 머물 꿋꿋함을 가지지 못하리라는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기서 셈을 치르는 일이라면 그 위에 기댈 수 있을 만큼 그토록 온전하고 정교한 의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그것은 천사들에게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것 말고는 다른 감정을 가지지 않았고, 우리처럼 악한 욕망에 매이지 않으며, 그들 안에

152. 물고기가 물로 길러진다는 비유는 칼빈의 원문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들을 돌아서게 할 시험이 없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그것으로 우리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이 반대 없는 것이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갈망할 때 우리는 절름거리듯 그것을 향해 가고, 필요한 만큼의 십분의 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자신을 바치지 않는 것과 달리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들에게서 굳건함을 찾지 않으시리라는 것, 곧 그들이 그분 앞에서 대답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분이 그분의 율법에 두신 척도, 곧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척도를 쓰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일이라면 만족하시는 중간 수준의 의가 있습니다.[153] 그런데 그 의를 따르면 우리는 모두 죄가 있습니다. 누가 자기가 온 감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다고, 어떤 악한 욕망에 흩트려지지 않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 우리가 거기까지 이르기는커녕 CO 726 우리가 길에 있을 때 그것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사람들은 이 중간 수준의 의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 정죄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거기 담긴 모든 것을 이루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구절을 인용할 때, 그것이 우리 모두를 정죄하는 명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 3:10). 그런데 천사들은 그 의를 따라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아무 얼룩도 흠도 없고, 그들의 모든 바람이 하나님께서 섬김받고 공경받으시는 이 목표만을 향하며, 그들이 거기에 온전히 힘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율법의 의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모든 피조물을

153. 원문의 '중간 수준의 의' (iustice moyenne)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피조물에게 제시하신 척도를 뜻합니다. 천사들은 그 척도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의와는 견줄 수 없다는 구별입니다.

넘어서는 더 높은 의가 있어서,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천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 사이에 무슨 비교가 있겠습니까? 여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큰 영광이 있더라도 그래도 그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십니까? 그분은 무한한 분이시어서, 우리가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놀라움에 넋을 잃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너무 높아서 모든 피조물이 거기 나아올 때 그들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없어져 마땅하다는 것에 놀라지 맙시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들에게서 굳건함을 찾지 않으시리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그들에게 이 극한의 살핌을 쓰려 하신다면 천사들이 사라지고 그 모든 것이 내려놓아지고 삼켜져야 하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에서 우리에게 정하신 규칙을 따라 그들에게 공경받고 섬김받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니, 그들은 그분의 얼굴 앞에 서 있고, 그분은 그들이 참으로 그러한 대로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며, 그들은 이렇게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지각에 맞추어 재신 의를 가지시는 것과, 그분이 그 엄격함에 이르셔서 "누가 우위를 차지하겠는가?"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154]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거기서 정죄받고 저주받으리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거기 서 있을 수 있기는커녕 낙원의 천사들조차 거기서 수치를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조차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창조하셔서 세상을 비추게 하시고 별들에게도 얼마간의 빛을 주셨을 때, 그것은 거기에 신적인 완전함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것을 간직해야 합니다. 곧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창조되었으니 아직 그분의 은혜의 어떤 표지를 간직하고 있지만, 피조물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비교하려 하면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154. 원문의 'Qui est-ce qui l' aura gaigné? '는 1563년 초판(320쪽)에도 이렇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비교하는 문맥에 따라 '누가 우위를 차지하겠는가' 로 풀이했습니다.

발견하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이 깨끗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피조물 안에 늘 불완전함이 있어서 그것들이 CO 727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이 무한한 영광에 견주어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으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정이 이러하니 사람들은 어떻겠는가?"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이미 언급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에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이 중간 수준의 의를 따라 우리를 살피려 하신다 해도 우리가 모두 죄가 있으리라는 것, 온 인류 위에 보편적인 정죄가 있고 우리가 그 아래 짓눌려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여기 사람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물리쳐집니다. 우리가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세우려 한다면, 우리 수치는 그만큼 더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원의 천사들보다 더 의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앞에 나아올 때 충분할 수 있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봅니다. 그분이 그분의 영광으로 모든 것을 삼키시고, 무엇인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과 더욱이 놀라워 보이는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셔야 합니다. "해가 더 이상 그 빛을 내지 않고 달이 어두워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대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더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목적을 향합니다(사 13:10).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펼치실 때 피조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사람들이 그전에 그것을 귀하게 여겼더라도)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해가 (지각 없는 피조물일 뿐인데도) 하루 종일 별들의 빛을 가리고, 별들이 늘 하늘에 있는데도 해가 빛날 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위엄은 어떻겠습니까? 피조물들이 그것에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한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들을 이긴다면, 하나님 자신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처럼 먼저 우리가 우리 의를 주제넘게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이셔야 하고 우리가 그분께 어떤 존엄을 가져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어리석은

자만으로 나아온다면 우리는 물리쳐집니다. 우리가 낙원의 천사들보다 더 의롭고 하늘보다 더 깨끗하고 순결하다 해도,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아직 아무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토록 완전한 의까지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이 중간 수준의 의에만 가 봅시다. 피조물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을 봅시다. 그분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모든 지각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기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당한 것 이상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 마음은 무엇에 자신을 바칩니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합니까? 그것이 이 땅의 줄에서 풀려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까?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모든 것을 끊고 여기서 영적인 삶을 삽니까?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문제 삼더라도, CO 728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대로 이 예를 들어 봅시다. 곧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 그때 그는 자기에게서 물러나서 그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근심과 모든 격정과 비슷한 것들을 벗어 버려야 하고, 우리가 우리 가난을 느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거기서 엎드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삶의 나머지 모든 것보다 더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옵니까? 우리는 우리가 너무 육적이어서 우리가 완전히 버릴 수 없는 많은 악한 공상을 바라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좋은 감정을 가진다 해도 이리저리 흩트려지는 데에는 별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처럼 그토록 거룩한 일에서 그토록 경박하다면, 우리 삶의 나머지 모든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각자 그것을 충분히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깨우쳐 주어야 하는 것은 큰 부끄러움입니다. 그것을 너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정이 이러하니,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

까? 이제 우리 의로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욥이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고 엘리바스가 그런 교만으로 그를 고발함으로써 그에게 잘못과 모욕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는 이 가르침에서 유익을 얻어야 하고, 여기서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그들은 연약함으로만 고발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황주의자들조차 우리가 연약하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충분한 의가 없다고 잘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더 멀리 이끌립니다. 곧 사람들이 모두 죄에 절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사람들이 율법을 이룰 만큼 유능하지 않고, 많은 불완전함에 휩싸여 있으며, 그토록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변덕스럽고 경박한데 어떻게 자기를 의롭다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식으로, 요점에 이르지 않고 사람들을 거슬러 할 수 있는 다른 그런 말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가증하고 악취 나며 불의를 물처럼 들이켜는데 자기를 의롭다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합니다. 곧 그들의 고유한 양식이 죄이고, 그들 안에서 선 한 방울도 발견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몸이 먹을 것과 마실 것에서 그 실체를 끌어오듯이, 사람들은 그들 안에 죄 말고는 다른 실체가 없고 모든 것이 거기서 부패해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 몸과 영혼의 실체가 악한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악에 절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려고투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그 본질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거기서 비뚤어졌습니다. CO 729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그런데도 그것은 악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오염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선이 한 방울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이것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연약함과 부패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교황주의

자들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연약하다고 말한다면,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사람들이 변덕스럽고, 덕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일이며, 우리가 악덕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이방인들은 그 모든 것을 잘 알았고, 오늘날의 이방인들도 그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 안에 선이 한 방울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그들을 받아 주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다는 것을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주제넘게 믿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께서는 여기서 그들을 가증하고 악취 나고 오염되고 쓸모없다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는지 보려고 내려다보셨는데, 한 사람도 찾지 못하셨다. 모두가 치우쳤고, 모두가 가증하고 악취 나게 되었다"(시 14:2–3; 53:2–3).[155] 어떤 이들이 둘째 말을 '쓸모없는'으로 옮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시들었고,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으며, 그것이 온통 부패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알아보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늘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조리가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상을 따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견해로 만족하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자기를 의롭다 하고 각자 자기 동료의옴을 긁어 주며 그들의 악 속에서 서로 박수 치고 거기에 취한 듯이 되어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다보기를 그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악취와 가증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증한데, 그러는 동안 우리는 대단한 것을 가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55. 원문에는 시편 53편 4절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절수에 넣어 세는 프랑스어 성경의 절수이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얻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과 높음의 시험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덕의 기미를 가졌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소환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무서운 명제가 우리 기억에 떠오르게 합시다. 곧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사람들을 살피셨을 때, 그분 앞에서 오염되고 악취 나지 않으며 그분이 가증히 여기지 않으시는 사람이 하나도, 정말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는 이 구절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의를 물처럼 들이켠다고 말할 때, 그것은 CO 730 우리 온 삶이 악에 자신을 바친다는 것을 더 잘 표현하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로 길러지듯이 사람들은 죄 속에서 자신을 기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됩니다. 아담은 여기서 말하는 부패 속에 창조되지 않았고, 그는 그것을 스스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지으신 것들을 좋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사람은 그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비뚤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의 샘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그에게 온갖 불의와 부패 말고 무엇이 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악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여 있고 그 아래 포로로 붙들려 있는 악덕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봅니다. 성경이 우리가 죄 아래 팔렸고 (롬 7:14) 사탄의 종이라고 말하는 대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조상 아담에게서 받은 유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죄 있는 자로 내놓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죄의 이 부패와 종살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핑계가 되어서 "아,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하겠는가?" 하고 말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우리가 보는 대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악에 빠져 있다면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는 시험에 맞설 힘이

없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죄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고 그들을 정죄하신다면 그분은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이렇게 모독하는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완전히 불의에 절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입을 다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으려면 기꺼이 나아와 정죄를 받아들입시다. 그렇지 않으면 시편 51편에서 말하는 것이 늘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늘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시 51:4).[156] 우리가 그것에 대들려 해도 그분은 늘 의로우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치 속에서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기를 원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곧 우리가 나아와 우리 안에 무서운 수치밖에 없고 선 한 방울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기를, 곧 그분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모든 더러움에서 씻으신 뒤에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 주시기를 그분께 구합시다. 참으로 우리가 그분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의, 천사의 의 이상의 의를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156. 원문에는 시편 51편 6절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절수에 넣어 세는 프랑스어 성경의 절수이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제59편

욥기 15장 설교 3

CO 33:731–742

> 내가 자네에게 밝히겠으니 내 말을 듣게. 내가 본 것을 자네에게 이야기하겠네. 그것은 지혜로운 자들이 그들의 조상에게서 받아 숨기지 않고 밝힌 것이네. 그들에게만 땅이 주어졌고, 이방인이 그들 가운데를 지나가지 않았네. 악인은 평생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 같고, 포악한 자에게는 해의 수가 감추어져 있네. 두려운 소리가 그의 귀에 있고, 그가 평안할 때 약탈자가 덮칠 것이네. 그는 자기가 어둠에서 벗어나리라고 믿지 못하고, 칼을 볼 것이네. (욥 15:17–22)

CO 731 우리는 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남아 있을 때 그들의 처지가 어떠한지 보았습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의를 가지기는커녕 온통 혼란과 악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의를 넘어서는 의로 우리를 입히실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비참한 가엾은 죄인인데,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그들의 본성에 관해서만 가진 것보다 더 뛰어나고 더 귀한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그분이 모두의 공통된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는 천사의 의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바스가 여기서 이어 가는 말로 가 봅시다. 그는 잘 적용되기만 하면 그 자체로 참된 것을 다룹니다. 곧 악인들은 결코 안식이 없고 너무 불안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데 그들 자신 말고 다른 사형

집행인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는 욥이 악인이라고 잘못 결론짓습니다. 욥이 그의 아픔에 놀라 있었지만, (위에서 내놓은 대로) 그는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이 가르침은 좋고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땅한 대로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과 판단을 주셔서 그분이 무엇을 목표로 하시고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기를 늘 그분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진 것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거꾸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담긴 것에서 더 잘 유익을 얻으려면 엘리바스의 말의 흐름을 따라가 봅시다. CO 732 그는 "내 말을 듣게. 내가 본 것을 자네에게 이야기하겠네" 하고 말합니다. 그는 그 자신의 경험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는 이 가르침이 지혜로운 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붙들려 왔고 받아들여졌다고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다스릴 뿐 아니라 나라와 지역들을 다스리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아무 이방인도 그들 가운데를 지나가지 않은 채, 곧 아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두신 것을 빼앗지 않은 채 평화롭게 그것을 누렸다고 덧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뛰어난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은사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악하다면, 그 모욕은 죽을 피조물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펼치시는 대로 그분은 그것이 우리에게도 받아들여져서 그 유익이 공동의 것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나라와 지역을 다스린 자들의 권위를 내세울 때 그에게는 얼마간의 빛깔과 그럴듯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함은, 사람들의 권위를 신뢰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잘 받으라고 명하시고, 우리에게 하는 말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반대하는 정신을 가지지 말고 순종하기 어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사람들의 권위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와서 진리를 뒤엎고 그것을 거짓으로 바꿀 때, 그때 완전히 그들에게 머무는 것은 엉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점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나쁜 극단이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모든 지식과 모든 분별을 물리칠 때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위로 높이시고 그분의 성령을 더 풍성하게 나누어 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업신여긴다면, (우리가 이미 밝힌 대로) 하나님께 모욕을 끼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사람의 조언이나 의견에도 결코 복종하려 하지 않는 경솔한 자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곧 어떤 사람이 박식하고 큰 지각이 있으며 경험이 많다고 우리가 품은 견해에 사로잡힌 뒤에, 우리가 거기서 짐승처럼 되어 더 이상 분별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CO 733 늘 그분의 권리를 남겨 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 한 분께만, 그렇습니다, 구원의 가르침에 관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규례와 질서가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모든 것이 그분께 관련되고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여기 결정된 요점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가르침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런 주인 됨을 돌릴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권위와 우위를 벗겨 내는 것 말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 극단도 다른 극단과 마찬가지로 정죄받아야 합니다. 이 두 악덕 사이의 중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존중하고 기꺼이

그들에게서 조언을 얻으며, 그분이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기를 원하시니 그들을 업신여기면 하나님께 모욕을 끼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분별하기를 그치지 말아서, 우리가 죽을 사람에 대해 품은 어떤 견해를 핑계로 꾀임을 당하지 않고, 그것으로 바른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며,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우위에서 밀려나지 않으시게 해야 합니다. 이 요점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에게서 배운 것을 숨기지 않았다고 덧붙입니다. 그것으로 그는 그들이 충실하게 처신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가르침받는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은 앎으로 이끌리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모두에게 함께 나누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가르치시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곧 우리가 우리 이웃이 무지한 것을 볼 때 그들을 우리가 이미 앞서 나아간 같은 길로 우리와 함께 이끌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안 사람은 마치 그것이 자기만을 위한 것처럼 그것을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는 그의 이웃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들이 아직 멀리 있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초대하며 그가 안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해나 손실을 끼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얼마간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려 하면 곧 그 끝을 보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그분의 영도 우리에게 넓혀 주셨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 편에서 부요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가 잘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자들이 그들의 CO 734 조상에게서 배운

것을 숨기지 않았다고 말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아브라함에게 주신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가 그가 받은 증언을 잘, 그리고 충실하게 쓰리라는 것을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은 그의 집과 그의 뒤에 올 자들을 가르치려 애쓸 것이고, 그들에게 주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보여 줄 것이다"(창 18:19)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 주시고 그분의 진리를 가르치는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은 각자 그것을 자기에게 붙들어 두어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아무 몫도 없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한 온 세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 책임 아래 두지 않으신 자들에게도 매여 있다면, 한 집안의 가장은 종들과 자녀들에 대해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이 직분에 임명된 하나님 말씀의 일꾼은 어떻겠습니까? 칼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백성을 다스리는 위정자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내도 자녀도 종도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 그것이 모두의 덕을 세우도록 나누어 지게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더구나 사람이 살림을 가졌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고 그가 셈을 치러야 할 자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데 그만큼 더 깨어 있고 그만큼 더 마음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도록 목사로 세워진 자들은 거기에 그들의 모든 힘과 능력을 쏟아야 하고, 전체적으로도 개별적으로도 그들이 받은 것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모든 사람의 피에서 깨끗하다고, 곧 그가 집집마다, 그리고 공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충실하게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으리라고 보여 주는 대로입니다(행 20:20, 26–27). 위정자도 그의 편에서 자기를 돌아보아, 그의 무관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두신 빛을끄지 말고, 그가 할 수 있는 한 의가 다스리고 제 길을 가며, 하나님께서 공경받으시고, 진리가

받아들여지며, 거짓과 참된 신앙에 반대되는 모든 것이 폐지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이방인도 그 가운데를 지나가지 않은 채 땅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위로부터 뛰어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의 손에 맡겨진 통치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표시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에 충분할 수 있는 피조물의 재주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그가 말하는 자들이 평화롭게 CO 735 다스렸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에게 복종하는 백성을 이끌어 그들의 영지가 평화롭게 남아 있었다고 말할 때,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지키시고 평화로운 나라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죽을 사람들에게 돌려서는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일깨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시려고 쓰신 사람들을 공경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분께 마땅한 찬양을 돌리기 위해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언급한 이 가장 중요한 조항으로 가 봅시다. 엘리바스는 악인이 날마다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 같고, 결코 안식이 없으며, 끊임없는 고통 속에 있고, 늘 칼을 바라보며, 자기 날의 수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에서 그것을 어기는 자들을 거슬러 이 위협을 쓰십니다. 곧 그분이 그들에게 그런 두려움을 보내셔서 그들의 생명이 그들 앞에 실에 매달린 듯하고, 그들의 눈이 꺼지며, 그들이 그런 근심 속에 있어서 아침에는 “누가 나를 저녁까지 이끌 수 있겠는가?” 하고, 밤이 오면 “어떻게 아침까지 이를 수 있겠는가?” 하리라는 것입니다(신 28:65–67).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따라 순결하게 행하지 않은 자들을 벌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의 순결함은 무엇입니

까?[157] 우리가 안식 가운데 있고 근심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보호 아래 두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잘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불과 물을 지나갈 수 있으리라는 것, 곧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든 늘 좋고 굳은 버팀목을 가지리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더욱이 그분이 우리를 거스르시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거슬러 이 위협을 쓰시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의 말, 곧 악인에게는 떨림밖에 없다는 말은 아주 참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악인들의 생각을 서로 부딪치는 파도에 견주는 대로입니다(사 57:20). 폭풍이 있을 때 물이 일렁이고, 파도가 와서 서로 들이받고 부서집니다. 하나님께 도움받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그를 휩쓸고 괴롭히는 격정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많은 격정이 있어서, 그는 거기서 완전히 혼란스러울 만큼 곤혹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그런 불안 속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구하지 않은 모든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정당한 복수라는 것을 압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CO 736 선하고 순결한 양심으로 행할 때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그분의 자비만 말고는 서 있을 다른 기초가 없다는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분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 때, 그리고 그것을 두고 그분이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그분께로 받아 모으시기를 기뻐하시니 삶과 죽음 가운데 우리가 복되다는 것을 알면서 그분을 부를 때입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가질 것입니다. 곧 그들이 그들 죄의 사함을 확신한 뒤에 하나님을 부르고, 그러는 동안 그분께 순종하며 행하고, 그들의 이웃과

157. 원문의 'la pureté de nostre vie' (우리 삶의 순결함)를 전자텍스트대로 옮겼습니다. 이어지는 안전과 안식의 문맥상 이 낱말의 판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선하고 순결한 양심을 가지려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은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부르는 기쁨과 결합되어 있습니다(롬 14:17). 곧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설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화평이 영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이 말을 씁니다. 악인들도 때로는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은 날뛰고, 모든 일이 그들에게 잘될 때웃고 즐기기만 할 것이며, 자기를 너무 잊어서 자기 악을 느끼지 못하고둔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별 유익이 없는 화평으로 그들을 채우십니다. 그러면 그 화평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되고 축복받은 참된 화평은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가까이 가며, 그러는 동안 우리가 안식 가운데 있으면서 그분이 우리를 받아 주시고 그분의 것으로 붙들고 인정하시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삶과 죽음 가운데 우리가 늘 그분께 인도받으리라는 것을 아는 때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자주 그런 어지러움 속에 있어서 그들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겨우 분별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안식에 두십니다. 그분이 그들을 이렇게 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알게 하셔서, 그들이 자신을 낮추고 그분을 부르며 온전히 그분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기를 배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분은 때때로 이렇게 우리를 찌르고 몰아붙이셔서, 우리가 그만큼 더 큰 열심으로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를 구하게 하시며, 우리가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 근심을 그분의 품에 맡기고 거기서 온전히 쉬며 우리의 모든 만족과 기쁨을 얻는 것밖에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믿는 사람들도 두려움과 떨림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분이 그분의 백성에게 흔히 주시는 이 화평이 어떠한지 그들에게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더라도 마침내

CO 737 어쨌든 그들은 늘 기뻐할 것입니다. 시편에서 "주여, 내 영혼의 괴로움대로 주께서 나를 기쁘게 하셨습니다"(시 94:19)라고 말하는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꽉 가두어 두시겠지만, 마침내 우리를 넓은 곳에 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가 덧붙이는 것, 곧 포악한 자, 폭력으로 가득한 자가 자기 해의 수를 알지 못하리라는 것도 이렇게 풀이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다윗이 하는 간구를 듣습니다. "(적어도) 내 때가 언제인지 내게 보여 주옵소서. 그 고난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때 내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입니다"(시 39:4).[158] 우리는 욥도 같은 간구를 하여, 자기 시간의 수가 얼마인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 얼마나 오래 두려 하시는지 모른다고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바스는 이것을 특별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 교만과 포악으로 가득한 자들에게 돌립니까? 그들이 근심 속에 있고 그들의 삶을 싫증 내는데, 그러는 동안 그들이 그 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확실한 기한을 가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 지키기를 기뻐하시는 동안 거기 있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거기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분께 그분이 좋게 여기실 때 우리를 거기 두시든지 거기서 거두시든지 하실 자유를 남겨 드려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그분이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을 듣습니다. 곧 그분이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세어져 있으며(마 10:30), 우리가 많은 위험에 둘러싸여 있더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들이 뒤섞여 있고 운수가 거기서 다스린다고 여겨서는 안

158. 원문에는 시편 39편 5절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1절로 세는 프랑스어 성경의 절수이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됩니다. 우리가 가엾은 땅벌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 생명을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시며, 그것을 잘, 그리고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호를 알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해와 날을 세셨고 더욱이 우리 머리털까지 세셨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것이 충분히 큰 확신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포악한 자들이 그들 날의 수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큰 괴로움으로 캐묻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아직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을 확신하는가?"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모든 긴 논쟁과 큰 궁리를 한 뒤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기대지 않으므로 늘 끊임없는 불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영혼을 그분께 맡긴 뒤에, 어떤 어지러움이 CO 738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더라도 평온하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으셨으니,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로 나타나려 하실 때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건지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우리가 잠든 동안 그분이 깨어 계시리라는 결론을 내립시다. 엘리바스가 덧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포악한 사람이 늘 칼을 바라본다는 것, 다시 말해 그가 그를 둘러싼 무한한 위험을 보고 그것을 두고 떨며 겁에 질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폭군들에게 맞습니다. 그들의 처지가 행복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서 너무 어지러워서, 영예를 받고 두려움을 사는 것보다 작고 낮은 처지에 있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나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그들은 사람들뿐 아니라 나무에서 흔들리는 잎사귀 하나까지도 두려워합니다. 더욱이 그것을 고백한 폭군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박수를 치고 그에게 그런 권위를 돌려서 그가 이 세상의

신인 것처럼 보이고 누구나 그의 처지를 바랐을 때였습니다. 그는 "네가 나와 같아서 내가 아는 것을 안다면, 너는 내 처지를 네 처지와 바꾸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두고 그는 멋진 잔치를 준비하게 하고, 그의 가장 가까운 자 가운데 한 사람을 거기 앉히고, 그의 머리 위에 칼끝으로 그를 위협하는 칼을 매달아 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있는 위험을 보고 마시지도 먹지도 못했고, 그가 전에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화려함은 그때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159] 그리고 이것이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입니다. 곧 폭군들과 잔인한 자들은 그들이 아주 편안하고 큰 힘과 물자를 가진 것처럼 보여도 늘 떨고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늘 그들 눈앞에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위협하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것을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우리가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를 무시하고 고삐 풀린 말처럼 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 가지 죽음에 에워싸여 있고, 무덤에 떨어지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시고 알려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들었을 때, 그리고 그러는 동안 우리가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그토록 많은 가난과 그토록 많은 병과 짐승과 다른 것들의 그토록 많은 다른 탈을 보고, 우리가 하늘과 땅에서 보는 피조물만큼 그만큼의 죽음이, 혹은 우리를 거스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압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비참한 피조물이다." 그 밖에, 우리는 그분께 피하도록 재촉받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내가 주의 손 아래 지켜지지 않으면 CO 739 한순간도 살 수 없으리라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를 보존해 주시기를 기뻐하옵소서." 이처럼 믿는 사람들

159. 시라쿠사의 폭군 디오니시오스와 그의 신하 다모클레스에 대한 이야기로, 키케로가 전합니다.

은 칼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들이 있는 위험을 깨우쳐 주었을 때, 그들은 성경에서 그토록 자주 우리에게 보여 주는 이 안전에 피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둘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에서 말하는 대로) 성벽과 이중 성곽일 뿐 아니라 (사 26:1) 놋이나 쇠로 된 성벽, 요컨대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가 되시리라는 것입니다(렘 15:20). 이처럼 믿는 사람들은 칼을 바라본 뒤에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 보호를 바라봅니다. 죽음이 사방에서 그들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여도 칼이 그들에게까지 이르지 않으리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거기 이를 때에도 흔히 말하듯 그들은 넘어져도 발로 서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 말입니다.[160] 그러나 악인들은 그들의 삯으로 이런 두려움을 가질 것입니다. 곧 그들이 칼을 바라볼 때 그것은 "여기 이러저러한 위험이 있다, 여기 이러저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것을 대비할 방법이 없겠는가?" 하고 살피려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쪽에서 그들을 핍박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거슬러 던지실 화살을 준비해 두시고, 그분의 활을 당기시며, 그렇습니다, 그들을 삼키실 벼락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두고 그들이 큰 어지러움과 큰 괴로움 속에 있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과 믿지 않는 자들의 어지러움과 공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봅니다.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칼을 보고 그것을 두고 겁에 질리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에 이르기 위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낮추라고 일깨우시고, 그다음에 그들을 그분께로 거두시며, 그들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 잠시 동안 빼앗겼던 이 안식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엘리바스의 이 명제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160. 원문의 'ils ne tomberont que debout' (넘어져도 발로 선다)는 쓰러지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의 관용 비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알았을 때, 그때 우리는 이 가르침을 우리 가르침과 구원에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먼저 우리는 사람들의 처지가 어떠한지 봅니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겁에 질려야 하고 늘 안식을 가지지 못하며 오히려 불안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살아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는 동안 각자 길을 잃고 각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며, 그러면 악이 자라고 두 배가 되어서, 두려움이 커지고 우리를 겁나게 하도록 훨씬 더 무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전쟁을 걸었으니, 그분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조차 우리를 거슬러 무장하는 것이 아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악을 볼 때 처방에 이르러야 합니다. 곧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려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더욱이 CO 740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찾으러 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앞질러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우리 생명을 그분의 손에 잘 맡길 수 있고 그분이 그것의 좋고 충실한 수호자가 되시리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 때, 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책임과 직분을 맡으심으로써, 우리가 모든 위험에서 면제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선을 베푸시리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땅의 낙원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언짢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은 많은 어지러움과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것, 곧 그분이 그들을 생각하시고 깨어 계셔서 탈을 미리 막으시고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물리치시며, 그들이 그것으로 흐트러지고 분수를 넘어 어지러워지지 않도록 그 사이에 서 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신다는 것을 알 때만큼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물러나시며 숨으셔서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분의 보호를 확신할 수 없더라도,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고 그분이 그분의 얼굴을 보여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확신하게 해 주시기를 그분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우리가 보는 대로 다윗이 그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주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이 풍성한 것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시 4:6) 하고 말합니다.[161]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정신을 잃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탄과 악인들에게 고삐를 풀어 주신 것처럼 보이며, 더욱이 그가 그의 영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위로부터의 도움이 더 이상 없을 때, "주여, 나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시는 것밖에 구하지 않습니다." 곧 "주께서 나를 받아 주셨다는 것을 알도록 내게 주의 선하심을 조금 맛보게 해 주시기만을 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이 우리에게 품으신 사랑을 알지 못하게 막는 이 크고 짙은 구름을 걷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 밖에, 우리가 악인들이 이렇게 어지러움과 불안 속에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우리를 굴레에 붙들어 두게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수를 멀리서 악인들 위에서 바라볼 때 그것에서 유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셔서 우리 머리를 세게 치실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아끼시고, 그러는 동안 우리가 그분이 그분을 업신여기고 그분의 멍에를 물리친 자들을 벌하시는 것을 본다면, 그것이 우리를 두려움과 조심 속에 붙들어 두어서 이렇게 말하게 합시다. "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거슬러 교만과 거만으로 일어난 이 가엾고 불행한 자들을 본다. 그들은 어떤 삯을 받는가? 우리는 그들을 고문하는 데 사형 집행인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본다. 그러면 누가 그들을 괴롭히는가? 그들을 이렇게 핍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CO 741 그러므로 그것으로 우리가 깨어나고 붙들려서 한계 밖으로 우리 자신을 내

161. 원문에는 시편 4편 7절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1절로 세는 프랑스어 성경의 절수이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던지지 않게 합시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또한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는 선이요 보화인 이 화평을 구하는 데 그만큼 더 힘쓰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기억에 되살리면서 그것을 그만큼 더 부지런히 구합시다. 그는 "모든 사람의 깨달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빌 4:7) 하고 말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호를 확신하여,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친자녀로 받아 주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께 피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는 이 평강이 모든 사람의 지각을 넘어선다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그분이 우리를 거기까지 이르게 하시려면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하는 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우리는 결론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곧 두려운 소리가 늘 악인들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의 귀에 울리고, 더욱이 그들이 평안할 때 약탈자가 그들에게 덮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바스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악인들이 형통할 때 그들이 기다리지 않던 폭풍처럼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 위에 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대로입니다. 곧 그들이 평안과 안전을 말하며 하나님을 거슬러 넘쳐흐르고 그 모든 위협을 조롱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할 때 그들을 짓누르시리라는 것입니다(살전 5:3). 악인은 그가 두려워한 것을 느끼리라는 성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잠 10:24). 그러나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갑자기 멸절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엘리바스가 뜻한 것입니다. 곧 화평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 위에 약탈과 강탈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늘 놀라게 하고 고문대에 매달아 둔 것처럼 붙들이 두려운 소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소리도 짐승의 소리도 아니라, 어디에나 고요가 있고 아무 외침도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낮은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CO 742 그것이 그들을 핍박해야 할 것이고, 그들은 몸서리치며 거기서 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인에게서 그 예를 보는 대로입니다. 여기 아무 안식도 없는 가인이 있습니다. 누가 그를 핍박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송을 진행할 재판관을 그에게 정해 주지 않으시고, 그에게는 상대편이 없습니다. 아벨의 피가 복수를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 관해서는 그는 안전하고 개선 행진을 하며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창 4:17) 누구나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무의 잎사귀처럼 떱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이 감추어진 소리, 들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두렵게 하는 울림이어서,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도 늘 정신을 잃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분의 선하심과 아버지의 사랑의 소식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그 부드럽고 다정한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해 주시기를 그분께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여기 악인들이 정신을 잃는 이 공포와 놀람에서 우리가 건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분은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들이시고, 삶과 죽음 가운데 늘 우리를 그분의 손에 붙드시리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소리가 우리 귀에 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들을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처럼 이런 낮고 눈먼 공포에 놀라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두려움에 맞서 확신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의 약속에 기대는 은혜를 베푸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넓혀 주실 모든 선 가운데 우리를 점점 더 굳게 세우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안식에 거두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늘 굳게 머물게 하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60편

욥기 15장 설교 4

CO 33:743–754

> 그는 빵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어둠의 날이 자기 손에 있는 줄 아네. 괴로움이 그를 놀라게 하고 그를 이기니, 싸울 채비를 한 왕과 같네. 그가 하나님을 거슬러 손을 들고, 전능자를 거슬러 스스로 강해졌기 때문이네. 그분이 그의 목에 덤벼들어, 그의 방패의 가장 두꺼운 곳으로 그를 조이실 것이네. 그가 기름으로 얼굴을 덮고, 그 창자를 살찌웠네. 그는 황폐한 성읍과 흩어진 집, 무너진 곳에 살았네. 그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의 재물은 굳게 서지 못하며, 남는 것이 없을 것이네. (욥 15:23–29)

CO 743 우리는 어제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은 가난과 위험에 매여 있는지 보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려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 안식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늘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불안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전하시는 평화의 소식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겁에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162 그리고 그것은 그런 선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자의 배은망덕에 내리는 정당한 벌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으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하려 하신다고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삼켜지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분은 그분의 자비로 우리와 화해하시기만을 구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보호

162. 원문에는 'quand nous daignons escouter' (우리가 들으려 할 때)로 되어 있으나, 1563년초판(328쪽)의 'quand nous ne daignons escouter' 에 따라 빠진 부정어를 살려 '들으려 하지 않으면' 으로 옮겼습니다.

아래 두시고 우리 생명의 수호자가 되려 하신다고 덧붙이십니다. 이 영예와 이 특권을 물리친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넘겨지고, 사람들에게 어지럽힘을 당할 뿐 아니라 아무도 우리를 핍박하지 않는데도 떨며 두려움 속에 있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대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에 머물기를 배워서, 우리가 여기 아래에서 위험 한가운데서도 안전과 안식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합시다.

그런데 이제 엘리바스는 악인이 빵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며 어둠의 날이 자기 손에 있는 줄 안다고 덧붙입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마치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아무리 부유해도 그들을 가난하게 하셔서 그들이 구걸해야 하리라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이 저주가 율법에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는 시편에서 하는 말도 듣습니다. 곧 의인은 결코 버림받지 않고 그의 자손도 그렇지 않으며(시 37:25), CO744 하나님께서 기근의 때에 그분의 백성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시 37:19). 하나님께서 그분의 믿는 사람들을 돌보셔서 그들이 궁핍할 때 그분께 도움을 받게 하신다면, 반대로 그분이 악인들의 손에서 재물을 거두신다고 해서 우리가 낯설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것에 취하고 그것을 그들의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의 부자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들만을 위해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굶주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들을 벗기시고 헐벗게 하셔서, 그들이 전에는 배 터지도록 풍성하게 가졌는데도 구걸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엘리바스는 그 이상을 말하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떨어지는 궁핍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재물 한가운데서도 근심 속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처럼 되고 "자, 내가 모자랄 수 있다" 하고 살피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보는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고, 그들의 곡간과 창고가 가득하며, 그들이 밀과 포도주를

살 것을 가지고, 그들 자신을 위한 비축이 있어도, 그래도 그들은 땅이 그들에게 모자랄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때로 그들은 온 세상이 굶어 죽어도 자기는 너무 많이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자, 내 영혼아, 기뻐하라, 편히 쉬어라, 마음껏 즐겨라. 내가 여기 남을 만큼 재물이 있다"(눅 12:19) 하고 말한 그 부자의 예를 보여 주시는 대로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그들의 풍성함을 잘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러는 동안 그들이 여전히 의심 속에 있지 않고 "자, 내가 이러저러한 탈에 떨어질 수 있고, 그것이 내게 일어날 수 있다" 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요컨대 (우리가 이미 언급한 대로) 그들은 채울 수 없는 소용돌이입니다. 그들이 온 세상을 가진다 해도 그것은 그들에게 아직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바스가 악인들이 빵을 찾아 헤매리라고 말하면서 뜻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는 대로입니다. 여기 아주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작은 손실이 생기면 그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그가 꾀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안식이 없고, 시들어 가며 더할 나위 없이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가 그의 계획을 이루면, 그는 더 얻으려고 새 돈을 가져야 할 것이고, 아까워하지 않고는 한 입도 감히 먹지 못할 것입니다. 적어도 그가 배의 반만 채워 먹을 때, 그는 CO 745 먹는 자들을 시기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꾀한 것을 하려고 아껴 모을 때까지 그는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반쯤 되는 백성을 먹일 만큼 가졌는데도) 자기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빵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반대의 복수로 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소경 이상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위에 주목할 만하고 기억할 만한 복수를 행하신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결코 안식을 가지지 않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아까워하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목 조르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는 자들을 잔인하다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을 할 자유를 주지 않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보다 백 배를 가졌는데도 그 절반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눈멀게 하셨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악덕은 언제나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여기서 악인들이 빵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리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놓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이 어둠의 날이 그들 손에 있는 줄 알리라고 덧붙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어둠의 날이 가깝다는 뜻으로, 혹은 고난이 그들 손에 있다는 뜻으로, 곧 하나님께서 그들이 받아 마땅한 삯을 그들에게 돌려 주시리라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넉넉함 한가운데서 그들이 이렇게 굶주리고, 그분이 그들을 재물로 채우셨는데도 그들이 감히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어디서 옵니까? 그들은 그들의 잔인함과 약탈과 그들이 그들의 이웃에게 행한 사기 때문에 벌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 그 까닭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엾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남의 재산을 자기에게로 끌어오며 할 수 있는 만큼 빼앗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들 손에 있는 어둠이 있습니다. 곧 그들이 견디는 모든 고통은 그들이 이렇게 가엾은 사람들에게 폭정을 행하고 그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뜻은 그들이 어둠의 날이 그들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무엇을 하고 애쓰든, 그들이 부유하고 능력 있더라도,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실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자들이 하는 모든 것은 결코 모자라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별이 있다면 그들이 가진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멀게 하셔서 그들이 너무 미쳐서 그들이

가진 재물이 그들에게 충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두고 그들은 CO 746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꾸미고, 그들의 일을 대비할 수 있을지 시도해 보며, 한쪽에서 이루지 못하면 말머리를 돌립니다. 그러므로 탐욕스러운 자들은 손을 놀리지 않고, 그들의 계획을 이루기 전에 오히려 세상을 뒤흔들려 듭니다. 흔히 말하듯 그들은 늘 새 일을 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그들은 그들 손에 있는 어둠을 봅니다. 곧 그들이 대비하려고 애쓰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썼을 때에도, 그들은 그들이 늘 고난 속에 있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그 선을 빼앗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고(가엾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괴로움 속에서만 감히 빵을 먹는데도 그것으로 아무것도 진척시키지 못하는 동안), 그들은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손이 하는 일에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시 127:2). 그러므로 우리는 반대로 여기 놓인 것, 곧 악인들이 그들의 수고에서 아무리 애써 봐야 소용없으리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손이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의 모든 수고가 버림받았고, 그들은 (이를 악물고서라도) 고난이 그들 위에 놓여 있고 그들이 그것을 벗어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아주 주목할 만한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재물의 풍성함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밀과 포도주와 돈이 넉넉할 때 편안하고 안식 가운데 있으리라고 셈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는 그 거리를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든 행복의 극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믿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대로 세상의 대부분이 휩쓸리고 사로잡힌 이 미친 탐욕에 우리 자신을 바치지 않기를 배웁시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뒤에,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를 먹이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시기를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으며, 그분께 우리 일용할 빵을 구하고, 불법적인 수단을 꾀하지 말고, 약탈과 폭력과 사기와 비슷한 것들을 삼가며,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대로 먹여지기를 구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분이 우리 손의 수고에 복을 주셔서, 일들이 거기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오히려 그분이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게, 곧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결말을 주실 때 우리가 그분의 은총과 선하심을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일하는 자들이 정직하게 그들의 삶을 벌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충분한 거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셨고 그분의 은총이 그들을 인도하는 CO 747 등불과 같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때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뒤로 물러난다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붙잡고 그분께 피하여, 우리가 이렇게 그들 손에 그토록 많은 어둠을 보는 자들의 반열에 들도록 허락하지 마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수단을 주셨을 때 그것을 번성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요컨대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거슬러 그의 손을 들고 전능자를 거슬러 스스로 강해졌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목을 잡으시고, 그의 갑옷의 가장 강하고 가장 두꺼운 곳으로 그를 붙드실 것이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왜 악인들 위에 두려움을 보내시고, 왜 그들을 괴롭히시며, 또한 그들의 모든 기대를 꺾으시고 그들을 그들의 의도와 완전히 거꾸로 두시는지 그 이유가 덧붙여집니다. 곧 그들이 그분을 거슬러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을 사람이 하나님께 전쟁을 걸 생각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은 사실입니다. 악인들이 자기가 전능자를 거슬러 일어나려

했다고 고백하기는커녕 그 말을 몸서리치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쟁을 걸 때 그분께 도전하려고 나팔을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우리 이웃을 괴롭히고 사기와 약탈을 쓴다면, 여기 하나님께서 그것에 맞서십니다. 우리가 피조물이 아니라 그분을 거슬러 전쟁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듯 그렇게 넘쳐흐를 만큼 미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하나님께서 포악한 자들의 원수로 자신을 선언하신다"는 것을 살핀다면, 우리가 이렇게 와서 그분을 거슬러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묻건대) 우리가 포악을 행할 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덤비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아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일은 그러합니다. 여기서 궤변을 쓸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전쟁을 건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전령을 통해 나팔로 그분께 최후통첩을 보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을 주제넘게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이상을 우리 자신에게 돌릴 만큼 교만하다면, 우리가 그분께 와서 들이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엾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목을 밟으려 애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분수를 넘어 일어날 때, 그것은 우리가 드러내 놓고 하나님을 성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을 거슬러 일어난 자들의 목을 덮치시리라고 말할 때, 이 명제는 기억할 만합니다. 특별히 그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그들의 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비유가 싸우는 자들에게서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는 동안 이 말은 더 멀리까지 미칩니다. 엘리바스는 CO 748 사람들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꾀하고 어떤 포악과 모욕을 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웃을 위해 그들의 상대편이 되시리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방법으로 그들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면 어떤 사기와 악의로 진행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그것

을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그 안에서 은밀히 악한 감정을 길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원수로 모시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의가 밖으로 드러날 때 그들은 그만큼 더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재산을 약탈하는 자는, 그가 저지르는 불의가 사람들에게 변명될 수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인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감추지 않은 악인들에게 이렇게 복수하신다고 해서 낯설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온통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덤벼들어 이 사람을 먹어 치우고 저 사람을 할퀴며 많은 착취와 잔인함을 행했을 때, 그때가 아니면 언제 하나님께서 앞질러 오셔야 하겠습니까? 그분이 부당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가엾은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복수를 외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엾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 내버려 두시고 아무 바로잡음도 하려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 가운데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의지해야 합니다. 곧 아직 알맞은 때가 아니라는 것, 그분은 왜 미루시는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셔서 그들을 그만큼 더 핑계할 수 없게 하시려는 것일 뿐이라 해도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짓눌린 가엾은 사람들을 재촉하셔서, 그분을 부르고 그분께 피하며 온전히 그분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것이 그들의 구원에 좋고 유익하다는 것을 아실 때 그들이 그분께 도움받고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신 뒤에 일하시는 것을 볼 때, 그분의 심판을 알아보려고 눈을 떠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둔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그는 그들이 전능자를 거슬러 스스로 강해졌다고 덧

붙입니다. 그가 그들이 스스로 강해졌다고 말할 때, 그는 그들이 완고해졌다는 뜻으로 말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날 힘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땅과 바다를 돌아다니고 찾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모을 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스스로 강해지겠습니까? 거짓 상상으로입니다. 곧 사람들이 너무 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흔히 말하듯 그들이 그런 직접적인공상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CO749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를 끼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함은,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지금처럼 악에 완고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고 그들을 되돌리려 애쓸 때 그토록 고집을 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교만과 반역은 그들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거스를 때 그것을 물리칠 만큼 충분히 강하고 억세다고 생각한다는 확실한 증언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스스로 강해졌다는 이 말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실제로가 아니라(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적인 교만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더 이상 재판관을 견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요컨대 그들이 그분 앞에서 셈을 치르도록 하나님께 더 이상 복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그들은 마치 모든 것이 그들에게 허락된 것처럼 온갖 악에 자신을 바칠 그만큼 더 큰 대담함을 취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엘리바스는 이 자리의 정황에 따라 하나님께 전능자라는 칭호를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엘리바스는 악인들이 이렇게 스스로 강해질 때 그들에게 있는 이 교만을 조롱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인가? 너희는 누구를 상대하려 하느냐? 그분은 전능자이시다. 그렇다, 그러면 너희 힘은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가 피조물과 싸운다면 누가 더 강한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전쟁을 거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가까이 가기도 전에 수치

를 당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분에게서 오는 것 말고는 힘이 없다. 그렇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그분께 빌리고 나서 그것을 그분을 거슬러 돌리겠느냐? 그리고 너희는 그분이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능력이 그분의 위엄을 조금이라도 깎아내리도록 허락하시리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너희를 수치스럽게 하는 데 그분께 쓰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 때문에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강해진 사람들을 나무랄 때 특별히 여기에 전능자라는 이 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좋고 유익한 가르침을 거두어야 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 전쟁을 걸고 싶지 않다면,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잘못하지 않으면서 우리 이웃과 함께 살아, 모든 악행과 모든 모욕을 삼가도록 잘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재산을 약탈하고 이 사람을 괴롭히며 저 사람을 먹어 치우려고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이자마자,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거시도록 우리에게 재촉받으신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그분의 보호 아래 두신 자들에게 온갖 악을 꾸몄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의 군주들이 어떤 집에 그들의 보호를 두었을 때 누가 거기 가서 어떤 폭력을 행하면, 그것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그들이 복수하는 공적인 범죄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덜 특별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분은 모든 가엾은 사람들 위에 그분의 문장을 두셨습니다. 그분이 그들을 그분의 돌봄과 CO 750 보호 아래 두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고난을 준다면 그분이 그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웃을 거슬러 아무 지나침도 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굴레에 붙들어 두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그 밖에, 여기서 말하는 이 광기도 조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강하고 억세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정말 미친 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겸손 가운데 행하도록 힘씁시다. 우리 본성의 연약함도 알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것이 우리를 우리 한계

안에 붙들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알면서, 길 잃은 짐승처럼 들판을 가로질러 뛰어다니지 않고 단순히 우리 길을 가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것을 하려고 주제넘게 굴 때, 그것을 단순한 불순종으로 여기겠습니까? 그것은 마귀적인 것 이상의 광포함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을 단순히 따르도록 모든 교만과 주제넘음에서 풀려나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 이 헛된 공상의 시험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을 억누르도록 이 전능자라는 말을 잘 주목합시다. "어떻게 된 일인가? 가엾은 피조물아, 너는 무엇을 하려느냐? 너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너는 여기서 네 악 속에서 스스로 강해진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그분이 너를 거슬러 일어나실 것이고, 그분이 너를 거스르시는 죽음의 원수이심을 네가 느껴야 하리라고 선언하신다. 그러므로 너를 완전히 짓누르고 파멸에 두실 그분의 강한 손을 느끼고 싶지 않다면 너 자신을 억눌러라." (제가 말하는 대로)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엘리바스가 덧붙이는 것을 들어 봅시다. 곧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목을 덮치시리라는 것, 그들이 아무리 무장해도, 투구와 방패를 가졌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장비의 가장 두꺼운 곳으로 그들을 붙잡으러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목을 덮치신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들이 벗어날 수 없도록 붙잡히리라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극한과 괴로움 속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은 그의 목을 잡고 있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악인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며, 그분이 그들을 막대기로 때리시거나 그들에게 몇 대의 따귀만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목 조르시려고 목을 잡으시리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들의 이웃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그들의

목을 밟고 있었다는 것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의 징계를 쓰셔서는 안 되고, 극한의 수치로 그들을 공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그들이 잘 무장했으므로 그들의 물자를 신뢰하고 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시지 못하도록 그분께 빗장을 걸려 하므로, 특별히 그분이 그들을 가장 두꺼운 곳으로 붙잡으시리라고 말합니다.

CO 751 그들이 아무리 그분께 맞서고 그분을 거슬러 무장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거슬러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방패와 갑옷을 가질 것이지만,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행하라는 일깨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벌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에게 무서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히 10:31). 우리가 죽을 사람을 상대한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협이 있자마자 우리가 완전히 꺾이고, 그것을 거슬러 독이 오를 만큼 마음이 그토록 단단하지 않게 합시다. 솔로몬은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다"(잠 16:14) 하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의 진노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진노의 소식을 보내실 때, 그것은 죽음이 우리에게 내놓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나 피조물 쪽에서 우리가 가질 모든 도움에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우리가 우리 일을 잘 대비했다고 생각할 때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피조물과 싸워야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전쟁을 거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때, 우리가 그분이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시고 그분의 뜻대로 처분하시는 것을 그분을 거슬러 쓰겠습니까? 우리가 한쪽으로 진군하리라고 생각할 때 그분은 그분이 좋게 여기시면 우리에게 말머리를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무장하면 우리 자신의 칼이 우리 목을 벨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러 군대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허무시려고 아무 준비도 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우리 자신이 우리 파멸의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든 물자와 여기 아래에서 우리가 가질 모든 수단을 신뢰하지 맙시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할 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악인들이 높여지고 (시편 73편이 말하는 대로[시 73:6–7]) 목이 부풀어서 그들의 부푼 목과 함께 터질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손을 대실 때까지 늘 인내로 기다립시다. 그분은 그들을 잘 조이실 줄 아셔서 그들의 모든 부풂이 바람으로 빠져나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인들이 그토록 많은 장비를 가져서 그들이 안전하고 아무 악도 그들에게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보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무시고 망하게 하시는 것을 막으리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들이 꽃피고 판을 치는 것을 보거나, 혹은 그들이 너무 떠받쳐지고 지원받아서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볼 때 겁에 질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셔야 합니다, 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기에 손을 대실 때, 그들이 피조물 쪽에서 아무리 도움과 CO 752 구원을 찾아 봐야 소용없을 것이고, 그들은 완전히 망하고 꺾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들은 악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데로 넘쳐흐르고, 더욱이 온갖 반역으로 독이 올라 있거나 끝까지 완고해져서 아무도 그들을 굽힐 수 없는 것을 볼 때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것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한 것은 성령께서 선언하시는 판결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곧 믿는 사람들이 온 겸손과 낮아짐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을 거슬러 아무것도 꾀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그들이 악인들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더욱이 그들 자신이 많은 모욕으로 짓눌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탄식하여 그분이 한번 선언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분을 부르고 온전히 그분께 피하는 것도 좋은 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괴로움이 악인을 사로잡아 싸울 준비가 된 왕처럼, 혹은둥글게 에워싸듯 그를 이기리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여기서 쓰는 말은 공, 구슬, 그리고 모든 둥근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투를 벌일 때 때로 형편에 따라 둥글게 진을 치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괴로움이 잘 무장한 왕과 같으리라는 뜻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들 위에 고난을 보내실 때 그분이 힘도 능력도 없는 원수 같지 않고 그의 원수를 망하게 할 만큼 병사가 충분한 군주와 같으시리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이 둥근 모양을 악인에게 관련시켜, 그가 사방에서 에워싸이리라는 뜻으로, 곧 그에게 아무 빠져나갈 곳이 없으리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실 때 그것은 그를 이쪽이나 저쪽에서 포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앞과 뒤, 오른쪽과 왼쪽에서 사방으로 그를 가두셔서 그에게 아무 출구도 없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알맞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주목합시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오래 기다리시고 아끼신 뒤에 그를 벌하려 하실 때, 그분은 곧 달래질정도로만 진노하여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와서 그를 사방에서 에워싸셔서 그가 결코 그분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명제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좋은 가르침을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일깨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에 짓눌릴 때 우리가 아무리 교묘한 재 주를 부려봐야 소용없고, 우리는 결코 그분이 우리를 붙잡으려 하신 괴로움에서, 그분이 우리를 복종시키신 고난에서 벗어날 만큼 유능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이를 악물고서라도 거기 남아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CO 753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장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입으로 분노를 쏟아 내면서 그러는 동안 손이 충분히 길지 않은 죽을 사람들과 같지 않으십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왕들과 군주들까지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노발대발할 수 있지만, 필요할 때 힘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늘 그분의 원수들을 이기실 충분히 큰 장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그분께 전쟁을 걸지 않도록 힘씁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모든 모욕과 악행을 삼갑시다. 우리가 고삐 풀린 말처럼 굴려 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분께 복종하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붙드실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마침내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그가 그의 눈을 살찌우고 그의 얼굴을 기름으로 채우며 그의 배를 채우고 그의 창자를 잘 살찌웠으며, 황폐한 성읍과 쓸쓸한 집에 살았으니, 그가 파멸에 빠지고 번성하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명제가 잘 이해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풀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악인은 황폐한 성읍에 살면서도 그의 배와 그의 온몸을 살찌웠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새롭게 할 것처럼 보이고, 그의 계획은 놀라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래도 모든 것이 쇠퇴할 것이다. 그가 한동안 멋진 겉모습을 가지더라도 그는 계속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엎으셔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자기 얼굴을 기름으로 채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아직 엘리바스의 의도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몸에 있을 기름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사람들이 형통할 때 교만으로 부풀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려 하실 때 자주 이 비유를 쓰십니다. 그것이 우리 연약함을 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름이 우리 눈을 멀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신 32:15).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것에 대한 흔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에 대해 말하려 할 때 ‘괴로움을

당한 자’ 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으로 우리를 길들이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모든 거만함과 대담함을 벗기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도, 온 성경에서처럼, 악인들이 살쪘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들이 단순히 몸에 기름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재물과 재산에서 그런 주제넘음을 얻어서 하나님을 거슬러 부풀어 있는 것 같고 독과 교만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몸에 관해서는 말랐더라도, 그들은 CO 754 하나님을 거슬러 부풀어 있는 한 저주받은 기름으로 터지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는 기름, 곧 그들이 가진 이 마귀적인 대담함이 그들의 눈을 밀어낼 것을 봅니다. 시편 73편에서 그것에 대해 말하는 대로, 그들은 그들의 쾌락과 즐거움에 눈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한순간에 그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므로 그들의 눈이 반쯤 터질 것입니다(시 73:7). (제가 말하는 대로) 이처럼 기름은 악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은 그들의 수치와 파멸에 이르도록 그것으로 터진 듯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명제로 가 봅시다.

엘리바스는 악인이 번성하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기름으로 부풀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참된 행복의 처지에 지켜지기를 원합니까? 기름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지 않도록 잘 조심합시다. 곧 교만으로 부풀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서 이것이나 저것을 하려고 아무것도 빼앗지 않도록 잘 조심합시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분이 우리를 높이셨을 때 그만큼 빨리 우리를 낮추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온 겸손 가운데 행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공경하도록 그만큼 더 재촉받게 하고, 우리가 바벨탑을 쌓으려 하고 그분을 거슬러 일어나기까지 주제넘게 굴어서 우리 편에서 그분이 세우신 것을 뒤엎고 그것을 파멸에 두실 기회를 그분께 드릴 만큼 불행하지 않게 합시다. 엘리바스는 악인들이 황폐한 성읍에 살았더라도, 곧 그들이 세상을 새롭게 하려는 것처럼 보일 만큼 판을 쳤더라도

그렇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황폐한 성읍에 산다는 것은 좋은 상태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람들이 세상의 새로운 창조자가 되고 혼란스러운 것들을 다시 세우려고 하나님과 싸우려 할 때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그 모든 것을 겉으로는 잘 가질 수 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나니 거기에는 아무 지속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무너지고 헐벗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황폐한 것들을 다시 세우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헛된 교만으로 진행하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서 아무것도 주제넘게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늘 그분의 성령으로 다스리셔서, 그분이 우리를 향해 그분의 거룩한 은혜를 보이기 시작하셨을 때 그것을 계속하시고 그 완전함에 이르게 해 주시기를 그분께 구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61편

욥기 15장 설교 5

CO 33:755–768

> 그는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며, 그는 자기 입의 숨결로 사라질 것이네. 헛됨에 속은 그는 서 있지 못할 것이니, 헛됨이 그의 바뀜이기 때문이네. 그는 때가 이르기 전에 소멸되고, 그의 가지는 꽃피지 못할 것이네. 그는 포도나무처럼 그 설익은 열매를 빼앗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올리브나무가 꽃을 떨어뜨리듯 그를 던지실 것이네. 위선자의 무리는 황폐해지고, 불이 뇌물의 집을 삼킬 것이네. 그는 괴로움을 잉태하고 헛됨을 낳으며, 그의 배는 속임을 준비하네. (욥 15:30–35)

CO 755 우리는 어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모든 것이 그들만을 위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이점을 주시며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이 그들의 처지를 지킬 뿐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그 끝은 저주받고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가 다시 덧붙이는 것이 이것입니다. 곧 악인은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이 견디는 고난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던져진 자들과 구별합니다. 우리도 어둠 속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거룩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그분의 빛을 거두셔서 그들이 더듬고 어느 쪽으로 돌아서야 할지 모른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 동안 시들어 간 뒤에 그들에게 출구를 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들을 건져 내십니다. 그런데 악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결코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없이

거기 짓눌려 남아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동안 괴롭히시고 도우려 하시는 자들과 구별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지를 삼키시리라고 말합니다. 곧 그들이 높아졌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멸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가지를 자녀와 후계자로 알아듣지 않고, 그들의 온 처지로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말 아래에는 나무에서 뻗어 나오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았을 때 많은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헛되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이 모든 것을 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태우는 불처럼 거기 있을 것이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야 할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는 악인이 자기 입의 숨결로 사라지리라고 덧붙입니다. 이것을 CO 756 하나님께 관련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김만으로 악인들을 소멸하시리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악인들과 그분의 원수들을 벌하시는 데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자들을 벌하시려고 무장하실 필요도 준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이 입을 여시고 그분의 원수들 위에 입김을 부시기만 하면, 그들은 삼켜지고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비추기를 기뻐하실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듯이(우리의 모든 구원이 거기 있고, 우리가 전에 죽은 것과 같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은총을 보이시자마자 우리는 회복되듯이), 반대로 그분이 악인들을 거슬러 그분의 진노를 선언하실 때에는 그분의 입이 열리기만 하면 그들을 멸망에 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다스렸을 때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소멸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인용한 대로(살

후 2:8; 사 11:4),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 다스리기를 원하실 때 그분의 모든 원수를 부수고 지치게 하시려고 쓰실 막대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뒤쫓으시거나 그들을 소멸하시려고 그분의 입을 여셨고 그분의 말씀이 그런 능력을 가져서 그들이 불행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 악인들이 결코 그들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들이 들어간 어둠에서 결코 건짐받지 못하리라는 뜻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자연스럽고 알맞은 뜻은 악인이 자기 입의 숨결로, 곧 입김처럼 사라지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또한 악인들이 아무리 이를 갈고 성을 내어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무시기를 그치지 않으시리라는 뜻으로 알아듣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교만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드리시고 그들 위에 손을 대시면 그들은 황소 같고 거품을 무는 멧돼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성을 내면서 크게 숨을 내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이 무엇을 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할 모든 반역과 저항이 그들을 구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 곧 악인들이 하나님께 아무리 대들고 거만함과 쓰라림으로 가득하더라도 그런 처방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리라는 가르침은 아주 참되고 알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제가 말한 뜻에 이르러야 합니다. CO 757 그것이 가장 알맞기 때문입니다. 곧 악인들이 그들의 숨결 속에서처럼 사라지리라는 것, 그들이 입을 열기만 하면 사라져 버리리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엘리바스는, 악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큰 겉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끝없이 머물러야 할 것처럼 보일 때, 그때가 그들의 바뀜이 되리라는 것, 그들이 숨을 쉬자마자 짓눌리리라는 것, 그것이 사람의 입에서 입김이 나오는 것과 같으리라는 것을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숨을 내쉬면 그것이 곧 흘러가 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영속하는 삶을 가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곧 사라지리라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숨결에 견주어지는 것이 까닭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물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됩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본성에 무슨 굳건함이 있습니까? 우리 생명은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의 생명은 입김과 같아서,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무너지고, 한숨만 내쉬어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여기서 말하는 이 연약함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실 때 우리는 위로받을 거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이 너무 덧없어서 그림자나 연기일 뿐이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위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 다 압시다. 곧 우리가 본성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매 순간 멸망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원수들과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품을 실컷 내뿜었을 때에는 한 숨결에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들어 가서 한숨 한 번 내쉬는 것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아무 겉모습도 없을 감추어진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분께 지켜질 것이고, 악인들이 소멸되러 가는 동안 우리는 살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헛됨에 속은 악인은 헛됨이 그의 바뀜이 될 것이므로 서 있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여러 방식으로 이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 있다' 로 옮기는 말이 '믿다' 로도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헛됨에 속은 악인이 헛됨이 그의 바뀜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리라는 뜻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 낱말에 대해 두 가지 읽기가 있어서, 우리가 '헛됨' 으로 읽는 곳에 '올곧음'

혹은 '확실함' 이 있습니다. 마치 CO 758 악인이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믿지 않으리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헛됨이 그의 바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널리 받아들여지고 흔한 읽기는 이렇게 헛됨에 속은 자가 서 있지 못하리라는 것, 혹은 헛됨이 그의 바뀜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믿다' 라는 이 말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 풀이를 따른다면 좋은 가르침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지각과 분별을 빼앗으셨을 때 그들은 결코 어떤 좋은 권고나 유익한 조언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고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도록 잘 지켜보아야 할 하나님의 벌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무엇이 우리에게 좋고 유익한지 알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둘레에 우리에게 좋은 조언을 주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애쓰며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너무 비뚤어져서 우리에게 하는 모든 말이 우리에게 자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깨달음을 빼앗으셨을 때, 그분은 그들 위에 그분의 복수를 더 보이시고 그들을 더할 나위 없이 핑계할 수 없게 하시려고,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경고하며 그들에게 선을 권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잠든 채 남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너는 일부러 멸망하고 싶으냐?" 하고 물으면 그들은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들의 구원에 대해 권고하고 "여기 길이 있다" 하고 보여 주면, 그들은 사람들이 그들을 초대하는 길로 가느니 차라리 목이 부러지고 그들을 위해 온통 마련된 구덩이에 빠지기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행하도록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그만큼 더 잘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그분이 우리 눈을 도려내셔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돌아서야 할지 모르고,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어디로 걸어가는 것이 좋은지 보여 주셔도 우리가 완전히 거꾸로 가야 한다면, 그것이 작은 일입니까? 여기 무서운 복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고집스럽고 하나님을 잘 시험하며 그분의 은혜를 물리친 자들이 마침내 그런 눈멂에 떨어져서 더 이상 분별하지 못하고 가르침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주 부패하고 비뚤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반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요 구원자로 자신을 선언하시고, 특히 우리가 죄로 가득한 것을 보시면서 그분의 아들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우리 구원의 보증을 주시고, 우리가 온갖 불의로 가득한데도 CO 75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만족을 이루셔서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수난으로 풀려났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설 수 있고 거기서 의롭고 죄 없는 자로 여겨진다고 선언하실 때, 묻건대, 우리가 완전히 짐승처럼 되지 않았다면 누가 불타는 바람으로 그것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업신여김받고, 더욱이 많은 사람이 그것을 거슬러 독이 올라서 가르침에 복종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그분의 보좌에서 끌어내리기를 바랄 것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선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그것을 받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버려지고 버림받은 지각에 맡겨질 때 (롬 1:28) 그들은 모든 선을 물리치고 악을 고를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멸망에 이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낮춥시다. 자기 자신의 지각으로 높아지려는 자는 마침내 모든 깨달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의 올곧음과 깨달음과 좋은 이성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분께 경의를 드려야 합니다. 적어도 그것이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이 그것을 우리 안에서 계속

하시고 우리가 그토록 특별한 선물을 남용하도록 허락하지 마시며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그 바른 쓰임에, 그렇습니다, 그분께 자신을 맞추고 그분의 가르침에 온전히 붙는 데 쓰게 해 주시기를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곧 우리가 그토록 많은 가엾은 소경이 들판을 가로질러 허둥대고,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며,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려 하고 바른 길을 보여 주어도 완전히 반대로 끌려가는 것을 볼 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그분께로 이끄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러하리라는 것을 잘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기로 초대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여 주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분이 우리를 거기로 이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요 6:44). 곧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앎에 그런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에 감동받고 우리 마음이 거기에 매인 듯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뒤에, 그분은 그와 함께 우리에게 선을 따를 감정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악인은 믿지 않으리라"는 이 말에서 좋고 유익한 가르침을 거둘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헛됨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특별히 덧붙여지는 것은, 사람이 악한 감정에 사로잡히고 많은 오류와 부패에 얽혀 있을 때 그가 절망한 사람처럼 되어서, 그에게 그의 오류를 보여 줄 접근로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미 헛됨에 속아 있습니다. 우리 깨달음에 어리석음과 CO 760 거짓밖에 없다고 말할 때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무엇을 가져옵니까? 여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때까지 진리가 이미 우리 안에서 자리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일반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악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 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우리 모두 이 정죄 속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헛됨에 속아 있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선하고 참되며 우리 구원에 유익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많은 속임에 꾀임을 당할 때 사탄은 곧 우리를 속였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여기 평생 단순하게 살았거나, 오래 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스무 살 된 어떤 젊은이가 있어서 처음부터 잘 길러졌고 사람들이 그에게 거짓 가르침이나 악한 것을 먹이지 않았다고 해 봅시다. 그는 선을 받아들이고 가르침을 잘 받는 자가 될 준비가 꽤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는 결코 선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본성은 악을 향하고 온전히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교하고 악의로 가득하며 우리가 교황주의자들에게서 보는 대로 악한 가르침과 미신으로 길러진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은 훨씬 더합니다. 오래 전부터 하나님을 거슬러 무장하고 그들의 오류에 휩쓸린 이 위선자들과 신심가들은 사탄의 그물에 자신을 얽어매는 데 그들의 모든 공부를 쏟아서 아무도 그들을 빠져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으로 보는 대로 그들이 훨씬 덜 믿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얼마간 단순함을 가진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렇게 오류에 스스로 속고 온전히 그것에 빠진 자들에게는, 그분이 기적적인 방식으로 일하려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서 선언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분이 좋게 여기시는 자들을 지옥 깊은 곳에서도 건져 내시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 그것은 알아보고 높일 만한 기적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 곧 악인이 헛됨에 속은 뒤에는 믿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판결을 오래전부터 악에 완고해진 자들 위에 집행하시리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복음을 아는 데로 이끄시고 우리가 거기에 붙을 감정을 가졌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우리는 또한 사탄이 우리 눈을 어지럽히지 않고 그가 와서 이런 오류와 속임을 CO 761 우리 앞에 두지 않도록 눈을 뜨고 있으라는 일깨움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꾀임을 당하고 속는 것을 참는다면, 악이 커져서 엘리바스가 여기서 말하는 그 극치에, 곧 우리가 모든 이성을 빼앗기고 더 이상 우리 구원에 좋은 것을 믿을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에 완전히 반대되는 데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무서운 복수에 떨어지고 싶지 않다면 그것을 앞질러 막읍시다. 어떻게 말입니까? 각자경계하도록 힘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세심하게 지키시는 이 직분을 맡으셔서, 사탄도 그의 모든 노력도 우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니, 이 약속을 확신하고, 그분이 그것을 이루시고 때와 장소에 맞게 우리에게 그 열매를 느끼게 하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가 말한 것으로 가 봅시다. 곧 악인이 더 이상 서 있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그 말은 '믿다' 처럼 그것을 담고 있고, '진리' 라는 말도 '굳건함' 을 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헛됨에 속았을 때 서 있지 못하리라는 것은 아주 참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헛됨이 그의 바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악인들이 머무를 곳이 없고 마침내 형통할 수 없으리라는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데 아주 알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들을 헛됨으로 돌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헛됨' 이라는 말은 여기서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악인이 헛됨에 속았을 때 서 있지 못하리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가 거짓으로 가득하고 그의 속임에 눈멀어 있어서 서 있을 수 없으리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헛됨이 (여기서 이 말이 뜻을 바꿉니다) 그의 바뀜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에게는 속임밖에 없으리라는 것, 그가 자기 욕구대로 무엇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의 고난 가운데 아무 구원도 도움도 찾지

못하며 그의 고통에 아무 처방도 찾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둘째로 '헛됨' 이라는 이 말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뜻에서 '바뀜' 이라는 말이 알맞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많은 격변을 거치게 하실 때, 그들이 이리저리 실컷 돌아다녔을 때, 그들이 어느 쪽으로 가든 늘 헛됨에만 떨어지리라는 것, 곧 그들이 그들의 모든 기대에서 꺾이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 눈앞에 멋진 소망을 두고 자기가 모든 것을 얻었다고 스스로 믿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손바닥만 뒤집으면 그들은 속은 것이 되고, 이것이나 저것을 기대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리석음일 뿐이라는 것을 잘 볼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하는 말을 요약하여 거두어 봅시다. "악인은 서 있지 못할 것이다." 곧 그는 그의 굳건함에 머무를 곳을 가지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CO 762 한동안 높여지고 개선 행진을 하더라도, 그들 안에는 굳건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그들을 격변을 거치게 하셔서 그들이 그들의 기대에 속고 기만당한 것을 발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도 우리에게 아주 유익합니다. 우리가 악인들을 시기하고 그들의 처지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결말을 기다릴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 그것에 대해 말하는 대로입니다(시 73:17). 우리 정신이 안식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든 자에게 마련된 결말을 몸서리치며 싫어하리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들의 기쁨이 울음과 이를 갊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기쁨을 저주하셨고, 그 끝은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현재의 것들만 붙잡고 그것을 좇아가며, 우리 욕구가 너무 끓어올라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에게 굳건함이 없으리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가르침을 그만큼 더 잘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판을 치고 편안하며 그러는 동안 우리가 울고 탄식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자신을 굴레에 붙들어 두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흐트러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 형통을 너무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위에 서도록 힘씁시다. 어떤 사람이 형통하더라도 흔히 말하듯 그의 좋은 운에 취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타락하지 말며, 오히려 그분 안에서 우리 기초를 찾읍시다. 그것이 없으면 굳건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여기서 덧붙이는 이유도 함께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곧 악인들의 바뀜이 헛됨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격변을 볼 것이고, 우리에게는 늘 일이 더 잘되리라고 생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늘 바람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실 때 그들은 대단한 것을 스스로 믿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계획에는 아무 실체도 굳건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컨대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뜻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악인이 그의 때가 이르기 전에 소멸되고, 그의 가지 가꽃피지 못할 것이며, 그가 그 설익은 열매를 빼앗긴 포도나무와 같고, 그 꽃을 떨어뜨리는 올리브나무와 같으리라고, 그렇습니다, 어떤 서리가 오면 그 꽃이 흘러내리고 그 모든 것이 멸망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로 엘리바스가 바로 앞의 명제, 곧 악인이 익기 전에 멸망하리라는 것을 확증하려 했다는 데는 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늘 우리가 CO CO 763 이미 한 말로 돌아오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악인에게 굳건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 눈앞에 두시면서, 우리를 영속하는 굳건함으로, 헛되지 않고 헛되고 하찮은 욕구로 우리를 간질이기만 하지 않을 굳건함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 헛된 상상으로 꺾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진실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가 그분과 그분의 사랑 위에 설 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분은 우리가 머무를 곳이 없는 데 머물려고 이 모든 것에 우리 자신을 바쳐서는 안 되며, 우리가 거기에 우리 정신을 매어 둔다면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분에게서 떨어져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좋은 시절과 행복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속임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에서 돌아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그의 때가 이르기 전에 멸망하리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가르침을 그만큼 더 잘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교들, 곧 그가 설익은 열매를 빼앗긴 포도나무와 같고, 때가 이르기 전에 꽃을 떨어뜨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올리브나무와 같으리라는 것이 덧붙여질 때, 그것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악인들에게 있을겉모습, 우리가 놀라고, 그렇습니다, 걸려 넘어질 겉모습을 표현하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곧바로 넋을 잃고 우리 안에 불이 붙어서 그들과 같아지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아무개 같지 않은가? 여기 이 악인은 그토록 편안한데 그러는 동안 나는 뒤로 밀려났다. 그리고 나는 그가 내 목을 밟고 있는 것을 보는데, 왜 내게는 복수할 수단이 없는가?"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자마자 우리 욕구는 분수없이 달아오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너희가 이 멋진 겉모습을 볼 때 얼마간 시험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람들의 탐욕은갑작스럽고 격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하냐? 너희는 설익은 열매를 빼앗길 포도나무를 본다. 그것이 싹을 잘 틔웠을 때 서리 한 번이면 된다. 혹은 그것이 이미 설익은 열매를 다 맺었을 때, 여기 폭풍이 떨어져서 모든 것을 긁어 가고, 거기에는 설익은 열매도 잎사귀도 남지 않으며, 여기 완전히 황폐한 포도나무가 있다. 여기 올리브나무가 있다. 그 아름다움은 어디 있느냐? 그 꽃에 있지 않으냐? 그런데도 꽃이 얼거나 어떤 폭풍이 떨어

지면 모든 것이 내려앉는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행복도 그러하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가엾은 무지한 자들의 생각으로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보다 더 바랄 만한 것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CO 764 그러나 그래도 꽃과 열매는 익기 전에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완전함에 이르기 전에 모든 것을 긁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완전함은 익기 전에 거두어지는 어떤 꽃이나 열매를 맺는 데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컨대 이것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이미 언급한 대로) 조금 전에 한 말을 확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나 짧은 시간만 지속되는 행복을 바라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복되기를 배웁시다. 곧 우리가 잘 기대어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그것이 하루만 형통하려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 가운데 형통하려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에게 많은 역경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고, 그분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으시고 더욱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선과 구원으로 바꾸시리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가질 때 만족할 거리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악인들이 오늘 편안하다면, 그들은 앞날에 대해 무슨 확실함을 가집니까? 시편에서 말하는 대로 그들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흔드실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더라도(시 10:6), 그래도 그들 안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하게 하시고 찌르시거나, 그들이 피할 수 없는 회오리바람 속에서 그들을 이리저리 흔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영속하는 행복을 가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분 위에 서야 하고, 그때 우리는 결코 쓰러질 수 없으리라는 것을 주목합시다. 우리는 시편의 다른 구절에서 악인들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이 베어지는 큰 나무들과 같아서 아무 흔적도 남지 않고

더욱이 그 뿌리가 뽑힌다고 하는 말을 압니다(시 37:35– 36).[163]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다윗이 말하는 대로) 늘 푸른 주의 집의 올리브나무와 같아야 합니다(시 52:8). 이 비유가 시편 1편과 예레미야서에서도 쓰이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피하며 그분께 달려 있다면, 우리는 늘 물을 공급받을 것이고, 시냇가나 강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그렇습니다, 푸르러지고 열매를 맺을 좋은 양분을 늘 가질 것입니다(시 1:3; 렘 17:8).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부패와 헛된 유혹에서 건지신 뒤에) 우리에게 이 영원한 행복을 내놓으시니, 우리가 거기를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각이 없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를 속이고 더욱이 우리를 CO 765 멸망으로 이끌 뿐인 우리 육의 모든 욕구를 벗어 버리기를 배우며, 우리 선이 어디 있는지 압시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곧 멋진 겉모습을 가진 것에 이끌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바스가 여기서 가져오는 이 비유들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워 보이는 올리브나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악인들 위에 가까이 있는 폭풍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짓누르시려고 거기 붙들어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안에 뿌리내리지 않은 모든 자가 익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며 오히려 갑자기 긁혀 나가리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들의 교만 속에 삼켜지리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지각과 어리석은 상상에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러나서, 우리가 아직 알아채지

163. 전자텍스트에는 시편 37편 3절로 표기되어 있으나, 큰 나무가 베어져 흔적이 없다는 내용은 보통 시편 37:35–36에 해당합니다.

못하는 것을 바라봅시다. 더욱이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을 알아서, 우리를 속이는 모든 헛된 생각에서 돌아서도록 합시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위선자의 집안이 황폐해지고, 불이 뇌물과 부패의 집을 삼키리라고 말합니다.[164] 이 '위선자' 라는 말 아래 엘리바스는 (다른 구절들에서도 뜻이 그러하듯) 하나님께 비뚤어지고 불충실한 마음을 가진 모든 자가 그렇습니다, 그들의 온 집과 무리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는 뇌물의 집이 소멸되리라고 덧붙입니다.[165] 그가 위선자들의 무리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악인들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큰 무리, 크고 긴 행렬을 가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소멸되기를 그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더 잘 표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악한 자들은 가엾고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아리와 패거리를 가져서 큰 겉모습을 이룰 자들이라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결합과 모임을 가질 것이고, 그래서 긴 행렬을 끌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엘리바스는 그 무리가 멸망하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결합되어 있으니 한동안 자신을 지키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무장하고 자기가 자신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 잘 생각해서, 그들 각자가 모든 악을 물리칠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모두 불태우려고 타오르고 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는 선지자가 악인들을 가시 다발에 견줄 때 그것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봅니다(나 1:10). 사람들이 가시덤불과 가시를 모아 다발로 묶으면, 그것들이 너무 얽혀 있어서 감히 CO 766 손을 댈 수 없고, 어느 쪽으로 잡아야 할지 모르며, 더욱이 가지 하나를 끄집어내려 해도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기에 불을 놓으면 곧바로 불이

164. 여기 전자텍스트의 'message' 는 1563년 초판(337쪽)에서 'mesnage' (집안)로 확인되어 그렇게 옮겼습니다. 설교 첫머리에 인용된 본문에는 '무리' (assemblee)로 되어 있습니다.
165. 여기서 '선물' (presens)과 '부패' (corruption)는 문맥상 뇌물을 가리킵니다.

붙고 터질 것이고, 그것이 매끄럽고 반듯한 나무일 때보다 훨씬 더 빨리 탈 것입니다. 악인들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가시와 가시덤불과 같아서, 그들이 얽혀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고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을 놓으실 때 그때 그 모든 것이 터져야 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그만큼 더 빨리 소멸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위선자들의 무리가 멸망하리라고 말하면서 뜻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는 악인이 큰 무리와 큰 패거리를 끌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를 하나님의 진노에 맞서 지키는 데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악인들이 이렇게 그들의 장비와 동맹과 패거리 속에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를 확신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것 때문에 갑자기 망하고 소멸되기를 그치지 않아서, 우리가 이것이 헛되이 말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가운데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선한 양심으로,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서로 도우면서 말고는 우리를 결합해 둘 다른 끈을 가지지 말라는 일깨움을 받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서로 그런 화합을 가져서, 각자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과 함께 충실하게 행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화합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과 불꽃 속으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뇌물 혹은 부패의 집이 멸망하리라고 말합니다. 약탈로 세워진 이 모든 건물이 멸망하고 저절로 허물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돌과 나무로 지은 그들의 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부패와 뇌물로 부자가 되고 이쪽에서 끌어오고 저쪽에서 빼앗으며 약탈과 사기와 폭력에 빠졌을 때 그가 무엇을 했겠느냐는 뜻으로 말합니다. 그는 나무를 모았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소멸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오는 작은 불꽃 하나면 될 것입니다. 나무가 없다면 불이 붙을 수 없겠지만, 악인들은 이쪽저쪽에서 그런 더미를 모아서 그것이 그들과 그들의 온 무리를 소멸할

그만큼의 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함과 꾸밈없음 가운데 행하도록 이 구절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악인들이 선물과 뇌물로 부자가 될 때 그 모든 것이 마침내 멸망으로 가리라는 일깨움을 받아서 우리가 그들을 시기하지 않게 합시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 부르심 가운데 행합시다. 재판의 지위에 부름받은 자들은 CO 767 부패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도록 살피고,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멀게 하고 올곧은 자의 판단을 비뚤어지게 한다"(출 23:8; 신 16:19)라고 하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온전함과 꾸밈없음 가운데 자신을 지키도록 모든 부패를 삼가야 합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사로운 지위에 있는 자들도 올곧음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각자 이렇게 살펴야 합니다. "자, 내가 악한 거래를 쓰려 하면 세상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께 정죄받은 것이니, 내가 그분의 진노를 나를 거슬러 지피는 것 말고 무엇을 하겠는가?" 그러므로 이처럼 모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굴레에 붙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악인들이 이리저리 낚아채고 선물과 뇌물로 많은 재산을 얻었을 때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 때, 이렇게 말합시다. "어쨌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분이 여기서 우리가 듣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 그리고 성령께서 엘리바스의 입으로 선언하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위협이 헛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집행이 그와 함께 결합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는 이쪽저쪽에서 빼앗고 약탈하는 자들을 볼 때 평온해야 합니다. CO 768 그것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런 질서를 두셔서 그들이 남의 비용으로 게걸스럽게 먹고 부자가 되려고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끌어오느니 차라리 빵을 먹고 적은 것으로 만족한 것이 그들에게 훨씬 나았으리라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야 하고, 그들의 집이 그들 머리 위에

무너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이 모은 재산이 그들에게 파멸과 멸망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동안 그런 성세를 누려서 그들의 처지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이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기만을 구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처지에, 우리 평생 동안만이 아니라 죽음 뒤에도 지켜질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늘 나라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더 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